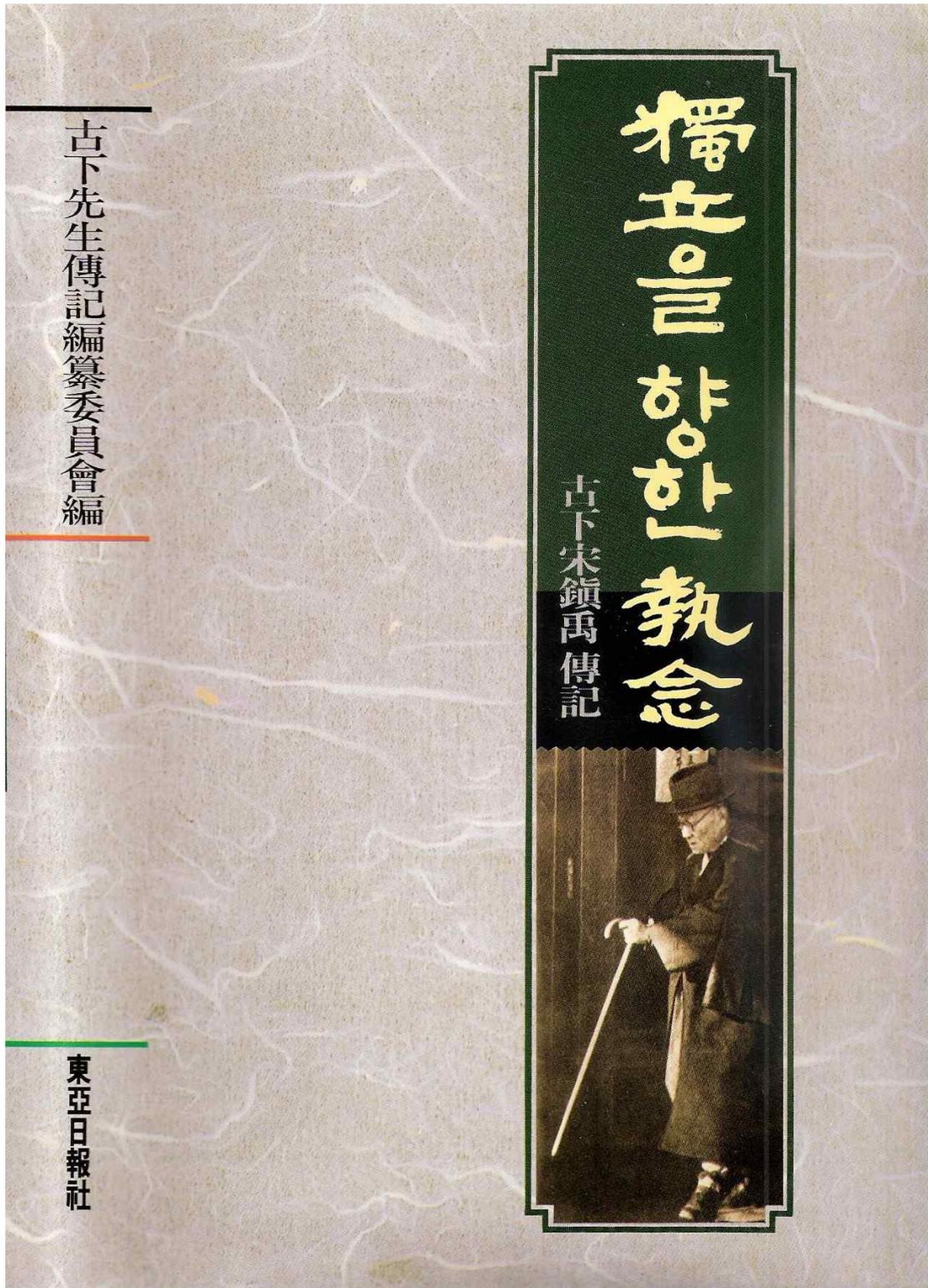


古下宋鎮禹 傳記 독립을 향한 執念

Volume One: The Will To National Liberation

- A Portait of Mr. Chinwoo Song -



刊 行 辭

금년은 古下 宋鎮禹선생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선생은 中央學校 校長으로서 3.1운동을 주도하였고 東亞日報를 짊어지고 우리 民族史上 가장 어두웠던 日帝 36년간 이 겨레를 지켰으며 해방후의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닦은 民族史의 巨人이다.

선생이 해방후 비극적인 암살로 마감한 쉰 다섯 해의 짧은 생애는 역사의 어둠속을 헤치면서 獨立에의 긴 旅路를 줄달음쳐온 國權회복의 一生이었다. 선생은 이 민족에게 실로 모든 것을 바치고 갔다.

古下 宋鎮禹선생의 위대한 업적과 사상을 뚜렷이 나타내기 위하여 마침 創立 70주년을 맞은 東亞日報社는 그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古下선생 탄신 100주년 추모행사를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평소에 선생을 따르고 모시던 분들이 말씀하는 선생의 생애와 사상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古下선생에 관한 3권의 책을 펴냄으로써 이 위대한 선각자의 탄신을 축하하는 행사를 갖게 되었다.

첫째는 古下선생의 傳記이다. 古下선생의 전기는 1965년에 본사에서 출간한 바 있으나 수집했던 자료가 해방후에 불에 타고 6.25사변에 망실된 상황에서 당시 생존자들의 구술과 새로 입수된 자료를 토대로 펴낸 것이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후 古下선생기념사업회에서는 좀더 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하고 애매한 곳을 명확히 하며 문장을 가급적 쉽게 한글로 풀어씀으로써 1965년판의 2배 가까이 증보한 新刊을 내게 되었다.

둘째는 古下선생의 文集이다. 혹독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고 글로 발표하는 일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古下선생과 같은 민족지도자로부터 간단한 안부편지를 받는 것조차 주목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古下선생이 남기신 글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일제시대의 신문.잡지 등에 기고하신 글들을 수집해 본 결과 일찍이는 1915년 《學之光》이라는 동경 유학생들의 기관지에 실린 <思想改革論>에서부터 앙케트에 대한 응답이나 간단한 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편수의 논문을 발굴해 낼 수 있었다. 古下文集은 이같은 각종 논문 이외에 古下선생과 대담한 기록이나 후일 다른 분들이 선생에 관하여 집필한 人物評과 逸話 기타 關連자료도 힘닿는대로 수집하여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셋째로는 <古下 宋鎮禹評傳: 민족민주주의의 언론인.정치가의 생애>이다. 이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현대정치사를 연구하여 人物評傳을 저술해온 金學俊교수가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집필한 評傳이다.

이 세권의 책은 古下선생이 독립항쟁과 민주건국의 민족사에 남기신 지대한 공적과 심오한 사상을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문헌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아니하여 선생의 탄신 일세기를 기념하여 발간하게 된 것이다.

아무쪼록 이같은 귀중한 문헌이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널리 읽혀지기를 바라고 현명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비판을 기대한다.

1990년 5월

東亞日報 社長

金炳瑄

차 례

刊行辭	金炳瑄
古下 宋鎮禹先生傳을 내면서	高在旭
序	金俊淵
序	高在旭

책머리에 : 묘비명(墓碑銘)을 통해본 일대기

1. 한문비석(정인보 글짓고 쓰다)
2. 한글비석(이희승 번역)
3. 고하 동상 병풍석에 새겨진 일대기(一代記)

제1장 사상(思想)의 형성(形成)

1. '금가지' 소년
2. 스승 기삼연(奇參衍)의 가르침
3. 신학문의 배움터로
4. 인촌(仁村)과의 친교
5. 동경유학의 큰 뜻
6. 이국(異國)의 학창
7. 망국의 한
8. 유학생 친목회와 잡지 《학지광(學之光)》

제2장 3.1 운동과 중앙학교

1. 중앙학교(中央學校)의 중흥
2. 피끓는 청년 교육자
3. 내일을 위한 기초학생조직
4. 3.1 운동의 책원본부(策源本部)
5. 동경 '2.8 선언' 전후
6. 천도교와 기독교 등의 합류
7. 아! 기미년 3월 1일

제3장 옥중(獄中)에서

1. 조서(調書)를 중심으로
2. 예심결정서(豫審決定書)를 중심으로
3.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4. 판결문을 중심으로

제4장 동아일보를 짊어지고(上)

1. 옥중에서 들은 동아일보 창간
2. 동아일보 사장취임
3. 민립대학(民立大學) 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 전후
4. 육혈포 협박사건과 언론압박탄핵 민중운동

5. 조그만 시련
6. 범태평양회의의 참석
7. 명논설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8. 동아일보 2차 정간과 옥고
9. 신간회(新幹會)와 고하

제5장 동아일보를 짊어지고(下)

1. 타고르의 시
2. 이충무공 유적보존운동
3. '브나로드'운동
4. 만보산 사건(萬寶山事件)과 소위 만주사변
5. '신동아(新東亞)'지와 '신가정(新家庭)'지
6. 새 한글맞춤법의 보급과 신사참배 거부문제
7. 일장기 표지(日章旗標識) 말소사건

제6장 일제의 최후발악

1. 중일전쟁
2. 동아일보 강제폐간
3. 봄을 기다리며
4. 일축한 정권이양 교섭

제7장 해방된 조국

1. 아아, 8월 15일
2. 고하와 몽양
3. 국민대회 준비회와 한국민주당의 결성
4. 미군정과 동아일보 복간
5. 고하와 우남(雲南)
6. 고하와 임정(臨政)
7. 운명(殞命)-최초의 정치암살

年 譜

《古下宋鎮禹傳記》를 내면서

10년의 시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 말이 있는데 古下선생께서 적 아닌 적에게 그 생애를 마친 지가 어언 20주년이 지났다.

“조선은 宋鎮禹씨의 불행한 별세로 말미암아 큰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조선독립을 하루 빨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오히려 독립하기 위하여는 좀 더 많은 시련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흥행자들은 조선독립을 지연시키는 것 외에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이 고하 장례식에서 한 조사(弔詞)의 한 토막이다.

고하선생이 세상을 떠나게 되신 후 선생을 추모하고 선생을 아끼는 선배·동지·후배까지 힘을 합쳐서 하루빨리 그 어려울 때마다 현명한 길을 밝혀주시던 선생의 기록을 엮어서 선생을 알고자 하는 인사에게 알려주고자 하였는데 이제야 겨우 그 결과를 보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그간의 사정을 보고하여 이 전기를 읽을 분의 참고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이다.

선생 별세 당시는 신탁통치 문제로 국내는 반탁(反託)·찬탁(贊託)으로 혼란을 극한 때이었고 혹한 氷下 20도의 추위에 고인의 유해를 선생의 필생의 동지이신 仁村과 街人 두 선생이 현지를 답사하고 결정한 망우리 장지에 장사한지 두달 후인 1946년 3월 ‘古下先生 遺蹟顯彰會’가 國民大會 準備會와 韓民黨, 그리고 그밖의 유지들의 합석회의에서 결정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顯彰會 위원은 두 단체에 소속한 분들 외에도 많은 인사가 참가하였다. 이러한 회합에서 결정한 일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비용의 각출과 추진하는 인사가 언제나 앞을 서게 된다.

정세가 지극히 혼란하고 어떠한 사태가 언제 벌어질는지 모르는 험악한 시기였다.

현창회는 망우리 묘지에 우선 표적을 하기 위하여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 선생의 문(文)과 서(書)를 겸한 수고를 빌어 작은 碑石이나마 표적을 남길 수가 있었다.

그리고 곧 전기(傳記)를 편찬하기로 되어서 편찬위원으로는 김준연(金俊淵)·장택상(張澤相)·정인보(鄭寅普)·설의식(薛義植)·유홍(柳鴻)·김용완(金容完)·강병순(姜柄順)·고재욱(高在旭) 등 외에도 많은 인사가 선정되었다. 편찬사업은 곧 착수되어서 김준연·고재욱이 실제 담당간사로서 일을 보게 되었다. 전기를 편찬하는 것은 글을 잘 쓰는 것으로만도 될 수 없을 것이며 전기로서 역사적 또는 사회적 가치와 또 전기 인물의 사실적인 표현과 그리고 독자를 위하여는 문학적인 흥미도 겸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맨 먼저 부딪친 난관이 집필자를 선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여러가지로 논의한 결과 첫째, 전기 인물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문학적 소양이 많고 또 《김좌진 장군전(金佐鎭將軍傳)》을 쓴 일이 있고, 일부 인사들의 반대로 우남(雲南 李承晚) 전(傳)을 쓰고도 출판할 하지 못하였지마는 그러한 실적이 있는 시인 서정주(徐廷柱)씨에게 기록을 위촉 담당시켰던 것이다. 1947년 봄의 일이었다.

고하선생의 생애가 원래 비밀을 생명과 같이 알아야 하는 일제시대의 민족지도자였던 관계로 실재한 기록을 찾기에는 극난의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동아일보 지상에 사소한 일이라도 고하선생께 관계된 것이면 협조·통보를 바라는 광고를 내고 하여 각계 인사들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귀중한 증거물이 모여 왔다. 그러나 체계있는 전기 기록을 꾸미기에는 너무도 단편적인 것이었다.

필자 서정주씨는 편찬회의 뜻한 바를 존중하여 당시 생존하여 계신 여러 인사에게 구술을 받기 시작하였다. 소란한 신탁통치문제가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를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좌우의 대립은 더욱 심하여지고 그리고 1년 이상을 끌어오던 이 회의가 분열되고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이 분명해지면서 국내에는 10.1 대구 폭동사건 등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험악한 정세로 인하여 국민전체가 한동안 어리둥절하고 지냈다.

1948년 역사적 5.10 선거가 실시되고 남한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그리고 여·순반란사건이 진정된 후에 이 전기 편찬의 일은 실질적으로 착수된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 불행중의 불행한

사태가 돌발하였으니 그것은 그동안 모여진 증빙물을 보관하고 있던 東亞日報 발행소(舊京城日報社)가 공산분자의 방화로 모든 시설이 소실되면서 선생에 대한 기록도 오유가 되었던 일이다. 이 방화는 東亞日報를 없애어 5.10선거를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고하선생 관계의 기록으로는 故 차상찬(車相讚)씨택에서 《개벽(開闢)》지 등에 게재된 선생의 글과 기록을 정성껏 모아서 한뭉음 보내온 것과 필화사건으로 옥중에서 고생하실 때 인촌선생에게 보낸 친필 서한, 그리고 그밖에 모아진 선생의 시축(詩軸), 사진 등 허다한 기록을 소실하게 되어 전기편찬은 일대 암초에 걸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부득이 다시금 소년시절 이래 동지였던 인촌(仁村)선생을 비롯하여 고하선생이 동아일보사 사장이 되신 이래 24, 25년간을 한결같이 친교가 있고 또 박학강기(博學強記)로 유명한 정인보(鄭寅普)씨외, 김병로(金炳魯), 백관수(白寬洙), 노병권(盧秉權), 현상윤(玄相允), 김준연(金俊淵), 장택상(張澤相), 현준호(玄俊鎬), 김동원(金東元), 서상일(徐相日), 구자옥(具滋玉), 설의식(薛義植)씨 등 고하선생을 알고 친교가 있던 인사라면 누구를 물론하고 찾아가서 직접 그분들이 보고 들은 바 선생의 일생에 겪으신 여러 가지 경우의 기억을 구술받아 모아놓은 것이 완전한 것은 되지 못하나마 선생의 편모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노트에 기록되어 이의 정리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 또 봉착한 것이 편찬의 경비 각출이었다. 선생을 흠모하는 고광표(高光表), 김상만(金相萬), 김상형(金尙衡), 김승태(金昇泰) 등 몇 인사의 찬조를 비롯하여 그밖의 여러분의 도움으로 노트를 정리하기 시작한지 얼마후인 1950년 6.25 동란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서로 동서,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고 1.4 재후퇴 후 한참만에 집필자 徐씨가 전주에 피난하여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집필을 요청하였으나 徐씨는 전쟁에서 받은 정신적 타격인지 그의 건강은 집필을 할 수 있는 형편에 있지 않았고 1953년 수복 후에도 그의 건강은 쉽게 회복을 못보았기 때문에 부득이 집필자를 달리 구하여야 하게끔 되었다. 그동안 부산 피난시 얼마를 제하고는 매년 기일이면 추념식(追念式)을 유지(有志)들이 거행하는데 그때마다 전기 편찬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인에게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나 추모식 회합 인사들에게 죄스러움을 금하기 어려웠다.

여러가지 곡절을 거쳐서 전 집필자인 徐씨에게서 노트와 그동안 일부 집필한 원고를 인계받게 되자 그 다음에는 소설가 이무영(李無影)씨에게 그 수고를 위촉하였다. 1956년의 일이었다.

이무영이 담당한지 2년후 일단 원고는 탈고를 보았고 그 원고를 후일 다시 선정된 전기편찬위원들, 즉 최두선(崔斗善), 김준연(金俊淵), 장택상(張澤相), 주요한(朱耀翰), 유희(柳鴻), 김용완(金容完) 등 제씨와 필자도 그중 한 사람으로서 원고의 회람 수정 등으로 근 2년을 경과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유족의 의견을 참고하고 또다시 검토하여 선생의 유덕에 흠이 적게 가도록 노력하여 본 것이 이 기록이니 독자의 넓은 이해를 바라 마지않는다.

역사학자로서 위당(爲堂)은 선생을 평하여 “그 지조(志操), 도량(度量), 판단력(判斷力), 식견(識見), 통솔력(統率力)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충무공 이래의 처음 인물이며 그후 언제나 이런 위재(偉材)를 우리나라가 가질 것인가”하고 선생을 추모하곤 하였다.

선생께서 가신지 20주년이 지나서 오히려 더욱 선생의 존재가 아쉽고 한스럽기만한 그 위대한 자취를 다 기록하기엔 너무도 어려운 일이며 더욱이 일제 36년간 국내에서 산 기록 그대로이신 그 흔적을 수록하기에도 어려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후일 남북이 통일되면 좋은 자료가 더 많이 모아질 것일 확신하거니와 더욱 토막토막이기는 하나나 우선 이 정도로 선생의 편모를 국민에게 전하려 하며 오직 불안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1965년 12월

古下先生傳記編纂委員

高在旭

序

1945년 12월 30일 오전 6시 15분에 고하 송진우(古下 宋鎭禹) 선생은 56세를 일기로 불의의 참변에 의하여 급서하셨다. 해방된지 5개월도 채 못되어서였던 것이다.

교육가로서, 언론인으로서, 정치가로서,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해서 민족지도자로서의 선생은 양지유고(仰之愈高) 찬지유견(讚之愈堅)이라고나 할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

독자가 선생의 전기를 상독(詳讀) 음미하여 보면 이런 점이 자연히 해득(解得)될 줄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나는 장황하게 서문을 횡설수설 늘어놓는 것을 피하고 다만 지식인들이 전기를 일독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1965년 9월 3일

金俊淵識

序

고하 송진우(古下 宋鎭禹)선생과는 나는 유다른 인연이 있었다. 학창시절에는 대선배로 선생의 지도를 받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상사로 그분을 모셨다.

선생의 덕망이나 금도(襟度)에 대해서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거니와 세계 대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역사의 진운에 대한 예리한 선견은 단연 타의 추종을 불허(不許)하였다.

선생은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선생과 더불어 형영상반(形影相伴)하여 뜻을 조국의 광복에 두고 일신의 안위를 초개같이 여기면서 암담한 속에서도 희망을 제시하여 곤고(困苦)에 처해서는 스스로 선봉이 되어 이를 감내하였다.

선생이 동아일보를 이끌고 일제의 식민통치에 시종일관 항쟁하고 민중의 각성을 외친 것도 조국광복을 위한 일념의 발로였다.

돌이켜보면 선생의 생애 55년은 일직선의 강직 그것이었다. 불의와의 타협을 몰랐고, 동요를 몰랐고, 더구나 굴종(屈從)이란 선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어휘였다. 실로 선생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암흑기에 민중과 더불어 있으면서 낙망, 좌절이 일세를 휩쓰는 가운데서도 앞날을 똑바로 내다보고 군계일학(群鷄一鶴)같이 특립(特立)하여 항시 조국광복의 등불을 밝힌 선각자였다.

세태가 어지럽고 인심이 날로 각박하여 방향타를 잃은 일엽주를 방불케 하는 작금에 있어서는 더욱 선생의 풍모를 연상케 되고 그 적확한 선견과 청탁을 병탄(併呑)하는 고사지풍(高士之風)이 아쉬울 뿐이다.

만약 선생이 지각없는 흥한의 총탄에 쓰러지지 않고 절세의 경륜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면 우리 역사의 진로도 달라졌고, 오늘의 현실도 다르지나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다.

선생이 가신지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 전기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도 그 동안의 모진 세파의 탓이라 하더라도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없지 않다. 후세에 깊이 전승되어 귀감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이다.

1965년 9월 5일

後學 高在旭 識

앞머리에:

墓碑銘을 통해 본 一代記

1. 고하 송진우(古下 宋鎭禹)가 간지 많은 세월이 흘렀다. 고하는 1945년 12월 30일 자객의 흉탄에 쓰러진 뒤, 서울 교외 망우리 뒷산 산정에 자리잡은 5백여평의 남향 유택(南向幽宅)에 고이 잠들었다. 묘소에는 고하의 친우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가 글짓고 글씨 쓴 한문 비석이 1946년 10월에 세워졌다. 이 비문은 고하의 인간과 업적 - 교육자로서의 고하, 언론인으로서의 고하, 항일투사로서의 고하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고하의 일대기(一代記)이다.

2. 고하를 창황중에 망우리 공동묘지에 모신 것을 송구하게 생각한 동지와 후배들이 고하 송진우선생 천장추진위원회(遷葬推進委員會; 위원장 崔斗善)를 구성하고 각계의 성의를 모아 1966년 11월 11일 서울 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산 43-2번지 지향산 기슭에 천장하고 1967년 10월 20일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의 한문비석을 한글로 번역한 국문비석을 추가하여 건립 제막하다.

3. 1983년 9월 23일 고하의 유덕을 기리는 각계 유지들이 고하 송진우선생 동상건립 위원회(명예위원장 尹漣善; 위원장 兪鎭午)를 조직하고 각계 각층의 성의에 힘입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능동 소재 어린이 대공원에 고하 동상을 건립하여 제막하다.

4. 고하의 신정동 유택이 부근의 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정숙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해쳐짐에 따라 유가족과 동지 및 후배 여러분의 발의에 의하여 고하 송진우선생 천묘장의위원회(遷墓葬儀委員會; 위원장 尹漣善)를 구성하고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서울특별시 동작동 소재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 옮겨 모시기로 결정하다. 이에 따라 고하의 98회 탄신일에 약 일주일 앞선 1988년 5월 3일 천묘장의(遷墓葬儀)의 의식을 거행하다.

5. 1988년 5월 3일 동작동 국립묘지로 천장시 위당 정인보의 글과 글씨로 지어서 망우리에 건립하였던 한문비석과 양천구 신정동으로 제1차 천장시에 번역하여 건립된 한글비석은 그 크기가 국립묘지 규정에 어긋나서 함께 옮겨모시지 못하고 경기도 성남시 남서울공원묘지 안의 고하의 유가족 묘지에 따로 옮겨 세웠다.

고하가 생존한 최근세 50여년간은 한국 역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혼돈과 파란이 중첩한 시대로서 고하의 생애는 이 거칠은 물결에 따라서 파문을 그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고하의 다사다난한 생애를 알자면 우선 고하의 생존한 50여년간의 혼돈과 파란, 그리고 위기에 처했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곧 고하의 일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인간과 업적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앞머리에 국한문 비문과 동상에 새겨진 일대기를 서론삼아 여기에 소개한다.

1. 古下先生 宋君之碑

友人 東萊 鄭寅普. 撰文書丹并篆額.

世亂之久. 士患不自樹. 即矜於節. 又鮮克以幹猷濟. 其兼而具者. 以普朋游. 有古下宋君. 君諱鎮禹. 生湖南之潭陽. 甲午難時五歲矣. 既而鄉先輩多糾義. 雖敗. 風烈馳被林丘. 故君志嚮夙兆. 父孺. 文儒才. 君幾淬其良. 會. 昌平高氏. 延師教孀英吉利語. 君亦從受焉. 高氏孀. 卽金君性洙. 二人深相得. 同學日本. 歸. 同辦中央學校. 又同立東亞日報. 其他大小. 無不偕. 校與報. 最聞. 又最勞君. 君間投獄者再. 金君輒代爲長. 以侯君. 君所治法科. 然尤留心經世方略. 喜談史感慨. 己未獨立宣言之役. 君在中央校已三年. 前年歐戰息. 民族自決議起. 遠近竊竊相咨報. 皆以中央校爲歸. 而校有特室待直夜. 君所處也. 金君與玄君相允恒在. 謂“戰端未自哲人. 其波及吾者淺. 然既已言自決. 乘今而動. 卽徒死. 猶階後.” 而域內方重足. 多以自於外便. 君力主自內. 卒皆同於君願. 事祕. 無所得衆. 君介玄君. 展轉以通天道教. 中斷且連. 而君所教. 舉拒腕. 既旦諸校氣類密布. 先是. 遊學生在江戶者. 謀欲發. 至是. 潛來求鉛活字. 亦因玄君. 以達君. 則冬一月也. 二月. 李公昇薰. 至自定州. 會金君所. 君告以故. 曰. “諾. 老夫今行矣.” 數日復至. 則出囊倒寫. 皆私印也. 曰. “京以北牧師. 長老著者. 盡是皆許吾矣.” 李公因自往見天道教主. 促之合. 佛教亦應. 其資齋南北. 多由金君. 聯絡諸教. 又多由玄君. 至策應滬. 江戶. 北美. 部署學生. 皆君總之. 三月一日. 宣言書發. 署名者被執. 君任後事. 後五日逮. 在獄凡三年. 出未幾. 長東亞日報. 君開爽. 而內善綜理. 報始紉於用. 君治之久. 能長財. 間推李公代. 李公去. 又爲長. 其接衆. 汎敬盡歡. 遇可否. 輒嶽嶽. 用是多忤. 然己未以後. 其秉大義以言亢宗者. 君實爲之雄. 報與日法吏冰炭. 記者數繫. 君嘗爭諸警務局. 至夜分歸. 則一子暴疾. 不時治殤矣. 普始與君汎汎. 君之以汎太平洋會議赴布哇也. 一別於京驛. 丙寅大喪. 君有密畫. 緣友某以及普. 事未就. 然義同夷險. 由是. 交漸密. 是歲. 西人某. 寄書報. 激吾人以繼厲. 君促使揭. 日人惡之. 報停. 旋解. 而君坐罰. 作踰年然後已. 久之. 或電傳“滿洲萬寶山田主. 殺韓佃戶. 盡矣.” 有報受而張諸紙. 衆大譁. 爭聚擊華賈. 君歎曰. “誰爲此間. 今若是. 是代仇相殘也” 亟質言而播布之. 且慰遺華人. 信至. 果日軍僞爲之. 李忠武後孫貧. 邱壘幾不守. 君集衆助. 返其券. 益置祭田. 建顯忠祠. 凡以報功作民. 而志士俠烈孤嫠之養. 與夫遠逮久繫. 通問訊. 資衣 必曲爲措注. 日人任韓事者. 前後五六輩. 君以爭而熟. 皆重君能. 欲賄之. 百方無所撓. 酒後絮言. 時自譽. 知者. 不謂過也. 自中日戰開. 燦延英美. 淫威益逞. 報廢. 君拘且二旬. 往時同志. 或冒然爲仇役. 而君委它避污. 終乃引被自覆. 不見人. 日降前數日. 日總督以下. 得報慌懼. 密邀君. 委以治安. 君辭. 謂所知曰. “吾事當自吾. 焉有受敵委. 以爲治者哉.” 降問至. 世事驟張. 君臥如故. 踰月起. 欲召集國民大會. 尋推主民主黨. 揶拄重慶臨時政府. 既而. 粵南李公自美至. 白凡金公自重慶至. 識益明. 而忌者磨牙環起. 十二月二十八日壬申. 報美英中蘇限年管轄之議. 癸酉. 君謁金公. 謀舉國民而拒之. 甲戌未明. 君方寢. 特拳銃者入. 被數丸氣絕. 年僅五十六. 配. 柳氏. 無子. 以兄子英洙. 爲嗣. 君長中人豐白. 少須眉. 目長垂末蹙於眇. 若細而顧眇有威. 弱歲涉難. 中間世故轉謬. 一持樂觀. 謂“敵亡可立俟.” 金君嘗戲謂普. “勿信古下言. 立俟者. 今何如.” 而君在報社所論載中國現狀與世界前途. 歷二十年而無不合. 其長識如此. 君人才也. 方因於踟躕. 而猶以所守. 馭其猷. 乃漆齒初駝. 駸駸雲蒸龍變之會. 而蚴蟉遽折. 嗚呼. “殄瘁”之詩. 周人已云. 然其時. 又未必如今也. 恫夫. 沒五日. 金君會同人. 葬之楊洲忘憂里. 銘曰. 朝之言. 立吾祗. 夕之言. 匪非類. 笑敖不踰. 酣號爰在. 歷之累紀. 載之萬變. 握臂憤山憤海爲顛. 苟非結乎至衷. 曷以貞夫始終. 哀吾道之蹇連. 忍使君爲文中之人. 檀君紀元四千二百七十九年十月 日建.

2. 고하(古下)선생 송군(宋君)의 비(碑)

세상 어지러움이 오래이면 선비는 스스로가 뜻을 세워 가지 못할까 근심을 하거니와 혹 절조를 사랑할 수는 있어도 지략과 포부를 갖춘 이는 드문데, 그 절조와 포부를 겸해 갖춘 이로 내 친구 중에 고하(古下) 송군(宋君)이 있다.

군의 휘(諱)는 진우(鎭禹)로 호남 담양에서 태어났다. 갑오(甲午=1894) 동학난리 때에는 다섯살이었다. 그때 많은 동향 선배들이 의병을 일으키니, 비록 싸움에는 패했으나, 그 의열(義烈)이 산천에 덮였으므로 군의 뜻하고 향하던 바는 이리하여 일찍부터 싹텄다.

아버지 훈(壘)은 글하던 선비였으므로 군은 그 장점을 이어받아 힘을 쓰던 중에 마침 창평(昌平) 고을 고씨(高氏)가 스승을 청하여 그 사위에게 영어를 가르치니 군도 또한 좇아 배웠다. 고씨의 사위는 곧 김성수(金性洙)군이였다.

두 사람은 깊이 서로 친하여 일본에서 배우고 돌아와서 같이 중앙학교(中央學校)를 세우고 또 같이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를 설립했으며, 그밖에도 크고 작고간에 같이 일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그 중에도 학교와 신문이 가장 이름난 것이었고 또한 군이 가장 힘을 들인 것이였다. 군은 그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두 번, 그때마다 김성수군이 곧 대신 사장이 되어서 군이 옥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군이 배우기는 법과(法科)였지만 더욱 경세(經世)의 방략(方略)에 유의하고 역사를 담론하며 비분 강개하기를 좋아했다.

기미(己未=1919) 독립선언때 군은 중앙학교에 있는지 이미 3년, 전해에 구주대전(歐洲大戰)이 끝나고 민족자결의 논의가 일어나니 원근에서 은밀히 서로 연락을 하되 모두 중앙학교로 집중이 되었다.

학교에는 숙직하는 방이 있어 군의 거처하는 곳이었고, 김성수군과 현상윤(玄相允)군이 항상 여기에 모였다. 이들이 서로 말하기를 "전쟁은 백인(白人)에게서 일어났으므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겠지만 이미 '자결'이라고 하였으니 이 기회를 타고 일어나면 헛되이 그대로 죽더라도 후일을 위한 길은 열린다"고 했다.

이때 국내는 꿈쩍도 못할 형편이라 국외에서부터 거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중의(衆議)였으나, 군은 국내부터 일으킬 것을 역설하여 마침내 모두 군의 의견에 동조하게 되었다.

비밀 운동이라 대중을 끌어들이길 길이 없었으므로 군은 현상윤군을 중간에 넣어 여러 고비를 겪어서 천도교와 기맥을 통하게 되고, 그것도 중단이 되었다가는 다시 연결이 되곤 하였다. 군은 동지들을 분발케 하여 각 학교에 동지들이 많이 들어박히기에 이르렀다.

이보다 먼저 동경 유학생들이 일어나기를 꾀하여, 이에 은밀히 사람을 서울로 보내어 연활자(鉛活字)를 구하니, 이 때에도 현상윤군을 통하여 군이 이것을 알게 되었다. 때는 1월이였다.

2월에 이승훈(李昇薰)공이 정주(定州)에서 올라와 김성수군 댁에 모였다. 군이 거사계획을 알리니, 이승훈공은, "좋소. 내가 곧 돌아갔다가 오리다"하고 수일 후에 다시 와서 주머니를 털어 놓으니 모두 도장이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서울 이북의 목사 장로 중 저명한 자는 모두 나에게 거사에 가담할 것을 승낙하였다"고 하였다. 이승훈공은 곧 천도교주를 찾아가서 운동의 합동을 촉구하고 불교계 역시 호응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남북으로 연락하는 비용은 대개 김성수군이 대었고, 여러 교파와의 연락은 현상윤군이 맡았고, 상해, 동경, 북미와 연락하는 일, 학생들의 부서(部署)를 정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송군이 총책임을 졌다.

3월 1일 선언서가 발표되고, 선언서에 서명한 이들은 모조리 붙들렸다. 군은 뒷일을 맡기로 되었으나, 5일 만에 붙들리어 옥에 있기 무릇 3년이였다.

옥에서 나오자 얼마 되지 않아 동아일보 사장이 되었다. 군은 개방적이고 호탕하지마는 안으로

행정에서 능하여, 신문사가 그 초창기에는 재정이 궁색했으나 군이 오래 일을 보면서 넉넉하게 되었다. 잠시 이승훈공을 사장으로 추대하였으나, 이공이 사면하면서 다시 사장이 되었다.

군은 여러 사람을 대할 때 누구나 공경하고 마음껏 즐겁게 하였지만, 가부를 결정할 일을 당하면 곧 굳세게 주장을 하므로, 이로 인해서 남과 거슬리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기미(己未) 이후로 대의(大義)를 잡고 언론으로써 거래의 앞을 가로막고 나선 이 중에는 군이 실로 제1인자였다.

신문과 일경(日警)과는 빙탄(氷炭)처럼 서로 용납이 되지 않아 기자들이 자주 불들리어 갔다. 한번은 군이 경무국(警務局)에 가서 밤늦게까지 다투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외아들이 급환에 걸려 불시에 그만 아들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나와 군과는 처음엔 범범한 사이로서, 군이 범태평양회의(汎太平洋會議)로 하와이로 떠날 때 서울역에서 한번 전송한 일이 있었는데 병인(丙寅=1926)년 순종황제 국상(國喪)때 군이 비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친구를 통하여 나에게 의논하여 왔다. 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결과가 평온했건 험악했건 정의(情義)는 마찬가지로여서 이때로부터 점점 친교가 두터워졌다.

그 해에 서양인 모(某)가 신문에 기고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 힘 쓸 것을 열렬히 권고해 왔다. 군은 재촉하여 그것을 게재케 하니 일인(日人)이 미워하게 되어 신문은 정간이 되고 곧 해제되었으나 군은 그로 인해 별을 받아 해를 넘긴 후에야 풀려 나왔다.

얼마 후 어떤 통신이 만주 만보산(萬寶山)에서 중국인 지주가 한인(韓人) 소작인을 모조리 학살했다고 전하니, 이 통신을 받아 이것을 크게 보도한 신문도 있어서, 이에 민중이 크게 소동을 일으켜 다투어 화상(華商)들을 습격했다. 군은 탄식하면서 "누가 이런 이간을 하였는가. 이것은 원수를 딴 곳에 두고 공연히 상잔(相殘)하는 짓이다"하고 급히 실정을 밝히는 글을 신문에 실는 동시에, 화상들을 찾아서 위문도 하였다. 그 뒤 자세한 소식에 의하여 이 사건은 일군(日軍)이 일부러 꾸민 일임이 드러났다.

이충무공의 후손이 가난에 시달리다 못해 위토까지도 수호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군은 널리 기부를 거둬서 그 문권(文券)을 도로 찾고 제전(祭田)을 더 장만케 하고 현충사(顯忠祠)까지 세웠으니, 무릇 선열의 공에 보답함으로써 민심을 진작하기 위함이었다. 애국열사 유가족의 부양이라든가, 혹은 먼 곳에서 불들려 왔거나 감옥살이 오래 하는 동지들에게는 면회를 하고 의복 음식을 차입하는 등, 자상하게 뒤를 돌보기도 했다.

일인(日人)으로 한국일을 맡았던 총독이 전후 5, 6명, 군은 이들과 다투는 가운데 서로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군을 중히 여겨 매수를 하려고 백방으로 손을 써도 여기에 휘어넘어가는 일이 없었다.

술 먹은 뒤에는 말이 많고 가끔 자기 자랑도 나오곤 하였지만, 군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과하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중일전쟁(中日戰爭)이 벌어져서 불꽃이 영(英).미(美)국까지 번진 뒤에는 일본의 행패가 더욱 심하여지더니 마침내 신문이 폐간되고 군도 구속되어 20여일을 옥에 갇혔다. 이때 동지 중에는 불근신하게도 적을 위해 일을 하는 자도 나타났으나, 군은 탄청으로 더러운 것을 피하다 못해 이불을 뒤집어쓰고는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

일인이 항복하기 수일전, 일제 총독과 그 부하들이 항복 소식에 접하자 황급히 군을 몰래 청하여 치안을 위임하니, 군은 이를 거절하고 친구에게 말하기를, "우리 일은 마땅히 우리가 할 것이지 어찌 적의 위탁을 받아 다스릴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일본 항복의 소식이 들어오자 세상일이 모두 부풀어오르기 시작했지만, 군은 전과같이 일체 모르는 체 하다가 1개월만에 국민대회 소집을 계획하고, 이어 민주당(民主黨)의 당수로 추대되어 중경(重慶) 임시정부(臨時政府)를 지지하기에 이르렀다. 미구에 우남 이승만(李承晩)공이 미국에서 오고 백범 김 구(白凡 金九)공이 중경에서 들어 왔다. 군의 주장이 더욱 분명해지자 그를 꺼려하던 자들이 이를 갈고 사방에서 일어났다.

12월 28일 임신(壬申)에 미(美).영(英).중(中).소(蘇)는 한국을 몇해 기한부로 신탁통치(信託統治) 한다는 보도가 들어왔다. 29일 계유(癸酉)에 김 구공을 찾아 거국적인 거부의 방법을 의논하고 돌아온 다음날 30일 갑술(甲戌) 새벽, 군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권총을 갖고 들어온 자들에게서 몇 방의 총탄을 받고 숨이 끊어졌다. 이 때 나이 겨우 56이었다.

부인은 유씨(柳氏). 아들이 없어 형의 아들 영수(英洙)를 후사(後嗣)로 삼았다.

군의 키는 보통이나, 얼굴이 크고 희며, 수염과 눈썹이 적었고, 눈이 길고 끝이 처져 눈꺼풀이 쭈그러졌고, 눈이 가느다란 것 같으나 주위를 둘러 볼 때에는 위엄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난리를 겪고 중간에는 세상일이 비뚤어지고 잘못 되었으나 항상 낙관을 갖고, “적의 망하는 것은 서서도 기다릴 수 있다”고 했다. 언젠가 김성수군이 나에게, “고하의 말을 믿지 마시오. 서서 기다릴 수 있다 하더니 지금 이꼴이 무엇이오”하고, 농담을 한 일도 있었지만, 군이 신문에 중국의 현상과 세계의 전도를 논한 것이 20년을 지나서도 맞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그 식견의 탁월함이 이와 같았다.

군은 인재였다. 곤란에 빠져있을 때에도 그 지킬 것을 지켜 그 포부를 밀어왔다. 섬 오랑캐가 비로소 놀라 도망가고 이제부터 될듯 될듯이 구름이 일고 용(龍)이 조화를 일으키려는 그 때에 한번 뜻을 펴 보려다가 갑자기 꺾이었으니, 어허, “나라가 장차 곤궁해 지겠다(邦國殄瘁)-<詩經.大雅.瞻仰>”라는 시는 주(周)나라 사람이 이미 지었다지만, 그때는 아직 반드시 지금 같다고는 할 수 없었다. 어허 슬프다.

군이 돌아간지 닷새만에 김성수군이 동지를 모아 양주 망우리(楊州 忘憂里)에 장사를 지냈다.

명(銘) - 아침의 말로 내 근본을 세우고, 저녁의 말로 비류(非類)를 막았도다. 웃고 떠들어도 한계를 넘지 않고, 취해 소리쳐도 그대로 있었도다. 지나기 여러 십년, 만가지 변화를 겪었도다. 팔을 걷고 분해 일어나면, 산과 바다도 떨어졌도다. 깊은 마음 속에 맺힌 것이 아니었다면 어찌 처음부터 끝까지 이처럼 끈을 수 있었으랴. 우리의 길이 비색한 것을 슬퍼하나, 차마 그대를 글 속의 인물로 만들고 말 수야 있으랴.

단군 기원(檀君紀元) 4279년(丙戌=1946) 10월 일 세움.

3. 고하 동상 병풍석에 새겨진 일대기

1910년 나라를 잃은 이래 일제의 압박에 신음하던 35년간 국내 적진속에서 이 거래를 이끌고 앞장서서 싸우시던 대표적 민족지도자이며 광복 전후 공산당의 정체를 미리 간파하고 그들의 흥계를 봉쇄하여 오늘날 민주적 삶의 기초를 닦아주신 고하 송진우(古下 宋鎭禹)선생, 독립운동가요 언론인이요 정치가요 교육자로서 지용(智勇)이 겸전했던 그 위대한 일생(1890-1945: 담양출생)은 거래를 위한 독립쟁취의 혈투이었으며 투옥과 박해와 유혹과 모함의 가시밭 길이었습니다.

선생은 젊은 시절에 손문(孫文)이 제창한 3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족주의로 무장하고 거래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신봉하였으며 백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민생주의를 추구하였고 이와 동시에 우리 민족의 문화적 독립을 위한 민문(民文)주의를 구국과 독립의 사상적 기초로 삼아 투쟁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려서 한학을 수학하고 일본 명치대학(明治大學) 법학부를 졸업한 뒤 1916년 중앙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여 인재양성에 힘쓰고 널리 민족정신과 독립사상을 일깨우면서 기회를 엿보던 중 1차대전 말기에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됨을 계기로 민족독립운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때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던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각종단(各宗團)과 학생 기타 국내 세력간의 제휴를 이룩하고 일본 중국 및 구미(歐美)에서 활동하던 지사들을 연결하여 민족대동의 기틀을 마련하고 3.1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망국 10년만에 회천대업(回天大業)의 민족항쟁을 주도하였습니다. 선생은 이

운동을 계속 확대하고 뒷일을 수습하기 위하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였으나 곧 구속되어 옥고를 겪었습니다.

출옥후에는 인촌 김성수 선생과 함께 동아일보를 이끌고 이를 항일독립운동의 발판으로 삼아 이 민족에게 씌워진 멍에를 가로멘 채 독립을 위한 즐거운 항쟁을 선도하였습니다. 기미 독립선언 이후 7년만에 순종(純宗)이 돌아가심을 계기로 6.10 만세운동의 도화선을 만들었고 그로부터 10년후에 다시 베르린 올림픽에서 세계를 제패한 마라톤 선수 손기정(孫基禎)의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지운 채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일장기 말소사건을 일으킨 것 등은 끊임없는 독립투쟁의 일예(一例)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가 우민정책(愚民政策)을 쓰려 하자 선생은 여러 해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계몽 강연을 하고 민립대학 건설의 추진, 문맹 퇴치운동의 전개, 여성지위 향상, 반상타파(班常打破), 지방색 해소(解消), 스포츠 보급, 유능한 기능인 및 우량 어린이를 찾아서 표창하는 등 우수한 민족 역량의 배양에 힘썼으며 일제가 백성의 재산을 뺏고 민족자본의 집성(集成)을 방해하자 선생은 물산장려운동을 일으키고 당시 범람했던 일제 물건의 배척운동을 추진하며 빈곤타파와 농공병행(農公併行) 등 국력배양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일제가 문화말살정책으로 언어 문화 및 유적 등을 없애려 하자 선생은 새로 연구된 한글맞춤법을 널리 보급하고 신문학을 장려하며 '조선의 노래' 등을 제정하여 한글의 보존과 발전에 주력함으로써 문화민족의 긍지를 높이는 한편 단군 세종대왕 및 충무공을 모시는 삼성사(三聖祠)의 건립운동을 펴고 이 충무공 유적보존 운동을 일으켜 아산 현충사(牙山 顯忠祠)와 한산도 전적(閑山島 戰蹟)을 중수(重修)하고 권 룰(權慄) 장군의 기공사(紀功祠)를 중건하는 등 민족의 얼을 고취하였습니다. 또한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으로 이민 혼혈 및 창씨를 강요할 기미를 보이자 선생은 이에 결연히 대항하여 남북만주 및 중국에서 활약하는 독립군에게는 군자금, 외지에 흩어진 이산동포들에게는 위문금을 모아 보내고 애국열사들의 유가족을 부양하거나 옥고를 치루는 동지들을 자상하게 뒷바라지하기가 이루 셀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일제가 대륙침략을 위한 한중이간책(韓中離間策)으로서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을 일으켰을 때 선생은 저들의 저의를 미리 알아채고 그 허위 조작임을 폭로하여 국내 화교와 수십만 재만주동포(在滿洲同胞)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케 했고, 이를 계기로 한중양민족의 우호와 임시정부의 유지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뒷날 한국독립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생은 밖으로는 하와이 등지에서 열린 범태평양 민족회의에 대표로 참석하여 각국의 유력인사와 끊임없이 접촉하고 국제 친선에 힘쓰는 동시에 안으로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온 선교사들의 종교 및 교육사업에 대한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 맞서서 신사참배 지시에 불응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여 구미 제국과의 우의를 두텁게 하였습니다. 선생의 일생은 자나깨나 민족보전과 독립달성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내외동포들은 선생이 이끄는 동아일보를 형태없는 정부로 믿고 의지했으며 선생을 우리 민족의 등불로 믿고 따랐습니다.

패망을 앞둔 일제가 제1차로 선생에게 여러 번 통치권을 맡기려 하자 이를 거절한 다음 광복을 맞아 국내외 국민의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하여 국민대회준비회를 조직하여 민족진영의 모체로 삼았고 해외망명인사들이 귀국하자 환국지사후원회를 결성하여 힘껏 뒷바라지 하였습니다.

또한 일제시대 초기부터 국내에 침투해 온 공산주의의 실상을 간파하고 꾸준히 젊은이들을 올바르게 계도(啓導)해 온 선생은 해방후의 혼란을 틈 타 공산당의 적화야욕이 노골화되자 범민족진영을 통합하여 한국민주당을 창당하고 그 대표로서 수석총무에 취임하였으며 신탁통치안이 전해지자 반탁운동을 위한 대책 강구에 분망하던 중 1945년 12월 30일 반민족적 무리의 흉탄에 그 고매(高邁)한 일생을 마쳤습니다.

선생은 제1회 범태평양 민족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선상(歸國船上)에서 집필하신 <세계의 대세와 조선의 장래>라는 명논설에서 당시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운명을 정확히 예언한 바 있습니다. 선생은 역사의 진운에 대한 예리한 판단력과 탁월한 식견을 갖춘 분으로서 민족불멸, 일제필망, 독립필지의 확고한 신념, 굳은 지조, 웅대한 포부와 경세방략(經世方略), 비범한 통솔력, 불굴

의 투지와 넘치는 패기로 일본 제국주의 및 공산주의와 싸우며 암흑시기에 국내에 우뚝서서 이 민족을 수호한 독야청청(獨也靑靑)의 기상이었습니다. 어느 사가(史家)는 말하기를 임진왜란 때에는 무력하나마 정부가 있었지만 일제 침략중에는 그나마도 없는 때에 선생이 이 거레에게 희망과 신념을 심어주고 이끌어 왔으니 그 공적은 충무공 이후의 위업(偉業)이라고 찬양한 바 있습니다.

선생은 나라를 근심하되 자기 한몸이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였고 남에게는 항상 공경하는 자세로 마음껏 즐겁게 대하였으나 다른 한편 중인(衆人)을 압도하는 위엄이 있었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말없이 심사숙고한 뒤에 자기의 주장을 당당히 내세웠습니다. 인품이 호탕하고 개방적일 뿐만 아니라 감흥이 일면 붓을 들어 능란한 솜씨로 한시(漢詩)를 짓곤 하였습니다. 선생이 하와이에 가시는 선상에서 얻은 시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南北東西不見洲(사방을 바라보아도 물은 안보이는데)

連天水色閑行舟(하늘과 맞닿은 물빛속에 뱃길만 한가롭네)

安將眼下太平洋(언젠가 눈아래 태평양 물로)

滌盡人間萬古愁(만고에 쌓인 인간의 근심을 씻어내볼까)

이제 선생이 가신지 38년만에 그 거룩한 항일독립과 애국 반공의 유지를 후세에 전하여 길이 민족의 사표(師表)로 삼고자 이곳에 뜻을 모아 동상을 세웁니다.

1983년 7월

古下 宋鎮禹先生 銅像建立委員會

제1장 사상(思想)의 형성(形成)

1. '금가지' 소년

고하가 태어나던 무렵의 국내정국은 이른바 태평 10년의 후반에 속한다.

1884년 12월에 있었던 갑신정변은 누적된 세도정치의 폐해를 일소하고 폐쇄된 이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여 서구의 선진문명을 받아들여려는 실력행사였다. 그러나 종주권 유지에 연연한 청(淸國)의 개입과 일제의 간계로 개화의 꿈은 무산되었으니 세칭 3일천하가 그것이다. 이때에 이른바 한성조약(漢城條約)이 체결됨으로써 격돌 직전에 있던 청일양국은 철병하기에 이르니 우선 전쟁의 위기만은 모면하게 되었다.

민비(閔妃)를 정점으로 한 사대당(事大黨)은 정적 대원군(大院君)마저 임오군란(壬午軍亂) 당시 청군에 납치되어 부재중이었으므로 더 한층 가렴주구(苛斂誅求)에 혈안이 되었다.

탐관오리의 토색과 수탈은 날로 더욱 심화하여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어 갔다. 곳곳에서 소요나 민란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런데도 조정은 이를 못본척 못들은 척하여 근본문제를 시정하려 하지 아니했다.

한편 한성조약에 의거해서 청일양국의 군대가 물러가자 호시탐탐 남하의 기회만 엿보고 있던 러시아(露西亞)는 좋은 기회를 놓칠세라 자기 세력 부식에 혈안이 되었으니 이 나라 판도는 이른바 3국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다. 일단 물러간 일제는 침략의 기회를 노리며 독이빨을 갈고, 총리(總理)로 부임한 청국의 원세개(袁世凱)는 기고만장하여 간섭하지 않는 바가 없으니 국운은 시시각각으로 암운(暗雲)에 싸여가기만 했다.

이처럼 태풍전야의 고요가 깃든 시기에 험난한 국운을 앞두고 고하는 태어났다.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는 1890년(庚寅.高宗 27年) 5월 8일 전남 담양군 고지면 손곡리(全南潭陽郡 古之面 巽谷里)[현 金城面 帶谷里 소노실]에서 아버지 훈(堧), 어머니 양씨(梁氏)의 8남매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위로 큰 형 진표(鎭杓), 둘째 형 종(鍾), 셋째 형 진동(鎭彤) 세 분과 누님 한 분[뒤에 全州 李氏에게 出嫁], 아래로 누이동생 셋[長妹는 南陽 洪氏에게, 次妹는 全州 李氏에게, 三妹는 蔚山 金氏에게 각각 出嫁], 아들로서는 막내였다.

아명(兒名)은 옥윤(玉潤), 애칭(愛稱)을 '금가지'라 하였다. 금가지라는 이름은 태몽에서 나왔다. 양씨부인이 금빛나는 가지를 채소밭에서 한아름을 따는 꿈을 꾸지 얼마 되지 않아 태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젊은 어머니는 금가지가 빨리 자라서 금과 같이 찬란하게 이 세상을 비취주는 날이 있을 것을 믿었다. 그래서 금가지의 성장은 온 집안의 즐거움이었다.

고하는 그의 생애를 통하여 여덟 남매와 번다한 친척에게 지극한 우애와 의리를 지켰으나 내 가족, 내 친척이라고 해서 분별없이 후대할 줄은 몰랐다. 형제 친척간에 경제적으로 도운 일은 적었지만, 조국 광복에 목숨바친 혁명지사의 유가족을 부양한다거나, 곤궁한 학자의 생계 보조나 연구비 제공은 평생의 사업으로 삼았다. 이처럼 거래와 나라를 위해서 싸운 애국지사의 일이라면 힘닿는 데까지 괴롭고 번거로움을 가리지 아니하고 보살폈다.

인간으로서, 친구로서, 사회인으로서, 동지로서, 애국자로서 모든 면에서 깨끗하고 슬기롭고 명쾌했던 고하의 일생은 이미 유소년시대의 생활환경이 그 시발점이었다. 말하자면 5대가 동거하는 대가족 생활에서 평화스러운 인격과 호쾌한 인간성이 배태되었던 것이다.

고하를 아는 사람은 그를 가리켜 고집장이라고 한다. 어렸을 때의 고집은 커서 '신념'으로 변하고, 신념이 명하는 바는 생사를 무릅쓰고 실천에 옮겼다.

고하가 예닐곱살 때의 일이었다. 형수가 형의 저고리를 마르다가,
"도련님, 내 나중에 이걸루 괴단 주머니 하나 만들어 줄게요"
하고 말하자 이를 듣기가 무섭게 그것을 당장에 만들어 내라고 즐랐다.

“아이, 도련님두... 누가 지금 해준댔나. 형님 저고리 다 해놓구서 만들어준댔지”
그러나 어린 금가지는 바느질 그릇을 잡아 나꾸고 저고리 감을 밀어 치우며 즐라대는데, 마침 형이 나타났다.

“옥윤아, 너 훌쩍 벗구서 저 눈더미 속에 가서 한 번 딩굴구 오면 지금 해주지...”
하고 형이 그의 때를 무마하느라고 한마디 했다. 이 말에 옥윤은 문을 박차고 나가더니 옷을 훌쩍 벗고 눈더미 속에 가서 딩굴었다.

“응 인제 주머니 해 주어야지...”
형수는 할 수 없이 주머니를 먼저 지어 주고야 저고리를 말랐다.
이런 고집이 장성해서는 의(義) 아닌 일은 행하지 아니한다는 고집으로 변했다.
송씨 집안에서는 조상을 받드는 일이 어느 누구 가문보다도 철저했을 뿐 아니라 가장 경건한 일의 하나였다.

“옥윤아, 너는 일찍 자지 ...”
제사를 드리는 날이면 어른들은 으레히 어린 옥윤을 일찍 재우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도 제사 지낼 테야...”

하고, 금가지는 자지 않고 기다리다 졸음이 오면 찬 물로 세수를 하고 제사시간을 기다렸다.
“넌 아직 어리니까 제사를 안 지내도 괜찮다. 이 다음 다 크거든 지내라”
“괜찮아. 안 졸려, 여봐 내가 어디 졸린 사람갈아?”

어른들이 그가 잘 것을 원하면 원할수록 금가지는 얼굴을 어른들 앞에 내어밀면서 끝까지 버티었다.
“갓가지 음식이 있고 각색 과일이 진설되니까 그랬던지는 몰라도 제사를 지내는 날이 내게는 가장 기뻐던 날이야...”

고하는 후일 집안 아이들에게 이러한 회고담을 한 일이 있다.
금가지는 장난이 심해서 추워지면 언제나 손등이 텅었다. 그 장난 중에서도 ‘자치기’니 ‘사방치기’, ‘도둑잡기’, ‘연날리기’ 등의 놀이보다 아이들을 모아놓고는 제사놀이를 하는 것을 가장 즐겼다. 금가지는 으레 제주(祭主)가 되어 제사를 지냈다.

“우리 금가지는 세상이 아주 변하더라도 조상은 잘 받들 거야”
어머니 양씨는 금가지를 이렇게 추켜올렸다.
금가지는 별로 싸우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싸움하는 자리에 가면 신바람이 나서 부채질하기를 좋아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저고리를 훌쩍 벗어서 그것이 깃폭인 양 뒤흔들면서 부채질하기를 좋아했다.

“싸워라, 싸워라...”
하고, 심술궂은 장난을 즐겼다.

고하가 태어나던 1890년은 표면적으로 평온한 듯했으나 이씨 조선(李氏朝鮮)의 국운이 날로 기울어져가던 때였다. 평화로운 송씨집 대문 밖으로 한발자국만 내디디어도 나라 안은 별집 썩신 듯 소란하기만 했다.

5백년의 연륜을 가진 조선왕조(朝鮮王朝)는 권력쟁탈을 위한 당파싸움과 세도정치의 적폐가 누적되어 국정은 날로 어지러워 갔다.

갑신정변 이래 무풍 10년을 누러온 친청사대(親淸事大)의 족벌세도(族閥勢道)는 그 절정에 달하였다. 상하관료의 토색은 제도화하여 뇌물의 다과(多寡)에 따라 대소관직(大小官職)이 주어지고, 아무리 흉악범일지라도 뇌물로써 그 죄를 면하는 등 국정의 문란함은 이를 데 없었다.

원래 호남지방은 풍요한 곡창이어서 어느 지방보다도 국민생활이 부유한 곳이었다. 그러므로 이곳으로 부임하는 수령(守令), 방백(方伯) 또는 그 관속들은 봉의 지방으로 생각하고 토색으로 재물을 모으는 동시에 이를 상납하여 더 좋은 관직을 얻기에 혈안이 되었다.

이처럼 관료의 학정에 시달리어 온 순박한 농민들은 참다 못해 울분이 폭발하니 1894년(甲午)에 전북 고부(古阜)에서 봉기한 것이 세칭 동학란(東學亂)이다.

본시 동학교(東學敎)는 보국안민(輔國安民), 제세창생(濟世蒼生)을 그 교리로 하였으나 국정이 문란하고 외세의 침략 기운이 농후해지자 보국안민 외세배척의 결의와 신념으로 뭉쳐서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런 지음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의 잔학무도한 학정에 격분한 농민들은 이곳 동학접주(東學接主) 전봉준(全琫準 - 일명 綠豆將軍)을 중심으로 분연히 꺾기 시작한 것이다. 갑오년 1월 10일의 일이다. 군아문(郡衙門)은 일순에 수라장이 되었고 군수 조병갑만은 담을 넘어 도주했으나 약탈의 원흉들은 추상같은 징치(懲治)를 받아야 했다.

전봉준은 약 10일동안 관아에 머무르면서 악정을 깨끗이 징벌하고 자진하여 철수 해산했다. 이른바 제1차 동학란이다.

전봉준 등이 물러가자 다시 들어온 관헌들은 주민을 적대시하고 닥치는대로 감금하고 구타하고 처형하는 등 보복적 횡포를 일삼았다.

무고한 양민들이 무더기로 곤육에 시달리고 있음을 본 전봉준을 위시한 동학도들은 결연히 일어났으니 곧 제2차 동학란이다.

1894년 3월 25일 보국안민, 척양, 척왜(斥洋, 斥倭)의 기치를 높이 들고 꺾기하니 울분이 폭발한 수많은 농민군이 그 뒤를 따랐다.

순식간에 고부를 치고, 금구(金溝), 부안(扶安), 정읍(井邑) 등 전북 일대가 차례로 격파되니 그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이리하여 4월 26일에는 전주성(全州城)마저 함락되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부패정권은 자력으로 사태를 수습할 힘이 있을 수 없어 겨우 생각해낸 것이 청국 원세개에게 애걸하여 청군을 불러오기에 이른 것이다.

이때의 동학군은 서정쇄신과 외세배척이 주목적이었는데 청병설을 전해듣자 이리를 쫓으려다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결과임을 깨닫고 자진하여 철수했다.

동학군의 진압 요청을 받고 출동한 청군이 아산만으로 상륙하자 지금까지 구실만 있으면 침략할 기회만 노리고 있던 일본은 이 기회를 잡아 자기나라 군대를 진주시켰던 것이다.

일제는 10년동안 준비한 무력으로 청군과 일전할 계획아래 급거 인천만으로 상륙하여 일부 군대는 궁궐을 점령하고 다른 일부는 청군을 공격하며 남하했다. 원래 청군은 그들 허세만 믿고 종주국의 권위에만 도취되어 있다가 불의에 일군의 공격을 받자 제대로 싸움도 못해보고 패주하기에 바빴다. 불과 2개월만에 한반도에서 청군은 그 자취를 감추고 만 것이다.

한편 궁궐에 침입한 일군은 왕실재물과 각종 무기며 마필까지도 약탈하고 국왕을 위협하여 친일내각(親日內閣)을 구성하는 한편 수탈(收奪)조약을 강요하여 체결시키기에 바빴다.

일제의 만행과 조정의 허약함을 보다 못한 동학군은 삼남(三南)의 전군을 총동원하여 항일구국체(抗日救國體)를 결성하고 불법침입해 온 일제를 격퇴하기로 한 것이다.

이해(甲午) 9월 18일 재기한 동학군은 10만이 넘었으며 충청도를 진원(震源)으로 하여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약간의 화승총(火繩銃)과 죽창, 곤봉, 농기구 등으로 무장한 동학군이었지만 그 기세만은 충천했다.

전라도와 충청도를 석권하고 승승장구로 북진하는 동학군은 공주성(公州城) 결전에 임하게 되었다. 최신무기로 무장한 일군과 관군의 연합군을 상대로 처절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개전 7일간의 일진일퇴 끝에 우금티(牛今峙)고지는 450차의 쟁탈전을 겪었고 골짜기는 시산혈하(屍山血河)로 물들었다.

열세한 동학군은 전멸되다시피 하였다. 피눈물을 머금고 쫓겨 달아나지 않을 수 없었다. 추적하는 일군에 쫓기어 순창(淳昌)까지 갔으나 재기의 꿈도 사라진채 전봉준(全琫準), 김개남(金開南),

손화중(孫華仲) 등 동학군의 지휘자들은 부하와 지방민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철천의 한을 품고 참형효수(斬刑梟首)되었다.

한편 청군을 공격하던 일군은 승세를 몰아 청국본토인 금주반도(金州半島), 산둥반도(山東半島)까지 추적하였다. 이때 미국의 조정으로 강화조약(세칭 馬關條約)이 성립되었으니 낙조(落照)를 눈앞에 둔 청국은 말할 수 없는 굴욕을 받아야 했다.

한반도에서 청국세력을 밀어낸 일제는 기고만장하여 친일내각에게 제도를 개혁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조정은 마지못해 계급타파(階級打破), 과부의 재혼자유(再婚自由) 등 11개항의 개혁을 발표하였으니 이른바 갑오경장(甲午更張)이다.

마관조약 체결을 위하여 청국대표로 건너온 이홍장을 혹은 저격하기도 하고 혹은 위협공갈로 요동반도(遼東半島)까지 영유(領有)하게 된 일제를 보자 로, 불, 독(露, 佛, 獨) 3국은 좌시하지만은 아니했다. 이들 세 강국은 요동반도의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니 압력에 못견디어 일제는 이를 청국에 반환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는 즉각 우리 왕조에 반영되었다. 그동안 친일내각에 거세되어 지하에 잠복해 있던 반일세력(閔氏一黨)이 재기하게 되어서 친로배일(親露排日) 주의를 표방하고 김홍집(金弘集) 내각을 몰아내고는 친로정부를 수립하니 이것이 박정양(朴定陽) 내각이다.

반일친로세력인 민씨 일당이 집권하게 되자 청일전쟁까지 치르면서 한반도 침략에 혈안이 되었던 일제가 그대로 있을 리 만무했다.

1895년(乙未) 8월 19일 밤,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의 총지휘로 한성신보 사장 아다치 겐조(安達論藏)가 인솔하는 일인군대의 무리 50여명은 국왕이 거처하는 경복궁으로 난입했다. 이를 제지하는 연대장 홍계훈(洪啓薰), 궁내대신 이경직(李耕植) 및 수명의 병졸과 궁녀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민비가 거처하는 옥호루(玉壺樓)로 침입하여 민비를 시해한 후 유해는 향원지 뒤 숲속에서 석유를 뿌려 소각했다.

한편 다른 한패거리의 낭인들은 국왕의 처소인 건청궁(乾淸宮)으로 난입하여 국왕(高宗)을 협박하여 민비를 폐위한다는 승락을 받아가지고 날이 밝자 삼삼오오 궁궐을 빠져나갔다.

이리하여 배일세력은 물러났고 친일세력인 김홍집내각이 다시 등장했다.

이와 같이 되어 국왕(高宗)은 다음해인 1896년(丙申) 2월 11일 왕세자와 더불어 정동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하여 거처를 옮겼다. 이른바 국왕의 아관파천(俄館播遷)이다.

아름든 국모시해의 비보가 전해지자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술렁대기 시작했고 통분을 금치 못하는 백성들은 혹은 의병을 일으키고, 혹은 친일세력을 매도하는 등 민심은 건잡을 수 없이 흥흥했다.

나이 어린 금가지는 세상이야 어찌되든 연이나 날리고, 팽이나 돌리고, 제사놀이냐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그가 여섯살 나던 해, 즉 1895(乙未)년 8월 20일, 민비가 일본 공사(日本公使) 미우라(三浦梧樓)가 보낸 자객에 의하여 시해되었다는 소문이 번지자 방방곡곡에서 백성들은 수군대기 시작했다.

“왜놈들이 국모를 죽였대...”

이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금가지는 아무나 붙들고 물었다.

“왜놈, 왜놈이 왜 우리 국모를 죽였어? 어쩌서 왜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남의 나라 국모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었어?”

예닐곱의 어린 아이로서는 당돌한 질문이었다.

“응? 어머니 얘기해 줘...”

한번 말을 꺼내면 끝장을 내는 것이 천성인 것은 ‘주머니 사건’에서도 말한 바 있거니와, 한번 알고자 한 것은 며칠이 걸리든 몇달이 걸리든 알고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금가지였다.

“우리나라가 약하니까 왜놈들이 막 들어왔지”

어머니 양씨는 이렇게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대답이 미쳐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치마 끈을 잡고,

“어째서 나라가 약해졌어? 또, 들어왔으면 들어왔지 국모는 왜 죽이느냐 말이야”

정말 어린애답지 않게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었다. 어른들은 어린 금가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아 니하기로 서로 눈짓을 했다. 더욱이 금가지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서 감수성이 예민할 뿐더러 그 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되새기고 또 되뇌이고 해서, 순진한 성격에 어떤 뜻밖의 영향이라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였다.

“아가, 지금 이야기해도 넌 못알아 들어. 다음에 크면 다 얘기해 주지...”

달래기도 하고, 아주 속일 수도 없어서 왜놈과 민비가 싸우다가 그랬다고 얼버무려 보려고도 했지만, 고집장이 금가지는 막무가내였다. 밥도 안 먹고 졸라대는 통에 하는 수 없이 어른들은 미우 라가 민비를 죽이게 된 경위를 대강 이야기해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미우라가 민비를 해치게 된 원인을 들으면 금가지가 물러설 줄 알았으나 이번에는,

“그럼 왜 그 나쁜 놈을 그대로 살려 주어? 잡아다가 죽이면 되잖아?”

끝이 없는 질문이었다. 하나를 얘기해 주면 그 다음을 물었고, 그것을 알고는 또 딴 것을 묻는 다. 금가지는 이 사건에 관한 질문을 3년을 두고서 심심하면 꼬집어내었다.

그때만 해도 정치는 혼란과 격변을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느 파에 속하여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경향 방방곡곡에 밀탐(密探)꾼이 흩어져서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던 시 대였던 만큼, 어른들은 혹시 금가지가 무슨 소리를 하여 남의 의심을 받을까, 적이 근심이 되기도 했다.

“아가, 너 그런 얘기 아무한테나 하면 큰일난다...”

이렇게 타이르면 금가지는 한술 더 뜨기도 했다.

“왜 어때? 그럼 입가지구 말도 못할까? 그깟 놈들은 모두 죽여야 해”

금가지는 서술이 시퍼렇게 달려들었다. 집안은 항상 금가지로 인하여 조심스럽기만 했다. 혹시 낮선 사람이 들어오면 금가지를 끌고서 슬며시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어서 내보내 기도 했다. 특히 붓짐 장수가 들어오면 금가지를 얼신거리지도 못하게 했다. 당시 서울의 각 정파 에서는 전국에 남녀 붓짐 장수를 풀어서 소문을 수집하기도 하고, 다른 파 사람들의 동정을 살피 기도 했던 것이다.

2. 스승 기삼연(奇參衍)의 가르침

국왕(高宗)이 아관에 파천해 있는 동안 러시아는 우리 삼림의 벌채권(伐採權), 어업권(漁業權), 채광권(採鑛權), 심지어는 국토의 조차(租借) 등등 국가민족자원을 탐식하기에 혈안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왕이 망명과 다름없는 처지에서 이처럼 국가자원을 모조리 방매(放賣)함은 매국(賣國)과 다를 바가 없고 뜻있는 국민들은 이에 통분함을 금치 못했다.

갑신정변 당시 망명했던 서재필(徐載弼)이 10여년만에 귀국하여 독립신문을 발간했고, 독립협회를 조직했으며, 서대문밖 영은문(迎恩門) 자리에 독립문(獨立門)을 세우는 등 격동속에서도 신문명의 밑물은 거세게 들어왔고, 국권확립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집권자는 이를 처리 소화하기는 커녕 정권유지에 급급한 형편이었다.

국왕이 아관에 파천한지 1년이 넘자 그로서도 무한정 외국공관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고, 서재필 등 우국지사들의 권유도 세쳤으므로 1897년(丁酉) 2월 20일, 파천한지 1년 10일만에 경운 궁(慶運宮 - 現 德壽宮)으로 돌아왔다. 또한 독립협회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이해 10월 12일 황제 즉위식(皇帝即位式)을 환구단(圓邱壇 - 지금 조선히otel 후원)에서 거행하는 동시에 국호를 대한(大

韓)이라 칭하고 연호도 광무(光武)를 사용하게 되었다.

고하가 글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그가 네살 나던 때부터이다. 그로부터 열네살까지 10년간 주로 한학(漢學)을 공부했다. 그는 첫째라기보다는 끈기있고 근면했다.

고하에게 한문의 초보를 가르친 이는 이웃마을에 살던 여문심(呂文心)이었고, 일곱살부터는 성리학자(性理學者)이며 애국자인 기삼연(奇參衍)에게서 글을 배웠다. 기삼연은 저명한 성리학자 노사 기정진(蘆沙 奇正鎭)의 친족으로서 1895년 8월 국모시해사건(國母弒害事件)이 일어나고, 이듬해 1월부터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을 때 호남창의회맹소(湖南倡義會盟所)를 조직하고, 스스로 그 대장이 되어 항일전쟁을 지휘했던 의사이자이다.

그는 이러한 관계로 일인에게 쫓기어 다니는 몸이었으므로 이리 저리 피해다니다가 송씨 댁에 기식(寄食)하는 몸이 되면서 잠시 고하를 가르쳤으나 그가 고하에게 미친 영향은 참으로 컸다. 즉 고하의 사상을 정립하는 데 주춧돌이 된 것이다.

고하는 네살 때부터 한학을 공부하여 일곱살 때에는 이미 한시를 지었다.

低尾噴白水 (꼬리를 나지막하게 하고는 흰 물을 쏟고)

舉頭撐青天 (머리를 들고는 푸른 하늘을 끈다)

이 시는 기(奇)선생이 장난에 골몰하여 글읽기를 등한히 하는 옥윤을 불러다가 마을 앞에 놓여 있는 물레방아를 두고 시를 지어 보라고 일렀을 때 지은 <물방아>다. 당시 남도에 흔히 있던 재래식 물방아를 읊은 것이다. 기 선생은,

“분(噴)자를 사(瀉)자로 고쳐라”

이르고는, 한편으로 불과 일곱살 먹은 옥윤의 뛰어난 시재(詩才)와 높은 기상에 내심 크게 놀랐다. 여덟살 무렵에는 같은 물방아를 두고 지은 시에 이런 것이 있다.

欲知滄海量 (창해의 물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자)

斗送小溪水 (작은 시냇물을 말로 되어 보내누나)

역시 표현이 웅대하고 기상이 호방함을 엿볼 수 있다.

고하에게 처음으로 애국 정열을 심은 이는 그의 아버지와 스승 기삼연이었다.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大我)에 살라”

이 말은 아버지 훈(勳)의 교훈이다.

대의(大義)에 살고 대아(大我)를 위하여 죽는다는 후일의 그의 인생관은 그의 타고난 천성이기도 했지만, 스승 기삼연과 아버지의 교훈으로 인하여 더욱 굳어졌다.

“옥윤아, 너는 저 고비산(古比山)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란 남아답게 죽을 줄 알아야 한다”

스승 기삼연은 고비산을 가리키며 늘 이렇게 말하였다. 고하(古下)라는 아호도 기삼연이 지어 주었다. 고비산 아래에서 낳았고, 고비산 같이 깨끗하게 살라고 지어 준 것이었다.

고하는 스승에게서, 사나이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여야 하는가를 배웠다. 고하의 일생 경륜은 이 기삼연 스승에게서 얻은 것이 많았다.

“진환(陳桓)이 임금을 죽이자 공자께서도 목욕하시고 그를 칠 것을 청하셨으니, 역륜(數倫)의 변에는 이웃나라에서도 오히려 그렇거늘 하물며 내 나라 국모의 원수일까보냐. 국민된 자 마땅히 몸을 바쳐 원수를 갚을 때다 (伏以 陳桓弒君 孔子沐浴請對 數倫之變 在隣國猶再 矧兮 母后之讐 是臣子嘗膽之秋)”

이것은 기삼연이 의병을 일으켰을 때의 <논고열읍문>(論告列邑文)이라는 격문(檄文)의 일부이지

마는, 그는 손곡리(巽谷里)로 들어왔은 뒤에도,

“아, 주욕(主辱)의 날에 죽지않고 이렇게 살아 있다니... 이 못난 것이 오늘도 못죽고 살아 있구나. 아, 이 못난 인간이 오늘 하루를 또 살았구나”

“국민된 자의 도리를 지키지 못함이 분해.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몸이로되, 죽을 만큼 변변치도 못한 인간으로 태어났어...”

아침상을 받을 때나 자리에 들 때에는 으레 이렇게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기삼연, 갑자기 술을 찾아 마시고는 울분에 방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기삼연이었다.

글을 가르치다가도 불현듯 나라 일에 생각이 마칠 때면 근심이 충천하여 어지러워지는 마음을 가누지 못하였다.

“옥윤아, 그만 책을 덮어라. 사람이란 배우는 것만을 능사로 삼아서도 안돼... 공부함은 목적이 있는 법이야. 목적 없는 공부는 아무런 값어치도 없어. 이 목적이란 사람의 도리를 하는 데 있어. 사람의 사람된 도리는 의리를 지켜야 해. 부모님께 대한 의리, 동기에 대한 의리, 친구에 대한 의리, 스승에 대한 의리, 나라에 대한 의리 --, 이 많은 의리 중에서 가장 큰 의리가 나라에 대한 의리야. 너 보라. 왜놈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국모를 저희 마음대로 죽였어도 꺾소리 하는 사람이 없잖아? 요새는 왜놈들의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는 또 아라사 놈들이 궁중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지 않나. 아라사의 앞잡이 이범진(李範晋)이 아라사 공사에게 붙어 다니더니 수병(手兵) 백명을 궁 안에 넣어 상감과 세자를 저희 공관으로 모셔가지 않았어? 이제는 또 아라사 마음대로 내각을 만들어 놓는구나. 이완용(李完用)이란 놈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기에 간에 가서 붙고, 쓸개에 가서 붙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놈이야... 이번에는 또 아라사 앞잡이로 총리가 되었으니. 이놈이 나중에는 꼭 나라를 팔아먹을 놈이야”

하고, 한탄하는가 하면 시를 짓다 말고 벌떡 일어나,

“옥윤아, 이리 따라 오너라. 바람이나 쐬러 가자”

하고, 동구바깥 큰 느티나무를 지나 산기슭으로 옥윤을 끌고 가서는 멀리 서울 쪽을 가리키며,

“옥윤아 보라. 저 서울 쪽 하늘이 별경지? 왜 그런지 넌 모르지? 이 나라 젊은이들의 핏빛이 하늘에도 서린거야. 지금 서울에서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로잡자고 피를 흘리고 있어. 너의 피도 붉겠지?”

하고 말하기도 했다. 옥윤은 무어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를 몰랐지만 기삼연은 자기의 뜻이 이 흥안 소년의 마음에 그대로 비치는 것에 만족하였을 것이다.

기삼연의 한마디 한마디는 고하도 모르는 사이에 한자루의 예리한 칼로 그의 가슴속에서 달구어져서 버리어지고 갈아졌다. 고하 일생의 경륜의 터전은 이때 이곳에서 마련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나라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짐승만도 못해. 네가 글을 읽고 쓰고 배우고 하는 것도 오직 너를 나라에 바치고 나라를 이룩하기 위함이야. 아무리 글을 많이 배우고 읽었다 하더라도 그 글을 잘못 쓴다면 글을 배우지 아니함만 못하고, 도리어 제 몸을 욱되게 하는 수가 있어. 그러기에 너는 배워야 하고, 배우되 그에 그치지 않고 배운 보람을 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리(性理)의 원리를 깨우쳐야 하느니라”

기선생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을 되풀이했다. 어린 옥윤은 처음에는 스승의 성리학설이 무슨 소린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우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옥윤아. 알아들겠느냐. 이(理)라는 것은 하나 됨을 기약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하나가 되는 법이야. 다만 모두 다른 곳마다 도기(道器)의 분별만 잘 한다면 이(理)의 하나 되지 못함을 걱정할 것은 없어. 그러기에 글하는 자 평생의 박문약례(博文約禮)가 다 분수상(分殊上)의 공부요, 이일처(理一處)에 이르고 보면 일이관지(一以貫之) 한마디로써 다 이루어지니 역(易)의 괘효단상(卦爻

象)이 모두 이 분수상(分殊上)이야기요, 이일처(理一處)에 이르고 나면 태극생양(太極生兩儀) 한마디로 되는 것이야. 그것을 뒷사람들이 몰라서 반드시 분수로 이(理)를 박아서 유무(有無)의 극한(極限)에 도망하였어“(理也者 不期一 而自無不一也. 但能於萬殊處截斷 得道器分明 則理之不一 非斷憂也. 是以 學者平生 博文約禮 皆是分殊上工夫. 而至於理一處 一以貫之. 一句已是多. 是以卦爻象 皆是分殊上說話. 乃至後世 人之誠慮益下. 而後賢爲人之意教緊 必得分殊明 而理自一 則蓋遜乎有無限極矣.)

“봐라 옥윤아. 마치 손 하나를 쥐었다 폈다, 앞었다 뒤집었다 하는 것과 같이, 또한 몸뚱이 하나로 가고, 멧고 앓고, 눕는 것과 같이, 손은 오무리거나 펴거나 손은 하나 뿐이오, 뒤집든 앞든 손은 하나 뿐이지 둘은 아니지 않느냐. 몸뚱이도 역시 가거나, 멧거나, 앓거나, 눕거나 그 몸은 하나 뿐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이일(理一)이란 것도 분수(分殊) 밖의 것은 아니야”

이리하여 고하는 네살부터 열네살까지 10년 동안에 유학의 경전을 비롯하여 서화담(徐花潭), 이퇴계(李退溪), 이율곡(李栗谷) 등 이조 거유(巨儒)들의 학문을 차례차례로 공부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감명과 영향을 받은 것은 기노사(奇蘆沙)의 성리학설(性理學說)이었다.

“만약에 우리의 처지가 태평성대였다면 나는 학자가 되었을지 몰라. 그 중에서도 성리학에 몰두하게 되었을 거야. 나는 한동안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 그러나 국내 국외의 모든 정세가 나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갖게 했었어...”

뒷날 고하는 이렇게 술회한 일이 있다.

“만약 기 선생이 의병대장이 되어 나설만큼 극진한 애국자가 아니었더라면, 나도 역시 학문에 만족하였을지 몰라...”

하고, 고하는 기삼연을 홀로 추억했다. 그러므로 고하가 애국애족을 일생의 구호로서 삼은 것도 스승 기삼연의 민족관(民族觀)에서 출발한 것이며, 또한 그의 국가관(國家觀)에 터잡은 것이었다.

3. 신학문의 배움터로

고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기울어져가는 조국의 처참한 운명을 보면서 자랐다.

이와같은 격동 속에서 고하는 열네살 되던 계묘(癸卯)년(1903.光武7年)까지 한학을 배웠다. 열네살 때에는 숙부 육(堉)(號.守山)에게서 수학(數學)을 배우기도 했다.

고하가 열다섯 되던 해에는 노일전쟁(露日戰爭)이 일어났다. 영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고자, 1902년 1월, 영일공수동맹(英日攻守同盟)을 체결하니 이에 힘을 얻은 일본은 1904년 2월 8일 대로 선전포고(對露宣戰布告)를 하기에 이르렀다.

일본군은 선전포고와 동시에 여순항(旅順港)을 봉쇄하여 황해함대(黃海艦隊)를 격파하고 다음날에는 인천항에 정박중인 2척의 러시아 함정을 무찌르고 인천으로 상륙했다. 일본군은 간발의 여유도 주지 않고 북진하니 청일전쟁에 이어 또다시 이 나라는 일본군의 군화에 짓밟히게 되었다.

승승장구 북진을 계속한 일본군은 이듬해(1905) 1월에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진 여순(旅順)을 함락하였고, 이어 3월 10일에는 봉천(奉天)을 점령했다.(일본은 이 날을 육군기념일로 정함) 이로써 극동에 주둔해 있던 러시아의 육군 주력은 섬멸된 것이다.

이어 5월 27일 최대 최후의 결전을 시도하여 발틱함대를 동양해역에 돌려 최후 일전을 감행했으나 이른바 일본해 해전(日本海海戰)에서 섬멸됨으로서 노일전쟁은 사실상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일본은 이 날을 해군기념일로 정함).

혁명전야의 러시아나, 미약한 국력의 일본은 전쟁을 더 계속할 기력이 없었다. 이때 미국의 중재로 1905년 9월 5일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으니 이른바 ‘프로츠마스’ 조약이다.

그런데 이 조약 제1조에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한국을 일

본의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명문(明文)인 것이다.

일제는 이와같은 노일강화조약이 체결되자 간발의 여유도 없이 한국침략의 독수(毒手)를 뻗어왔다. 특명전권대사 이등박문(伊藤博文)은 이해(1905) 11월 9일 당당한 기세로 서울에 와서 그들이 이미 마련한 조약을 체결하도록 위협과 회유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일주일동안 소름끼칠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국왕과 일부 애국각료(愛國閣僚)들은 끝까지 반대하였으나 이완용(李完用 - 學部大臣)을 위시한 이근택(李根澤 - 軍部大臣), 이지용(李址鎔 - 內部大臣), 박제순(朴齊純 - 外部大臣), 권중현(權重顯 - 農商工部大臣) 등은 책임을 국왕 고종황제에게 전가하면서 찬의를 표시하니 을사 망국조약(亡國條約)은 이처럼 어이없이 맺어진 것이다.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일명 五條約)이 조인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민심은 극도로 혼란했다. 비분강개한 애국지사 중에는 혹은 순절(殉節)로, 혹은 망명으로, 혹은 의병을 일으켜서 일제에 항거하였으나 국권을 회복하기에는 너무도 미약했다. 이와같은 혼란과 격동을 앞두고 고하는 당시 조혼(早婚)의 관습을 따라 부인 유씨(柳氏)와 결혼했다. 고하는 유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하나 얻었으나 그 딸을 세살 때 잃었고, 그로부터 20년후 부평결연(浮萍結緣)으로 한 아들을 얻었으나 그마저도 세살이 못되어 잃었다. 뒤늦게 사백(舍伯)의 아들 영수(英洙)를 양자로 맞아 후사를 잇고 있다.

자녀를 낳았으나 길러본 일이 거의 없다시피한 고하였으므로 가정인으로서 정말 쓸쓸한 일생이었다. 그러나 그는 펍 냉정할 것 같으면서도 훈훈한 인정이 있었으니 동료나 아랫사람이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축복을 보냈다.

“낳는게 제일이 아니야. 잘 키워서 잘 가르쳐야지”

하고, 고하는 축하금을 보내는 일도 잊지 아니하였다.

소박한 가장차원의 행복을 누릴 수 없었던 대신, 고하는 보다 더 큰 사랑속에서 그의 전생애를 살았다. 고하가 혈육이 없었다는 것은 그 개인에게는 불행이었으나 민족에게는 도리어 득이었다 할까.

고하가 일생을 두고 아내와 금슬좋은 부부로 사생활에 몰두하지 못한 것은 아내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부인 유씨는 고하의 삶의 반려(伴侶)로서 부덕이나 인물이 빠지는 여성은 아니었다. 그런데 왜 고하는 가정을 깨뜨리고 부인과 따로 지내야만 했던가.

소년시절의 고하는 다정다감한 편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깊고 생각이 의젓한 장자(長者)적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런 성격이 그로 하여금 정치에 몰두하게 했고 그 개인보다는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 가정보다는 국가의 안위에 생의 목표를 두게 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나이에 달콤한 신혼 생활 속에 젖어있을 때 그는 가정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왔으니 웅지(雄志)를 펼칠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고하가 열여섯살 되던 해, 즉 결혼한 다음해가 바로 보호국(保護國)으로 전락하는 을사조약이 강제로 맺어진 슬픈 해였다. 고하는 이때 장성(長城) 백양사(白羊寺)로 들어가 다시 한학을 닦고 있었다. 이때의 스승 김직부(金直夫)도, 그 당시 학자들이 대개 그러했듯이 국가의 존망에 무관심한 선비는 아니었던 만큼 이 수도생활은 고하로 하여금 깊은 사색에 잠기게 했고 경륜을 쌓게 하여 인생의 새 출발을 약속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노.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데오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주선으로 노일강화회의(露日講和會議)가 열리어 “한국내에 있어서의 일본의 특수 지위를 인정한다”는 등의 조문이 성립되고, 대한제국의 주권은 강화회의 때 대한제국의 참석도 없이 대한제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의 손에 넘어갔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일본의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어 처음에는 하세가와(長谷川好道)가 통감 대리(統監代理)로 되었다. 그 이듬해 이또오(伊藤博文)가 정식으로 통감으로 부임해 왔다.

이무렵 고하는 일년 반에 걸친 백양사의 수도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때 서울을 다

너 돌아온 아버지 훈은 아들을 붙들고,

“나라는 이미 기울어졌어...”

하고 비분을 금치 못했다.

“우리가 정치를 잘못된 죄도 있지만 왜인들의 ‘신학문’이 크게 우리를 압도한 것이야. 왜인들은 일찍부터 서양문명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모든 무기를 장만하고 제도를 고쳤으므로 놀랄만한 강국이 된 거야. 우리는 꿈을 꾸고 있었지. 우물안 개구리처럼 바깥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통 모르고 있었던 말이야. 알려는 생각조차도 가져 본 적이 없어. 그러는 동안에 왜인들은 서양 문명을 끌어들이고 배우고 하여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깨우쳤으니 우리가 그놈들을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이 얼마나 통분한 노릇이나”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는 않아. 우리만 굳게 뭉쳐서 노력한다면...당파싸움만 아니하고 일심협력하여 신문명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민족이 백년 할 것을 2, 30년 안에 회복할 수 있어...”

“이제 남은 길은 하루라도 빨리 일인들이 배운 그 이상의 ‘신학문’을 배워서 학문으로나 산업으로나 우리가 앞서서 그들을 이기는 길 뿐이야. 배우는 일 -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어. 무엇보다도 영어를 먼저 배워야 해...”

훈은 아들에게 타이르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그 자신도 스스로 실천에 옮겼다.

훈은 과거를 보려고 여러해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었다. 망국의 조짐은 날로 다가오는데 국정은 혼미와 격동 속에서 헤어가지 못했다. 이와같은 나라꼴에 실망과 격분을 느낀 그는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우선 신학문을 배워야만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는 학교 설립을 주동하였다. 그는 적으나마 사재(私財)를 기울여서 경비의 일부를 담당하고 학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신학문 배우기를 실현하고 극심한 반대를 하는 촌 노인들을 설득하여 학교에 나오게 권고하기를 일삼았다. 이것이 바로 담양학교(潭陽學校)이다.

이때 창평(昌平)(현재 潭陽郡 昌平面)에는 이미 신학문 수업을 위한 학교가 세워져 있었다. 이 학교는 영학숙(英學塾)으로 그 설립자는 전 동아일보사장(東亞日報社長) 고재욱(高在旭)의 조부 고정주(高鼎柱)였다.

‘신학문’을 배워야만 나라를 구하고 겨레가 살 수 있다는 아버지의 침통한 말씀을 듣고난 고하는 며칠동안 울에 갇힌 사자처럼 집근처를 배회했다. 울적함을 풀 길이 없어 산으로 들로 혹은 물가로 떠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는 너무도 높고 튼튼했다.

“아버지. 저는 다시 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난 아버지 훈은 어머니의 지나친 자애 때문이라고 오해했다. 그러나 이 오해는 곧 풀렸다.

“절에 보내는 대신 저를 창평으로 보내 주세요. 창평에는 여러 친구들이 모여서 신학문을 배운다는데...”

“좋아, 네 뜻이 그렇다면 마음대로 해라”

아버지의 승낙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튿날 고하는 창평을 향해 떠났다. 고하의 나이 열일곱살 때의 일이다.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은 이 무렵의 고하에게 크나큰 굴욕감과 반항심을 가져다 주었다. 이 조약이 조국 운명의 마지막임을 깨달을만한 나이이기도 하였지만, 특히 아버지 훈의 교훈과 스승 기삼연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고하는 남달리 투철한 조국관과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열혈소년 고하를 울린 것은 황성신문(皇城新聞)에 주필 장지연(張志淵)이 쓴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사설이었다. 그리고 보호조약이 맺어질 때의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충정공 민영환(忠正公 閔泳煥)이 비통한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 사건은 더욱 소년의 가슴속을 아프게 뒤흔들어 놓고 말았다.

고하의 입에서 신문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정치를 하자면 신문이 따라야지... 날카로운 필봉을 어찌 칼로써 당하겠소? 총으로 당하겠소? 글은 만인을 웃기고 울리고 죽이고 살릴 수 있지...”

고하는 신문사설들을 오려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말끝마다 황성신문과 장지연의 사설을 끄집어 내었고 신문의 존재와 위력을 동경하는 소년이 되었다.

4. 인촌(仁村 金性洙)과의 친교

고하는 을사조약을 계기로 그 이듬해에 창평(昌平) 영학숙(英學塾)에서 신학문의 연마를 시작하였다.

고정주(高鼎柱)가 세운 이 학숙에는 그의 아들 광준(光駿)과 사위 김성수(金性洙)를 비롯하여 이 지방 원근의 청소년들이 너도나도 모여들었다. 숙장(塾長) 이표(李濼)는 영어에 통할 뿐 아니라 한문에도 능하여 친구학문을 도맡아 가르쳤다.

고하는 사귀기 힘든 소년이었다. 천성이 내성적이어서 친구를 사귀려들지 않았다. 하루는 인촌(仁村) 김성수가 초립동이 고하와 허교(許交)를 제의했다.

“진우(鎭禹), 우리 인제 허교하고 지내세...”

“허교만 하면 무엇하겠소. 심교(心交)를 터야지.... 그러니 심교가 터질 때까지는 그럴 것 없지 않소”

고하의 무뚝뚝하고 뜻깊은 대답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통성명만 하면 허교하고 자네니 내니 했지만, 고하와의 허교는 상당한 시일을 요했다.

그로부터 훨씬 뒤의 일이었다.

“이제 우리 허교하지...”

하고, 고하가 인촌을 향해 허교를 제의했다. 이 무뚝뚝한 소년 고하의 제의에 인촌은 무척 반가웠다. 알고 보니 고집이 셀 뿐, 인정있고 의리있는 인물이었다.

그런지 얼마 안되는 어느날 저녁이었다. 달이 무척 밝은, 무더운 남도의 여름밤이었다. 고하는 그날 밤 비로소 인촌에게 마음의 깊은 곳을 이야기했다.

“자넨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나? 이렇게 남의 손에서만 놀다가 아주 나라가 없어지지 않겠나?”

고하는 처음으로 인촌에게 정치 이야기를 건넸다.

“내 눈에도 그렇게 밖에는 보이지 않네. 그러나 할 수 있나? 생각만 그러했지”

“그럼 자넨 보고만 있을 텐가?”

“보고만 있지 않으면 우리 나이에 무엇을 한단 말인가?”

“아니야, 오직 한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공부야 공부.... 하루 바빠 신학문을 닦아서 왜놈들 보다 앞서야지, 그 도리 밖에...”

“나도 같은 생각일세”

“난 자네 같은 친구를 만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네. 우리 손을 잡고 공부를 하세”

밤이 깊도록 고하와 인촌의 이야기의 샘이 끝날 줄을 몰랐다. 그로부터 고하는 창평 영학숙에서 공부보다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큰 과업으로 삼았다. 공부가 끝나면 나무 그늘이나 혹은 달밤에 학도들을 모아 놓고, 그의 어렸을 때의 스승 기삼연(奇參衍)의 이야기로부터 화제를 이끌었다.

“기삼연 선생은 나의 가슴에 굽다란 장작을 넣어 주고 거기다 불을 붙여 놓은 샘이야. 선생은 학자이시면서도 의병을 일으키시어 자진 대장이 되어서 왜놈을 무찌른 어른이었지...”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명성황후(明成皇后) 민비시해사건의 경위 등 이야기는 꼬리를 물었다.

“남의 나라 놈들이 내 나라 궁중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내 나라 국모를 시해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니, 이것이 얼마나 비통할 노릇인가? 원수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갚아야 해” 이렇게 말하는 고하는 흥분하여 자기 가슴을 두드렸다.

“우리가 비분강개만 해서 쓸 데 있는가? 공부를 하세, 공부를...”

하고, 인촌은 옆에서 고하를 달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하 평생을 통한 비분강개는, 그의 소년 시대부터의 것이었다.

고하는 영학숙에 들어간지 3개월만에 그만두었다. 그러나 영학숙에서 맺어진 인촌과의 우정은 그의 가슴깊이 새겨졌다.

고하는 열여덟되던 정미(丁未)년(1907.隆熙元年) 봄 우정을 잊을 길 없어 부안(扶安) 줄포(茁浦)로 인촌을 찾았다. 그곳에는 인촌이 없었다. 마침 인촌은 처가의 묘소지기 집과 창평읍 등지를 전전하다가 마침 이른 봄부터 경치 좋기로 이름난 변산(邊山)의 내소사(來蘇寺)로 공부하러 떠난 뒤였다.

고하는 인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찾아갈 셈이었다. 고하는 줄포에서 다시 내소사로 인촌을 찾았다.

“진우, 참 잘 왔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사람과 자네 이야길 했었지. 자 인사를 하게나. 이 사람이 내가 늘 이야기하던 송진우이고, 이 사람이 백관수(白寬洙)야”

인촌이 인사시킨 소년은 바로 근촌(芹村) 백관수였다. 이때 근촌이 열 아홉, 고하가 열 여덟, 인촌이 열 일곱으로 각기 한살 차의 '자치 동갑'이었다. 셋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다. 따로이 선생을 모시지 아니하고, 그들은 전에 배운 한학과 영어를 공부하고 혹은 토론도 하며 마음이 울적할 때면 산에 오르기도 하고, 냇가에 내려가는 것으로 큰 즐거움을 삼았다.

차츰 기울어져 수평선 저 넘어 가라앉는 석양의 붉은 해는 대한제국의 운명과 같았다. 을미사변(乙未事變), 을사조약(乙巳條約) 등, 잇달아 일어난 사건들은 모두 기울어져가는 조선조의 마지막 몸부림이요, 고별의 조종(弔鐘)이었다.

오늘날 변산팔경(邊山八景)으로 불리는 내변산(內邊山)의 절경, 청련암 외에도 개암사(開巖寺), 실상사(實相寺), 월명암(月明庵) 등 변산 4대 절이 울창한 숲속에 조화되어 더 한층 절승을 이룬다. 특히 월명암의 낙조(落照)는 낙산사(洛山寺)의 일출(日出)과 대조를 이루는 변산팔경중의 으뜸이다. 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널려있는 황해로 떨어지는 낙조는 기관(奇觀)이 아닐 수 없다.

실상사(實相寺) 남쪽에 높이 40여척의 직소폭포(直沼瀑布)가 있다. 고하는 가끔 폭포 밑의 바위에 앉아 “이런 못난 인간들이 살아서 무엇하느냐...”고 자학과 한탄을 금치 못했다.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옆치락 뒤치락 밤이 새도록 전전반측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고하는 누었다가도 가슴에 치미는 울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방을 뛰쳐나갔다. 뛰쳐나가면 산마루를 오르내리다 날이 새야만 돌아왔다.

내소사(來蘇寺) 청련암(靑蓮庵)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하, 인촌, 근촌 세 소년의 귀에도 헤이그 밀사(海牙密使) 중의 한분인 이준(李儁) 열사의 분사(憤死) 사건이 전해졌다.

1907년(光武 11, 丁未) 2월 화란(和蘭)의 수도 헤이그에서는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이해 4월 고종황제는 이상설(李相高), 이준(李儁)에게 일제의 부당한 침략을 호소하는 친서와 신임장을 주어 은밀히 평화회의에 파견했다.

이상설과 이준은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화란으로 갈때 주로 한국공사관(駐露韓國公使館)의 이위중(李瑋鍾)과 합류하여 세사람이 헤이그에 도착한 것은 6월 25일이었다. 그러나 간악한 일제는 우리 대표단의 참석을 방해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이준은 투숙하고 있는 여관에서 단식(斷食) 자결하였다.

우리 대표들의 애절한 소망이 목살됨을 본 화란 신문인들은 국제협회(國際協會)에 나가 연설할

것을 주선해 줌으로써 세계 언론인들을 상대로 이위종은 <한국을 위하여 호소한다>는 제목으로 조국의 비통한 현실을 호소했다.

아무튼 이 사건을 전해들은 고하는 망연자실,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크나큰 절망속에서 역으로 크나큰 희망을 얻었다.

“헤이그 밀사 이야기를 듣던 순간은 암흑 천지가 삼시간에 확 밝아진 것 같았어. 헤이그에서 이준 선생이 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나는 큰 희망을 가졌어. 이제는 우리나라도 바로잡힐 때가 있을 거다 하고...”

후일 고하는 집안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배워야지...”

언제나 고하의 흥분을 쓰다듬어 주는 인촌의 말이었다. 그러나 그날만은 인촌의 이러한 말도 고하의 불붙는 가슴을 식혀 줄 수가 없었다.

“으으응 --”

맹수의 신음소리와 같은 소리가 그의 입에서 나왔다. 조금만 더 흥분이 된다면 몇사람을 그대로 둘 것 같지가 않았다. 냉철하고 이지적인 인촌도 참다못해 고하의 손을 잡고 같이 울었다. 근촌도 울었다.

헤이그밀사사건이 있는지 한달도 채 못되어 통감 이등박문(伊藤博文)은 이 밀사사건의 책임을 추궁하고, 이완용(李完用), 송병준(宋秉駿) 등 주구들을 앞장세워 고종황제의 퇴위를 강요했다.

1907년 7월 18일 아침부터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열고 황제의 선위(禪位)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고종이 이에 불응하자 이날 밤을 새워가면서 공갈과 협박을 멈추지 아니했다. 기진맥진한 고종황제는 견디다 못하여 ‘...대사를 황태자에게 대리케 한다...’는 조칙을 승낙했다.

고종황제의 이 조칙은 양위(讓位)가 아닌 섭정(攝政)이었으나 이들은 양위한 것으로 날조하여 20일 양위식을 거행하게 했다.

“고종황제께서는 왜놈 손에 양위하셨어...”

고하는 비탄한 나머지 땅을 치고 울었다.

5. 동경유학(東京留學)의 큰 뜻

고하, 인촌, 근촌 등 세 젊은이의 청련암 시절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실로 뜻깊은 시기였다. 그저 공부나 하고, 담론이나 하고, 경치나 구경하고 혹은 비분강개나 하며 나날을 보낸 것이 아니었다. 이 청련암 시절이야말로 고하에게는 장차 그 포부를 실천함에 있어서 맺돌의 한짝과도 같은 지기지우(知己之友) 인촌과의 우정을 두텁게 했으며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동안 정국의 격동은 거세기만 했다. 고종이 양위한지 사흘 뒤에는 이른바 정미조약(丁未條約)이라 불리는 제3차 한일협약(韓日協約)이 체결되어 일제의 내정간섭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된 것이다. 통감 이등은 사실상 이땅의 통치자로 군림하였고 7월 말에는 나라의 간성인 군대마저 해산하게 되니 국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만 것이다.

이러한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여

“왜놈을 물리쳐라, 매국노를 잡아 죽여라...”

비분에 찬 군대의 대부분은 의병이 되었고, 이인영(李麟榮), 허위(許蔭), 홍범도(洪範圖), 차도선(車道善) 등이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5년간이나 왜병과 싸웠다.

전라도 일대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고창, 정읍, 장성 등지에 의병이 일어나서 왜병과 대결하였다. 차츰 전투가 변산방면으로 확대될 기미가 있자 인촌의 신변을 걱정한 본가로부터 속히 하

산하라는 전갈이 왔다.

세 젊은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했다. 근촌은 기회를 보아 서울로 가자는 것이었고, 인촌은 부모님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했으나 고하는 일본 유학을 주장했다.

“어째 하필 일본 유학인가?”

하고, 근촌은 걱정스러운 듯이 고하에게 물었다.

“적을 치자면 먼저 적을 알아야 한다는 이치에서이지. 그들에게 지지 않으려면 먼저 그들을 알 필요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을 생각해서 앞을 질러야 하지 않겠는가...”

고하는 인촌과 근촌을 번갈아 보면서 말을 계속했다.

“...생각을 해 보게. 우리는 정말 어리석었네. 이불속에서 활개치듯이 앉아서만 큰 소리를 했지. 우리가 무엇을 했던 말인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들어앉아서 무엇을 알겠는가. 산에서 내려가세. 이런 시골구석에 처박혀서 들리는 소문에 비분강개하여 보았자 나라가 다시 서는 것도 아니지 않나. 자, 용기를 내세, 용기를. 이제 적의 심장을 파고 들어가세...”

고하의 일본 유학의 결심은 확고한 것이었다. 고하는 인촌과 근촌의 결심을 들을 것 없이 이튿날 아침 짐을 꾸렸다.

부모님의 승낙을 얻어서 셋이 같이 행동하자 인촌의 제의를 받고 고하는 먼저 손곡리 본가로 돌아왔다. 고하가 떠나자 인촌과 근촌도 산에서 내려왔다.

신학문에 이해가 깊은 아버지 훈은 일어를 배우려는 아들 고하의 의견에 동의했다. 고하는 우선 당시 담양학교의 일어교사 위계후(魏啓厚)를 찾아 제일단계의 일어 공부를 시작했다. 어느날 아버지 훈은 고하를 불러 놓고,

“일어를 배우자면 서울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물었다. 고하는 더욱 용기를 얻었다. 서울 유학의 계획을 아버지에게 알렸다.

“서울에 가면 한성교원양성소(漢城敎員養成所)라는 곳이 있어. 거기 가서 입학을 하도록 해라”

아버지 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쾌락하고 유학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었다. 고하는 여비와 식량을 가지고 서울유학의 길을 떠났다.

고하는 먼저 줄포로 인촌을 찾았다. 인촌과 함께 일본으로 도망갈 계획이었다.

이 무렵 고하와 인촌의 일본 유학을 재촉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군산(群山)의 금호학교(錦湖學校)에서 신학문을 가르치는 한승리(韓承履)의 민권사상(民權思想)이었다. 한승리의 강연에서 인촌은 처음으로 ‘민권’이란 말을 들었다.

한마디로 백성은 임금의 정치를 비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오직 임금만을 위하여 백성이 살고, 임금의 정치는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비판은 커녕 입밖에 내어서도 죄가 된다 고만 배워온 인촌은, 이 ‘민권’이란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그 당시의 사정을 인촌은 이렇게 회고한다.

“1907년 봄 흥덕(興德)의 우편주사(郵便主事)가 군산(群山)으로 가는 길에 줄포(茁浦)에 들렀어. 당시는 우편주사만 해도 새문명의 일꾼이었거든. 나는 그에게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지. 그는 ‘군산에 가면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으니 가보라’는 거야. 그래 조부님께 말씀을 올렸더니 의외에도 수월하게 승낙을 해 주셔서, 군산 궁말병원을 찾아갔더니,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만 돌아와 버리고 말았지. 예수 때문에 영어를 못배우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간절했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참에 하루는 후포(後浦)에서 강연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만, 군산 금호학교(錦湖學校) 설립자인 한승리(韓承履)의 강연이 아니야? 한승리는 대한협회(大韓協會) 파견원의 자격으로 강연을 하는데 민권사상에 관한 강연이었어. 깊은 감명을 받고, 밤에 그를 여관으로 찾아가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니까 군산 자기 학교로 오라는 거야. 내가 떠나기로 하자 근촌도 집에서 허락이 나서 동행을 했어. 한승리는 낮에는 물리와 수학, 밤에는 영어를 가르쳤는데 우리는 밤과 낮으로 다녔어. 한

반년쯤 배웠지”

인촌은 다시 소년 시절의 먼 기억을 더듬었다.

“그 뒤에 줄포에서 다시 고하를 만났어. 우리가 유학 갈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 해야. 우리가 다시 군산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하루는 홍명희(洪命熹)의 엄친 홍범식(洪範植)이란 분이 내 객주(客主)집을 찾아 오셨어. 아마 집에 들렀다가 말씀을 듣고 찾은 모양이야. 그때 그는 금산(錦山)군수로 부임하던 길이었는데, 그때 데리고 온 소년이 바로 홍명희였어. 홍명희는 벌써 일본 동경 대성중학교(大成中學校) 유학생이어서 일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어. 이때 마침 고하가 줄포에 들렀다가 군산으로 나를 찾았기에 둘은 일본 유학을 결행한 거야. 그때 내 선친은 줄포에 영신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사업을 시작한 때이지만 일본가는 데는 반대였어..”

인촌은 금호학교에서 깡으라는 상투도 깡지 않았다. 이튿날 사전승낙도 얻어야 했지만 상투를 깡으면 일본 가는 계획이 탄로될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또 한편 인촌은 군산 보통학교 선생인 박일병(朴逸秉)에게서 일어를 배웠다. 하루는 박선생을 이끌고 줄포 집으로 돌아갔다. 집안 어른들께 일본 유학을 허락하도록 조언을 해 달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역시 실패했다.

때마침 군산학교 일인교장이 집을 찾아 주었다. 일인 교장의 권고도 수포로 돌아갔다.

일본유학을 결심한 인촌이 이처럼 애를 태우고 있을 때 마침 고하가 군산으로 왔다. 고하는 서울 유학을 간다고 집을 떠나서는 실은 일본유학의 길을 준비했던 것이다. 인촌이 고하를 보자 일본유학을 제의하거나 권유할 필요도 없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본유학길로 떠날 준비를 서둘기로 했다. 한승리에게 부탁하여 도항증(渡航證)의 발부 절차를 밟는 한편 인촌은 머리를 깡고(고하는 이어 그뒤에 깡았다), 흥덕(興德)의 근촌에게도 두사람의 결심을 알렸다.

그러나 근촌은 부모님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동행하지 못했다. 머리를 깡고 모든 준비를 갖추었고 부산행 배표를 샀다. 떠나려는 찰나 줄포 인촌택으로부터 심부름꾼이 뒤쫓아 편지를 가지고 왔다. 어머니 급환이니 곧 집으로 돌아오라는 사연이었다. 인촌은 일본행을 일단 연기하기로 하고 줄포로 향하려 했다.

“거짓말이야, 그대로 떠나세”

고하의 말에 인촌이 심부름꾼을 다구치니 거짓이었음을 실토받았다.

심부름꾼을 여관에서 하루 묵어가게 한 다음 고하와 인촌은 함께 연락선을 탔다. 내소사에서 일본 유학의 계획을 갖고 하산한지 만1년만의 일이었다.

고하와 인촌이 일본으로 떠난 후 근촌은 집안 어른들의 걱정이 두려워 고하와 인촌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듬해 북간도(北間島) 등지를 돌아왔다. 고하와 인촌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왔을 때 근촌은 법률전수학교(法律專修學校) 학생이었다.

고하가 일본 유학의 길에 올랐을 때엔 고하집 가산은 이미 기울기 시작한 때였다. 갑오동학란 후 일본군에 쫓기어 산중으로 패산(敗散)한 일부 동학군은 삼삼오오 패를 지어 화적떼로 변했다. 이들은 지방의 부호집을 습격하여 재물을 강탈하기도 하고, 조상의 산소를 파내어 놓고 막대한 금품을 요구하는 유골흥정을 하기도 했다. 요즘의 어린이 유괴사건과 흡사한 것이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수백석 추수를 하던 고하의 가정에도 몇차례 이와 같은 사건을 당함으로써 이때부터 가산이 기울게 된 것이다.

6. 이국(異國)의 학창(學窓)

고하가 일본 동경 유학의 길에 오른 것은 1908년(戊申.隆熙2年), 열아홉 되던 해 10월이었다.

고하는 흰 두루마기, 인촌은 꽃자주빛 두루마기를 걸쳤고 군산에서 산 아동모(兒童帽)를 쓰고, 왜병의 고물 편상화(編上靴)를 신었다. 두 젊은이의 볼품은 실로 가관이었다.

한편 줄포에서는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돌아와야 할 사람은 오지 않고, 심부름꾼 혼자서 인촌이 머리끄잡고 짝은 사진과 일본유학의 길에 오른다는 편지만 들고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돈과 옷을 장만하여 다시 사람을 군산으로 보냈다. 그러나 고하와 인촌을 실은 배는 이미 떠난 뒤였다.

도망가듯 어른들 모르게 떠나온 젊은이들의 길이어서 떳떳치도 못하러니와 돈도 넉넉치 못했다. 그러나 부푼 가슴을 안고 먼 길을 떠나는 두 젊은이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기만 했다. 큰 배도 처음 타보았거니와 넓은 바다를 향해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군산항을 떠난 화륜선(火輪船) 시라까와마루(白川丸)는 다도해를 지나 부산을 거쳐 현해탄을 건넜다. 낮선 이국 땅 '시모노세끼'(下關)에 상륙하였다. 흰 두루마기의 고하와 꽃자주빛 두루마기의 인촌은 여러 사람의 구경감이었다. 더욱이 고하는 구경거리였다. 유난히 흰 두루마기가 못사람의 시선을 끌었기 때문이다. 가는 곳마다 구경꾼이 모여들었다. 말은 통하지 않고 답답하기만 했다.

두 젊은이는 일본 군인 하나를 만나 필담(筆談)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쪽에서 "동경하시착(東京何時着)"이라고 써 보이자, 그는 "명일 2시반 동경착(明日 二時半東京着)"이라고 쓰는 것이 아닌가. 둘이는 그 일본 군인의 주선으로 승차권을 샀다.

이처럼 승차권만은 필담으로 살 수 있었지만, 허기를 극복하기가 몹시 힘들었다. 일어는 조금 배웠지만 통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 "벤또(도시락)"라고 소리치며 다니는 것이 필시 밥인 듯하였다. 고하와 인촌은 그것을 사기로 했다. 고하는 귀에 들리는 대로

"별똥"

하고 일인 장사꾼을 불렀다. 그러자 그도 "별똥"하고 도시락을 내밀었다. 일어(日語)의 첫 실험이요, 첫 실패였다.

이리하여 일어를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고하와 인촌은 하룻 밤 이틀 낮만에 최후 목적지인 동경에 기차편으로 도착했다. 동경 역전에는 인력거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손님을 끌었다. 지리를 모르는 둘이서는 인력거를 타기로 했다.

인촌은 군산에서 소위 일본 '시바이'(演劇)를 본 일이 있어서, 인력거나 인력거 타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고하는 처음 보고 처음 타보는 생소한 것이었다. 고하는 발을 놓는 발판에 올라 앉았다. 발판에 앉으니 인력거꾼이 끌 수가 없다. 인력거꾼이 손짓을 하며 올라타라고 타일러도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 일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력거꾼은 "상 2등, 하 1등(上二等 下一等)"이라고 써 보였다. 아마도 인력거꾼의 뜻은, 상 2등의 상(上=좌석)은 2등이라 싸고, 하(下=발판)는 1등이라 비싸니 싼 윗자리에 앉으라는 뜻이었으리라. 그러나 고하는 '하 1등'에 탄다고 고집을 부렸다. 1등 손님이지 2등 손님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후일 인촌은 두고두고 웃으며 이 때의 이야기를 했다.

고하와 인촌은 동경에 단 한 사람의 친지도 있을 수 없었다. 목표는 오직 군산의 인촌을 찾아온 일이 있는 벽초 홍명희(碧初 洪命熹)의 하숙이었다. 벽초는 대성중학교(大成中學校) 학생이었다.

벽초의 하숙에 여장을 풀었다. 다음날 벽초의 안내로 동경 시가를 구경했다. 조국의 현실은 너무도 초라한데 비해 일본의 건설상은 괄목할만 했다. 선진 문명을 받아들인 것은 불과 20년밖에 안되는데 일본과의 국력의 차는 너무도 크게 비쳤다.

고하와 인촌은 벽초의 권유대로 정칙영어학교(正則英語學校)에 입학했다.

새 학문의 첫 관문이었다. 삼각형이니 정방형(正方形)이니 모두 처음 듣는 낱말들이어서 무척 어렵게만 느꼈으나 곧 익숙해질 수 있었다. 어려운 것은 영어였다. 고하는 영어뿐만 아니라 일어 때문에도 무척 고생을 했다. 일어는 개인교수까지 받아야만 했다.

고하는 인촌과 함께 정칙영어학교(正則英語學校)에서 중학교 입학 준비과정을 마치고, 1909년

봄 벽초의 권고에 따라 금성중학교(錦城中學校) 5학년에 편입학했다. 둘이는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대학입학 시험준비를 했다. 이처럼 시험준비에 여념이 없던 이해 10월, 소년 고하의 가슴을 흔들어 놓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안중근의사(安重根義士)가 하르빈역에서 이등박문(伊藤博文)를 저격하여 살해한 사건이었다.

몇 해전 을사조약(1905) 때의 민영환(閔泳煥)의 자결, 정미년(1907)에는 헤이그 밀사 이준(李儁)의 분사와 보병대장 박성환(朴性煥)의 비장한 최후, 또 무신년(1908)에는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한 것은 동양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샌프란시스코’신문에 쓴 친일파 미국인 스티븐슨을 그곳 교포인 장인환(張仁煥), 전명운(田明雲) 두 열사가 암살한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격동 속에서 금성중학교 학생인 고하는 죽음 이외에는 달리 가슴에 맺힌 통분을 풀 길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죽느냐 사느냐” -- 이런 고민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번에는 안중근의사의 결사적인 의거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다.

고하는 이날 흰 책점을 뒤지고 다녔다. 그날도 거의 저물 무렵이었다. 책방 밖에서 요란한 신문호외 소리가 들려왔다. 웬만한 사건이 아니면 호외를 내지 않던 시절이므로 고하는 펼쳤던 책을 내어 던지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호외는 안중근의사가 한국침략의 원흉인 이등박문을 저격한 기사였다. 호외를 주워든 고하는 순간 미칠 것만 같았다. 한장의 호외를 손에 들고 하숙으로 달렸다.

“됐어, 됐어, 잘 했어”

고하는 안절부절 방안을 빙빙 돌며 이렇게 혼자서 뇌고 또 뇌었다. 호외를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했다. 눈은 충혈되고 열에 들뜬 사람 같았다. 고하는 마치 자기 자신이 이등박문의 가슴에 총탄을 퍼부은 사람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았다.

이등박문(伊藤博文)은 네번이나 수상을 지냈고, 청일전쟁에는 강화전권대사(講和全權大使)가 되어 이른바 마관조약(馬關條約)을 맺었으며, 노일전쟁(露日戰爭)에는 추밀원 의장(樞密院議長)의 신분으로 대한정책(對韓政策)수립에 앞장서서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을 강제 체결하고 초대 통감으로 한국에 군림한 바 있는 침략의 원흉이었다.

그는 헤이그 밀사사건을 트집잡아 고종황제를 양위케 하고 한국 군대까지도 해산시켰다. 우리 한국으로서는 철천의 원수요, 침략의 괴수였다. 그러한 그가 이번에는 추밀원 의장으로서 러시아의 재무장관 ‘위테’와 더불어 한국과 만주의 이권을 흥정하고자 하르빈까지 갔다가 안중근의사의 저격을 받은 것이다.

고하는 인촌과 함께 이 기쁨을 고기볶음으로 달랬다. 동경에 유학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끼리끼리 모여 축배를 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축제의 기분도 잠시였고 이튿날이 되자 고하는 물론 동경 유학생들은 일인들의 매서운 눈총을 받고 자중과 냉정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등박문(伊藤博文)은 우리 민족에게는 원수였지만 일본인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정치가인 까닭이다. 곳곳에서 일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한국인이 많아졌고, 그들은 모두가 안중근의사를 노려보는 듯한 눈초리로 한국인 유학생을 노려보았다. 옆으로 가면 슬슬 피하기도 하고, 어떤 자는 일부러 트집을 잡느라고 툭툭 치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 성수”

적반하장(賊反荷杖)적인 일인들의 행패에 격분한 고하는 잠을 이루다 못해 인촌쪽으로 돌아누우면서 몸부림을 쳤다.

“놈들이 우리를 대하는 눈이 달라졌어. 성수도 조심하게. 이런 때일수록 어엿해야 해. 떡 버티고 당당해야지. 비굴하게 보이다간 되려 치이지. 약하고 못생긴 놈들이란 으레 약한 자한테 강하려 들고, 강한 자에겐 약한 법이니까”

고하는 인촌과 이렇게 말하며 승리자의 위엄을 흐트리지 아니하였다. 학교에 가서도 군자의 위

풍이었다. 일인 학생들이 모여서 수군대다가도 고하가 가면 쓰윽 비키었고, 고하를 훑쳐보던 선생도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붉어져서 외면을 했다.

그러던 어느날 일인 학생 하나가 고하에게 도전해 왔다. 옆에 있던 인촌도 가슴이 섬뚱했지만 일인들도 무슨일이 생기나 하여 불안한 눈치였다. 인촌이 고하 옆으로 가자 학생들 너댓이 둘러쌌다.

“송군은 이번 안중근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주위의 학생들은 긴장이 되어 숨을 죽였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네”

이 대답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

“잘한 이유를 설명해 줄까? 간단하지. 우리의 안선생은 조선 사람이야.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의 도리를 했으니 그보다 더 잘한 일이 또 있겠는가. 일본인도 일본인의 도리를 다했을 때 그를 받들듯이, 나도 같은 이론에서야.... 이의가 있으면 말해 보게...”

고하의 정연한 논리에 일인 학생들은 달아나듯 피하기 시작했다. 너무나 당당한 태도에 압도되어 흠어진 것이다.

“기미와 에라이(그대는 장하다)”

그 중의 한 일인 학생은 고하에게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 동안에도 조국의 운명에 불리하게만 움직여 갔다. 안중근의사의 의거가 있는지 두달만인 기유(己酉)년(1909.隆熙 3年) 12월에는 친일 주구들의 모임인 일진회(一進會)회장 이용구(李容九)와 그 일파 송병준(宋秉駿) 등이 한일합병을 정부에 건의 제창하였다. 이에 분격한 국민들은 곳곳에서 합병을 반대하는 국민운동을 일으켰다. 통감부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독립운동은 날로 격화되어 갔다.

이즈음 대한협회(大韓協會), 흥사단(興事團), 국민대연설회(國民大演說會) 등이 궤기하여 일진회를 성토하는가 하면, 국민대연설회장(國民大演說會長) 허진(許璉)은 일본 수상 가쓰라(桂 太郎)에게 일진회의 망동을 통렬히 비난하는 설명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즈음 매국 원흉 이완용은 천주교회 당에서 집행된 벨지움 황제 추도식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평양인(平壤人) 이재명(李在明)의 칼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어수선한 이 해를 보내고 경술(庚戌)년(1910.隆熙4年) 3월에 이르자 통감부가 한국에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調査局)을 설치했다. 토지조사국은 우리 전국토를 샅샅이 측량해서 그 면적의 정확함을 파악한 뒤 일인의 식민을 도모하자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한국에 토지조사국이 설치되었다는 신문보도를 읽은 고하는 이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곧장 알 수 있었다. 분통이 터졌다. 이때 고하는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입학 준비중이었다.

“이미 장기는 진 장기야. 진 장기를 아무리 붙들고 있으면 무얼해...”

장기에 진 지금, 대학이고 무어고 눈 앞에 없었다. 고하는 귀국할 결심이었다. 성급히 짐을 꾸렸다. 인촌의 만류는 물론 그해 고국에서 갓들어온 가인 김병로(街人 金炳魯)도 한사코 만류했다.

“진우, 다시 한번 생각하게. 우리의 약속이 백살 아니었나. 백살의 5분지 1만을 살고, 우리가 패배할 수는 없지 않나. 자, 진정하게”

하고, 인촌은 말렸다.

‘약속이 백살’이란 언젠가 고하가, ‘성수. 우리가 백살까지 살 수가 있을까? 백살까지만 살 수 있다면 왜놈들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서 호령할 때가 있을 꺼야’하던 말을 다시 끄집어낸 말이다.

옆에 있던 친구들도 한사코 말렸다.

“진우의 심정은 잘 알 수 있오. 그러나 어찌 진우뿐이오. 우리도 다 같소. 다 같은 심경이요. 우리는 싸워야 하오. 싸우지도 않고 손을 들 수는 없지 않소. 우리는 오직 배우는 것뿐이오. 먼저

배워서 가르쳐야 하오. 그 길만이 잘 싸우는 방법이오. 또 이길 수 있는 도리가 아니겠소? 진우가 기어이 돌아간다면 우리도 돌아가겠소. 같이 갑시다”

고하는 마침내 꾸렸던 짐을 풀었다.

“내가 졌소. 내 생각이 부족했소. 역시 우리는 배워야 하오”

이렇게 결심한 고하는 심기일전하여 다시 시험준비에 몰두하였다. 1910년 4월이 되자 고하는 인촌과 함께 와세다(早稻田)대학 예과에 입학했다. 학제는 예과가 1년반이고 본과가 3년이었다.

인촌은 고하의 이 무렵 동경 유학 생활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 적이 있다.

“고하는 입학시험이란 어려운 관문을 눈앞에 두고서도 강연만 있다면 쫓아다녔지. 더욱이 새 사조와 세계정치의 동향에 관심이 많았어. 그때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무섭도록 매혹적이었어. ‘민주주의’란 말과 ‘민권’이란 말을 나는 열일곱 되던 해에 후포(後浦)에서 들은 바 있지만, 고하가 ‘민주주의’와 ‘민권’이란 말을 들은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어. 일어를 잘 해득하지 못하면서도 쫓아다녔어. 또한 이 방면의 책을 읽을 만한 어학 실력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열심히 읽었어”

7. 망국의 한

고하와 인촌은 예비학교를 거쳐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에 입학했다. 입학시험은 정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만이 치루던 시절이다. 영어시험관은 유명한 아베(安部磯雄)였다. 지리시험에는 티베트(西藏)에 대하여 쓰라는 문제가 나왔다. 세계지리는 고사하고 국내지리도 체계있게 배우지 못한 고하는 다만 “광차대(廣且大=넓고 또한 크다)”라고만 쓰고 시험장을 물러나왔다.

이 무렵 고하는 인촌(仁村)과 가인(街人)을 통하여 설산 장덕수(雪山 張德秀), 기당 현상윤(幾堂 玄相允) 등과 가까워졌다. 설산은 고하나 인촌보다 수년 앞서 일본 유학을 와서 그때 와세다대학 학생으로 있었다. 고하는 동경에 유학하는 동안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그중에는 일생을 통해서 동지로서 깊은 우정을 계속한 사람도 많았다. 이같은 변함없는 우정은 고하가 간직한 친구를 사귀는 비결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재주가 있는 사람이 그릇이 적어 놓으면 제 재주에 지고 만다. 칼로 이긴 자는 언제인가는 칼에 패하고, 재주로 이긴 사람은 또 언제인가는 재주에 패한다. 자기 피를 꺾는 피가 없으면 제 피에 넘어간다”

이 말은 고하가 동경유학시절, 그러니까 약관 스무살 때에 이미 정한 신조이었다. 우정의 지속도 이 신념에 비추어 판단을 내렸다. 동경유학을 끝낸 후에도 고하는 이 좌우명에 비춰서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쓰고, 또한 거래를 했다. 중앙학교(中央學校)를 비롯한 교육사업,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 일체의 문화사업, 한국민주당 중심의 정치생활 -- 이 모든 일에 그러하였다.

“누구는 재주가 있는 사람인데...”

고하의 경륜이 익어갈 때 측근자들이 어느 누구를 추천하는 말을 내면 그럴 때마다 고하는 쓰다 달다 말이 없었다. 눈치를 채고 물러나면서도, 것처럼 재주있는 인사를 왜 그렇게 하는가 하고 이유를 헤아릴 길이 없어 궁금해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해방을 전후하여 그들이 대체로 친일이나 좌익으로 쏠리는 것을 보고서야 고하의 혜안을 깨달은 예도 적지 아니하였다.

고하는 동경유학 만 2년에 자신을 얻었다. 새 사조 --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부분의 새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대담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 했다. 불과 두해 동안에 고하의 생각은 너무도 변모했다.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저희 나라에 와서 공부하는 줄 안다면 입학을 안시킬 거야”

“그야 물론이지”

“저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호랑이를 기르는 셈이야”

“정말 호랑이 구실을 해야지. 호랑이 구실을 못하는 날엔 저놈들을 위해서 쥐나 잡아 주는 고양이 되고 말게”

고하와 인촌은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고하의 눈에는 자기는 호랑이요 일인은 고양이처럼만 보였던 것이다.

또한 그것은 고하가 변산 내소사(邊山 來蘇寺)시대부터 입버릇처럼 하던 말 -- “범을 잡으려면 범의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의 지론대로, 범의 굴인 줄로만 알았던 동경에 와 보니 호랑이로 알았던 일본이 고양이로 밖에 안보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고하는 동경생활 몇달만에 벌써 일본인과 일본문화에 탄복하기보다는 모멸을 갖기 시작했다. 고하가 내소사 시절에 인촌과 근촌에게 일본인과 일본문화를 낮게 평가하던 그 기염이 동경을 보고서 더욱 높아진 것이다.

“성수, 보게. 왜놈들이 무엇이 잘났어. 구미(歐美) 문화를 받아들여 눈가림으로 제 민족을 속여 먹고 있지 않는가? 일본민족의 창의가 어디 있어. 성수, 그들에게서 지구력을 발견할 수가 있어? 시바이(芝居=演劇)란 말 참 잘 만들었던 말이야. 모두 시바이야. 정치도 문화도 교육도 모두 바닥이 보이지 않는가. 물이 깊어야 고기가 크지. 왜놈들에 비하면 우리 민족은 깊이가 있고, 폭이 있고, 지구력이 있어. 끈기와 참을성이 있단 말이야”

“우리 민족은 그들보다 오랜 역사를 가졌어. 늦게 깨달은 것이 한이지만 한번 깨닫기만 한다면 저희들보다 앞설 수도 있을 것 아닌가? 우리 나이가 지금 스물 -- 백살을 산다면 앞으로 80년이야. 80년이라면 우리는 저희놈들의 8백년분을 거뜰히 해 치울 수 있어. 당파싸움 당파싸움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지구력이야. 지구력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패하는 법이지. 민족도 마찬가지로 전쟁도 그렇단 말이야”

고하는 지구력 배양이 민족의 백년 대계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역설했다.

고하가 와세다대학에 들어가던 그해가 바로 저 원한과 치욕의 한.일합병이 있던 해이다. 그해 3월부터 소위 토지조사사업을 시작한 뒤를 이어 5월에는 일본의 육군대신 데라우찌(寺內正毅)가 통감으로 겸임 발령되었다. 데라우찌는 부임 전인 6월에 미리 한국 정부의 경찰권마저 박탈하는 등 합방후의 시정 방침까지 결정하였다. 데라우찌가 7월 부임하자 통감부 경무총감 부령으로서 ‘집회단속에 관한 건’을 반포하고, 결사와 집회를 못하게 하는 한편, 언론 탄압에 착수하여 대한민보(大韓民報) 등을 폐간시키고,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등엔 발행 금지의 처분을 내렸다. 드디어 한민족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만 것이다. 통감 데라우찌는 이완용 총리(李完用 總理) 등과 협의하에 그들이 미리 마련해 온 합병조건을 황제에게 제시하고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 8월 22일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이른바 한일합병조약(韓日合併條約)이 체결되었고, 1주일 후인 8월 29일에는 정식으로 발표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서 조선조의 마지막 국왕인 융희황제(隆熙皇帝)로 하여금 양국조서(讓國詔書)를 내리게 했다.

고종 34년(1897) 10월 이래 쓰여온 대한(大韓)의 국호는 13년만에 다시 조선(朝鮮)으로 고쳐졌고 통감부는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된 것이다.

일본의 속국이 된 을사보호조약이래 5년동안 전국 각지에서 활약하던 의병들은 일군의 가혹한 탄압을 받고 대부분은 만주나 노령(露嶺)으로 흩어지고 극히 적은 규모의 의병이 국내에 남아서 저항했으나 그 세력은 미미했다.

양국조서가 내리기에 전에 고하는 이미 동경에서 이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때의 나이 스물 하나. 남달리 강한 정열가요, 유달리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청년 고하가 미리 짐작못한 바는 아니었으나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을 때 그 통분함을 어디에다 비하랴.

이 무렵 고하는 걸핏하면 “호생오사(好生惡死)는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었다. 안중근의사가 만주 여순(旅順)의 일본 관동법원(關東法院)에서 형의 선고를 받고 형 집행에 앞서 재판장 ‘마자끼’(眞崎)에게 한 말이다. 마자끼가 안의사의 참회를 권하자 안의사는 이

에 굴하지 않고,

“...호생오사는 사람의 상정이나, 구차히 내가 살아 남을 생각이 있다면 어찌 내가 이런 일을 하겠소. 그런 말은 두 번도 하지 마시오”

하고, 사형을 선고받고도 태연히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할 뿐 아니라, 평상시와 조금도 다르없이 지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했던 것이다. 고하는 안의사의 의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국운이 이미 손댈 수 없이 기울어져 어찌할 수가 없이 되어 있었다.

“조국 없는 사나이...”

“조국 없는 유학생...”

고하는 이렇게 자신을 부르면서 악몽이기를 바랐으나 현실은 역시 냉혹할 뿐이었다. 바로 눈앞에서 보기 추하게 생명을 잃은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영영 소생불능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날 고하와 인촌이 기숙하는 하숙에는 동경유학생 너댓이 모여 있었다. 그러나 이 비통한 망국의 비보에도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당시 동경의 우리나라 유학생 수는 3, 4백명 정도로 추산되었으나 이 적은 힘으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다. 유학생들의 집결체로 1906년에 대한흥학회(大韓興學會)가 조직되었었다. 1909년(융희 3년) 3월에 출간된 대한흥학회보(大韓興學會報) 제1호에 의하면 고하는 이미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었으며 얼마 후에는 인촌, 창랑(滄浪 張澤相) 등과 함께 간사원(幹事員)으로 선출되었다. 이 유학생단체는 합병 3개월 전인 1910년 6월, 한일합병의 징후를 눈치채고 이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본국정부와 국민에게 전달하려다가 일본경찰의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한흥학회만 해산을 당했던 실정이었다.

그날 저녁 고하는 자취를 감추었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 거취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일심동체(一心同體)라고 누구나 인정하던 인촌까지도 모르니, 고하는 죽은 사람에 틀림 없었다. 고하의 성격을 아는지라 모두가 불안에 싸였다. 갈만한 곳을 모두 찾아 나섰으나 어디서도 찾을 수는 없었다.

“고하가 자결을 했다”

이런 소문이 떠돌았다.

그러나 고하는 죽지 않았다. 죽음의 길을 더듬어 가던 길이었다. 학우들 옆에서 말없이 일어서 나온 고하는 그 길로 동경역에 이르러 ‘시모노세끼’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는 고국으로 발길을 옮겼던 것이다.

고하는 친구들과 헤어질 때 죽음을 결심한 것이었다. 죽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나라 없는 백성이 살 곳이 없었다. 비록 나라를 잃은 몸일망정 더러운 일본 땅에 묻히고 싶지는 않았다. 썩은 마음과 못생긴 몸뚱이일망정 조국의 흙속에 묻히고 싶었다.

귀국길에 오른 고하는 연락선 갑판에서 몇번이고 현해탄의 세찬 물결을 내려다 보았다. 그러나 역시 왜놈 -- 원수의 발길이 잦은 이 창파도 그가 죽을 곳은 아니었다.

고하가 부산에 상륙한 것은 8월 24일이었다. 부산에서 군산까지는 하루 길이다. 고하가 군산에 닿은 것은 26일이었다. 죽을 자리를 찾아서 헤맨 것이다. 그의 첫소원은 죽음이었고, 둘째는 고국 땅에 묻히는 것이었다. 고하는 담양가도(潭陽街道)를 헤매었다. 그는 마치 허수아비 같았다.

“나라를 망친 놈, 나라를...”

심각한 번민과 자학으로 자기정신을 찾지 못한 고하는 저녁 때에야 손곡리(巽谷里) 집에 당도하였다. 변변한 인사도 없이 안채로 들어갔다. 문을 첩첩이 닫아 걸었다. 집안 어른들은 어이가 없었다. 인사하는 태도는 둘째치고, 어른들이 묻는 말에 대답도 없었다. 그러나 책망하기에는 아들의 행색이 너무도 심각했다.

“저 애가 웬 일이고...”

집안에서는 야단들이었다. 고하의 아버지 훈은 짐작하는 바가 있었다. 이 시골에도 벌써 합병조

약이 조인되었다는 소문이 들어와 있었다.

고하는 만 사흘 동안 한 발자국도 문 밖에 나오지 아니하였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들지 않았다. 세수도 하지 않았다. 물만 자꾸 마셨다. 사흘동안을 단식하며 두문불출한 것이다.

고하가 문밖에 나온 것은 합병조서(合併詔書)를 전해 들은 날이었다. 누구하나 말을 건네지 못했다. 그도 말이 없었다. 우물에 가서 말끔히 세수를 하고 두루마기를 꺼내 입고 문밖을 나와 산으로 올라갔다. 불안에 싸인 가족들은 숨어서 지켜보다가 그 뒤를 밟았다. 고하는 선조의 산소에 성묘를 하고 얼마동안을 엮드려 울었다.

열사람의 민충정공(閔忠正公)도 좋고, 백사람의 이준(李儁)열사도 필요하지마는 이때야말로 한사람의 안중근(安重根)의사가 더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도달한 것이다.

“그렇다. 안중근의사의 뒤를 따르자...”

정포은(鄭圃隱), 사육신(死六臣), 이충무공, 민충정공(閔忠正公), 이준(李儁)열사 -- 이런 선열들을 숭모하던 이제까지의 고하는 안중근의사를 더욱 추모하게 되었다. 소극적인 방법의 충절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통쾌한 설욕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며칠동안에 고하는 딴 사람이 되었다. 결심을 굳힌 고하는 옛 스승 기삼연(奇參衍)을 찾았다. 기선생만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삼연은 집에 없었다. 양국조서(讓國詔書)가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기삼연은 어디론지 나간 채 이틀째 소식이 없다고 했다. 그로부터 기삼연의 소식은 영영 끊어지고 말았다. 전하는 바로는 광주에서 옥사했다는 설도 있다.

“나라가 이꼴이 된 때에 선생님도 한만하게 들어앉아 있을 수는 없었을 거야...”

하고, 고하는 발길을 집으로 돌렸다. 집에서는 아버지 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선생에게 갔더냐? 내 그러려니 했지. 너의 깊은 생각을 나는 잘 안다. 좋은 생각이야. 사내 자식이 그만한 의기는 있어야지.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격하면 못쓰는 법이다. 침착해야지. 너는 혹 기선생과 의병이라도 일으켜 볼 생각이었는지는 몰라도 그 길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아니다. 군대란 한 때의 흥분이나 의분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야. 조직이 있고 무기가 있고 또 군비(軍費)가 있어야 해. 방방곡곡에 미리 연락하여 의병을 조직하고 신식 무기를 갖추어야만 해. 팽이나 호미만 들고서야 지금 왜놈들이 가진 신식무기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런 무모한 짓은 나라를 구하는 길이 아니다”

“그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경청한 아들 고하는 반문했다.

“어째 그러냐고? 용기를 아주 꺾어 버리기 때문이지. 온 백성이 흥분하고 있는 때에 일어나라면 다 일어나긴 할거야. 그러나 장대나 호미를 들고 나섰다가 몇방 총 소리에 골패짝처럼 쓰러질 것은 뻔한 노릇이야. 정말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결심이 선 사람들도 그런 꼴을 당하면 그 뒤엔 다시는 용기를 못낼거야.... 지금 무모한 개죽음을 할 필요는 없어...”

아버지의 말씀은 구구절절이 사리에 맞았다. 지금까지의 생각은 무모한 짓임을 알았고 일시적 감정이나 잠시의 기분으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때를 기다리자, 때를...”

생각을 고쳐먹은 고하는 때를 기다리기로 작정했다. 그는 한겨울 내내 손곡리에 묻혀서 얼히고 설킨 마음을 정리했다. ‘힘을 기르자.’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고하는 다시 동경으로 건너갈 결심을 굳혔다.

이듬해 이른 봄, 그는 힘을 기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긴 학업을 위하여 다시 동경으로 건너갔다.

8. 유학생친목회(留學生親睦會)와 잡지 《학지광》(學之光)

“성수, 난 딴 사람이 돼서 돌아왔네. 과연 자네는 나보다 한 걸음 앞선 사람이야. 그러나 대기만성(大器晩成)이란 말도 있지 않던가. 하하하...”

고하가 스물 두 살 되던 이른 봄, 다시 동경에 돌아온 길로 인촌에게 한 말이다.

인촌은 하숙에 들어오는 고하를 보는 순간, 이미 그는 깊이 깨우친 사람임을 발견했다. 첫째, 고하는 일부러 꾸며도 명랑한 표정을 못짓던 위인인데 전에 보던 침울이 없어졌다. 둘째, 모든 거동과 태도가 깊은 철리(哲理)를 깨우친 사람의 그것이었다. 셋째, 항상 엄숙하고 깊은 사색에 잠긴 사람이었는데 웃음을 찾았고 해학적인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음에 놀랍고 또 반가웠다.

“고마우이. 잘 생각했네. 우리는 일체의 기분과 감상(感傷)을 극복해야해. 감정에 지배될 시대가 아니야. 잘 말해 주었어. 그리고 잘 웃어 주었구...”

인촌은 그의 재출발을 진심으로 축복하여 주었다.

고하는 이때 그와 같이 일본으로 건너간 인촌의 동생 김연수(金季洙)와 셋이 한방에서 하숙을 하고 학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고하는 와세다대학을 한학기만에 자퇴하고 메이지대학(明治大學)으로 적을 옮겨서 법과를 택했다. ‘와세다’에서 ‘메이지’로 학적을 옮긴 것은 와세다를 반년이나 쉰 이유도 있었지만,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자는 데 있었다. 또한 이제부터 일인들과 싸우자면 새로운 정치나 법률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새로운 제도란 법치주의, 법치국가를 말한다. 법을 알고 법을 이해하여야만 이를 잘 이용할 수도 있고, 법률에 입각하여 투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후일 어느 후배가 고하에게 묻기를

“선생님께서서는 정치지도자이신데 어째서 동경유학시절에는 정치과를 택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자

“이 사람아, 정치는 고등상식이야”

라고 대답한 바 있다.

“새 송진우가 된다”

고하는 스스로 새 사람이 되기에 노력했고 대하는 사람마다 이같은 태도로 나왔다.

과거의 고하는 남과 별로 사귀는 일이 적었다. 오직 스스로의 위치를 지키고 홀로 사색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는 되도록 나가지 않았다. 한 마디로 고하는 고독을 즐겼고 사색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망국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반년만에 그는 성격 구조가 변한 딴 사람이 되어 동경에 돌아간 것이다. 고하의 성격 변화에는 아버지의 훈계가 크게 작용했다. 그 첫 깨우침은 이제부터 광복(光復)운동을 하려면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직을 갖자면 먼저 인재가 있어야 했다. 인재를 구하자면 널리 친구를 사귀어야 했다.

이제부터의 광복운동은 과거의 의거(義擧)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첫째, 한 두 사람 또는 한 두 단체의 광복운동이 아니라 전 민족적인 집단 운동이라야 할 것이고 둘째, 그 어떤 한 부분을 통한 광복운동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산업, 문화 등 각부분이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육사업을 해야겠고, 산업을 일으켜야 하겠고, 동시에 금융기관과 신문, 출판기관을 가져야 한다. -- 이런 것이 한겨울 동안 손곡리 집에서 구상한 새로운 광복운동의 근본이념이었다. 이와 같은 고하의 의견에 인촌도 전적으로 찬성했다. 설산도 좋은 구상이라 했다.

방대한 사업을 추진시키자면 먼저 일본에 있는 조선 유학생들의 단결이 필요했다. 이 단결을 위하여 착수한 것이 ‘유학생친목회(留學生親睦會)’인 바 이 친목회는 곧 이루어져서 유학생의 단결을 가져오게 했다.

유학생친목회를 조직하기까지 우선 고하는 청년 학생층에서 능력있는 친구들을 사귀기로 했다.

육당 최남선(六堂 崔南善)을 비롯해서 설산 장덕수, 가인 김병로, 애산 이인(愛山 李仁), 무송 현준호(撫松 玄俊鎬), 해공 신익희(海公 申翼熙), 조소앙(趙素昂) 등은 이 무렵에 사귀어 알게 된 친구들이다. 또한 고당 조만식(古堂 曹晩植)과 민세 안재홍(民世 安在鴻)을 알게 된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다. 그리고 낭산 김준연(金俊淵)은 귀국 1년 전에 알게 된 친구였다.

“동경유학시절 우리의 유학생은 아마 약 80여명쯤 되었을거야. 변두리에 싼 하숙집을 구한다고 해서 와세다대학 근처에 대개 모여 살았지. 이 당시에 유학생중 리더격은 단연 고하였어. 많은 유학생들이 그로부터 자유독립사상의 깨우침을 받았어. 고하는 언제 봐도 포용력이 있고 은근한 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속으로 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귀국 후에는 그의 필화사건의 변호를 두번이나 맡아 일본에 있을 때보다 국내에서 더욱 가깝게 지내게 되었지...”

당시 메이지대 법과에 다니던 애산 이인(愛山 李仁)의 말이다.

고하가 두번째로 도일(渡日)한 당시 동경의 조선유학생수는 무려 3, 4백명에 달했다. 합방전 몇 십명에 불과했던 유학생수가 갑작스레 불어났다. 이유는 개화물결을 타고 신학문을 배우고자 몰려왔다. 대부분 지주급 자식들이 유학을 왔지만 고하처럼 뜻을 세워 고학할 작정으로 건너온 학생들도 더러 있었다.

이때, 유학생 사회에서는 출신도별 모임단체가 많았다.

합방의 해까지에는 대한흥학회(大韓興學會)란 단체로 통합되어 있었으나 곧 해산되어 버리고 각기 모임을 갖고 있었다. 모임으로는 전라도의 호남다화회(湖南茶話會), 함경도의 철북친목회(鐵北親睦會), 평안도의 패서친목회(溟西親睦會), 황해도의 해서친목회(海西親睦會), 경기, 충청도의 삼한구락부(三韓俱樂部) 등 친목단체가 존재했다.

“인촌, 전에 유학생 사회에 대한흥학회란 단체가 있었다는데 무슨 이유로 해산되었는지 알고 있나?”

어느날 학우 몇몇이 쓰루마끼(鶴卷)에 있는 인촌 하숙집에 우연히 모인 자리에서 무송 현준호는 대한흥학회 해산 얘기를 갑자기 꺼냈다.

“글쎄, 듣기로는 통감부의 장난이란 말이 들리고 있지. 자세한는 모르지만 초대 통감이었던 이등박문(伊藤博文)이 안중근의사에게 저격되고, 또 한국의 지식인 사회가 그즈음 이상스럽게 움직이자 모든 한인 단체들에게 주목을 기울이라는 일본 당국의 긴급 명령이 내려진 모양이야. 이런 차에 대한흥학회란 유학생회가 배겨날 순 없었지 않을까?”

“무슨일이야, 무송”

고하가 여느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무송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참견했다.

“일본에 온지 얼마 안되지만 처음부터 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왜 하나로 된 유학생회가 없이 각도별 친목회만 있는가 하고 말야. 얼마전 대한흥학회가 일본과 합방되던 6월에 해산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비로소 난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었어. 내가 보기엔 대한흥학회 해산은 일종의 일제의 간교야. 한국인 지식인이 모인 집단을 분열시키려는 하나의 조작이라 말할 수 있지”

무송은 단일 유학생회를 두지 않은 것은 언젠가 또다시 힘이 되어 일제에 항거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분산시키려는 일제의 저의에서 나온 것임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단 얘기야?”

묵묵히 앉아있던 가인(街人) 김병로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하다니?”

“무송의 뜻은 아마 뭉치라는 얘기일거야”

인촌이 눈에 빛을 띠우며 좌중을 둘러봤다.

“결과는 뻔하지 않을까. 이미 기존 유학생회를 해산한 일본이 또 나선다 할 때 가만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김병로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것은 가인의 속단이야. 무송이 잘 쓰는 손자(孫子)병법에서도 말했듯이 실즉허(實卽虛) 허즉실(虛卽實)이란 말이 있잖아. 총독부가 들어서고 조선 전국에 헌병대를 풀어놓는 지금의 일본으로선 어쩌면 안심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들의 무력에 스스로 안심하고 있는 이때 오히려 틈은 많은 법이야. 2, 3년 사이지만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

“그거 좋은 생각인데. 드디어 무송의 손자병법과 삼국지(三國志) 실력이 터져 나오는데..... 하하...”

고하가 무송을 바라보며 너털웃음을 웃었다.

결국 인촌 하숙집에서의 숙의는 고하를 통해 곧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다. 행동적이고 포섭력이 강한 고하는 유학생 사회에서 사심(私心)이 없는 열혈한(熱血漢)으로 통해 그가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각도별 친목회를 하나의 유학생회로 구성키 위한 중요한 임무를 띠고 나선 고하는 곧 평남(平南)의 조만식(曹晩植)과 경기출신 안재홍(安在鴻) 등을 만나 얘기를 꺼냈다. 이들의 협조를 구했다. 뿔뿔이 흩어진 유학생 단체를 하나의 강력한 단체로 만들자는 얘기였다. 조만식, 안재홍은 곧 고하의 뜻을 받아들여 유학생회 연합체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고 각도 친목회장들과 접촉, 1912년 4월 드디어 1차 연합체 구성을 이룰 수 있었다.

무송과 인촌의 예견은 적중했다. 합방을 전후해서 동경조선유학생 동태를 하나하나 체크하던 동경경시청 형사들의 눈길이 이즈음 들어서 갑자기 뜸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이 연초에 공화제(共和制)를 선포한데 이어 이해 8월에는 군국주의의 상징인 메이지(明治) 천황이 죽고 다이쇼오(大正) 천황이 뒤를 잇는 등 국내외적 정세가 급변하여 한 곳으로만 관심을 쏟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 틈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연합체를 구성한 유학생회는 같은 해 10월 28일 조선유학생친목회(朝鮮留學生親睦會)를 전격적으로 발족시켰다. 발족 당시 모인 학생수는 97명이나 됐다.

이 조선유학생친목회는 1919년에 이르러 최팔용(崔八鏞), 백관수(白寬洙) 등이 주동이 돼 일으킨 동경유학생 2.8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맥(脈)이 됐다.

또한 고하는 조국의 광복운동은 조선사람만이 독자적으로 움직여서는 큰 효과를 거두기가 힘에 겨움을 깨닫고, 청일전쟁 등 여러가지 일로 일본에 대립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중국 유학생과도 횡적으로 긴밀한 연락을 갖기에 노력했다.

“중국 사람들이 지금은 저래 보여도 다 제 나라로 가서는 한 자리 할 사람들이야. 다 우리 독립운동에 도움이 될 사람들이야”

하고 말하였다.

당시는 중국의 신해혁명(辛亥革命 - 1911) 후 혼미한 정치정세로 중국 유학생들이 초조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였다.

한편, 고하는 ‘유학생친목회’ 산하 단체로서 ‘호남 유학생 다화회(湖南留學生茶話會)’를 만들었다. ‘친목회’에서는 총무로, ‘다화회’에서는 회장의 일을 보게 되었다. ‘유학생친목회’와 ‘호남 유학생 다화회’는 조국광복운동의 산실(産室)이 되었다.

고하는 ‘유학생친목회’가 단순한 사교모임이나 연락장소에 그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유학생친목회’ 기관지를 발행할 것을 제의했다. 그리하여 유학생 기관지 《학지광(學之光)》이 창간되었다. 이는 한일합방 이후 한국인에 의하여 한국말로 편집된 최초의 사상교양 잡지이다. 고하는 <학지광>의 편집인을 맡아보았다. 또한 유학생 개인의 일도 도맡아 보았다. 구한국(舊韓國)정부가 파견한 관비 유학생의 관비지급 문제로 일본 정부 문부성(文部省)과 끈질긴 교섭 끝에 기어코 받아내는 등 동경 유학생간에서의 고하의 존재는 실로 컸으며 그 활동도 또한 다양하였다.

이 무렵 서울의 기호학교(畿湖學校)가 경영난에 빠져 유지가 곤란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고하는 동경을 중심으로 한 일본 유학생들에게 기호학교 재건을 위한 기부금 모집을 호소하기로 했다. 고하의 노력은 주효하여 현준호(玄俊鎬)의 거액의 기부와 많은 유학생들의 모금 운동으로 예

상외의 자금이 모였다. 그래서 고하가 대표가 되어 서울에 전달했다.

그러나 고하는 곤란할 정도로 학비가 궁했다. 사철 피죤하게 때묻은 '모멘가스리'(무명으로 지은 일본 옷)를 입고 주머니는 늘 비어 있었으나, 그 기개만은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였다. 그 와중에도 일본 궁성(宮城)을 가리키면서 나중에 우리가 박물관으로 쓸 집이니까 잘 위해 두어야 한 다느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느니 하고 다녔으니, 그 태도며 정신만은 당당하고 의젓하기만 했다. 이와같이 고하는 자로(子路)의 품격이 있었다.

1904년 노일전쟁 후부터 일본국민들은 그들의 위정자들의 번벌정치(蕃閥政治)에 대한 불만을 정치집회를 통하여 토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연설회 경청은 유학생중 그 누구도 고하를 따르지 못했다. 대학강의를 거르면서까지 찾아다니는 그는 밤에 그의 하숙집에 들리면 낮에 들었던 연설요지를 마치 연사라도 된 듯 열띤 목소리로 흥내냈다. 또한 그의 하숙방에는 항상 신문 잡지 등에 실린 논설들이 어지럽게 나뒹굴었다. 같은 메이지(明治)대학을 다닌 탓으로 무송과 고하는 곧잘 함께 연설회에 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날, 그날도 고하는 무송더러 좋은 연설이 있다고 함께 가자고 했다.

마침 서양사 강의를 받으러 가던 무송은 강의를 들을 욕심으로,

“고하, 이젠 연설회 구경은 집어치우지. 연설회 구경 백번 해도 말솜씨만 배울 뿐이지 별 이득이 없잖아. 괜히 시간낭비인 것만 같고.....”

“그 무슨 소리지 무송. 연설회에는 각종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야. 또 연사 역시 그들 정치가들의 비리(非理)를 꼬집는 비판자들로서 일본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우리 옛 속담도 있듯이 우리 땅을 짓밟은 일본을 알려면 연설회 이상 좋은 곳이 없어”

무송은 그만 입을 다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만큼 무슨 일에서나 항상 고하는 잃어버린 조국을 의식했다.

일본신문에 한국의병들이 일본 헌병들에게 붙잡혔다는 보도가 나올 때는 울분을 참느라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기도 했다. 이 열기가 일생 고하를 애국운동으로 몰았는지도 모른다.

자로의 기개(氣概)는 이렇게 살았어도 육신에는 한도가 있었다.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고하는 졸업을 앞두고 병마에 쓰러졌다. 이름 모를 고열로 귀국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 졸업장도 받지 못한 채 고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지나치게 몸과 정신을 혹사한 데서 얻은 병이었다.

정양(靜養)생활은 거의 1년이나 끌었다. 그러나 완쾌한 몸도 아니었는데 다시 동경으로 건너가서 메이지대학을 졸업했다. 1908년 가을 함께 일본 유학길에 올랐던 인촌이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한 1년 후인 1915년 7월의 일이다.

1. 중앙학교(中央學校)의 중흥

앞서 본바와 같이 졸업을 앞두고 병중이던 고하가 고향에서 정양하고 있을 때인 1914년 7월 인촌은 와세다대학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있었다. 인촌은 고하의 신병을 걱정한 나머지 의원(醫員)을 대동하고 와서 진료하기도 하고 혹은 약재를 구해 오기도 하는 등 여러번 문병을 왔다. 이 때마다 병석에 누워있던 고하는 인촌에게 속히 서울로 올라가서 동경에서 둘이 계획한 사업을 실천하라고 권고하고 재촉했다.

고하와 인촌은 이미 동경 유학시절에 장기적 안목에서의 광복운동의 방향에 대한 언약이 되어 있었다.

인촌이 서울로 올라온 것은 1914년 가을이었다. 이 무렵의 서울의 사립학교들은 그 대부분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거나 남아있다 해도 폐교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었다.

갑신정변, 갑오경장 등 개화기(開化期)의 격동이 있던 후 이땅에는 근대적 교육기관이 활발하게 설립되어 갔다. 처음으로 갑신정변 다음해인 1885년에 기독교의 감리교파 선교사인 미국인 아펜셀러가 중등교육기관으로 배재학당(培材學堂 - 지금 培材中.高校)을 세웠고, 다음해에는 역시 아펜셀러가 이 나라 최초의 여학교인 이화학당(梨花學堂 - 지금 梨花中.高校)을 세운 것을 효시(嚆矢)로 하여 기독교 등 종교단체가 세운 학교와 정부가 세운 관립학교, 또는 일반 민간유지들이 세운 사립학교 등이 경향 각지에서 속속 생겨났다.

서당 시절과는 달리 일반 국민들도 점차 교육열이 높아져서 학교를 신문명의 요람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외세의 압박을 의식한 교육자들도 학교를 민족사상을 일깨우는 발판으로 삼아서 이곳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다.

1905년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이래 일본은 우리 민족교육기관인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제동을 걸었으며, 1908년에는 사립학교를 인가제(認可制)로 하여 기왕에 세워진 기존 학교를 5분의 1로 감소시켰다. 이어 1910년 합방 후로는 우리 민족을 노예화할 속셈에서 초등교육만으로 충분하다는 우민정책(愚民政策)을 쓴 것이다. 그래서 1911년에 제정된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에 의하면 일본인은 소학교 6년, 중학교 5년인데 반하여 우리는 보통학교 4년, 고등보통학교 4년으로 축소함으로써 학제에서부터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했다. 이와같은 차별정책으로 우리 사학(私學)들은 거의 소멸되어 갔고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몇몇 학교만이 그런대로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런 때에 교육사업을 목표로 서울로 올라온 인촌은 자청하여 가시밭길을 걸어감과 다를 바 없었다. 한달이 넘도록 각 학회와 학교 등을 알아보고 나서는 새로운 사립학교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교명을 '백산학교(白山學校)'로 하여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그들의 정책이 그러했던만치 기각되고 말았다.

이 소문이 퍼지자 재정난으로 운영이 어렵게 된 몇몇 학교들이 인수해 줄 것을 교섭해왔다. 그 중에는 중앙학회(中央學會)에서 운영하는 중앙학교(中央學校)도 들어 있었다.

학회(學會)라고 하는 것은 조선조말에 높아졌던 교육열에 호응하여 나타난 교육기관의 경영체들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물밀듯이 들어오는 일본의 세력에 대항하여 합법적으로 싸우려는 민족운동의 조직체이기도 했다. 이와같은 성격의 학회가 여러 곳에 생겼으나 학회들이 학교를 설립할 겨를도 없이 대한제국은 일본에 합방을 당하게 되었고 학회는 학회대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중앙학교는 원래 기호학회(畿湖學會)에서 1908년 사립 기호학교(私立畿湖學校)를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호남학회(湖南學會), 교남학회(嶠南學會), 관동학회(關東學會) 등이 합친 중앙학회(中央學會)와 융희학회(隆熙學會), 기호학회(畿湖學會)가 합쳐서 '중앙학교'로 이어진 것이다.

인촌은 학교 설립계획이 좌절된 때에 이 중앙학교의 인수 권유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우선 중앙학회의 관계자인 회장 김윤식(金允植)을 위시하여 이상재(李商在), 유근(柳瑾), 유성준(兪星濬) 등 여러 선배인사들과 만나 인수 절차와 장차 학교의 운영 등을 의논했다. 이때 학교보다 학회 유지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 인사들 사이에 여러가지 논란은 있었으나 학회보다는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인촌의 주장이 주효하여 뜻을 이루게 되었다.

중앙학교를 인수하기로 합의를 본 인촌은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생부와 양부 두 어른에게 그간의 경위를 보고드리고 필요한 출자를 요청했다.

처음부터 인촌은 한두 마디로 출자의 승낙이 내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아니하였다. 끈질긴 설명과 간청을 거듭하고 마침내는 단식까지 하여 두분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노력했다. 그 결과 두분의 승낙을 얻음으로써 중앙학교 인수의 부분 꿈은 실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완고한 부친의 승낙을 받는 난관보다 더 큰 난관이 중앙학교 인수를 가로막고 있었다. 고하나 인촌에게는 동경유학 시절부터 일본 경찰의 미행이 붙어 있었다. 당시의 똑똑한 동경 유학생치고서 미행이 붙지 아니한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고하와 인촌은 특별히 경계하는 요시찰(要視察) 인물인 만큼 첫 사업은 그 출발점부터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총독부 학무국장 세끼야(關屋貞三郎)는 인촌이 제출한 중앙학교 인수 청원서(請願書)를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물리쳤다.

“조선인의 교육은 조선총독부가 하지 않는가? 그대들은 실업(實業)이나 하시오”

하고, 세끼야는 단전을 부렸다. 그러나 인촌은 실망하지 않고 수없이 찾아갔다.

“아직도 단념을 안하고 있다. 그럼 어디 다음에 또 와 보시지”

세끼야는 진이 떨어지면 제풀에 물러나리라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한편 일본 정부의 방침으로, 조선 사람은 초등교육 정도에 그치게 하되 일본인 교사를 파견해서 감독하게 할 것, 특히 배일(排日)사상을 품은 자의 교육참여를 금지할 것 -- 이러한 중앙 정부의 비밀지시를 받고 있는 총독부 학무국은 경찰과 직통하고 있었으므로 고하와 인촌을 중심으로 항일사상이 투철한 청년들의 동향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들의 동태를 살피는 미행도 끈질긴 것이었다.

인촌도 그런 눈치를 못챈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허가를 안해주는 것은 저희들의 방침이고, 허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이쪽의 계획이니 굽힐 수는 없었다.

인가(認可)가 나지 아니하여 우울해 하던 어느날 신문에서 와세다대학 당시의 교수인 나가이(永井柳太郎)와 다나카(田中穂積) 등이 서울에 체류중임을 알고, 그들을 여관으로 찾았다. 두 스승은 인촌의 정중한 인사에 답하며,

“졸업 후에 무슨 사업이라도 하는가”

하고 묻는 것이었다.

“동경 유학 당시부터 교육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졸업을 하고 나와 보니 조선 사람에게는 학교 인가를 해 주지 않는군요. 이것은 중앙 정부의 방침인 것 같기도 하고...”

하고, 인촌이 넘겨 짚으려니까 나가이는 펄쩍 뛰면서 인촌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런 어리석은 소리가 어디 있담...”

“아 그러세요. 기실 지금 학교 하나를 맡아보려고 청원서를 총독부에 내고 있는데 잘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말해 주지”

나가이와 다나카는 인촌의 후원자가 되기를 자청했다. 본시 나가이나 다나카는 자유주의자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있었던 것이 아닐까? 뒷날 두 사람중 다나카는 법률대가(法律大家)로서, 나가이는 정치가로서 또는 웅변가로서 일본 사회에 이름을 떨쳤다.

이리하여 두 교수의 도움으로 겨우 학교 인가를 얻기는 했으나, 다음에는 교원 허가를 가지고 말썽을 부렸다. 물론 동경에서부터 불온 사상을 품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인촌은 변명도

했고 달라붙기도 했다. 생전 처음으로 요리집에 끌어들여 술자리도 벌였다.

“이것도 독립운동이니까.....”

오라면 가고 가라면 돌아서고, 요리를 사라면 사고 -- 인촌은 그에 어울리지 않는 ‘출물꾼’ 노릇까지 하면서도 개의치 아니하였다. 학교허가 하나 맡는 것도 독립운동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한편 인촌이 중앙학교의 인수를 위하여 이처럼 노심초사, 동분서주할 때 와병중에 있던 고하는 다소의 차도가 있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동경으로 건너가서 1915년 7월 메이지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고하가 메이지대학을 마치기 위해 동경에 머물고 있던 1915년 5월, 고하가 창간에 참여했고 편집도 한 바 있는 동경유학생 기관지 《학지광》(學之光)에 <사상개혁론>(思想改革論)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은 고하가 집필하여 학술잡지에 발표한 첫 논문이다.

인촌은 곧 담양으로 고하를 찾았다.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을 고하와 기쁨을 나누려는 생각에서였다. 고하는 아직 병중이었다. 고하가 촌보를 못 옮겨 놓는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만 아니하다면 끌고 올라 올 작정이었다. 인촌은 일이 뜻대로 안될 때마다 고하를 생각했다.

“진우가 곁에 있었던들...”

모든 일이 꼬인다는 것을 알리기만 하면, 고열(高熱) 아니라 길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달려와 줄 고하였다.

“송진우를 좀 불러 대시오”

학교허가 운동을 돕던 민세 안재홍(民世 安在鴻)은 혼자 애를 태우는 인촌을 보다못해 이렇게 권고하기도 했다.

“이런 사정 이야기를 하면 당장 뛰어올라 올테지. 하지만 우리가 좀더 고생을 하지. 잘못 하다가는 그 사람 건강을 회복하기가 어렵지...”

이렇게 하여 미루어 왔던 것이다.

오래간만에 인촌과 고하는 담양 고하의 본택에서 정답게 만났다.

“아, 저런 모습들”

고하는 인촌에게서 그간의 경과를 듣고는 의분을 참지 못했다.

“좋은 시련이었네, 지금까지는 그자들을 겉으로만 보아 왔지만 이번엔 그자들의 마음속까지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가 있었거든...”

“‘겉볼 안’이라니, 놈들의 뱃속도 저희들 상판 같겠지 뭐. 깊은 물고기야 못잡는다지만 얇은 물의 고기야 놓칠까봐”

“나 그 덕에 이번에는 명월관(明月館)엘 다 가 보았네”

“원님 덕에 나팔 불었네 그러”

고하와 인촌은 소리를 내어 크게 웃었다.

인촌은 막상 내려 와서 보니 고하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한동안 더 정양을 필요로 할만큼 쇠약해 있었다.

“인제 다 된 셈이니 한달 동안은 별로 할 일도 없네. 나도 이제 한달만 쉴 작정일세”

하루를 묵어 이튿날 단신으로 떠날 작정인 인촌의 말에,

“쓸데없는 소리. 술 떼어놓고 3년 보낼 작정인가?”

하고, 고하는 앞장을 서는 것이었다.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거야. 분골쇄신(粉骨碎身)이란 말도 오히려 부족하지. 눈을 뒤집고 일을 해야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민중정공처럼, 자문(自刎)하지 못한 답변이 될 것이요, 안중근의사처럼 교수대에 오르지 못한 설명이 되어 주는 거요. 죽어서 민족에게 이바지하는 것도 애국의 한 방편이지만, 살아서 적과 싸워 이긴다면 이 얼마나 좋은 애국인가. 성수, 자네는 돈만 끌어대 주게. 학교도 하고, 신문도 하고, 공장도 차리고.... 학교에서 열명, 백명의 충무공이

나오고, 백명 천명의 안중근 의사가 나와 준다면 우리가 망국일(亡國日)에 죽지 않은 보람도 날 것이 아닌가”

“일하세. 돈은 내가 전라도를 팔아서라도 댈 것이니”

고하와 인촌은 지나간 날 변산 내소사 청련암에서의 소년시절처럼 잡은 손에 힘을 부쩍 주었다.

여기서 고하의 치병(治病)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

고하는 망국의 비보를 전해 듣는 순간부터 율화병을 얻어 메이지대학 졸업을 앞두고 와병했고, 졸업시험도 불편한 몸으로 치루었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거니와 일본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서도 병석에 누워 있었다. 고하의 집안에서는 크게 걱정하여 좋다는 약이면 빠지않고 구해다 썼고, 용하다는 의원이 있으면 어디든지 멀다 않고 불러다 보였으나 백약이 무효로 차도를 볼 수 없었다.

이럴 지음 사상의학(四象醫學)의 대가이며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박양산(朴梁山)을 알게 되었다. 그는 고하를 그의 전공인 사상의학적으로 볼 때 태음인(太陰人)이라 진단하고 처음 약간의 시약(施藥)을 하고나서는 대열인(大熱人)의 장부(臟腑)라 했다.

사상의학이란 19세기 후반 당대의 의술대가인 함흥출신 이제마(李濟馬)가 연구한 의술로서 인체를 사상(太陽, 太陰, 少陽, 少陰)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현대의학으로 치면 체질을 의미하는 듯하다.

박양산(본명 미상)은 경상도 양산(梁山) 군수를 지낸 바도 있는 학자인데 평소 의학에 관심이 깊었고 더욱이 이제마의 사상의학에 조예가 깊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의 난치병을 고쳤고 많은 제자도 길러냈다.

박양산의 치료를 받음으로써 고하의 병은 점차 회복되어 갔다.

그 후 고하는 한의학의 원전인 동의보감(東醫寶鑑)과 사상의학에 관한 한방의서인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을 틈틈이 읽었고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책상 위에서 이 책들을 내려놓지 아니했다.

서울로 올라온 고하는 완쾌되지 아니한 몸을 이끌고, 동분서주 바쁜 나날을 보냈다. 인촌은 백만대군이라도 얻은 기쁨이었다.

“자네가 큰 일을 다해 놓았는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아닐세. 큰 일은 이제부터야. 앞으로 학교 안의 일은 자네가 맡아 주어야 하겠어...”

처음 고하가 맡은 직책은 교무(敎務) 일이었다. 인촌은 평교사로 영어와 경제를 담당했다.

고하가 중앙학교로 온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학감으로 있던 안재홍(安在鴻)이 학교를 떠남으로써 그 뒤를 이어 고하가 학감(學監)이 되었다. 1916년의 일이다.

이때의 교장은 석농 유근(石農 柳瑾)이었다. 유근은 용인(龍仁) 출신으로 한학자로서 문장에 능하여 장지연(張志淵), 남궁억(南宮億) 등과 황성신문(皇城新聞)을 창간하고 주필을 거쳐 수년간 사장직에도 있었다. 합방 전까지 몇개 학교의 교장직을 역임한 바 있는 교육계의 원로이기도 했다.

1917년 3월 교장 유근이 사임하자 인촌이 뒤를 이어 교장이 되었다. 인촌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시급한 교사(校舍)의 신축을 위함이었다.

2. 피끓는 청년 교육자

1915년 4월 인촌이 인수 할 때의 중앙학교는 화동 138번지(전 경기고등학교 자리)이고 지금의 정독도서관자리의 일부)가 되는 홍수렛골에 있었다. 교사(校舍)는 한옥을 개조한 것으로 건평 80평 가량의 기와집을 교실로 쓰고 별채는 교무실로 사용했다. 또 수업연한은 본과가 3년이고 교원

양성(敎員養成)을 위한 특과가 1년반이었다.

1908년 개교한 이래 인촌이 인수할 때까지 7년간에 이 학교를 거쳐나간 졸업생 수는 약 3백명이었으나 재학생 수는 불과 7.80명이었다. 인촌이 이 학교를 인수하게 되자 일반의 기대는 커져서 신입생 수는 전년의 2배로 늘어났다. 더욱이 이 해 11월이 되자 총독부의 고등보통학교령(高等普通學校令)에 따라 3년이던 수업 연한이 4년이 됨으로써 학교시설의 확장이 시급하게 되었다.

고하가 중앙학교에 부임한 얼마 후 인촌은 여러 곳을 물색한 끝에 이해(1917) 6월, 계동(桂洞) 1번지인 지금의 중앙고등학교 터를 교사자리로 정하고 토지를 사들였다. 당시 이 일대는 수목이 울창한 산골짜기였고, 숲속에는 뒤에 상해임시정부의 군무총장(軍務總長)을 지낸 노백린(盧伯麟) 장군이 거주했다는 기와집 5 - 6간이 한적하게 있었다. 이 집의 일부는 얼마 후에 고하나 기당이 거처하는 숙직실이 되었고 3.1운동의 산실이 된 곳이다.

인촌은 학교터를 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쌀 한섬에 6원하던 때에 8,800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해야 했으니 이는 전적으로 양 부친의 뒷받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자리는 화동 교사에서 멀지않은 곳인데다가 그다지 높지도 않은 조용한 곳이어서 학교터로서는 적당한 곳이었다. 대지를 사들이자 정지작업이 시작되고 교사 신축공사가 급진전해 갔다.

이 때, 고하는 학생들에게 신축 교사를 짓게 되기까지의 경위와 또한 지어야 할 의의를 설명했다.

“제군. 우리는 새 집을 짓는다. 누구의 집인가. 제군들의 집이다. 주추를 놓는다. 누구 집의 주춧가. 제군이 배울 집의 주춧가. 제군이 배우고 나가면 제군의 후배들이 배우러 들어올 것이다. 이 후배란 바로 먼저 사회에 나간 제군의 뒷받침을 해 줄 사람들이다. 제군이 아무리 잘나고, 지혜가 있고, 용감하다 해도 제군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 갈 수가 없고, 제군만으로서 제군의 이상을 살릴 수도 없다. 장차 제군은 이 민족을 이끌어 갈 사람들이다. 2천만이라는 크나 큰 가솔을 이끌어 갈 제군을 도와 줄 사람들이 다시 들어 올 배움의 집이다. 제군이 민족을 위해서 싸울 때, 민족의 적과 피투성이가 되어 싸울 때, 제군의 힘이 부치어 기진맥진했을 때, 제군의 의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정포은, 제군의 주위를 포위한 적을 무찔러 줄 이충무공, 제군의 위치와 정의를 세계에 호소해 줄 이 준, 안중근 -- 이런 동지를 길러 줄 집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착공하기로 한 새 교사인 것이다”

고하의 이 말에 학생들은 모두들 팔을 걷었다. 너도나도 학과를 마치면 팔을 걷고 공사장으로 나섰다. 터를 닦고, 흙을 나르고, 돌을 깨고, 벽돌을 날랐다. 전교생 80명의 학생과 선생까지 앞을 다투어 공사장으로 나갔다. 인촌도 터를 닦았고, 고하도 돌을 날랐다. 나라를 세우는 공사라고 생각하고 선생과 학생이 한몸이 되어 힘을 쏟았다.

고하는 낮에는 선생님이었다고, 오후에는 공사장을 감독하는 십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밤이면 학생들 집을 찾아다니는 비밀교사였다. 누구 한사람 불평을 하지 아니하였다. 누구 하나 몸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고하는 서울에 올라온 후 줄곧 학교 숙직실에서 기거했다. 식사는 인촌과 같이 계동 김사용(金思容)의 집에서 했다. 얼마 후 이 숙직실에는 기당도 같이 있게 되니 이곳이 청년 유지의 집회소와도 같이 되었다.

교사(校舍)가 완공되자 학생들은 모두 중앙학교 학생임을 자랑으로 여겼다. 어느새 중앙학교는 장안의 인기 학교로 등장한 것이다.

이리하여 대지를 사들인 날로부터 불과 5개월만인 1917년 11월 새 교사가 준공되었다. 수림속 산비탈에 부속건물까지 합쳐서 건평 3백평의 붉은 벽돌 2층집이 서게 된 것이다. 이야말로 이 민족의 자본으로 이 민족의 손에 의하여 이룩된 최초의 벽돌집 교사였다. 낙성식을 할 때에는 일약 3백여명의 학생으로 불어났다.

학무국장인 세끼야(關屋)가 낙성식에 초대되어 참석했다가 놀랐다.

“송진우와 김성수는 암이다. ‘스미니 오께나이 야쓰라’(만만히 봤다간 큰 코 다칠 놈들)이다”
세끼야는 고하와 인촌을 무서운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 처음 학교를 인가해줄 때만 하더라도 세끼야는,

“제까짓 애송이 ‘센진(鮮人.일본인이 한국사람을 멸시하여 부르는 말)’들이 무얼 한다구...”
하여 냉소했고, 땅을 사네, 집을 짓네, 할 때도 속으로 픽 웃었던 세끼야였다.

또한 ‘너희가 무슨 단합을 해서 집을 짓고, 학교를 경영하랴’하고 비웃었던 그였다.

집터를 사고, 선생과 학생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집터를 닦고, 돌을 날른다는 보고와 함께 대학 출신이요, 부잣집 자식들이 공사장 한 귀퉁이 하숙방에서 인부들처럼 먹고 자고 공사감독을 한다는 정보를 듣고 있었던 그였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이처럼 방자하고 오만한 그의 선입관을 뒤엎었고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현저하게 정중해졌다.

1917년 12월 1일, 화동 구교사로부터 계동 새 교사로 이사를 할 때 학교 비품들을 나르는 학생들이 줄을 서 가는 것을 보는 시민들은 새로운 희망으로 이들을 보내고 또 맞았다.

신축된 중앙학교가 당시 장안의 명물로 등장했음은 1917년 12월 10일 간행된 《반도시론(半島時論)》에 게재된 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 여기에는 교사(校舍)가 신축되기까지의 경위와 규모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중앙학교가 눈부신 발전을 하는 것을 보자,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일본인 교사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너희 학교는 내용도 충실하고 건물도 훌륭하므로, 특별히 일인 교사를 파견키로 했으니 감사히 알라”

총독부가 중앙학교에 일인 교사를 파견하려는 이유는 감시가 목적이었다. 말하자면 정보원을 심어놓고 조그마한 트집이라도 잡히기만 하면 폐교 처분까지라도 내리기 위해서였다.

이밖에도 총독부는 갖은 명목을 붙여서 학교 일에 간섭하고 압력을 가했다.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저항하는 힘이 압력과 정비례하는 가운데 중앙학교는 날로 성장하고 번영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학교는 교규(校規)가 엄한 학교로 발전해 갔다. 교모와 교복도 제정했다. 선생과 학생은 일본 해군 장교복과 유사한 제복으로 맞추어 입었다. 이때까지는 대부분이 한복을 입었는데 처음 양식 교복을 입게 되자 학생중에는 바지의 앞뒤를 분간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었다는 웃지못할 일화도 있다. 선생도 학생도 머리는 뺨뺨 깎았다. 그런 제복을 입힌 것이라든가, 머리를 뺨뺨 깎은 이유는 일제에 대한 항거의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누가 중앙학교를 허가해 주었느냐”

일인들 간에는 책임문제가 논란되었다. 그럴수록 구실을 안 주려고 학교에서는 더욱 고심을 했다.

이에 고하는 교실에 들어가서는 ‘조선’이니 ‘조선민족’이니 하는 낱말은 되도록이면 삼갔다. 그 대신 고하가 숭배하던 을지문덕.을파소(乙巴素).김춘추.정포은.이순신 등 민족 영웅들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

“하늘이 준 기회, 하늘이 준 사업”

고하는 이 기회와 이 사업을 위하여 정열과 신념으로 일에 임했다. 그러나 그의 주위에는 모두가 적이였다. 가장 무섭고 큰 적이 총독부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철사줄이 그를 얽매고 있었고 형체없는 방해물이 그의 행동들을 제약했다. 그뿐만도 아니었다. 적은 안에도 있었다. 전 경영자 측에서는 날로 발전하는 중앙학교를 질시의 눈으로 보았고 모함의 구실을 찾으려고 호시탐탐하기도 했다.

일찍이 고하가 동경유학 때, 《학지광(學之光)》 1915년 5월호에 <사상개혁론(별명 ‘공교 타파론(孔敎打破論)’)>이란 글을 게재한 일이 있었다. 그 글의 목적은 민족정신의 양양에 있었다. 즉 지난날 지나치게 공자, 맹자만 찾다보니 국민이 문약(文弱)해졌다는 내용이었다. 다시 말하면 구미

(歐美)의 신사조를 받아들이기 위하여는 하루바삐 묵은 껍질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공교 타파론>이 국내 유림계에서 말썽이 되었다. 유성(儒聖-孔子)을 모독하였다는 것이었다. 구미각국의 일취월장(日就月將)하는 발전상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지나간 이야기를 새삼 꼬집어내어 고하를 힐난하기 시작했다.

고하는 동경 유학시절의 그 자로풍(子路風)을 잃지 않았다. 누가 무어래도 못들은 척했고, 누가 방해할 해도 개의하지 않았다. 오직 그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일에만 열중하였다.

“경술년에 이미 죽었어야 할 몸이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 일로써 속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고하는 입버릇처럼 말하고 또 외웠다. 일하는 것을 그는 속죄라고 생각했다. 속죄의식으로 일에 임했고, 매사를 처리했고, 일인들과도 맞서 싸웠다. 그러한 고하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었다. 총독 부도 무섭지 않았고, 헌병과 경찰도 호랑이 앞의 고양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동경시절의 고하의 풍격(風格)을 평하여 ‘자로풍’이라고들 하지만, 그것은 일본인과 그 국민성에 대한 경멸에서 온 것이었다.

“역사와 전통이 없는 문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람이고 국가고, 연륜이 필요하지. ‘가깨우동’ (가락국수)의 기(氣)와 ‘앗사리한’(새뜻한) 맛 이외에 일본문화에서 배울 것이 무엇이 있어? 얇은 물속의 피라미 새끼에서 어찌 깊은 물에서 사는 잉어의 기풍을 찾을 수 있어?”

고하는 당시 일본 문화를 까마귀가 공작 깃을 빼다 꽃은 것으로밖에 평가하지 않았다. 또 일인을 얇은 물 속의 피라미로밖에 보지 않았다.

“물이 깊어야 고기가 크지”

고하는 이렇게 일인을 평가하기도 했다.

밝은 두뇌와 올바른 판단력, 끈기 있는 지구력 - 이 모든 장점은 그의 활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일에 대한 신념이 되었다. 한편 그것은 그의 교육 이념이기도 했다. 그는 정열의 화신이었다. 이 기백, 이 기풍, 이 신념, 그리고 이 정열로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들보가 되고, 주추가 될 청소년을 가르쳤다.

고하는 강의실에 들어가면 으레 그 독특한 ‘자로풍’의 자세로 학생들에게 민족애와 조국애, 그리고 동지애를 고취했다.

“제군은 --”

청년 교육자 고하의 강의는 그대로 강연이요 사자의 울부짖음이었다.

“제군은 학문을 닦는 사람이다. 학문은 무엇때문에 닦는가. 자기를 위해서 닦는다. 그러면 이 자기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제군의 가정의 속해 있다. 제군의 가정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 하는가”

고하는 숨을 돌릴 겨를도 없이 단숨에 불을 뿜는 강연을 했다.

“그렇다. 제군은 개인이되 개인이 아니다. 육체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그 어디에고 매어있다. ‘사람 인(人)’자가 왜 서로 버티는 형상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서로 버티어야 한다. 개인과 개인이 버티고, 조직된 단체와 단체가 서로 버티고, 온겨레가 서로 버티고 버티어야만 이 민족이 산다. 불행하게도 제군은 나라가 망한 세대에 태어났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면 제군은 참 좋은 세대에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제군은 진실로 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제군은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이 일이란 용이한 것이 아니다. 벅찬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값이 있다. 행복한 사람은 일평생 불행을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위대하여 볼 수는 없다. 제군은 평범한 안일과 행복을 바라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위대한 생을 바라는가. 어느 쪽인가. 저 김달수군은 어떤 생을 바라는가”

하고, 고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또 의견에 답했다. 교실은 선생과 학생의 토론장이 되는 것이었다.

고하는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이 나라 역사를 가르치고 민족의 나아갈 바를 가르쳤다.

“민족이란 광맥이나 물줄기와 같은 체계를 갖는다. 우리는 단군 성조(檀君聖祖) 이후로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 고려, 이조를 통해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과 정신을 세계 인류 속에 흘러 들어 보낸 위대한 민족이다. 물줄기나 빛은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가 생기어 가려지기도 하고 빛이 흐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빛 자체의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니다. 백두산에서 흘러내린 물은 혹은 지상을 흐르기도 하고 혹은 땅 속에 스며들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지금 우리는 불우하고 암흑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물이 땅속으로 흐르고 일식(日蝕)을 한 것과 꼭 같다. 언제나 물은 흐르고 있고, 또 언제나 일식은 견힐 때가 있다. 우리 민족도 이 물처럼 지금도 흐르고 있다. 이것을 잘못 알고 물이 끊어졌거나, 일식을 보고서 영원히 태양이 없어졌거나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태양이 죽던가? 민족이란 이 태양과 같은 섭리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고하는 이 민족이 처한 현실을 부르짖었다. 민족을 태양에 비기고 변절과 배신을 일식에 비꼈다. 잠시 태양이 일식으로 인해서 어두워졌다고 변절과 배신을 한다면 마치 일식을 보고 자살을 하는 사람과 꼭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유했다.

“단군 성조가 그 슬기로운 광명을 비쳐 주지 않았다면 -- 고구려도, 통일 신라도 없고, 고려도 없었을 것이 아닌가. 오늘날 제군이 있다는 것도 선조가 있고 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민족의 면면함을 설명하고 다시 민족불멸론(民族不滅論)을 폈다.

“제군들에게 일시 자손이 끊어졌다고 제군은 자살을 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제군에게 현재 자손이 없다 해도 선대부터 내려 온 피는 언제나 제군의 혈관에 흐르고 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처지이다. 오늘은 암흑시대이지만 이 일식이 견히고 찬란한 광명이 비칠 날이 있다. 이것은 신의 섭리요 진리인 것이다. 민족이 영원히 멸망하는 법은 없다. 제군은 조금도 초조해 할 것이 없다. 제군은 4천년이란 긴 역사를 두고 닦아온 굳건한 지반 위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 칼과 총으로 우리의 목을 누르고 있다. 그러나 칼과 총으로 남을 정복하는 것을 천리(天理)가 허락한 일이 없다. 우리 겨레 전부가 일본의 노예가 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우리 모두가 원치 않는 노예생활을 누가 감히 강요할 수 있겠는가? 민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고하의 한 마디 한 마디를 굶주린 지식의 주머니 속에 간직해 넣었다. 그들의 땀구멍을 뚫고 살 속으로 스며들어 한민족으로서의 피와 뼈가 되었다. 그의 이와 같은 훈화는 그들의 가슴에 새겨질 뿐 한 마디도 학교 밖에 새어 나가지 않았다.

일경(日警)은 우리 사람이 경영하는 각 기관에 여러 방법으로 밀정을 침투시키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중앙학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배신자나 이단자도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고하의 덕망의 소치이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고하는 학생들에게 혼례는 단군과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장군을 모신 앞에서 거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고하의 주장은 배달성조(倍達聖祖)인 단군과 민족 문화의 상징인 세종대왕과 임진왜란의 성웅(聖雄) 이순신 장군을 한 자리에 모셔 놓고 다시 한번 단군의 자손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세종대왕의 높으신 유업을 이어받고, 다시 한번 이순신의 충(忠)과 의(義)와 용(勇), 그리고 지(智)를 받들자는 취지에서였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서 고하는 1917년 경향 각지에 동지를 모으고, 자금을 조달하여 삼성사 건립 기성회(三聖祠 建立期成會)를 조직했다. 고하가 '삼성사'를 세우는 국민운동을 일으키자 총독부는 눈살을 찌푸렸다. 고하는 모르는 척 성금을 모으고 '삼성사'의 터를 서울 남산에 잡을 것을 추진했다. 이에 당황한 총독부는 부랴부랴 일본 천황의 영(令)으로 남산에 신사(神社)를 세운다는 것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소위 조선신궁(朝鮮新宮)이란 것으로서 지금의 남산 야외음악당 자리에서 8.15 해방까지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산이 뜻과 같이 되지 아니하자 북악산, 삼청공원을 계획하였으나 그것도 일제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3. 내일을 위한 기초학생조직

중앙학교가 계동 새 교사로 이사한 다음해인 1916년 3월이 되자 인촌이 교장직을 사임하고 평교사로 물러났다. 이를 이어 고하가 교장으로 취임했다. 이때의 중앙학교는 튼튼한 기반 위에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었다. 교사진에 있어서도 일인들을 압도했다. 본래부터 이 학교와 연고가 깊은 최규동(崔奎東), 이중화(李重華), 이광종(李光鍾), 이규영(李奎榮), 권덕규(權惠奎) 등 당대의 대가들이 모여 있었고,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인촌을 위시하여 최두선(崔斗善), 이강현(李康賢), 현상윤(玄相允), 고희동(高羲東) 등과 국내에서 명성이 높던 변영태(卞榮泰), 유경상(劉敬相), 유태로(劉泰魯), 조철호(趙喆鎬), 나원정(羅元鼎), 박해돈(朴海敦) 등등 쟁쟁한 기예들이 모여 교편을 잡고 있었다.

고하는 교장이 되어서도 봉급은 월 30원이었다. 이것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교사들에게는 후하게 책정했다. 예를 들면 수학담당인 최규동에게 80원을 지급하는 등 타교에서 볼 수 없는 대우였다.

고하는 교장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강의를 멈추지 아니했다. 더욱이 교단에서만 학생들에게 이 나라 역사를 가르치고 이 민족의 나아갈 길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가르침은 교단을 내려와서 비로소 본격화했다. 수업이 끝나면 교원으로서 또는 교장으로서의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니라 가정 방문을 하여 학생지도에 임했다. 고하, 아니 송교장은 일일이 학생의 집과 하숙을 찾아다녔다.

“뭘 하느냐?”

“누구십니까?”

“내다. 나, 송진우다”

교장이 하숙에 찾아 올 리도 만무요 또 송진우라고 할 리도 만무다. 학생은 다만 친구들의 장난으로만 안다.

“에이 이사람, 들어오게”

문을 열고 보면 틀림없는 송교장이다.

“아, 선생님께서 어떻게 여기를...”

“들어가도 좋은가. 난 자네들이 지금쯤 뭘 하구 있나 보려고 왔네”

고하는 방안에 들어와서 기웃거리 보고 학비가 어려운 눈치면 얼마되지 않는 돈이나마 슬며시 방석 밑에 넣어 주기도 했다.

“아, 이 사람,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데 이런 걸 좀 바르고 살지. 어서 안에 들어가서 밥풀을 좀 가져오게”

문구멍이 뚫어져 있으면 창호지를 발라 주었다. 그리고는 사람이 난 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를 일깨워 주었다. 우리가 지금은 왜놈들에게 짓밟혀서 굴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천리(天理)가 반드시 불합리를 시정하여 줄 것이라는 것을 불어넣어 주었다.

“우리는 그때를 앉아서만 기다려서는 안된다. 기회는 언제 올는지 모른다. 이 문제는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와 손을 잡고 세계 정세의 변화에 응하여 시시로 움직여야 한다. 때는 기필코 언젠가는 온다. 때가 왔을 때 우리가 비로소 준비를 하다가는 시간적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으니 우리는 언제나 모든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고하는 민족독립이 가까워 옴을 다짐하고 역설했다.

“그래 어떤가.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가 오면 자네도 목숨을 내어놓고 나와 함께 일할 수 있겠

는가?”

고하는 학생들의 결의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랫목에 손을 대어보고 방이 차면 주인을 부르기도 했다.

“성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지 우리자식이나 동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덕의 자제가 타관에 가서 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그 집주인이 내 자식처럼 잘 돌보아 주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또 따지고 보면 내 자식, 남의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들이 공부를 잘 해서 우리나라가 잘 돼야 우리네가 늙어서 고생이 적지요”

하고, 고하는 나이 어린 학생들이 객지에 와서 공부를 하니 내 자식처럼 돌봐 줄 것을 신신 당부 하고서야 자리를 뜨는 것이었다.

“아니, 그 양반이 정말 중앙학교 교장선생님이신가요...”

주인은 고하가 돌아간 뒤에 수상스러워 학생에게 다져 묻는 것이 일쑤였다.

고하의 가정 방문은 한 달에 한두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의 일과였다. 밤낮을 가리지 아니했다. 하루 평균 스무시간의 과중한 근무에도 잘 견디었다. 그러나 피곤하면 눈을 감고 조는 듯이 쉬었다. 직원회의를 하다가도 졸았다. 학생들에게 필기를 시켜 놓고도 꾸벅꾸벅 졸 때가 있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잘 조는 교장’ 또는 ‘간식(間食)교장’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러나 고하는 조는 것이 아니었다. 학생지도문제며 학교운영문제 등 계획과 설계를 구상하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중앙학교 3백여명 학생들은 고하의 감화를 받아 ‘사제 제일주의(師弟第一主義)’에 뭉치게 되고, ‘민족일가주의(民族一家主義)’로 단합이 굳어져서, 점차로 교규가 확립되고 기반이 닦아졌다.

이렇게 고하가 학생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단합을 촉구한 것은 내일의 민족독립의 쟁취를 위함이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조직의 전초전(前哨戰)을 폈던 것이다. 언제 어디서 도화선에 불이 붙기만 하면 폭발할 태세가 갖추어져 가고 있었다.

1918년 1월, 윌슨 미국 대통령은 제1차세계대전의 종결을 위한 ‘14개조의 평화의견’을 발표했다. 그 속에는 ‘민족자결(民族自決)’이라는 대 원칙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보다 조금 앞서 1917년 9월에는 뉴욕에서 25개 약소민족 대표자 회의가 열려, 한인대표도 여기에 참석했다. 그리고 세계대전의 종결을 확인하는 평화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파되었다. 이에 고하의 흥분은 점차 고조되어 갔다.

고하가 손모아 빌고 기다리던 기회였다. 이같은 기회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그 대비책에 은연중 심혈을 기울인 그였다. 교단에서의 열변에도 열이 더하여갔고,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떠올기 시작했다.

때가 오면 적시에 동원하기 위해서 고하는 학생들의 연락반 조직에 착수했다. 명목은 학교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긴급소집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했다. 학생들의 주소를 지역적으로 분리하여 ‘반’을 조직했다. ‘반’에는 ‘반장’을 두어 교원의 명령에 따라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총 책임자는 고하로 하고, 만일을 위해서 일체의 횡적 연락은 모르게 만들었다. 오직 종(縱)적인 연락망이었다.

3.1운동 전해(1918) 가을에는 우선 조직의 준비를 위해서 가장 신용할 수 있는 몇몇 학생을 하학 후 그의 숙소인 학교 뒤 단간방 숙직실로 불러들이기까지에 이르렀다. ‘연락반’의 최후 검토와 조직의 종적 상황(縱的狀況)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고하는 시험삼아 밤에 열명의 학생에게 비상 소집을 걸었다. 한시간 10분만에 전원이 모였다. 인력거를 타고 오는 학생도 있었다. 고하는 “고맙다. 기쁘다”는 말 이외에는 형용할 말을 찾지 못했다. 고하와 학생들은 굳어진 표정을 풀고 소집에 관한 의견교환을 가졌다.

“이제부터 추운 겨울에 들기 시작해서 시내에 불이 잦기에 한번 시험해 본 거야. 전교생을 학교에 모으자면 얼마나 걸릴까”

“세 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고하는 만족했다. 그리고 모인 학생에게 미리 준비한 호떡과 사과를 내 놓았다. 그리고는 한민족으로 태어난 이상 한민족답게 값있는 생을 가져야 한다는 훈화를 잊지 않았다. 학생들은 감격했다. 저마다 민족독립의 명예를 질 대열의 전위대가 될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고하의 조직은 학생을 중심한 대내적인 것에서 사회저명인사를 중심한 대외적인 조직으로 진행되고 발전했다.

고하를 중심한 구국운동은 본격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동시에 한민족 대표를 '예비 평화회의'에 파견해야 하겠다는 운동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예비 평화회의' 다음에는 파리에서 본격적인 평화회의가 열릴 것이 틀림없었다. 고하는 더욱 초조했다. 기회는 이때라고 생각했다. 외국에 망명한 구국의 동지나 선배가 그리웠다. 그러나 손쉽게 연락할 도리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고하는 울 안에 갇힌 사자가 되어 포효(咆哮)했다.

"으으응... 으으응..."

고하는 해외의 망명 동지들과의 연락이 되지 않아 애태우며 몸부림쳤다. 고하 주위의 가장 가까운 동지인 인촌 김성수, 기당 현상윤(幾堂 玄相允), 백농 최규동(白農 崔奎東) 등도 고하와 같은 심정이었다.

때마침 중국 상해와 미국에서 보낸 밀사가 서울에 들어왔다. 대내적으로 학교, 대외적으로 일반 사회, 그리고 해외와의 종적연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계획은 그 발화점에 접근했다. 온 민족이 쫓겨난 3.1운동의 거사 계획은 이와같이 무르익어 갔던 것이다.

4. 3.1운동의 책원본부(策源本部)

일제의 침략을 받은 이 나라에는 오직 굴종과 착취만이 강요되고 있었다. 초대 총독 데라우찌(寺內正毅)가 공언한 조선통치의 기본방침인 무단정치(武斷政治)는 제2대 총독 하세가와(長谷川好道)에 의해서도 역시 답습되었다.

무관(武官) 총독을 정점으로 한 조선총독부의 수족은 헌병과 경찰이었다. 헌병사령관의 지휘하에 헌병대장, 헌병, 경찰관 또는 그들의 앞잡이들로 구성된 헌병보조원의 움직임은 민족운동을 그 싹에서부터 짓밟고 탄압했다.

한편 이 민족의 수탈기관으로는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란 것이 있었다. 합방전인 1908년에 설립된 이른바 동척(東拓 - 東洋拓殖株式會社의 줄임말)은 식민지 수탈기관으로서 호남이나 황해도 등 주로 비옥한 농토만 골라 혹은 헐값으로 매수하고 혹은 고리채에 저당으로 잡아 강탈하는 등으로 농토를 빼앗았다. 그리하여 이민으로 오는 일본인들에게 저리 용자를 해주고 농토를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농토를 잃고 빈손이 된 한인들은 남부여대(男負女戴)하여 만주로 넘어가고 혹은 낱품팔이차 일본으로 건너가거나 유리걸식으로 전전하기에 이르렀다.

일제는 비단 토지수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천연자원인 삼림, 어장, 광산 등의 독점은 물론 생활필수품의 상거래까지도 그들이 독차지하여 폭리를 취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근로하는 봉급생활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봉급에서만도 60% 차등을 두었다. 제도적으로 그들에게는 후대를 하고 특전을 주는 반면 조선사람들에게는 박봉으로 허덕이게 하여 노예화하는 데 주력했다.

일제가 이 나라를 침략한지 10년, 한민족의 생활은 물질, 심적으로 극한점에 다달았다. 더 참고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다다른 것이다.

1914년 7월, 유럽에서는 독.오.토(獨.壘.土) 등 동맹국과 노.불.영(露.佛.英) 등 연합국과의 전쟁이 일어났다. 이때 독일까지 진격했던 러시아(露)가 패망하기 전후하여 중립을 지키고 있던 미국이 1917년 2월 연합국측에 가담했고, 극동에서는 일본이 또한 연합국편에 가담하여 독일이 영유하던

중국의 청도와 남양군도를 점령했다. 이른바 제1차 세계대전이다.

이 대전의 결과로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다음 두가지를 들 수 있다. 그 하나는 국제 정치.경제무대에서의 미국의 현저한 대두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에 역사상 처음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수립된 것이다. 1917년 3월 케렌스키 등이 중심이 되어 혁명을 일으켰고(3월혁명), 일시 공화정부가 수립되었다가 11월 레닌 등이 중심이 된 공산주의 국가(소비에트연방.蘇聯)가 성립된 것이다. 그후 미국은 세계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소련은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상반된 노선을 걸어 가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주로 막대한 물량을 움직여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면서 전후문제의 일환으로 당시 윌슨대통령은 국제연맹(國際聯盟)의 결성을 제창하고 강화14개조를 제시했다. 그 중에 민족자결 원칙이 들어 있었다. 즉 한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윌슨의 14개조가 발표된지 10개월이 지난 1918년 11월, 독일에 혁명이 일어나 제정(帝政)이 무너지면서 1차대전도 끝을 보게 되었는데, 윌슨의 제창에 의한 강화회의가 다음해 1월부터 파리에 열리게 된 것이다. 같은 11월, 한일합방 전후부터 미국과 중국 등지에 망명하고 있던 조선인 지도자들은 물실호기(勿失好機)로 그 움직임이 활발하고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론(民族自決論)이 나라 안에 들어오자, 총독부와 경찰은 경계의 눈초리를 번득였다. 그들은 단속이란 구실 아래 마수를 뺏치기 시작했다. 사상 불온의 요시찰인(要視察人)에 대해서는 점차로 압박을 가중했다. 중앙학교와 고하, 그리고 인촌도 대상 밖일 수는 없었다.

고하의 일상생활에 감돌던 망국의 우울은 1918(戊午) 10월에 접어들면서 점점 걷히기 시작했다. 그것은 민족독립의 서광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고하는 그 서광을 찾아 중앙학교와 국내의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조직을 확대하고 국외와의 연락을 기도했다. 연락은 여의치 않았다. 초조하기는 했으나, 결코 우울하지는 않았다.

그날도 조직의 중심이 될 학생들을 숙직실에 불러 놓았던 날이다. 바로 그때였다. 밖에서 망을 보던 학생이 뛰어 들어 와서 수상한 인적이 가까워 옴을 알렸다. 고하는 만일을 위해서 학생들을 뒷문으로 도망치게 했다. 고하가 앞문을 열고 나가 본즉, 인촌이 보낸 심부름꾼이었다. 인촌은 심심하니 술이나 한잔 나누자고 사람을 보낸 것이었다. 고하는 계동으로 인촌을 찾았다. 여기서는 뜻밖에도 여운홍(呂運弘)이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의 밀명을 띠고 상해를 거쳐 국내로 들어 온 것이었다.

“눈이 빠지게 기다렸소. 그래 어떻게 되었소?”

고하는 뿔뿔이 기뻐다. 금방 독립이 된 것처럼 가슴이 벅찼다.

우남 이승만(雲南 李承晩)의 밀명내용은 이러했다.

“윌슨 미국 대통령이 구상한 민족자결론의 원칙이 정식으로 제출될 이번 강화회의를 이용하여 한민족의 노예생활을 만방에 호소하고 자주권을 회복시켜야 한다. 미국에 있는 동지들도 이 구국운동을 추진시키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이에 호응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중국에 망명중인 망명객들은 파리에서 열릴 강화회의에 한민족 대표로서 김규식(金奎植)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으니 국내에서도 이 구국운동에 호응하여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부연했다.

진정 기다리고 바라던 소식이었다.

“국내 일은 우리가 맡아서 할테니, 정세가 달라지는대로 다시 연락을 해 주길 바란다”

고 우남의 연락에 대한 회답을 했다.

이를 전후하여 고하를 중심한 국내세력은 고하와 기당이 묵고 있는 중앙학교 숙직실을 총본부로 하여 활동을 개시하고 있었다.

그동안 해외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 사이에는 제1차 대전의 뒷처리 대책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산

발적이거나 점차 조직활동이 활발해갔다.

그중에

<1> 미국 워싱턴에서는 이승만.안창호(島山 安昌浩) 등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가지로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미국대통령에게 우리의 독립을 요망하는 서한을 보내는 일방 이승만.정한경(鄭翰景) 등을 파리로 보낼 계획을 세웠고,

<2> 중국 상해에서는 이곳에 망명하고 있던 신규식(申奎植), 여운형(呂運亨) 등이 중심이 되어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강화회의에 김규식(尤史 金奎植)을 대표로 보낼 것을 의논하고 미국 등지에서 연락 닿는대로 국내외 각처에 밀사를 보내어 그간의 소식을 전하는 등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했던 것이다.

<3> 한편 일본 동경에 유학중인 학생으로 백관수(白寬洙), 김도연(金度演), 송계백(宋繼白) 등은 1차대전 직후 급변하는 열강의 동향을 살피면서 정기총회, 학술토론, 졸업축하 등등을 구실로 빈번한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해외 선배동지들의 활동에 호응하고 시기를 포착하여 적절한 운동을 벌이고자 동지를 규합하고 거사계획을 의논했다.

1918년 12월초 일본에서 발행되는 《재팬 애드버타이즈먼트》와 조일신문(朝日新聞)에는 미주의 동포들이 이승만과 정한경을 민족대표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키로 결정하고 그 경비까지 모으는 등의 기사가 실려있었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동경유학생들은 서둘러 본국 지도자들과 연락하여 대책을 세우고자 송계백을 서울에 파견하여 고하 등을 만나게 했다.

이지음 천도교(天道敎)측이나 기독교(基督敎)측에서도 해외 정세의 동향에 대한 소식이 여러 방면에서 들어오자 그들 나름대로 무엇인가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였으나 결정적인 대책이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 운동은 성격상 국내의 어느 한두개 종파나 단체의 힘만으로는 성공될 수도 없었고, 또 국외에서도 몇몇 사람이 운동을 제창하고 호소한다고 하여 효과를 기대할 수는 더욱 없었다. 여기에 국내에서 주된 민족세력이 단결하여 거사를 하고 국외에서 이에 성원을 보내면서 이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운동이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운동을 거족적이며 역사적인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려면 당시 국내에서 가장 두드러진 단체인 천도교와 기독교의 두 교파를 규합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고하는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다소의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고하와 그 동지들의 열성어린 노력으로 대아(大我)를 위하여 제후하게 되었고 독립쟁취에의 길로 거보를 내딛게 된 것이다.

와신상담(臥薪嘗膽)하기 10년, 고하가 목이 타게 기다리던 기회는 드디어 왔다. 고하의 심정은 미칠 것 같이 기뻐다. 금시 독립이나 될 것 같이 안절부절 했다. 들뜬 마음이 바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침착해지는 것이 고하의 특징이기도 했다.

고하는 인촌과 기당(幾堂) 등 셋이서 고하의 숙소인 중앙학교 숙직실에 자주 모여 거사에 대한 회합을 거듭했다.

“피 제사라도 한번 지내보자...”

고하의 말을 기당이 받아서 물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고하는 눈을 감고 입만 움적움적했다.

“무슨 묘안이 없을까”

인촌이 고하와 기당의 얼굴을 두루 쳐다보았다. 고하는 깊은 생각에 잠길 때, 으레 하는 버릇으로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잠시 후 고하는 눈을 뜨고 말했다.

“천도교를 움직이자”

“천도교...?”

“그렇지.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는 이보다 더 큰 조직이 없어. 동학혁명(東學革命)이 실패는 했지

만 그만큼 기세를 올린 것도 그만큼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야. 만약에 천도교가 움직여 주기만 한다면 야소교(耶蘇敎)도 움직일거야. 그리고 학생동원은 내가 맡겠어”

고하의 안(案)은 그 자리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고하는 아무리 큰 일을 당해도 즉석에서 정확한 판단과 뛰어난 기지를 발휘하는 사람인지라, 이번에도 미리 준비나 해 둔 것처럼 곧 실천안을 제시했다.

“천도교를 동원하자면 먼저 천도교의 교주인 의암 손병희(義庵 孫秉熙)를 움직여야 해. 그러나 우리가 의암과 직접 접촉을 하자면 먼저 교주의 세 눈동자라고 하는 권동진(權東鎭), 오세창(吳世昌), 최린(崔麟)의 세사람을 움직여야 해. 그런데 우리 셋 중에서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하자면 먼저 현형이 최린을 만나는 것이 첩경일거요”

고하는 기당과 고우 최린(古友 崔麟)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당은 정주(定州) 출신으로 평양 대성학교를 다니다가 세칭 백오인사건(百五人事件)으로 학교가 문을 닫게 되자 서울로 올라와서 최린이 교장으로 있는 보성학교를 다녔다. 보성학교를 마친 후 도일, 동경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중앙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기당과 고우는 사제지간이었다.

그당시 사정에 대한 기당의 구술(口述)에 의하면 기당은 고우를 찾아서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거사에 가담할 것을 종용했다. 최린은 회의하는 태도로 말끝을 흐렸다.

“지금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모두를 자기들 앞가림만 하려 드는 세상이란 말이야.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은 되어 주지 않아. 더욱이 구미(歐美) 사람들의 이기주의는 적극적이야. 먼저 노일전쟁 때만 보아도 그렇지 않았나. 또 그 꼴이 되기 쉬워. 월슨 대통령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디 월슨 마음대로 돼야 말이지...”

기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역설했다. 미국에 있는 이승만(李承晩)과 정한경(鄭翰景) 두 분이 평화회의에 참석하기로 되어있는 등 그동안 전해들은 해외소식을 설명해도 고우는 승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연 가망이 없는 눈치는 아니었다.

고하는 기당을 앞세워 일주일에 평균 두 번 풀이나 찾아다니며 권유했다. 고하의 끈질긴 설득에 마침내 최린도 움직였다. 최린은 가담의 뜻을 표명하면서 의암에게는 직접 말할 단계가 아니니 조금만 참아 주면 우당 권동진(憂堂 權東鎭), 위창 오세창(葦滄 吳世昌)의 동의를 얻어 셋이서 진언(進言)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육당 최남선(六堂 崔南善)도 함께 참가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붙였다.

다음은 육당을 교섭할 차례였다. 고하는 이번에도 기당을 특사로 보냈다.

“나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यो”

하고, 육당은 기당의 권유를 여러가지 이야기 끝에 거절했다. 고하는 육당의 말을 전해 듣고도 낙망의 빛이 조금도 없었다. 육당이 지금은 반대의사를 표하지만 이 민족적인 거사를 끝내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뒤 얼마되지 않아서의 일이었다. 밤을 이용하여 고하의 숙소를 찾은 밀사가 있었다. 중앙학교 교사로 있다가 동경유학을 떠난 백관수(白寬洙)가 보낸 일본 유학생 송계백(宋繼白)이었다. 송계백은 고하를 보고 조용히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고하는 송계백을 앞세우고 숙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인촌의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갔다. 방으로 인도하자, 송계백은 쓰고 있던 학생모자 안을 뜯고서 얇다란 비단 수건을 내어놓았다. 그 삼팔주 수건에는 잔글씨가 가득 쓰여 있었다.

“됐다...”

하고, 고하는 깨알같은 글씨를 읽어보기가 무섭게 무릎을 쳤다. 고하의 추측대로 동경유학생들이 작성한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가 아닌가.

고하는 독립선언서를 읽고 적이 감격했다. 국내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해외연락이 좀더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학생의 몸으로 국내보다도 먼저 발족을 한 데 고하는 한편 놀라웠고, 한편 기쁘기

도 했다.

송계백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어 전말을 이야기하였다. '독립선언서'의 초안은 근촌 백관수(白寬洙)가 작성하고 춘원 이광수(春園 李光洙)가 퇴고(推敲)했다는 것이다. (송계백이 서울에 온 것을 학교선배인 기당을 찾아왔다고 기록한 데도 있으나 여기서는 6.25전 근촌의 구술과 당시의 여러 가지 정세로 미루어 근촌의 구술에 따랐고, 선언서 작성도 춘원이 전담한 것처럼 기록한 서적이 있으나 여기서는 역시 근촌, 상산(常山 金度演) 등의 구술에 의한다.)

그리고 이것을 인쇄하고자 하나 동경에서는 한글 활자를 구할 방법이 전혀 없으니 조속히 국내에서 활자를 구해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동시에 독립 선언일은 국내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 가지고 동일동시(同日同時)에 거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활자뿐이겠는가”

고하는 송계백의 손을 힘주어 잡고 굳은 어조로 말했다. 송계백도 손을 잡힌 채 감격한 표정을 금치 못했다.

동경으로부터의 연락을 받은 고하는 한층 더 용기를 얻었다. 천도교도도 야소교도도 움직여 주지 않으면 학생만으로도 거사할 결심이었다. 서울 장안의 학생 동원에는 고하가 자신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지만, 그것도 똑같이 못한다면 중앙학교 학생만으로도 거사할 각오였다.

동경에서 온 밀사 송계백을 하숙에 숨겨 두고 이튿날부터 고하와 기당은 다시 치밀한 계획을 짜고 활동을 개시했다. 활자는 육당이 경영하는 출판사 신문관(新文館)에서 얻기로 하고, 육당을 찾기로 했다.

“육당은 문학가이니만큼 이것을 읽어보면 거절하지 않을 거야...”

육당은 출타중이었다. 고하와 기당이 찾더라는 전갈을 전해 듣고, 육당은 중앙학교로 고하와 기당을 찾았다. 숙직실로 안내된 육당은 고하가 보여주는 삼팔주 수건을 내려 읽으면서 점차 얼굴에 감격의 표정이 돌았다. 육당은 감격한 나머지 읽다 말고 두 번이나 쉬고서 또 읽었다. 얼굴이 푸르락 붉으락 하더니 선언서를 쥔 손이 떨렸다. 고하는 육당의 옷소매를 던지시 잡아 끌었다.

“육당, 어떻게 하시겠소. 우리 같이 합시다”

하고, 고하가 말하자,

“합시다”

육당도 힘찬 한 마디로 동조할 것을 쾌락했다. 육당은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국내에서 사용할 '독립선언서'는 자신이 쓰겠다고 다짐했다. 고하와 육당은 떨리는 손을 맞잡고 한참 동안이나 서로 말이 없었다. 고하와 기당의 눈에도 육당의 눈에도 감격에 벅차 눈물이 고였다.

“일전에 내가 그렇게 사양한 것을 사과하오. 그 때는 일이 이렇게까지 진척된 줄을 미처 몰랐소. 그러지 않아도 오늘 고하를 찾은 것은 그 동안 어떻게 진척이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좀 듣고 싶어 온 것이오. 우리가 안하면 누가 하겠소. 활자는 내가 구할 테니 아무 걱정 마시오. 최린에게는 내가 가지요. 아니 그럴 것 있나요. 우리 셋(古下.六堂.幾堂)이 함께 갑시다”

육당이 말끝을 맺자,

“권.오.최 세사람 중에서는 최린이 가장 강력파니까, 최씨가 움직여만 준다면 권.오도 그대로 있지는 않을 거요”

하고, 고하는 최린의 성격까지 분석하면서, 우선 최린부터 찾을 것을 강조했다. 기실 최린이 동의만 한다면 권동진, 오세창도 연쇄반응으로 움직일 것 같았고, 또한 의암(孫秉熙)의 동의도 얻을 것 같았다.

고하는 곧 기당으로 하여금 최린에게 '독립선언서'를 갖고 가도록 했다. 그날 밤 기당은 '독립선언서'를 몸에 깊이 지니고, 최린을 찾아가서 사실의 전말을 이야기하고는 삼팔주 수건의 '독립선언서'를 내어 보였다. 이를 본 최린도 육당처럼 흥분했다.

“좋아, 좋아. 장한 일이야...”

일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권동진과 오세창에게도 '독립선언서'를 보이고 동의를 얻은 다음 최린은 권과 오와 셋이서 의암에게 나아가서 진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일 안으로는 어떻게든지 방도를 취할테니, 내일 저녁에 내 집에서들 만나지..."

기당은 최린과 약속하고 돌아와서 다시 고하와 인촌을 찾았다. 기당의 보고를 들은 고하는 일이 점차 성공되어감을 직감했다. 그러나 인촌은 별로 최린을 신임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이튿날 최린을 방문하기까지 고하는 몹시 초조했다. 지루할만큼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고하와 기당은 중앙학교를 떠나 약속시간에 최린을 찾았다.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 최린의 얼굴에서 기쁜 빛을 읽을 수 있었다.

"대성공이요, 대성공..."

하고, 최린은 고하와 기당의 손을 번갈아 잡으면서 말했다.

"의암선생도 크게 감동이 되어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느냐고 그러십니다"

최린은 술상을 차리게 했다. 술을 권하면서 의암을 만나기까지의 경로와 회담 내용, 그리고 의암의 의견까지 덧붙여서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때 육당도 뒤미처 달려왔으므로 4인이 참석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일이 단번에 성공되리라고는 보지 않소. 그래서 현재의 우리 재정과 인원을 반분해서, 반은 제1차에 참가시키고, 나머지 반은 제2차로 동원할 계획이오. 이것은 의암선생의 의견이지만, 내 생각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데... 어떠시오?"

"좋은 방침입니다"

최린의 의견에 고하와 기당 그리고 육당도 찬성했다. 이때 고하를 더욱 감격시킨 것은 의암이 제1차에 참가하겠다는 의견이었다.

이튿날 밤에도 네사람은 축하 술을 나누며 거사 대책을 협의하고 실천 방안을 세웠다.

첫째, 독립선언서를 다량으로 인쇄해서 살포하고 전국에 발송할 것.

둘째, 파리 강화회의와 세계 각국에 한국 독립에 관한 의견서를 발송할 것.

셋째, 일본정부와 일본 귀족원(貴族院).중의원(衆議院) 및 조선총독부에 의견서와 항의서를 발송할 것.

등이었다.

그러나 가장 중대한 문제에 봉착했다. 거사 당일 독립선언서가 뿌려지고, '독립만세' 소리가 삼천리에 진동하면 놈들이 무력을 쓰지 않을 리가 만무하니, 이 무력에 어떻게 대항하느냐의 문제였다. 결국 무력항쟁의 길을 피해서, 비무력항쟁(非武力抗爭)의 방향으로 중론이 모아졌다. 이쪽에서 폭력으로 나가지 않는 한 저희가 무력을 쓸 리가 없고, 만일 이쪽에서 폭력을 쓰기로 한다면 무기도 없이 너무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될 것이라는 고려에서였다. 비폭력 항쟁으로 민족적인 의사를 전 세계에 선포하고, 잠자는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자는 데 의견의 합치를 보았던 것이다.

"우리는 이 운동에 직접 참가할 각오를 해야 하겠지만... 뭐 유행성 감기에 걸린 셈 치지요"

최린은 농담까지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졌다.

네 사람은 다시 이번 운동에 월남 이상재(月南 李商在), 좌옹 윤치호(佐翁 尹致昊), 춘고 박영효(春阜 朴泳孝) 등 원로급을 가담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거물급으로 의암 손병희(義庵 孫秉熙) 한 사람만으로는 미흡하므로,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되도록이면 거물급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이상재, 윤치호, 박영효 등도 가담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박영효는 내가 맡지요. 이상재 윤치호는 육당이 맡으시면..."

하고, 고하는 최린의 걱정을 받아서 자기 의견을 제시했다. 즉석에서 육당도 응낙했다.

이리하여 밀사(密使) 송계백(宋繼白)이 국내에 들어온지 불과 며칠 동안에 구국회천(救國回天)의

항쟁인 3.1독립운동의 거사 계획은 거짓말처럼 단시일에 무르익어갔다.

육당이 주선하기로 한 활자도 구해졌고, 자금도 조달되어 송계백을 동경으로 돌려 보낼 수 있었다. 고하는 송계백을 통해 근촌(芹村)에게 보내는 비밀지령을 보냈다.

첫째, 거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

둘째, 동경에서 준비가 다 되었다 해도 절대로 먼저 거사하지 말 것.(동경은 간단하지만 국내는 넓으니만큼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임.)

셋째, 적어도 거사하기 일주일 전에 연락할 것.

넷째, 일체의 연락은 전보로 할 것. 비밀암호는 주식시장이나 미곡거래소(米穀去來所 - 米豆)에서 쓰는 용어, '샀다'를 '귤기'한다로, '가격'은 '날짜'로 할 것. (즉 '3.1에 샀다'하면 '3월 1일에 귤기한다'는 뜻으로...)

다섯째, 비밀 누설에 특히 유의할 것.

등이었다. 이리하여 송계백은 다시 현해탄을 건너 바빠 일본 동경으로 떠났다. 1918년 설달 그믐께의 일이었다.

한편 이 무렵의 상황과 관련된 일화 하나를 여기에서 소개한다.

3.1운동이 지나고 10년도 더 지난 뒤의 일이다. 고하는 동아일보 사장으로, 기당은 중앙학교 교장으로서 계속되는 일제의 탄압에 굳건히 항거하고 있을 때 두 동지는 서로 찾으며 당면한 일들을 의논하곤 하였다. 어느날 기당이 원골(현 苑西洞)의 고하댁 사랑으로 고하를 찾아 들어서자

“아, 우리 문지기가 오시는군, 오늘도 파수를 잘 좀 부탁하오”

하고 코를 찡긋하고 웃으며 반겨 기당을 맞이하였다. 고하의 이러한 인사말에

“그게 무슨 소리요, 이래도 내가 3.1운동 주모자의 한사람인데...”

하고 기당은 응답하였다.

이를 보면 고하는 동지에게도 이와같은 유모어로 대할 여유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3.1운동 계획 모의 당시 계동 중앙학교 숙직실을 집합장소로 하여 국내외의 요인(要人)들의 출입이 잦게 되었을 때, 주로 밤에 왕래하므로 일본 경찰 등의 탐정을 조심하기 위해서 동지중 한사람이 학교 정문옆에 서 있는 은행나무 노목(老木 - 지금도 있음)뒤에 은신하고 사람의 왕래를 살피곤 하였다. 이 파수를 보는 일을 주로 기당이 전담하다시피 한데서 연유한 고하와 기당 두 분만의 유모어이다.

5. 동경 '2.8선언' 전후

최린이 권동진.오세창을 움직여서 함께 의암을 찾아 찬성을 얻은 뒤를 이어서, 최린의 집에서 고하.최린.기당.육당이 거사를 모의한지 4, 5일 지난 어느날 밤의 일이었다. 계동 골목에서 중앙학교를 향하여 올라가는 30 전후의 두 젊은이가 있었다. 두 청년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어깨쪽지를 드리운 걸음걸이었다. 필시 무슨 곡절이 있어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그들은 최린을 만나고 돌아오는 고하와 기당이었다.

원로급 인사들을 찾아가 거사에 참여해줄 것을 교섭했으나 거절함으로써 낙심하여 돌아오는 길이었다.

고하가 담당했던 박영효(朴泳孝)는 고하의 청으로는 들어줄 것 같지가 않아서, 유길준(兪吉濬)의 아우로 칙임참여관(勅任參與官)을 지낸 유성준(兪星濬)을 대신 보냈던 바, 박영효는 한 마디로 거절이었다.

“나는 그런 일엔 참견 못하겠소”

고하의 간청을 받은 유성준에 앞서 의암도 직접 박영효에게 속을 떠본 일이 있었다. 이때에도

박영효는

“뭐, 내가 그런 일까지...”

하고, 거절했던 것이다.

또 육당이 담당한 윤치호(尹致昊)와 이상재(李商在)도 거절했다. 윤치호의 경우 육당의 설명을 듣고는 얼굴까지 붉히면서,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감옥 생활에는 더 견딜 수가 있어야 말이지...”

하고, 점잖게 거절했다.

제1차의 후보자 교섭에는 완전 실패였다. 그러나 고하.기당.육당.최린 -- 이 네 사람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제2 후보자로 한규설(韓圭堯), 윤용구(尹用求)의 두 사람을 골라서 교섭하기로 했다. 윤용구는 육당이 말고, 한규설은 고하가 맡았다.

육당이 맡은 윤용구는 육당이 직접 만났으나 첫마디에 거절이었다. 고하가 맡은 한규설은 고하가 직접 만나지 않고, 유진태(兪鎭泰)를 중간에 넣어 교섭했다. 이때 한규설은

“암, 해야지. 저희들이 우리 땅을 거저 빼앗아 갔으니 총독에게 도로 내 놓으라고 해야지...”

이렇게 선선히 응낙하고 독립선언서를 발부할 계획까지 합의를 했으나, 그 뒤 윤용구와 연락을 취하더니, 애초의 승낙을 번의(翻意)하고 말았다.

들어오는 보고마다 서글픈 소식뿐이었다. 가담하던 안하던 간에, 이제는 비밀이 누설되지만 않을까 적이 걱정이 되었다. 최린의 안방에서 네 사람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침울이 계속되었다. 오랜 침묵 끝에 최린은 좌중을 향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육당. 일이 이쯤 되었으니 우리 의암만 모시고, 우리끼리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소. 사내 자식들이 일을 시작했다가 말 수야 있소. 시작이 반이란다...”

최린이 팔을 걷고 나서자, 육당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뜻밖의 말을 했다.

“.....난 광문회(光文會)와 신문관(新文館) 일 때문에 못하겠소”

육당의 이 한 마디는 방안 공기를 숨막히게 하고 말았다. 최린은 육당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 침묵 끝에 최린은 좌중의 고하를 향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고하. 고하는 어떻게 하겠소?”

고하도 잠시 말이 없었다. 이제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는 중앙학교의 일을 위시하여 여러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리를 스쳐갔다. 그러나 나라를 찾고 민족을 지키는 일이 더 중했다. 천장만 쳐다보던 고하는 최린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합시다”

고하는 한 마디로 말끝을 맺었다. 최린은 고하의 말에 용기를 얻고, 다시 육당에게 권유했으나, 육당은 역시 못하겠다고 거절했다. 끝내 육당이 거절하므로 이번에는 최린도 그만둘 뜻을 표명했다.

“해야만 할 것보다 안해야 할 것이 더 많은 세상이기도 하나 옳다고 생각하고 하기로 작정한 일이라면 죽은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내야만 하오. 그러므로 육당이나 고하 자네들의 주저는 다 부질없는 것이오. 한번 옳다고 작정한 것인 이상 거사는 기어코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오...”

이리하여 고하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구국운동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고하와 기당은 최린의 제안대로 일단 중단하기로 하고 숙소인 중앙학교 숙직실로 힘없이 돌아오던 길이었다.

1차 포섭대상이었던 이상재, 윤치호, 박영효의 거절, 2차 포섭 대상이었던 한규설과 윤용구의 거절, 이 거절사태에 실망하고 지쳐서 육당이 운동참가에 사양의 뜻을 표하고 다시 최린이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니 모두 허망한 공론이 되었다.

고하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 누운 기당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기만 했다.

“현형, 일어나시오”

고하는 기당을 깨우면서 일어났다. 고하는 기당에게 초지를 일관할 뜻을 밝혔다.

“최린은 단념하자고 했지만, 나만은 단념을 못하겠소. 사내자식으로 태어나서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해야지. 목숨이 다 무엇이오. 사람이 죽으면 한번 죽지 두 번 죽겠소? 한번 공공 앓다가 죽으나, 목이 뎅경 잘려 죽으나 한번 죽긴 다 마찬가지로야. 도리어 무서운 병을 앓다가 고통속에서 죽기보다는 목이 잘려 죽는 편이 낫겠지. 어떻게 하겠소?”

“합시다, 해요...”

“고맙소. 그런 결심만 선다면 무얼 못하겠소. 다시 시작해야지. 육당은 한규설, 윤용구가 나자빠지는 통에 겁을 집어 먹었지만 지금쯤 몹시 후회하고 있을 거요. 최린도 체면이 있지 않소. 최린도 반드시 후회하고 있을거요”

“그렇다면...”

“내버려 두었다가 한 4, 5일 지나서 찾아가 보시오. 육당도 그 동안 생각이 많을 거요”

고하와 기당은 다시 기회를 엿보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 해결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첫 실패는 고하에게 새 경륜을 받게 했다. 이 거족적인 운동에 진작부터 야소교를 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고하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천도교에만 전념한 나머지 야소교측을 소홀히 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기독교의 대표적 인물인 정주(定州)의 남강 이승훈(南岡 李昇薰)을 생각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천도교에만 기대를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소. 천도교가 백만이라는 그 수효만을 생각했던가 싶소. 야소교도도 있지 않소? 야소교도는 그만큼은 못되지만 상당수이니 남강을 불러올려서 한번 상의해야 할 것 같소. 수일 후 육당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도 좀 의논해 보는 것이 어떻겠소. 어쨌든 며칠 후에 육당을 찾아가 보오. 그 때쯤엔 전번의 생각이 달라져 있을 거요”

고하의 말대로 기당은 4, 5일 지난 뒤 삼각동의 육당을 찾았다. 육당은 기당을 뜻밖에도 반가이 맞아주면서, 내실로 끌고 들어갔다.

“두 분이 날 욱 많이 했을 거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추진시켜 봅시다. 고하도 여간 통분해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고하와 들이 많이 욱하려니 했소. 그날 그렇게 보내 놓고, 많이 생각했소. 그래 공문 운동(空文運動)을 생각해보는 중이오”

“공문 운동이라니요?”

“우리의 독립선언서를 찍어서 해외로만 내어보내자는 것이지. 최창식(崔昌植)군을 곧 상해로 보낼 생각이오. 신익희군도 곧 보내겠소”

“글쎄 그것도 좋지만, 실재 인물의 서명도 없는 그런 공문서(空文書)를 세계 각국에 보낸다는 것도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고하의 의견은 아주 이번에 천도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주(定州)에 있는 남강을 불러 올려서 야소교와 합작을 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도 이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기당의 말에 육당은 무릎을 치면서 찬성을 했다.

“거참, 좋은 생각이오. 우리가 하필이면 천도교만 상대로 할 것은 없지요. 종교는 다르다 해도 다같은 조선민족끼리니 합작을 아니할 리도 없고, 또 야소교도만을 이런 운동에서 빼 놓는다면 그네들에 대한 대접도 아니지요. 고하 말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떻소?”

고하, 기당 그리고 육당의 합의가 성립되자 이번에는 기당으로 하여금 김도태(金道泰)를 찾게 했다. 김도태를 찾게 된 것은, 그가 남강(南岡)과 동도동향(同道同鄉)이기 때문이었다. 당시 김도태는 수하정(水下町 - 中區 三角洞 근처)에 있는 선우 전의 집에 정노식(鄭魯湜)과 같이 유숙하고 있었는데 기당은 정주 남강에게 보내는 육당의 서신을 김도태에게 전하면서 정주에 다녀올 것을 부탁했다.

이것이 1919년 1월에서 2월초까지 벌여온 교섭의 경위이다.

이에 앞서 장덕수(張德秀)와 함께 상해로부터 밀파되어온 선우혁(鮮于赫)은 선천의 양전백(梁甸伯), 정주의 이승훈(李昇薰), 평양의 길선주(吉善宙) 등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 국외 정세를 알리고 국내에서도 꺾기하기를 부탁하고 돌아섰다. 이리하여 기독교는 각파끼리 꺾기할 것을 생각하고는 있었으나 민족적 대세력이 되지 못하여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각파의 결합과 동시에 천도교와 손을 잡게 되면 민족적 대규모 운동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무렵 민족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또하나의 계기가 온 것이다. 이른바 해아밀사사건(海牙密使事件)으로 합방전에 폐위당한 뒤 덕수궁에서 유폐생활을 해 온 고종황제가 1월 21일 갑자기 승하였다. 총독부의 발표로는 뇌일혈이라 했으나 항간에서는 일제가 사람을 시켜서 독살하였다는 풍문이 나돌았다. 가뜩이나 배일감정(排日感情)이 들끓고 있던 차에 고종의 독살설은 크게 충격을 주었다. 그 진상이야 어찌 되었던 간에 이때야말로 절정에 이른 국민의 대일감정을 이용하여 일대 민족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호기(好機)라고 생각한 고하, 기당 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어 이 성사할 결의를 굳게 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대외 여건과는 다르게 조직의 일이 순조롭지 못하여 고하, 인촌, 기당이 밤마다 중앙학교 숙직실에 모여 좋은 대책을 궁리하고 있을 무렵 일본 동경에서 고하에게 전보가 왔다.

“2.8 샀다.”

고하는 전보를 받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아직껏 틀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동경에서는 벌써 거사일이 결정된 것이었다. '2.8 샀다'란 고하와 근촌 사이에 미리 약속되었던 암호전보로서, 즉 2월 8일에 거사를 하겠다는 연락이었다.

이때는 김도태가 육당이 보내는 서신을 남강에게 전하고자 정주로 내려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동경으로 옮겨 그곳의 우리 유학생들이 움직여 온 자취를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1918년 11월, 세계 대전은 종말을 고하고 이듬해 봄 파리에 열리는 강화회의를 위하여 앞서도 말한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의 원칙'이 강화조건의 하나로서 제시될 것이라 했다. 이에 발맞추어 미국·중국에 있는 지사들이 민족대표를 파리에 파견한다는 소식도 들어왔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자극을 받은 재일(在日) 유학생들은 몇 사람만 모이면 파리에 파견될 민족대표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이 민족대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모임이나 결의가 있어야겠다는 의견으로 점차 집약되었다. 요컨대 유학생이나 혹은 국내에서 호응하지 아니하면 외국 사람들은 단순한 약소민족의 불평파나 망명객들의 잠꼬대로 밖에 보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가 거족적으로 민족대표를 지지한다는 결의가 있어야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이런 중론은 드디어 유학생 중 김안식(金安植), 김현준(金賢準) 등에 의해서 현실화했다. 김안식과 김현준이 동경 간다구(神田區)에 하숙 중인 정광호(鄭光好)와 최원순(崔元淳) 등을 찾음으로써 실현에 옮겨진 것이다. 그들은 독립운동의 전위대가 되기를 결심했다. 김안식과 김현준은 학업도 중단하고 곧 독립운동 자금 모집차 귀국했다.

그들은 애석하게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빈손으로 다시 동경에 돌아왔다. 동경에 남았던 정광호와 최원순은 평소에 선배로 받들던 근촌 백관수(芹村 白寬洙)를 찾았다. 얼마 아니가서 백관수를 중심으로 '조선독립청년단(朝鮮獨立靑年團)'이 조직되었다. 백관수, 최팔용(崔八鏞), 윤창석(尹昌錫), 송계백(宋繼白), 김철수(金喆壽), 김도연(金度演), 최근우(崔謹愚), 이종근(李琮根), 이광수(李光洙), 김상덕(金尙德), 서춘(徐椿) 등을 대표로 선출함으로써 조직은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조직과 자금 조달 방법, 거사일과 독립선언서 기초 등을 협의하고, 국내와의 연락을 기도했다.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우남·도산·정한경·김규식 등 외에 대표를 증원하여 파견할 것을 결의했다. 자금 조달은 나용균(羅容均)이 담당하고, 독립선언서 기초는 근촌과 춘원이 담당했다. 중국 상해와의 연락은 최팔용(崔八鏞)이 담당하고, 국내와의 연락은 근촌이 맡았다.

근촌의 밀명을 띠고 송계백이 본국에 잠입해서 고하와 인촌 및 기당과 접촉하고 고하의 주선으로 거사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독립선언서를 인쇄할 활자를 얻었으며 필요한 지시를 받고 동경으로 돌아왔다.

송계백과 정노식(鄭魯湜)이 사선을 뚫고 가져온 활자는 물샐 틈 없는 일경(日警)의 감시와 그 앞잡이들로 인하여 애석하게도 사용하지 못하고, 선언서는 등사판에 프린트로 찍었다. 프린트는 와세다(早稻田) 하라베에(原兵衛)의 숲속에다가 비밀 장소를 설정하고 정광호(鄭光好)와 최원순(崔元淳) 등 책임 아래 광주(光州) 출신 유학생 10여명이 밤낮으로 일주일을 걸려서 만여부를 찍었다. 선언서 보관은 최원순이 책임지고, 정광호는 동경과 국내가 한날 한시에 거사할 수 있도록 연락하는 밀명을 띠고 귀국했다. 그러나 국내사정은 고하와 동경유학생들이 생각하고 바라는대로 진척되지 아니하고 있었음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근촌은 2월초에 서울의 고하에게 2월 8일의 거사를 암호전보로 연락했다. 국제정세의 동향을 비교적 빨리 그리고 자유롭게 알 수 있는 동경유학생들은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성원에 중점을 둔 시기로서 부득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월 8일 오후 두시, 동경 간다(神田) 고이시가와(小石川)에 자리잡은 조선기독교청년회관(朝鮮基督教青年會館) 대강당에는 학우회(學友會) 총회를 표면 구실로 하고 청년독립단원인 유학생이 전부 참집한 가운데 윤창석(尹昌錫)의 사회로 대회가 시작하여 근촌의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이어서 상산 김도연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조선독립 만세 제창을 끝으로 학생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시위를 벌였다. 이리하여 저 역사적인 2.8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6. 천도교와 기독교 등의 합류

동경 유학생들의 2.8 선언이 있는 뒤 고하는 초조했다. 국내에서의 거사계획이 거사 전에 일본 경찰에게 발각될 우려에서였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고하는 기당에게 김도태(金道泰)를 수하동(水下洞) 그의 하숙으로 찾아가게 했음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김도태의 연락을 받은 남강은 2.8선언이 있는지 이틀 뒤인 2월 10일 부랴부랴 서울에 올라와 우선 계동(桂洞) 인촌 집에 들렀다. 남강은 합병 전에 배일사상을 고취하다가 통감부의 미움을 사서 강제로 제주도 귀양을 간 일도 있고, 일제가 날조한 데라우찌(寺內正毅) 암살을 계획한 '105인 사건'에도 관련되어 투옥된 일도 있는 애국지사다.

남강은 고하와 인촌, 기당에게서 거사 계획을 듣고 나더니 크게 감격하여 즉석에서 승낙을 했다. 고하는 남강의 승낙을 받아, 야소교측 대표의 서명을 받아 줄 것을 종용했다. 남강은 이것도 서슴지 않고 승낙했다.

“하지만 난 돈이 없소. 노자를 좀 꾸려 주시요”

고하는 인촌과 상의하여 남강의 노자를 마련했다. 남강은 질풍처럼 관서지방을 두루 순방했다.

이렇게 되어 고하의 걱정과 우울이 좀 펴진 듯 싶었으나 다시 암초에 걸리게 되었다. 그토록 기대한 남강이 지방을 순방하고 서울에 와서는 야소교 독단으로 구국 운동을 일으킬 계획을 세운 때문이었다. 그것은 남강이 우연히 길에서 같은 야소교도 박희도(朴熙道)를 만난 데 기인했다. 남강과 자리를 같이 한 박희도가 중앙기독교청년회를 중심으로 감리교, 장로교만으로서도 능히 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리교는 박희도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장로교는 함태영(咸台永)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서로 단합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남강은 다시 관서 지방을 순방하면서 정주(定州), 선천(宣川)을 거쳐 평양(平壤)의 신흥식(申洪植), 길선주(吉善宙) 등을 만나, 거사에 참여할 것을 확인한 후 혹은 날인(捺印)을 받고, 혹은 직접 인장(印章)을 위임받기도 했던 것이다.

남강의 태도변경을 촉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최린과 최남선의 불투명한 태도에도 있었다. 천도

교 측을 대표하여 모의해오던 최린의 태도가 모호한 데에 의아한 느낌을 준 것과, 고하의 구상대로 천도교와 야소교를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한 최남선의 선명치 못한 태도에 더욱 의심을 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강이 이쪽 성의를 의심한 데서 연유한다.

서로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하여 서먹서먹한 가운데 수삼일이 지나갔다. 고하는 남강을 그가 묵고 있는 여관으로 여러 차례 찾았으나 만족할만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 벌써 2월 21일, 날짜만 흘러갔다.

고하는 이와 같은 기미를 눈치채고 육당에게 달려가서 남강을 천도교측에 소개할 것을 재촉했다.

“남강을 우리가 그렇게 대접할 수야 있소? 하루 바빠 남강을 찾아가서 소개를 시켜 주오”

고하는 육당을 재촉하여 둘이서 남강을 찾았고, 남강은 고하의 설명을 듣고 수긍했다. 고하와 육당은 다시 남강을 동반하여 재동(齎洞)으로 고우 최린을 찾았다. 고하, 기당, 육당의 주선으로 남강과 고우는 각각 야소교와 천도교를 대표하여 회담을 가졌다. 피차의 조직과 자금 조달 등, 세부적인 대책을 협의하게 되면서 궁극의 목적에 점차 접근해 갔다. 기독교측에서 요구한 것이지만 천도교로부터 기독교측에 상당액의 자금이 전달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남강은 구국 운동이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보았던지 이 운동이 성공만 되면 사후 대책의 하나로서 미리 정부 조직을 해 두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뜻까지 표명했다. 이에 고하는 조각(組閣) 등의 문제같은 것은 거사가 성공한 뒤 해외에 망명중인 애국지사와 국내 인사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할 의제이니 뒤로 미루어도 늦을 것이 없고, 우선 항쟁의 기본 문제의 확립이 화급함을 역설했다.

이 회담은 고하가 제시한 의견의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합의를 보았다.

비로소 고하의 우울과 걱정은 어느정도 해소되는 듯하였다. 1919년 2월 24일의 일이었다.

고하, 인촌, 기당, 육당, 그리고 고우와 남강의 노력으로 천도교와 기독교 등 국내의 큰 세력들이 합작을 한 뒤, 다시 거사날짜와 거사장소, 독립선언서의 인쇄, 서울과 지방의 연락 그리고 시민의 동원절차 등을 숙의끝에 결정지었다.

첫째, 거사는 고종황제(高宗皇帝) 국장일(國葬日)인 3월 3일에 이를 앞선 3월 1일로 할 것.

둘째,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선포하고 만세를 부를 것.

셋째, 독립선언서는 3만매를 찍어서 서울과 각 지방에 발송할 것.

넷째, 서울 및 각지방에서 일제히 시위운동을 전개할 것.

다섯째, 일본 정부와 일본 귀족원, 중의원 및 조선총독부에 독립선언서와 의견서를 보낼 것.

여섯째, 상해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 동지들과 협의하여, 파리강화회의와 미국 대통령에게 독립선언서를 보낼 것.

일곱째, 선언서에 서명할 대표의 비율은 천도교 15명, 기독교 16명, 불교 2명, 도합 33명으로 할 것.

여덟째, 독립운동은 비폭력 시위(非暴力示威)로 할 것.
등이었다.

거사일을 3월 1일로 정한 것은, 국장을 보고자 각 지방에서 많은 군중이 모여들 것이므로 이들을 전부 시위 운동에 참여케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민족 대표 33인은 천도교, 야소교, 불교에서 각각 추천한 각파의 대표로 충당했다. 이들 대표 가운데에는, 직접 처음부터 이 운동의 정면에서 활약한 인사도 있고, 혹은 거사 직전까지 대표로 선출된 것을 전연 모르고 있던 인사도 있었다. 또한 대표단에 들려고 해도 선정되지 못한 인사도 있었다.

민족대표를 33인으로 정한 것은 불교의 33천(天)을 의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밖의 특별한 뜻은 없었고, 각 단체의 수가 다른 것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서로 절충한 결과인 것이

다.

이들 민족대표는 제1차 거사의 대표이고 뒤이어 제2차 제3차 파상적인 거사까지 계획했다.

고하나 기당이 제1차 민족대표로서 서명하는데 빠진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들은 만일의 경우와 민족운동의 장래를 위하여 제2선, 제3선의 예비선을 쳤다. 그러므로 뒤에 일경에게 붙잡혀 문죄를 당할 때에 32인(33인의 한분인 김병조는 상해로 망명) 외에 제2진 16인을 합친 48인 사건으로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제1차의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대표가 참여하게 된 에피소드이다. 불교 대표의 한용운(韓龍雲)과 백상규(白相奎 또는 龍城)가 참가케 된 것은 실로 우연한 일이었다.

기독교와 천도교의 대표 회의가 최린의 집에서 열릴 때마다 빠짐없이 찾아오는 한 청년이 있었다. 머리를 삭발하고 초라하게 차린 젊은 선사(禪師), 그가 바로 시인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이었다. 그는 회의 때마다 남보다 앞서 와서 회의장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결과만 주시할 뿐이었다. 별로 이렇다 할 말도 없었다. 그러한 그가 하루는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당신들이 하는 일에 우리들(불교도)도 참가시켜 주시오”

한용운의 회의 참석은 천도교측의 최린, 기독교측의 이승훈, 함태영 등의 권고로 인하여 찾아들었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좌중은 혹시 밀정이 아닌가 의심하여 경계까지 했다. 그로 인해 회의 장소를 옮기려고까지 했으나 한용운의 신분은 곧 밝혀졌다. 만해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도 이번 일에 참가시켜 주시오”

하고, 남이야 듣던 말던 이 말을 되풀이하고는 자리를 뒀다.

한용운의 지성은 마침내 이루어져서 백상규와 함께 불교를 대표하여 33인의 민족대표로 참가하기에 이르렀다.

민족대표 33인의 제1차 대표가 선출되고 제2차, 제3차 계획까지 설계는 용의 주도하게 짜여졌다.

육당 최남선이 담당한 ‘독립선언서’ 초고가 26일에 끝났으므로 곧 천도교가 경영하는 보성사(普成社)에서 인쇄를 마쳤다. 선언서는 지금의 장사동(長沙洞) 근처에 있는 일본인 여관 2층에 숨어서 초안을 작성했다고 기당은 회고한 바 있다. 인쇄의 일부가 완료된 것은 27일 밤이었다. 일이 여기까지 진척되자 해외에 보낼 문건의 전달사로 안세환(安世桓)과 임규(林圭)를 일본 동경에 파견키로 했다. 이들은 일어로 번역된 ‘독립선언서’ 및 의견서를 가지고 일본 정부와 국회 양원에 제출할 임무를 띤 것이었다. 또 현순(玄楯)과 김지환(金智煥)을 각각 중국 상해(上海)로 따로따로 급파했다. 이 둘을 따로 보낸 것은 함께 가다가 혹시 둘이 다 체포될 경우를 예상해서였다. 다행히 현순이 신의주를 무사 통과하는 것을 보고 김지환은 신의주에서 되돌아왔다.

다음은 ‘독립선언서’의 지방 발송을 서둘러야 했다. 최린의 고안으로 책임을 맡은 남자동지 이외에도 천도교와 기독교의 여신도를 많이 동원했다. 여신도들은 장사꾼 차림 등으로 변장하고 실, 물감 등을 담은 보따리에 인쇄된 ‘독립선언서’를 차곡차곡 넣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제는 이날의 행동대원으로 학생 동원을 짜야했다. 1918년 겨울부터 고하는 만일에 대비한 학생조직이 있었다. 고하는 경성법률전수학교(京城法律專修學校)의 주익(朱翼) 등을 통해서 이미 각 학교 사이에 조직망을 구축해놓고 있었다. 곧 이들 학생 대표들과 접선할 수 있었다. 학생 대표들은 28일 승동(勝洞) 예배당에 모였다. 각급 학생 대표들의 부서선정을 인선(人選)했다. 전문학교 대표로 경성의전문(京城醫專)의 한위건(韓偉健), 보성전문(普成專門)의 강기덕(康基德), 연희전문(延禧專門)의 김원벽(金元璧) 등과, 중학교 대표로는 보성학교(普成學校)의 장채극(張彩極), 경신학교(敬新學校)의 강우열(康禹烈), 중앙학교(中央學校)의 장기욱(張基郁) 등이 선출되었다.

승동 예배당에서 학생들의 회합이 있던 28일 밤, 천도교주 의암 손병희의 집에서는 민족대표들이 마지막 모임을 가졌다. 3월 1일의 거사 준비의 현황과 조직, 동원계획 등을 확인했다. 그리고 '독립선언'의 선포식장으로 이미 정했던 탑골공원은 많은 학생이 동원되므로 이를 변경하여 그 근처에 있는 인사동(仁寺洞)의 명월관(明月館) 지점인 태화관(泰和館)에서 거행할 것을 결정하고, 성사후 뒷일을 맡을 지도자도 선정했다. 고하, 기당, 육당, 송암 함태영(松巖 咸台永) 그리고 의암의 사위 정광조(鄭廣朝) 등이 선출되었다.

고하는 제2차 거사의 책임자로 뽑힌 것이다.

정중동(靜中動), 아니 생명을 건 거사의 움직임 속에서 3월 1일 전야는 마침내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7. 아! 기미년 3월 1일

드디어 3월 1일은 밝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마음 속까지도 환히 비칠 듯한 쾌청한 날씨였다.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독립선언문 선포식장으로 정해진 인사동 명월관지점 태화관에는 이날 낮에 귀한 손님들이 모임을 갖는다는 전갈을 받고 부산하게 움직였다.

종로구 인사동 194번지 (仁寺洞에서 서울예식장으로 넘어오는 마루턱 지금 - 태화기독교 사회관)에 위치한 이 집은 이조 세종의 손서(孫婿)의 집으로 지어진 후 여러차례 주인이 바뀌었다. 인조(仁祖)가 능양군(陵陽君) 시절에 이 집에서 자랐고, 철종(哲宗) 때는 안동 김씨의 세력가 김흥근(金興根)이 살았으며, 헌종(憲宗)의 경빈 김씨(慶嬪 金氏)가 입주하기도 했다. 순화궁(順和宮)이란 궁명은 이때 붙여진 이름이다.

경빈 김씨가 세상을 떠나자 이완용의 형 이윤용(李允用)이 들었다가 경술국치후 이완용이 살았다. 그러나 이완용이 옥인동에 양옥집을 짓고 이사한 후 얼마동안 비어왔는데 황토마루 명월관(世宗路 지금 東亞日報社 자리)이 소실되자 이곳 순화궁으로 옮기고 지점격으로 태화관(泰和館)이라 이름했다.

정오가 가까워 오자 민족대표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천도교의 손병희(孫秉熙).최린(崔麟).권동진(權東鎭).오세창(吳世昌).임예환(林禮煥).권병덕(權秉憲).이종일(李鍾一).나인협(羅仁協).홍기조(洪基兆).나용환(羅龍煥).이종훈(李鍾勳).홍병기(洪秉箕).박준승(朴準承).김완규(金完圭).양한묵(梁漢默), 기독교의 이인환(李寅煥=昇薰).박희도(朴熙道).최성모(崔聖模).신홍식(申洪植).양전백(梁甸伯).이명룡(李明龍).이갑성(李甲成).김창준(金昌俊).이필주(李弼柱).오화영(吳華英).신석구(申錫九).박동완(朴東完), 불교의 한용운(韓龍雲).백상규(白相奎)의 29인이 이 엄숙한 자리에 모였다.

33인 중 길선주(吉善宙), 정춘수(鄭春洙), 유여대(劉如大), 김병조(金秉祚)의 4인은 참석하지 못했다.

정오가 되자 태화정(太華亭=泰和館 南側에 있는 亭子) 동쪽 처마에 태극기가 걸렸다. 정자의 문은 남쪽으로 나 있었지만 해돋는 쪽을 택하여 동쪽에 걸은 것이다.

예정된 정오보다 2시간 늦은 오후 2시부터 식은 진행되었다. 일동은 근엄한 자세로 태극기를 향하여 경례했다. '독립선언서' 낭독을 생략하고 이종일(李鍾一)이 선언서 백장을 탁자 위에 놓고, 한용운이 일장의 식사(式辭)를 한 뒤에 그의 선창(先唱)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한편 태화관의 '독립선언'보다 앞서, 정오를 기해 파고다공원에서 학생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함성은 천지를 진동케 했다. 공원에 모였던 수천명의 학생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갔다. 무엇 하나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권력조차 없었으나 그들의 용기와 힘은 막혔던 강물이 터짐과 같이 거리로 쏟아져 나갔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마치 활화산(活火山)의 커다란 분화구와도 같이 목청이 터지도록 외치고, 또 외쳤다. 10년동안 가슴에 맺힌 한을 토해냈다.

파고다공원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위 대열 일부는 대한문(大漢門) 앞으로, 일부는 남대문을 거쳐 의주가도(義州街道)로, 또 한 대열은 창덕궁 앞으로, 또 일부는 남대문을 거쳐 진고개(지금 충무로) 방면으로 휘몰아갔다. 그동안 억눌려 살아온 시민들의 울분은 드디어 폭발한 것이다. 앞장선 학생들의 시위에 용기를 얻은 시민들은 만세를 고창하며 대열에 합류하니 서울 장안은 삼시간에 학생과 시민으로 까맣게 뒤덮였다.

만세! 만세! 만세!

하늘도, 땅도, 산천도, 초목도 우주만물이 모두 우리와 함께 만세를 불러 주는 것 같았다. 천지가 진동하는 노호, 함성, 절규는 남녀노유의 분별도 없었으며, 직업의 귀천도 학식의 유무도 구별이 있을 수 없었다. 부엌에서 뛰어나온 아낙네도, 시골서 올라온 상투꽃은 노인들도, 어린 손자의 손을 이끈 할머니도, 행상인도, 설렁탕 그릇을 멘 배달꾼도, 주인도, 점원도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만세를 외쳤다. 행렬은 눈사람처럼 불어나서 장안은 온통 시위 인파로 뒤덮였다. 실로 오랫동안 억눌려온 민족의 한(恨), 피압박, 피침략 민족의 울분은 무서운 기세로 폭발한 것이다.

정오부터 오후 2시 반경에 이르는 동안까지는 이들 시위 행렬의 군중만이 서울 장안을 자욱히 뒤덮고 휩쓸었다. 일경(日警)은 뜻하지 않았던 너무나 거창한 상황앞에 넋을 잃었다. 한동안은 멍하니 바라다만 볼 뿐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 그들은 너무도 돌발적이요 그러면서도 크고도 치밀하고 대담한 이 사태를 처리할만한 명령계통을 세울 요량이 서지 못했다.

길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는 시위물결을 몇몇 영.미(英.美)인들만이 사진기에 분주히 담았다.

“한국인, 인젠 살았소. 한국인, 이제는 살았소”

하고, 그들은 군중을 향해 소리쳤다.

남대문 앞을 지난 시위군중은 일인들이 모여 사는 진고개로 행진해 갔다. 이때 진고개 어귀에서 군중의 전진을 가로막고 선 경찰과 헌병은 발포를 시작했다. 촌철(寸鐵)이 없는 비폭력 군중에게 총을 쏘고 군도(軍刀)를 휘두르는 이들의 잔인무도함을 본 군중은 투석으로 맞섰다. 그러나 밀리고 쫓기는 격돌도 잠시, 시위군중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일단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과 헌병은 해산하는 시위군중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애국시민들은 끌려갔다. 혹은 팔을 비틀리고 혹은 포승에 묶이어 헌병이 탄 말 뒤에 질질 끌려가는 모습도 보였다.

선언식을 마친 민족대표들은 태화관 주인 안순환(安淳煥)으로 하여금 총감부에 연락하도록 일렀다.

안순환은 원래 궁내부 주임관(宮內部 奏任官) 및 전선사장(典膳司長) 즉 궁중의 주방장 일을 보았으나 나라가 망하자 벼슬을 사퇴하고 나와 명월관을 설립한 사람으로 열렬한 배일사상가였다.

안순환이 전화로 연락한지 잠시후 경찰과 헌병들이 인력거를 가지고 태화관에 들이닥쳤으나 민족대표들은 태연자약한 자세로 이들의 무례함을 꾸짖고 자동차를 가지고 오라고 호령했다. 그들은 가져온 승용차 7대에 분승하고 필동에 자리한 경무총감부로 연행되어 갔다.

또한 이날 일본 동경에 파견된 밀사는 일본 정부와 국회 -- 귀.중양원(貴.衆兩院)에 ‘독립선언서’와 ‘의견서’를 우편으로 발송했고, 중국 상해에 파견된 밀사의 연락을 받은 망명지사들은 파리 강화회의와 미국 대통령에게 ‘독립선언서’를 각각 전송했다.

태화관에 참석했던 민족대표 전원이 체포되고, 시위 행렬이 일제의 총칼에 흩어지고, 짓밟히고 피를 흘린 1차 거사에 이어, 2차 3차의 파상적인 거사가 각 지방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다음 거사의 지도는 고하의 책임이었다. 고하는 3월 1일 밤 중앙학교 뒷산에 연락 장소를 정하

고 학생 대표들을 소집했다. 고하는 이 자리에서 학생 대표들에게 일인(日人)들의 본토 철수(本土撤收)를 요구하는 운동, 일인과의 물품매매(物品賣買)를 거절하는 철시(撤市)운동, 총독부예의 납세 거절(納稅拒絶)운동, 관공리(官公吏)들의 사직(辭職)운동, 일인들의 손으로 운영되는 사업 기관에의 비협력(非協力)운동, 일인들이 세운 공장에서의 동맹파업(同盟罷業), 학생들의 동맹휴학(同盟休學) 등의 지령을 내렸다.

당시 철시에 얽힌 회고담을 이희준(李熙駿)은 이렇게 말한다.

종로와 남대문 일대의 큰 상점에는 대체로 연락이 되어 이날(3월 1일) 정오부터 철시를 했지만 미처 연락이 안된 일부 점포들은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고하는 상업계의 대표급 되는 인사에게 완전 철시하도록 연락하라고 일렀다. 이리하여 서울 중심에 있는 점포들은 모두 문을 닫음으로써 철시에 협조하였다고 한다.

이 운동은 모두 고하를 중심한 잔류파(殘留派), 즉 파상적인 거사를 위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지 않았던 민족대표들이 주로 학생들을 통해서 한 항거운동이었다.

서울에서 일기 시작한 시위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이날의 여운(餘韻)은 여러 달을 두고 계속되어 시위운동의 햇불은 꺼질 줄을 몰랐다.

그많은 희생을 치루어야 했던 3.1운동의 결과는 국내에서는 이른바 문화정치(文化政治)를 표방함으로써 무단정치(武斷政治)의 완화를 가져왔고, 해외에서는 흩어져 있는 동포들의 단결을 촉구했으며 마침내는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수립을 보기에 이르렀던 것이니 이 정부는 끊어졌던 주권을 다시 소생시켜 해방될 때까지 법통(法統)을 이어오게 한 회천대업(回天大業)의 기틀이 되었다.

제3장 옥중(獄中)에서

1. 조서(調書)를 중심으로

3.1운동의 뒷일과 제2.제3차 투쟁을 맡은 잔류파(殘留派)들도 마침내는 물샬틈 없는 수사의 그물에 걸려 하나 둘 체포되었다. 고하는 민족대표들이 체포된 뒤 며칠 동안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학생대표들에게 계속적 투쟁방법을 지휘하고 또는 몇몇 후배들에게 뒷일을 부탁하면서 독수를 피해 몸을 옮겼다.

이 당시의 고하에 대한 일화 한토막을 1960년 4월 스코필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하가 체포되기 며칠전(3월 3일인 듯함) 서울역전에서 제2차 시위가 있었다. 평양 등지에서 올라온 백여명의 학생과 서울 학생들이 합동하여 주동한 이날의 시위는 만여명에 이르렀다. 고하는 몸을 피하여 학생들을 격려할 겸 나왔다가 당시 서울역 건너편에 위치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醫專)에 들렀다. 스코필드 박사와 인사를 나누는데 뒤따라 고하를 미행하던 형사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고하는 재빨리 타이프라이터 앞에 앉아 태연히 타이프를 치는 척 했다. 방에까지 들어온 형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고개를 갇웃거리면서 돌아갔다. 고하는 빙긋 웃으면서 다시 스코필드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갔다.

스코필드(Frank W. Schofield; 한국명 石虎弼(1888-1970)) 박사는 영국 의학자로 1916년 한국에 건너와 세브란스 의전에서 세균학을 가르쳤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위험을 무릅쓰고 일제의 포악상을 필름에 담아 세계 각국에 소개하는 한편 우리의 독립운동에 적극 협력했다.

1920년 일제의 강압으로 본국 캐나다로 건너가 토론토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1958년 한국정부 수립 10주년 기념 축하차 38년만에 내한했다. 앞서 말한 일화는 이때 3.1운동 당시를 회상하며 남긴 말이다. 1969년 그는 한국에서 영주할 것을 결심하고 다시 내한하여 서울의대(醫大) 구내 외인숙소에서 정양하던중 1970년 노환으로 별세한 바 묘소는 동작동 국립묘지에 봉안되었다.

마침내 고하에게도 일제의 독수가 뺨어왔다. 고하는 그의 처소인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남산에 있는 왜성대(倭城臺 - 지금의 중구 예장동 근처로써 전 총독부가 있던 곳)로 끌려 갔다. 그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기이하게도 한 밤중에 인력거에 태워서 데려 갔다. 고하가 왜성대 경무국에 들어서자, 앞으로 두벅두벅 걸어오던 경찰 취조관(警察取調官)은 고하를 가로막으면서 스스로 자기를 소개했다.

“나는 미와(三輪)요. 송진우는 교육자이니 교육자답게 정직히 말하시오...”

고하는 한마디로 응수했다.

“난 모르요”

대구가 떨어지기 무섭게 미와는 고하를 고문실로 끌고 갔다. 미와의 입에서는 욕설과 조롱이 쏟아졌다. 다음에는 고하의 옷을 벗기고 속옷도 벗겨 발기발기 찢고 빨가벗겨서 세웠다. 그리고는 깍지를 끼게 하고 고문실 밖으로 끌어내서는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밀어 던졌다.

고하가 땅에 쓰러지는 순간 못개들은 짓어대며 물려들었다. 사지와 몸뚱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물어뜯고 또 발톱으로 할퀴었다.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잔인무도하리라고는 미쳐 생각하지 못했다. 고하는 맹견(猛犬)들의 습격으로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단 한 마디의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고통을 참았다. 입술을 깨물고 용케 견디었다.

고하는 얼마후에야 고문자들의 손에 이끌리어 피투성이의 육신으로 고문실에서 다시 문초실로 끌려갔다.

“맛이 어떤가. 그 정도는 약과이니 하루 이틀 잘 생각하지...”

하고 고하를 다시 감방에 집어넣었다.

서울의 3월 중순은 아직도 몹시 기온이 찬 계절이다. 만신창이의 몸으로 추위를 견디기란 여간

한 고통이 아니었다.

고하는 다시 한밤중에 문초실로 끌려 나왔다. 전일과 똑같은 질문에 전일과 똑같은 대답이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각오하라...”

하고는, 물을 흠뻑 적신 가죽 조끼를 고하에게 입히고 석탄이 활활 타고 있는 뜨거운 난로 불 옆에 앉혔다. 가죽 조끼는 물기가 마르면서 바짝 바짝 죄어들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고 두 눈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고통이었다. 고하의 입에서는 끊어져 들어가는 가쁜 숨소리가 흘러나오며 그의 의식은 흐려지기 시작했다.

고하는 뼈마디까지 조여드는 고통을 참고 또 참았다. 끝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죽는 한이 있어도 입을 열지 아니할 각오였다. 모진 고문을 가하면 으레 자백하리라고 믿었던 고하에게서 자백은 커녕 얼굴빛조차 변함이 없음을 본 그들은 몹시 당황했다. 고하의 굳은 의지와 초인적인 인내력 그리고 한결같은 신념에는 그들도 어쩔 수 없었던지 작전을 바꾸었다.

가죽조끼를 입힌 고문이 있는지 며칠 뒤의 일이었다. 잡혀 온 민족대표들과의 대질신문(對質訊問)이 시작됐다. 그들은 고문으로는 자백을 얻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인정(人情)의 기미(機微)를 자극해서 고하의 입을 열게 할 작정이었다.

고하 앞에 민족대표 중 한 사람이 나타났다.

미와의 물음에 한 민족대표는 자백한 내용을 순순히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쩔수 없이 다 고백했소”

하고, 고하에게 자백할 것을 종용했다. 일이 이쯤된 이상 모든 사실은 숨길 수 없음을 짐작했다. 고하 혼자만이 자백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 3.1운동의 전모(全貌)는 벌써 폭로되어 있는 것이었다. 일부 왜곡된 자백도 없지 않았으나 드러난 사실을 혼자서만 감추려 해도 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 이상 고집을 부리고 비밀을 지키려고 간직하면, 오히려 동지들을 혹독한 고문으로 이끌어 갈 것 같아서 고하는 생각을 돌리고 비로소 머리를 끄덕였다.

“옳다”는 표시였다.

자백의 차이는, 맨처음 천도교가 중심이 되어서 3.1운동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고하 등이 참석한 듯이 진술되어 있었다. 동지들을 위하여 죽음을 택할지언정 끝까지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결심에서 전후가 뒤바뀐 진술이 나와 있었지만 구태어 바로잡을 생각을 아니하였다.

미와는 고하가 사실을 시인하자 조금은 친절을 베풀었다. 의자를 권하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라고 내밀기도 했다.

“송선생은 고문으로서는 안돼...”

하고, 저희들끼리 떠들며 히죽거렸다. 도시 견디기 어려운 모욕이요 치욕의 언사 그대로였다. 문초, 고문, 대질신문 등의 반복끝에 드디어 ‘조서(調書)’가 작성되었다.

宋 鎮 禹 取 調 書 (李炳憲 編著 <3.1運動秘史>에서)
(警察調書 略)

大正八年 四月 十八日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檢事 河村靜永

書記 松本兵市

“年齡, 身分, 職業, 住所, 姓名, 本籍地, 出生地는?”

“宋 鎮禹, 三十一歲, 私立中央學校 校長, 住所 京城府桂洞 一番地, 本籍地 全羅南道 潭陽郡 水北

面 南山里, 同”

“위기, 훈장, 종군기장, 연금, 은급 또는 공직을 가졌는가?”

“없다”

“지금까지 형벌을 받은 일은 없는가?”

“없다”

“중앙학교 교장은 어느 때부터 근무했는가?”

“대정 7년 4월 10일부터 근무했다”

“중앙학교 교장이 되기 전에는 무엇을 했는가?”

“동교 교사로 있었다”

“경성에서 제일 친하게 교제한 사람은 누구 누구인가”

“金性洙, 崔斗善, 劉泰魯, 李重華, 崔奎東 등이며 이들은 중학교의 교원이다. 기타 일본 유학생으로 있을 때 알게 된 사람으로 관청이나 교육 방면에 수십인이 있다”

“일본에 유학했는가?”

“그렇다”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는가?”

“明治大學이다”

“피고는 崔麟, 崔南善과 같이 금번에 조선 독립을 계획했는가?”

“계획한 일은 없고 야소교와 천도교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알았다”

“피고는 李昇薰을 아는가?”

“작년 4월경 李昇薰이가 경영하는 定州 五山學校 관계로 상경했을 때 沈載德의 소개로 알았다”

“崔麟과 崔南善과 만난 일이 있지 않는가?”

“있다. 금년 1월말경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서 발행하는 신문에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이 민족자결이란 문제를 제창했다는 기사를 보고, 玄相允과 같이 지나는 말로 우리 조선도 독립운동을 했으면 어떠할까 했더니 玄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 후 날짜는 기억할 수 없으나 이삼 일 후라고 생각한다. 崔麟이가 중앙학교로 와서 현하 시국을 말하고 있을 때 崔南善도 와서 독립운동을 할 것을 말했다”

“그 전말을 자세히 말하라”

“그 때 이 운동을 하려면 구한국시대 원로들과 상의하는 것이 어떠한가 해서 朴泳孝, 尹用求, 韓圭高 등을 만나 보기로 했으며 나는二月二, 三日 경엔가 朴泳孝한테 가서 경성방직주식회사 설립의 말을 하고는 崔麟이 독립운동을 할 것을 말하더라고 하니, 朴泳孝는 조선도 문화 정도가 진보하게 되면 憲法도 실시하게 되고 自治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조선독립을 민족자결에 의하여 운동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했다. 결국 그 교섭은 실패했다. 崔麟은 나와 崔南善을 보고 우리끼리 운동을 하자고 하므로 나는 교육자의 자격으로 있기 때문에 그 취지는 찬성하나 참가할 수는 없다고 했으며 崔南善 역시 자기도 문학을 연구하는 만큼 참가할 수 없다고 했던 바 崔麟은 금후에는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 않겠다 하고 일어설 때 崔南善이가 자기는 참가하지 않지만 야소교와 제휴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玄相允을 시켜 鄭魯滉과 같이 있는 金道泰를 定州로 보내서 李昇薰을 불러 오게 했다. 崔南善은 다른 사정이 있어서, 내가 李昇薰을 만나 崔南善의 말을 대신한 일은 있다”

“무슨 말을 했던가?”

“천도교에서 지금 독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야소교도 그런 의사가 있는가 했더니 李昇薰은 그일로 崔南善이가 만나자 하더니 물으므로 崔南善이를 만나 자세한 것을 들으라고 했다”

“그 후 崔南善이가 李昇薰을 만났는가?”

“만났을 줄 안다”

“피고는 金性洙에게 조선 독립운동의 말을 하지 않았는가?”

“金性洙는 향리에 가 있었다”

“그 후 崔麟과 종종 만났는가?”

“만난 일은 없다”

“피고는 금번 독립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직접 활동을 하지 않았지마는 조선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右 被告人 宋 鎮 禹

大正八年 五月 二十三日

京城地方法院 豫審掛

豫審判事 永島雄藏

書 記 磯村仁兵衛

“姓名은?”

“宋鎮禹다”

(檢事局 問答과 同一하므로 中間 省略)

“피고의 가족은?”

“가족은 시골에 있고 나는 桂洞 一番地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의 학력은?”

“명치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중앙학교 교사로 있다가 작년에 교장이 됐다”

“崔麟과 崔南善은 언제부터 알았는가?”

“東京 있을 때 알았다”

“피고는 崔麟, 崔南善과 같이 조선독립운동을 계획했는가?”

“그렇다”

“어떤 동기로 운동할 것을 계획했는가?”

“금년 一월경 내가 崔麟을 방문했을 때 신문지상에서 민족자결주의 기사를 보으며 崔麟이가 민족자결주의를 조선에 적용해서 독립하는 것이 좋다고 하므로 나는 찬성했다”

(이하의 검사 심문과 답변이 동일하므로 略함)

右 被告人 宋 鎮 禹

(註 - 高等法院 豫審判事 楠常藏 調書는 地方法院 豫審判事 永島 雄藏 調書와 同一하므로 略함)

2. 예심결정서(豫審決定書)를 중심으로

고하가 체포되어 전율할 고문을 받고 경찰조서(警察調書)가 꾸며지는 동안 삼천리 방방곡곡에서는 만세시위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갔다. 사전에 조직되어 있던 평양(平壤), 진남포(鎭南浦), 안주(安州), 선천(宣川), 의주(義州), 원산(元山) 등지에서는 서울과 같은 날인 3월 1일에 꺾기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연쇄반응적으로 번져갔다.

또 어떤 지방에서는 한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차, 혹은 10여차나 꺾기하는 등 3월 1일부터 4월 초까지 한달 남짓사이에 전국 212개 부군(府郡)에서 꺾기한 횟수와 연 인원수는 1,542회에 약 200만명 동원되었다. 특히 천도교와 기독교 또는 유교의 세력이 강한 지방일수록 시위운동이 격렬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피해상황도 적지 아니했다. 3월 1일 선천(宣川)에서 군.경(軍.警)의 발포로 12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것을 비롯하여 각처에서 그들의 무차별 발포로 사망이 7천 5백여명, 부상이 약 1만 6천여명이고 그들에게 체포되어 체형을 받거나 수감, 수백대의 태형(笞刑)을 맞고 나온 숫자는 부지기수이다.

아무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중 32인과 후사를 담당한 16인, 도합 48인의 민족대표는 경성지방법원에 '출판법(出版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나가시마(永島雄藏) 예심판사(豫審判事)의 손에서 무려 여섯달 동안이나 예심을 받았다.

그해 8월 1일에야 예심은 종결됐다. 예심 판사는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의 죄목이 부당함은 이유로 '내란죄(內亂罪)'를 적용하고 관할을 바꾸어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내란죄가 적용되자 모두들 극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근 1년을 두고 고등법원 특별형사부(特別刑事部)에서의 예심 결과 '내란죄' 아닌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다시 다음해 1920년 3월 22일, 다음에 전재(全載)하는 예심결정서(豫審決定書)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인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으로 환송했던 것이다.

이처럼 중형(重刑)인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고 '보안법' 및 '출판법' 등 경형(輕刑)으로 낮춘 데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이유에서라고 보여진다.

즉 일본이 조선을 강제 점령한 이래 그들은 무단정치로 다스려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선민족의 저항이 점차 심해지고, 이번 3.1 민족봉기의 원인도 여기에 있음을 깨달은 일본정부는 시정방향을 이른바 문화정책으로 바꾸면서 48인에 대한 형(刑)적용도 달리한 것이 아닌가 한다.

四十七人 豫審決定書

(<東亞日報> 1920. 4. 6 - 13)

無 職	孫 秉 熙	六 十 歲
普成高等普通學校長	崔 麟	四 十 三 歲
天道教 道師	權 東 鎮	六 十 歲
天道教 道師	吳 世 昌	五 十 七 歲
天道教 道師	林 禮 煥	五 十 六 歲
天道教 道師	權 秉 憲	五 十 三 歲
天道教 月報課長	李 鍾 一	六 十 二 歲
天道教 道師	羅 仁 協	四 十 九 歲
天道教 道師	洪 基 兆	五 十 六 歲
無 職	金 完 圭	四 十 四 歲
天道教 道師	羅 龍 煥	五 十 七 歲
天道教 長老	李 鍾 勳	六 十 五 歲
天道教 長老	洪 秉 箕	五 十 二 歲
天道教 道師	朴 準 承	五 十 五 歲
基督教長老派 長老	李寅煥(昇薰)	五 十 六 歲
中央基督教青年會 幹事	朴 熙 道	三 十 一 歲
基督教北監理派 牧師	崔 聖 模	四 十 七 歲
基督教北監理派 牧師	申 洪 植	四 十 九 歲
基督教長老派 牧師	梁 甸 伯	五 十 一 歲
農	李 明 龍	四 十 八 歲
基督教長老派 牧師	吉 善 宙	五 十 二 歲

세브란스聯合醫學校附屬病院 事務員	李 甲 成	三十四歲
基督教北監理派 傳道師	金 昌 俊	三十一歲
基督教北監理派 牧師	李 弼 柱	五十二歲
基督教南監理派 牧師	吳 華 英	四十一歲
基督教新報社 書記	朴 東 完	三十五歲
基督教南監理派 牧師	鄭 春 洙	四十五歲
基督教南監理派 牧師	申 錫 九	四十六歲
僧 侶	韓 龍 雲	四十二歲
僧 侶	白 相 奎(龍城)	五十七歲
平壤基督教書院會 總務	安 世 桓	三十三歲
無 職	林 圭	五十六歲
基督教南監理派 傳道師	金 智 煥	二十九歲
書籍出版業	崔 南 善	三十一歲
基督教 長老	咸 台 永	四十八歲
中央學校 校長	宋 鎮 禹	三十一歲
無 職	鄭 魯 湜	三十歲
中央學校 教師	玄 相 允	二十八歲
農	李 景 燮	四十五歲
麵製造販賣業	韓 秉 益	二十九歲
普成社工場監督	金 弘 奎	四十五歲
無 職	金 道 泰	二十九歲
天道教 大道主	朴 寅 浩	六十六歲
天道教 金融觀長	盧 憲 容	五十三歲
水原三一女學校 教師	金 世 煥	三十二歲
普成法律商業專門學校 生徒	康 基 德	三十一歲
延禧專門學校 生徒	金 元 璧	二十七歲
基督教 牧師	劉 如 大	四十二歲

右 內亂被告事件에 對하여 高等法院長의 命을 受한 豫審判事 朝鮮總督府 判事 楠常藏, 同 永沼直方으로부터 提出한 訴訟記錄 及 意見書를 調查하여 高等法院 檢事長代理 朝鮮總督府 檢事 草場林五郎의 意見을 聽하여 決定함이 左와 如함.

主 文

京城地方法院을 本件의 管轄裁判所로 指定함.

理 由

第一, 曠告의 大戰이 終局에 近하여 漸次 平和의 曙光이 現하러 함에 當하여 大正七年 一月 上旬 美國大統領 윌슨은 講和基礎條件으로 十四個條를 提唱한지라, 其中에 植民地問題 等 主權에 關한 事項은 民族自決主義에 從하여 解決할 趣旨의 條項이 있을 뿐 아니라, 波蘭 民族의 獨立을 承認하려는 趣旨와 大小國家의 政治上 獨立 及 領土保全을 擔保하기 爲하여, 國際聯盟을 組織하는 趣旨의 條項이 있고, 其後 大正八年 一月中 佛國 巴里에서 講和會議가 開催되어 聯合 各國 講和委員은 同所에 參集하여 對獨講和條項을 審議하고, 美國大統領 윌슨도 亦 渡佛하여 親히 講和

會議에 列하여 其 主唱의 徹底에 努力하게 된 바 日.韓 合併의 結果 朝鮮이 獨立을 失하였음에 平素 不滿을 抱한 天道教 聖師 被告 孫秉熙, 同 教徒의 有力者인 普成高等普通學校長 被告 崔麟, 天道教 道師 被告 權東鎮, 同 被告 吳世昌은 今回의 講和會議는 戰亂의 結果를 處理하는 同時에 永久平和를 爲하여 世界의 改造를 圖함인즉, 월슨이 提唱한 民族自決主義는 今次 戰亂의 巷이 된 在歐州 各地의 民族뿐 아니라 世界 一般의 民族에도 또한 應用될 것이므로 此機를 乘하여 朝鮮民族이 蹶起하여 獨立慾望의 熾熱함을 表示하여 歐美各國의 注視를 惹起하고 또 美國大統領의 意를 動하게 할진대 朝鮮의 獨立은 波蘭 民族의 獨立과 同一히 講和會議의 議題에 上하여 其 承認을 得하기에 至하겠고 特히 其 當時 在外朝鮮人中 이미 獨立運動을 試하기 爲하여 佛國 巴리에 渡航한 者가 있다는 風說 及 在東京 朝鮮留學生中 獨立運動을 하는 者가 있다는 風說이 頻頻히 朝鮮 內에 傳播하고 又 上海 在留의 朝鮮人으로 西鮮 各 地方에 來하여 獨立運動을 宣傳한 者가 있어 此로 因하여 京城 其他 各地의 人心이 漸次 動擾하여 各處에 獨立運動 勃發의 兆를 문한 時機이므로 好機不可逸이라 思惟하여 同年 一月 下旬 孫秉熙의 住所에서 數回 會合 凝議한 結果 朝鮮으로 하여금 帝國의 羈絆에서 脫하여 一獨立國家 形成하게 하기를 企圖하고 其手段으로 먼저 同志를 糾合하여 朝鮮民族代表者로 孫秉熙 等의 名으로서 朝鮮의 獨立을 宣言하고 且 宣言書를 秘密히 印刷하여 朝鮮 全道에 配布하여 民衆을 煽動하여 旺盛히 朝鮮獨立의 示威運動을 起하게 하여서 朝鮮民族이 如何히 獨立을 熱望하는지를 表示하고 一面 帝國 政府, 貴衆 兩議院, 朝鮮總督府 及 講和會議의 列國 委員에게 朝鮮獨立에 關한 意見書를 提出하고 또 美國大統領 월슨氏에게 朝鮮獨立에 關하여 盡力を 乞하는 旨의 請願書를 提出하기로 定하고 其 計劃의 實行에 就하여는 崔麟으로 하여금 擔當하게 하기로 함으로서 同年 二月 上旬 夜 崔麟은 以前부터 親한 中央學校長 被告 宋鎮禹와 師弟의 關係가 있는 同校 教師 被告 玄相允 及 宋鎮禹의 媒介로 會見하게 된 歷史 專攻者 被告 崔南善과 崔麟의 住所에서 會合하여 前記 計劃을 告하매 右 三名이 皆 此에 贊同하였으므로 其後 兩 三日을 經하여 右 四名은 夜間에 再次 京城府 桂洞 中央學校內 宋鎮禹의 居所에 會合하여 其際 熟議한 結果 朴泳孝.尹用求.韓圭高.金允植 等 舊韓國時代 要路에 在하던 知名의 者 及 基督教徒를 勸說하여 同志를 삼고, 此等의 者 及 孫秉熙 以下 天道教徒中 主要한 者를 朝鮮民族代表者로 하여 其 名義로써 獨立宣言을 하고 且 其 名義로써 獨立宣言書, 意見書 及 請願書를 作成하기로 하고, 各 書面의 起草는 崔南善이 擔當하고 又 舊時代의 人物에 對한 交渉은 崔麟.崔南善 及 宋鎮禹가, 又 基督教側에 對한 交渉은 崔南善이가 此를 擔當하게 되었으므로 其後 崔麟.崔南善.宋鎮禹는 右 尹用求 等에 對하여 各其 交渉을 試하였으나 結局 要領을 得하지 못하고 中止하고, 崔南善은 基督教徒의 同志를 求함에 就하여 먼저 其 知己인 平安北道 定州郡 基督教長老派의 長老 李昇薰이라는 李寅煥에게 交渉을 試하기로 하여, 同月 七日頃 玄相允으로 하여금 李寅煥이 設立한 五山學校 經營의 事에 稱託하고 同人의 來京을 勸促하게 하였으므로 玄相允은 被告 鄭魯湜家에 赴하여 鄭魯湜에 對하여 同人處에 止宿한 定州郡人 被告 金道泰로 하여금 定州郡 葛山面 益城里 李寅煥 許에 到하여 右 崔南善의 言을 李寅煥에게 傳達하게 할 事를 依頼하였으며, 鄭魯湜은 崔南善.崔麟 等이 朝鮮獨立運動을 企劃하여 其 同志를 求하기 爲하여 基督教徒인 李寅煥에게 交渉을 試할 必要上 同人을 招하는 事情을 知하면서 其 計劃의 實行을 幫助하기 爲하여 右 依頼에 應하고 卽日 被告 金道泰에게 對하여 定州에 赴하여 李寅煥에게 右 傳言을 爲한 事를 依頼하며, 金道泰는 右 事情을 知悉하고 同樣 幫助하기 爲하여 此를 承諾하고, 同月 八日 京城을 出發하여 其 翌 九日 定州에 到하여 李寅煥의 住所로 向하는 途中 知人 同所 五山學校 教員 朴賢煥을 遇하여 同人에게 其 當時 李寅煥이 所幹이 有하여 同道 宣川에 赴하여 不在인 事를 聞하고 事情을 聞하고 情을 知하지 못하는 同人에게 對하여 李寅煥에 右傳言을 依頼하였으므로 同人은 特히 宣川에 赴하여 此를 李寅煥에게 傳하였으므로 李寅煥은 同月 十一日頃 急遽 京城에 出來하였는데 崔南善은 官憲의 注目を 避하기 爲하여 自身이 會見치 않고 宋鎮禹로 하여금 同日 自己에 代하여 桂洞 金性洙 別宅에서 李寅煥과 會見하고, 前記 計劃을 告하여 基督教側의 參加를

求하고 且 同志 糾合을 付託케 한 바, 李寅煥은 卽時 此를 承諾하고 同志를 糾合하기 위하여 卽日 京城을 辭하고 平安北道 宣川에 赴하여 同月 十二日頃 基督教 長老派 牧師 被告 梁甸伯의 住所에서 同人 及其 當時 長老會에 出席하기 爲하여 宣川에 來集한 基督教 長老派 長老 被告 李明龍, 同 牧師 被告 劉如大, 同 牧師 金秉祚 等과 會合하여 宋鎮禹에게 聽取한 前期 計劃을 告하여 贊同을 求한 바 右 三人은 皆 同志가 되기를 承諾하고 劉如大.金秉祚는 獨立運動에 關하여 萬事를 李寅煥에게 一任하고, 且 必要한 書類에 押印하게 하기 爲하여 各者 其印章을 同人에게 預託하고, 梁甸伯.李明龍은 李寅煥의 注意에 依하여 親히 獨立運動의 謀議에 參與하기 爲하여 京城에 赴하기로 하고 尙 李寅煥은 同月 十四日 平壤 記笏病院에서 基督教 長老派 牧師 被告 吉善宙, 同 教 監理派 被告 申洪植 等과 面會한 다음 前記 計劃을 告하여 贊同을 求한 바 兩名이 皆 同志者 되기를 承諾하고, 李寅煥의 注意에 依하여 스스로 京城에 來하여 獨立運動의 謀議에 參與하기로 하였다. 其後 十七日頃 再次 京城에 來하여 昭格洞 金昇熙 家에 投宿하고, 直時 人을 派遣하여 宋鎮禹에게 來京한 旨를 通知하매 同人은 一兩度 右 旅宿을 來訪하였으나, 其態度가 熱心이 缺한 듯하며, 其 所言이 要領을 得하지 못함이 있고, 또 崔南善도 容易히 李寅煥과 面會치 아니하므로 李寅煥은 內心에 疑惑을 抱懷하였던 時에 마침 中央青年會 幹事 被告 朴熙道를 遇하여 朝鮮獨立運動에 基督教側의 同志者와 會見코자 하는 意思를 付託하였으므로 同人은 此를 承諾하고, 同月 二十日 夜 京城府 需昌洞 其 住所에 基督教南監理派 牧師 被告 吳華英, 同 牧師 被告 鄭春洙, 同 北監理派 監理司 吳箕善 及 申洪植 等이 皆 獨立運動의 同志者를 集合하고, 自己도 其席에 列하고 李寅煥과 會合하여 獨立運動의 事를 協議한 結果, 京城 及 各 地方에서 基督教의 同志者를 求하여 此와 共히 日本政府에 獨立請願書를 提出하기로 하고, 그 同志 募集에 就하여 鄭春洙로 하여금 元山 方面을 擔當하게 하였고, 當夜에 別로이 基督教 長老派 被告 咸台永의 肩書 住所에 同人 세브란스病院 事務員 被告 李甲成, 平壤 基督教書院 總務 被告 安世桓, 基督教 長老派 助事 吳相根, 同 牧師 玄楯 等 모든 獨立運動의 同志者가 會合하였으나 何等 決議한 바가 無하였다. 然而 其翌 二月 二十一日 崔南善은 李寅煥을 其 前記 宿所에 訪하고 相伴하여 崔麟 家에 赴하여 崔麟과 會見하게 하였는데, 其際에 崔麟은 李寅煥으로부터 前夜 朴熙道 家에서 基督教徒의 同志가 會合하여 基督教側에서 獨立運動을 行하게 된 事를 聞하고 獨立運動은 民族 全體에 關한 問題이므로 宗教의 異.同을 不問하고 合同함이 可하다는 意를 說하고 懇切히 合同을 求하였으므로 李寅煥은 同志와 協議한 後 諾否를 決하고 回答할 旨를 約束하여 尙 運動費의 融通을 要求하고 歸來한 바 崔麟은 卽日 孫秉熙에게 金 五千圓을 基督教側에 貸與할 事를 要求하자, 同人은 此를 承諾하고 天道教 大道主 被告 朴寅浩 及 同教 金融觀長 被告 盧憲容에게 右事情을 告하여 同 金額의 支出을 求한 바, 右 兩名이 皆 前記 獨立運動에 贊同하고 志에 參加하여 異議없이 天道教의 保管金 五千圓 支出의 節次를 終了하고 其翌 二十二日 現金 五千圓을 崔麟에게 交付하였으므로 同人은 此를 携帶하고 直時 李寅煥의 宿所에 到하여 同人에게 交付하였다. 先是 李寅煥은 其 前夜 卽 同月 二十一日 崔麟과 會見 後 京城 南大門外 세브란스 病院 構內인 被告 李甲成 家에서 朴熙道, 吳基善, 吳華英, 申洪植, 咸台永, 京畿道 水原郡 三一 女學校 教師 被告 金世煥, 安世桓, 玄 楯과 會合하여 徹宵 協議한 結果, 獨立運動에 天道教側과 合同할 與否의 問題에 關하여는 爲先 天道教 便의 運動方法을 確探한 後 可否를 決할 것이요, 其事에 關하여는 李寅煥 及 咸台永에게 萬事를 一任하기로 決定하고 次에 獨立請願書의 提出에 對하여 同志者를 募集하고 此에 添附할 紙面에 署名捺印을 得하기 爲하여 李甲成을 慶尙南道, 金世煥을 忠淸南道에 派遣하기로 하고, 또 巴리에 在한 講和會議의 形勢를 探聞하여 此를 報道하게 하고, 歐洲에 書面을 發送하는 境遇의 便宜를 計劃하고자, 玄 楯을 支那 上海에 派遣하여 두기로 (同月 二十三日 玄 楯은 右使命을 銜하여 京城을 出發, 上海에 赴任하였다)하였으므로, 李寅煥은 其翌 二十二日 崔麟에게 金 五千圓을 受領한 後, 咸台永和 共히 崔麟 家에 到하여 獨立運動의 方法에 對하여 天道教便의 意嚮을 確探한 바 崔麟은 基督教便의 計劃과 같이 獨立請願書 提出뿐으로는 不充分한즉, 獨立宣言을 行치 아니할진대,

合同의 必要가 無하다云하였으므로 李寅煥, 咸台永은 同日 吳基善, 朴熙道, 安世桓과 咸台永 家에 會合하여 熟議한 結果 天道教便의 主張을 容納하여 獨立宣言을 行하기로 決하고 其 翌翌 二十四日 李寅煥, 咸台永은 崔麟 家에 赴하여 合同을 承諾한다 通知하였으므로 茲에 朝鮮獨立運動에는 天道教便과 基督教便의 合同이 成立하였다.(吳基善은 獨立宣言에 反對했으므로 當日 以後 脫退) 그리하여 李寅煥, 咸台永은 合同의 交渉 以來 基督教便의 代表者로 同志間에 認定되었으므로 從來 天道教便의 代表인 崔麟은 右 兩名과 協議한 後 獨立宣言은 國葬으로 因하여 數十萬의 民衆이 京城府에 集한 國葬의 前前日인 同年 三月 一日 午後 二時로 定하고, 同 日時를 期해서 京城府 公園에서 宣言書를 朗讀하여 此를 行하고 該宣言書를 祕密이 多數를 印刷하여 京城에서는 獨立宣言의 當日 此를 公衆에게 配布하여 萬歲를 唱하고 또 此를 各 地方에 分送하되, 其 分送할 時 京城에서 行하는 獨立宣言의 日時 及 宣言書 配布 次第를 傳達하게 하여 各 地方에서도 京城을 效倣하게 할 事. 宣言書 其他 書類의 起草, 宣言書의 印刷은 天道教便에서, 宣言書의 配布分送은 天道教便, 基督教便에서 各其 擔當하고, 또 帝國政府 貴.衆 兩議院에 對한 書面의 提出은 天道教便에서, 美國大統領, 列國講和委員에 對한 書面의 提出은 基督教便에서 各 其 擔當하기로 하고, 또 朝鮮 民族代表로 各 書面에 連名할 者는 天道教側, 基督教側에서 各 數十名을 限定하기로 하고, 基督教에서는 可及的 多數의 同志者를 募集. 連署하게 하기 爲하여 前記와 如히 各其人을 派하여 同志募集에 從事케 하였으나 此 協定에 依하여 該 計劃을 變更하게 되었다. 尙且 獨立運動에 參加를 求하는 佛敎徒도 右 連名에 加하기로 定하였다. 於是에

(一) 崔南善은 同月 上旬頃부터 頻繁히 崔麟과 會合 協議한 後 冒頭에 '朝鮮의 獨立國됨과 自主民 됨을 宣言하노라'라 揭記하고, 朝鮮의 獨立은 時代의 大勢에 順應하고, 人類 共同 生存權의 正當한 發動으로 何物이라도 沮止 抑制하기 不能하므로 그 目的을 達하기 無疑하므로 朝鮮 民族은 宜當히 最後의 一人, 最後의 一刻까지 獨立의 意思를 發表하고, 相互 奮起하여 帝國의 羈絆을 脫하여 獨立을 計圖하지 아니치 못할 意思로, 朝憲을 紊亂하고 獨立의 示威運動을 挑發할 文辭를 記載한 宣言書를 帝國政府, 朝鮮總督府, 貴.衆 兩院에 提出할 朝鮮獨立에 關한 意見書(領第 三三〇 號의 四一九, 同 四二〇에는 通知書의 標題가 有하나 그 內容에 依하여 意見書가 認定함) 諸國의 朝鮮에 對한 政治 政策을 讒誣罵倒하고 美國大統領 윌슨氏의 人格과 그의 主唱한 民族自決主義를 極力 讚揚한 美國大統領에 送致할 請願書 及 講和會議에 列한 列國 委員에게 提出할 意見書 草案을 同月 二十六日頃까지 作成하여 此를 崔麟에게 提出하여 直時 그것을 孫秉熙. 權東鎮. 吳世昌 等에게 示하여 그 同意를 얻었다.

(二) 孫秉熙. 權東鎮. 吳世昌은 共謀한 後 同月 二十五日頃부터 二十七日頃까지 其間에 當時 天道教의 祈禱會 終了報告, 且 國葬 拜觀을 因하여 京城에 來集한 天道教 道師 被告 林禮煥, 同 被告 羅仁協, 同 被告 洪基兆, 同 被告 朴準承, 在京城의 天道教 道師 梁漢默(前 豫審中 死亡), 天道教 道師 被告 權秉惠, 天道教徒 被告 金完奎, 天道教 道師 被告 羅龍煥, 天道教 長老 被告 李鍾勳, 同 被告 洪秉箕 등 十名에 對하여, 또 吳世昌은 天道教 月報課長 被告 李鍾一에 對하여 獨立運動에 關한 前記 計劃을 告하고, 其 贊同을 求하며 皆 同志者 되기를 承諾하고, 且 宣言書 其他 書面에 朝鮮民族 代表로 孫秉熙 等과 共히 名義를 揭載하기에 同意하였다.

(三) 李寅煥, 朴熙道, 吳華英, 李弼柱, 咸台永, 安世桓 及 當日 獨立運動의 計劃을 聞하고 此에 贊同하여 同志에 參加한 基督教 北監理派 牧師 崔聖模 及 同志 募集次로 同月 二十六日 漢江의 人道橋上에서 會合하여, 宣言書 其他의 書類에 名義를 揭할 基督教便의 同志者를 大略 銓衡하고, 且 安世桓을 獨立意見 陳述次로 東京에 派遣하기로 하였다.

(四) 李寅煥. 朴熙道. 李甲成. 吳華英. 崔聖模. 鄭春洙의 七名을 定하고 咸台永은 連名者가 逮捕되는 境遇에 其 家族保護의 任에 當하기 爲하여 連名者中에 參加하지 않기로 하고, 帝國政府, 朝鮮總督府, 貴.衆 兩議院에 提出할 書面에 押印하기 爲하여 咸台永은 當日 出席한 他의 九名에게서 各其 印章의 預託을 受하고 또 李寅煥에게 當日 缺席한 劉如大. 李明龍. 金秉祚 三名의 印章을 맡고, 尙

豫前부터 領置하였던 梁甸伯, 吉善宙, 申洪植의 各 印章을 携帶하고 同夜 崔麟 家에 이르렀으나 右 各處에 提出할 書類가 아직 整頓되지 못하였으므로 此에 押印하기 不能하므로 後日 書類 整頓 後 此에 添附하게 하기 爲하여 連名者의 姓名을 列記한 別個의 紙面에 各其 押印하였다.

(五) 江原道 襄陽郡 通川面 神興寺 僧侶 被告 韓龍雲은 同月 二十四日부터 二十七日까지 其間에 崔麟에게 前記 獨立運動의 計劃을 聞하고 또 同人의 집에서 前記 各書類의 草案을 見하고 그 計劃에 贊同하였고, 또한 韓龍雲은 慶尙南道 陝川郡 海印寺 僧侶 被告 白相奎에게 右 計劃을 告한 바 同人也 이에 贊同하여 同志에 參加하기로 되어, 同月 二十七日 韓龍雲은 崔麟의 집에 이르러 前記 連名者의 姓名을 列記한 紙面에 押印하고, 또 白相奎에게 委託을 받은 同人의 印章도 同 紙面에 押印하였다.

(六) 崔麟, 吳世昌, 林禮煥, 權秉憲, 羅仁協, 洪基兆, 金完奎, 羅龍煥, 洪秉箕, 朴準承, 梁漢默의 十一人은 同月 二十七日 孫秉熙의 妾宅인 齋洞 金相奎 집에 會合하여 一同이 宣言書, 其他 書類의 草案을 보고 그 趣旨에 贊成하여 前記 連名者의 姓名을 列記한 紙面에 各其 押印하고, 또 孫秉熙는 家人에게 自己의 印章을 持參하여 同 紙面에 押印하였다.

(七) 李鍾一은 同月 二十七日 自己가 社長인 天道敎의 印刷所 京城府 壽松洞 普成社에서 同社 工場 監督 金弘奎에게 命하여 먼저 崔南善이가 그 經營하던 印刷所 新文館의 職工으로 하여금 作版하게 하여 崔麟집에 보내 있던 獨立宣言書의 原版을 崔麟집으로 가져오게 한 다음 이에 依하여 獨立宣言書의 印刷를 命한 바 金弘奎는 孫秉熙 等이 朝鮮獨立運動에 關하여 作成한 朝憲 紊亂의 記載가 있는 獨立宣言書로 當該 官廳의 許可를 얻지 않은 줄 知悉하고도, 다시 情을 알지 못하는 同社 印刷職工 申永求에게 그 印刷를 命하여 獨立宣言書 二萬 一千枚를 同夜 十一時頃까지 印刷, 翌日 이를 李鍾一에게 交付하였다.

(八) 朴熙道, 李甲成은 獨立運動의 實行에는 學生 等の 힘을 비는 것이 便利하다 思惟하던 터에 在京城 學生 等도 時局에 關하여 動搖하는 中임을 들어 알고 專門學校 生徒中의 有力者 延禧專門學校 生徒 被告 金元璧, 普成法律商業學校 生徒 被告 康基德, 京城醫學專門學校 生徒 韓偉鍵 等과 時時로 會合하여 一面 孫秉熙 等の 獨立運動 計劃을 告하고, 一面 學生 等の 動靜을 探하여 暗暗裏에 그 奮起를 愆憑하였던 바, 同年 二月中 學生 等도 別個로 獨立宣言書를 作成하고, 獨立宣言을 行할 企劃이 있음을 듣고 同月 二十二,三日頃 朴熙道는 金元璧에게 對하여 學生團의 獨立運動을 一時 中止하고, 孫秉熙 等の 獨立運動에 參加 援助하기를 勸誘한즉, 同人은 康基德, 韓偉鍵 等과 謀議를 하여 이를 承諾하게 되어 同人等은 同月 二十八日 京城府 勝洞 禮拜堂에 中學 程度의 代表者로 指目할 生徒 十數名을 召集하고, 同日 康基德이가 세브란스醫學專門學校 生徒 金成國의 손을 거쳐 李甲成에게 領受한 獨立宣言書 千五百枚를 同人 等에게 百枚式 分配하고, 翌 三月 一日 午後 二時 孫秉熙 等은 京城 파고다公園에서 獨立宣言을 行할 터이므로 이에 參加하고, 또 同時刻 京城 市內에서 獨立宣言書를 公衆에게 配布할 것을 煽動하였다.

이리하여 諸般의 準備가 一旦 整齊하였으므로 連名者 一同이 對面하여 最後의 會談을 行하고자 同月 二十八日 밤 京城府 齋洞 孫秉熙집에 梁甸伯, 吉善宙, 李明龍, 金秉祚, 鄭春洙, 羅仁協, 洪基兆, 梁漢默, 白相奎를 除한 外의 連名者 一同이 會合하고 咸台永도 이에 參加하였다. 그때 獨立宣言 當日 파고다公園에 學生 等이 集合하게 되었음을 듣고 當日의 紛擾를 念慮하여 急히 獨立宣言의 處所를 京城府 仁寺洞 明月館 支店으로 變更하고, 當日 李甲成으로 하여금 朝鮮總督府에 前記 意見書를 提出토록 하기로 하고, 또 當日 會合의 處所를 離하지 않고 一同이 從容히 縛에 就하기를 約束한 後 그 翌 三月 一日 午後 二時頃 獨立宣言書의 連名者 中 吉善宙, 劉如大, 金秉祚, 鄭春洙의 四名을 除한 外의 二十九名이 悉皆 右 明月館 支店에 會合하여 李甲成은 爲先 人으로 하여금 朝鮮總督府에 前記 意見書를 提出하게 하고, 李鍾一은 其 印刷한 獨立宣言 約 百枚를 卓上에 置하여 來會者의 閱覽에 供하여 宣言書 朗讀을 省略하고 韓龍雲은 起하여 一場 式辭를 爲하여 一同이 此로써 獨立宣言이 終了하였다 하여 萬歲를 三唱하고, 將次 食卓에 就하고자 할 際에 同所에 出張

한 警察官에게 一同이 逮捕되었다. 또 此와 殆히 同時頃에 金元璧.康基德 等으로부터 前示와 如히 煽動된 中學程度의 生徒 等은 各自 其 學校로부터 多數의 生徒를 引率하고 파고다公園에 赴하는 途中 獨立宣言書를 各戶 또는 通行人에게 配布하고, 파고다公園에 集合하고 道를 分하여 示威次로 市內 各方面에 驀進하며 '獨立萬歲' 或은 '萬歲'를 連呼하여 孫秉熙의 示威運動에 對하여 大히 氣勢를 添하였다.

(一) 李鍾一은 其 印刷하게 한 獨立宣言書中 二千枚를 同年 二月 二十八日 普成社 幹事인 京城府 壽松洞 印宗益에게 交付하여 其內 五百枚는 全羅北道 全州郡 天道教區室에 持參하고 또 殘餘는 忠淸北道 忠州에 持參하여 夜中 公衆에 配布하도록 命令하였으므로 印宗益은 (가) 同日 全州郡 天道教區室에 到하여 其中 千七百枚를 同 教區室 金融員 金振玉에게 交付하여 全州教區 管轄의 各 教區에 分送하여 公衆에 配布하라 命令하였으므로 金振玉은 同日內 約 二百枚를 全羅北道 任實郡 天道教區室에 持參하여, 同教室長 韓永泰에게 交付하여 同所에서 同年 三月 二日 此를 公衆에 配布하기로 依賴하고, 殘餘全部는 天道教徒 全州 高砂町 閔泳鎭 外 數名으로 하여금 同日 夜 全州邑內 道路에서 公衆에게 配布하고, (나) 殘餘 三百枚를 携帶하고 淸州에 이르러 翌 三月 一日 逮捕되었고, (二) 其中 二千枚를 同 二十八日 京城府 八判洞 天道教徒 安商憲에게 交付하여 江原道, 咸鏡道에 赴하여 都會地에 配布하라 命令하였으므로 同人은 同日 平康郡에 到하여 同所 天道教區長 李泰潤家에서 同人에게 其中 約 七百枚를 交付하여 公衆에게 配布할 事를 依賴하고, 殘餘 約 千三百枚는 翌 三月 一日 咸鏡道 永興郡 天道教區室에 持參하여 同室 守直人 金某에게 交付하여 公衆에게 配布하기를 依賴하고, (三) 約 三千枚를 同 二十八日 住所 未詳 天道教徒 金洪烈에게 交付하여 平安道에 持參하여 名處에 配布케 하고, (四) 五十餘枚를 翌 三月 一日 天道教室 編輯員 京城 嘉會洞 李瑾에게 交付하여 頒布를 依賴하였으므로, 同人은 其後 數日間에 國葬 拜觀次로 京城에 來한 知人 十數名에게 各 一枚씩 分配하였다.

(二) 李景燮은 同年 二月 二十八日 李鍾一로부터 前記 獨立運動의 計劃을 聞하고 此에 贊同하고 同志에 參加하여, 李鍾一로부터 前記 獨立宣言書 千枚를 受取하여 黃海道 瑞興郡 天道教區室에 赴하여 同教徒 朴東周에게 其中 七百五十枚를 交付하여 海州.沙里院에 配布하고, 殘餘는 遂安에 配布할 旨와 京城에서는 三月 一日 午後 二時를 期하여 孫秉熙 以下가 獨立을 宣言하고 該 宣言書를 配布하면서 萬歲를 呼唱하겠으므로 地方에서도 此를 效倣하여 宣言書를 配布하여 多衆과 共히 萬歲를 呼唱할 旨를 傳達하라는 命을 受하여 同年 三月 一日 瑞興郡에 至하여 右 朴東周方에 赴하여 前示 李鍾一의 宣言을 告하고, 獨立宣言書 七百五十枚를 同人에게 交付하여 同道 海州.沙里院에서 公衆에게 配布할 旨를 依賴하고, 또 同日 同道 遂安郡 石橋里에 到하여, 同所 天道教區長 安鳳河, 同教徒 金永萬.韓淸一.洪碩貞이라는 洪錫禎 等에게 對하여 前記 李鍾一의 傳言을 告하고, 宣言書 約 二百五十枚를 同人 等에게 交付한 後 其半을 遂安에 配布하고 또 其半을 谷山에 配布할 事를 洪錫禎에게 依賴하고, 尙 其際에 右 宣言書를 各里洞에 配布하고 多衆이 集合하고 萬歲를 呼唱하면, 朝鮮獨立 目的을 達함을 得하겠으므로 努力하기를 勸告하였는데, 其後 三月 四日頃 遂安郡 松項里에서 逮捕되었다.

(三) 李甲成은 同年 二月 二十八日 (一) 金昌俊으로부터 獨立宣言書 約 六百枚를 受取하여, (甲) 同日內 四十五枚를 세브란스醫學專門學校 生徒 李容高에게 交付하고, (乙) 翌 三月 一日內 四百枚를 前記 李甲成 家에서 세브란스醫學專門學校 生徒 李容高에게 交付하여, 同人으로 하여금 其內 二百枚를 大邱府의 牧師 李萬集에게, 其殘 二百枚를 馬山府 學校 教師 任學瓚에게 各其 交付하라 命하였으므로 李容高은 (가) 同日 大邱府 南城町 李萬集 家에 到하여 其中 二百枚를 同人에게 交付한 바 同人은 同月 八日 同府 南山町 金泰鍊에게 依賴하여 同所 西門 外의 市場에서 公衆에 配付하고, (나) 同月 二日 馬山府 倭町 任學瓚方에 到하여 同人에게 殘餘 二百枚를 交付한 바, 同人은 此를 李炯宰에 交付하고, 同人은 更히 內 三十枚 許를 金容煥에게 交付하여 同人은 同月 三日 馬山府 舞鶴山에서 此를 群衆에 配付하고, (丙) 同日頃 殘餘 二百枚를 金炳洙에게 命하여 群山 朴

連世事 朴淵世에 送付하여 京城에서는 三月 一日 獨立의 宣言을 行하겠으므로 群山에서도 獨立 運動을 行할 旨를 傳言하라는 依賴를 受하였으므로, 同人은 翌 三月 一日 群山府 朴淵世方에 到 하여 宣言書를 同人에게 交付하고, 且 右 傳言을 告하여 同人은 同月 二十三日頃 此를 同地에서 公衆에 配布하고 (二) 李鍾一로부터 獨立宣言書 千五百枚를 受取하여 前記 金成國의 手를 經하여 被告 康基德에게 交付하였다.

(四) 金昌俊은 同年 二月 二十八日 李鍾一 及 咸台永으로부터 獨立宣言書 約 九百枚를 受取하여 其中 三百枚는 同日 自宅에서 京城府 樂園洞에서 李桂昌에 命하여 平安北道 宣川郡 基督教會에 送付하게 한 바, 同人은 同日 夜 右 教會에 到하여 同所 信聖學校 教員 金志雄에 交付하고, 殘餘 六百枚는 同日 李甲成에게 교부하였다.

(五) 咸台永은 同月 二十八日 李鍾一로부터 獨立宣言書 約 千二.三百枚를 受取하여 同日 其半은 平壤府의 基督教會의 傭人에 交付하고 半分은 金昌俊 家에 送付하였다.

(六) 韓龍雲은 同月 二十八日 李鍾一로부터 獨立宣言書를 三千枚를 受取하여 中央學校 生徒 吳澤彦 外 數名으로 하여금 同年 三月 一日 京城市 各戶에 配布하게 하였다.

(七) 吳華英은 同年 二月 二十八日 (一) 金昌俊으로부터 獨立宣言書를 約 百枚를 受取하고 人으 로 하여금 同日 京畿道 開城郡 牧師 姜助遠 許에 送付하게 한 바 同人은 此를 同時 私立 好壽敦 女子高等普通學校 書記 申公良에게 交付하여 同人은 同所에서 人을 派하여 公衆에 配布하게 하고 (二) 前記 朴熙道 家에서 獨立宣言書 約 二.三百枚를 受取하여 基督教 傳道師 郭明理로 하여금 元山府에 持參하게 한 바 同人은 同日 同所에 持歸하여 同 牧師 李可順에 交付하고, 同人은 翌 三 月 一日 元山府 市場에서 朗讀 配布하였다.

(八) 劉如大는 前揭와 如히 宣川에서 李寅煥의 勸誘에 依하여 朝鮮 獨立運動에 贊同하고 그 同 志者가 되어 該運動에 就하여는 總히 同人에게 一任하고 其 住所 平安北道 義州郡 義州面 弘西洞 에 歸還하여 時機의 到함을 待하던 中, 同年 二月 二十七日頃 同所에서 平安南道 定州郡 德興教 會 領袖 趙衡均을 相逢하여 京城에서는 同年 三月 一日을 期하여 獨立宣言을 行하고 各 地方에서 도 京城을 效倣하여 同日 舉行하게 되어 當日 以前에 京城에서 該宣言書의 送付가 有할 旨를 聞 知하고 同日 義州邑內의 空地에서 來會한 學生 其他 七.八百名의 群衆에 對하여 當日 宣川方面에 서 送付해온 獨立宣言書를 朗讀하고 一同과 같이 萬歲를 高唱하면서, 同宣言書 二百枚를 群衆에 게 配布하다가 憲兵에게 逮捕되었다.

(九) 鄭春洙는 同年 二月 二十日 朴熙道 家에 會合하던 翌 二十一日 京城 出發 元山에 歸還하여 其 擔當한 同志者 募集에 從事中, 同月 二十五.六日頃 李甲成으로부터 天道教와 合同이 成立하여 獨立宣言을 行하게 된 事와 또 其時 吳華英으로부터 同年 三月 一日 獨立을 宣言한다는 各 通知 를 受하여 其旨를 諒知한 바, 同月 二十八日 夜 前記 郭明理가 京城에서 持參한 獨立宣言書를 見 하고 該 宣言書 連名者 中에 自己의 姓名이 掲載함을 知한 後 同人과 및 前記 李可順에게 其 配 付方을 督勵하고, 翌 三月 一日 京城에 出하여 同志者가 逮捕되었음을 聞하고 同月 七日 鍾路警 察署에 出頭 自首하였다.

(十) 被告 林圭는 崔南善에게 前揭 獨立運動의 計劃을 聞하고, 且 獨立宣言書 其他 書類의 草案 을 見하고, 右 計劃에 贊同하여 同志者가 된 後 東京에 赴하여 朝鮮獨立에 關한 意見書를 帝國政 府, 貴.衆 兩 議院에 提出하기를 擔當하고, 同年 二月 二十六日 崔南善에게 漢.諺 交作한 右 意見 書 及 獨立宣言書의 草案을 受取하여, 意見書는 此를 '片假名' 混用의 '國文'으로 翻譯하고, 宣言書 에는 國文으로 懸註를 施하여 同月 二十七日 意見書에 添付할 連名者 三十三名의 記名 捺印(但 鄭春洙의 捺印을 缺함)이 有한 前顯 紙面 三枚를 受取하여 가지고, 同日 午後 八時 京城府 南大門 驛을 出發하여 同年 三月 一日 東京驛에 到着하여 東京市外 角答相馬愛藏家에 止宿하며 同年 三 月 三日 前記 譯文의 意見書 懸註附 宣言書 各 三通을 淨書하여, 意見書에는 通告文이라는 標題 를 揭記하고 右 連名者의 記名 捺印이 有한 紙面을 各各 添付하여 內閣, 貴.衆 兩 議院에 各其 郵

送하고, 其後 歸鮮하기 爲하여 同月 九日 東京驛에서 汽車에 搭乘할 際에 逮捕되었다.

(十一) 安世桓은 同年 二月 二十七日 午前 八時 京城府 南大門驛을 出發하여 同年 三月 一日 東京驛에 到着하여 同市 神田區 駿河臺 旅館 龍名館에 投宿하며 同月 四日 警視廳에 出頭하여 警視總監과 面會하고, 朝鮮獨立의 理由가 有함을 縷縷 陳辯하고 其翌 五日 同市 神田 警察署에 逮捕되었다.

(十二) 金世煥은 同年 二月 二十一日 李甲成 家에서 徹宵 會合할 際에는 天道教와 合同하여 獨立宣言을 行할 與否의 問題解決에 對하여, 李寅煥 咸台永에게 一任하기로 決議하고, 其 擔當한 獨立請願書에 署名 捺印할 同志 募集次로 其翌 二十二日 京城을 出發하여 忠淸南道 及 京畿道 水原郡에 赴하여 同志 募集에 從事하다가, 三月 一日 京城에 歸來하여 同月 十三日 逮捕되었다.

(十三) 金智煥은 同年 二月 二十二日 頃부터 同 二十四日 頃間에 吳華英, 李寅煥으로부터 朝鮮獨立運動의 計劃을 聞하고 此에 贊同하여 同志者가 되어 講和會議의 列國委員에 送付할 意見書 及 美國 大統領에 送付할 請願書에 各草案 及 獨立宣言書를 在 支那 上海 滯在 玄楯 許에 支那 郵便에 依하여 郵送할 터인즉, 支那 安東懸 牧師 金炳穰 家에 赴하여 同人에게 委託하기를 擔當하고, 同月 二十八日 右 各 書類를 咸台永으로부터 受取하고 同年 三月 一日 京城府 南大門驛을 出發하여, 同日 新義州驛에 下車하여 國境인 鐵橋를 經하여 支那 安東懸 金炳穰 家에 到하였으나, 同人이 出他하였으므로, 其 子 金泰圭에게 右 各 書類를 交付하여 支那 郵便에 付하여 在 支那 上海 玄楯 許에 送致하기를 付託하고, 其後 京城에 歸還하기 爲하여 三月 三日 白馬驛에 到하였을 際에 逮捕되었다.

本件의 獨立運動은 餘上和 如히 企劃 且 遂行된 바, 當時 獨立의 思潮가 朝鮮 內에 彌漫하고 人心의 動搖가 前記와 같음으로써 萬信徒의 渴仰하는 天道教 聖師 孫秉熙의 名을 揭한 獨立宣言書는 特히 民衆 煽動의 效果를 現하여 忽然 鮮內 到處에 殆히 獨立 示威運動이 起하지 아니함이 없고, 獨立 萬歲의 聲은 都鄙에 喧하며, 民衆의 妄動이 逐日 益盛하여 一時 其 沮止할 바를 知하지 못할 狀態를 惹起하기에 至하였다.

第二, 前記와 如히 被告 李景燮은 被告 李鍾一의 命에 依하여, 大正 八年 三月 一日 前記 黃海道 遂安郡 遂安面 石橋里에 到하여 前記 天道教區長 安鳳河, 同教徒 韓清一, 洪碩貞 等에게 獨立宣言書 二百五十枚 許를 交付하고, 京城에서는, 三月 一日을 期하여 獨立宣言을 行하고 萬歲를 呼唱하게 되었으므로 當地에서도 該 宣言書를 配付하고, 多衆이 集合하여 萬歲를 呼唱하라 傳한 바 右 宣言書의 趣旨에 刺戟 煽動되어 其 翌二日 同里 遂安 天道教區室에서 安鳳河가 首謀者가 되어 韓清一, 洪碩貞 等 十數名의 天道教徒가 相謀하고 同教徒를 糾合하여, 朝鮮獨立의 示威 運動을 行하기를 計劃하였으나, 該 參劃者 中의 大部分은 憲兵隊에 逮捕 拘禁되기에 至하였으므로 其 逮捕에 漏免한 天道教徒 李永喆, 洪碩貞, 韓清一 等은 熟議한 後 多衆을 引率하고 憲兵分隊에 到하여 萬歲를 唱和하며 同分隊의 退去를 強要하여 示威 運動을 熾熱하게 하기를 計劃하고 同郡 遂安面, 大千面, 梧桐面, 延岩面, 公浦面 等の 天道教徒에게 右 示威 運動의 計劃을 通하였으며, 翌 三月 三日 午前 六時頃 該 計劃에 贊同하여 同 天道教區室에 會集한 天道教徒 百三.四十名의 群衆은, 洪碩貞, 韓清一 等 七名 指揮下에, 또 同日 午前 十一時頃 右 計劃에 贊同하여 同所 天道教區室에 會集한 同教徒 約 百餘名은, 天道教徒 李東郁, 吳觀玉 兩名 指揮下에 同日 午後 一時頃 亦是 右 計劃에 贊同하여 會集한 同 教徒 百五.六十名은, 韓清一, 洪碩貞 等 指揮下에 舉皆 右 各時刻 都合 三度に 遂安 憲兵分隊 事務室에 殺到하여 獨立 萬歲를 高唱하며 多數의 威勢를 示하여 脅迫하고, 同分隊의 退去를 強要하였는데 被告 韓秉益은 多衆의 憲兵隊에 集來함은 前示와 如히 多衆의 威勢에 依하여 示威 運動을 行하여 脅迫으로 同 分隊의 退去를 求하는 趣旨를 諒解하고, 前示 三月 三日 午後 一時頃 其 父親 韓清一과 洪碩貞 等이 指揮者가 되어 多衆과 共히 遂安憲兵隊에 集來하였을 際에 此에 附和 隨行한 者이라.

第三, 被告 朴寅浩, 李鍾一은 前 犯意를 繼續하여, 右 第一에 記載한 獨立宣言의 趣旨를 鮮內에

報道하고 繼續하여 鮮人에 對하여 朝鮮獨立의 思想을 鼓吹하며, 其 示威運動을 煽動하게 하기 爲하여 天道教 月報 編輯員 李鍾麟, 私立 普成法律商業專門學校長 尹益善과 共謀하고, 獨立新聞의 祕密 發刊을 企劃하여, 大正 八年 二月 二十八日 李鍾麟은 京城府 松峴洞 天道教 中央總部에서 孫秉熙 等の 獨立宣言의 顛末을 記述하고, 且 朝鮮獨立의 思想을 鼓吹하여, 國憲을 紊亂할 趣旨를 揭載한 原稿를 作成한 後 朴寅浩는 該 新聞의 社長으로 尹益善의 名義를 揭載하기를 慫慂하여 同人은 此를 承諾하고, 李鍾麟은 同年 三月 一日 同府 壽松洞인 前現 天道教의 印刷所에서 被告 金弘奎로 하여금 社長 尹益善의 名을 揭한 前記 趣旨를 記載한 獨立新聞을 印刷하게 하고, 金弘奎는 右 獨立新聞에는 國憲을 紊亂할 趣旨의 記載가 有하며 且 同 新聞에는 所轄 官廳의 許可를 得하지 않은 祕密發刊의 內情을 知하면서, 前 犯意를 繼續하여 同日 同所에서 其 印刷를 同 職工에게 命하여 印刷하게 한 바, 李鍾麟은 右 印刷物 全部를 京城府 齋洞 金相奎, 雇人 林準植에게 交付하여 其 配布를 命하였고, 同人은 同日 午後 二時頃 此를 京城府 파고다公園에 持行하여 公衆에 配布하였다.

第四, 被告 金元璧, 康基德은 前示 韓偉鍵과 同年 二月 二十八日 京城府 勝洞 禮拜堂에서 在 京城 各專門學校 及 中學 程度의 學生中 主要한 者 等과 會合하였을 際에 翌 三月 一日의 示威運動에 繼續하여 同月 五日 學生團에서 第二回의 獨立示威運動을 行하기로 大略 決定하였는데, 其後 右 三名이 共謀하고 前 犯意를 繼續하여 愈 三月 五日 午前 九時를 期하여 京城府 南大門驛前에서 獨立示威運動을 決行하기로 하고, 各其 各學校 生徒에게 其 旨를 通知하였으므로 同日 午前 九時頃 同所 廣場에 被告 等の 通知에 依하여 會集한 學生 및 此企劃이 有함을 知하고 集合한 者가 無慮 數萬이라. 金元璧, 康基德은 人力車를 乘하고 車上에서 右 群衆의 先頭에 立하여 朝鮮獨立이라 大書한 旗를 揮振하면서 群衆을 指揮하여 此와 共히 獨立萬歲를 絶叫하면서 南大門 方面에 向하여 行進하다가 警察官에게 逮捕되었다.

以上の 事實은 一件 記錄에 徵하여 此를 認하기 足하나 然이나 凡內亂의 教唆罪가 成立함에는 暴動을 手段으로 삼아 政府를 顛覆하며, 또는 邦土를 僭竊하고 其他 朝憲을 紊亂할 目的을 達할 事를 教唆한 行爲가 有함을 要하는 것이다. 故로 單히 朝鮮 民族된 者는 最後의 一人, 最後의 一刻까지 獨立의 意思를 互相 奮起하여 帝國의 羈絆을 脫하고 朝鮮의 獨立을 計圖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을 激勵 鼓舞하기에 그치고, 따로이 暴動을 手段으로 삼아 朝鮮獨立의 目的을 達하기를 教唆하였음이 아닌 時는, 縱令 其 激勵 鼓舞를 因하여 或時 暴動으로 手段을 삼아, 朝鮮 獨立의 目的을 達하려는 舉에 出하는 者가 있다고 假定할지라도, 此는 전혀 其者의 自發的 意思에서 出함이라 謂하겠으므로 無論 右 激勵 鼓舞한 者에게 內亂罪의 教唆가 있다 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前示 第一에 揭記하는 被告 等の 行爲는 朝鮮의 獨立을 企劃하여 其 手段으로 一面 同志를 糾合하여 朝鮮民族代表者로 孫秉熙 等の 名으로 朝鮮의 獨立을 宣言하고 且 其 宣言書를 祕密히 印刷하여 朝鮮 全道에 配布하여 民衆을 煽動 鼓舞하여 獨立의 示威運動을 起하게 하고, 또 他一面으로 帝國政府, 貴衆 兩 議院, 朝鮮總督府 及 講和會議의 列國委員 等에게 朝鮮獨立에 關한 意見書를 提出하고 또 美國大統領 윌슨에게 朝鮮의 獨立에 關한 盡力を 乞하는 趣旨의 請願書를 送付하는 計劃下에 其 實行을 期하기로 共謀한 後 獨立宣言書를 作成 配布하며 宣言式을 舉行하고 또 獨立萬歲를 呼唱할 事를 傳達한 等の 行爲를 하였음에 不過하며, 또 其 作成 配布한 獨立宣言書 中에는 朝鮮民族은 最後의 一人, 最後의 一刻까지 獨立의 意思를 發表하고 互相 奮起하여 帝國의 羈絆을 脫하고 朝鮮의 獨立을 計圖하지 아니하지 못할 事를 激勵 鼓舞하는 趣旨를 記載하였으나, 別로이 暴動을 爲할 事 及 暴動을 手段으로 하여 朝鮮獨立의 目的을 達한 事를 教唆한 文辭가 無하므로, 該 獨立宣言書를 配付하며 또 獨立萬歲를 呼唱할 事를 傳達한 것 此로서 內亂罪를 教唆한 것이라 할 바 아니라. 從하여 其 配付 또는 傳達를 受한 者로 時或 暴動을 手段으로 朝鮮獨立의 目的을 達하려는 舉에 出하는 事가 있을지라도 是는 其者의 自發的 意思에 依하여 決한 것이라 謂할 것이므로 右 被告 等の 行爲는 內亂罪의 教唆로서 論함을 得하지 못할 것이다.

또 內亂罪는 政府를 顛覆하며 또는 邦土를 僭竊하고 其他 朝憲을 紊亂할 事를 目的으로 暴動을 함에 依하여 成立하는 故로 暴動을 함이 있을지라도 敍上의 目的을 達하는 手段으로 行함이 아닌 時는, 內亂罪를 構成하는 事가 無한 것이다. 그런데 前示 第二에 揭記한 遂安憲兵分隊 事務室에 襲來한 行爲와 如함은 朝鮮의 獨立을 希望함을 出하여 朝憲을 紊亂하는 目的을 有한 者됨이 明白 하나 然이나 朝鮮 各地에 起한 例에 效倣하여 朝鮮人으로서 朝鮮獨立의 希望이 熾熱함을 世上에 發表하는 手段으로 行하였음에 不過하고 此로서 곧 朝鮮獨立의 目的을 達하는 手段으로 實行한 것은 아니다. 卽 最初부터 單이 多衆이 聚合하여 獨立萬歲를 高唱으로 遂安憲兵分隊의 退去를 强要함으로써 示威運動의 方法으로 삼았음에 止하고 別로이 朝鮮獨立의 目的을 達하는 手段으로 하였음이 아닌 故로 騷擾罪를 構成하는 事는 有하나 內亂罪를 構成하는 事가 無하니 從하여 被告 韓秉益의 附和 隨行한 行爲도 亦 內亂罪의 附和 隨行으로 論함을 得할 바가 아니다. 然則 本件은 高等法院의 特別權限에 屬하지 않으나 然이나 前示 被告 等의 行爲中 被告 鄭魯湜, 金道泰, 金弘奎, 韓秉益을 除한 以外의 被告 行爲는 皆 保安法 第七條, 大正 八年 制令 第七項 第一條 第一項, 出版法 第十一條 第一項 第一號 第二項의 罪에, 被告 鄭魯湜, 金道泰의 行爲는 皆 保安法 第七條, 大正 八年 制令 第七號 第一條 第一項, 出版法 第十一條 第一項 第一號 第二項, 刑法 第六二條의 罪에, 被告 金弘奎의 行爲는 出版法 第十一條 第一項 第一號 第二項의 罪에, 被告 韓秉益의 行爲는 刑法 第百六條 第三號의 罪에 該當하여, 地方法院의 權限에 屬하는 것이므로 刑事訴訟法 第三百五條에 則하여 京城地方法院을 本件의 管轄裁判所로 指定하고, 事件을 同法院에 送致함에 相當하다 하여 主文과 같이 決定하는 것이다.

高等法院 特別刑事部에서

裁判長 總督府判事 渡邊 暢
 總督府判事 石川 正
 總督府判事 橫田俊夫
 總督府判事 水野之丞
 總督府判事 原 正鼎

3.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이리하여 지방법원에서는 고등법원에서 송부된 '47인 예심결정서(豫審決定書)'를 받아 가지고 다시 4개월간 심의했다. 예심 서류만 사람의 키로 세길이나 되는 방대한 기록이었다.

판사 3인과 검사 6인이 매달렸고 변호사로는 한국인 허헌(許憲), 정구창(鄭求昌), 최진(崔鎭), 김우영(金雨英), 신석정(申錫定), 일인으로 하나이(花井卓藏), 오오구보(大久保雅彦), 기오(木尾虎之助) 등이 변론을 했다.

드디어 죄명은 '출판법' 및 '보안법'으로 인정되어 공판은 7월 12일 상오 9시부터 경성지방법원 서울 정동(貞洞) 철도부(鐵道部) 아랫층 법정에서 제1심이 개정되었다.

다음은 당시 동아일보(東亞日報)의 보도 내용이다.

今日の 大公判

(東亞日報 1920.7.12)

만인의 시선이 모이는 곳에

당국의 처치는 어떠할지

작년 3월 1일에 탑골 공원에서 '만세' 소리가 일어나며 명월관 지점 제1호실에서는 조선민족 대

표자 33인이 모여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독립을 선언한 후로 손병희 외 47인은 서대문 감옥 돌벽 널구들에서 답답한 더위와 아픈 추위를 겪은지 열여섯달과 열이틀만에 오늘 오전 8시에야 감옥에 매인 그네의 운명을 결판하는 제1막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 세상 사람의 시선은 모두 이 네들의 재판이 어찌나 될까 하는 데로 모였고 또한 조선이 생긴 후로 처음 열리는 공판이오 더욱 이 사건이 중대하므로 당국자의 주의도 크려니와 장차 하회가 어찌 될런지 우리는 매우 주목치 아니치 못하겠으며 오늘 정동 철도부 아랫층의 법정에서는 다음 표와 같은 순서로 48인을 앉게 한다더라.

韓秉益 安世桓 李甲成 洪秉箕 吳世昌 金弘奎 林 圭 金昌俊 朴準承
 林禮煥 金道泰 金智煥 李弼柱 李寅煥 權秉憲 朴寅浩 崔南善 吳華英
 朴熙道 李鍾一 孫秉熙 盧憲容 咸台永 朴東完 崔聖模 羅仁協 崔 麟
 金世煥 宋鎮禹 鄭春洙 申洪植 洪基兆 權東鎮 康基德 鄭魯湜 申錫九
 梁甸伯 金完圭 金元璧 玄相允 韓龍雲 李明龍 羅龍煥 劉如大 李景燮
 白相奎 吉善宙 李鍾勳

大公判과 엄중한 경계

금일 48인 취체를 맡은 서대문경찰서는 작일부터 준비에 분망한데 용산경찰서에서 경부 이하 20여명과 종로.본정 양 경찰서에서 각각 경관 20여명과 제3부 순사가 다수 응원할 터이며 서대문 경찰서는 서원 전부가 출동하여 금일 아침 여섯시 새벽 전부터 두 대로 나누어 한 대는 서대문경찰서에 모이고 한 대는 서대문파출소에 모여 제반 정리를 할 터이며 당일 길거리에 늘어설 경관은 네 경찰서를 합하여 백여명의 경관이 출동할 터인 즉 법정계로는 전무후무한 대 경계를 할 터이라. 대한문에서 정동으로 들어가는 골목과 서대문통에서 정동으로 들어가는 골목에는 기마순사가 늘어서서 경계할 터이요 정동 골목에는 거리거리 붉은 모자와 칼자루를 번쩍이는 경관이 늘어섰으며 법정 내외도 수십명의 경관이 늘어서서 경계하더라.

朝鮮獨立運動의 一大史劇

(東亞日報 1920.7.13)

萬人の 注目할 第一幕이 開하다

庚申 七月十二日 午前 九時 十分부터
 京城 貞洞 鐵道部 下層 特別法廷에서,
 被告는 朝鮮民族代表者 四十八人,
 孫秉熙는 身病으로 困하여 缺席으로
 開廷劈頭에 問題가 된 公訴不受理
 거리거리 칼자루를 번쩍이는 수백명의 경관
 큰 재판의 광경을 보려 하는 백 오십의 방청객
 그 중에는 가족을 걱정하는 십삼인의 부인도

표면으로는 고요한 듯하던 바다에 독립선언이라는 큰 돌을 던져 독립운동의 큰 물결을 일으킨 조선국민 대표 33인 및 그 중에 그 계획에 참여하였던 사람을 총합하여 독립당 수령 48인의 운명을 결정하고자, 일찍이 보지 못하던 대공판은 7월 12일 오전부터 경성부 정동 조선총독부 철도부 아랫층 특별법정에서 열리게 되었다. 세상의 이목이 모두 이 공판으로 모이고 개었던 하늘이 비를 다시 내리시며, 이번의 대공판은 무엇을 의미 함인가. 이 공판의 결과는 조선민족에게 어떠

한 느낌을 줄 것인가. 생각할수록 중대한 일이라 하겠으며 공판 당일의 이른 아침, 어제 하루 개던 일기는 무슨 뜻으로 다시 흐리고 가는 비조차 오락가락하는데, 지방법원 앞에서 전쟁을 하다시피 하여, 간신히 방청권 한장을, 어떤 사람들은 일곱시경부터 공판정을 향하여 들어온다. 순사, 간수의 호위한 중에 방청권의 검사는 서너번씩 받고 법정 입구에서 엄중한 신체 수사를 당하여, 조그만 바늘 끝이라도 쇠부치만 있으면 모두 다 쪽지를 달아 보관하는 등 경찰의 경계는 소위 엄중을 지나서 오히려 우스울 만큼 세밀하였다. 오전 일곱시 반쯤되어 150명의 정원인 방청석은 한 자리도 빈 구석이 없이 가득 찼는데 열세명의 부인 방청객 중에 함태영 부인의 얼굴에 눈물 흔적이 오히려 새로움은 무정한 사람도 느끼게 하며, 자기의 친족되는 사람인가 하고 참혹한 밀짚 용수에 알고 싶은 얼굴을 감추고 들어올 때마다 방청석으로부터 고개를 길게 내밀고 법정을 바라다 보는 그 근경..., 그녀가 되어 보지 않으면, 그녀의 마음을 알 길이 누가 있을까.

第一場은 宴會와 恰似

무수한 경비 순사의 호위 속에
무쇠 수갑과 삼바로 매이기는 하였으나
평시와 같이 화기가 만면하여 들어오는
사십칠인의 조선 일류 명사들

선언서 서명자의 제일인이 되는 손병희는 옥중의 고초로 중병을 얻은 풍증으로 기동치 못하므로 이날 법정에 그 얼굴을 보이지 아니함은 사극(史劇)의 일막에 적지 않게 흥미를 감하였으니, 그 이외 47인이 법정 안에 들어앉은 광경은 얼른 보기에 굉장하다. 오늘이 옥중에 몸이 매인지 1년 반만에 처음 공판이라고 구차한 가족들도 눈물젖은 새옷을 차입하여 매일 깨끗한 여름옷을 일신하게 바꾸어 입혔는데 그 중에 김원벽군은 광동포의 족기적삼 바람이오, 홍기조(洪基兆), 유여대(劉如大)의 무명 수의가 지극히 더워 보이나, 부채 바람에 날리는 이승훈(李昇薰)의 백수는 만당에 청량한 기운을 보내이는 듯하더라. 오전 여덟시에 몇차례에 나누어 자동차에 실려 오던 47인이 다 법정내 좌정하였다. 법정문에 피고인이 들어설 때에 방청인은 모두다 놀란 눈을 굴렸다. 혈기는 빠지고 뼈만 남은 두 팔목에는 예전에 대문이나 잠간 쓸 듯한 철수갑을 잠그고도 굵은 삼줄이 오히려 그 위를 엮었으며, 오죽하여 하얗던 그 얼굴이 술독 이외에서는 구경도 못하던 용수 속에서 나타날 때에는, 비록 고생의 주름은 약간 얼굴에 쌓였으며 살갗은 부푸하게 들떠 있으나 그네 얼굴에는 만면의 화기있는 웃음이 가득하다. 만면화기로 서로 동무와 목례를 하며 방청석을 돌아보며 웃는 모양이 조금도 고통스러운 기색이 없으며, 아무리 보아도 심판을 받으려 온 죄인의 태도라고는 생각지 못하겠다. 피고석 맨 앞에 앉은 이 사건의 사실상 수령 중 한 사람인 최린의 긴장한 얼굴과 권동진의 유창한 태도가 어깨를 나란히 한 의자에 앉았고 그 다음 열다섯 장교의에는 세사람씩 45명이 늘어 앉았는데, 정한 옷에 심상한 얼굴로 안경 쓴 사람은 안경 쓰고, 부채질을 할 사람은 부채질하는 모양이 평시에 무슨 회석에서 모인 듯하게 피고인의 얼굴과 태도는 심상하나 최남선, 임규의 수염 없는 사람이 세치는 늘어지고 그 외에도 수염없던 사람이 몰라보도록 수염을 늘인 사람이 많으며, 노헌용, 이명룡의 수염이 놀라움게 세었으며, 오세창의 머리도 많이 세었으며, 박인호는 아주 백수로 변하였다. 작년 3월이 엇그제 같은데, 이 사람들의 얼굴이 이와 같이 흰 것을 보면 옥중의 생활이 어떠한지, 그녀의 마음을 얼마나 소비하였는지, 대강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大公判 第一日에

地方法院前의 大雜踏

방청석을 얻고저 다투는 군중

무시무시한 경관대의 대활동

오랫동안 고대하던 공판에 피고의 얼굴이라도 보고자 방청권을 얻으러 들이밀리는 피고의 가족과 학생의 때는 12일 오전 3.4시 날도 새기 전부터 지방법원 앞에 구름 같이 모여든다. 어저께 개이었던 하늘은 또 다시 금시에 쏟아질 듯이 찌푸트하게 흐리었는데 밝는날 아침에 방청권을 얻고자 밤새도록 방청권을 얻는 꿈을 꾸다가 새벽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깬 그들은 세수할 사이도 없이 아침밥 먹을 사이도 없이 급한 걸음으로 지방법원 앞으로 왔다.

그들은 다투어가며 문 앞으로 가까이 모여든다. 이날 종로경찰서에서는 수십명의 경관이 출동하여 번쩍거리는 칼자루와 붉은테 두른 모자로 의기 양양하게 경계하는 모양과 기마순사의 사람을 헤치는 모양은 금시에 제2회 독립운동이나 일어날 듯이 야단법석이며, 붉은테 하나만 두른 경관도 그러한 취체를 맞이할 때는 경무국장 이상의 권리를 부리건마는 더구나 붉은테를 둘씩이나 두른 경부님들의 안경속으로 노려뜨는 눈동자는 금시에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살기가 등등한 즉 십여명 순사는 먼저 지방법원 문앞으로 두 줄로 세우기를 시작하는데 원래 사람수효가 표 얻은 정원보다 몇곱이나 되는 터이라 어느덧 일백 오십명의 정원 수효가 차게 됨에 한 장의 표를 얻고자 단잠을 못자고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던 부인네도 미쳐 날뛰는 군중에게 뒤로 밀리어 부질없이 빈손으로 돌아서게 됨에 버르고 별러 방청권을 얻고자 하던 그들은 하도 기가 막힌지 경관에게 백방으로 애걸하나 살기가 등등한 경관때들은 간단없이 등을 밀어내어 쫓고 그리하여도 아니 물러가는 사람은 기마순사가 말로 헤치는 모양은 작년 3.1운동이래 처음보는 광경이요, 더욱 붉은테를 둘씩이나 두른 경부의 기우뚱 거리고 다니는 태도는 참으로 당당하였고, 이에 따라 붉은테 하나만 두른 일본인 순사님도 코등어리가 우뚝하여 이리왔다 저리갔다 하는 양은 참 무서웠다.

이러한 어려운 중에도 구사일생으로 정원 일백 오십명은 차례차례로 들어가서 방청권을 탈 때 표가 삼십여장이나 모자라서 올라가는 일백 오십명속에 끼였으니까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안심하던 사람들은 의외에 해산을 당하고 어찌하여 일백 오십명의 표가 삼십장이나 부족하니 이것은 재판소에서 그렇게 표를 모자라게 보냈을 리는 만무하고 이것은 필연 도적놈이 따로 있는 것이라고 분개하는 불평소리가 자자하더라.

嚴重한 貞洞의 警備

백여명의 경관대의 경비는 귀인의 행차가 지나가는 듯

평시 같으면 인마의 왕래하는 것까지 희소하던 정동골목도 이날은 전무후무한 대경계이었다. 먼저 대한문으로 쫓아 들어가면 고등법원 정문앞에 십여명의 경관과 기마순사가 섰으며, 그리고 돌아 공판의 법정이 있는 철도부 아랫층으로 들어가는 문어귀에는 더욱 경계가 심하여 수십명의 경관과 기마순사 사오인이 매우 무섭게 떡 버티고 서있고 군복입은 군인이 말을 타고 서서 경계하는 것은 얼른 보기에 전쟁 같기도 하였으며, 배재학당(培材學堂)에서 나오는 문어귀에는 두명의 순사가 서서 경계하고, 그 뒤로 올라가면 법정으로 들어가는 뒷문에도 한명의 기마순사가 서있고, 문어귀에는 역시 두여명의 경관이 섰으며 법정 구내와 법정 안을 경계하는 경관은 무려 사오명이 늘어서서 경계가 엄중하며, 다시 서대문 통으로 나아가면 거리거리에 경관이 좌우로 늘어서서 눈동자를 굴리고 군도자루를 붙잡고 장승같이 서있으며, 이화학당(梨花學堂) 앞에는 여학생이나 나올까 겁이 남인지 기마순사 한명이 눈을 딱 걷어붙이고 서서 있고 그리고 나가다가 서대문 통에서 정동으로 들어오는 골목에도 순사가 늘어서고, 다시 의주동에서 서대문 감옥까지 무수한 경관이 늘어서서 엄중히 경비함은 참으로 누구나 겁이 안날 수 없었다. 하여간 경관이 어찌 몹시 많이 늘어섰는지 엇그제 홍수에 순사 사태가 쏟아졌는가 의심할 만큼 수효만은 무려 수백여명이 되

겠으며 그 엄중히 경계하는 모양은 재등총독이 민정시찰을 하는가 의심할 만큼 서슬이 푸르고 바람이 세더라.

展開된 獨立運動의 第一幕

(東亞日報 1920.7.14)

朝鮮民族代表 四十七人の 公判

第二日에는 崔麟과 八名만 審問

公安妨害의 理由로 傍聽은 一時 禁止

極祕密裡에 四人을 審問한 內容은 何?

소요 당시에 인연깊은 경무총장 안도씨의 특별방청은 말없는 곳에 무슨 말을 하는 듯 피고는 누구나 청산유수 같이 태연히 진술.

대공판의 첫날은 재판관의 심문이라는 것이 대개 격식에 지나지 못하고 변호사의 '공소 불수리'의 주장이 고개를 이룬 외에는 대개 평범하여, 과연 큰 연극의 첫 막을 보는 듯이 분량으로든지 용적으로든지 굉장하다는 감상만 깊이 주었을 뿐이었으나 제2일부터는 조선독립운동의 큰 파란을 일으켜 세계의 이목을 진동하던 독립선언을 행하기까지의 사실을 심문하는 날이라 방청석이 여전히 만원됨은 물론이요 피고인의 얼굴빛도 첫날보다는 매우 긴장하여졌다. 여덟시 오십오분에 재판이 열린 후 호명을 마치고 사실의 심문에 들어가 침착한 최린은 재판장의 물음에 응하여 찬찬한 걸음을 법관석 앞으로 옮기더라.

崔麟부터 訊問 開始

최린은 사실을 거침없이 진술
신문 중에 재판장은 방청 금지

"피고는 보성고등보통학교장은 언제부터인가?"

"명치 44년부터인 줄로 생각합니다"

"종교는 역시 천도교를 믿는가?"

"예"

"언제부터"

"역시 명치 44년부터인 줄로 생각하오"

"천도교의 임원된 일이 있는가?"

"없소"

"천도교주 손병희와 언제부터 알았나?"

"명치 35년에 독학 목적으로 일본에 갔는데 그때에 손이 대판에 있고 자기도 병으로 대판에 있어서 처음 알았소"

"그때 안 뒤에 이후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그후에 금일까지 교분을 계속한 바, 정은 부자, 의는 사제와 무이한 즉 자연 은혜 입은 것도 적지 않소"

"명치 43년 일한합병조약에는 어떠한 감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신성한 법정에서 의논되는 말을 많이 할 수 없으나 간단히 나의 참 마음을 말하리다. 내가 본래 일본에 대한 감정으로 말하면 대단히 양호하였소. 명치 35년에 일본에 갔다가 병으로 돌아왔고 37년에 당시 일본 공사 하야시(林權助)가 귀족 자제 50명을 골라서 일본에 유학을 시키라 권하여 학부대신 이재극(李載克)의 선발로 자기도 일본에 가서 중학교부터 전문학교까지 일본의

교육을 받았으므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양호하였소. 또 일본이 대륙정책(大陸政策)을 시작한 이래 일청.일로 양전쟁(日淸 日露兩戰爭)에 일본 국민의 노력에 경복하였으며 또 일본이 동양 평화를 위한다 함에 동감시오 공명하였소. 그 뒤에 일.한 합병이 되었는데 조선의 합병으로 말하면 두 전쟁의 결과로 인하여 동양 삼국의 세력이 평균치 못한 결과로 인하여 조선이 그틈에 끼어서 자립할 힘이 없어 조선은 조선의 조선이 되지 못하고 일본의 조선이 되어 버렸소. 일본에 합병되게 된 것은 내가 극반대를 품었으나 대세의 시킴이라 개인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었소”
“그러면 그 뒤에 불평은 있었나”

“그 불평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책은 나의 생각한 바와 자꾸 다르므로 나의 감정은 점점 심해졌소”

“그러면 일한합병 당시 피고는 불평을 품었을 뿐 아니라 그 뒤에도 점점 감정이 심하였지? 구주전쟁이 거의 완결될 대정7년 1월경 미국대통령 윌슨이 교전국의 강화 기초조건으로 열네가지를 들었음을 알았나? 또 대정8년 1월 파리에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어 각 교전국 대표자가 그곳에 모이는데 미국대통령 윌슨도 자신이 강화회의에 참석함을 알았는가?”

“그것은 당시 각 신문으로 알았소”

“대정7년 11월 28일경 피고와 권동진, 오세창 세명이 손병희의 가회동 집에 가서 독립운동의 의논을 한 일이 있나?”

“있는가 생각하오”

재판소는 결정으로서 이로부터 최린에게 대하여 심문할 말은 공공질서와 치안을 방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조선형사령 제32조, 조선재판소 구성법 제15조에 의하여 방청을 금지한다 선언하여, 방청인을 퇴출케하고 그로부터 비밀 공판을 시작하였는데 때는 아홉시 십오분이더라.(朝 九時半)

傍聽을 禁하고 大訊問

네사람에게 대한 중요한 심문
다 각기 격렬한 진술이 있었다.

최린의 심문을 개시한 후 즉시 방청을 금지한 후 최린, 권동진, 오세창, 최남선에 대하여 그 사람들의 품은 배일사상 및 독립운동을 일으키려고 당초에 마음을 낸 이유와 계획을 결정한 내력에 대하여 한 시간 반 동안이나 심문을 계속하였는데 방청이 금지되었으므로 자세히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세 사람들은 다 각기 조선은 독립하지 아니하면 안되겠다는 이유와, 당초에 계획하던 일을 기탄없이 말하였는데 그 중에는 매우 흥분하여 “조선 사람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원통히 여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오,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려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당당히 진술한 사람도 있으며, 여러가지로 자기의 소감을 말하였으나 공개를 금지한 공판인고로 이에 보도할 자유가 없음이 유감이며, 비밀심문을 마친 후 열시 사십오분에 재판장은 이로부터 방청을 다시 허가한다 선언하고 즉시 휴계에 들어갔더라.

崔麟

오전 열한시 십오분에 휴계를 마치고 재판장은 개정을 선언하고 방청을 허락한 후 다시 최린으로부터 사실의 심문을 계속하여 독립계획을 구체적으로 착수하던 사실에 대한 문답에 들어갔다.

“피고는 대정8년 2월 상순 어느날 저녁, 중앙학교장 송진우와 중앙학교 교사 현상윤과, 송진우의 소개로 역사전공자 최남선과 재동 68번지 피고의 집에 모인 일이 있는가?”

“그리하였소”

“그래서 그 회합에서 송과 최와 현의 3명에게 이때까지의 계획을 말하였는가?”

“대강 말하였소”

“다른 세 명이 모두 피고의 말에 찬동하여 같이 일을 행하기로 하였나?”

“그리하였소”

“그 만난지 3, 4일 후 다시 계동 중앙학교 안 송진우의 유숙하는 곳에 전번과 같이 모인 일이 있는가?”

“그리하였소”

“그 회합에서 네명이 숙의한 후 박영호, 윤용구, 한규설, 김윤식, 윤치호 등 구한국시대의 요로에 있던 사람과 예수교 사회의 유력자를 모아서 독립 운동을 계획하자고 하였는가?”

“그는 그 전에 말한 바 송진우의 집에 모인 것은 전날 만나서 이야기한 것을 대강 보고도 할 겸 자세히 의논도 하려 한 일시오”

“그러면 이월 초순에 피고의 집에 모였을 때에 그런 일을 의논하였는가?”

“그는 그때에 교섭하여 보자는 말은 있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오”

“송진우 집에 모였을 때에는 확실히 결정하였는가?”

“내게서 그 동안에 결정한 것을 들으려고 모인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소”

“결정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초에는 다만 이야기하였음에 지나지 못하므로 구체적으로 의논할까 한 일시오”

“그러면 처음에 피고의 집에 모였을 때에 구한국 요로 대관에게 교섭을 하여보자 하여 그것을 실행하기로 하고 그 결과의 보고를 들으려 함인가?”

“그러나 김윤식과 윤용구는 그 전인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모르나 박영호는 자기가 교섭하겠다고 송진우의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송의 집에서 모였을 때에 기독교 편에도 이 교섭을 하여 독립 운동을 같이 하도록 하자는 말이 있었는가?”

“없었소”

“그 이전에도?”

“없었소”

“그러면 어느때?”

“훨씬 그 뒤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뒤의 일시오”

“천도교주 손병희 이하 천도교의 주요 인물이 중심이 되어 독립선언을 하고 그 선언하는 방법으로 선언서, 의견서, 청원서를 작성하자는 일은 송의 집에서 결정한 일인가?”

“그것은 내가 미리 결정한 바이오. 모였을 때에는 윤치호, 박영호가 승낙을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중심이 되어 선언을 함이 어떠한가 한 바, 최남선은 자기의 경영하는 사업이 사회에 책임이 있으므로 이 운동의 표면에는 나서기가 어렵다 하였고, 송진우는 자기가 교장인 중앙학교의 일로 인하여 역시 운동의 표면에는 나서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자기는 최는 학자의 생활을 한다 하였으므로 이 운동의 표면에 나서는 것은 자기의 본의가 아닌 듯하므로 최에 대하여는 의논한 일을 취소하자 하고, 송진우에게는 대사를 행함에 중앙학교를 위함이 무엇인가 하고 말을 하였는데 이것은 역시 금일까지 말한 것은 전부 취소를 하자, 경찰의 주목을 피하려고 표면으로 관계를 끊자는 뜻에서 나온 일시오”

“그러면 처음 1월 초순에 피고의 집에 모였을 때에 구한국시대의 요로자의 의견을 들어보자 하여 그 의견을 듣기는 피고와 최남선과 송진우의 세명이 담당하였는가?”

“그렇소”

“그래서 세명은 모두 자기의 담당한 사람에게 교섭을 하였는가? 피고는 누구에게 교섭을 하였는가?”

“나는 한규설에게 교섭을 하기로 하였소”
 “최남선은 누구에게 교섭을 한다고 하였나?”
 “최는 김윤식, 윤용구의 두사람인 듯하오”
 “송진우는?”
 “박영효인 듯하오”
 “각 담당한 사람에게 교섭을 하였으나 모두 요령을 부득하였으므로 송의 집에 모여서 보고를 하였는가?”
 “예, 박영효와 윤치호는 분명히 독립 운동의 표면에 나서는 일은 반대인 줄 알았소.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하라고 한 일ियो”
 “그리고 독립선언서, 의견서, 청원서를 작성 기초하는 일은 최남선이 담당하였는가?”
 “그것은 이월 초순에 모였을 때에 난 말ियो”
 “피고의 집에 모였을 때에 최남선은 기독교편에 대하여 합동으로 독립운동을 하자고 교섭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한 일이 있었나?”
 “그리하였소”
 “최는 그 연고로 이인환(李寅煥)에게 교섭을 한 모양이나 그것은 누가 하게 한 일인가?”
 “그것은 기억이 없소. 나중에 알았소. 본래 기독교편에서도 독립운동을 행하려고 의논한 일이 있다 함을 들었소”
 “그래도 천도교 편과 합동하라고 권유하는 일은 최남선이 담당한 것이 아닌가?”
 “담당을 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 최와 기독교편과의 관계는 내가 자세히 알지 못하오”
 “그러면 당초에 최가 기독교편에 교섭을 한다고 피고들이 의논한 것은 아닌가? 이인환이 최남선의 주선으로 경성에 오게 된 결과 천도교편과 합동하게 된 것을 보아도 최남선이 그것을 담당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자세히 기억치 못하오”

崔 南 善

최린의 심문을 마친 후에 재판장은 최남선을 불러서 심리를 시작하였다. 이때까지 최린의 단정한 태도와 침착한 음성이 최남선의 당당한 태도와 우렁찬 목소리로 갈아 들었다.

“피고는 대정8년 2월 초순 재동 최린의 집에서 송진우, 현상윤, 최린과 만난 일이 있나? 어느 날인가?”

“있습니다. 1월 21일로 생각합니다...”

“그 모였을 때에 최린으로부터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을 계획하여 선언서를 만들어서 인쇄 반포하고 조선독립을 승인할 의견서를 만들어서 일본 정부, 일본 귀족원.중의원, 조선총독부와 강화 회의에 보내고, 또 청원서를 만들어서 미국대통령 윌슨에게 보내서 조선이 독립하려는 뜻을 세계에 보이고 조선독립운동을 행할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가?”

“그때에는 그런 자세한 말은 듣지 못하고 손병희가 조선의 독립선언을 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천도교 뿐 아니라 적어도 조선민족 전체에 대표될 만한 교육계, 종교계로 말하여도 기독교편과 합하여 선언을 하고 운동을 행하는 것이 좋을 줄로 말하였습니다”

“선언은 무슨 선언인가?”

“물론 독립선언이지요”

“그때에 독립선언을 하는 데는 구한국시대 요로에 있던 박영효, 윤용구, 한규설, 김윤식, 윤치호 등의 의견도 들어보자고 말한 일이 있었는가?”

“그때에 박영효, 한규설, 윤용구의 말은 났었습니다”

“그 교섭은 최린, 송진우와 피고의 세명이 나누어 맡아 가지고하기로 결정하였는가?”

“그는 내가 만나기 전에 최와 송의 사이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고, 내가 갔을 때에는 윤치호에게 교섭을 하여 보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윤치호에게 교섭을 하였는가?”

“그러나 그날은 일시적 담화에 지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므로 한규설과 박영효에게 교섭한 결과도 들어가지고 더 일층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자하여 송진우의 집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또 그때에 손병희 이하 천도교의 중요자가 그 명의로 조선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선언서를 작성 인쇄하여 각도에 널리 반포하고 의견서를 만들어 일본 정부, 양의원, 총독부, 강화회의에 보내고 청원서를 지어 미국대통령에게 보내기로 결정한 후 그 서류의 작성은 피고가 담당하기로 하였는가?”

“그것은 수일 후 송진우 집에서 만나 여러가지 이야기 후에 결정한 것이오”

“그리고 또 기독교편에 대한 교섭은 피고가 교섭을 담당하였는가?”

“그것도 그때에는 결정한 것이 아니라 송진우에게 모였을 때에 한 말이오”

“그러면 송의 집에서 만났을 때에 서류의 기초와 기독교편에 대한 교섭을 담당하였는가?”

“그리하였소”

“그러나 지금 최린은 기독교편에 대한 교섭을 최남선이 그때에 담당한 일은 모른다 함은 무슨 일인가?”

“그것은 사실을 최린이 잘 기억치 못한 듯합니다. 그때에 그런 결정이 없었다면 표면에는 서지 아니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무슨 까닭으로 이인환에게 교섭을 하겠소?”

“송진우에게 모였을 때에 피고도 표면으로는 이 운동에 나서지 않고 송진우도 학교의 관계가 있는고로 표면에 서기 어렵다고 두명은 일시 이 운동을 중지하자는 말을 하였는가?”

“이 말씀을 하려면 그 보다도 수일 전 처음에 최린의 집에 모이게 된 일로부터 말씀하지 아니하면 안되겠습니다”

하고, 최남선은 자기가 이번 조선독립운동을 참여하게 된 일을 일장 진술을 하였다.

“본래 최린과 사귀기는 서로 친하게 안 지가 오랫동안 근년에 이르러는 별로 빈박한 왕래가 없었지만은 최린도 조선사람이고 자기도 조선사람인 까닭에 ‘조선독립’이라는 이상을 가슴에 품고 있기는 최린이나 자기가 조금도 다름이 없던 터인데, 그때 송진우의 소개로 최린의 집에서 최린을 만나 보게 되어 조선독립운동의 일에 관하여 여러가지로 이야기도 듣고 여러가지로 이야기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야기가 최린이나 자기가 물론 조선의 독립운동에 대하여는 절대로 찬성인고로 최린은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독립운동을 개시하면 자기도 으레 표면에 나서서 일을 할 줄로 믿었던 모양이올시다. 그러나 그 뒤에 송진우에게 모여서 구체적으로 함께 의논을 하자함에 당하여는 자기의 태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본래 자기는 학자로 세상에서 학자의 태도로 조선민족을 위하여 진력하고자 함인즉 조선민족의 독립운동을 한다는 일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든지 찬성이요, 힘이 있는대로 조력할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마는, 자기가 학자로 이 사회에 진력하려는 책임을 저바리고까지 독립운동의 표면에 나설 수는 없는 줄로 생각하여 그 뜻을 분명히 최린에게 말하였으며, 또 그때 곁에 있는 송진우는 가부간 태도를 분명히 말하지 아니하므로 이다지 중요한 일에 당하여는 운동에서 서든지 그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당연하고 수서양단(首鼠兩端)으로 태도를 희미하게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였더니, 송진우도 역시 중앙학교에 대한 자기의 책임이 중대하고로 표면에 서기가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한 뒤에 최린이 자기에 대하여 그러면 운동의 표면에는 서지 아니할지라도 독립선언을 행하려면 제일 필요한 것은 선언서인데 그 선언서를 지을 적당한 사

람이 없으니 그대가 선언서를 지으라 하였으나 기위 운동의 표면에 서지 아니하는 이상에는 아무쪼록 이 운동에 대하여 관계를 깊이 맺지 아니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여 최린 자신이 선언서도 짓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 한즉, 최린의 대답이 자기는 요사이 너무 분주하여 도저히 붓을 잡을 겨를이 없다하고, 자꾸 권하기도 하며 또 조선 사람이 조선의 독립할 의사를 세계에 발표하는 선언서에 대하여는 조선 사람의 의사를 여실적(如實的)으로 발표하여 조선독립의 정당한 이유를 세상에 선언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인데, 조선 사람의 참마음 참뜻을 가장 정확하게 발표할 선언서를 짓는 것은 자기가 담당하는 것이 옳겠다는 스스로 믿는 마음도 있어서 마침내 최린이 지을 선언서를 손만 빌려서 자기가 짓기로 한 것이올시다”

“또 그 외에 의견서와 청원서도 쓰겠다고 하였는가?”

“그랬습니다”

“그것도 지금 말한 것과 같은 뜻으로?”

“그렇소”

“그러면 거기서 관계를 끊은 것은 아니고 표면에 서지만 아니하였지 이면에 서서 선언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하고 기독교편에 대하여 합동으로 독립운동을 행하도록 교섭하는 일만 담당함인가?”

“그렇소”

“그 결과로 피고는 기독교편의 동지를 모집하고, 먼저 이전부터 알던 평북 정주군 기독교 장로 이승훈이라 부르는 이인환에게 대하여 교섭하기로 작정하였는가?”

“그렇소”

“그래서 2월 7일 현상윤으로 하여금 이인환이 경영하는 오산학교의 일을 의논할 필요가 있으니 급히 경성으로 올라오라고 기별을 하게 하였는가?”

“그리하였소”

“현상윤은 최린의 집에 모였을 때에도 같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인환에게 심부름하라고 하는 정말 뜻을 알았겠지?”

“자연 알았겠지요”

“그래서 현상윤이 경성 수하정 3번지 선우전의 집에 묵고 있는 정노식에게 말을 하여 정노식이 한 집에 유숙하는 김도태로 하여금 정주의 이인환을 방문하게 하여 김도태가 2월 8일 경성을 떠나서 2월 9일 정주에 도착하여 이인환을 찾아가는 중도에 오산학교 교사 박현환을 만나서 이인환이 소간이 있어 선천에 가서 있음을 들어 알고 박현환에게 이인환을 찾아보고 급히 경성으로 올라오도록 말하여 달라고 부탁한 일을 모르는가?”

“그 일은 그 뒤에 들었소”

“그러나 정노식이 피고와 최 등이 조선독립운동을 하려고 도모하여 이인환의 합동을 요구하는 줄을 알고 김도태를 정주에 보낸 줄을 아는가?”

“그것은 모르겠소”

“또 김도태도 그 사정을 알고 2월 8일 경성발 9일 정주에 도착하여 오산학교 교사 박현환을 만나 이인환이 당시 선천에 가 있음을 듣고 이인환에게 대한 전갈을 이에게 전하여 달라고 부탁한 줄을 아는가?”

“중간의 경과를 도무지 모르겠소”

“그 결과 이인환은 2월 10일 경성에 올라오는 줄을 알았는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직접으로 이인환을 만나지 아니한 것은 무슨 일인가?”

“그는 송진우도 자세히 아는 일이요. 이인환이 먼저 송진우를 만났으므로 송진우와 이야기를 하라고 송진우에게 부탁한 일이요”

“송진우로 하여금 피고의 대신으로 이인환과 만나게 한 것인가?”

“이인환이 먼저 송진우를 찾았으므로 자기가 따로 만날 것 없이 송진우와 직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한 일에 지나지 못하오”

“송진우는 계동 김성수의 별택에서 이인환과 만나서 상의한 일을 알지 못하는가?”

“모르오”

“그때 송은 이에게 향하여 독립운동을 계획하니 기독교도 천도교가 합동을 하여야 기독교편에서도 무수한 사람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함께 운동을 하자고 하였는가?”

“자세히는 듣지 못하였으나 대개 그런 말을 하였을 듯 하오”

宋 鎮 禹

최남선의 심문을 마친 후에는 송진우의 심문에 들어가서 최린과 최남선에 대하여 처음에 묻던 말과 같이 최린의 집에서와 중앙학교 안에서 네 사람이 만나던 전말을 묻고 계동 김성수의 별택에서 이인환과 면회한 결과 이인환이 찬동하였느냐 물어서 그렇다 대답하였고, 최린의 진술을 들은즉 피고는 중앙학교의 관계가 있어 운동의 표면에는 서지 않겠다 하고 말하였다 하니 과연 사실인가? 하는 재판장의 심문에 대하여,

“물론 본래부터 독립운동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찬성이고, 그러나 나의 개인 이름을 내지는 않겠다고 생각하였소”

“그러면 독립운동에는 절대로 찬성이나 선언서나 기타 서류에 기명은 아니한다 함인가?”

“예”

그 뒤에 이인환과 교섭하던 말을 자세히 물어서 심문을 마치었다.

玄 相 允

최남선과의 관계.

다음에는 현상윤의 심문에 들어가 현상윤과 최린, 최남선, 송진우사이의 관계를 묻고 최린의 집과 중앙학교에 모였던 말을 묻고, 최남선의 부탁으로 이인환에게 기별하던 전말에 이르러,

“2월 7일경 최남선으로부터 정주군 기독교 장로파 장로 이인환에게 그가 경영하는 오산학교의 일을 청탁하고 독립운동의 일로 오라고 부탁하여 달라는 말을 들었는가?”

“독립운동에 대한 일이라고는 듣지 못하였소”

“독립운동을 위하여 교섭하는 것인 줄 알았겠지?”

“물랐소”

그 뒤 정노식에게 부탁하여 정노식과 동거인인 김도태로 하여금 이인환을 정주로 찾아가게 한 일에 대하여는 재판장의 심문대로 사실을 대답하고, 정노식과 김도태에게 대하여 이인환을 경성에 부르는 일은 실상 독립운동을 위함이라는 말을 하였느냐고 묻는 말에 대하여는 말한 일이 없다 하더라.

鄭 魯 湜 金 道 泰

다음에는 정노식과 김도태를 차례대로 불러 정노식에게는 이인환에게 김도태를 보내는 전말에 대하여 심문하였는데 정노식은,

“자기는 이인환을 부르는 목적이 독립운동을 위함인 줄 알았으나 김도태에게는 그런 말을 아니하였소”

하고, 김도태는 그러한 줄도 모르고 또 정주에서 오산학교 교사 박현환을 만나서 이인환에게 말을 하여 달라고 부탁할 때에도 독립운동에 관한 일은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문을 마치고, 다음에 다시 최린을 불러서 먼저 방청을 금지하였을 때에 심문한 일에 대하여 다시 몇 마디를 묻고 오후 한시 삼십분에 폐정하였더라.

4. 판결문을 중심으로

공판은 계속되어 7월 14일 3일째에는 남강 이승훈(南岡 李昇薰) 외 5인의 심문이 있었고, 7월 15일 4일째에는 길선주(吉善宙) 외 14인의 심문이 있었다.

5일째인 7월 16일에는 개정(開廷) 벽두 변호사 허헌(許憲)이 재판절차법상의 착오를 발견하고, '공소불수리신청(公訴不受理申請)'을 제기하여 7월 17일 6일째 되던 날 변호사와 검사 간에 법이론에 관한 격론이 있는 뒤에 공판은 중단되었다. 그리하여 8월 9일 경성지방법원 제1형사부(刑事部) 판사 다찌가와(立川三郎), 호리(堀 直喜), 다자이(太宰 明) 등에 의해 '공소불수리'의 결정이 선고되었다.

이에 불복하여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검사정(檢事正) 고오쯔(郷津 友彌)는 복심원에 공소했다.

공소불수리 여부를 둘러싸고 판사와 검사 사이에는 논전과 욕설이 오고 갔고, 얼마후에는 지방법원장 데시가와라(勅使河原建之助)와 검사정 고오쯔는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되었고, 판사 다찌가와는 좌천되었다.

이리하여 복심원의 공판은 1920년 10월 20일 경성복심원 정동분실(貞洞分室)에서 열렸다. 첫날 공판은 쓰카하라(塚原)의 심리학에 검사 미즈노(水野)의 입회, 변호사 최진, 허헌, 기오(木尾) 등의 관여로 개정되었다.

복심원에서도 '공소불수리'를 신청하였으나 재판장은 얼굴에 약간의 경련과 비웃음을 머금으면서 변호인의 주장을 묵살하고 사건에 관한 사실 심문으로 직접 들어갔다. 첫 심문은 최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고하는 9월 21일 2일째 공판에서 심문을 받았다.

고하는 한.일합병에 반대하고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운동의 계획과 최린, 최남선 등과의 관계를 대체로 지방법원 심리 때와 대동소이하게 진술했다. 그 외에 사소한 일에는 오래 되어 다 잊어버렸다고만 진술했다. 재판장은 젊은 사람이 그렇게 기억이 없느냐고 비웃었다. 고하는 기억력이 없는 것을 스스로 탄식하는 듯이, 최린과 최남선과의 말을 잘 참작해서 처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항간에서는 고하와 재판장간의 기억력 문답에 대하여, '멍텅구리 송진우'라는 별명까지 한때 나돌았었다. 고하는 공판정에서 시종일관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동지들과의 연락관계를 애써 말하려 들지 않았다.

후일 동아일보가 폐간되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고하는 늘 가까이 지낸 역사학자인 위당(爲堂 鄭寅普)과 호암(湖岩 文一平)으로부터 여러차례 고하에게 3.1운동의 진실된 내막과 고하의 역할에 관하여 물으면서 후세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기 위하여 진술해 줄 것을 간청받았으나 고하는 지금 자기가 입을 열면 그 명예에 손상을 입을 인사들이 많으니 후일 은퇴한 뒤에 밝히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하가 한창 일할 나이에 불의의 저격을 당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복심원 공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공판이 시작된지 불과 10일만인 9월 30일 판결이 선고되었다.

3.1 獨立宣言書事件에 대한 判決文

<論告>

孫秉熙

天道教主로서 日.韓 合併後 不平 不滿을 품고 各 地方 教人을 指導하되 表面으로는 宗教 信仰을 目標하고, 안으로는 排日思想을 鼓吹하여 市外 牛耳洞에 別莊 鳳凰閣을 新築하고 教人中 頭領 道師級 第1회에 21人을 修練시키고 그 다음 49人, 105人 등 總計 500人에게 性心修練을 實施하여 各 地方 全般教人에게도 21日, 49日, 105日 등 數十회에 걸쳐 祈禱를 施行하여 自身도 一般 教인과 같이 實行할 때 布德天下, 廣濟蒼生, 輔國安民 등의 目的을 達할 것을 하늘에 念願하는 한편, 精神統一, 靈肉一致, 心身雙全, 行動一致의 教訓을 指導하는 同時에 一般 教人에게 國權 回復의 思想을 恒常 腦裡에 注入시켜 時期가 오기만 하면 一令之下에 行動을 開始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世界大戰이 終熄되고 巴里에서 講和會議가 開催되며 美國大統領이 民族自決主義를 主唱함에 呼應하여 部下中 가장 信任하는 崔麟, 權東鎭, 吳世昌 등과 協議하고 獨立運動을 착착 準備하며 獨立運動費를 各 教人에게 分配하여 募集할 때 表面으로는 教堂 新築을 憑藉하고 市內 慶雲洞에 큰 建物の 新築을 着手하였으며, 一方的으로는 獨立運動에 對하여 天道教人뿐만 아니라 各 宗教 團體와 舊韓國 元老, 其他 有數한 人士를 網羅하고자 推進中 耶蘇教와 손을 잡기 爲해서 李昇薰에게는 崔南善을 中間 役割을 하게 하여 崔麟으로 하여금 서로 協議하게 하고 費用까지 支拂하였다. 또 佛敎의 韓龍雲과도 連絡을 取하여 同志로 糾合한 後 同志者로 三十三人을 構成하고 獨立 宣言書를 作成하여 秘密히 天道教의 印刷所 普成社에서 印刷하여 各處에 配布하고 三月 一日 明月館 支店에서 同志 三十三人이 會合하여 獨立宣言書의 發表式을 舉行하였다.

崔麟

天道教人으로서 同敎에서 經營하는 普成高等普通學校의 校長으로 孫秉熙, 權東鎭, 吳世昌과 같이 獨立運動을 協議하였으며 孫秉熙로부터 獨立運動에 對한 諸般事를 權東鎭, 吳世昌과 三人이 말아 가지고 基督教側과 佛敎側과 交涉하여 合同 成功한 後 崔南善에게 獨立宣言書를 起草하도록 그 趣旨와 文章에 對하여 指示하고 獨立宣言書를 印刷 頒布하는 同時에 孫秉熙와 三月 一日 行動을 같이 하였다.

權東鎭, 吳世昌

天道教의 長老로서 崔麟과 같이 孫秉熙의 指揮에 依하여 天道教人中 道師級을 勸誘하여 獨立 運動에 參加하도록 하였고, 宣言書를 印刷하여 各地에 配布하며 三月 一日의 行動에서 主된 役割을 하였다.

李寅煥(李昇薰이라는 別名을 使用한다)

基督教側의 有力한 者로서 日.韓 併合後 寺內總督 暗殺事件에도 關係하던 일이 있어 服役中 特赦로 減刑되어 出獄한 後에도 恒常 不平을 품고 있다가 世界大戰이 終了되면서 美國大統領이 十四個條를 提唱한 民族自決이란 條項이 新聞紙上에 記載되자 朝鮮獨立을 計劃하던 中 崔南善의 招請에 依하여 京城에 와서 宋鎭禹를 만난 다음 崔麟과 서로 議論하고 다시 平北으로 가서 同敎會 牧師들과 協議하고 平壤으로 와서 吉善宙 外 여러 牧師와 協議한 後 다시 京城에 와서 咸台永과 協議하는 한편 朴熙道, 李甲成 등과도 協議하였으며, 天道教側으로부터 五千圓을 받아서 運動費로 使用할 때 그 出納을 朴熙道에게 一任하고 三月 一日의 宣言書 發表에 重要한 役割을 하였으며 宣言式에 參與하였다.

韓龍雲

佛敎側의 有力한 者로서 獨立宣言書의 分布를 擔當하여 京城 市內에 約 三千枚를 配布하였으며 三月 一日 明月館에서 獨立宣言式을 할 때 우리가 無事히 獨立宣言을 發表함은 至極히 慶賀하는 바이며 또는 獨立을 爲하여 더욱 努力함을 바란다는 演說을 하고 '朝鮮獨立萬歲'를 先唱하였다.

李 鍾 一

天道敎에서 經營하는 印刷所 普成社 社長으로 獨立宣言書 二萬一千枚를 吳世昌 指揮에 依하여 하룻밤에 印刷하고, 또 그 分布를 擔當하여 朝鮮 各道에 分配하였으며, 三月 一日 獨立宣言式에 參與하였다.

李 甲 成

李寅煥과 咸台永과 密議하고 慶尙南北道와 全羅北道에 同志를 募集하러 갔었고, 宣言書를 總督府에 提出할 것을 擔當하였으며 學生들과 連絡을 하여 前記 各地에 宣言書를 配布하고 宣言式에 參與하였다.

吳 華 英, 金 昌 俊

獨立宣言書를 京城 市內와 開城 方面에 配布하였고 獨立運動 準備를 李寅煥, 咸台永, 李甲成, 朴熙道 等과 協議하였으며 宣言式에 參與하였다.

朴 熙 道

中央青年會 幹事로서 基督教側의 運動者 幹部로 金錢出納을 擔當하였고, 學生들과 青年들에 對하여 獨立運動에 對한 協調를 要求하였으며 宣言式에 參與하였다.

林禮煥, 羅仁協, 洪基兆, 金完圭, 羅龍煥, 李鍾勳, 洪秉箕, 朴準承, 權秉惠

天道敎 長老.道師로서 權東鎭, 吳世昌의 勸誘에 依하여 孫秉熙의 承諾을 얻고 獨立運動에 參加하였으며 宣言式에 參與하였다.

白 相 奎 (一名 白龍城)

佛敎人으로서 韓龍雲의 勸誘에 依하여 獨立運動에 參加하여 宣言式에 參與하였다.

鄭 春 洙

基督教 牧師로서 獨立宣言書에 署名 捺印하고 元山에서 獨立運動을 指揮하여 三月 一日 많은 群衆을 모아 놓고 宣言式을 舉行하게 하였다. 時間 關係로 京城 明月館의 宣言式에는 參與하지 못하고 追後 警務總監府에 自首하였다.

劉 如 大

基督教 牧師로서 李昇薰의 勸誘에 따라 獨立宣言書에 署名 捺印한 後 三月 一日 京城 明月館에서 舉行한 宣言式에 參與하지 않고 義州에서 獨立運動을 指揮하여 三月 一日 萬歲를 부르고 獨立을 宣言하였다. 義州 憲兵隊에 逮捕되어 義州地方法院 檢事局에 一件 書類와 같이 送致되어 檢事の 取調를 받고 京城地方法院 豫審에 回附되었다.

梁 漢 默

豫審中 死亡되어 控訴免除가 되었다.

吉 善 宙

基督教 牧師로서 獨立請願書を 總督府에 보내는 것을 贊成하고 安世桓에게 印章을 준 後 自身은 黃海道에 간 사이 獨立宣言을 하였으나 自身은 宣言에는 贊成하지 않았다.

金 秉 祚

獨立宣言書에 署名 捺印한 後 海外로 亡命하여 逮捕치 못하였으므로 起訴를 中止한다.

咸 台 永

基督教의 가장 有力한 者로서 李寅煥과 같이 獨立運動에 對한 準備와 基督教側의 모든 關係를 擔當하고 各 牧師들과 數十回에 걸쳐 協議하여 天道教와 合同할 것을 推進하였으며, 玄楯을 上海로 보내서 巴里 講和會議에 朝鮮獨立宣言書와 其他 美國大統領과 列國 代表에게 書類를 發送하게 하였고, 또 安世桓을 日本에 보내는 同時 獨立宣言書를 各 地方에 配布하는 것을 擔當하고 三月一日 以後 收監된 사람의 家族을 援助하는 한편 運動을 繼續할 目的으로 獨立宣言書에는 署名하지 않았으나 獨立運動에 重要한 役割을 하였다.

康 基 德, 金 元 璧

京城學生團의 主謀者로 獨立運動에 參加하여 그 學生을 動員하여 宣言書를 配布하였으며 三月一日 파고다 公園에서 群衆이 모인 가운데 率先하여 明月館支店으로 가서 三十三人에게 公園으로 와서 發表하라고 要求하였고 또한 三月五日 南大門 앞에서 人力車를 타고 太極旗를 들고 群衆을 指揮하며 萬歲를 부른 事實이 있다.

李 景 燮

天道教人으로서 李鍾一의 付託으로 獨立宣言書를 가지고 黃海道 遂安에 가서 沙里院, 谷山 等に 配布하고 獨立萬歲 부를 것을 指揮하였다.

崔 南 善

文化人으로서 基督教側 李寅煥을 京城으로 오라는 通知를 金道泰에게 시켰고, 基督教과 天道教를 合同케 하였으며 獨立宣言書를 起草하였다.

朴 寅 浩

天道教 大道主로서 孫秉熙의 命令에 依하여 盧憲容에게 命令하여 五千圓을 基督教側에 支拂하였다.

盧 憲 容

天道教 金融觀長으로서 朴寅浩의 命令으로 五千圓을 基督教側에 獨立運動費로 支拂하였다.

宋 鎮 禹

中央學校 校長으로서 獨立運動에 關해서 崔南善, 崔麟 等과 協議하였고, 同校 教師 玄相允과도 協議하고 鄭魯湜과 協議한 後 金道泰를 宣川에 보내어 李寅煥을 京城으로 오게 하였다.

林 圭, 安 世 桓

崔麟과 咸台永에게서 付託을 받고 日本 東京에 가서 請願書를 政府에 提出하였다.

金智煥

玄楯에게 보낼 書類를 가지고 咸台永 命令에 依하여 安東縣까지 갔었다.

金世煥

水原 三一女學校 教師로서 朴熙道の 付託으로 忠南, 水原, 利川 等地에서 同志 募集을 하였다.

<判決宣告>

大正 十年 九月 三十日 午前 十時부터 京城覆審法院 貞洞 分室에서 塚原 裁判長의 主審으로 開廷하고 判決을 宣告하였다.

被告 孫秉熙, 崔麟, 權東鎭, 吳世昌, 李鍾一, 李寅煥, 崔南善, 咸台永, 金弘奎 以下 各 被告는 犯罪後 法令에 依하여 刑을 變更한다. 刑法 第八條.第六條에서 新舊 二 法을 比較하여 그 輕한 것을 適用한다.

被告 林禮煥, 羅仁協, 洪基兆, 金完圭, 羅龍煥, 李鍾勳, 洪秉箕, 朴準承, 權秉惠, 李景燮, 韓秉益, 李寅煥, 梁甸伯, 李明龍, 朴熙道, 崔聖模, 申洪植, 李弼柱, 朴東完, 申錫九, 劉如大, 白相奎, 康基德, 金元璧은 新法에 依하면 大正 八年 制令 第七號 第一條 第一項에 該當하고, 舊法에 依하면 朝鮮 刑事令 第四十二條로서 保安法 第七條에 該當하고,

被告 孫秉熙, 崔麟, 權東鎭, 吳世昌, 李鍾一, 李甲成, 金昌俊, 吳華英, 韓龍雲은 朝鮮刑事令 第四十二條와 出版法 第十一條에 該當하고,

被告 鄭春洙는 刑事令 第一條에 該當하고,

被告 咸台永은 舊法 第一條 第一項에 該當하고,

被告中 李昇薰은 刑法 第六十二條에 該當하여 아래와 같이 宣告한다.

被告 孫秉熙, 崔麟, 權東鎭, 吳世昌, 李鍾一, 李寅煥, 韓龍雲은 各 懲役 三年에 處함.

被告 李甲成, 金昌俊, 吳華永은 各 懲役 二年 六個月에 處함.

被告 林禮煥, 羅仁協, 洪基兆, 金完奎, 羅龍煥, 李鍾勳, 洪秉箕, 朴準承, 權秉惠, 梁甸伯, 李明龍, 朴熙道, 崔聖模, 申洪植, 李弼柱, 朴東完, 申錫九, 劉如大는 各 懲役 二年에 處함.

被告 鄭春洙, 白相奎는 各 懲役 一年 六個月에 處함.

被告 吉善宙는 無罪를 言渡함.

被告 梁漢默은 控訴回附中 死亡하였으므로 控訴權을 喪失하고,

被告 金秉祚는 逮捕하지 못하였으므로 起訴 中止를 宣言함.

被告 咸台永은 懲役 三年에 處함.

被告 崔南善은 懲役 二年 六個月에 處함.

被告 康基德, 金元璧은 各 懲役 二年에 處함.

被告 李景燮은 懲役 一年 六個月에 處함.

前記 被告들에 對하여 各各 未決拘留 三百 六十日을 本刑에 通算하고 被告 朴寅浩, 盧憲容, 宋鎭禹, 玄相允, 鄭魯混, 金道泰, 林圭, 安世桓, 金智煥, 金世煥은 各各 無罪를 宣告하고 押收된 物品中에서 令 第二八二號의 三인 宣言書 七枚는 이것을 押收하고, 그 나머지는 各各 所有者에게 返還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1운동의 민족대표 47인(처음엔 48인이었으나 김병조(金秉祚)가 해외로 망명했기 때문에 47인)이 체포된 이래, 문초(問招), 고문(拷問) 예심(豫審)을 거쳐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그리고 지법(地法)에서 고법(高法), 다시 지법, 지법에서 복심원의 一年반 동안의 심리 끝

에 형이 확정되었다.

고하를 비롯하여 기당, 김도태, 정노식 등 배후에서 독립운동을 모의하고 획책한 사람들이 무죄 선고를 받게된 것은 '보안법' 및 '출판법'상 모의나 획책에 가담한 자는 직접 처벌하는 조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보안법' 및 '출판법'은 표면에 나타난 행위자만을 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고하 등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도 병으로 인하여 3월 1일 선포식에 참가하지 못한 길선주가 무죄선고를 받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만일에 '내란죄'로 다스렸다면 모의나 획책에 참여한 자들도 결국엔 극형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이리하여 고하는 1920년 10월 1일 1년반의 미결감 생활을 끝내고, 서대문 감옥에서 출감했던 것이다.

이상 조서, 옥중생활, 신문기사들을 통해 볼 때 3.1운동은 그 모의에서 중심인물이 고하.기당.최린.최남선.함태영의 5인으로 볼 수 있다. 초기에는 각 단체를 초월해서 고하.기당.인촌 등의 모의로 시작한 것이 전체 운동으로 발전되게 한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고하는 외부에 노출되는 대표가 아니라 항상 적절한 구상을 하고 동지들의 일을 도와 밀어주며 그리고 끝까지 자기 희생으로 동지들을 감싸주는 일관된 태도를 가졌음을 볼 수 있다.

제4장 동아일보를 짊어지고(上)

1. 옥중에서 들은 동아일보 창간

앞의 기록에서 본 바와 같이 3.1운동 주모자 48인중 손병희 등 8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최남선 등 4인에게는 2년 6개월, 임예환 등 19인에게는 2년, 정춘수 등 3인에게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고하, 기당 등 20인에게는 증거불충분이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그러나 구속으로부터 확정판결이 있기까지의 1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것이다.

아무튼 비교적 경형(輕刑)으로 다스린 것은 일제가 법정신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비등하는 국제 여론과 조선민족에 대한 관대성을 보임으로써 이를 회유하려는 고등정책에 연유한 것이었다.

3.1 독립선언 만세시위는 국내에서만 강행된 것이 아니었다. 만주의 서북간도(西北間島), 노령 등지에서도 현지 관헌의 제지를 무릅쓰고 여러 곳에서 강행되었으며, 멀리 미주의 교포들도 필라델피아에 있는 독립기념관 앞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다.

이와같은 국내외의 치열한 투쟁을 바탕으로 임시정부 조직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3월 21일에는 노령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손병희를 대통령, 박영효를 부통령,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노령정부(露領政府)가 선포되고, 4월 10일에는 상해에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상해정부(上海政府)가 선포되었으며 또한 4월 23일에는 국내 13도 대표 24인이 서울에서 비밀집회를 갖고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執政官總裁), 이동휘(李東輝)를 국무총리로 하는 한성정부(漢城政府)가 선포되기도 했다.

또 한편 서북간도(西 北間島)와 노령에 산재해 있던 우리 의병들도 다시 활기를 띠고 강력한 집단을 형성했다. 압록강 대안의 서간도에는 이상룡(李相龍), 이청천(李青天) 등이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를, 또 조맹선(趙孟善), 박장호(朴長浩) 등이 광복군사령부를 조직했고, 두만강 대안의 북간도(北間島)에는 최진동(崔振東), 홍범도(洪範圖) 등이 국민회군(國民會軍)을, 서일(徐一), 김좌진(金佐鎭) 등이 북로군정서(北路軍政書)를 조직했으며 노령에는 이범윤(李範允), 문창범(文昌範), 이동휘(李東輝) 등이 무장단체를 조직하여 혹은 현지에 파견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고 혹은 국경을 넘어와 일본관서를 습격하는 등 많은 활동을 전개했다.

고하와 인촌.기당 등이 중앙학교의 조그마한 숙직실에서 획책한 독립운동의 계획은 이와같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 있어서의 일제의 반응은 8월 12일부로 조선총독 하세가와(長谷川好道)가 해임되고 해군대장 사이토오(齊藤實)가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8월 19일에는 관제(官制)개정을 공포하면서 일본천황은 칙어를 통하여 '其(朝鮮)人民을 愛撫하기 一視同仁...' 운운했고, 수상 하라(原敬)는 담화형식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은 다같이 그들 신민으로서 정사상(政事上)에서 차등이 없을 뿐 아니라...' 운운하면서 무단정치(武斷政治)로부터 이른바 문화정치로의 전환을 국내외에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신임총독 사이토오가 언론.집회.결사.출판의 통제를 어느정도 완화할 것을 제의한 가운데에는 민간신문의 발행을 허용할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일합방 후 기존 민간신문들은 모두 도태되고 총독부 기관지인 국문판 <매일신보(每日申報)>, 일문판(日文版) <경성일보(京城日報)>와 영문판(英文版) <서울.프레스>가 있을 뿐이었으므로 이때야말로 민간신문 발간의 기회였다.

고하와 인촌은 일찍이 동경유학시절부터 언론기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왔다. 산업.금융 등의 경제기관도 필요하지마는 신문을 통하여 선진국의 근대적인 민주국가 사상을 전하여 일반 국민을 일깨우고 국민과 지도자의 사이를 엮어놓아 민족의 단결을 꾀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총독부가 조선인계(朝鮮人系) 민간지의 허가방침을 공식으로 밝힌 것은 사이토오 부임 직후인 그해 9월 초였지마는 민간지가 허가될 것이라는 풍문은 그전부터 들려왔다. 일본 유학생들이 여

름방학에 귀국하여 확실성있는 정보를 전해준 것이다. 이와같은 추세에 따라 인촌을 중심으로 민족주의계 신문을 발행할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7월경부터였다.

이무렵 민간계 신문을 발간하고자 하는 몇개의 모임이 있었다. 그중에는 하몽 이상협(何夢 李相協)과 추송 장덕준(秋松 張德俊) 등이 신문사를 설립할 자금을 얻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 그 중의 하나이다. 이상협은 서울 출신으로 보성학교를 나와 신문계에서 활동했으며 편집.인쇄.광고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를 널리 아는 신문인(新聞人)이었고, 장덕준은 재령(載寧)출신으로 설산 장덕수(雪山 張德秀)의 친형이며 명신학교(明新學校)를 나와 일문지(日文紙) 평양일일신문의 조선어란 주간을 지낸 신문인이었다.

이상협과 장덕준은 민족사업을 하는 인촌을 움직여 보고자 당시 중앙학교 교장직에 있던 각천 최두선(覺泉 崔斗善)을 만나 이 뜻을 전하도록 했다. 최두선의 전언과 석농 유근(石儂 柳瑾)의 권유를 받은 인촌은 신문 발간의 마음을 굳혔다. 석농 유근은 언론계의 원로이며 인촌이 중앙학교를 인수했을 때 교장으로 추대한 바도 있었다.

이리하여 인촌을 중심으로 한 신문발행 계획은 급속도로 진행되어 마침내 이해(1919) 10월 9일자로 조선총독부 경무국에 신문발행 허가신청을 제출했다. 제호는 '동아일보(東亞日報)'라고 했다. 유근의 발안으로 된 이 제호는 조선민족의 독립과 발전은 동아 전국(全局)을 무대로 삼아야 하며 일본의 속방아닌 동아의 일원으로 부각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문발행 허가신청을 낸 뒤 3개월만인 1920년 1월 6일자로 총독부는 <동아일보>의 발행을 허가했다. 이때 총독부에 제출된 민간의 신문발행 허가신청은 십여건에 달했으나 그 중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사신문 등 셋만이 같은 날자로 허가된 것이다. 당초의 성격은 <동아일보>는 민족계로 단정(齋藤實 文書 20, 高等警察年表) 되었고, <조선일보>는 비정치적인 실업신문을 지향하기로 되어 있으며, <시사신문(時事新聞)>은 친일신문으로 출발했다.

발행허가가 나온지 8일째 되는 1920년 1월 14일 주식회사 동아일보사(株式會社 東亞日報社) 발기인 총회가 열렸다. 이때의 발기인은 모두 78인으로 전국 13도에서 고루 망라되었다.

- <경기> 박영효(朴泳孝) 장두현(張斗鉉) 이응선(李應善) 장춘재(張春梓)
임면순(任冕淳) 박용희(朴容喜) 김우영(金雨英) 이강현(李康賢)
이경세(李慶世) 이상협(李相協) 김병태(金炳台) 현준호(玄俊鎬)
김성수(金性洙) 고윤묵(高允默) 나홍석(羅弘錫) 이정렬(李定烈)
- <충북> 유세면(劉世冕)
- <충남> 이상덕(李象德) 김영복(金永福) 정재원(鄭在源) 성원경(成元慶)
- <전북> 김기중(金祺中) 정해로(鄭海魯) 박창진(朴昌鎭) 이철환(李鐵煥)
홍종철(洪鍾轍) 은성우(殷成雨) 김기동(金箕東) 강방현(康邦鉉)
변광호(邊光鎬) 정봉수(鄭鳳洙) 박정식(朴正植)
- <전남> 박하일(朴夏駟) 김형옥(金衡玉) 고하주(高廈柱) 고광일(高光駟)
박이규(朴珥圭) 김영수(金榮洙) 이재혁(李載赫) 서맹수(徐孟洙)
- <경북> 정충원(鄭忠源) 김승묵(金昇默) 최 준(崔 浚) 손수문(孫秀文)
- <경남> 문상우(文尙宇) 안희제(安熙濟) 김시구(金時龜) 윤상은(尹相殷)
윤병호(尹炳浩) 윤현태(尹顯泰) 지영진(池榮璉) 김병규(金秉圭)
허 걸(許 杰) 김홍조(金弘祚) 이종순(李鍾淳) 이종화(李鍾和)
손영돈(孫泳墩) 문영빈(文永斌) 김종원(金宗元) 이병목(李炳穆)
최연무(崔演武)
- <강원> 이봉하(李鳳夏)
- <황해> 김영택(金泳澤) 이승준(李承駿) 이 운(李 雲) 장덕준(張德俊)

장덕수(張德秀) 이태건(李台健) 이충건(李忠健)

<평남> 이효건(李孝健)

<평북> 오희원(吳熙源) 최준성(崔浚晟) 이규증(李規曾) 장희봉(張熙鳳)

<함남> 김순선(金舜善) 김효택(金孝澤)

<함북> 이종호(李鍾浩)

이 발기인총회는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자본금 총액을 100만원으로 하고 4회로 분할 납입하며, 사옥(社屋)은 100평 대지에 건평 130평의 3층 벽돌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으나 우선은 화동(花洞) 138번지의 중앙학교 구교사를 쓰기로 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진용으로 부서를 결정했다.

<사장> 박영효

<편집감독> 양기탁(梁起鐸) 유 근(柳 瑾)

<주간> 장덕수

<논설반기자> 이상협 장덕준 진학문(秦學文) 김명식(金明植) 박일병(朴一秉)

<편집국장> 이상협 - 사회부장.정리부장 겸임

정경부장.학예부장 진학문, 통신부장.조사부장 장덕준

<영업국장> 이 운(李 雲) - 경리부장 겸임

서무부장 임면순(任冕淳), 광고부장 남상일(南相一)

판매부장 유태로(劉泰魯)

진용이 결정되자 간부들은 사시(社是)로 다음과 같은 3대 주지(主旨)를 결정하였다.

1. 조선민중(朝鮮民衆)의 표현기관(表現機關)으로 자임(自任)하노라.
2.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지지(支持)하노라.
3. 문화주의(文化主義)를 제창(提唱)하노라.

1920년 1월 6일 발행허가를 받았고, 2월 6일 주식회사 설립허가를 받은 동아일보는 3월 1일자로 창간호를 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발기인의 자금납입 실적이 예상외로 저조했고, 또 일본에 발주한 윤전기도 창간일을 대지 못하여 부득이 당초의 예정일로부터 한달이 늦은 1920년 4월 1일(전일 석간) 비로소 고고의 소리를 내며 창간호가 나왔다. 이때 고하는 3.1 운동관계로 아직껏 옥중에서 고생하고 있었다.

사시(社是)를 골격(骨格)으로 한 창간사의 집필은 주필인 설산 장덕수(雪山 張德秀)가 맡았다. 초안된 창간사 <주지(主旨)를 선명(宣明)하노라>는 약간의 어귀수정과 문장 퇴고로 완성을 본 것이다.

1920년 4월 1일자 <동아일보>의 창간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일합병이 있는지 10년, 그동안 일대 악몽에 사로잡힌 바 된 우리는 사상도 희망도 억제 당하고 문명의 유지 발전도, 민족의 의사표시도 억압만 당해 왔다. 우리는 이와같은 피압박 민족의 여망을 덜어주고자 동아일보를 펴내는 것이며 그 열망에 부응하고자 다음과 같은 3대 주지(主旨)로서 출발하려는 것이다.

1. 조선민중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하노라.
2. 민주주의를 지지하노라.
3. 문화주의를 제창하노라.

윤전기의 연착으로 조판.지형(紙型)까지의 공정은 사내의 시설로 하고, 인쇄는 사외(社外)의 대동인쇄주식회사(大同印刷株式會社).신문관(新文館).박문관(博文館) 등에서 얼마동안 제작했다. 윤전

기가 들어온 것은 그해 7월 하순이었다.

이때의 <동아일보>는 타블로이드 배대판(倍大版) 4면(창간호는 8면)이었고 구독료는 월 60전이 었다.

그러나 경험없는 신문사업 경영에는 열성에 정비례하여 난관도 많았다. 인촌 한 사람만을 의지 하고 시작한 동아일보사 초기의 운영은 날마다 꾸어대는 빚 독촉을 비롯하여 분주한 나날의 계속 이었다.

문화사업인 동시에 민족 독립운동의 사업으로서의 신문의 길은 험하기만 했다.

2. 동아일보 사장취임

1년반의 옥고를 겪고 고하가 감옥에서 나올 무렵까지 동아일보는 주식회사의 설립은 보지 못하고 있었으나, 신문 발행은 규모는 적을망정 힘차게 계속되고 있었다.

고하가 출옥하자 인촌, 설산, 하몽 등 동아일보 간부진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인촌 댁에서 고하를 환영하는 만찬이 열렸을 때 설산은

“형님(고하)께서 출감하셨는데 신문사 인쇄기가 돌아가지 못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고하의 출옥 1주일 전 <제사문제를 재론하노라>하는 사설로 인하여 신문이 정간중임을 가리키 며 설산이 미안해 하자 고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히려 당신들을 위로해야 되겠군. 그렇지만 ‘동아’의 숨이 아주 끊어진 것은 아니잖아. 더욱이 여기 인촌이 있으니 여러분은 붓끝에 녹이나 안슬도록 해요”

고하는 1920년 10월 1일 출옥하자, 서울에 머무르지 않고, 곧장 고향으로 떠났다. 출옥 직후 선 배나 동지들은 구미(歐美) 시찰, 혹은 장기 정양(靜養) 등 여러가지 권유를 하기도 했고 곧바로 신문을 같이 하자는 간곡한 권유도 있었으나, 고하로서는 건강도 건강이려니와 앞으로 할 일에 대 한 정확한 방향을 잡아야 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했다.

또한 무슨 일보다도 먼저 치루어야 할 인사가 있었다. 그것은 옥중에 있을 때인 전해 9월에 돌아간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도리였다. 고하가 3.1운동의 민족대표의 한 사람으로 체포되었다는 기별을 듣고도 어머니만은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장한 내 아들...”

하고, 어머니는 아들 고하의 신변만을 걱정할 따름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당하는 무서운 고문과 옥중 고생을 생각하고 상심끝에 병이 되어, 그해 9월초 마을에 큰 물이 들던 무렵 세상을 떠났다.

“저기 우리 옥윤이가 온다...”

하고, 어머니는 막내아들 고하를 찾으려 운명했다.

그로 인해 고하는 불효의 한(恨)을 마음 깊이 지니게 되었고, 그 후 고하는 친구와 더불어 취할 때면 으레 어머니에의 불효를 자탄했다.

어머니의 별세는 고하 한 몸의 한일 뿐, 그의 앞에는 당장 가로놓인 여러 겹의 번뇌가 기다리 고 있었다. 그 중에도 조국의 운명이 가장 큰 문제였다.

국제적인 어떤 계기를 얻기 전에는 독립은 어렵게 되었다. 세계 정세가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 에서 손을 떼게 만들기 전에는 그들은 이 나라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 틀림이 없었다. 그러므로 한 민족의 독립 운동은 세계의 여론을 움직이고, 국민 자체의 정신을 계몽하는 데 그칠 뿐, 바로 독립을 가져오지 못함이 분명했다.

그러한 역사적 계기는 언제쯤일까. 지금은 아무도 예기치 못한다. 또 점치고 앉았을 필요도 없 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오고야 만다. 당장 눈앞에 다가와 있지 아니하다 뿐이지 언젠가는 불을

보는 것과 같이 뚜렷이 나타나 보일 것이다. 고하는 무신론자이였으나 역사의 신(神)을 믿었다.

국가 민족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세계일 바에는 일찍이 일본과 세력을 겨루던 국가 --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일본의 단독 독세를 끝내 버려두지 않을 것은 물론, 세계의 중추력이 일본의 등만을 믿고 있을 리도 만무했다. 한편 일본은 불완전한 전통과 미비한 일기가성(一氣呵成)의 초조 때문에 홀로 줄달음질을 쳐가다가 실력의 한계를 넘어서 세계적 제재를 받기에 알맞은 국민이다.

요컨대 청일(淸日).노일(露日)의 두 전쟁을 대담하게 꾸며온 것을 보아도, 또한 한국을 삼킨 기세를 보아도 일본은 오래지 않아 중국에 손을 뻗치는 무모한 짓을 하기가 쉬운 민족이다. 그것은 일본의 오래 전부터의 야망이기도 했다. 그렇게만 된다면 늙은 중국은 어쨌든 간에 세계의 큰 국가군들은 자기들의 몸을 다칠 염려 때문으로도 일본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 같았다.

시간적 문제이지 일본이 다시 세계의 간섭 속에 허덕일 날이 올 것이 틀림없었다.

밤이 가면 새벽이 올 때를 기다리듯이 마음 편하게 기다려도 좋았다.

그것은 일본의 민족성과 정치성, 또한 급속도로 전개되어 가는 동양의 세계 무대화 추세로 보아도 일목요연(一目瞭然)한 일이었다. 과히 멀지 않은 장래에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고하는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여러날을 궁리했다.

직접 구미(歐美)의 천지를 무대로 활동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구미 각국의 정치가들을 두루 찾아 한국의 사정을 설명하고, 모든 국제 회합을 통해서 동양과 세계 평화를 위해 일본의 제압을 주장해서 동의를 얻고 싶었고, 또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도 같았다.

“세계는 분명히 일본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경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한민족의 나아갈 길은 다만 민중을 계몽하고 인도하면서, 항일(抗日)의 한 길을 걸어가는 그것뿐이다”

고하는 또한 국내 운동도 역시 해외와의 긴밀한 연관을 통해서만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세계 순방의 길을 떠날까. 국내에 머물러 있을까. 뒤의 것을 택한다면 그전과 같이 자기를 믿고 밀고 나가기만 하면 그만이고, 앞의 것을 택한다면 그렇게 용이한 일 같지는 않았다. 고하는 두 개의 길을 앞에 놓고 구체적 결론을 얻지 못한 채 한 해 겨울을 고향에서 보냈다.

한편 고하는 한 겨울을 고향에서 보내면서도 그가 민족에 봉사한다는 신념만은 잃지 않았다. 그리하여 담양 고을 사람들과 더불어 학교 설립기금을 모으는 운동의 앞장에 나섰다. 기금 모집의 앞장에 나서서는 은연중 국권회복의 실력을 갖추려면 먼저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실이 담양경찰서에 항일운동으로 탐지되어 고하와 고광준(高光駿)은 1920년 겨울부터 1921년 초까지 유치장 신세를 졌다.

고하는 유치장 속에서 비로소 구국운동과 구국항쟁, 그리고 장래의 방향에 대한 결론을 얻었다. 그것은 국내의 구국운동을 지도하고 또 밀고 나감에 있어, 언제나 국제무대와의 긴밀한 연계관계를 잃지 말 것과 해외에 있는 망명 정객 동지 선배들과의 끊임없는 연락을 가지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고하는 유치장에서 풀려나온 얼마 후, 인촌이 보낸 인촌 재혼(再婚) 청첩장을 받았다. 1921년 1월 하순 경의 일이다. 1919년 가을 상배(喪配)를 하고 외롭게 지내오던 인촌이 새 규수를 맞아 재혼하게 된 것이다. 고하는 지체없이 서울로 향했다.

고하가 상경한 뒤로 도맡은 일은 주로 동아일보사를 법인체로 만드는 일이었다. 창간된지 1년도 못되는 동안 동아일보가 걸어온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이었다.

1920년 4월 10일 창간호를 낸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선부로(朝鮮父老)에게 고(告)함>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한국의 가정권(家政權)의 난용(亂用)을 비난한 후 부로(父老)된 의무를 행할 것과 자녀로 하여금 '수성혼인(獸性婚姻)'을 강제하지 말라고 주창했다. 그것은 종래의 유교사상에 젖은

계층을 비난 공격한 것이었다. 그 뒤를 이어 권덕규(權惠奎)가 집필한 <가명인(假明人) 두상(頭上)에 일봉(一棒)>이라는 논설은 변전(變轉)하는 시세(時勢)에 뒤진 국내의 부유(腐儒)들을 통렬히 공격한 것이었다. 이러한 논설들은 곧 전국 유림(儒林)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고 마침내는 영남, 호남 지방에서는 동아일보 불매동맹운동까지 일어났다. 이로 인하여 사장 박영효(朴泳孝)는 그해 7월 1일 그 자리를 물러났다.

박영효의 뒤를 이어 제2대 사장으로 인촌이 취임한지 얼마 안되는 그해 9월에는 24.25일 이틀에 걸친 사설 <제사문제(祭祀問題)를 재론(再論)하노라>에서, 일본이 가장 존엄하게 섬기는 소위 삼종(三種)의 신기(神器)에 대하여 일격을 가하였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는 이미 총독부 경무국 당국으로부터 십여차례 발매금지를 당하였으며, 8월 중순에는 총독부 당국이 발행인 이상협(李相協)을 불러다가 “금후 발매금지를 당할만한 기사가 실렸을 때에는 발행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는데, 때마침 일본황실(日本皇室)과 신기를 비판 공격한 것이었다. 강권이 발동되어 1920년 9월 25일 <동아일보>는 제1차 무기발행정지의 행정처분을 당했다.

발행정지처분을 받은지 108일만인 1921년 1월 10일 정간처분만은 해제되었으나, 자금의 궁핍으로 속간을 할 수 없었다. 3개월반의 정간중에는 사원들의 봉급도 지급되지 못했다.

이때 구왕조말의 중신이었던 민영달(閔泳達)이 속간의 응급경비로 5천원을 내놓았다. 민영달은 을미사변(乙未事變 - 閔妃弒害事件) 이후 관계를 떠나 합방 때에도 일본이 남작(男爵)의 작위를 주려 했으나 이를 거절한 인물이다(이 자금은 후에 동아일보사가 주식회사로 될 때 그 액수를 그의 사위인 홍증식(洪瓊植)의 출자분으로 하고 그를 영업국장 자리에 앉혔다).

이렇게 해서 속간된 신문이 나온 것은 정간이 해제된지 40일만인 2월 21일이었으니 근 5개월 동안이나 신문을 내지 못한 것이다. 천신만고 해서 속간은 보았으나 재정난은 여전 풀리지 않았다. 이와같은 난관의 기본적인 타개책으로는 주식회사 설립을 조속히 실현하는 길 밖에 없었다.

고하가 동아일보사의 주식회사 설립을 위하여 참여한 동안에는 때때로 중앙학교에 들러 강의도 하고, 혹은 신문.잡지에 기고하여 민심계발(民心啓發).사상고취(思想鼓吹)에도 힘썼다. 이때의 신분은 중앙학교 강사였다. 1921년 3월호 <청년(靑年)>(1921.3.12일 창간) 창간호에 기고한 남녀교제에 대한 명사의 의견에서 당시 고하의 진보된 남녀윤리관(男女倫理觀)을 엿볼 수 있다.

男女交際에 對한 名士의 意見

中央學校 講師 宋 鎮 禹

男子나 女子나 同一한 사람이라, 사람과 사람의 交際하는 것이 正當한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 社會에는 習慣의 制裁가 嚴切하였으므로 그 錯誤된 思想을 들어 確論하려 한다.

(1) 兩性の 調和=男女交際를 反對하는 理由는 흔히 風紀의 紊亂이니 異性の 相求함은 生理上 原則이라 握手 交話하는 것이 戀慕의 情과 亂倫의 變을 引致하겠다 함이다. 그러나 이는 心中有 妓者流의 近視皮觀이다. 紳士 淑女의 交際는 淫婦蕩子の 遊戲가 아니라 知識을 相資하며 善惡을 相戒하여 理性으로 交하고 信念으로 接하나니 도리어 男의 強과 女의 柔가 서로 感化를 及하며 和氣를 發하여 圓滿한 社會가 現出될 것이며

(2) 文化의 速進=個性의 發展은 人類의 重大한 問題다. 女子를 料理具나 裁縫針이나 媒母車로만 看做하던 陋習은 論할 바 無하거니와 至今까지 男子만 專橫하던 社會運動을 그 範圍를 擴大하여 共同協力하면 文化의 發展이 倍나 速할 것이니 萬一 共同協力이 必要하다 하면 그 前提로 男女交際를 肯定할 것이다.

要컨대 男女交際를 反對하는 論據는 倫理上 原則이 아니요, 性慾的 關係이다. 人類의 原始狀態를 追想하면 無知蒙昧한 男女가 交雜 共處하였으므로 淫奔이 流行하고 嫉妬가 爭起하여 風紀가

亂하고 寧日이 小한지라 哲人 聖者가 이에 鑑하여 男女七歲어든 不同席이라 하는 嚴法을 制定하게 된 것도 그 時代 그 社會에는 適應한 方法이었다. 그러나 道德의 發展이 進步하고 文化의 範圍가 擴大된 現代에 處하여는 成人이 復起하여서도 男女交際를 正論이라 할 것이다.

고하는 혹은 단신으로, 혹은 사장 인촌과 전국 각지의 유지들을 찾아가서 신문사에 출자를 권유하고 주식회사 설립에 참여해 줄 것을 교섭했다. 또 공칭자본금으로 처음 작성했던 100만원을 정관을 고쳐서 70만원으로 줄이고, 제1회 납입금도 17만5천원으로 줄였으나 실제로 들어온 돈은 15만원이어서 부족액중 1만5천원은 신구범(愼九範)이, 1만원은 양원모(梁源模)가 새로 출자하여 주식회사 동아일보가 성립되었다.

주식회사 발기인은 55인이었고, 1년 9개월전인 1920년 1월 당시에 비하여는 상당한 변동이 있었다. 당초의 발기인 78인중 계속해서 발기인이 된 이가 겨우 33인, 이번에 새로된 이가 22인으로 도합 55인이었다. 발기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경기> 박영효(朴泳孝) 장두현(張斗鉉) 박용희(朴容禧) 장학규(張學圭)
송진우(宋鎭禹) 장현중(張鉉重) 이상협(李相協) 김병태(金丙台)
장덕수(張德秀) 신구범(愼九範) 홍증식(洪增植) 김성수(金性洙)
고윤묵(高允默)
- <충남> 성원경(成元慶)
- <전북> 신석우(申錫雨) 조중환(趙重煥) 문종구(文鍾龜) 이동석(李東錫)
강방현(康邦鉉) 김기중(金祺中) 정해로(鄭海魯) 강대식(姜大湜)
신용식(愼慵植) 은성우(殷成雨) 김기동(金箕東) 장현식(張鉉軾)
정은중(鄭殷鍾) 박정식(朴正植) 박희식(朴禧植)
- <전남> 현준호(玄俊鎬) 박하창(朴廈昌) 고하주(高廈柱) 양원모(梁源模)
박현경(朴賢景) 오완기(吳完基) 정수태(丁秀泰) 김종필(金鍾弼)
박정환(朴正煥)
- <경북> 최 준(崔 浚)
- <경남> 윤상은(尹相殷) 윤현태(尹顯泰) 지영진(池榮璉) 허 곽(許 杰)
김홍조(金弘祚) 이종화(李鍾和) 손영돈(孫永墩) 정재완(鄭在浣)
이병목(李炳穆)
- <황해> 이승준(李承駿) 이 운(李 雲) 이태건(李台健) 이충건(李忠健)
- <평남> 김찬영(金瓚永) 이규증(李規曾) 장희봉(張熙鳳)

이와같이 어려운 몇 고비를 넘으면서 동아일보는 주식회사의 조직을 서둘러 1921년 9월 14일 드디어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창립총회'를 열게 되었다. 여기까지에는 인촌의 힘도 힘이려니와 고하의 뒷받침 또한 컸다.

창립 총회는 이날 서울 돈의동(敦義洞)의 명월관에서 열렸다. 애초 예정했던 자본금 100만원을 70만원으로 줄여서 총주주 256인중, 출석 주주 49인 (위임 주주 207인)이 모인 가운데 취체역(取締役=理事)에

이 운(李 雲 9,066원 납입).장덕수(張德秀 8,893원 납입).김찬영(金瓚永 8,681원 납입).
송진우(宋鎭禹 8,615원 납입).이상협(李相協 8,261원 납입).성원경(成元慶 8,181원 납입).
장두현(張斗鉉 8,049원 납입).정재완(鄭在浣 7,900원 납입).신구범(愼九範 7,507원 납입).
김성수(金性洙 1,788원 납입)의 10인과
감사역(監査役=監事)에
현준호(玄俊鎬 8,440원 납입).장희봉(張熙鳳 8,210원 납입).박용희(朴容禧 8,087원 납입).

이충건(李忠健 8,056원 납입).허 헌(許 憲 7,935원 납입)의 5인이 선출되었다.

다음날인 15일 계동(桂洞) 인촌 집에서 열린 취체역 회의(이사회)에서 고하는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로서는 초대 사장에 선출되었다. 통산하면 박영효.김성수에 이어 제3대 사장이었다. 부사장에 장덕수(주필 겸무), 전무에 신구범, 상무에 이상협 (편집국장 겸무)이 선출되었다.

고하의 이때 나이 32세. 이로부터 고하는 동아의 사장으로 혹은 고문으로, 혹은 주필로 시세와 상황에 따라 자리는 변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아일보를 이끌어 그가 별세한 1945년 12월까지 25여년을 동아일보와 고락을 같이했다. 그러기에 동아일보 하면 고하를 연상케 했고, 고하 하면 동아일보를 생각해 했던 것이다.

고하가 사장직에 취임한지 약 한달만인 10월 15일 '여러가지로 내부를 정리할 일이 많아서' 늦어졌다는 전제로 다음과 같은 취임사를 발표했다.

本報의 過去를 論하야 讀者 諸氏에게 一言을 寄하노라.

本社에 就任한지 月로 計하여 三朔에 跨하고, 日로 數하여 百日에 達하도다.

그러나 殘務의 整理와 餘冗의 收拾으로 因하야 一沫의 例辭가 無하게 됨은 어찌 遺憾이 아니라. 本報의 創設이 一年이요 七個月이라. 그 동안 障害도 많았으며 困乏도 많았도다. 그러나 이에 不拘하고 讀者의 數가 幾萬에 達하며 社員의 數가 百名에 及하니 蕭條한 우리 社會에 있어서는 浩大한 機關이요 一種의 光明이라 하겠도다. 그 所由來와 그 所以然이 如何한가. 本報의 發展을 企圖하는 우리는 冷靜한 態度로 思考할 必要가 有하도다.

第一은 時代의 產物이니 越在 數年에 歐洲의 大亂이 方熄하고 平和의 曙光이 發現하여 改造의 精神과 解放의 思潮가 全世界의 洋溢한지라 沈鬱에 沈鬱을 積하고 苦悶에 苦悶을 加하여 暗中에서 摸索하고 迷路에서 彷徨하던 우리 民族의 思想界가 衰弱한 元氣를 更張하려 하며 疲困한 神經을 亢進하려 하니, 此에 順應하여 民族의 表現機關으로 本報가 誕生된지라 이 곧 天下의 同情이 集中된 所以이며,

第二 株主 各位의 熱誠이니 本報가 創立된지 幾月을 不過하여 財界의 恐慌이 掩襲하매 林立叢生하든 各種會社가 破産이 頻頻할 뿐만 아니라, 個人間 貸借도 困難한 時期를 際하여 求利의 道가 薄하고 經營의 難을 覺悟하면서도 그 信用을 盡하며 囊橐을 傾하야 經濟界 大勢의 逆流를 不拘하고 本報가 株式會社로 成立되었나니, 이것은 다 株主諸氏의 公에 厚하고 私에 薄하여 義를 慕하고 利를 輕히 여기는 熱誠中으로 出來한 것이라, 余는 讀者諸氏로 더불어 敬意를 表하는 것이다.

第三 幹部諸氏의 努力이니 基督曰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심과 같이 世上事는 金錢으로만 計算하는 것이 아니외다.

本報가 三大綱領을 提唱하여 侃侃諤諤한 論旨와 正正堂堂한 筆法으로 世路의 險峻을 突破하며 大勢의 歸趨를 洞察하여 眞理를 闡明하고 虛僞를 排斥하며, 是非를 較判하여 善惡을 褒貶하며, 美는 鑑賞하고 醜는 厭避하니 於是에 社會가 正論을 得하고 人衆이 歸向을 定하였도다. 이것은 다 學識과 經驗이 豊厚하고 品性이 高潔한 幹部諸氏에게 所負한 바 多大하도다.

그러나 良馬가 過하여도 伯樂이 不顧하면 駑馬에 等하고, 棟梁이 立하여도 良工이 衰乏하면 樗櫟과 無異하나니, 如何히 時代의 潮流가 急動하고, 經濟의 狀況이 良好하고, 幹部의 努力이 勇壯하다 할지라도 讀者諸氏가 一年 一日과 같이 愛讀하신 誠力이 缺하였으면 어찌 過去의 良積을 期하였으리까. 元來 本報는 一黨一派의 政略上 施設이 아니라, 十三道를 網羅한 四百餘 株主의 共同 經營이며, 一人一家의 私論偏見이 아니라 二千萬 民衆의 公議 公論을 表現하는 機關이외다. 勿論 個人과 個人間에는 利害의 背馳도 有하겠고, 感情의 差別도 有하겠고, 地方에 따라서 習慣의 相違도 有하겠으나, 同一한 歷史와 同一한 言語와 同一한 地境에 處한 우리는 반드시 共通된 利害點

이 有하리로다. 이 곧 二千萬民衆의 公利며 公害라 本報의 使命은 公利는 어디까지든지 주장하며 保護할지요, 公害는 어디까지든지 排斥하며 防禦할지니,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本報는 二千萬 民衆의 公有物이외다. 그러므로 本報를 愛護함은 卽 自己를 愛護함이요, 本報를 排斥함은 卽 自己를 排斥한다 하여도 過言이 아니라 하나이다. 그러므로 本報가 讀者 諸氏에게 對하여 愛護와 同情을 求함은 義務뿐 아니라 權利이며, 또한 讀者 諸氏가 本報의 錯誤된 點에 對하여 批評을 下하여 忠告를 發하는 것도, 權利뿐 아니라 義務라 하노라. 다만 前路가 險峻하고 群妖가 縱橫하는 이 社會 이 時代에 處하여 如何히 하였으면 本報의 使命을 完全히 할까, 이 곧 株主諸氏와 社員一同과 讀者諸氏와 같이 協調 共鳴하여 討究하고 努力할 바외다. 余는 知識이라면 空疎뿐이요, 經驗이라면 失敗뿐이외다. 그러나 二千萬民衆으로 같이 立하며, 같이 起하며, 같이 怒하며, 같이 喜하며, 같이 哀하며, 같이 樂하려 하는 一片의 微誠만 가지고 本社의 美良한 從僕이 되려 하오니 諒察하소서.

3. 민립대학(民立大學) 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物産獎勵運動) 전후

고하가 동아일보사장에 취임하자 종래의 2국(편집, 영업) 1공장 기구에 서무·경리국을 신설하고, 편집국장에 이상협(李相協), 영업국장에 홍증식(洪瓊植), 서무·경리국장에 양원모(梁源模), 공장장에 최익진(崔益進)을 임명하고, 법정의 편집인 겸 발행인을 이상협으로부터 한기악(韓基岳)으로, 인쇄인을 이용문(李容文)으로부터 최익진으로 바꾸었다.

한편 고하는 특히 본사, 지사, 지국 사원들의 인화도모에 주력했다. 인화는 본시 중앙학교장 때부터의 신조였지만, 사원의 인화는 이 민족의 인화와 단결을 촉구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조 중엽부터 당파싸움으로 지새왔던 관계도 있었지만 특히 3.1운동 이후 이 민족은 수없는 불행과 재난에 시달려온 나머지 저마다 남의 단점만을 꼬집기가 일수였다. 이러한 민족적 불행에 있어서는 이 민족 한사람 한사람이 갖는 장점 하나라도 화초 가꾸듯이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 고하는 우선 동아일보사의 사원훈(社員訓) 5개조를 만들어 민족적 시범을 보이고자했던 것이다.

첫째, 제3자의 악평(惡評)을 하지말고 될 수 있는대로 좋은 사실만을 들어서 호평할 것.

둘째, 남을 대할 때 면박을 주지말 것.

셋째, 거짓말을 말 것.

넷째, 말은 일을 정성껏 처리할 것.

다섯째, 돈에 깨끗할 것.

“제 아무리 많이 읽은 뽀뽀 곰보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예쁜 구석이 한 두 군데는 보이는 것이요. 그런만큼 이 험난한 남의 식민지시절의 어려운 우리 생활에서 우리 동아일보 기자들은 그 결점만 보고 탐하지 말고 그 장점될 만한 것들을 잘 살펴 찾아내서 그걸 늘 칭찬해주고 육성해가도록 해야합니다...”

사원들은 이를 당시 혼란한 사회를 극복하는 처세훈으로 받아들여 따랐고, 시인 서정주(未堂 徐廷柱) 등은 지금껏 가훈(家訓)으로 삼기도 하였다.

고하는 또한 구한국 말엽 이래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도 각각 자기 출신지방을 중심으로 파벌을 조직하여 기호파(畿湖派), 관서파(關西派), 관북파(關北派), 영남파(嶺南派) 등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이것을 중심으로 서로 대립하고 혈투고 다투고 있는 실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대립이 계속되면 될수록 민족의 역량은 무익한 데로 소모되고 일본 당국이 바라는 함정에 빠지는 결과가 될 것을 근심하였다. 더욱이 3.1운동 이후 해외에 세워진 임시정부(臨時政府) 내부의 대립, 미국에 망명하고 있는 지사들 사이의 대립 상태를 듣고 보고 있는 고하는 국내의 동지들에게 국내에서만이라도 이러한 지방색을 말살하기에 힘쓸 것을 역설하였다. 각 기관에서는 같은 인재이

면 타지방 출신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도 강력히 권하였고, 고하 스스로도 동아일보사원의 채용 방침의 하나로 삼았던 것이다.

고하의 주장은 곧 실천에 옮겨졌다. 고하는 다섯 조목을 몸소 지켜 보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씨족 상호간의 비난주의, 부정주의와 균색하고 서투른 약점을 고쳐 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 일례로서 고하는, 1922년을 전후하여 '자녀중심론(子女中心論)' '민족개조론(民族改造論)' 등으로 일부 민중의 지탄속에 움직일 길이 없던 춘원 이광수(春園 李光洙)를 옹호하여 소설 《가실(嘉實)》을 동아일보에 연재케 하고, 그를 동아일보에 촉탁기자(囑託記者)로 입사시켜 문학의 길을 넓혀 준 것을 들 수 있다. 후일 이 사실은 춘원도 다음과 같이 시인하고 있다.

“이 때에 아마 송 고하(宋古下)라고 기억되는데 소설 쓴 것이 있거든 동아일보에 하나 게재하려고 하였다. 고하는 물론 동아일보 사장이었다. 이 말은 언론에서 완전히 축출된 나에게는 비할 데 없이 고마운 말이었다. 그래서 《가실》을 동아일보에 보냈더니 그것이 며칠 동안 게재되었다. 아마 그것은 고하가 나를 세상에 끌어내려는 호의에서 오래 생각한 끝에 나온 것이다”(朴啓周 郭鶴松 共著 《春園 李光洙》중의 <嘉實과 先導者>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온 세상을 휩쓴 경제공황의 심한 영향을 받고, 더욱이 일제의 착취하에 허덕이는 식민지 조선의 경제적 타격은 극심했다. 이와같은 악조건 하에서 창간한지 반년만에 장기간의 '정간'을 치르고 났으니 그 재정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사장직에 취임한 고하는 중앙학교 교장시절에 지급한 봉급의 전례와 같이 자기 봉급과 지금까지 주간으로 있었던 부사장 설산 장덕수(雪山 張德秀)의 봉급을 명목으로는 약간 달랐지만 사실상 같은 금액으로 책정했던 것이다. 이것은 고하의 인간을 대하는 태도와 그 정신의 일면이며 아울러 금전에 있어서 담백함을 엿보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장에 취임하여서 회사 내부의 기구개편 정비, 지사 확장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때의 일이다. 191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1회 회의를 가진 바 있던 만국기자대회(萬國記者大會)의 제2차 회의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하는데 조선에는 동아일보에만 대회장 월터.윌리엄스박사의 이름으로 참가 초청장을 보내왔다. 대단히 뜻있는 일이고 좋은 기회이기도 하므로 이 초청에 응할 것과 당시 조사부장 김동성(金東成)을 파견하기로 중역회의에 제안하여 결정했던 것이다. 여비는 당시 신문사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인 2천원을 지급하고 또 2천원을 추가 책정했던 것이다. 4천원이면 당시 2백평의 논 80두락의 값에 해당한다.

총독부의 방해로 출발이 늦어져서 1921년 9월 27일 서울을 떠나 일본 요코하마(橫濱) 경유, 하와이 호놀룰루에 상륙, 10월 11일부터 열린 회의에는 부득이 하루 늦게 참석했다.

이와같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어렵게 참석한 김동성이 부회장에 당선되었다. 김동성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2백여명의 기자단을 통해서 한국의 실정과 민족정기(民族正氣)의 건재함을 알리고, 10일간의 회의를 마치자 이어 미국 본토로 건너가서 워싱턴 군축회의를 취재한 후, 이듬해인 1922년 1월 14일에 귀국 서울로 돌아왔다.

독립된 국가별로 여러사람이 부회장에 당선되기는 했으나 주권을 빼앗겨 있고 또 일본은 물론 그와 친근한 국가들의 방해가 심했던 처지에서 부회장에 끼이게 된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김동성에게 명예로운 일일뿐만 아니라 사실상 조선을 독립된 민족으로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김동성의 부회장 당선소식이 신문을 통해서 알려지자 일반국민은 감격하고 흥분했다.

고하는 이와같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감격하는 독자나 일반 대중의 감정을 한군데로 모으기에 노력했다. 이 소식을 지상을 통하여 축하광고로 호소하자 그해 10월 하순부터 연말까지, 이제까지는 볼 수 없던 많은 인사의 호응을 일으켜서 예기했던 것보다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 수입도 적지 아니하여 신문 경영에 큰 도움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 축하광고에 뒤이어 1922년 신년인사 광고가 전보다 비교가 안될 만큼 많아졌고 당시 11단 4페이지 지면에 각페이지마다 4단

에서 8단 혹은 전면을 차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신문사 내부가 조금씩 정비되고 안정되어가자 고하는 계속해서 당시 동양에서는 가장 상공업이 발달한 경제중심지인 일본의 동경 대판 등지의 광고를 개척하여 수입을 올리는 한편 지방 지국의 조직 확장에 따라 발행부수도 계속 늘어갔다. 1923년경부터의 신문사 재정상태는 눈에 띄일 만큼 호전되었고 광화문 네거리의 사옥 신축을 위한 제2차 자금납입(1926)을 할 때까지 그동안 여러가지 파란을 겪었으나 재정상태는 계속하여 좋은 성적을 지속하였다. 여기에서 고하의 기업경영자세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대국을 판단하는 식견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고하는 김동성이 '만국 기자대회'와 '워싱턴 군축회의'에서 갖고 온 기록 환등(記錄 幻燈)을 갖고 동아일보 발기 '재외 동포위문(在外同胞慰問) 전조선 순회 환등영사 대강연회'를 1922년 3월 6일부터 12월 3일까지 무려 10개월간 전국을 순회하며 개척하였다. 이 강연회를 약칭 재외동포위문회라고 했다.

그 목적은 기록 환등을 비취가면서 변전(變轉)하는 세계 정세와 민족의 나아갈 길을 암시하고 동시에 남북만주(南北滿州)나 노령(露嶺, 미주(美州), 묵령(墨嶺;멕시코) 등 각지에 이주하여 갓은 고생을 겪고 있는 수백만명의 동포를 위문하고, 또 그들에게 교육기관을 세워주는 기본금을 모집하려는 사업이다. 고하의 또 하나의 속셈은 이 민족적 정신 사업을 통해서 국내 동포들 사이에 해외 동포에 대한 동정과 이해심을 일으키게 하여 애국 애족정신의 침체를 일깨우고, 국민의 단결의욕을 높이려는 데 있었다.

강연회가 열리고 고하의 발자취가 거쳐가는 곳에 동아일보의 발행부수는 급속히 늘어났고 인심은 동아일보에 집중되어가고 있었다.

강연 담당의 연사는 사장 고하, 주필 장덕수(張德秀), 전무 신구범(愼九範), 조사부장 김동성 등 4인이었다.

강연지는 서울을 비록하여 제1회로, 신의주(新義州).선천(宣川).안주(安州).강계(江界).개천(价川).평양(平壤).진남포(鎭南浦).안악(安岳).은율(殷栗).송화(松禾).장연(長淵).해주(海州).재령(載寧).사리원(沙里院).남천(南川).개성(開城),

제2회로 부산(釜山).동래(東萊).울산(蔚山).경주(慶州).대구(大邱).밀양(密陽).김해(金海).마산(馬山).통영(統營).삼천포(三千浦).진주(晋州).하동(河東).예천(醴泉).영동(永同).조치원(鳥致院).청주(淸州).공주(公州).천안(天安).안성(安城).수원(水原).이천(利川).여주(驪州).원주(原州).강릉(江陵).춘천(春川),

제3회로 목포(木浦).함평(咸平).나주(羅州).광주(光州).화순(和順).능주(綾州).보성(寶城).순천(順天).여수(麗水).광양(光陽).동북(同福).창평(昌平).담양(潭陽).영광(靈光).정읍(井邑).고창(高敞).이리(裡里).전주(全州).군산(群山).강경(江景).대전(大田).금산(錦山),

제4회로 청진(淸津).성진(城津).북청(北靑).홍원(洪原).함흥(咸興).정평(定平).영흥(永興).원산(元山).철원(鐵原) 등 전국 주요도시를 망라한 것이다.

고하는 이해 5월부터 7월까지 주로 호남.호서지방과 관서지방에서 50여회의 시국강연을 베풀어 성대한 환영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고하는 순회하며 강연할 때 '우리민족의 나아갈 길은 천리의 아득한 길이다. 그렇다고 미리 겁을 먹고 주저앉으면 아주 퇴보하고 말 것이다. 아무리 험한 가시밭 길이라도 우리가 단결하고 합심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한걸음씩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만 한다. 희망을 가지고 백리를 갈 사람은 백리에 대한 준비를, 천리를 가야할 사람은 여기에 대한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함으로써 수많은 청중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뒤 오랫동안 많은 젊은이들은 대중강연에서나 웅변회에서 고하의 이 말이 자주 인용되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모여진 입회금과 입장료 합계 45,223원 36전 중에서 잡비를 제한 30,568원 63전과 물품 433점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재외 동포에게 분배되었다.

이리하여 낯설은 이역 동포들의 가슴에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애국심을 북돋워 주었고, 외국 사람들의 앞에 버젓한 자랑스러움으로 나타났으며, 만주.간도에는 이로 말미암아 기념비까지 서게 되었다.

고하는 이 대강연회의 출발에 앞서 2월 15.16 양일간에 걸쳐 서울 명월관에서 동아일보사 제1회 지국장회의(支局長會議)를 가졌다. 고하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창간 당초의 지국 26곳은 배수에 가까운 49곳으로 늘었고 그 지국 산하의 분국(分局, 직할(直轄)분국과 약간의 분배소 포함) 41곳까지 합쳐서 총 90곳의 전국적인 보급 조직망을 갖게 되었다. 판매 조직망은 서울을 비롯하여 북으로 웅기(雄基).혜산진(惠山鎭).후창(厚昌)은 물론 만주 안동현(安東縣)까지, 남으로 부산(釜山).여수(麗水).완도(莞島)는 물론 제주도 성산포(城山浦)까지 전국을 덮은 것이었다.

고하는 1922년 여름에 접어들어서 7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이상협을 일본 니이가타(新潟)에 특파하여 니이가타 현(縣) 거류 동포 학대사건을 취재 보도케 하는가 하면, 그해 초겨울에는 안창남 고국방문 대비행(安昌男 故國訪問 大飛行)의 행사를 갖기도 했다.

안창남은 1903년 미국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완성한 후 실로 20년만에, 일본 동경근처에 있는 고구리(小栗) 비행학교에서 고등 비행술을 습득한 맨 처음의 한국인 비행사이었다. 그의 고국방문 비행은 그가 1921년 여름부터 주치를 의뢰해 온 데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고하는 이 사업을 범민족적인 사업으로 삼아, 거족적으로 그를 환영하는 가운데, 민족 능력을 선전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고하는 우선 국내 실업계, 교육계, 언론계 등 각계를 망라하여 '안창남 고국방문 비행 후원회'를 조직하고 성금을 모집하였고, 마침내 그 비행은 1922년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비행장에서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경비를 결산한 결과 후원회의 거금(醵金)을 넣고도 6,214원 48전의 결손을 보게 되었다.

신문사 주최 민족 사업이 넓게 전개되는 반면 연이어 발생하는 압수(押收), 정간(停刊), 발매금지(發賣禁止) 등 행정처분의 사고가 끊임 없이 없었고 넉넉지 못한 자금으로 신문을 발간하기 때문에 대체로 사장이자 전사원들은 때로는 한개 5전짜리 호떡으로 점심을 잇기가 예사였다.

그뿐만 아니라, 고하는 독신 기자들과 같은 하숙방 생활도 했다. 주색(酒色)과 정서생활(情緒生活)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한방에서 숙식을 같이 하던 친구나 기자들은 고하를 성적(性的) 무능력자로 오인할 정도였다. 초기 동아일보의 기자로 있으면서 사장인 고하와 같이 자주 침식을 같이하던 사람중의 한사람은 '언제인가 고하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몰래 이불을 들치고 살펴본 결과 다시는 그가 성적 무능력자이니 하는 사람들의 말을 단연 부인했다'는 일화도 있을 정도였다. 그만큼 고하는 동아일보 사장 취임이래 그의 바쁜 공적(公的) 생활로 인해 이처럼 사적(私的) 생활을 거의 돌보지 않았던 것이다.

해가 바뀌어 1923년, 이해 3월에는 3.1운동을 계기로 전국에 거세게 평배한 교육열과 향학열을 한길로 인도해야 할 필요에서 유지인사의 발기로 '조선민립대학기성회(朝鮮民立大學期成會)'가 창립되었다. 고하는 뒤에 말할 이상재(李商在).이승훈(李昇薰).조만식(曹晩植).한용운(韓龍雲), 유진태(兪鎭泰).현상윤(玄相允) 등 30명으로 구성된 중앙 집행위원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민립대학 운동은 당시 객관적인 사정도 큰 영향을 가져왔지만 또다른 이유는 멀리 20여년 전의 국채 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에 기원을 둔 것이었다.

1906년 이후 당시 구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차관(借款)한 1,300만원을 갚을 길이 극히 어렵게 되자 1909년 자연발생적으로 국내에서 '국채 보상 운동'이 민간주동으로 대구(大邱)와 동래(東萊)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삼시간에 전국으로 파급, 모금 방법의 하나로 금주.단연 운동(禁酒.斷煙)까지 일어났다. 이리하여 경향 각지에서 답지한 현금과 귀금속이 600만원의 거액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1910년의 한일합방(韓日合邦)으로 나라의 슬픈 종말과 함께 중지부를 찍어야 했다.

이에 국채보상금으로 모금된 600만원의 뒷처리를 위해서 윤치호(尹致昊).유원표(劉元杓).남궁억

(南宮櫟).박은식(朴殷植).노백린(盧伯麟).양기탁(梁起鐸) 등의 유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논한 결과, 이 돈을 각자에게 돌려 주지말고 민립대학(民立大學)의 설립 기금으로 돌리기로 하고, '민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하여 데라우찌(寺內) 총독에게 설립인가를 요청했으나 허가가 되지 않고 시일만 흘러갔던 것이다.

그뒤 3.1운동 직후인 1920년 사이또(齊藤) 총독 때에 두번째로 민립대학 설립할 것을 타진했던 바 사이또는 한.일 양쪽 민간인의 합동으로 설립하자는 주장을 내세웠던 관계로 이쪽에서 그만 허가 신청을 철회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민립대학 건립운동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그것은 1922년 1월에 일본이 식민지인 조선에 그들 자녀의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일본 본국과 같은 전문학교, 대학교를 세우고 여기에 약간의 조선인도 수학(修學)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학제(學制)로 조선 교육령을 개정한 것인데 이것은 조선인을 조종하기 위한 고등정책(高等政策)이었던 것이다. 이에 고하는 우리가 일본이 세우는 관립대학보다 먼저 민립대학을 세워서 민족정신을 양양케하여 우리 자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었고 2월 초에는 <민립대학의 필요를 제창하노라>하는 사설을 동아일보에 실어서 유지의 궤기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호응하여 민립대학 운동은 사회단체나 교육기관, 그리고 이름있는 인사들에 의하여 논의되어 오다가 1922년 11월 23일 서울 수표정(水標町)에 있던 조선교육협회(朝鮮教育協會)에서 각계 인사들이 모여서 '조선 민립대학 기성 준비회'가 결성되고, 다음과 같은 공한(公翰)을 신문지상에 게재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발기인을 선출하여 본격적인 운동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謹告 二千萬 父老.兄弟.姉妹

各新聞에 屢次 報道된 바와 如히 民立大學期成準備會를 組織하여 全國 各團體에 共鳴되기를 求하였던 바 或은 團體의 聯合으로, 或은 個人的 合同으로 到處에서 大贊을 與하심은 깊이 感謝하는 바오나, 團體調査의 不充分으로 或 漏落된 地方과 受信人의 不在로 返信된 地方에는 諸郡廳으로 通牒을 發하고 發起人募集을 依賴하였으나 아직 消息이 傳達되지 못한 地方이 間或 있음을 發見하고 다시 新聞紙上으로 仰告하오니 右 各地 父老.兄弟.姉妹는 同心 協力하시와 左記와 如히 發起人을 選拔하여 주시옵소서.

- 一. 發起人은 一郡에 二人 以上 五人以內 選定하시되 그 資格과 方法은 貴郡에 一任함(但 貴郡內 各團體 協議 選拔하심을 要함)
- 二. 當選된 發起人은 別紙 承諾書에 住所.氏名.年齡을 記入 捺章하여 本會로 送付하시고 發起總會에는 반드시 出席하옵소서.
- 三. 發起人總會時 發起人의 京城 滯留中 宿舎料는 本準備會의 負擔으로 함.

이 호소에 호응하여 전국 각 부(府) 군(郡)에서 선정한 발기인은 총수 1,170명에 달하였고, 드디어 1923년 3월 29일부터 사흘 동안 '민립대학발기인 총회'가 종로 2가에 있던 조선중앙기독교 청년회관(朝鮮中央基督教青年會館 YMCA)에서 열렸다. 이 총회에서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으로 이상재(李商在).이승훈(李昇薰).조병한(曹炳漢).김탁(金鐸).고원훈(高元勳).강인택(姜仁澤).한용운(韓龍雲).최린(崔麟).한인봉(韓仁鳳).김한승(金漢昇).오달세(吳達世).유인식(柳寅植).조만식(曹晩植).이춘세(李春世).유성준(兪星濬).고용환(高龍煥).송진우(宋鎭禹).정노식(鄭魯湜).김우현(金佑鉉).백남운(白南雲).유진태(兪鎭泰).이갑성(李甲成).남궁훈(南宮薰).남홍윤(南洪允).강백순(姜栢淳).주익(朱翼).홍성설(洪性僣).현상윤(玄相允).김정식(金貞植).허헌(許憲) 등 30인과, 감사위원(監查委員)으로 장두현(張斗鉉).이하용(李河用).김일선(金一善).김병로(金炳魯).유양호(柳養浩).김성수(金性洙).김윤수(金潤秀)의 7인이 선출되었으며, 각지 집행위원은 각지방 발기인들이 협의 결정하여 중앙부(中央部)에 보고하

기로 하고, 또한 앞으로 만1년만에 설립기금 1천만원의 모금(募金)을 달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리하여 성립된 '민립대학기성회'는 곧 이상재(李商在)를 위원장에 추대하고, 부군단위(府郡單位)로 지방부(地方部)를 설치하고 중앙부에서는 기금 모집을 위해 지방 유세(遊說)의 길에 오른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이에 자극을 받았음인지, 또는 이 운동을 좌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했는지 갑자기 조선에 관립대학을 둔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1924년 4월에는 벌써 대학 예과(大學豫科) 학생을 모집하여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을 개교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민립대학은 총독부의 설립 인가가 끝내 나오지 아니하여 경성제대 예과(京城帝大豫科)의 발족과 함께 흐지부지 되고 말았으나 어쨌든 지금까지 없던 대학이 우리나라에 서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처럼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서울 시내 수표동(水標洞)에 있는 조선교육협회 회관에 '조선 민립대학기성준비회'(朝鮮民立大學期成準備會)라는 간판을 붙이는데 끝났다.

또한 이 운동은 목적인 결과는 얻지 못했으나 실로 3.1운동 이후 처음보는 범민족운동(汎民族運動)이었다.

이때 민간신문이 몇개 있었다고는 하나 완전한 민족 대변지로는 동아일보가 하나 있을 뿐이었으므로, 이 운동은 동아일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진행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 이 때 역시 고하가 그 정신적 배경이었음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다음은 물산장려(物産獎勵)운동의 경과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야겠다.

민립대학 운동이 문화면에서의 민족적 의식운동이요 항일 운동이라고 한다면, 3.1운동 이후 서울이나 평양 등지에서 끈질기게 일어난 물산장려 운동은 경제적인 항일 운동이라 할 것이다. 1922년 11월초 동아일보는 그 사설에서 "민족운동은 공막한 규호(叫號)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문제를 철저히 인식하는 데서 민족운동의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경제적인 민족운동을 제창 역설하였다.

다시 11월 12일과 13일 사설에서는 "일본은 조선통치에 있어서 경제적 도태주의(淘汰主義)를 쓰고 있으므로 우리는 생활의식에서 깨어서 경제적 자위책을 강구하고 철저히 경제적 백병전(白兵戰)을 하라. 또 인도의 간디가 방직품 국산을 장려함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인은 어려운 여건 밑에서도 '외화의 제한과 국산의 장려를 철저히 행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상 취할 유일의 방책(方策)'"이라 하고 국산장려 운동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호응하여 여러 곳에서 많은 단체가 생기고 이 운동은 실천에 옮겨졌다. 1922년 1월 9일에는 수십개의 단체가 모여 조선물산장려발족준비회(朝鮮物産獎勵發足準備會)를 조직하고 20일에는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 회의는 3.1운동에 관련한 인사를 중심으로 국산장려의 이론적인 지도자와 민족기업가, 학자, 언론인이 모였다. 이 회의의 실천사항으로는 자급자족, 국산장려, 금주단연 등을 결의하고 그해 음력 설날인 2월 16일을 물산장려일로 정했다.

고하는 2.8선언 관계자 백관수(白寬洙).김철수(金喆壽), 3.1운동의 한용운(韓龍雲).정노식(鄭魯湜).이종린(李鍾麟) 등과 이론가이면서도 실천가로서 조만식(曹晩植).명제세(明濟世).설태희(薛泰熙).나경석(羅景錫) 등 그리고 기업가 중에서는 김덕창(金德昌).김윤수(金潤秀).장두현.고유상 등, 학계 언론인으로서 최원순(崔元淳).유광열(柳光烈).이순탁 등과 같이 책임위원으로 선출되었다.

2월 16일, 물산장려일에 회원들은 웃고름 대신 단추를 단 무명두루마기에 고무신.미투리 혹은 편리화(便利靴) - 바닥은 고무, 윗타리는 검정 형겅으로 만든 신발)를 신고 말총모자를 썼으며 서울.평양 등지에서는 전단을 뿌리며 시가행진도 했다.

이 운동은 각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어느 지방에서는 금주단연회(禁酒斷煙會)가 조직되었고 옷차림 유행에 가장 민감하고 앞장을 서서 가던 화류계 여성들까지도 무명옷을 입게 되었다.

본래 이 운동이 일화배척(日貨排斥)도 내포된 계획임을 알고 있는 총독부는 음성적이며 끈질긴 방해로 가하는데다가 국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근대적 공장시설이 없었던 실정이어서 이 운동을

항구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갈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민족 전체에게 구국독립운동은 정치운동만이 아니라 국산품 애용, 국산품 생산 운동도 한가지 길임을 일깨워준 큰 계기가 된 것이다.

4. 육혈포(六穴砲) 협박사건과 언론압박탄핵 민중운동

고하는 그의 성격과 포부에 알맞는 활동무대를 얻었기에 일제 지배하의 모진 압박과 고난속에서도 그의 지모(智謀)와 정력(精力)을 쏟은 보람으로 동아일보는 단시일내에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혹은 사장으로, 때로는 고문(顧問)으로 또는 주필(主筆)로, 때로는 편집국에서 일선 기자들과 먹고 자고, 때로는 인쇄공장에서 직공들과 함께 팔을 걷어올리고 조판을 하기도 했다. 또는 신문 보급과 판매 일선에서 독려의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인촌은 신문사의 일을 일체 고하에게 일임하였다. 그만큼 고하의 실력을 믿었던 것이며 깊은 우정으로 맺어졌었다. 두분의 두터운 우의는 세상이 다 잘 아는 일로서 일화도 많거니와 후세대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현민 유진오(玄民 兪鎭午)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세상이 다 알듯이 인촌과 고하의 두분은 친한 친구의 사이였을 뿐 아니라 둘도 없는 동지로서 일심동체가 되다시피하여 일생을 보낸 분들인데, 매사에 있어서 인촌은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대고 하는 참모의 일을 맡아 보았다면 고하는 밖에서 장병을 지휘하여 전투에 종사하는 사령관의 일을 보신 셈이다.

따라서 걸 보기에는 품모나 뱃심이나 활동에 있어서나 고하가 형격(兄格) 같았지만 내용으로는 인촌이 형격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고하는 호방(豪放)하고 인촌은 해학(諧謔)을 좋아해서 술자리 같은 데서 두분이 맞붙으면 상대를 사뭇 헐뜯는 것 같은 농담이 벌어지는 때도 흔히 있었다. 이를테면 '인촌은 돈으로 사장(동아일보 사장)을 했지. 나는 내 몸뚱이로 사장을 했단 말이야'(고하가 필화사건으로 일제의 형무소 살이를 한 일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고하가 내던지면, '여북 미련했으면 몸뚱이로 사장을 한담'하고 인촌이 받는 것이다.(下略) (兪鎭午 '仁和 知的 指導者' <東亞日報> 1962.2.18)

또 인촌의 장남인 동아일보 명예회장 김상만(金相萬)은 이렇게 술회한다.

선친께서는 언젠가 친구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었다. '지금 도하(都下)에 있는 각 신문들이 경영주가 자주 바뀜으로서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동아일보만은 경영이 연면(連綿)한 데다가 고하의 뱃짱과 지략(智略)으로 민족지로서의 확고한 자세와 기반, 그리고 전통을 세우게 되었다'고. 선친과 고하선생 두분 사이를 세상에서는 흔히들 형영상반(形影相伴)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으나 위의 말씀만으로도 두분 사이는 둘도 없는 지기의 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先親을 생각하면서' <東亞日報> 1970.4.1)

또 초기에 전무요, 오래도록 이사로 재임한 바 있는 양원모(梁源模)는 '두분은 가끔 대 충돌을 일으켜서 그때마다 옆에서는 이제 영영 절교(絶交)가 되는가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그 이튿날 아침에 계동(인촌택) 사랑에를 가보면 언제 왔는지 고하선생이 인촌선생과 머리를 맞대고 무엇인가 열심히 숙의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곤 했지요'라고 회고한다.

또한 고하의 영식 영수(英洙)도 이렇게 회고한다.

인촌선생은 자주 원서동(苑西洞 - 古下宅)에 오셔서 놀다 가시기도 하였고, 무슨 일을 상의하시기도 하셨다. 한번은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던 중 두분의 언성이 높아졌다. 이윽고 인촌께서는 화가 치밀으셨는지 문을 활 닫으며 "나는 간다" 하시고 신발(흰고무신)도 신지 않은 채 총총히

나가셨다. 나는 송구해서 선생의 신발을 들고 원서동과 계동 사이의 마루터기까지 뛰어가서 “선생님 신발 가져왔습니다...” 하니 인촌선생은 당신 발을 내려다 보시고는 “오, 영수냐...” 하시며 신발을 받아 신으시고는 다시 원서동으로 돌아오셔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한 이불속에 누워서 이야기를 계속하셨다.

두분의 우정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언젠가 두분이 크게 언쟁을 벌였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인촌에게 “고하선생을 그렇게 대접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걱정스럽게 묻자 “고하는 조선총독이나 상대하지 나 같은건 상대가 안되는 조선의 인물이야” 하고 대답했다. 두분은 그만큼 존경과 신뢰가 밑에 깔려 있었다. (仁村 金性洙傳에서)

고하가 중앙학교 교장으로 재직시 동교에 재학하였고 그후 경성고공(京城高工 지금의 서울공대)을 졸업하고 경성방직주식회사에 근무한 바 있는 유홍(柳鴻)의원은 고하와 인촌의 사이를 아래와 같이 회상한다. 이는 유홍 자신의 회상이기도 하지만 그의 눈에 비쳐진 고하와 인촌의 교우관계에 관한 생생한 기록이기도 하다.

당시 고하와 인촌의 동료나 후배들에게 두사람은 누가 앞이고 누가 뒤가 아니라 몸만 다를 뿐한 덩어리로 보였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인촌을 뿌리(根)라고 보면 고하는 줄기(幹)이었고 인촌을 이(理)라고 하면 고하는 기(氣)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인촌에게 한 말에 대한 결론은 오히려 고하에게서 얻었고 고하에게서 들은 말은 반대로 인촌에게서 결과를 보았던 것이다. 두 지도자의 별세후 회고담을 말하는 사람들 간에 다소나마 기억이나 견해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성격적으로 전연 반대인 고하와 인촌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얻은 주관적 느낌이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고하와 인촌은 소년시절이래 물체와 그 그림자처럼(形影相伴) 서로 사귀고 큰 일을 도모하였던 것인데 고하는 인촌처럼 부자집 자제가 아니기는 하나 인촌이 사재를 민족부흥을 위한 공공사업에 쓰면서도 겸손하면서 물질적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데에 더욱 경의와 우정을 갖게 되었다. 반면에 인촌은 동경유학시대는 물론 3.1운동이래 고하의 탁월한 조직력 지도력 및 판단력에 관하여 더 없는 경의의 우정과 신뢰를 가졌던 것이다. 그 한 예로서 누구나 인촌을 찾아서 공적인 일은 물론 사적인 일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면 반드시 고하를 찾아보고 그 의견을 듣도록 하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곤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하는 대체로 사정을 듣고난 뒤에 보통의 일에 대해서는 곧 시원하고 명확한 판단이나 조언을 해주었던 것이다. 고하와 인촌은 세상사람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언쟁(言爭)이 잦았다. 많은 경우 가족들까지도 놀라게 할 만큼 언쟁이 심할 때가 흔했다. 가족은 물론 옆에서 보던 인사들도 그 우정에 대하여 적지않은 걱정을 할 정도인데 몇시간 지나지 아니하여 언제 말다툼이 있었느냐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화기가 감도는 속에 공사간의 일을 의논, 처리하곤 하였다. 사람들은 무엇에 홀리고 속은 것 같기만 하였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은 양인의 격한 언쟁은 항상 큰 일의 방향이나 방법에 대한 견해차이가 중심이었지 어느 인물의 개인적 문제를 둘러싼 험담이 아니었다고 한다.

고하와 인촌의 깊은 우정을 말하는 중에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인촌은 독립운동사업의 일환으로 경방(京紡)이나 중앙학교, 또는 보성전문(고려대학교 전신) 등을 경영했다. 동아일보사는 물론이거니와 어느 사업이고 고하와 긴밀한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고하가 동아일보사 이외의 기관(機關)의 임원(任員)이나 경영체의 대표가 된 일이 없다. 물론 인촌의 간곡한 권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고하는 언제 투옥이나 구금될지도 모르고, 업체의 성장에 지장이 올 것을 염려하여 권고를 거절하고 부외(部外)에서 임원 이상으로 그 업체들의 운영에 노심했던 것이다.

이것은 고하의 성격 탓이라고 일부 인사들은 평하기도 하지만 고하는 동아일보를 항일운동의 총사령부요, 민족 독립추진의 본거지로 생각하고 그 운영에 온갖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 벽

찬 일을 고하가 아니고 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느낌이다.

고하는 공적 생활에 분명한 나머지 사생활을 돌보지 못하면서도 선배나 동지, 그리고 후진의 일이라면 손이 닿는대로 걱정하고, 힘 닿는데까지 뛰어다니며 돌보아주었다.

민립대학 운동이 본격화하기 시작하던 1923년 3월, 고하는 인촌과 상의하여 부사장 겸 주필이던 설산 장덕수(雪山 張德秀)를 미국 특파원의 자격으로 유학의 길로 떠나 보냈다. 이때 인촌은 설산 가족의 생계를 돌보기로 하고 설산을 안심시켰다. 그해 5월에는 동아일보 1천호(號)의 기념사업, 7월에는 '하와이 조선인 사정 강연회'로 분주했다. 이무렵 1923년(일본 연호는 大正12년) 9월 정오쯤 일본 동경에 큰 지진(地震)이 터졌다. 세칭 동경대진재(東京大震災)라 하는 지진이다. 이 지진으로 동경을 중심으로 요코하마항(橫濱港) 등 소위 경빈일대(京濱一帯)가 불바다가 되어 수만의 인명피해를 입었고 수만의 가옥과 시설이 불에 타서 완전히 산 지옥(生地獄)의 양상을 이루었다. 교통은 마비되고 상수도과 전기마저 많은 부분이 파괴되어 수라장을 이루게 되었다.

이때 우리 유학생과 교포 수만명이 이 지방에 살고 있었다. 유학생보다도 교포가 많았던 것은 제1차 세계대전당시 호경기를 누리던 일본 산업공장이 값싼 일꾼으로 조선에서 노동자를 모집해 간 관계로 오사카(大阪) 다음으로 이 경빈지방에 많이 체류하고 있던 까닭이다.

이 지진의 소식이 조선에 전해지자 민중에게는 큰 충격을 주게 되었으니 그것은 유학생 또는 거류민의 안부가 걱정되었던 까닭이다. 그것은 경빈지방의 일부 우익과 깡패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사람들이 일본인을 해치려고 상수도에 독약을 넣었다는 등, 폭동을 일으켜 일본인을 죽이고 또 어느 곳을 파괴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유언비어(流言蜚語)를 퍼뜨려서 이에 흥분한 일본인들이 조선사람을 보는대로 닥치는대로 일본도(日本刀)와 몽둥이로 살상을 해서 생지옥을 이루었던 것이다. 유학생의 일부는 학교가 개학전이라 아직 동경에 도착하지 않은 학생도 있었지만 이미 도착한 학생도 숨어서 간신히 목숨을 유지한 사람이 많았다. 이 소문이 조선 안에 전해졌기 때문에 큰 충격을 준 것이다. 동아일보사에서 고하는 당시 편집국장인 이상협을 현지에 급파(急派)하여 동포의 안부를 일일이 자세히 조사하여 장기간 보도하였고 이 신문 기사를 본 조선내의 친척, 친구들이 안심도 하게 되고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혼란을 틈타서 헌병 아мага스(甘粕)대위가 무정부주의자인 오오스기(大杉條)를 살해한 것도 이 무렵이다.

당시 동경의 조선기독교청년회 간사(朝鮮基督教青年會 幹事)로 있던 극웅 최승만(極熊 崔承萬)은 다음과 같은 회고담을 말한다.

“동경대진재에 청년회관 건물도 타버려서 이것을 복구해보려고 귀국하여 고하와 상의를 하였지요. 고하는 기부금을 줄만한 사람을 연락해줄 뿐만 아니라 같이 찾아가서 소개해주고 기부금을 얻게 되면 이 사실을 매일 지면에 크게 보도하여 기부한 사람의 생색을 충분히 내주는 등 고하의 노력으로 의외의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동경의 청년회관을 복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도 고하선생이 애국.애족하는 데에는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보살피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해가 바뀌어 1924년, 이 해는 고하로서는 조그만한 시련의 한 해였다. 이해 4월, 고하는 친일파 박춘금(朴春琴)의 육혈포(권총) 협박을 받았고, 이어 몇해 동안 편집국장으로서 고하를 도와 동아일보의 발전에 힘써온 이상협(李相協)이 사내의 중견 간부 상당수를 이끌고 사(社)를 떠났으며 거기에 좌익 계열의 모략 중상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건으로 인하여 고하는 그해 5월에는 동아일보 사장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박춘금의 육혈포 협박사건의 경위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이 당시 동아일보는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일제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서의 청년 운동이나 소작쟁의(小作爭議) 등을 민족적 견지에서 충실히 보도하고 또 신랄하게 논평하고 있었다. 또한 3.1 운동 이후 헌병경찰제도가 없어지고 보통경찰 제도로 바뀐 뒤로 불법 간섭.검거.구타 또는 고문 등은 표면상으로는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지로는 여러가지가 구태의연한 실정

이었고, 이에 대한 민중의 항거도 신문으로서 보도 및 항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한 예의 하나로, 1924년 3월의 순천(順天) 경찰 성토대회 사건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때 순천경찰서에서는 경찰이 황전면(黃田面)의 농민대회장 박중임(朴重臨)과 노동대회원 김재봉(金在鳳) 등 5인을 절도 용의자로 몰아서 구금하고 몽둥이로 때리는 등 혹독한 고문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 불법 사건에 대하여 순천군하의 농민대회연합회(農民大會聯合會), 노동자대회(勞動者大會), 순천청년회(順天靑年會), 순천연합회(順天研學會) 등 일련의 청년 단체가 꺾기하여 경찰을 성토하는 대회를 열고 경찰의 불법과 죄악상을 폭로했다. 동아일보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낱낱이 보도하고 논평한 것은 물론이다.

동아일보가 총독부 당국에게는 눈 위의 흑이며 가시였음은 물론이다. 심지어 총독부에서는 '동아일보 때문에 총독정치가 30년 늦어지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주의 운동을 방관 조장(傍觀助長)하여 민족주의세력을 약하게 하는 한편, 부지런히 친일파를 결속시켜서 친일단체를 구성하게 하고, 그 단체로 하여금 민족운동자와 민족운동단체를 억압하자는 것이었다.

그들이 얼마나 동아일보를 미워하여 탄압하려고 가진 방법을 썼는지는 당시 《개벽(開闢)》잡지 {제44호 1924년(일본 연호는 大正12년) 2월호}에 게재된 기사에서도 넉넉히 찾아볼 수 있다.

“新年 劈頭의 朝鮮의 社會運動”이란 題下에 於 晋州靑年會館에서 慶南勞農運動者 懇親會(3日間) 決議事項中 特殊問題로서

東亞日報問題에 對한 件

- (1) 大衆運動을 無視하는 偏狹的 報道를 問責할 일
- (2) 二千萬 民衆의 表現機關이란 宣言을 取消케 할 일
- (3) 在外同胞 慰問金의 不當한 處理에 對하여 質問한 後 對策을 決定할 日.(勞農團體 聯合機關에 그 實行을 委任할 日)

경무국은 친일단체의 육성에 전력을 기울여서 친일단체들이 표면상 스스로 규합 운동을 일으키도록 했다.

그 결과 총독부의 원조 아래 1924년 3월 박해묵(朴海默)의 '조선소작인상조회(朝鮮小作人相助會)', 김명준(金明濬)의 '국민협회(國民協會)', 박병철(朴炳哲)의 '유민회(維民會)', 박춘금(朴春琴)의 '노동상애회(勞動相愛會)', 박해원(朴海遠)의 '조선경제회(朝鮮經濟會)', 유문환(劉文煥)의 '교풍회(矯風會)', 이희간(李喜侃)의 '동광회(同光會)', 정진홍(鄭鎭弘)의 '유도진흥회(儒道振興會)', 김상설(金相高)의 '청림교(靑林敎)', 예종석(芮宗錫)의 '대정실업친목회(大正實業親睦會)', 신석린(申錫麟)의 '동민회(同民會)' 등 11개 단체의 대표들이 서울 남산 경성(京城)호텔에 모여, '각파유지연맹(各派有志聯盟)'을 결성하고 선서식을 거행했다. 그리고

- (1) 관민일치(官民一致), 시정개선(施政改善)
- (2) 대동단결(大同團結), 사상선도(思想善導)
- (3) 노자협조(勞資協調), 생활안정(生活安定)

등 소위 3대 강령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 연합단체의 결성은 처음부터 한민족의 독립사상을 말살하는 것이 그 주요한 근본 목적이었다.

이에 동아일보는 이 친일 단체의 정체를 폭로하는 한편 <소위 각파 유지연맹(各派有志聯盟)에 대하여>라는 사설에서 '관민야합(官民野合)의 어리운동(漁利運動)'이라고 통렬히 꾸짖었다. 이것이 육혈포 협박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였다.

한편 총독부는 동아일보 타도를 위하여 동경의 경시총감(警視總監)으로부터 무술에 능하고 소위 황민(皇民) 사상이 투철하다는 노동상애회(勞動相愛會) 부회장 박춘금(朴春琴)을 소개받고 그를 이해 1월 하순에 내한케 하였는데 박춘금은 매일 경무국장 마루야마(丸山鶴吉)의 관용차를 타고 육

혈포를 지니고 다녔다. 이 노동상애회라는 단체는 일본 동경에 본부를 둔 친일파 단체로서, 일본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 한국인 노동자 탄압에 협력하는 악질 단체였던 것이다.

박춘금은 귀국 후 두달 동안에 동아일보에도 7.8차나 찾아와, 동아일보에서 '재외동포 위문금'조로 모집한 3만여원을 노동상애회 사업비로 내놓으라고 사장 고하와 취체역 인촌에게 협박을 일삼고 다녔다. 어떤 때에는 몽둥이를 들고 머리를 수건으로 동여맨 10여명의 불량배를 데리고 나타나기도 했고, 혹은 고학생을 매수하여 데리고 나타나기도 했다. 당시 동아일보사 경리국장(經理局長)이던 양원모(梁源模)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세상에 알려진 이른바 권총협박사건이 있기 약 일주일전인 3월 28일 경이다. 그동안 4.5일간 매일 몇차례씩 들락날락 하던 박춘금은 고하를 명월관(明月館)에서 만나자고 했다. 이때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면 오히려 약하게 보일 염려가 있겠기에 고하는 약속시간까지 명월관으로 나갔다. 이때 동아일보사 직원 약 40명도 고하에게 어떠한 위해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각자 몽둥이며 방망이 등을 숨겨가지고 고하가 들어있는 방이 아닌 방에서 대기했다. 박춘금 등 무뢰한 일당 10여명은 인력거꾼이 입는 웃웃인 '합비'를 입고 나타나서 박이 고하와 만나는 바로 옆방에 진을 치고 있었다.

박은 고하를 위압하기 위하여 그가 차고 다니는 단도를 빼어 요릿상에 콧 꽃아놓고는 '동경진재(東京震災)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게 주겠으니 3천원만 내놓으라'고 즐랐다. 고하는 사리에 맞지않는 박의 요청을 거절하자 이번에는 정치부장 민태원(閔泰瑗)을 불러오라고 협박했다. 민태원 정치부장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소위 각파유지연맹(各派有志聯盟)에 대한 동아일보 사설을 트집잡는 것이었다.

마치 광견(狂犬)과도 같은 박춘금의 폭거에 고하는

"당신들 상애회는 친일단체인 만치 이런 돈이 아니더라도 당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지 않은가?"

하고 타이르듯이 말했다. 얼마동안 횡설수설하던 박은 그 태도를 돌변하여

"나같은 사람도 잘 이용하면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애소 섞인 언사로 말하는 것이었다.

고하는 단신으로 두시간 남짓 모진 협박을 받고 자리를 떴다. 그로부터 한 일주일이 지난 4월 3일경이다. 박춘금은 고하와 인촌이 동경 유학시절부터 안면이 있던 유민회(維民會)의 이풍재(李豊載)를 시켜, 조선소작인상조회(朝鮮小作人相助會)의 채기두(蔡箕斗), 나홍석(羅弘錫), 국민협회(國民協會)의 이병렬(李炳烈), 조선경제회(朝鮮經濟會)의 박해원(朴海遠) 등 5명과 함께 만나, 옛날 회고담이나 나누자고 하면서 고하와 인촌을 식도원(食道園)으로 초청하였다. 고하와 인촌은 무슨 공궁이속이 있는 것으로는 짐작했지만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면 웅졸한 것 같고 또 약점을 보이는 것 같아 제시간까지 식도원으로 갔다. 술이 한 두 잔 오고 간 다음 채기두는 문제가 된 이른바 '각파유지연맹'으로 이야기를 끌고 갔다. 그는 동아일보가 그들 연맹원에게 인신공격을 했다고 억지를 쓰면서 지상을 통해서 사과하라고 강요했다.

"이 나라 이 사회의 누구에 대해서도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의 방침이지만 주의(主義) 주장(主張)이 틀릴 때는 그것이 누구이든 어디까지나 싸우는 것이 신문의 사명이오"

하고, 고하가 이같이 말하자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춘금이 10여명의 불량배를 데리고 우루루 몰려와서

"우리 사업을 방해하는 놈은 죽여버린다"

고 소리를 지르면서 고하와 인촌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이어 접시가 날아가고 맥주병이 박살이 나고 종업원들은 아우성을 치고..., 별안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계획적인 이들 불량배는 기고만장 난동을 부리는데 고하와 인촌은 앉아서 당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한 차례 행패를 부린 그들은 뒤엎어진 요릿상을 다시 차려오게 해놓고는 공개사과(公開謝過)를 강요했다.

“우리는 죽어도 그런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는 이들이 무어라고 하던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들은 옆방으로 가서 상의를 하더니 요구조건을 약간 고쳐가지고 나왔다. 지상 공개사과를 하지 않는 대신 동아일보사의 사장인 고하는 연맹앞으로 사과문을 보내고 인촌은 전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일금 3천원을 내놓으라고 졸라댔다.

“이 정도의 요구도 못들어준다면 이 박춘금이라는 인간을 아직 몰라보기 때문일걸” 하면서 먼저 번과 같이 단도를 요릿상에 박아 놓고 옆구리에서 육혈포를 꺼냈다.

“못 듣겠어?”

두 눈에 핏발이 선 박춘금은 상을 치면서 권총을 두 사람에게 겨누었다.

“쓸데면 쏘봐!”

가소로움을 금치 못한 고하는 가슴을 내밀며 말했다.

위압에 압도당한 박춘금은 너털웃음을 치면서 총구를 내려놓았다.

“그렇게 간단히는 쓰지 않지, 밤은 기니까”

하면서 장기전으로 들어갈 모양이었다.

“5전, 10전씩 국민의 총의로 모은 돈인만치 함부로 쓸 수는 없으며, 재일동포 위문금도 우리들의 연락기관인 기독교청년회 등을 통해서 전달할 방침이오”

하고, 거절했으나 불량배들은 고하와 인촌을 둘러싸고는 번갈아 가면서 욕설과 야유를 퍼붓고 강요했다.

일각일각 밤은 깊어가는데 평온하게 자리가 수습될 가망은 희박했다. 이들 폭력배의 배후에는 총독부가 있어서 어디다 구원을 청할 수도 없는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안타까운 처지였다. 이들은 민족적인 양심이나 인간으로서의 상식조차도 통하지 않는 불량도배(不良徒輩)이니 사리를 가릴 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결국 고하는 개인의 자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인신공격은 유감이었다는 짤막한 글을 써주었고, 인촌도 개인의 자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3천원을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무려 3시간여의 폭행에서 풀려났다.

이날 밤의 폭행사건을 《인촌 김성수전(仁村 金性洙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고하보다는 그래도 덜 당한 인촌도 집에 돌아와 살펴보니 양복과 조끼, 와이셔츠와 그 안의 얇은 내의까지 왼쪽 가슴께가 한줄로 찢긴 단도 자국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 고하와 인촌은 상의한 끝에 3천원을 보따리에 싸들고 총독부 경무국장 마루야마(丸山)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지난 2월 초순부터 박춘금 일당이 동아일보사에 와서 행패를 부린 일에서부터 지난 밤의 식도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한 다음, 돈보따리를 마루야마 앞에 내밀며 인촌이 말했다.

“내가 3천원을 주겠다고 한 것은 그자의 육혈포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자를 곱게 보고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마루야마 국장의 체면을 생각한 것이니, 이 돈을 연맹파에게 줄 때 경무국장께서 입회해 주시든지 직접 전해 주시든지 하면 다행이겠습니다”

“아니, 그 돈을 왜 내게...”

배짱이 세고 후안무치(厚顏無恥)한 마루야마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밤 식도원에서의 일은 이미 보고를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직접 자기에게 가져올 것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아무튼 1주일 안으로 박춘금을 퇴거시키겠소”

하고, 마루야마는 두 사람에게 약속했다.

물론 두 사람은 3천원을 되돌려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박춘금의 육혈포 협박사건은 당시 일제가 언론 기관에 대해 자행하던 압수, 검거, 처형, 집회금지 등 압박에 대한 탄핵운동으로 번져갔다. 이 민중운동은 이 뒤 4개월 동안에 수차에 걸쳐 일어났다.

우선 4월 9일 민간신문, 잡지, 사상단체 대표들 40여명이 서울 유일관(唯一館)에 모여, '노동상 애회' 등 친일단체를 응징할 것과, 동아일보에 대한 언론 모독 및 고하 인촌 두 사람에게 대한 폭행과, 인권 유린의 소행을 밝힐 것을 총독부 당국에 요구하는 결의를 하고, 아울러 이종린(李鍾麟). 김기전(金起田). 김철수(金喆壽). 안재홍(安在鴻). 양원모(梁源模). 고한(高漢). 김원벽(金元璧). 김승묵(金昇默). 김양수(金良洙). 이대위(李大偉) 등 10명의 실행 위원을 선출하여 4월 하순 '민중대회 발기인회'를 열기로 하였다. 4월 22일, 드디어 서울 경운동 천도교기념관에서 발기인회를 가지려 했으나 종로경찰서는 집회금지로 이를 막아버렸다.

이어 6월 8일에는 서울 수표동의 조선교육협회관(朝鮮教育協會館)에서 민간 신문을 비롯한 사회단체 등 대표 31인이 모여서 '언론.집회.압박탄핵대회(言論.集會.壓迫彈劾大會)'를 가졌다.

이 대회에서 선출된 실행위원회에 의하여 다시 서울 경운동 천도교회당에서 '언론.집회.압박 탄핵대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치안 유지를 이유로 금지를 당하고, 6월 28일 다시 조선교육협회관에서 각 단체 대표자 백여명이 모였다.

"우리는 언론 및 집회에 대한 당국의 무리한 압박을 공고한 결속으로써 적극 저항할 것이며, 만일 우리의 언론과 집회를 압박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자이다"라는 굳은 탄핵 결의를 채택하고, 7월 20일을 기하여 전국 각지와 해외의 필요한 곳에서 일제히 '언론.집회.압박탄핵연설회'와 시위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일경(日警)의 철저한 봉쇄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때 동아일보는 이 언론.집회.압박탄핵대회에서 채택한 탄핵 결의문을 보도하였으나 곧 압수되는 등의 사태까지 빚어냈지마는 아무튼 고하와 인촌이 받은 육혈포 협박사건은 이렇게까지 한민족의 지지를 얻어서 확대되어갔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민중투쟁은 한국신문사(新聞史)의 빛나는 한 페이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 박춘금 육혈포 협박사건에 대해서 《개벽(開闢)》지에 게재된 기사를 참고삼아 전재(轉載)한다.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에 나타난 세가지 일을 들어
시골 계신 長尾宅 兄님에게

서울 네 눈 이

(前略)

兄님, 최근에 생긴 京城의 3大事件이라 하면 대개는 짐작하실 듯합니다. 母論 사람 놈들의 일인데 소위 '各派有志聯盟'이란 그것이 하나이고(여기에는 食道園事件, 民衆大會라는 事件까지 包含됨) '勞農總同盟'이 그 둘째요, '青年總同盟'이 그 셋이외다. 늘 하는 말이지만 사람 놈들이란 참말 寄寄怪怪 異常罔測한 놈들이에요, 그놈들의 말과같이 아마 萬能인가봐요, 더구나 朝鮮사람 놈들이 그런가봐요. 이놈들은 獨立에도 能하고 依賴에도 能하고 排日에도 親日에도 能하고, 自治에도 融化에도 能하고 또 主義에도 能한 듯해요.(中略)

글세 이것 보세요. 李完用같은 者는 오히려 徹底한 者이외다.(中略)

所謂 各派有志聯盟(國民協會, 相愛會等 그따위 附日派 十一團)이란 것이 지난달 下旬에 組織되지 않았습니까. 純 朝鮮놈들 끼리요. 아니 日本놈도 섞였습니다. 官民一致.大同團結 勞資協助 이런

綱領을 標榜하고 獨立은 架空이오 社會主義는 夢想이라 하여 바로 世界가 저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듯이 떠들지 않았어요.

所謂 京城호텔인가 무언가 한데서 開會式을 한다기에 어떤 놈들이 모여 무어라고 떠드나보자 하고 盤松宅 兄님을 보내어 알아오라 하였습시다. 그는 다녀오는 길로 깔깔 웃으며

“참 웃음이 나데, 여보게 들어보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디다.

“몰래 숨어들어가 보려니까 키다리 金哥놈, 日本놈같은 朴哥놈, 心術긋인 蔡哥놈 이놈 저놈 四.五十 놈이 모였는데 金哥 놈은 司會를 하고 蔡哥놈은 宣言을 朗讀하고 高哥놈은 經過를 報告하고 朴哥놈은 感想을 말하는데 정말 可憎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義憤도 나서 못보겠데.

毋論 그놈들과 나와는 相關이 없으니까 空然한 트집같지만 아무리 쥐라는 名色을 가졌기로 그래도 朝鮮 쥐인데 어찌 義憤이 없겠는가 말이야. 이때 정말 뜻있는 朝鮮 놈이 있더라면 實로 鞭이 터져 죽었을 걸세. 그놈들이야 말로 정말 日本놈 以上の 日本놈이데. 한바탕 떠들고 나서는 술이니 菓子니 한바탕 먹는 판인데 어떤 빌어먹을 놈들이 대었는지 설사가 나리만치 宏壯히 차려놓았데. 麥酒 가져오너라, 正宗 가져오너라, 위스키 가져오너라, 酒風이 일어났는데 中에 朴哥 놈은 氣高萬丈하여 팔을 뻗내며 이러구 저러구 하더니 허리춤에서 短刀를 꺼내들며 日本말로 ‘コレがボクノイノチダ(이것이 내 생명이다)’하고 바로 壯한듯이 누가 무서워나 할까 하고 도리어 卑怯한 示威를 하는 꼴이야말로 더럽다못해 可笑롭데. 어찌 우스운지...”(中略)

이리하여 서로 떠들기 始作하니 卽 朝鮮日報란 놈이 떠들고, 東亞日報란 놈이 떠들고, 時代日報 또는 開關이란 놈도 말하고 - 이리하여 재(灰)인지 불(火)인지 世上은 미지근(溫味)도 양한데 여러 놈이 들어붙어 키(箕)질을 하니 잣속에도 불이 있었는지라 이러구 저러구 왁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本來 - 뒷 長短이 있는지라 아니 뒤에는 돈 멍치가 있고 權力이 있고 絶對 禁物인 무엇까지도 가진지라 이놈들은 氣高萬丈하여 無法天地같이 橫行하였습니다. 卽 食道園이란 料理집에서 劉文煥이란 者를 불러 (朝鮮經濟會員으로 11團 聯盟에 加入하였다가 脫退하였다) 죽도록 때려주고 宋鎭禹 金性洙란 者를 그 場所에 또 불러다가 때리고 차고 凶器(?)로써 威脅까지 하여 宋이란 者에게는 잘못되었다는 謝書를 받고 金이란 者에게는 三千圓이란 金錢을 強要하여 一場風波를 일으켰다 합니다. 이 일이 世上에 發表되자 사람놈들은 더욱 憤慨하여 當局이란 者들을 非難하며 暴行者 그者들을 掃盡한다 하며 東亞側 그 者들을 卑怯으로 몰며 民衆大會가 무언지 所謂 民衆大會란 것을 發起하여 지금까지 떠들석하고 있습니다.

兄님 우리 쥐들도 그렇지만 사람들도 좀 - 獐毒한 편이 오히려 나온가 보디다. 아니 그 者의 自力的 獐毒이 아니라 뒤에서 시키는 者가 本來 獐毒한 者들이지요. 그놈은 그렇다 하고 所謂 新聞社長이란 그 者도 如干 좀 威脅을 한다고 ‘네 人身攻擊은 不可하외다’ 하고 敵이 집어주는 붓대를 받아 素書를 해준 것이야말로 정말 卑怯以上の 똥을 먹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金이란 者도 그렇지요, 毋論 돈이 많아 그랬겠지요. 그러나 물러고 들어오는 범의 악재기에 창이나 몽둥이를 던진다는 말은 있지만 돈주머니를 던진다는 말은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돈드리지요. 제발 좀 - 무섭게 굴지 마시오’ 하고 3,000원이나 許諾하고 이튿날 警務局으로 그 돈을 가지고 갔다(아주 바친 것은 아니다)는 말이야말로 宋만 못하지 않은 卑怯者였습니다. 自己는 一時 手段이었다 하나 그런 手段 두번만 쓰면 아주 납작할 것이라고 世上의 輿論이외다.

대개 이렇습시다. 사람 놈들의 하는 짓이란 것이.... 그 돈 3,000원을 우리 쥐들에게 주면 강냉이나 조같은 것을 限百石 사가지고 두둑히 노나 먹지요. 그리고 저희집 담벽에 구멍이나 아니똥지요. 呵呵.(下略)

(開關 1924.5월호)

5. 조그만 시련

육혈포 협박사건의 파문은 동아일보 사내에까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파급되었다. 이 사건이 있는지 20여일이 지난 4월 25일, 상무취체역 겸 편집국장인 이상협(李相協) 등이 고하의 인책을 요구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민족의 대변지인 동아일보의 사장이 부일도배(附日徒輩)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동아일보를 잡으려던 1차 음모에서 도리어 망신만 당한 마루야마와 '각파 유지연맹'은 제2차로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每日申報)를 시켜 사회면 톱으로 이 사건을 다루게 하여 야비한 욕설과 중상으로 인신공격을 하게 한 것이다.

매일신보가 고하의 사과문이라 해서 동판을 떼서 게재한 사진은 그날밤 고하가 박춘금에게 써 준 '증문'(贈文)이라는 이름을 붙인 쪽지였다.

"私談. 主義 主張은 反對하나 人身攻擊한 것은 穩當하지 못한 줄로 證함. 大正 13年 4月 2日 宋 鎮禹"

그 정도의 협박 속에서도 우선 서두에 사담(私談)이라고 못을 박고 또 서명에서도 동아일보 사장이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비판은 후세의 역사가에게 맡길 일이다.

또 하나의 원인은, 아직 초창기라 제반 기초가 불확실하고 관의 언론탄압은 거듭되어 재정이 균색한 데다가 아직 사업 경영에 경험이 적은 청년들의 모임으로서 기업경영의 합리화보다도 우국(憂國)의 감정과 열성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처리하려고 한 데서 생긴 부작용이었다.

그로 인해서 영업국장 홍증식(洪瓊植)을 중심으로 김모, 민모, 그리고 기자 상당수가 고하와 결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고하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전무 신구범(愼九範)과 함께 사장직을 물러났다.

고하가 잠시나마 동아일보 사장직을 떠난 것은 그 때문만은 아니었다.

1920년 이래 민족운동과 병행해서 혹은 뒤를 이어, 젊은 학생과 청년, 특히 일본 유학생들 사이에 신사조(新思潮)인 사회주의 사상 내지 공산주의 사상이 물밀듯 침투하여 들어왔으니, 이후 어느 시기까지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지 않으면 지식인 대우를 못받았을 정도로 일부 청년 식자 계급 사이에 퍼져가고 있었다. 그 무렵은 극히 적은 수나마, 일부 열성적인 실천가(實踐家)도 있는 반면에, 변변하게 연구도 하지 못한 청년 학생들이 머리를 필요 이상으로 길게 길러 늘이고, 색안경을 끼고, 굵은 '사꾸라'(벚나무) 몽둥이를 지팡이 대신 짚고, 한길을 활보하며 '사상가'인 체 '주의자(主義者)'인 체하던 때였다.

혈기에 찬 젊은 기자들 사이에 이러한 사조가 침투하지 아니할 리가 없었다.

또 이 시기를 전후하여 고하의 신문사가 문화 운동, 민족 운동의 한 중추적 역할을 사명으로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마는 그 반면에 기업으로서 육성되어 자립해야겠다는 경영 합리화 방침에 반감을 가진 젊은 기자들이 많이 동아일보를 떠난 것이다.

구한말(韓末)경부터 한일합병 이래 일본은 노골적으로 경제약탈의 마수(魔手)를 뻗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을 치르고 난 조선민족의 민도(民度)나 민족의식은 높아져 갔고, 더욱이 국제여론에 힘입은 바도 커서 국내외에서의 항일운동은 좀 더 고조되고 다각화(多角化)해졌다.

그러나 반면 기미년 이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제의 탄압과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혹은 민족의 장래를 절망시(絶望視)하기도 하고, 혹은 일제의 교활한 책략에 빠져서 본의이건 아니건간에 일제의 품에 안기우고 또는 유혹에 빠져드는 지도적 저명인사의 수가 늘어가고 있었다.

국내의 3.1운동의 중심적 인물 중에서도 그와같은 인사가 있어서 후에 이 사실을 안 민중은 놀라는 한편 분노와 허탈에 빠지는 사태도 있었다. 이럴 때마다 같은 동지로서 운동을 계획하고 지도하던 고하의 상심은 형언할 수 없었다. 서로 잘 알고 친한 사람들 사이에 놓기도 하고, 혹은 직접 만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도 하고, 일자리를 주선해 주기도 하

였으나 한번 떠난 그들의 태도는 더욱 더 멀어만 가는 듯하였다.

고하와 가까운 사이였던 송계 노병권(松溪 盧秉權)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3.1운동의 중심인물 중에서도 고하와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던 인사들이 일제에게 매수되어 변절하는 것을 본 고하의 비통과 상심은 말할 수 없었지요. 고하 자신도 누구 못지 않는 감시를 받았고, 음으로 양으로 사업은 물론 사생활까지도 방해와 구박이 막심할 때이지요. 자신이 그러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고하는 변절하는 옛 동지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여러가지로 손을 썼지요. 나도 고하의 간곡한 부탁과 그 우정에 감격하여 그동안 연구하던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에 대하여 지도를 받던 인사를 찾아가서 고하의 말을 전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여러번 만나 권고한 일이 있습니다. 별로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얻지 못했지요 만...”

민족운동의 수준과 수단이 높아가고 넓어지면서 지사(志士)들의 의견에도 보수적인 인사와 진보적인 인사로 나누어져서 시국관, 민족관 혹은 역사관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자주 생기게 되었다. 또한 일제의 민족지도자 사이를 이간하는 정책은 비단 민족진영에 한한 것만은 아니었다.

1917년 11월 러시아에서 공산혁명(共産革命)이 성공하고 이 혁명의 중심인물인 레닌은 그가 주장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즉 국제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 중심이 되어 형식적으로는 각국에서 모여든 지도적인 공산주의자나 일부 민족주의자까지도 규합하여 ‘코민테른’(國際共産黨)을 조직했다. 이어 각국, 각 민족에 그 지부를 조직하도록 자금을 공급한 바 특히 후진국이나 피압박민족에 비밀결사로서 공산당 지부를 조직하게 하였다.

이들 공산당 지부는 그 민족의 일부 젊은 층의 결사이며 탄압자에 대한 반항 단체였다. 이른바 ‘코민테른’은 조직된 각국, 각 민족의 지부에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각 지부는 이 지시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이에 대한 반대는 일체 허용되지 아니했다. 명령이나 지시를 거역한 자에 대한 코민테른의 보복조치는 문자 그대로 처참 가혹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각국 혹은 각 민족내에 조직된 공산당은 소련공산당(표면은 국제공산당)의 완전한 지배하에 움직이는 산하조직인 것이다. 즉 국가나 민족단위의 주권은 조금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 규약이나 행동강령은 레닌주의의 핵심인

1. 폭력혁명(暴力革命)
2. 프로레타리아 독재(獨裁)
3.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고 변함없는 근본원칙이 되어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까지 각국, 각민족의 공산당이 소련을 조국이라 부르고 ‘소련’의 지령이나 행동이나 결정사항은 비록 그것이 자기나라의 실정이나 일반 사리에 위배되는 일일지라도 무조건 추종해야만 했다. 설령 스스로 행동하려고 결정한 방침일지라도 소련의 지시가 있으면 헌신짝버리 듯 뒤집는 사례가 흔히 있었는데 이는 당시 코민테른의 지도정책이 절대적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공산혁명 이전에도 조선이나 중국, 일본인들 중에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에 관여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조선사람중 한일합병을 전후하여 시베리아 등지로 망명한 인사들 중에는 일찍 공산혁명에 참가한 사람이 있었다. 1918년 극동 노령 하바로브스크에서 이동휘(李東輝) 중심의 한인사회당(韓人社會黨)이 조직되었고 임시정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상해에 와서 고려공산당(高麗共産黨)을 조직한 바도 있다.

그러나 그당시의 망명객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산혁명에의 참가에 뜻을 두기보다 민족의식이 더 강했던 관계로 공산당의 힘을 빌어 조국광복에 도움이 될 수는 없을까 하고 협조했던 것이 사실인 것이다. 코민테른은 이러한 사정을 역이용(逆利用)하여 극동(極東)에서는 중국 상해(上海)를 활

동의 중심지로 삼았다. 당시 상해는 쇠망해 가는 청국(淸國)의 영토이지만 열강 각국이 이를 분할 점령하여 조계(租界)를 설정하니 그 조계는 점령한 나라의 영토로서 치외법권(治外法圈)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조계내에는 다른 나라의 망명객이 많이 숨어들어 온 바 본국에서 도망쳐 나온 정치범·국사범(國事犯), 또는 이를 잡으려는 밀정(密偵) 등등이 우글거렸다. 특히 한일합방후 본국을 떠난 한국 망명지사가 이곳에서 주로 프랑스조계(佛租界)에 모이게 되었고 기미년 이후는 이곳에 임시정부(臨時政府)가 설치되기도 했다.

1921년 소련은 상해에서 극동민족대회(極東民族大會)를 열고 각 민족대표를 참가케 하였다. 5월 8일에 열린 극동민족주의자 그룹회의에 참석한 조선사람으로는 박치순(朴致順), 이동휘(李東輝) 등이 중국, 일본 등의 대표들과 같이 참석한 것이 국제공산주의 회의에 참가한 최초의 기회인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다. - 그전에 임(林) 모라는 사람이 '코민테른'의 밀사로 일본에 파견된 기록도 있기는 하다 -

한국사람으로서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의식, 국가의식이 아직도 뿌리가 깊었고 또 국내외의 민족주의 인사들도 조국독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약소국가나 약소민족을 도와주겠다는 소련이나, 소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처음부터 적대시(敵對視)하지는 않았었고 또 그러한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주장과 감각에서 석연치 못한 데가 생기게 되어 한데 뭉쳐지지는 않았던 것이다.

조선 안에 공산주의자가 들어오고 그 운동이 형태를 보이게 된 것은 1922년경부터이다. 그것은 1922년 7월 일본에 공산당이 조직되고 이것이 코민테른 일본지부로 인정되기 전후하여 일본에 있는 한국유학생 사이에 이 사상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들이 본국을 자주 왕래하면서 국내의 학생·청년들 사이에 공산주의 사상이 침투했는가 하면 또 다른 면으로는 상해나 노령 하바로브스크 등지를 거쳐서 귀국한 망명객들의 수가 늘어나면서부터 그 사상의 물결이 퍼져갔다.

동경유학생인 원종린, 김약수, 정태성 등이 조직한 조선유학생 동우회가 국내에 들어와서는 일본 노동단체와 손잡고 계급투쟁의 행동실천을 선언한 것이 공산계급운동의 시초이다. 이들은 적은 일제가 아니라 일본과 조선의 지주와 자본가이며 따라서 민족주의자도 적대시하였다.

이 새 사상에 물들은 젊은층과 국내에서 갖은 곤경을 치르면서도 일본정치에 계속 항거하고 있는 지도자들 사이에는 시대적인 감각 차이도 없지 않았지만 점차 사상의 대립이 깊어간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기도 하다. 더욱이 중국 상해나 북쪽에서 본국으로 들어온 인사들 중에는 깊은 연구도 없이 새 사상에 동조하고 '주의자'인 체하는 것이 시대의 감각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고 일종의 우월감까지도 가져서 국내 지도자층과 또는 보수적인 가정의 가부장(家父長)과의 사이도 석연치 못했던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는 공산주의라고 하니까 가난에 쪼들리며 살아온 일부 민중은 막연한 기대속에 맹목적으로 동조하기도 했다.

국내에 있어서 신구대립(新舊對立)이 점차 싹터가는 것을 이용하여 총독정치는 재래의 민족진영과 이 새로운 층과의 마찰을 조장하고 있었고, 민족주의자 중에서도 새 사상에 뒤질세라 추종하는 무리들을 총동질하였다.

이와같이 조선민중 사이에 생긴 신구사상의 대립, 행동노선의 대립 및 충돌을 더욱 조장하여 민족 자체의 분열을 일삼게 하는 그들의 정책은 공산당이 민족 보수진영 뿐만 아니라 총독정치에 조직적인 항거세력이 될 때까지는 계속되었다.

초기의 공산주의자의 공격은 고하가 운영하고 있는 동아일보에 그 화살이 집중되었다.

고하는 몰지각한 사회주의자들의 비행도 엄정히 비판 보도하는 데에 힘썼지만 그 뒤에 숨어서 이를 직접 간접으로 조종하는 일제에도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아니했다. 그러는 반면 한편으로는 민족진영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 여기에서 이탈하려는 지도급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붙들고, 혹은 협조하는 데에 힘썼다. 그것은 국내외의 자질과 기백있는 청년 유학생들에 대한 직장을 알

선하는가 하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이 청년들과 끊임없이 접촉을 하면서 그들의 이탈을 막기에 힘썼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동아일보나 각 사립전문학교 혹은 중학교 선생 등의 직에 재직하다가 후일 대부분이 민족진영의 지도자로서 일하게 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동아'는 지방에 흩어진 일부 몰지각한 '주의자'들의 움직임에 자세히 조사 보도한 일이 있었다. 여기에 반감을 가진 그 동조자들이 주동이 되어 각지에서 동아일보 비매동맹(非買同盟)을 일으키는가 하면, 고하를 사회주의 세력의 반대파 대표자로서 공격을 집중하기도 했다.

또한 고하를 공격하는 자료로서, 고하가 주재한 '재외동포 위문강연' 당시에 수입된 의연금과 약소민족운동을 돕기 위해서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설산에게 송금했다는 자금을 설산이 횡령하고, 더욱이 설산은 그 자금으로 해외유학을 떠났다는 등 터무니없는 소문을 날조하기도 했다. 이 소문은 동경유학생들 사이에도 끈질기게 나돌아 고하를 공격하는 구실로 삼았다.

1920년 6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전로중국노동자회의(全露中國勞動者會議)에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李東輝)는 그의 심복인 한형권(韓馨權)을 파견하였는데 그는 레닌과의 회견에서 임정이 공산주의를 채택하겠음을 밀약(密約)하고 운동자금으로 60만 루블어치의 금괴를 받았다고 한다. 이 중에서 약 20만 루블어치는 모스크바에 있는 박치순에게 맡기고 나머지를 가지고 상해로 돌아왔다. 이동휘는 이 자금이 그가 조직한 고려공산당에 송금된 것이라는 이유로 임정이 모르게 이 돈을 사용하다가 결국 임정 내부에서 큰 말썽을 자초(自招)하게 되었고 고려공산당 내부에서도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 불분명한 자금의 용도와 행방을 추궁받자 이동휘는 그중 일부를 국내 공산당의 조직자금으로 송금했다고 해명함으로써 말썽은 서울에까지 번졌다. 자금의 유입(流入) 사실 자체도 불분명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도 밝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휘에게서 이봉수를 거쳐 5만원이 장덕수 또는 최팔용에게 전해졌거나 또는 이동휘에게서 김철수(金綴洙)를 거쳐 장덕수 또는 최팔용에게 전해져서 잡지 《신생활(新生活)》의 창간에 쓰여졌다는 등의 풍문이 있었다. 소위 사기공산당(詐欺 共產黨事件)이 이것이다.

이리하여 다른 이유도 겹쳤지만 고하는 1924년 5월에 동아일보 사장의 직을 사퇴하였다. 이어 인촌도 취체역(取締役)을 사임하였다. 이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하여 감사역(監査役)의 허헌(許憲)을 취체역으로하여 사장 직무대리(社長職務代理)를 맡게 했다.

뒤 이어서 1924년 5월 14일 명월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갖고, 취체역에 남강 이승훈(南岡 李昇薰)과 벽초 홍명희(碧初 洪命熹), 그리고 허헌(許憲), 윤홍렬(尹洪烈), 양원모(梁源模) 등 5인을 보선(補選)하고, 사장에는 남강이 추대되었다.

남강은 구한국 시대부터의 우국지사였고, 3.1운동에는 고하의 권고로 기독교계를 뭉쳐서 끌고 참가한 대표적 인물이다. 또 남강은 비록 연령에 있어 고하와 25-6세의 차가 있는 대선배였으나, 독립운동 전선에 있어서는 서로 굳게 믿는 동지였다.

남강이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하기 석달 전인 2월 18일은 남강의 회갑이었다.

이때 고하는 이 선배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하여 기념품과 함께 서화첩(書畫帖)을 만들어 벽초를 통해 보냈다. 이 서화첩은 위창(葦蒼 吳世昌)을 비롯하여 관재(貫齋 李道榮), 석정(石丁 安鍾元), 성당(惺堂 金敦熙), 춘곡(春谷 高羲東), 이당(以堂 金般鎬), 심산(心汕 盧壽鉉), 청전(靑田 李象範) 등 당대 명가(名家)의 서화로 꾸며진 것이었다. 이 서화첩의 서두에는 고하 자신이 다음과 같은 기념사를 써서 실었다.

南岡 李昇薰 先生 回甲 紀念文

거짓을 모르고, 게으름을 모르고, 몸과 집을 모르고, 오직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각하고, 다니고, 말하고, 일하고, 옥에 들어가기에 늙으신 남강선생은 우리 민족의 은인이요, 모범이시다. 이 어른을 기념하기야 우리 동포의 가슴의 새김에 있거니와, 이번 육십일수를 축하함을 기회로 하여, 사

모하고, 오래 살아 일하소서 하는 참뜻을 표하고저, 이것을 받들어 드린다.

救主降生 1924年 2月 18日

東亞日報 社長 宋 鎮 禹 謹書

남강이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하면서, 주필 겸 편집국장에게 홍명희, 영업국장에게 양원모 등이 임명되었고, 사원에도 적지 않은 변동이 있었다. 논설반 기자에 윤홍렬(尹洪烈).조동호(趙東祐).정인보(鄭寅普), 정치부장에 최원순(崔元淳), 경제부장에 한기악(韓基岳), 지방부장에 구연흠(具然欽), 정리부장에 조동호(趙東祐), 논설반 겸 조사부장에 이승복(李昇馥) 등, 만화반기자에 노수현(盧壽鉉) 등, 촉탁기자에 선우전(鮮于全).이관용(李灌鎔) 등이었고, 업무방면으로는 서무부장에 김철중(金鐵中), 사업부장에 홍성희(洪性憲) 등이 있었다. 또한 후일 공산당 당수가 된 박헌영(朴憲永)이 이 당시 영업국에 사원으로 있었다.

이와 같이 동아일보는 다시 정비되었지만, 가을에는 인촌을 다시 동아일보 고문(顧問)으로 추대했다. 다시 얼마 뒤인 이해 10월 21일 명월관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임기만료된 임원을 개선한 결과 김성수.장덕수.홍명희.윤동렬.허헌.양원모의 6인을 선출, 인촌을 사장에 추대하고, 고하와 남강을 고문(顧問)으로 맞았다.

이리하여 이해 4월 이래의 사내(社內) 파동은 5개월만에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안정과 비약을 기약하게 되었다. 해가 바뀌어서 1925년 4월 벽초는 육당 최남선이 경영부진으로 손을 떼 《시대일보(時代日報)》를 맡아, 동아일보를 떠났다.

벽초의 뒤를 이어 고하는 고문(顧問)으로부터 주필(主筆)의 직을 맡게 되었다.

동아의 사장이 남강에서 인촌에게로 돌아가게 결정된 1924년 10월의 동아일보 주주총회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의가 이루어졌던 것을 기록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때 동아일보사 정관(定款) 중에 '주주(株主)는 조선인(朝鮮人)으로 한(限)함'이라는 일항(一項)이 첨가된 것이다. 한민족의 표현 기관으로 출발한 동아일보는 이리하여 그 조직의 성격을 이렇게 문서화한 것이다.

이무렵 고하는 <무엇보다도 '힘'>이란 제하(題下)에 우리 국민의 단결을 주장하고 민족의 봉공심(奉公心)을 호소하는 글을 《개벽(開闢)》지에 기고(寄稿)한 바 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단점이며 결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 전문을 전재(轉載)한다.

무엇보다도 '힘'(最近의 感)

宋 鎮 禹

왜 오늘날 우리가 弱者가 되었는가 하면 누구든지 그 答案에는 甚히 簡單하고도 明瞭하게 하리라. 다못 힘이 없으니까 弱者가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로 하여금 弱者가 되는 것을 가장 光榮으로 생각하고 또한 幸福으로 생각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萬一 그렇지 아니하고 弱者가 되는 것이 人生의 苦痛이며 또한 社會의 한 悲劇이라 하면 우리는 하루라도 弱者가 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그 方法을 研究하여야 할 것이다.

果然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 모든 事物의 原動力이 될만한 힘이 없는 것이 事實이다. 勿論 힘에는 腕力도 있겠고 金力도 있겠지만 우리의 오늘날 要求하는 힘은 團結力이다. 團結力이 없으므로 弱者가 된 것이다.

보라! 倭少한 大和種이 어찌하여 巨大한 歐米人과 競爭하며, 또한 無産者만으로 組織된 勞農露國이 어찌하여 資本主義의 列強을 能히 對抗하는가? 勿論 個人으로는 軀殼의 大小를 따라 腕力의 優劣도 있을 것이며 또한 社會의 制度에 依하여 金力の 有無도 懸殊할 것이다.

그러나 團體의으로서 能히 競爭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凌駕하려 하며 能히 對抗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征服하려 하는 것이 그 무슨 까닭인가. 오직 그네에게 團結力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 오늘 날 우리가 무슨 主義니 思想이니 하여 如何히 宣傳하며 如何히 鼓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主義와 思想을 實現할만한 團結力이 없어서는 貧僧의 空念佛에 不過할 것이다.

우리가 지나간 3.1運動의 實際的 經驗을 考察하여 보아도 明瞭할 것이다. 宣傳이 不足한 것도 아니며 思想이 薄弱한 것도 아니건마는 最後의 功을 奏치 못한 것은 勿論 大勢의 關係도 不無할 것이나 이 運動을 統一 繼續할 만한 中心的 團結力이 不足하였던 것이 不誣할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主張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모든 主義와 思想의 實現에 土臺가 되고 根底가 될 만한 '힘', 곧 團結力을 準備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라고 본다.

보라. 大戰以後의 露獨 兩國이 無前한 變亂과 改革을 繼續하면서도 依然히 自體의 生存權을 維持하는 것은 兩民族의 團體的 訓練이 무엇보다도 偉大한 것을 看破할 수 있으며 中國과 墨國이 今日까지 慢性的 革命病에 걸려서 온갖 醜態를 演出하는 것도 個中の 消息을 傳하는 것이 아닌가.

要컨대 問題는 團結力이다. 換言하면 團結力은 各個人의 心力이다. 心力, 곧 奉公心이 發達된 民族은 强者가 되어 優者가 되고, 奉公心이 薄弱한 民衆은 弱者가 되며 賤者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缺陷은 奉公의 不足이다. 奉公이 不足하므로 紛糾가 生하며 猜忌가 起하여 모든 惡을 行하게 된다. 이리하여 團結을 破壞하게 된다. 結局 우리를 弱하게 한 者는 우리요,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弱하여 自滅할까, 強하여 自立할까. 이것이 곧 우리가 우리의 運命을 自決하는 分岐點이다.

萬一 强者가 되자면 힘이 있어야 되겠고, 힘이 있자면 團結하여야 되겠고, 團結하자면 各個人의 奉公心을 喚起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을 더욱 實感하는 바이다.

《개벽(開闢)》總 46호(제5권 4호 1924년 4월 1일 발행)

6. 범태평양회의 참석

사장에 인촌, 주필에 고하가 취임하여 다시 안정을 되찾은 동아일보는 눈부신 비약을 재개하였다.

동아일보는 이보다 앞서 고하가 아직 사장으로 있고, 사내(社內)에 동요가 일어나기 직전인 1924년 4월 1일에 창간 만 4주년 발전 기념사업이라 하여, (1) 지방판 발행(地方版發行) (2) 사옥 신축(社屋新築) (3) 윤전기 증설(輪轉機增設) (4) 각지방 순회(各地方巡廻) 등을 계획한 바가 있었다.

이 중 첫째 지방판 발행은 그 해 4월 1일부터 중앙판(中央版), 삼남판(三南版), 서북판(西北版)의 삼판(三版)을 발행하기 시작했으나, 그밖의 사업은 이 계획 발표 직후부터 시작된 사내의 불안정으로 일시 중단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육혈포사건이 있기 전인 이해 3월 중순경 신축사옥의 부지로 동아일보 현사옥인 광화문통(光化門通 - 지금 世宗路) 139번지의 대지(垞地) 4백여평을 7만원에 사들였었다. 그러나 박춘금의 육혈포 사건과 뒤이어 일어난 사내 파동(社內波動)으로 사옥 신축은 무기 연기하게 되었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뒤에 다시 말하겠거니와 1925년 9월에 착공하여 26년 12월에 준공되었다.

셋째 계획인 윤전기는 그해 1924년 12월에 일본 동경기계회사에 주문, 1925년 4월 25일에 15,000원으로 도입, 5월 9일부터 인쇄를 개시하니, 이것이 한국 신문계 최초의 자동 타첩식(自動打疊式) 최신 윤전기이다.

넷째 계획인 각지방 순회는, 1925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지방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을 살살이 파헤치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하고, 교육.산업.사상계를 비롯하여, 각종 단체. 관공서를 역방하여 각 계급의 생활 상태는 물론 애화(哀話), 기담(奇談), 풍경, 고적까지도 일일이 조사하여 신문에 발표하기로 한 거창한 문화사업이다. 1925년 1월부터 3월까지 제1진으로 선발된 기자는 남대(南隊=경상도 일원)에 유완희(柳完熙), 북대(北隊=평안도 일원)에 임원근(林元根)이었고, 김동환(金東煥)이 뒤에 보충되었다. 이 사업은 그 뒤에도 상당기간 계속되었다. 기자 양성의 제1회 실적은 전국 지국 및 분국중 5개소에서 기자 5명을 선발하였다.

또한 한국 신문계 최초의 시험으로 소설, 논문 등의 현상 모집을 시도한 것도 이 무렵이다. 소설과 논문에 각각 1천원씩의 현상을 걸고, 소설은 '춘향전(春香傳)' 개작, 논문은 '경제파멸(經濟破滅)의 원인 현상 및 그 대책'을 그 제목으로 하였다. 마감일인 1925년 3월말까지 소설은 수십인의 응모가 있었으나, 입선권내(入選圈內)에 드는 작품이 없어 춘원 이광수에게 위촉, 《춘향(春香)》이라는 제목아래 그해 9월 말부터 96회를 연재하였고, 논문은 서울의 배수성(裵秀星=裵成龍)이 입선하여 1925년 8월부터 연재되었던 것이다.

한편 고하는 주필로 취임한 즉시 동아일보 사가(社歌)를 공모했다. 공모 사가의 취지는 2천만 '민중의 표현 기관'과 '민주주의'와 '새 문화의 건설'이라는 3대 사시(社是)를 근본으로 하여, 부르기 쉽고 알기 쉬우면서도 아름다운 가사(歌詞)이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응모 작품 가운데 해당작이 없어 춘원 이광수에게 위촉하여 작사케 하고, 김영환(金永煥)이 작곡을 맡았다.

東亞日報社歌

(東亞日報 1926. 1. 16)

一 二千萬 가슴속에 즐던 自由魂
 깨어라 소리치어 自由의 소리
 날날이 새 힘 자라 새는 날마다
 영원히 외치도다 자유의 소리

후렴

東亞日報 東亞의 鐘소리 自由鐘소리
 二千萬 自由魂의 외치는 소리
 萬國에 울려라 萬歲에 울려라

二 이 붓대 보았는가 正義의 붓대
 義 아닌 것 보고는 못참는 붓대
 차라리 義에 싸와 꺾일지언정
 곧고 곧은 그 節概 휘지 못하네

三 햇불은 들렸도다 眞理의 햇불
 三千里 우리 강산 두루 비추려
 옛 歷史 새 精神 타는 光明은
 千萬代 내려 傳할 眞理의 햇불

四 願컨대 북이 되어 사랑의 꾸리
 끝없는 실을 끌고 同胞의 가슴
 날날이 들며나며 二千萬魂을
 짜리라 새 朝鮮의 빛난 깃발로

이무렵 일제는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을 공포하였다. 일본에 공산주의가 들어온 것은 1921년 여름, 소련이 상해를 중심으로 극동 민족대회를 주최한 후 운동자금을 지원하며 코민테른 일본지부를 조직 결성하게 한 것이 시초이다. 다음해인 1922년부터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날이 갈수록 조직은 커가기만 할 뿐 아니라 조직 본래의 행동강령이 그러하듯이

1. 자본주의 제도 부인(資本主義制度否認)
2. 천황제(天皇制)를 포함한 국체부인(國體否認)
3. 농민·노동운동(農民勞動運動)을 극렬화하여 과격한 행동과 극한 사태를 빈번히 일으켜 사회 불안의 조성

이러한 사태를 철저히 단속하는 법으로서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주로 공산운동을 중벌(重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민족운동이고 사회운동이고를 막론하고 대체로 이 법이 확대 적용되었으며 이외에 전부터 내려오던 제령위반(制令違反)으로 처벌받게 되어 혹독한 탄압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192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게 된 이 악법의 공포에 대해서 《개벽(開闢)》지 {총 60호(1925년(大正 14年)6월호)}는 국내 명사들의 설문(設問)을 모아 게재한 바 있다. 이 기사를 통하여 당시 고하의 견해를 엿보기로 한다.

治安維持法の 實施와 今後의 朝鮮 社會運動에 關한 設問.

1. 朝鮮社會運動의 今後 趨勢 如何.
2. 朝鮮社會運動의 今後 方針 如何.
3. 社會運動과 民族運動과의 今後 關聯 如何.

이 설문에 응답해 온 인사는 朝鮮農總同盟 權五高,
 朝鮮青年總同盟 李英,
 新興青年同盟 曹奉岩,
 서울青年會 李廷允,
 火曜會 金燦,
 社會主義同盟 金解光,
 北風會 辛鐵,
 東亞日報社 宋鎮禹,
 辯護士 李仁,
 時代日報社 洪命憲,
 京城青年會 宋奉瑀,
 朝鮮日報社 辛日鎔,

宋鎮禹의 答

1. 첫째는 表面運動보다 裏面運動이 熾烈하여 갈 것이며, 둘째는 在來의 紛糾 混雜하였던 運動線이 外國의 壓迫으로 因하여 各國의 反省을 促하는 同時에 統一 團結의 氣分을 釀成할 것이다.
2. 外部宣傳보다 內部的 組織을 緊着케 하여 實際的 勢力을 樹立하는 것이 必要치 아니할까.
3. 外來의 共通된 壓迫과 現下의 共通된 生活不安으로 因하여 더욱 더욱 提携協調의 關係가 發生할 것이다.

(이상 설문에 대한 회답문답이 宋鎮禹의 회답과 대부분 대동소이한데 특히 제3설문에는 曹奉岩, 李英의 의견이 동일하였다.)

고하가 동아일보 발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이번에는 외국에서 초청이 있었다. 그것은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제1회 '범태평양회의(汎太平洋會議)'의 초청이었다. 이 회의는 태평양 연

안에 산재해 있는 각 민족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제1부에서는 문화.종교.교육.사상.습관.예술 문제를, 제2부에서는 경제와 상업 문제를, 제3부에서는 인종과 인구 문제를, 제4부에서는 정치 문제를 각각 토의하기로 되어 있었다. 여기에 초청된 것은 조선을 비롯하여 미국.호주.캐나다.일본.중국.필리핀.뉴질랜드 등이었다.

이 '범태평양회의'에 고하는 한민족대표의 일원으로서 신흥우(申興雨).유억겸(兪億兼).김양수(金良洙), 그리고 미국에 머물러 있는 서재필(徐載弼).김활란(金活蘭) 등과 함께 참석하기로 되었다. 고하는 동아일보 특파원 자격을 겸하여 장도에 올랐다. 여행 도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항과 회의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하기 위해서였다.

일행 중 국내 네 대표는, 총독부의 알가알부로 여권 발부가 예정보다 늦어져서 1925년 6월 15일에야 일본 요코하마(橫濱)를 거쳐 미국 여객선 '프레지던트.윌슨'호로 떠나게 되었다.

선중(船中)에서 대표들은 소회의(小會議)를 열고, 범태평양회의에서 한민족 대표가 제출.토의할 의제를 의논했다.

첫째, 약소민족 문제의 합리적 해결.

둘째, 경제적 제국주의의 타파.

셋째, 각 민족의 국수적 교육(國粹的 教育)주의를 타파하고, 인류 평등의 대원칙에 기본을 둘 것.

등의 기본 원칙을 결정했다.

고하는 항해 도중에 배 위에 서서 망망한 태평양의 거센 물결을 바라보면서, 꿈결같이 지나간 지난날의 일들, 앞으로 닥쳐 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의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때 고하는 태평양 선상에서 한시 1수(漢詩一首)를 얻었다.

南北東西不見洲 (사방을 바라보아도 물가는 안 보이는데,)

連天水色閑行舟 (하늘과 맞닿은 물빛속에 뱃길만 한가롭구나.)

安將眼下太平洋 (언제러나 눈아래 태평양 물로,)

滌盡人間萬古愁 (만고에 쌓이고 쌓인 인간의 수심을 깨끗이 씻어 볼까.)

고하는 배 속에서 열린 무도회(舞蹈會)를 난생 처음 보았다. 남녀가 껴안고 돌아가는 품이 어쩐지 이상하고 야릇하게만 보였다. 춤추는 사람들은 모두 백인 남녀들뿐이었다.

이리하여 일행은 배를 탄지 아흐레만에 그해 6월 24일, 회의가 열리는 땅인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상륙했다. 도착하자마자 하와이에 거류하고 있던 우남 이승만(雲南 李承晩)을 비롯하여 교민총단(僑民總團).지방단(地方團).동지회(同志會) 등, 동포들의 따뜻한 영접과 이 단체들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을 받았다.

우남은 이 자리에서 인촌의 안부를 물었다.

"두 분이 국내에서 얼마나 고초를 겪고 있소? 모든 고초를 당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여러 동지들과 같이 당하지 못함을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소"

하고, 우남은 고하와 인촌을 위로하고, 또 찬사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고하와 우남과의 해후(邂逅)는 고하가 동경 유학시절이래 15년만의 일이었다. 이에 앞서 고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승만으로부터 <자유와 단결>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입수하여 1924년 4월 23자 동아일보에 게재하는 등 간접적인 연락은 계속하여 있어왔다.

고하는 하와이에 체류하는 동안 틈 있는대로 우남을 만나서 국내와 국제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우남은 고하의 손을 잡고 회의가 끝나더라도 이곳에 머물러서 같이 일하자고 간곡히 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하는 국내 문제를 저버릴 수 없는 사정을 이야기했다.

"국외 문제는 박사께서 맡으셔서 잘해 주시고, 국내 문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한민족 대표 4인은 우남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한편, 6월 26일 '범태평양 회의'에 제출할 최종 안건을 토의했다.

- 첫째, 조선에 대한 민족 평등의 원칙.
- 둘째, 교육 문제.
- 셋째, 경제 문제.
- 넷째, 조선·만주에 대한 인종적 감정을 제거하는 방법.

등이다. 그리고 한민족 대표의 주장의 기초문(基調文) 등을 채택했다.

“- 조선에서는 현재 입법기관이 없이 일본 총독(總督)이 제령(制令)을 공포·시행하고 있으며, 그 제령을 일본천황(天皇)이 사후 재가(裁可)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제령에 의하여 형(刑)을 받고, 또한 ‘재가’가 거부되더라도 ‘제령’이 발표된 후 받은 형은 사면(赦免)의 혜택이 없다. 일경(日警)은 재판의 수속을 밟지 않고, 즉결 처분으로 형량(刑量)의 경중을 막론하고 집행한다. 이로 인하여 1년에 몇 만명이 희생된다.

- 조선에서는 현재 조선 총독부의 교육령에 의하여 실시되고, 일본천황에 충성을 다하게 하는 교과과정(敎科課程)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일어(日語)를 강요한다. 요컨대 인격이나 인류의 도의를 망각하고, 일인(日人)에게 동화(同化)되기를 강요하고 있다.

- 조선에서는 현재 모든 경제정책이 조선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조선의 재산을 일본의 정치적·경제적 권익 확충에 제공하는 데 오용(誤用)되고 있다. 그리고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는 구한국시대에 공동으로 설립된 것인데, 한일합병(韓日合併) 후에는 일인을 한국에 이민 시키는 데 이용하는가 하면 농지를 그들 이민의 소유로 돌리는 운영 방침으로 움직인다.”

이리 하여 대표들은 회의에 임하여 한민족의 억울한 사정을 토로·호소하고, 일제의 만행을 규탄했던 것이다.

한편, 고하는 동아일보 특파원으로도 크게 활약했다. 각국의 명사 대표들의 회견기(會見記)를 본사로 보내어 보도케 했다. 미국 존·홉킨스대학 교수 윌로비의 <내부적 단결을 하라>라든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행되는 《프레스노 리퍼블리칸》지(誌) 사장 노웰의 <3.1운동의 대중의 유혈(流血)은 위대한 흔적이다>라든가, 호주 멜보른 대학 교수 로버츠박사의 <문제의 해결은 민족 자체에 있다>라든가, 미국의 유명한 신문기자 윌리엄·화이트의 <조선의 전도에는 찬란한 광명이 있다. 낙심은 금물이다>라든가, 미국 하바드 대학 교수 윌슨의 <고통의 폭발은 각성의 표징(表徵)이다>라든가, 필리핀의 변호사 베니테스의 <찬란한 옛문화와 끈기 있는 국민성으로 민족적 향상을 기원한다>라든가 하는 것들이 그것이었다.

7. 명논설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고하는 하와이의 범태평양회의를 마치고, 그해 8월 하순에 귀국했다. 그는 귀국 도중 항시 생각해 온 바, 그의 곧은 천성과 사색과 체험에서 얻어진 신념과 역사관, 그리고 하와이 회의에서의 연설자료를 기초로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라는 선각적인 예언의 일대 논설을 썼다. 말하자면 고하의 민족지도자로서의 한국민족의 장래에 대한 소신을 피력한 탁견이었다.

이 논문은 귀국 후 그해 8월 28일부터 15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다.

世界大勢와 朝鮮의 將來

(東亞日報 1925.8.28-9.6)

1

우리는 朝鮮사람이다. 그러므로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새가 樹林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到底히 朝鮮을 떠나서는 또한 朝鮮을 잊어버리고서는 一刻一秒라도 설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 이리하여 자거나 깨거나 듣거나 보거나, 잊으려 하여도 잊을 수 없는 것이

現下 우리 同胞의 心理的 狀態인가 한다. 그러면 朝鮮을 위하여 웃을 사람도 우리 同胞요, 또한 朝鮮을 위하여 웃할 사람도 우리 兄弟일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朝鮮 過去의 興替的 史實을 追究하며 또한 朝鮮이 世界 構成의 一部分인 以上에는, 現下의 世界와 朝鮮과의 影響 關係의 現狀을 그대로 冷靜하고 嚴肅하게 觀察하여서 朝鮮民族의 當來의 運路를 開拓 努力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緊且切한 問題일 것이다.

2

勿論 朝鮮의 將來를 論究하는데 있어서는 外部的으로 重要的인 影響 波動이 關係를 가진 世界의 大勢도 要緊한 材料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도 더욱 重且大한 關係를 包含한 것은 內部的으로 朝鮮民族 自體의 過去 歷史上 興替盛衰의 因果關係이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過去 四千年間 興替盛衰의 史實을 概括的으로 一論하려고 하는 바이다.

勿論 過去의 朝鮮에는 表面的으로 觀察하면 檀君大皇祖의 登極肇判하신 以後로 箕子.箕準의 朝鮮도 있었고 衛滿의 朝鮮도 있었고 또한 辰韓, 弁韓, 馬韓과 高句麗, 新羅, 百濟의 分裂된 朝鮮도 있었다. 이리하여 이를 統一組織하였던 新羅의 朝鮮과 또한 이를 統一繼承하여 온 高麗의 朝鮮과 李朝의 朝鮮이 있었던 것도 歷史的 事實이었다.

3

그래서 四千年을 通하여 歷史的 變遷과 政治的 興替가 反覆無常하였다. 그러나 언제든지 朝鮮人의 朝鮮이라는 觀念은 없어져 본 일이 없었으며, 또한 實體的으로 想像할 수도 없었던 것은 嚴肅한 史實이다. 換言하면 三國의 分裂은 그 當時 政治 當路者의 分裂이며 新羅.高麗.李朝의 滅亡도 또한 그 當時의 王位交代의 興亡變遷에 不過하였던 것은 昭昭한 史實이 아닌가. 어찌 그러나 하면, 歷代 王朝의 變遷 興替에 따라서 萬一 朝鮮이 滅亡하였다 하면, 어찌하여 四千年來로 朝鮮民族의 文化가 依然히 保全할 수 있었으며, 또한 朝鮮民族의 血統이 儼然히 存在할 수가 있는가. 更히 一例를 舉하면, 美國의 民主.共和 兩黨이 競爭 交替하여 美國의 政權을 接受相傳하는 동안에 或은 共和黨이 勝利를 得하며 或은 民主黨이 失敗에 歸하여도 누구든지 決코 美國 自體의 動搖興替로는 보지 아니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意味에서 歷代 王朝 自體의 政治的 興亡에 不過한 것이 고 決코 朝鮮民族 自體의 全體的 滅亡, 根本的 滅亡을 意味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에서 굳게 斷言하는 바이다.

4

우리는 前欄에서 歷代 王朝의 興廢는 政權爭鬪의 手段方法에 不過하였고, 朝鮮民族 全體의 文化 및 生活에 들어서는 直接의 變化와 影響이 없었던 것을 說破하였다. 이것은 歷代 王朝가 恒常 民族生活의 土臺에서, 또는 民衆文化의 發展에서 政權을 運用하며 經綸을 施設하는 것보다, 王家 自體의 發展 또는 政權 維持의 目標에서 政治的 理想이 局限되었던 事實이었다. 그러므로 歷代 王朝의 興廢에 對하여 그 當時 王朝의 特殊的 恩寵을 받는 特權階級을 除하여 놓고는 一般의 民衆은 그다지 直接으로 生活上 利害의 感受性이 稀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어떤 王朝에 對하여는 그 暴虐無道의 政治的 變革을 期待하였던 적도 없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歷代의 事實에도 특히 吾人의 注意를 促하는 것은 過去 無常한 政治的 變革에 언제든지 異民族의 勢力으로 오랜 동안 干涉 或은 統治하는 것은 絶對的으로 拒絶하여온 事實이다. 이것은 元來부터 朝鮮民族의 血統이 極히 純粹하고 또한 言語와 禮俗이 異民族의 그것에 比하여 恒常 卓越優秀하였던 關係인가 한다. 回顧하여 보라. 李世民의 精銳로도, 隋楊廣의 強暴로도, 或은 安市城의 隻影이 되며 或은 淸川江의 孤魂이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最近의 政治變革의 史實은 如何한가. 半島의 政權이 李朝에 歸한 以後 壬辰.丙子の 兩大 戰役이 있었다. 이리하여 民力의 疲弊가 極度에 達하였었다. 그러나 이를 改革濟度할 巨腕의 政治家가 없었던 것도 事實이어나와 世界의 大勢는 帝國主義의 勃興과 東洋航路의 發見으로 因하여 西力東漸의 大勢를 馴致하였었다. 이리하여 隱士國의 朝鮮은 漸次로 世界的 朝鮮이 되어가며 閉鎖하였던 半島는 猝地에 列強의 角逐場으로 化하려 하는 形勢가 顯著하였었다. 이러한 氣運을 看破하고 四千年來의 新機軸을 展開하여 一大變革을 試하려 하였던 것이 距今 三十年前의 甲申政變이었다. 그러나 時運이 不至한지라 우리들의 先覺 金玉均 一派는 千秋의 恨을 抱하고 畢竟 殊邦異域에서 不歸의 客이 된 것은 아직도 우리들의 記憶이 尙新치 아니한가. 그러나 이것도 또한 極少數의 覺醒으로써 四千年來의 굳어온 民族 全體의 思想을 根本的으로 一時에 改革하려 하였던 것이니, 어찌 無理가 아니라. 爾後의 形勢는 如何하였던가. 繼續된 李朝의 虐政과 澎湃한 西勢의 東漸은, 或은 宗教로, 或은 商船으로 滔天의 勢를 示하였다. 이리하여 東學黨을 中心으로 한 民衆의 叛亂이 起하였었다.

그러나 이 또한 鎖國.攘夷의 舊思想에서 그 運動의 胚胎가 生한 結果 한갓 日淸戰役의 大事端을 惹起하였을 뿐이오, 民衆 自體에 對하여는 何等의 收穫이 없었던 것이 事實이었다. 이 곧 甲午東亂이 아닌가.

그러면 그 後 形勢는 如何하였는가.

累千年間 被活의 地位에서 服從과 壓制에 굳어온 民族의 頭腦는 新文化에 對한 覺醒이 遲鈍할 뿐 아니라, 所謂 導率儀範의 地位에 處한 貴族階級은 私利와 黨爭이 奔汨沈溺한 結果 四千年來의 祖傳父授하여 온 政治的 權力은 日露戰役의 終焉으로 因하여 異民族의 手中에 移轉하게 되었다. 이 곧 庚戌의 合併이 아닌가. 그러나 이에서 瞠若寒膽이 된 朝鮮民衆은 更히 現代의 文明에 對하여 驚異의 眼을 開한 同時에 民族的意識을 또다시 發見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 곧 1919年 3.1運動의 發端인가 한다.

적어도 一九一九年의 三.一運動은 朝鮮民族에 對하여 四千年 以來 輪回 反覆하여 오던 東洋의 生活樣式을 精神上으로나 文化上으로나 政治上으로나, 根本的으로 民衆的으로, 破壞 建設하려 하는 內在的 生命의 爆發이었다. 그러므로 朝鮮歷史에 있어서 처음 보는 運動인만큼 그 意義가 深長하고 그 關係와 影響이 重且大한 것도 勿論일 것이다. 어찌 그러나 하면 過去 幾千年間의 歷史上으로만 表現된 幾多의 改革과 戰亂이 있었으나, 그 內容과 實質에 있어서는 少數階級의 政權 爭奪의 變革이 아니면 尊周攘夷의 思想에서 胚胎되며 出發하였던 것은 不誣할 史實이었다. 그러나 最近 三.一運動의 一件에 至하여는 그 內容과 形式을 一變하여 적어도 思想의 根抵가 世界의 大輿論인 民族의 自尊과 人類의 共榮의 正義 人道의 觀念下에서 全國的으로도 民衆的으로 刀劍裡 鐵鎖間에서도 毅然히 立하며 泰然히 動하였던 것은 어찌 朝鮮民族의 革新運動 史上에 一大奇蹟이 아니며 一大偉觀이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奇蹟 偉觀을 演出케 한 그 原因이 那邊에 在할까. 이곳 一論을 試코자 하는 바이다. 勿論 朝鮮의 革新運動은 그 起源을 甲申政亂에서 求하는 것이 正當한 經路일 것이다. 어찌 그러나 하면 甲申政亂의 思想的 根抵가 在來의 政權與奪과 尊周攘夷의 思想과는 그 範疇를 달리 하여 적어도 現代文明을 肯定하여서 民族的 福利를 企圖하는 點에서 起因된 까닭이라 한다.

勿論 그 運動의 土臺가 極少數階級の 覺醒에 出發하였으므로, 桑榆의 功을 收치 못한 것은 千秋의 恨事라 할지라도, 그 開國尊民의 大理想에 至하여는 岩壁으로부터 落下된 物體가 그 目的地에 達하기 前까지는 沮止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爾來 三十餘年을 通하여 一波가 萬波가 되며, 私語가 輿論이 되며, 或은 獨立協會가 되며, 或은 自強會가 되며, 或은 大韓協會가 되며, 或은 學校와 學會가 되어 一進一退 一縮一張의 無數한 變動과 許多한 試鍊을 經過한 것이 過去의 事實이었다. 그러나 더욱이 朝鮮民族의 急激한 衝動을 起케 하고 加速의 覺醒을 促進케 하였던 것은 庚戌의 大變이다.

9

이리하여 朝鮮民族은 會心反省의 機會를 作하였으며, 또한 舊文化의 反抗을 試하였었다. 村塾이 學校로 變하며, 道院이 生徒로 變하며, 爾來 十年間을 社會的 細胞인 個性의 變化를 惹起하게 되었다. 또한 同時에 寺內總督의 舊文化群의 武力的 反抗思想의 轉換策으로 盛히 同化主義의 新式教育을 勵行하였었다. 그러나 寺內的 無理한 同化政策은 四千年동안의 訓練된 民族의 精神을 破壞하기에 너무나 微弱할 뿐만아니라 도리어 民族의 感情을 刺激하는데 있어서 그 功效가 莫大하였던 것을 이에 忌憚없이 斷言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그 所謂 同化政策은 도리어 民族意識을 喚起하는 一方으로 一般的으로 普及된 新式教育은 新文明의 肯定과 民衆의 覺醒을 非常하게 促進하였었다. 그러면 無數한 細胞의 變化가 起하는 同時에 全體의 變動이 生하는 것과 같이 社會組織의 土臺가 되는 許多한 個性이 根本적으로 改革 覺醒이 되는 同時에 어찌 全體 社會의 大變革이 없으랴. 이 곧 三.一運動의 起源이다. 或은 三.一運動을 美國 宣教師의 教唆라고도 하며 或은 天道教一派의 煽動이라 하나, 이것은 朝鮮民族의 精神과 또한 朝鮮社會의 事情을 沒覺한 短見者流의 囁語에 不過한 것이요, 그 實은 朝鮮民族의 內在的 生命이 世界의 新文化에 接觸되어 爆發된 一大 覺醒의 소리인 것을 斷言하는 바이다.

10

過去 三十年間을 通觀하면 民衆의 運動을 三期로 分할 수 있으니, 第一期는 宗教的 排他運動의 甲午의 東亂이요, 第二期는 政治的 勤王思想의 義兵運動이요, 第三期는 民族自由의 三.一運動이다. 그러나 宗教的 排他運動과 政治的 勤王思想이 實際上으로 失敗에 歸하였을 뿐만아니라 思想上으로도 民衆의 輿論을 作치 못하고 繼續的 勝利를 得치 못한 것은 그 政治的 理想과 論理的 價値가 到底히 現代의 新思潮에 對照하여 그 思想的 根柢와 土臺가 너무도 薄弱하고 背馳되었던 까닭이 아닌가 한다.

11

그러나 民族 自由의 三.一運動만은 前欄에서 紹介한 바와 같이 그 動機와 思想이 內的으로 民族의 福利를 企圖하는 점에서 外的으로 世界의 思潮에 順應하는 點에서 設令 一時的으로 完璧의 功을 收치 못하였다 할지라도 朝鮮民族의 良心의 發動으로 보아서 또한 世界人類의 思想上 共鳴으로 보아서 確實히 道德的 勝利인 것은 不誣할 事實이다. 그러면 現下의 情態는 如何한가.

過去를 回顧하면 朝鮮社會가 甲申의 革新運動을 筆頭로 하여 十年만큼 社會的 大變動을 惹起케 하는 것은 本來의 常例이다. 試思하여 보라. 甲申政亂에서 甲午東亂까지, 甲午東亂에서 甲辰.乙巳의 義舉에서 庚戌의 合邦까지, 庚戌의 合邦에서 己未의 三.一運動까지, 마치 豫定的 行動과 같이 社會的 變動이 發生된 것이 昭然한 事實이 아니냐. 이것은 決코 異常야릇한 運命의 魔術이 아니라 現代의 어느 社會와 어느 民族을 勿論하고 舊時代에서 新時代으로 趨移過渡하는 途程에 있어서 恒見例有한 史實인가 한다.

보라, 일본의 維新時代에 尊王攘夷의 論爭과 西南衝突의 戰亂이 어찌하여 생겼으며, 美國에는

獨立戰爭 後에도 왜 南北戰爭이 있었으며 現下의 中國에 어찌하여 團匪의 亂과 革命的 戰과 奉. 直의 爭이 繼續 不絶하는가를. 그 理由는 舊勢力의 破壞와 新文化 樹立의 接觸點에 處한 社會의 不可避할 現狀인가 한다.

12

하물며 半萬年 歷史的 背景을 가지고 東洋 全局의 樞要地에 處한, 아니 歐亞美 三大陸의 世界 道路의 中心點에 있는 朝鮮民族의 社會가 政治上으로나, 文化上으로나, 思想上으로나, 經濟上으로나, 時時刻刻으로 外勢의 刺戟을 받고 內部的 衝動을 惹起함이라. 元來 朝鮮民族에게는 固有 特殊한 先入的 文化가 있었다. 이리하여 한참 동안 新舊取舍의 苦悶이 있었던 것도 事實이었다. 그러므로 新舊取舍의 煩悶時代에는 自主的 變革보다 他力的 變動이 頻數하였었다. 이 곧 日淸.日露의 兩大戰役이 그것이며 庚戌의 大變도 그것이다.

그러나 朝鮮民族은 一九一九年の 三.一運動을 新機軸으로 하여 民衆的으로 새 기운을 땀고 새 빛을 보았다. 그 表證으로, 첫째는 教育的 覺醒이요 둘째는 經濟的 意識이다.

보라. 三.一運動 以後로 아무리 僻鄉窮村의 農老炊媪이라 할지라도 子弟教育에 對한 渴仰追求의 熱이 如何히 亢進하였으며, 또한 在來의 歷史的 感情으로만 訓練되었던 民族運動은, 그 內容을 一變하여 經濟的 意識 곧 生活의 土臺 위에서 그 根柢를 發見하게 된 것은 確實히 一大 進步인 것을 斷言하는 바이다. 이에서 過去 庚戌事變 以來의 十年間 普通教育의 普及으로 三.一事件의 自主的 大變動을 惹起하였다 하면 이로부터 三.四年을 不過하여 또한 社會組織의 一大 變動이 發生될 것도 先知卓見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豫測할 바가 아닌가. 그 理由는 民衆의 知識程度가 더욱 進步될수록 더욱 普及될수록 社會組織의 變化가 더욱 頻數하여 갈 것은 進化의 法則인 까닭이다.

13

吾人は 前欄에서 朝鮮民族의 內部的 進化로 因한 社會組織의 自然的 變化를 論하였다. 그러나 朝鮮半島가 世界構成의 一部分이며, 또한 朝鮮民族이 人類 全體의 一部分인 以上에는 世界大勢의 趨移가 直接 間接으로 朝鮮社會에 波及이 될 것은 勿論이며, 따라서 朝鮮社會의 變動도 世界大勢의 趨移에 莫大한 影響이 될 것도 想像할 수 있다. 回顧컨대 朝鮮問題로 因하여 發端한 西南戰爭은 日本政界의 變革을 如何히 惹起하였으며 또한 朝鮮問題로 因하여 突發된 日淸.日露의 兩大戰役이 東洋全體의 風雲과 國際政局의 波瀾을 如何히 惹起하였는가.

이리하여 近因에 있어서는 淸朝의 敗亡을 招하였고, 遠因에 있어서는 슬라브族의 受侮로 因하여 歐洲大戰의 發端을 作치 아니하였는가.

14

最近에 있어서도 美大統領이 提唱한 民族自決問題가 如何히 朝鮮民族의 新興氣分을 助長하였으며, 또한 이로 因하여 日本政界의 視聽을 如何히 聳動케 하였는가. 이로 보면 朝鮮問題는 東洋의 難關이며 世界의 論點인 것은 勿論일 것이다.

吾人は 이에서 更히 世界大勢의 趨移上으로 觀察한 朝鮮問題의 經過를 먼저 一論코자 하는 바이다. 元來 朝鮮問題는 前欄에서 詳述한 바와 같이 朝鮮民族 自體가 現代文明에 對한 理解와 覺醒이 遲鈍한 點에서 無慘한 犧牲을 當하게 된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過去의 形勢를 追求하여 보면 우리 民族 自體의 責任뿐만 아닌 것도 想像할 수가 있다. 試思하여보라. 東洋 全體의 地理的 關係로 보아서 朝鮮半島는 中.日 兩國間에 介在한 中立地帶가 아니냐. 그러므로 大陸으로부터 輸入된 歐洲의 文明은 中國 固有文化의 抵抗으로 因하여 傳播의 力이 薄弱하였고, 海洋으로부터 流出된 美大陸의 文化도 日本의 維新大業을 促進하였을 뿐이 아닌가. 이리하여 그 中間에

介在한 우리 民族은 徒然히 鎖國의 長夢에 處하였던 것이다. 萬一 그 當時의 日本의 爲政家로 하여금 東洋 全局의 百年大計에 着眼하고 또한 先進者의 責任을 自覺하여서 誠心誠意로 東洋 各民族의 共存共榮을 圖하게 되었던들 결코 朝鮮과 中國에 今日과 같은 無慘한 現狀이 없을 뿐만 아니라 日本自體도 今日과 같은 世界的孤立의 危地에 立치 하니하였을 것은 勿論일 것이다.

15

그러면 爾來 日本의 東洋 全局에 對한 態도와 政策은 如何하였던가. 두말할 것 없이 日.英同盟을 國際外交의 中樞로 하여 東洋平和의 保障이라는 美名下에서 文化上으로 恩寵이 殊深한 朝鮮의 合併을 斷行하고, 一步를 進하여 英國과의 協調下에서 中國의 利權을 雙分壟斷하려 하던 것이 過去의 政策上 大本이 아니었던가. 이리하여 袖手酸目이 되어있던 美國으로 하여금 機會均等과 門戶開放主義의 提唱을 하게 되지 아니하였던가. 萬一 現下 美國의 排日의 感情을 解剖하여 본다면 深刻한 印象과 動機는 그 當時 日本의 傍若無人한 侵略政策이 그 累를 及치 아니하였는가 한다.

勿論 그 當時의 侵略的 帝國主義는 日本에만 限하였던 것은 아니다. 十九世紀로부터 二十世紀 劈頭에 이르기까지는 果然 侵略的 帝國主義의 全盛時代이었던 것도 不誣할 史實이었다. 아프리카 大陸에 있어서 列強의 任意的 分割이 斷行되었었고, 太平洋에 있어서 群島의 爭奪併呑이 極烈하였었고, 露西亞에 있어서는 핀란드를 併呑을 斷行하던 時期가 아니었던가. 이로 보면 朝鮮問題도 그 當時 世界大勢의 犧牲이 되었던 것도 一面의 觀察일 것이다. 그러나 日本의 立地에 있어서 東洋 全局의 百年大計를 爲하여 歷史 文化의 特殊的 關係를 爲하여, 또한 到來하는 世界的 人類問題를 爲하여, 朝鮮問題의 犧牲이 果然 得策이었을까 할 뿐이다.

16

十九世紀 劈頭로부터 二十世紀 劈頭에 至하기까지 約 一世紀間에 亘하여 激烈 辛辣하던 列強의 侵略的 帝國主義는 乾坤一擲의 歐洲大戰으로 因하여 急轉의 破綻이 生하였고, 또한 最後의 末路를 告하게 되었다. 大戰의 責任에 對하여 聯合國側과 同盟國側의 是非의 論爭이 不一하였던 것도 事實이었다. 그러나 萬一 春秋에 無義戰이라는 筆法으로 嚴正한 批判을 내린다 하면 그 實은 暴力으로 暴力을 對峙하는 데 不過하였던 것이 大戰의 真相일 것이다. 如何間 이와 같은 不合理的 殺戮的 戰爭이 四.五年을 繼續한 結果 幾百億의 戰費와 累百萬의 生命을 水泡와 같이, 草芥와 같이 雲消霧散하여버린 歐洲의 文明은 最後의 破綻을 告하게 된 것이 過去의 事實이 아니었던가.

17

이에서 世界的 人類는 煩悶.悔悟.憂愁의 機會를 作하였었다. 이리하여 一面에 있어서는 暴露의 崩壞로 因하여 經濟的으로 레닌의 社會主義가 實現되었고, 他面에 있어서는 強獨의 屈從으로부터 人道的 見地에서 월슨의 民族自決主義가 提唱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와 같은 急激한 變化는 歷史上 實例로 보아서 依例히 反動的 氣分을 惹起하는 것이 常事이었다. 이것은 物理學上으로도 實證할 수가 있다. 急轉直下하는 物體가 도리어 空氣의 波動을 受하여 最後의 搖動을 惹起하는 것과 何異가 有하랴.

이른바 世界改造의 國際聯盟의 最後의 龜裂이 生한 것도 事實이며, 또한 新興의 赤露를 敵對하기 爲하여 露領의 西伯利亞方面에서 聯合의 軍隊가 出動하였던 것도 事實이 아닌가. 그러나 世界 人類의 大輿論.大理想에 基礎한 主義와 實現은 決코 時間的 反動으로 沮止할 수 없으며, 또한 武力的 制裁로 抑壓할 수 없는 것이 歷代의 史實이다. 이것은 지나간 十八世紀의 佛國의 革命史와 美國의 獨立戰이 吾人에게 昭昭한 實證을 例示한 바가 아닌가. 戰後의 四.五年 동안에 殘燭復明의 反動的 氣勢의 擡頭를 不拘하고 人類의 大理想에 至하여는 조금도 沮止할 바를 모르고 風船의 順路와 같이 進展하여 가는 것이 現下의 大勢가 아닌가.

보라, 民族運動에 있어서는 巴爾幹半島의 多少諸國의 獨立을 비롯하여 波蘭의 獨立, 芬蘭의 獨立, 埃及의 獨立, 愛蘭의 分立이 繼續 完成되었고 또한 印度의 非協同運動과 比島의 獨立運動도 비록 運動의 途程에 있으나 그 氣運과 形勢가 갈수록 猛烈하고 擴大되는 것은 不誣할 事實이며, 勞動運動에 있어서도 大戰亂을 一經한 後 赤露의 完成은 勿論이 아니라 國際的으로나 國內的으로 勞動問題가 中心의 論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實際的으로 各國의 政界가 漸次로 勞動問題를 中心으로 하여 回轉할 兆徵이 顯著한 것은 現下의 大勢가 아닌가. 그러므로 現下의 反動的 氣分은 各國政界를 通하여 特權階級の 因襲的 惰力의 最後 發作에 不過한 것이요 결코 世界大衆의 理想과 輿論이 아닌 것을 이에서 斷言하는 바이다.

萬一 歐洲의 戰亂으로 하여금 世界人類에게 對하여 寄贈한 바가 있다 하면 이것은 侵略的 軍國主義 崩壞일 것이다. 이로 因하여 軍國主義의 雙壁인 暴獨 強露의 崩壞를 完成한 것이 事實이었다. 그러면 軍國主義의 新參見習으로 東洋方面에 있어서 이르는 곳마다 爪牙를 現露하던 日本의 形勢는 如何하였던가.

歐洲大戰 當時로부터 巴里講和會議의 前後에 이르기까지는, 實로 日本의 全盛時代이며 또한 得意의 秋이였었다. 內政에 있어서는 戰時貿易의 盛況으로 因하여 輸入된 金貨는 넉넉히 積年의 舊債를 報償하기에 그 餘裕가 綽綽하였고, 外交에 있어서도 聯合 同盟 兩側의 念不及他的 機會에 處하여 東洋方面의 勢力扶植에 自由自在한 活動을 得하였었던 것이 事實이었다. 하물며 戰勝國의 一員으로 五大強國의 班列에 參加하여 從來로 東洋方面에만 局限되었던 實際的 勢力이 猝地에 歐洲政局에까지 有力한 發言權을 得하게 된 것은, 極東의 一小國으로 그 光榮과 得意를 누구나 想像할 바가 아니냐.

그러나 興盡悲來하고 樂極生哀는 人世의 常事이다. 大戰當時의 二十一個條의 對中外交는 다만 中國人으로서 하여금 切齒의 恨을 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世界 列強의 猜忌 嫉視의 焦點이 되었던 것이 아니냐. 또한 西伯利亞 出兵은 다만 莫大한 國費의 消盡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日本의 軍國主義의 宣傳을 제물에 完成하였던 것이 아니냐. 이리하여 英, 美의 提携로 華盛頓會議가 開催되었고, 華盛頓會議의 結果로 一面에 있어서는 國際外交의 金科玉條이던 日, 英同盟이 破壞되었으며, 他面에 있어서는 軍費制限으로 軍國主義의 手足을 切斷하게 된 것이 아닌가. 게다가 空前의 大震災는 日本으로 하여금 極度の 致命傷을 與하였다. 近百億의 財貨와 幾十萬의 生命이 焦土의 烏有에 歸하였던 것이 아닌가. 이에 對하여 表面으로 同情을 宣하고, 裏面으로 微笑를 發하였던 것이 果然 그 누구이었던가. 震災後 半個年을 不過하여 峻烈한 排日法案을 通過하고 繼續하여 海軍大練習의 高壓의 示威運動을 演出한 것은 平素부터 極東方面에 虎視眈眈하고 있던 美國이 아니냐. 過去의 全盛을 回顧하고 現下의 孤危를 想起할 時에 果然 日本國民의 울분이 如何하였을까.

그러나 日本의 內政은 如何한가. 在來로 軍國主義를 唯一한 信條로 信奉하는 日本社會는 世界的으로 軍國主義가 崩壞되는 同時에 一大 恐慌이 起하였으며 一大 颱風이 襲하였었다. 하물며 軍閥派의 對中外交와 露領出兵의 連次 失敗로 因하여 國威 國財를 아울러 世界的으로 損失케 한 兩大事件에 對하여 積年憤抑되었던 一般社會에는 反抗의 氣勢가 日熾하고 또한 資本主義의 勃興으로 因하여 社會主義의 輸入이 加速度로 增加되어가는 것도 事實이다. 이리하여 中樞를 잃은 日本

의 思想界는 日을 逐하여 惡化 激化해 가는 것이 現下의 情態가 아닌가. 이에서 思想的 緩和策으로 '普選'의 斷行이 된 것이다. 그러나 普選의 斷行으로 因하여 果然 어느 程度까지 社會의 安定을 得할 것인가, 이 곧 吾人의 一括目하는 바이며, 또한 普選의 實施後 日本의 政界에 赤露의 社會主義的 色彩가 濃厚하여질 것인가, 或은 美國의 資本主義가 그대로 適用될 것인가, 이 곧 日本의 運命을 決定할 分岐點이 될 것이다. 如何間 이로부터 三, 四年을 不過하여 政治的으로나 社會的으로나 一大變革이 생길 것은 吾人의 想像하는 바가 아닌가.

22

世界大勢의 潮流는 確實히 地中海에서 大西洋으로, 大西洋에서 太平洋方面으로 移動하여 오는 것이 過去의 史乘에 照하여 昭昭歷歷한 事實이다. 萬一 十九世紀를 佛蘭西文化의 擴充時期라고 하면, 二十世紀는 赤露思想의 發展時代라는 것이 正當한 見解일 것이다. 資本主義의 模範인 美國과 社會主義의 代表的인 赤露가 太平洋을 隔하여 兩兩相對하여 勃興되는 것은 果然 不遠한 將來에 그 무엇을 暗示하고 있는가. 協調할까. 衝突할까. 이 곧 太平洋上의 一沫의 疑雲이 되어 있는 것은 不誣할 事實이다. 世界大勢의 運命이 이에서 決定될 것이며 또한 人類의 文化上 總決算이 이에서 勘定될 것은 想像키 不難할 바가 아닌가.

23

그 中間에 處하여 第一 딱하고 애처로운 경우는 日本의 現狀이다. 두말할 것 없이 日本은 國際的 中産階級이다. 巨大한 資本을 抱擁한 美國과 競爭 發展하는 것도 實力이 不許하는 바이며, 그렇다고 赤裸裸하게 世界的으로 난봉行世를 하는 赤露와 提携協調하는 것도 一層 危險을 感하는 바가 아닌가. 이에서 左顧右眄 悔悟煩悶하는 것이 日本 現下의 情態인가 한다. 하물며 一面에 있어서는 美國의 資本的 帝國主義는 日을 逐하고 年을 隨하여, 或은 移民問題로 或은 中國問題로 反目的 度가 加하며 衝突의 機가 促進되는 것이 事實이며, 他面에 있어서는 日露條約이 成立된 以來 敬遠的 態度로 外交的 辭令이 互相交換되나, 立國의 基礎와 主義가 根本的으로 不相容할 關係가 있는 以上에는 衝突의 危險性은 또한 不避할 形勢가 아닌가. 이로 보면 思想的으로 資本的으로 左右挾攻을 當하고 있는 日本의 形勢는 實로 危卵의 感이 不無하다.

24

그러면 歐洲列強의 東洋政局에 對한 態度는 如何한가. 무어라고 하든지 歐洲의 中樞勢力은 獨佛 兩國일 것이다. 兩國의 歷代的 感情과 戰後의 形勢가 相互牽制와 現狀維持에 汲汲한 以上에는 東洋方面에 對하여 어느 時期까지는 闊大進取의 活動을 取치 못할 것은 皮할 수 없는 情態일 것이다. 그러나 英國에 至하여는 特殊的 立場에 處하여 獨佛 兩國에 比하여 戰後의 瘡痕가 그다지 甚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恒상 傳統的 漸進政策으로 東洋方面에 對하여 不斷한 注意와 視監을 行하는 것이 昭然한 事實이 아닌가. 大戰後에 바로 美國과 提携하여 日英同盟을 破壞하는 동시에 美國의 新興氣銳의 勢力을 아무쪼록 太平洋方面에 集注케 하여, 日本의 衝突을 促한 後, 途途이 漁夫의 利를 取하려 하는 것이 英國의 老猾한 極東政策이 아닌가. 이것은 太平洋上의 風雲을 豫期하여 新嘉坡 軍港建設의 一件으로만 보아서도 個中の 消息을 窺할 것이다.

25

이렇게 觀來하면 美露 衝突의 途程에 있어서 日美 衝突이 前提가 될 것은 想像키 不難하다. 그러면 果然 衝突의 導化線은 那邊에 在할까. 이 곧 中國問題이다. 萬一 巴爾幹半島가 過去 歐洲의 謎訛라 하면 二十世紀의 中國問題는 確實히 東洋政局의 一大危險일 것이다. 그러나 巴爾幹半島問題는 歐洲大戰으로 因하여 不完全하나마 그 解決을 告하였거니와 中國問題는 아직까지도 疑

問이며 危險하다. 如何間 中國은 一大 美人이다. 그러므로 世界列強의 懷腸의 戀과 秋波의 情을 받는 것이다. 元來 美人 自體가 主動的 能力이 없는만큼 이를 玩弄阿隨하려는 淫夫 蕩子도 많을 것은 事實이다.

이리하여 嫉妬도 생기며 鬪爭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中國의 無限한 富源과 許多한 利權은 列強의 好投資處며 大發展地이다. 이리하여 英國의 秋波가 되며 日本의 威脅이 되며 美國의 垂涎이 되며 赤露의 援助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中國의 現狀은 如何한가. 아직도 民衆의 覺醒이 徹底치 못한 現下에 있어서 張.憑 兩派의 勢力接觸點에 立한 段祺瑞政府는 實로 風燈의 感이 不無하다. 그러나 民衆에 따라서 自主排外의 運動이 날로 熾烈하여 갈 것은 確的한 事實일 것이다. 今番의 上海事件은 그 무엇을 意味하는 것이며 日英의 排斥에 對하여 美國의 同情과 露國의 暗助는 벌써부터 列國의 縱橫暗鬪의 序幕이 始作된 것이 아닌가. 이로부터 三.四年을 經過하면 赤露의 內部的 實力이 充溢하여 外部的 活動이 活潑할 때에, 美國海軍의 擴張計劃이 完成될 때에, 英國의 軍港計劃이 確立될 때에, 中國政界가 動搖될 때에, 中國方面의 一點暗雲이 太平洋上의 風雨를 大作케 할 것을 그 누가 保證하라.

26

吾人은 以上에서 朝鮮內部的 社會的 變革과 世界大勢의 趨移와 東洋政局의 危機로 보아서 四.五年을 不過하여 太平洋을 中心으로 한 世界的 風雲이 惹起될 것을 論斷하였다. 勿論 主觀的 速斷일지는 알 수가 없으나 萬一 過去의 歷史가 現下大勢의 產母며 未來의 大勢가 또한 現在 事實의 播種이라 하면 결코 牽強附會의 空論이 아니될 것을 確信하는 바이다. 그러나 다만 論點은 時間問題일 것이다. 어찌하여 複雜多端한 世界問題가 何時 四~五年을 前後로하여 惹起될 것인가 하는 點일 것이다. 그러나 吾人이 四~五年 前後를 豫言하는 것도 決코 荒唐無稽한 空想에서 立論한 것은 아니다. 대개 人間社會의 十年이라 하는 時期는 個人으로서나 國家로서나 一大計劃을 立하여 準備와 組織을 完成하는데 있어서 比較的 最要한 長期이다. 이리므로 越王 勾踐은 十年의 成聚로 因하여 會稽의 恥를 雪하였고 宜朝祖의 李文成은 外敵의 侵入을 遠慮하여 十年의 義兵을 主張치 아니하였던가.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一九一九年의 世界的 大戰의 終熄으로 一九二九年까지 곧 이로부터 四.五年만 經過하면 十年의 滿期가 될 것은 勿論이다. 그러면 大戰의 終熄으로부터 그 동안 十年間에 그 社會 그 民族의 努力 如何에 依하여는, 疲弊된 國力도 復活될 것이며 消沈된 元氣도 振作될 것은 勿論일 것이다. 하물며 現下의 交通機關의 發達과 思想傳播의 影響이 過去의 時代에 比하여 加一層 迅速해지고 敏活하여 時刻으로 急轉 激化하는 것이 現代의 特色이 됨에라.

27

그러면 이와 같은 不遠한 將來의 世界大勢의 變動을 豫想하고 또한 東洋政局의 禍亂을 推斷할 때에 가장 特殊한 事情을 가진 日本과 朝鮮의 關係는 如何히 進展될 것인가. 이 곧 吾人의 中夜 耿耿에 長吁太息하는 바다. 過去의 日本이 白種의 英國과 提携하여 東洋의 同色民族을 或은 壓迫 或은 威脅함으로써 能事를 作하였던 것이 現下 東洋政局의 禍機가 아닌가. 萬一 過去의 日本으로 하여금 當初부터 東洋 各民族의 共存共榮의 遠大한 計劃을 策케 하였던들, 결코 現下의 日本自體가 孤立의 危機에 處치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歐洲大戰으로 因하여 破綻된 殺伐的 文明과 疲弊된 白色民族을 誘導啓發하여 世界改造의 人類의 大偉業을 東洋民族의 導率下에서 完成할 것이 아닌가. 이 어찌 千古의 恨事가 아니라. 그러나 過去는 過去인지라 追窮할 必要가 없거니와, 現下에 있어서 日本人士의 感想이 如何하며 所見이 如何한지 吾人의 切聞코자 하는 바이다.

적어도 朝鮮問題의 解決은 東洋 全體問題 解決의 前提가 되며 또한 要件이 될 것은 勿論이다. 왜 그러나 하면 가장 民族的 關係가 密接하고 文化的 恩澤이 莫甚한 朝鮮民族을 蹂躪壓迫하는 것

은 아무리 日本民族의 全體意思가 아니요 秀吉.寺內輩의 軍閥一派의 背恩沒義의 行動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半萬年 歷史的 背景과 二千萬 民衆의 聰明을 가진 朝鮮民族으로서는 徹骨의 恨이 될 것은 勿論이 아닌가. 특히 日本人士中에는 이러한 말을 한다. 李朝虐政下에서 지내던 朝鮮民族이 總督政治의 生命 財産의 安全保障으로 因하여 滿足할 것은 勿論이라 한다. 이것이 果然 日本人士의 朝鮮民族에 對한 心理的 觀察이라 하면 吾人は 寧히 그 愚痴를 憫憐히 여길 뿐이다.

現代의 朝鮮인이 過去의 朝鮮인이 아닌 것도 勿論이거니와, 設令 李朝의 虐政이 現代에 再現된다 할지라도 朝鮮人は 그 改革을 絶叫할 것이 아닌가. 하물며 總督政治와 李朝政治가 民族的 感情에 있어서 그 根底가 懸殊함이라. 이것은 現下의 日本人民이 過去의 專制政治에 對하여 反抗하던 經路를 回憶하면 反省할 바가 아닌가. 둘째는 日本의 爲政家로 하여금 朝鮮問題 云謂할 때는 반드시 國境警備問題와 師團增設의 必要를 力說하는 것이다. 果然 君等의 所見과 같다 하면 어찌하여 暴露.強獨이 一戰의 破滅에 不堪하였던가. 如何間 朝鮮問題를 그대로 두고는 中.日親善도 空念佛이며 東洋平和도 口頭禪에 不過할 것을 斷言하는 바이다. 적어도 二千萬 民衆의 銳利한 心刃이 日本의 弱處急所를 隨하여 機會대로 現露될 것은 現下의 情態가 아닌가. 이 곧 日本人士의 反省을 促하는 바이다.

28

그러면 우리 民族의 世界大勢에 處하는 抱負와 朝鮮의 將來에 對한 經綸은 如何할 것인가. 客觀적으로 朝鮮의 將來가 如何히 되리라 하는 것보다, 一步를 進하여 主觀적으로 朝鮮의 將來를 如何히 할까 하는 것이 注意의 焦點이며 問題의 目標가 아닌가. 一言으로 蔽하면 朝鮮民族의 抱負는 어디까지든지 雄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어디까지든지 遠大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祖先의 東洋 各民族에 對한 傳統的主義와 方針이었으며 또한 우리 兄弟와 人道와 文化를 愛好하는 遺傳的 天性인가 한다. 回顧하여 보라. 北으로 中國의 隣誼를 尊重히 하고 東으로 日本의 文化를 啓發하여 恒常 東洋平和의 先驅가 되며 또한 東洋文化의 導率이 되었던 것은 歷史的 史實이 吾人에게 例證하는 바가 아닌가.

往往히 隋.唐의 劫運과 日.淸의 惡夢이 있었으나 이것도 또한 朝鮮民族의 自主的 殺伐이 아니요, 外敵의 蠻性 發作에 對한 正義的 制裁이며 人道的 防衛였던 것은 正確한 事實이다.

29

우리는 歐美의 自由精神과 科學文明을 愛好하는 바이다. 그러나 隣國을 盜奪하고 人血을 吸取하는 獸性蠻行은 어디까지든지 排斥하고 驅逐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萬一 이러한 獸性蠻習을 그대로 肯定한다면 人類社會는 結局에 強盜의 跋扈에 不堪할 것이며, 平和의 祭壇은 畢竟은 牧畜의 蹂躪에 不過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民族的 正義와 人道的 平和의 維持發展에 對하여는 어디까지든지 民族的 義血을 不辭하여야 할 것이며 全國的 動員을 行치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設令 日本을 排斥한다 하면 日本의 軍閥一派의 侵略的 軍國主義를 排斥하는 바이며, 또한 赤露를 親近한다 하면 赤露의 平等의 精神을 愛好하는 바가 아닌가. 或은 萬一 東亞의 風雲이 起하고 이리하여 日.美의 衝突이 生할 때에는 美國의 勢力下에서 朝鮮의 解放을 希望하며, 或은 日露.日中의 衝突을 豫期하여 露.中 兩國의 援助下에서 民族의 自由를 嚮望하나 이것은 決코 朝鮮民族의 傳統의 精神에 背馳될 뿐 아니라 우리의 良心이 또한 不許하는 바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는 自主的 精神이 있는 까닭이다. 自由는 어디까지든지 自主的 行動이며 自力의 解決이 될 것이다. 決斷코 他力의 援助와 事大的 思想의 支配와 容認을 不許하는 바가 아닌가.

30

勿論 우리는 他民族의 人道的 同情과 正義의 援助를 不辭하는 바이다. 그 뿐만 아니라 現下의 日本으로도 昨非今是의 眞理를 翻然히 悔悟하고 自進하여 朝鮮問題의 人道的 解決을 斷行한다면 우리는 決코 歷史的 感情에 拘泥하여 排斥할 必要가 없을 것이 아닌가. 우리의 主義와 目標은 언제든지 民族的으로 自由.生存.平和의 三大理想에서 그 出發點을 作할 것이요, 決코 憎惡.排斥.侵略的 觀念에 支配될 것은 아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는 첫째로 民族的 自由를 解決할 것이요, 둘째는 社會的 生存權을 保障할 것이요, 셋째로 世界的 平和에 努力할 것이 아닌가. 이 곧 朝鮮民族의 雄偉한 抱負가 될 것이며 또한 遠大한 經綸이 될 것이다. 遽然히 小強을 持하고 同色民族을 迫害하며 私利를 弄하여 人類의 平和를 攪亂하려 하다가 最後의 破滅을 自招하던 露.獨 兩國의 前轍에 鑑하여 또한 이를 見習 模倣하던 日本 文明의 破綻에 證하여 反省自悟할 바가 아닌가.

31

우리가 이러한 抱負와 經綸을 가지고 當來할 世界的 變局에 處하여, 어떠한 修鍊을 加하여 어떠한 準備를 行할 것인가. 두말 할 것도 없이 思想的 修鍊과 民族的 團結이다. 첫째로 우리의 思想界는 複雜한 것이 事實이다. 이를 整理하여 統一하는 데 있어서는 調査와 比較와 研究가 必要한 것은 勿論이며, 둘째로 이렇게 整理統一이 된 思想下에서 中心的 團結을 作成하여서 우리의 一嘆.一笑와 一動.一靜이 團結의 背景에 依하여 發하며 行하게 되는 것이 現下 急務가 아닌가. 如何한 名俳優라 할지라도 舞臺가 없으면 巧技絶藝를 演出치 못하는 것과 같이 人類는 團體的 背景과 社會的 土臺가 없으면 그 天才와 才能을 發揮치 못할 뿐만 아니라, 如何히 雄偉한 抱負와 遠大한 經綸을 가졌다 할지라도 活用의 路가 絶할 것이며 實現의 日이 無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吾人은 外勢의 波動보다 他力의 援助보다, 中心勢力의 確立과 自體勢力의 解決을 絶叫力說하는 바이다. 要컨대 朝鮮問題는 民族自體의 團合이 確立하는 그날로부터 解決될 것을 確信하는 바이다.

이 논설은 장차에 있을 국제 정국의 전변(轉變)을 예언한 글이다.

'적의 적'을 통하여 '적'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중국은 물론이려니와 사상적으로 어울릴 수 없는 소련까지도 약소 민족을 돕는다면 어떤 계기와 기회를 포착해서 일종의 공동보조도 가능함을 암시했다.

고하의 그와 같은 자세는, '일본 제국주의 타도(日本帝國主義打倒)'만이 그의 당면의 목적이었던 데서 왔다. 그래서 고하는 중국과 소련에 대하여 연락을 가지기에 애썼을 뿐만 아니라, 신문을 통하여 사설이나 논설로써 중국과 소련의 편을 들어, 그들로 하여금 일본에 반감을 갖도록 노력했다.

그런데 고하의 이 논설은 총독부의 기획(忌諱)에 저촉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신문의 정간처분은 커녕 압수 삭제도 당하지 않았다. 도리어 원문(原文) 대역(對譯)의 일본문 책자로 발행하여 총독부 안은 물론, 일본 본토 관계자까지 회람 검토하여 연구자료로 삼았다. 그것은 호의에서가 아니라, 한민족의 지도자가 생각하고 관찰하여 얻은 정치.경제.문화 그리고 세계의 변천 과정을 검토 분석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을 실은 '조선 및 조선 민족'이라는 책자는 일반에게는 이 논문이 삭제되어 발매되었다.)

그후 일제는 고하의 탁견을 어렵게 맞으면서도 일거일동과 거취에 더욱 심한 경계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하도 몸을 조심하게 되었다. 이 몸조심은 고하가 비겁하거나 나약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세를 올바르게 가짐으로써, 이 민족과 동아일보를 키울 수 있고, 장차 올 민족 해방의 역군을 키울 수 있다는 긍지 때문이었다.

8. 東亞日報 2차 정간과 옥고

1926년 3월 1일은 3.1운동의 제7주년 기념일이다. 뜻하지 않게도 3월 3일 소비에트.러시아의 국제농민본부(國際農民本部)로부터 조선농민(朝鮮農民)에게 보내온 전보 메시지가 우송되어 왔다. 고하는 이 전보 메시지를 번역하여 3월 5일 동아일보에 실었다.

國際農民本部로부터
朝鮮農民에게 본사를 통하여 전하는 글월

“오늘 귀국민의 슬픈 기념일을 당하여 국제농민회 본부(國際農民會本部)는 세계 사십개국(四十個國)의 조직된 농민단체를 대표하여 가장 깊은 동지로서의 동정을 농업 국민인 조선 동포에게 드리노라. 이 위대한 날의 기념은 영원히 조선의 농민에게, 그들의 역사적인 국민적 의무(國民的義務)를 일깨워줄 것을 믿으며 자유를 위하여 죽은 이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을지어다. 현재 재감(在監)한 여러 동지와 분투하는 여러 동지에게 형제적인 사랑의 문안을 드리노라.

1926년 3월 1일

돔바르툼 브스네씨엔스키”

이것이 또다시 총독부 당국에게 동아일보를 탄압할 구실을 주어 이해 3월 7일부터 무기정간(無期停刊)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동아일보는 창간 직후의 제1차 정간에 뒤이어 제2차의 정간이 되는 것이다. 고하가 메시지를 게재하게 된 이유는 논설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고하의 정치적 복선(伏線)에서였다.

신문의 무기정간과 동시에 주필 고하는 보안법 위반으로, 편집인겸 발행인 김철중(金鐵中)은 신문지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었다.

공교롭게도 동아일보가 제2차 무기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해 고하가 불구속 기소된 4월 26일에, 조선 왕조 최후의 왕 순종(純宗)황제가 승하(昇遐)했다. 재위 4년만에 국권을 빼앗기고 통분한 나날을 보내다가 오랜 병고 끝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것은 이씨조선이 창업한지 519년째이며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잃은지 17년째이었다. 순종황제가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돈화문(敦化門) 앞은 전국에서 몰려든 조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오열하는 곡성은 산천을 울렸다. 순종황제의 붕어(崩御)로 3.1운동 이래 속으로만 애태우던 일반 국민의 애국심은 또 한번 밖으로 굽이쳤다. 애국심은 대양(大洋)의 파도와도 같아서 바람이 세차면 격동하기 쉽다. 국장일은 6월 10일로 결정되었다.

고하는 밤 기운 속에 그믐달이 넘어감을 보는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다.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새로운 아침을 가져 왔으면... 조국 독립의 새 아침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고하가 품은 생각이었다.

암담과 허전 그리고 안타까움 속에서 기상 천외의 계획을 안출했다. 치욕적인 한일합병은 일본인들의 총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고종황제의 뜻이 아님을 일일이 자료를 들어 중외(中外)에 다시 선포함으로써, 3.1운동과 같은 민족 운동을 일으키는 한편,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양심에 호소하여 가물거리는 민족의식을 양양하려 했던 것이다.

그 방법은 첫째로 고종황제가 1919년 1월 22일 간악한 일인(日人)의 독약 그릇으로 승하할 때, 그의 며느리 윤비(尹妃)에게 유칙(遺勅)으로 남긴 것처럼 꾸몄다.

“한일합병 조인은 짐(朕)의 뜻이 아니라 강제인 것이요, 짐은 그 사실을 기록하여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하려고 준비중에 왜정과 매국배들의 독을 마시고 죽어가니, 너는 이 사실을 기회를 보

아 세계에 알려, 양해를 구하고 국민에게 알려 각성을 재촉케 하라”
는 내용의 유칙(遺勅)을 위작(僞作)한다는 것이었다. 고하가 유칙의 상대자로 윤비를 택한 것은 순종황제 승하뒤에 남은 왕족중에서 제일 어렵게 모실 증인으로 윤비를 생각한 외에는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글은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에게 의뢰하기로 하였다.

고하가 당돌하게 이런 유칙의 위작을 생각하게 된 것은, 한일합병과 3.1운동 등 기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일 합병은 고종이 일본의 폭력과 이완용 등의 위협으로 이루어진 것, 그 뒤에 그 사정을 벨사이유의 세계 평화회의에 내놓으려다가 1919년 독살을 당한 것이라는 말이 유력했던 만큼, 그(高宗)가 철천의 한을 품고 임종할 때에 유칙을 남겨 왕족과 국민에게 호소하였다 하여도 별로 죄될 것이 못되고, 의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방법의 둘째는, 위작한 유칙을 발표하기 전에 윤비와 이조 말엽의 중신(重臣)이었던 윤모(尹某)의 사전 양해를 얻는다. 고종 승하 후에 유칙은 윤비의 손에서 윤모에게로 넘어 왔었으나, 왜정의 감시속에 발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비밀히 보관되어 온 것처럼 꾸민다.

방법의 셋째는, 윤비로 하여금 유칙(遺勅) 발표 직전에 그 발표 지연의 책임을 지고 자살을 기도하도록 한다.

“좀 빠빠하기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일을 꾸며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소. 일이 되는 날이면, 그래도 세계는 우리가 불법 점령되고 있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거요”

이렇게 고하는 위당(爲堂)에게 고종의 유칙의 위작을 의뢰했다. 그리고 고하는 유진태(兪鎭泰)로 하여금 윤모에게 계획안건을 전하여 협력을 구하게 하는 한편, 접촉할 수 있는 각 단체, 각 교육기관 간부들에게도 유칙 발표와 동시에 시위에 가담할 것을 종용하고, 또한 학생들에게는 6월 10일 국장(國葬)에 처할 애국 감정의 양양책을 다짐했다.

그러나 일은 고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윤모는 유진태에게서 고하의 계획을 듣고, 안절부절 공포에 사로잡혀, 윤비에게 그 뜻을 전달하는 것조차 거절했기 때문이다.

윤모와의 접선이 실패하자, 고하는 오랜 친구요 동지인 유억겸(兪億兼)을 생각하여, 그를 중간에 세워 윤비와의 접선을 기도했다. 그는 밖으로는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 부교장이요, 안으로는 순종황제와 동서지간이었다. 유억겸도 여러가지로 이 일을 주선하여 보았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고하는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을 전제로, 유칙 발표의 호외 발행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 3월 7일에 제2차 정간을 당했던 동아일보는 4월 21일부터 해제가 되어 속간(續刊)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 호외 살포는 신문의 정간 정도로는 끝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각오와, 모든 책임을 지고 상상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야 할 것도 이미 각오한 계획이었다. 민족정신 양양에 자기 자신의 몸 정도는 초개와도 같이 생각되었다.

이처럼 자기 한 몸을 바쳐서라도 일제의 침략상을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고발하고, 점차 침체되어가는 민족정신을 일깨우고자 했으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자 고하는 허탈과 의분을 다시 한번 씹어야 했다.

이 무렵에는 해외로부터 잠입한 좌익세력이 앞서 5월 1일의 메이데이(勞動紀念日)를 기하여 궤기하려고 했으나 이 계획은 탄로되어 수포로 돌아갔다.

그후 6월 10일의 인산날을 기하여 일어난 6.10만세 운동은 애국학생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성이 없는 산발적 궤기에 그치고 말았다.

인산날의 궤기를 목표로 중앙고등보통학교 학생 이동환(李東煥).박용규(朴龍圭).이선호(李先鎬).유면희(柳冕熙), 중등학교학생 김재문(金載文).황정환(黃廷煥).곽대형(郭戴炯), 중앙기독교청년학관 학생 박두중(朴斗鍾), 연희전문학교 학생 이병립(李柄立).박하균(朴河均), 경성제대 예과학생 이천진(李天鎭), 천도교의 박내원(朴來源).권동진(權東鎭).손재기(孫在基).박래홍(朴來弘).백명천(白明天), 그

리고 인쇄소 직공 민창식(閔昌植).이용재(李用宰).김항준(金恒俊)과 자금조달의 권오설(權五尙) 등이 모의하여 격문(檄文)을 5만장 인쇄하고, 태극기를 만들어서 6.10만세 운동의 주동이 되었다.

6월 10일의 '인산(因山)'날은 왔다.

종로 3가의 단성사 앞, 동대문 앞, 창신동 앞, 신설리(新設里) 앞 등 - 국장의 행렬이 지나갈 예정지인 길목을 중심으로 대여(大輿)가 창덕궁을 나선 오전 8시 반을 전후해서 '대한독립만세' 소리는 3.1운동이 있는지 7년만에 이 강산에 또 한번 메아리쳤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주모자 이동환.이병립.박하균 등이 체포되고, 그 여파는 전국으로 파급되어 전국에서 천여명의 연루자가 검속 투옥되었다.

6.10만세운동을 전후하여 고하는 동아일보 제2차 무기정간의 책임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의 재판과 받고 있었다.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하는 동아일보 주최 '순종 인산(純宗 因山) 실황 근사(實況謹寫) 활동사진(活動寫眞)'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 공개케 했다. 이와 같은 활동사진의 공개도 민족운동의 하나로 생각한 때문이었다.

재판 결과 1심에서 고하는 징역 8개월, 김철중(金鐵中)은 징역 4개월의 선고를 받고 불복항소(不服抗訴)하여 2심에서 고하는 징역 6개월, 김철중은 금고(禁錮) 4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리하여 고하는, 조선일보(朝鮮日報) 필화사건으로 복역하고 출옥한 김형원(金炯元)과 함께 11월 12일 명월관에서 잡지 및 신문기자를 총망라한 기자협회 무명회(無名會) 주최로 열린 송영연(送迎宴)을 받은 그 이튿날인 13일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이날 연회에는 그 다음날 감옥으로 들어가는 고하를 위로하기 위하여 명창 박녹주(朴綠珠)가 초청되어 수궁가(水宮歌)를 불렀다. 고하가 박녹주의 소리를 특히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고하는 그중에서도 육자배기와 흥타령의 '무정방초'를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하도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이를 흥내 낼 줄도 알게 되었다. 고하는 박녹주의 창을 들을 때마다 당시 첫대의 제일인자인 박종기(朴鍾基)를 아울러 초청하여 반주를 하도록 부탁하였고 언제나 '박명창' 또는 '박정대'라고 부르면서 이들의 재능을 한껏 격려하였다.

고하가 서대문 형무소에 입감하고 한달 후인 그해 12월 10일 서울 광화문통(光化門通) 139번지에 건축 중이던 동아일보 신사옥(新社屋)이 낙성을 보았다. 준공된 그 다음날 동아일보는 창간 이래 사용해오던 서울 화동(花洞) 138번지의 셋방살이 옛사옥(社屋)에서 새 건물로 옮겨 앉았다.

새 사옥은 황토마루(黃土峴 - 지금 世宗路) 네거리, 전날 명월관(明月館)의 옛터에 섰다. 대지는 총 420평 1층, 3층 철근 콘크리트, 내진 내화(耐震耐火) 구조의 근대부흥(近代復興)식 건물로 당시 서울에서는 최신식 건물의 하나로 손꼽혔던 것이다. 1925년 7월 27일에 기공한 이래 1년 5개월여에 동원된 연(延)인원수 14,050명, 총공사비 147,200원이 들어서 준공된 것이었다.

이처럼 신사옥을 건축하는 동안 고하 등의 투옥과 동아일보의 제2차 정간 등으로 경제적 타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건축비의 차질을 가져온 바도 있었으나 이는 오래지 아니하여 뒷처리가 되었다.

고하는 옥중에서 새 사옥 낙성의 소식을 듣고 기쁜 나머지 허다한 어려움을 극복해온 인촌에게 다음과 같은 감격의 옥중서한(獄中書翰)을 보냈다.

사(社)를 떠난지가 벌써 한달이요, 나흘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이 여전하시며 사내의 모든 형제들도 다름없이 건강한 몸으로 꾸준히 분투하옵니까.

새 집 이사는 예정과 같이 11일에 아무 고장없이 순성되었어온지 해를 거듭하여 깨어진 창과 무너진 벽만 남은 낡은 집에서 고생을 하다가 아름답고 깨끗하고 튼튼하고 쓸모좋은 새 집으로 옮겨간 쾌감과 기분이 과연 어떠합니까.

동고(同苦)하던 사내 여러 형제의 즐거워할 광경을 상상하니, 그윽히 적막한 중에도 저는 기꺼운 웃음을 웃게 되나이다. 이것이 모두 형님께서 평소에 땀 흘리고 애쓰시던 보상임을 생각하

옴고 더욱 건강과 행복을 비읍니다.

저는 절대한 운명의 지배 아래서 외로운 그림자를 벗삼아 엄한(嚴寒)의 폭위(暴威)에 저항을 계속할 뿐이오나 다행히 별고 없아오니 안심하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시키는 일을 하고, 먹고 자던 나머지, 한 두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오니 책이나 많이 보내 주십시오. 그전에 보낸 것은 다 받았아오니, 윤리학(倫理學), 동서철학사(東西哲學史), 서양역사(西洋歷史), 서양문명사(西洋文明史), 철학개론(哲學概論) 등으로 대개는 우리집 책상에 있어오니 그중 페이지 수요가 많은 놈으로 보내 주시옵소서. (下略)

1926년 12월 16일 상오 11시

西大門刑務所에서 宋 鎮 禹

고하는 옥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았다. 우국(憂國)의 지충(至衷)에 겹친 고독을 풀길이 없었다. 이럴 때엔 한시(漢詩)에 손을 대어 마음을 달랬다.

獄中夜夜不成眠 (옥중에 갇힌 몸이 밤마다 잠 못이루나니)
憂國傷心幾積年 (나라 근심에 상한 마음 몇몇해나 쌓였던고.)
(以下 逸失)

이때 밖에서는 고하가 영어(囹圄)의 몸이 된 기별을 전해들은, 3.1운동의 동지이자 동아일보 제 4대 사장을 역임하고 고문으로 물러앉아서 오산학교(五山學校) 경영을 맡고 있는 정주(定州)의 남강(南岡 李昇薰)은 고하가 겪고있는 어려움을 하와이에 있는 우남(雲南 李承晚)에게 편을 얻어 알렸다. 우남은 다음의 한시(漢詩)를 써서 인편으로 남강에게 보내온 것을 남강은 이를 족자(簇子)로 만들어서 고하를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왔다.

一可亭前月 (일가정에 비친달 빛이) (註='一可亭'은 남강의 산정)
使人不得眠 (사람을 잠못 이루게 하는구나.)
徘徊還獨坐 (거닐다 다시 홀로 앉아)
無語仰青天 (말없이 푸른 하늘만 바라본다.)

고하의 옥중 서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하는 옥중에서 전날 젊어서 다하지 못한 독서로 고통을 잊고 시간을 보냈다. 또한 학문 연구와 함께 정신 수양을 쌓았다. 후일 그의 옥중에서의 면학(勉學)은 그의 인생경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때 밖에서는 영어의 몸이 된 고하를 위해 써 달라고 여러 독지가로부터 위문 금품이 신문사에 답지하기도 했다.

고하는 옥중에서 겨울을 보내고, 해가 바뀐 이른 봄 1927년 2월 7일 일황 유인(日皇裕仁)의 즉위(即位) 기념의 특사령(特赦令)에 의하여 출옥했다.

1926년 6월 6.10 만세사건으로 국내가 뒤숭숭하던 때 미국에 살고있는 서재필(徐載弼)박사로부터 고하는 위안과 격려의 글월을 받았다. 영문(英文)으로 된 것인데 6월 12일부였다(당시 <신동아> 부록에 번역하여 실렸고, 총독부가 꺼려하는 부분은 삭제하였으나 대체의 뜻은 알 수 있겠다)

宋鎮禹 先生 貴下

徐 載 弼

昨夏 호놀룰루에서 一瞥後에 每樣 글을 올리려 하였으나 오늘까지 時間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日前에 들은 즉 東亞日報가 停刊을 當하였다 하니 그 理由는 分明히 알 수 없으나

何如間 言論의 自由가 없는 社會의 어떠한 法律에 抵觸된 것인 줄 알고 不祥事에 對하여 同憤을 禁치 못하던 바 이제 解除의 消息을 들으니 오히려 더 늦지 않은 것만 多幸입니다. 先生과 其他 諸位가 이같이 자주 困苦를 當하게 되는 것은 個人으로는 유감이지마는 民族全體에 對하여는 도리어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이런 逆境의 敎訓을 받아야만 朝鮮民族은 自由와 正義의 價値를 解得하고 人類의 理想社會를 出現시키기에 努力할 것입니다. 우리는 過去에 自由와 正義를 위하여 努力하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그것을 못가진 것이외다. 先生과 其他 諸位가 이런 試鍊을 當하는 것은 朝鮮民族의 過去의 허물을 報償하는 同時에 將來에 올 날을 위하여 길을 닦는 것인 줄 압니다. 先生은 마땅히 생각할지니 先生이 ○○ 된다 하면 이는 個人때문에 됨이 아니요 朝鮮의 言論의 自由를 爲하여 ○○ 됨인 것이외다. 言論의 自由를 爲하여는 偉大한 人物들이 自進하여 ○○ 되기를 躊躇하지 아니할지오. 따라서 朝鮮이 先生의 只今 苦楚받는 動機를 理解하고 感謝할 날이 올 것이외다. 現在의 言論界의 苦痛에서 將次 ○○○○할는지 누가 豫言하리까. 世界上에 어떠한 事實이든지 그를 爲하여 奮鬪하는 勇士가 없이 成功된 法이 없습니다. 言論의 自由를 爲하여 先行의 ○○로 因하여 ○○의 날이 올 것을 나는 確信합니다.

○에 있거나 社務를 보거나 先生은 朝鮮民族에게 合作的 精神을 鼓吹하며 物質 及 精神上으로 奮鬪猛進해야 할 것을 알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民族은 아직 奮鬪의 일을 하기 前에는 吾族의 將來는 暗黑합니다. 우리는 일하여야 하겠습니까. 일하되 辱하여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직 우리를 살리는 길이외다. 明年의 太平洋會議에 出席하게 되면 다시 거기서 對顔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事件이 速히 解決되기를 바라며 回信을 苦待하면서 그칩니다.

9. 新幹會와 古下

동아일보 제2차 정간의 이유가 된 국제 농민본부 메시지 게재의 책임을 지고 고하가 두번째 옥고를 치르고 출옥한 직후인 1927년 3월 30일, 뜻밖의 부보(訃報)가 고하에게 전해졌다. 민족 진영의 원로 월남 이상재(月南 李商在) 옹(翁)이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이었다.

곧 73개 사회단체의 명의로 '9일장'의 사회장(社會葬)을 엄수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고하는 사회장 준비위원의 한 사람으로 일을 보았다. 고하는 월남의 별세를 진심으로 슬퍼하는 애절한 심정을 만사(輓詞)로 표시했다.

諷世詼諧倒曼倩 (세상을 풍자는 해학은 만칭(曼倩)을 앞섰고,
 哀時憔悴憶靈均 (슬플 때에는 초취함이 영균(靈均)을 생각해 하네.)
 歲寒殘柏堪凋落 (추운 절기에 쇠잔한 잣나무도 참아 이울고 지니.)
 蒲柳臨風總忘神 (갯버들처럼 못난 이 몸 바람에 치어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네.)
 先生憂國不憂身 (선생은 나라를 근심하되 몸은 돌보지 아니하였고.)
 頭白心丹老益眞 (머리는 희되 마음은 붉어 늙을수록 더욱 참되었네.)
 今日翳然棄我去 (오늘날 홀연히 우리를 버리고 가시니.)
 鯨濤鱷浪自迷津 (고래와 악어 같은 거센 풍랑에 갈피 못찾네.)
 (註. 曼倩은 漢武帝의 신하로서 해학 잘 하기로 유명한 東方朔의 字)
 (註. 靈均은 戰國時代에 나라를 근심한 나머지 汨羅水에 빠져 죽은 屈原의 字)

월남을 떠나보낸 고하의 심정은 암담했다. 그러나 월남은 갔으되, 그의 뒤를 이을 이 민족이 건재하다는 신념과 의지, 그리고 동아일보와 고하가 있는 한 민족 진영은 흩어지지 않고 뭉치리라는 신념과 결의가 솟으므로 고하는 다시 용기를 찾았다.

월남(月南)의 사회장(社會葬)이 있기 얼마전인 2월에 신간회(新幹會)가 조직 탄생되었다.

1920년 이래 중국·일본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풍미한 사회주의 운동은 국내에도 물밀듯이 들어와서 드디어 1922년 4월경부터는 우리 독립운동 진영에도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분열하기 시작했다. 그 후 전국 각지에서는 봄바람에 뜻을 단 듯이 사회주의 색채를 띄운 여러 단체가 속속 출현했다. 당시 집회 결사의 자유가 막혔던 시대에 이처럼 수많은 사회주의 경향의 단체가 표면에 나타났다는 것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간을 이간시켜, 민족 분열을 조장하려는 총독부의 시책에 기인했다.

3.1운동의 선풍이 가라앉으면서 서울이나 시골을 막론하고 새 학문 새 사조(思潮)를 탐구하는 새로운 기풍이 팽창하였고, 방방곡곡에 사립학교가 세워지고 있었으며 외국유학생수도 놀랄만큼 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민족주의 진영은 주로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각종교단체별로 활동할 뿐, 이렇다 할 통합된 단체조직은 결성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일부 지도자 중에는 이러한 사태를 아쉬워 한 나머지 3.1운동 당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인물을 중심으로 어떠한 형태의 단체를 구성할 것을 주장한 인사도 없지 않았다. 여기에 고하는 3.1운동 당시 주동자 중에서 벌써 일반민중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왕년의 주의·주장을 버린 인사가 나타난 것을 알아차리고 이들과 손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일체의 단체구성에서 초연하였고 오직 동아일보 육성에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 틈을 타서 사회주의는 성장하여 다시 공산주의로 방향을 잡고, 드디어는 1925년을 전후하여 국내에서 당(黨)조직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총독부 당국도 조장·방임만 하지는 않았다. 1926년 초부터 1927년 초까지 거의 1년 동안에 걸쳐 국내는 물론, 중국·만주·일본까지 광범위하게 검거의 손이 뻗었다.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및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青年會) 사건(세칭 제1차 공산당 사건)이 그것이다. 여기에 관련된 주동 인물은 박헌영(朴憲永), 홍증식(洪增植), 김재봉(金在鳳), 조봉암(曹奉岩), 박일병(朴一秉), 송봉우(宋奉瑀), 유진희(兪鎭熙), 김약수(金若水), 김찬(金燦), 권오설(權五高), 김단야(金丹冶) 등이었다.

이들은 각지에서 농민 운동과 동맹파업 등을 주로 지도 선동하였는데, 그 당시 이 운동과 파업 등은 이 땅의 민중의 눈에는 일종의 독립운동으로 간주되었다. 또 실제로 본의는 아니지만 일부 민족주의자들도 공산주의의 가면을 쓰고 민족운동의 방편으로 이에 가담하여 활동한 것도 사실이다.

공산주의 운동의 수뇌부가 대부분 검속되자 그 검속망에서 빠진 남은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 진영에서 민족단일전선(民族單一戰線)의 기치아래 모여들어 민족 진영과 손을 잡고 결성된 것이 신간회(新幹會)였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공동의 적, 공동의 목표인 일본제국주의 타도(日本帝國主義打倒)만이 현실의 당면 과제였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를 비롯한 공산주의자와 그 동조자가 뭉쳐서 공동전선(共同戰線)을 편 것이다.

사실상 당시 항일 운동에 있어서는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를 엄격히 구별하기가 곤란하기도 했던 것이다. 요컨대 '코민테른'의 인민전선운동(人民戰線運動), 중국의 국공합작운동(國共合作運動)과 비슷한 작전을 모방한 것이다.

이리하여 신간회 대표 및 주요 간부의 구성은 주로 민족진영의 투사들이 앉았고, 실무 책임자 급은 공산주의자나 소장파 논객들이 차지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상투적인 수법으로 신간회를 역(逆)이용했다. 그들은 신간회를 표면적 간판으로 내세우면서 소위 민족주의자 중의 좌파(左派)를 포섭하고, 점차 우파(右派)를 배척하여 민족 진영의 분열을 꾀했다.

그들은 동아일보와 고하를 우파라고 하여 신간회(新幹會) 운동에서 배제하려고 덤벼들었다. 그 반면 공산주의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동아일보사에 입사하여 사내(社內)조직을 갖는 침투작전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고하는 그것을 알면서도 공산당원을 받아 들였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사상을 민주주의에 전향시키자는 데 있었다.

고하는 사람을 쓰고 움직이는 데 남달리 이해와 포용력을 가진 성격이어서, 고하의 품에 들어간 사람이면 좀처럼 그를 배신하거나, 또한 변절하지 않았다. 고하는 당시 공산주의 운동에 종사하는 인물들에게까지도 씻을 수 없는 감화력을 주어 저절로 그의 인격적 영향 아래 있게 하는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 한 예로서 낭산 김준연(朗山 金俊淵)을 들 수 있다. 낭산은 공산주의 운동의 최고 지도인물이었다. 그러나 뒷날 낭산은 동아일보의 편집국장, 또는 주필로 중역으로 재임하는 동안, 고하의 인격에 감화되어 마침내 고하와 같은 노선을 갖게 되었다. 고하와 낭산은 물론 그 전에도 피차의 우정과 정의는 두터웠지만 낭산이 고하의 인격에 감화된 시초는 그가 동아일보 편집국장에 취임 직후 'ML당'(마르크스.레닌 黨)사건으로 붙잡힌 이후의 일이다.

일경(日警)은 낭산이 동아일보에 오기 전에 이미 그가 공산당 - 그때 그는 ML당의 책임 비서였다 - 에 관계하고 있음을 탐지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들은 동아일보 편집국장에 임명되자, 놀라서 동아일보와 조선공산당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더욱 의심하기 시작했다.

일경은 고하를 불렀다.

“당신은 김준연을 어떻게 알고 썼는가”

“그는 성격이 온순하고, 학문과 덕망이 있고, 신사상(新思想)을 이해하는 좋은 사람이어서 썼소”

경찰과 고하의 문답은 낭산을 채용한 경위에 대한 것이었다. 낭산은 고하에게서 경찰에서의 문답을 전해 듣고 즉시 당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어유부중(魚游釜中)의 형편을 들어 그 개편을 주장하여 실현했다. 이 소식은 또 어떻게 새어 나갔는지 총독부 경무국에 탐지되고, 또 고하에게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하와 낭산은 이 일에 서로 조금도 구애받지 않고 신문 일에만 종사했다. 또한 피차간에 어색한 감정이나 모순을 느끼지 않았다. 그것은 비록 피차간 사상은 달랐지만 일제타도(日帝打倒)의 궁극 목적이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낭산은 이듬해인 1928년 2월 3일 종로서에 불려 갔다. 고하의 보증으로 일단 풀려 나왔다가 (이것은 아마 일경이 이들 사이의 우정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본다) 며칠 후인 6일에 다시 체포되어 7년 형을 받았다. 형무소에서 복역을 마친 뒤 동아일보의 주필로 복귀했다. 그 후 고하와 낭산은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뜻하는 바가 통했다.

낭산은 1928년부터 7년 후인 1934년에 만기 출옥(滿期出獄)하여 잠시 쉬고 나서 다시 동아일보 사 주필로 복귀하였다. 이때 낭산의 귀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던 일본 고등경찰은 고하에게 낭산의 재차 입사경위를 힐문하였다.

“그것은 우리 동아일보사가 그대들을 위해서 한 것이나 다름없소. 만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직장을 주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그를 등용할 리는 만무하니 그때에는 낭산은 부득이 상해(上海)나 다른 곳으로 망명하게 될 것이 아니오? 그렇게 되면 낭산은 일본에 던질 폭탄을 만들게 될 것인데 낭산은 전부터 동아에 있던 사람이고 해서 다시 돌아온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성가시게 굴지 마시오”

고하의 이 말에 고등경찰은 더 할 말이 없었다고 한다. 이것이 낭산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명한 고하의 폭탄문답(爆彈問答)이다.

낭산에 비견할 것은 아니지만 동아일보에서 광고부원, 또는 지방부 기자로 있는 박헌영(朴憲永)도 그 한 예로서, 오랫동안 고하의 영향을 받았지만 끝내는 배신한 경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고하의 포섭력에 대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총독부의 민족분열 정책에 편승하여 더욱 동아일보와 고하를 질시(嫉視)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하의 민족운동, 또는 동아일보의 사업을 질시의 한계를 넘어서 파괴하려는 일부 몰상식한 젊은 무리도 적지 않았다.

이리하여 고하는 때로는 공산주의 청년들의 돌팔매질도 받아야 했다. 그 한 예로, 동아일보사 함북 지국장회의(咸北支局長會議)를 주재하려다가 테러를 당한 사건을 들 수 있다.

고하가 회의장에 들어가려는데 때마침 입구에 몽둥이를 들고 지켜선 공산 청년들이 있었다. 그

들은 불문곡직하고 몽둥이로 고하를 때리고 짓밟았다. 고하는 유혈이 낭자한채 쓰러졌다. 피가 온몸에 흘러 얼굴조차 잘 알아보지 못하게 뒀을 보고서야 물러섰다. 고하는 아무런 반응도 괴로운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고하는 몇몇 순수한 젊은이들에 의하여 얼룩져 내리는 피를 닦고, 회의장에 들어가서 단상(壇上)에 올라 끝내 회의를 진행하여 마쳤다.

이렇게 고하는 신간회 안의 공산주의자들의 사주(使囑)를 받은 테러를 당하면서도 신간회(新幹會)에 남아서 꾸준히 공산주의자들의 민족 분열과 파당 섹트를 견제하는 공작에서 잠시도 손을 떼지 않았다. 고하는 언제나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고 공산주의자들에게 민족 단결을 호소했던 것이다.

이즈음 함남 장진강(長津江) 일대에서 총독부의 토지수용령(土地收用令)으로 인한 농민들의 총독부에 대한 진정이 있었다. 동아일보와 고하 등에게도 전보로 전달되었다.

내용은, 장진강 수력발전소(長津江水力發電所)건립을 위해 장진강 일대의 농민들 소유의 주택은 물론, 선조 이래 지켜 내려오는 전답을 거의 빼앗다시피 시가(時價)보다 엄청나게 싼 부당한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토지 매수에 응하지 않는 농민은 불온분자로 낙인을 찍어 검거 구속함으로써, 불안과 공포로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고하는 신간회를 움직였다. 이때야말로 좌.우익 할 것이 없이 민족 단결을 과시하자는 것이었다. 고하는 신간회 간부와 동업 조선일보 사장 우창 신석우(于蒼 申錫雨), 주필 민세 안재홍(民世 安在鴻)과 변호사회장 가인 김병로(街人 金炳魯) 등에게 연락하여 사태수습책을 숙의했다.

서울 견지동(堅志洞)의 조선일보사에서 일동은 자리를 같이했다. 우선 사태 수습의 첩경으로 현지를 답사하기로 했다. 조사단 대표로 가인을 선정하고, 신문사 보도원으로 동아일보 기자 김동진(金東進), 조선일보 기자 김을한(金乙漢) 등을 파견키로 했다. 이들 조사단의 현지 조사를 토대로 부당하게 내려진 토지수용령의 불법 행위와 시가보다 싸게 매입하는 처사를 규탄하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고하도 손수 붓을 들어 사실과 칼럼을 통해서 이같은 부당한 사실을 규탄했다. 동시에 고하는 이 민족이 당면한 과제는 일본 제국주의 타도가 공동 목표라는 것과, 일시적인 주의와 이념의 차이로 민족 분열을 가져올 수 없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이리하여 신간회 안의 공산주의자들도 고하의 인격과 수완, 그 이론에 감탄하여 고하를 다시 우러러보기 시작했고, 전날의 폭력과 테러행위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다.

또 이 무렵에 동아일보가 중점을 둔 것의 하나는 ‘전조선 수리조합 답사(全朝鮮水利組合踏査)’ 보도였다. 1927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전국수리조합 전역에 걸쳐 특파원을 보내, 그 실태를 조사 비판함으로써 총독부 농업 정책에 일대 경종을 울린 것이었다. 이때 전북은 김준연(金俊淵), 평북은 김동진(金東進), 경남은 서춘(徐椿), 충남북은 박찬희(朴瓚熙), 평남은 유지광(柳志光), 함남북은 한위건(韓偉鍵), 경북은 김두백(金斗白), 강원도는 국기렬(鞠琦烈)이 각각 담당하였다.

제5장 동아일보를 짊어지고 (下)

1. 타고르의 시(詩)

고하가 함북 지국장 회의에서 테러를 당하고, 함남 장진강 수력 발전소 건립에 얽힌 농민들의 호소를 밀어 준 1927년도 저물어 그해 10월 22일, 동아일보 증역실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촌은 사장직을 자진 사퇴하고 고하가 그 후임으로 선임되어, 1921 - 24년 간에 제3대 사장을 역임한 뒤를 이어 두번째로 동아일보 제6대 사장에 취임하였다.

고하가 동아일보의 두번째 사장으로 재임한 기간은, 이로부터 1936년 8월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동아일보가 제4차 무기 정간의 강제처분을 당하고, 사장도 동시에 퇴임을 강요당할 때까지 10년 간이 되는 셈이다. 이 기간은 일본 군국주의가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고 중국 대륙에 손을 뻗치고자, 이 땅의 민족운동과 사상운동을 혹심하게 탄압하던 시기이다.

또한 이 기간은 국내외로 독립운동을 위한 저항운동이 극에 달한 때라고 할 수 있고 동아일보는 이를 하나도 빠지 않고 상세히 보도하려고 노력하였다. 기자들은 총칼 대신 붓으로 싸우는 독립투사였고 애국지사였다. 기자들은 기사를 썼다가 압수되고 삭제되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사명감과 자부심이 대단했다. 당시 기자였던 노산 이은상(鷲山 李殷相)의 회고담이다.

“1934년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평안도 강동에 있는 단군농 참배기사를 썼다가 검열에 삭제된 적이 있었지요. 그날 고하 선생께서 저를 보고 ‘오늘도 상을 탕구먼’ 하시며 빙그레 웃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 합니다. 당시 동아일보가 국내외 독립운동을 보도, 지원하고 민족문화 보존과 계승에 앞장선 활약은 우리 역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고하는 사장 취임 직후인 1927년 12월 12일부터 동 30일까지 만주일원의 백만 한교(韓僑)의 생명과 권익의 옹호를 위하여 김우평(金佑秤) 특파원을 보내어 그 실태와 현황, 그리고 일본 관동군의 행패를 조사케 하여 그 시비를 가리고, 비위를 파헤쳐 보도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무렵을 전후해서 고하는 조국 광복운동자와 그 가족의 구호에도 앞장에 나섰다.

고하가 돌보아준 이 사업들은 모두 은연중에 한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소상히 알 수가 없다. 다만 해방 후 단편적으로 발표된 기록에서 일부의 편모(片貌)를 알 수 있게 할 따름이다.

월간지 <대화(對話)> 1976년 12월호에 게재된 양근환(梁謹煥)의 13년 옥중기 ‘朝鮮魂은 죽지 않는다’에서 한토막을 추려본다.

합방직후 시사신문(時事新聞) 사장 민원식(閔瑗植)은 열렬한 친일 언론인이었다. 그는 총독부의 앞잡이가 되어 소위 국민협회(國民協會)라는 친일단체를 조직하여 총독정치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조선을 일본영토에 편입하고 일본의 한 지방으로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섭차 도일(渡日)했다. 민원식 등 일행은 동경 스테이션 호텔에 머물고 있던 1921년 2월 14일 당시 동경에서 고학하고 있던 애국청년 양근환(梁謹煥=1893년 황해도 연백출생)에 의하여 자살(刺殺)되었다.

양근환은 곧 일경에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유기 20년으로 감형되어 옥고를 겪고 있을 때 그 딸 정자(貞子)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양근환은 정자의 진학문제를 여러 곳에 편지로 호소했으나 아무런 회답도 받지 못했다. 생각 끝에 동아일보사로 고하에게 재차 편지를 띄웠던 바 “만사를 안심하시압. 귀형에게까지 염려를 시키게 되어 죄스럽습니다. 불일내로 영양(令嬢)을 방문하여 곧 입학주선을 하겠습니다”하고 회답을 보내왔다.

이리하여 정자는 고하의 주선으로 상급학교(배화여학교)에 진학했고 졸업할 때까지 도와주었다.

1933년 2월 양근환은 13년간의 옥고를 겪고 가출옥하여 귀국한 바 고하는 양근환에게도 생활자금을 주어 자립하도록 하였으나 그는 술이 과하여 여러 차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해방후 일부에서는 고하가 양근환을 소홀히 한 것처럼 왜곡하여 전해진 바도 있었으나 사실과는 다름을 말해준다.

또한 중국 상해에서 잠입한 것을 탐지하고 체포하려 한 일본 경찰과 수일간에 걸쳐서 총격전을 벌임으로써 총독부 당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자결한 김상옥(金相玉)의 아들을 동아일보에 입사시켜서 그 집안 살림을 돌보기도 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 백범 김구(白凡 金九)의 어머니인 광락원(郭樂園)을 아들의 망명지인 중국으로 건너가게 뒷받침한 바도 있으며 1925년 12월 망명지에서 생활난으로 부득이 귀국하던 백범의 부인(崔氏)과 큰아들 인(仁)이 인천항으로 상륙하자 그를 고향인 황해도 사리원까지 무사히 가도록 물심양면으로 돌보기도 했다. 또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조소앙(趙素昂)의 백씨에게 사식(私食)을 넣는 등 이러한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을 도맡아서 은연중에 민족의 사기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도산 안창호(島山 安昌浩)가 체포되어 귀국한 때로부터 조국광복을 보지 못한 채 서울대학 병원에서 별세할 때까지 정성껏 뒷바라지 하였고 낭산 김준연(朗山 金俊淵)이 옥고를 치루는 동안 그 가족을 보호하기도 하였다. 고하의 이와 같은 보살핌은 해방후까지 계속되었다. 이조 말기에 일어난 해아밀사사건(海牙密事事件)에 관여한 주로 대한제국공사관(駐露 大韓帝國公使館) 서기관 이위중(李瑋鍾)의 직손(直孫)이 해방당시 이발사로서 어렵게 사는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었으며 그가 오랫동안 간직한 사신임명장(使臣任命狀) 원본을 고하에게 제공하자 고하는 귀한 문헌을 간직하고 있음을 칭찬하면서 나라 일이 잘 정돈되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니 잘 보관하라고 당부한 일도 있다.

고하는 애국지사나 그 가족을 적극적으로 돌보아주는 일 이외에도 비밀리에 만주벌판이나 중국 또는 소련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인사들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그들과 호응하고 독립자금을 송금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였다. 원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들이라서 기록이 거의 없으나 광복회장 이강훈(李康勳)의 회고담을 들어본다.

“저는 동아일보 창간 이듬해 고향인 강원도 금화(金化)에서 18세의 나이로 분국장(分局長)을 맡음으로써 동아일보와의 첫 인연이 맺어졌지요. 약 8개월간 신문보급을 하니까 일제의 압력이 그렇게 심할 수가 없어요. 탄압 때문에 할 수 없이 북간도로 떠났습니다. 그때 걸으로는 사범학교에 다니면서 내면적으로는 김좌진(金佐鎭) 장군의 비밀조직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동아일보와 제2의 인연이 생겼지요. 주식회사로 개편된 후 첫 사장에 취임한 고하 송진우 선생이 수차례에 걸쳐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온 것입니다... 제가 신민부(新民府)에서 자금을 관리했는데 처음에는 1926년 5월 목단강(牧丹江) 역으로 약 6천원을 보내와서 이를 수령했고, 두번째는 1928년 9월 둔화현(敦化縣) 이도량자(二道梁子)에서 액수는 기억하기 어려우나 상당액을 받았으며 1929년 2월에 우리가 만주 산시(山市)에서 소만국경으로 본부를 이동하려 할 때 1만원을 보내왔고 또한 1930년 1월 27일 김장군이 별세하자 만장과 함께 다시 1만원을 받았지요. 확실히 고하로부터 온 것만 이처럼 네 차례였고 기타 익명으로 비밀통로를 통해 보내온 것도 수차례나 되었어요... 해방후 윤봉길(尹奉吉), 이봉창(李奉昌), 백정기(白貞基) 등 세 의사의 유해를 고국에 모셔다가 장사지내고자 고하 선생을 만나 김좌진 장군의 이야기를 하던 감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특히 고하가 두번째로 송금한 자금은 북간도와 국내에 침투한 일본인 정상배의 사살에 중점적으로 쓰여졌는데 김좌진 장군은 고려의혈단(高麗義血團)을 조직하여 최인화(崔仁化), 안용(安湧), 이기수(李起洙), 김기천(金基天), 이명량(李明亮), 이환(李煥) 등의 애국지사가 육혈포로 무장하고 북간도에서 활약하는데 큰 활력소를 제공하였다.

뉴욕의 교민사회에서 허정(許政), 설산, 김양수(金良洙), 김도연(金度演), 윤홍섭(尹弘燮), 최순주(崔淳周), 서민호(徐珉濠) 등이 중심이 되어 신문 발간을 계획하고 있었다. 제호를 삼일신보(三一申報)로 정하고 교민사회의 공기(公器)로서 3.1정신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한글로 발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글 활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거의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 동아일보 부사장겸 주미 특파원의 자격으로 유학온 설산이 동아일보 사장인 고하에게 긴 부탁의 편지를 썼다. 일본 당국의 검열을 염려하여 그저 국문 활자가 급히 필요하다고 쓴 설산의 편지를 받아 본 고하는 그 행간(行間)에 숨어있는 의도를 곧 알아차렸다. 얼마후 동아일보사가 이역만리 미국으로 보낸 소포 꾸러미를 뜯어 본 설산은 고하가 국문활자를 보낸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사용하여 1928년 6월 29일 삼일신보의 창간호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고하는 국내는 물론 만주, 중국 또는 미주에 있는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을 돌보는 일에 밤낮으로 노력을 하였다.

1929년 초 때마침 인도(印度)의 애국자요, 독립 운동의 투사인 동시에 시인(詩人)인 라빈드라나트.타고르가 일본에 기항(奇港)한다는 외신이 전해졌다. 고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타고르를 초빙할 계획을 세웠다. 타고르는 1929년 3월 캐나다를 역방(歷訪)하고, 고국 인도로 귀국하는 도중에 일본을 방문했던 것이다. 타고르가 일본에 들른 것은 동경에 인도 독립운동 망명객 여럿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중의 대표자 격인 찬드라.보스는 일본에 망명한 후 다른 여러 나라 망명객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협객(俠客)의 두령(頭領) 도오야마(頭山滿)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도오야마는 군국주의 일본에 있어서 재야 수상(在野首相)이라고 불리울 만큼 치외법권적 존재로 각계 각층에 군림하고 있는 '로닝(浪人)'이었다. 도오야마의 보호를 받은 사람 중에는 중국의 황흥(黃興).손문(孫文).장개석(蔣介石) 등과 한국의 김옥균(金玉均).박영효(朴泳孝) 등이 있었다. 보스는 도오야마의 직계 소오마(相馬)가 경영하는 서양요리집 나카무라야(中村屋)에 투숙하고, 소오마의 딸과 결혼까지 하고 있는 처지였다. 타고르가 보스를 찾은 것은 앞으로의 인도 독립운동의 새 국면의 타개에도 있었지만, 보스의 불우한 처지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고하의 계획은 이 위대한 인도의 항영운동자(抗英運動者)이자 시인인 타고르를 한국으로 초청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하는 동경 지국장 이태로(李泰魯 - 改名 常雨)를 시켜 당시 동경의 조선 기독교청년회 총무로 있으면서 보스와 왕래가 있던 최승만(崔承萬)으로 하여금 타고르의 한국 방문을 타진하도록 했다. 최승만은 보스와 함께 타고르를 방문하고 고하의 의향을 전했다. 타고르는 고하의 초청에 진정으로 감격하면서도 여행 일정 관계상 다음 기회를 약속하고 동아일보를 통하여 한민족에게 바치는 그의 시 한 수를 보낸다고 하였다.

타고르의 시는, 면담 즉시는 얻지 못하고 그가 떠나는 3월 28일 요코하마(橫濱) 부두에 정박 중인 엠프레스 오브 에이시아호에서 최승만이 받아 본국으로 우송된 것을 4월 3일 동아일보에 게재한 것이다.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its lamp-bearers,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For the illumination
In the East.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燈燭)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엔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타고르의 기사와 시가 게재된 후, 이 시는 널리 번져서 '빛나던 아시아의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엔 동방의 빛이 된다', '동방의 빛이여, 너의 이름은 조선이다'라고 읊조리면서 이 나라의 젊은 이들은 앞날을 스스로들 위안하고 격려했다.

또한 1929년에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세운 대학 -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의 제1회 졸업식이 거행되는 해였는데, 때마침 순 민간인으로 고하가 초청을 받았다. 철저한 관학(官學)에서 판박이 민족주의자인 고하를 초대한 것은 상상 밖의 일이었다. 총독 이하 고관들이 즐비하게 참석한 졸업식에서 총장인 마쓰우라(松浦鎮次郎)는 고하에게 축사를 요청하였다.

“내가 지금 총장 마쓰우라군에게 소개받은 송진우요. 나는 나의 과거 학생시절의 이야기를 몇 마디 하겠는데 이것이 학창을 떠나는 제군에게 참고가 되면 다행이겠소”

고하는 이렇게 축사를 시작하였다. 졸업식이 끝난 후 기사 취재를 위해 따라간 기자가 고하에게 다가섰다.

“제국대학 총장을 공식 석상에서 '군'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례가 아닐까요?”

기자가 고하에게 다져 물었다.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는 훌륭한 고관이요 각하(閣下)이지만, 내가 말한 것은 우리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한 것이니, 조금도 실례될 것은 없소. 신문 기자는 그런 호흡쯤은 곧 분간해야 하오”

하고 고하는 반문했다. 당시 총장은 총독이나 총감과 같은 친임관(親任官)이었다.

이 즈음을 전후해서 다시 고하에게 바쁜 나날이 밀어 닥쳤다. 그는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린 제3회 범태평양회의(汎太平洋會議)에 백관수(白寬洙).유억겸(兪億兼).김활란(金活蘭).윤치호(尹致昊) 등과 같이 참석하는가 하면, 제17회 신문협회(新聞協會) 회의에 참가, 평의원(評議員) 4인 중의 1인으로 선출되어 동분서주해야 했다.

고하가 범태평양회의와 신문협회 회의에서 돌아온 가을, 11월 3일 광주(光州)에서 한인 학생들과 일인 학생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 전국적으로 번진 광주학생사건(光州學生事件)이 폭발했다. 이 충돌 사건은 삼시간에 전국에 파급되어 민족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이 광주학생의거의 전말은 대강 이러하다.

1919년의 3.1운동이 있는 지 10년, 일제의 압박으로 축적된 민족감정은 폭발할 분화구(噴火口)를 찾던 때이다. 1929년 6월 26일 통학생들을 태운 기차가 운암(雲岩)역(지금 北光州驛)을 지날 때 농촌에서 개를 잡아 그슬리는 것을 본 일인학생 곤도(近藤)는 조선인은 '야만'이라고 조소하며 동승한 한국인 학생들을 조롱했다. 이때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 10여명이 격분하여 이 자를 못매질 했다. 경찰이나 학교측도 이날의 사건을 알았으나 정책상 불문에 부쳤다.

이 후 일인 학생들은 복수할 기회를 엿보던 중인 10월 30일 오후 5시반경 광주 - 나주(羅州)간 기차간에서의 일이다. 일인 학생 후쿠다(福田修三)는 광주여학교 학생 박기옥(朴己玉).장매성(張梅性).이광춘(李光春) 등 세 여학생의 머리꼬리를 나누며 희롱했다. 당시 여학생은 머리를 길게 따서 늘였다. 이를 본 광주고보 2학년생 박준채(朴準琛 - 박기옥의 4촌동생)이 격분하여 후쿠다를 때리니 격투가 벌어졌다. 기차가 나주역에 도착하자 역전 파출소 일인순사 모리다(森田)는 박준채만을 연행해 가므로 다른 학생들이 몰려가 항의하자 돌려보냈다. 다음 날인 31일 아침 박준채 등 한국인 학생들이 기차에 오르자 또 일인 학생들과 패싸움이 벌어졌으나 여객전무의 만류로 끝났지만 쌍방의 감정은 극도로 악화돼 있었다.

11월 3일은 일요일이었으나 우리의 개천절(開天節)이며 일제의 명치절(明治節)이었으므로 각 학교에서는 기념식을 가졌다. 식이 끝나자 광주고보 학생들은 일제타도를 외치며 일대는 일인 신문인 광주일보사(光州日報社)를 습격하여 기물 등을 파괴하고, 일대는 광주역으로 몰려가서 일인 학생들을 닥치는대로 때려 패싸움이 벌어졌다. 이때 급히 출동한 경찰은 많은 한국인 학생들을 구

타하고 체포해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삼시간에 전국으로 확대됐다. 서울의 경성제국대학을 위시하여 서울.인천.개성.함흥.원산.정주.부산.진주.대구 등지의 각급 학교로 확대됐다. 요원의 불길처럼 삼시간에 번진 이 사건은 194개 학교에서 5만44명이 맹휴(盟休) 등 이 투쟁에 참가했다. 이중 560명이 퇴학 또는 최고 5년의 체형을 받았고, 2,330여명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광주 감옥에 수감된 학생들은 조직적인 옥중투쟁을 벌임으로써, 전 광주 시민이 이에 호응하여 크게 혼란하자 일제는 130명의 수감 학생들을 모두 대구 형무소로 이감했다.

이 사건의 불씨는 광주학생들의 의거에서 이루어졌으나 전국으로 확대되게 된 이면에는 고하의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1976년 10월 15일자 전남매일신문에 게재된 인물개화(人物開化)에서 최인식(崔仁植)의 술회를 일부 전재하여 진상을 알아본다.

1926년 9월 광주고보(光州高普-光州西中-現 光州一高)에는 성진회(醒進會)란 애국단체가 비밀리에 조직되었다. 성진회는 신간회(新幹會) 등 사회단체와도 긴밀한 연락을 맺고 애국.독립정신을 서서히 일깨워 갔다. 그러나 성진회의 중심된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주축을 잃게 되니 광주고보.농고.사범학교 학생들이 모여 독서회를 조직했다. 표면상으로는 민족문화 연구라 했으나 이면에는 독립정신을 기르는 항일단체로서 성진회 정신의 계승이었다.

앞서 말한 광주학생 의거는 계획된 항일독립투쟁으로서 그 배후에는 성진회의 작용이 적지 아니했다.

...(前略)... 최인식(崔仁植=당시 朝鮮日報記者)은 광주학생사건이 중앙에서 보도 금지되자 기사취재를 팽개치고 서울서 학생사건을 다시 일으킬 것을 장석천(張錫天.東京商大 在學生)과 결의하고 자금조달을 위해 무송(撫松.玄俊鎬=湖南銀行 設立)을 찾아갔다. 최인식 등이 무송을 찾아갔을 때는 마침 목포지점으로 출타중이었다. 이때 호은(湖銀) 취체역이자 신간회 전남지회장인 정수태(丁洙泰.丁來赫 선친)를 만나 비밀리에 일금 5백원을 얻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다. 인촌을 찾았으나 1주일 전에 유럽여행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종로구 원서동 덕으로 고하 송진우를 찾았다. 강영석(姜永錫), 이항발(李恒發.羅州 제헌 국회의원), 최인식 등이 12월 중순 고하 집을 찾았을 때는 마침 장덕수, 최창학(崔昌學.최희준부친), 현상윤(玄相允) 등이 함께 모여 시국얘기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다.

“당신이 조선일보 최인식이오?”

“예, 그렇소”

방에서 만난 최인식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거사자금의 지원을 요청했다.

“얼마면 되겠소?”

“한 3천원정도 필요합니다”

“3천원이라.....”

고하는 그렇게 큰돈이 어데 있느냐 하며 손님이 있음을 이유로 다음날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다음날 고하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명월관 요리집에 있을 때 이들은 그곳에서 고하를 만났다.

고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덕수 등이 있던 방으로 내려갔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온 고하는 갑자기 최인식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당신들도 참 속이 없구려. 내게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들 찾아다니요. 남에게 돈 잘 주는 내 친구 호남 갑부 현준호도 이렇듯 쓸데없는 돈을 안줄거요”

고하의 고함소리에 아랫방에 있던 이들이 우루루 몰려와 화를 벌컥 내고 있는 고하를 말렸다. 최인식 등은 기분이 상했다.

평소 들어왔던 고하와는 태도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화가 난 이들은 변변히 인사도 없는 채 밖으로 나오고 말았다. 이들이 밖으로 나설 때 최인식의 등을 두들긴 고하가 호주머니에 무언가를 넣어 주었다.

“저녁도 못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구먼...”

불만을 간직한 채 밖으로 나온 최인식은 고하가 조금전 손을 넣은 호주머니 속을 살피니 3천원이란 돈이 나왔다. 이들은 깜짝 놀랐다. 그제서야 고하의 참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최인식 등이 요구한 3천원은 현상윤·최창학 등 사회유지가 보는 앞에서 저녁밥 값이란 명목으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당시 3천원이면 서울서 5칸 기와집을 살만한 큰돈이었다.

장석천과 최인식 등은 이 돈을 1930년 1월 4일 일어난 전국 학생사건자금으로 사용했다.

그후 이들중 장석천(전남 완도 출신)은 일경에 곧 체포되었으나 입을 굳게 다문 바람에 배후자는 영원히 밝혀지지 아니했다. 나중에 광주에 내려온 고하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무송은 최인식에 대해 주의깊게 바라보게 시작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 후 최인식과 여러 일을 함께 하기도 했다....(後略)...

광주학생의거는 3.1운동, 6.10만세에 이어 민족적인 항일투쟁이었다. 그러므로 고하의 진두 지휘 아래 동아일보는 연일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로 인해서 동아일보는 편집국장 송아 주요한(頌兒 朱耀翰)이 피검 구속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일제(日帝)의 만주 침략 전야에 일어난 광주 학생사건이 날로 전국에 번져 가고, 민심이 견잡을 수 없이 극도로 거칠어진 1930년 4월 동아일보는 창간 10주년을 맞이했다. 고하는 1927.8년경부터 민족운동이나 사상운동의 탄압이 심해지자, 이에 억눌려서 이 민족의 방향 감각을 잃어감을 개탄한 나머지 홀로 동아일보만이라도 창간 10주년을 핑계로 삼아 문화 운동을 표방하고, 그 그늘에서나마 민족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욕망이 불꽃을 튀겼다. 그래서 창간 10주년 기념 사업을 여느 때보다도 범위를 넓혀서 성대히 차리기로 했다.

우선 추송 장덕준(秋松 張德俊)의 추도식(追悼式)이었다. 고하가 3.1운동 주모자의 한 사람으로 아직 옥중에 있을 때, 만주 간도에서는 봉오동(鳳梧洞)전투 혹은 청산리(靑山里) 전투 등으로 우리 독립군이 일본 군경을 격파하고, 또 그해 가을에는 훈춘의 일본 영사분관(領事分館)이 습격을 당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일본은 그 보복으로 훈춘을 중심으로 간도 일대의 한인 교포를 무차별 학살하기 시작하여 그 사상자는 수만에 달했다. 이 때 동아일보는 장덕준을 특파하여 현지 취재를 하게 하였던 바 그는 일본군에게 유인되어 그해 11월에 학살되고 말았던 것이다. 처음에는 단지 '행방불명'이라 했던 장덕준 피살 사건도 이제는 만 10년이 되었다. 늦게나마 그를 위한 추도식을 거행하자는 것이었다.

다음은 창간 10주년 기념으로 조선어문공로자(朝鮮語文功勞者)를 비롯하여 농촌사업, 농촌교육 등의 공로자를 표창했다. 또 만 10세까지의 우량아(優良兒)의 표창, 시(詩), 문(文), 서(書), 화(畫)의 공모, 활동 사진(映畵) '정의(正義)는 이긴다'의 공개 상영, 10년 근속사원 및 지국장들의 표창 등 대규모의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공개 기념 사업이 진행되던 중 동아일보는 미국 <네이슨>지(誌)의 빌라즈주필(主筆)로부터 보내온 '조선의 현상 밑에 귀보의 사명은 중대하다'는 축하문(祝賀文)을 4월 16일자 지상에 실었던 바, 총독부 경무국 당국은 이 글이 안녕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구실을 내걸어 4월 17일 제3차 무기정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朝鮮의 現狀 밑에 貴報의 使命은 重大하다.

'네이슨'週刊이 1865年 創刊 以來로 主張해 온 것은 少數民族層의 自由, 各 人民의 生活樣式的 自由, 어떠한 곳으로부터 發生함을 물론하고 軍國主義에 對한 抗議로 一貫했습니다. 그러므로 貴

紙가 代表하는 事業에 對하여 우리가 絶對의 興味를 가지고 있는 것은 두말할 일이 아닌 듯합니다....(中略)...

朝鮮의 現狀 밑에서 貴紙의 使命이 重大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貴紙로 하여금 곳곳하게 하고 非利己의이며 公正하고, 潔白하고, 使命을 위하여는 모든 것을 犧牲하려는 決心을 있게 하는 所以입니다. 만일 貴紙가 읽힐 政策으로 一貫한다면 朝鮮民族과 그의 使命을 위하여 가장 힘있게 奉仕할 수 있을 것입니다. 格言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1831년에 나의 祖父되시는 윌리엄 로이드 가릭스氏가 '리버티'라는 新聞을 創刊했습니다. 이 新聞이 黑奴 解放에 多大한 貢獻이 있는 것은 歷史가 認定하는 바입니다.

이 新聞 創刊號는 이와 같은 말을 使用했습니다. 至誠을 다한다. ...(中略)... 一寸이라도 退却치 않는다. 그리하여 初志를 貫徹한다. ...(中略)...

끝으로 貴紙의 前途를 衷心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오는 十年에도 過去의 十年과 마찬가지로 民主主義의 使命과 國際的 眞正한 平和를 위하여 全世界에 民主主義를 樹立하기 위하여 奮闘 努力하시기를 바랍니다. (東亞日報 1930. 4. 16)

동아일보가 1930년 4월 17일부터 무기 정간처분을 받고 고하가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월간지 <철필(鐵筆)> 7월호(1930년 7월 9일간, 제1권 제1호)는 '3大新聞의 巨頭'란 대제(大題) 아래 동아일보의 고하, 조선일보의 신석우(申錫雨), 중외일보(中外日報)의 안희제(安熙濟)에 대한 인간상(人間相)을 월단생(月旦生)이란 필명으로 게재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언론의 단면을 볼 수 있기로 이에 전제한다.

3大新聞의 巨頭

月 旦 生

앞으로는 朝鮮의 民間言論界가 얼마나 많은 發展을 보일지는 아직 疑問이나 現今의 情勢로 보아서는 金屬으로 치면 展성과 延성을 함께 가지지 못한 朝鮮의 言論界이나 朝鮮.東亞.中外의 세 新聞이 朝鮮言論界의 主的이며 따라서 羈者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三社 共히 朝鮮人 大衆의 表現機關으로 自處하고 各各 自稱 十萬의 讀者를 擁하여 朝鮮의 輿論은 一般에게 紹介도 하며 境遇에 따라서는 代辯도 한다. 그리고 그들 當路者의 眼中에서나 念頭에서 언제나 朝鮮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도 自己네의 辯明을 기다릴 것 없이 우리 스스로도 能히 짐작하는 바이다.

이리하여 이 3大新聞은 한 '저널리스트'로서 存在하는 그 以外的 意味깊은 役割을 맡아가지고 現實의 朝鮮에서 存在해 있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우리는 이 세 新聞을 一種 合法(?)의이나마 運動團體로 본다고 하여도 妄論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우리 2천3백만 民衆의 表現機關이며 代辯者이며 報道와 指導를 兼해 맡은 이 세 機關은 어떠한 사람들의 팔뚝을 빌어 키(舵)를 돌리는가를 알아둬도 매우 緊要한 일일 것이다.

<女子면 喪夫할 宋鎮禹氏>

停刊中에 孤獨한 歲月을 보내고 있는 東亞日報社長 宋鎮禹氏부터 보자. 氏는 얼른 보면 內侍같이 되고 어깨가 올라가지 아니한 것을 보면 氏가 過去에 大闕出入이 없었던 것만은 누구나 잘 諒解할 것이다. 그러나 그 平面이라도 過度히 平面的으로 된 氏의 얼굴과 女子로 되었던들 喪夫할 程度로 썩 나온 兩頸骨 그리고 '離妻의 明'을 가진 사람이 顯微鏡 쓴 후에 족집게를 들고 대들어 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염 등으로 보면 推定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 넓직한 이마(額) 軒昂한 氣像 거기에서 氏 獨特한 氣魄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氏의 넓직한 이마와 軒昂한 氣品을 看破하지 못하고 다른 點만을 보아 氏를 속속드리 짐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몰라보는 데도 分數가 없는 사람일 것이다. 氏는 얼굴의 大體로 보면 外華의 人은 아니다. 그대신 內實의 人이다. 日韓合邦 以後 世事가 自己의 뜻과 어그러지매 몸을 庠序에 投하여 白墨가루를 마시며 聰俊子弟 教養에 一念이 孜孜하였으되 恒常 脫穎할 機會를 보아 오다가 己未 - 一過한 후에 民衆의 움직이는 傾向이 前과 差를 보고는 脫穎할 時機가 다다랐음을 看破하고 慨然히 일어나니 그때의 氏는 教壇의 人, 學究의 士를 벗어나 運動의 策士가 되었었다.

그러다가 東亞日報가 第一期 創刊者의 經營難이란 陷穽에 들었음을 보고 다시 氏는 平素에 交分이 두텁고 志氣가 相合하는 金性洙氏와 天下事를 共論하다가 드디어 이것을 지키어 定向없이 動하는 民衆의 指南이 되기를 決意하고 나선 것이 十年未滿이나 그동안 朝鮮으로 하여금 言論을 理解하고 大勢에 合流케 하는 한편 또다시 東亞日報 自體의 內容도 充實하여 宛然 한개의 王國을 이루게 하였으니 氏는 여태껏 지나온 바로 보아 能小能大하며 大勢의 歸趨를 알아 써 將來의 겪을 바를 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月杻子의 보는 바로는 氏는 政治家라기 보다는 策略家이다. 運籌帷幄의 謀士이다. 氏 自身으로서는 섭섭히 여길는지 모르지만 表面에 나설 政治家로는 外華에 무게가 적고, 演壇에 올라서 政治演說 한마디 하기에 聲量이 적다. 그리고 氏는 勿論 惚忙한 社務와 其他 여러가지로 精神을 너무 쓰는 탓이겠지만 健忘症이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氏는 部下를 統制하는 데 亦是, 어떤 妙方을 가진 모양이다. 그리하여 그렇게 많은 部下 中에서도 不平을 吐하는 者가 없는 것을 보면 果然 氏가 部下統制를 잘하는 모양인지 수염한개 없는 氏의 얼굴에 嬌態가 어떤 魅力을 가지고 部下를 箝制(箝制)하는지 알기 어렵다.(申錫兩, 安熙濟 記事는 省略)

2. 이충무공 유적 보존운동

1930년 4월에 제3차 무기정간(無期停刊)을 당했던 동아일보는 그해 9월에야 겨우 속간을 보게 되었다. 동아일보는 이로부터 더 한층 민중 계몽운동을 통하여 민족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갔다.

그해 겨울 고하는 '조선의 노래'의 제정을 계획했다. 해마다 동아일보에서 실시하는 신춘문예 현상모집(新春文藝懸賞募集) 중 시가(詩歌) 부문에 이번에는 '조선의 노래'라는 제목을 정하여 공모기로 한 것이다. 비록 나라가 없어 국가(國歌)를 제정할 길은 없으나 민족의 노래로서 민중이 다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제정하여 민족 정신을 고취시킨다는 것은 정부 없는 겨레의 대변 기관이요 정부 아닌 정부로서 자임(自任) 자처(自處)하는 동아일보로서 당연히 생각합직한 일이었다.

응모된 가사 중에는, 민족의 노래로 평가하기에 족할만한 작품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당시 심사위원의 한 사람이었던 노산 이은상(鷲山 李殷相)에게 위촉하여 공모된 여러 작품 중에서 좋은 구절을 하나씩 떼어 내어 새 가사(歌詞)를 만들게 하였다. 이것이 1931년 1월에 '작사(作詞) 익명생(匿名生)'이라 하여 발표된 '조선의 노래'이다.

朝鮮의 노래

白頭山 뻘어나려 半島 三千里
無窮花 이 동산에 歷史 半萬年
代代로 예사는 우리 二千萬
福되도다 그 이름 朝鮮이로세

三千里 아름다운 이 내 江山에
億萬年 살아갈 朝鮮의 子孫
길러온 才操와 힘을 모두세
우리의 앞길은 坦坦하도다.

보아라 이 江山에 밤이 새나니
二千萬 너도 나도 함께 나가세
光明한 아침 날이 솟아오르면
기쁨에 북바쳐 노래하리라

가사가 결정되자, 이것을 음악가 현제명(玄濟明)에게 위촉하여 작곡을 끝냈다. 이것이 일제 시대는 물론 해방후까지도 온 민족이 널리 불렀고 또 부르고 있는 <조선의 노래>인 것이다.

이 몇 해 뒤인 1934년 11월에는 <조선의 노래>의 자매(姊妹) 가요라고 하는 <조선청년의 노래>, <조선학생의 노래>, <조선가정의 노래> 등이 공모 발표되었던 것을 여기에 부기(附記)해 둔다.

1931년 5월에는 이충무공(李忠武公) 유적 보존(遺蹟保存) 운동이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팽배하게 일어나 남녀노소 온 겨레의 혈관을 뒤끓게 하였다.

일의 발단은, 이해 5월 13일자 동아일보에, 충무공 13대 종손이 빚 3,400원(원리 합계) 때문에 동일은행(同一銀行)에 잡혔던 충남(忠南) 아산군(牙山郡) 음봉면(陰峰面) 사정리(沙亭里) 소재 충무공 묘소의 위토(位土)가 곧 경매에 붙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보도되었다. 이 보도가 있던 그 이튿날 동아일보는, '민족적 수치 - 채무에 시달린 충무공 묘소'라는 사설로, 민족의 영웅인 이충무공의 묘소 위토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민족적 정열의 냉각과 민족적 자부심의 마비를 통탄하고 충무공 유적 보존에 앞장섰다.

고하는 민족 영웅의 묘소 위토가 경매되어,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묵과하지 않았다. 고하는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를 찾았다.

"삼성사(三聖祠) 안(案)이 실패한 후로 이런 일을 하나 하지 못해서 늘 꺼림칙하던 차에 마침 잘 되었소. 그 산판을 후손들에게 도로 찾아 주고, 거기다가 현충사(顯忠祠)를 짓는 것이 어떨까요. 삼척동자라도, 이 나라 사람으로 임진왜란의 충무공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터이니, 이 일을 하나 하면 동포들도 또 한번 각성하게 될 것이고, 큰 등불을 켜 놓는 거요... 글은 위당이 써야겠소마는 은행이나 왜정을 공격해서는 도리어 화(禍)를 일으켜 일을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으니, 다만 그 산판 잡혀 먹은 충무공의 후손들을 치는 논조(論調)로 쓰도록 하시오. 여하간 죄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니 그래야만 일이 될거요"

고하는 이와같이 말하고, 위당으로 하여금 신문에 충무공의 후손을 공격하는 글을 쓰게 하고 은연중 사당 중건을 역설케 했다. 침체해가는 민족혼을 이 기회에 일깨우고 또 위토를 찾고, 현충사 건립을 겨냥한 것이었으니 일종의 양동전술이었다. 그러나 처음 그 진의를 모르는 충무공 후손은 동아일보사로 고하를 방문하고 과잉 힐책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위당의 글에 민세안재홍(民世 安在鴻)의 반박문이 조선일보에 실렸다.

“이런 일이 있으면 마치 잔치 마당의 공론처럼 떠들기는 쉬워도 정신 차려 일이 되도록 하기는 좀체 어렵습네다. 내버려 두시오. 뭐라고들 하건. 우리가 하는 일은 될 것이고, 그러면 또 그만
이 아니요”

하고, 고하는 다시 위당에게 반박문을 쓰게 하니 이것은 자꾸 충무공에 대한 신문기사가 쓰여지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와같이 비등하는 여론의 뒤에서는 착착 충무공의 사당 중건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리하여 일제의 훼방을 물리치면서, 후손들을 맹성(猛省)케 하고, 국민들의 민족적 수치와 의분을 일으켜서 드디어는 그해 6월 충무공유적보존회(忠武公遺跡保存會)가 결성되었다. 회장에 윤치호(尹致昊), 부회장에 남궁억(南宮憶).유진태(兪鎭泰)를 추대하고, 고하와 동아일보는 실무를 주관했다. 그리고 고하는 춘원에게 오래 전부터 집필할 것을 권하여 오던 소설 <이순신(李舜臣)>을 동아일보에 연재케 했다.

이와 같이 고하와 동아일보가 충무공 사업에 발벗고 나서자, 5월 15일 독자 최모(崔某)씨 등 5인이 ‘우리들의 주머니를 긁어 모아 그 위토를 찾자’는 투고와 함께 현금 5원을 보내온 데서 비롯하여, 전국 방방곡곡으로부터 한 푼 두 푼의 성금이 답지(逕至)하였다. 그 중에서 우선 2,277원 22전을 동일은행에 지급함으로써 10여년만에 충무공 묘소 위토의 문서를 다시 찾게 되었다.

이어 그해 7월 11일, 제2단계의 사업으로 아산군(牙山郡) 염치면(鹽峙面) 백암리(白岩里) 방화산(訪花山)에 현충사 건립 공사에 착수하였다. 고하는 몸소 위당과 함께 아산의 건축 현장에서 일주일을 유숙하면서 감독까지 했다. 그해 연말에 현충사는 준공되었다. 새로 꾸민 사당 안에는 후손이 보관하고 있던 검(劍).금대(金帶).일기(日記).칙지(勅旨) 등 이충무공의 유물을 안치했다. 1년 동안에 전국 2만여명과 4백여 단체로부터 건헌 성금은 17,000원 (당시 쌀 한가마니에 15원)이 넘었다.

이듬해 1932년 봄, 고하는 동아일보 전속 화가인 청전 이상범(靑田 李象範)에게 아산 현충사에 모실 이충무공의 영정(影禎)을 그릴 것을 지시했다. 청전은 전국에 산재하는 동아일보 지국에 연락하여, 대본(臺本)으로 삼을 만한 충무공 영정을 물색했지만, 불행하게도 신통한 것을 발견할 수 없어, 청전은 한산도(閑山島) 제승당(制勝堂)에 있는 영정을 직접 답사하여, 수채(水彩)로 그려진 소형의 영정을 사본해 오기도 하고, 통영(統營), 여수(麗水)의 사당에 모신 영정을 몇 점 보고 오기도 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고하와 청전은 숙의한 끝에, 의상(衣裳)은 구군복(具軍服), 크기는 전신좌상(全身座像)이 들어갈만한 크기로 결정한 후, 3.4회 초를 잡아 고하를 비롯한 사내 간부들의 의견을 들은 후, 비로소 제작에 손을 대어 약 2개월만에 완성을 보았다.

1932년 6월 5일, 아산의 새 사당에 충무공 영정을 봉안하는 의식이 거행되던 날, 수만의 백의인파(白衣人波)가 주변의 산야를 뒤덮었고, 천안 온양간에는 임시열차가 운행되는 등, 온 겨레의 잔치다운 성황을 이루었다.

충무공 유적보존운동이 시작될 무렵 고하가 충무공 묘소 참배차 온양(溫陽)에 왔을 때 있었던 일을 충무공 15대손인 이재훈(李載勳)은 이렇게 말한다.

1931년 늦은 봄이었다. 고하는 충무공 묘소에 참배차 기차로 온양에 왔다. 이때 온양 신정관(新井館)에 묵고있던 사이또(齊藤) 총독은 그 비서를 보내어 충무공 묘소까지는 삼십리나 되므로 자기 자동차를 내주겠노라고 제의해 왔다. 이때 고하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한편 현충사 건립이 끝나자 또 이해 1932년 10월에는 동아일보의 주관으로 역시 임진왜란의 영웅의 한 분인 권율(權慄都元帥)의 기공사(紀功祠)가 그의 전첩지(戰捷地) 행주(幸州)산성에 세워졌던 것이다.

이외의 충무공 유적중 한산도(閑山島)에 있는 제승당(制勝堂) 등 여러곳에 자금을 보내서 건물을 보수케 했다.

이즈음 동광(東光), 삼천리(三千里) 등 각 월간지(月刊誌)에 게재된 앙케이트 혹은 담론(談論) 등을 참고삼아 전제한다. 이와 같은 글속에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엿볼 수 있겠기에 순서없이 엮는다.

(設 問)

1. 對日本經濟封鎖는 實現될까?
2. 米國이 單獨으로 할까. 列國이 聯合으로 될까
3. 萬一 實現된다면 그 實行方法 如何
4. 日本의 對策 如何
5. 그 效果 又是 影響 如何
6. 朝鮮에 미치는 影響 如何

(應答) 經濟封鎖 實現 不可能

東亞日報社長 宋 鎮 禹

列國이 聯合하여 日本에 對해서 經濟封鎖를 斷行하겠다고요? 그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여러가지 理由가 있겠지만 萬一 經濟封鎖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日本이 받는 損害가 오직 큼니까. 日本이 그 損害를 豫想하고 列國이 聯合하여 聯盟規約 第16條를 適用하기까지 行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談)

<東 光> 총31호(제4권 3호) 1932.3.5 간(3월호)

國民黨 政府 依然繼續

宋 鎮 禹

1. 中國은 이번 滿洲事件과 上海事變으로 因하여 人命과 財政上 其他 여러 가지로 巨大한 損失을 보았지만 精神上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中國은 國民黨과 廣東派, 共產黨과의 對立, 軍閥間의 軋轢 其他 여러가지로 內爭이 많고 統一上 큰 問題였었는데 이번 事件으로 말미암아 一層 緊張한 自覺을 일으키고 따라서 中國進路에 많은 影響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2. 中國은 中國 自身の 힘으로야 그 基礎를 鞏固히 할 수 있겠지요. 政治上으로 보면 亦是 親米, 親英의 傾向을 가질 것입니다.

3. 國民黨政府가 繼續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면 만일 共產黨이 成立된다면 그것은 資本主義國家 全部의 敵이니가 그렇게 되게 두지 않을 것이요, 國家主義黨이 갑자기 權力을 쥐게 되리라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亦是 四, 五十年의 歷史를 가진 國民黨政府가 繼續될 것이요, 그것이 國家主義黨의 色彩를 띄게 될지도 모릅니다.

4. 中國國民의 態度如何에 依하여 決定될 問題입니다. 中國國民이 自覺하고 一致團結하여 善處하면 國際管理나 分割이 안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如何한 運命에 이르지 모를 것입니다.

(談, 文責 在記者)

<東 光> 총32호(제4권 4호) 1932.4.1간(4월호)

無風的인 現下 局面打開策
文化運動과 消費運動에 注力

宋 鎮 禹

記者=오늘날과 같이 沈滯된 民族運動의 局面을 새로이 健全하고 活潑하게 打開하자면 어떠한

方略을 取하여야 하겠습니까. 勿論 우리들이 論議하자는 範圍는 合法運動에 限할 것이요, 그 方略도 現在 이 段階에 있어 必要한 그 點만을 取扱하자는 것이올시다.

宋=沈滯된 局面을 打開할 方略이 꼭 있지요. 그것은 第1着으로 또한 基準的으로 먼저 全民族의 力量을 한곳에 วม쳤다 할 強力한 中心團體부터 結成시켜 놓는데 있지요. 그것이 없이는 政治運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個人 個人끼리 백날 애쓴대야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직 全民族의 意思를 代表한 큰 團體를 통한 運動이 없이는 尙大한 政治運動이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외다. 그런데 現在 우리 社會에는 이런 種類의 政治運動團體가 아직 없다고 봅니다

記者=그러면 그 中心團體의 結成이 可望이 없다고 보십니까?

宋=至難한 일로 압니다. 只今 現狀으로는 中心團體가 만들어지기가 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政治運動이 容易히 있어지리라고 觀測할 수 없습니다.

記者= 그 理由로는?

宋=中心團體가 이루어질 可能性이 없는 첫 理由로 조선사람의 理想이 統一되지 못하고 分裂되어있는 點이외다. 한쪽에는 民族主義가 盛하고 한쪽에서는 社會主義가 있고 또 한쪽에는 무슨 主義 무슨 主義하여 大小, 長短, 正反, 離合이 도무지 雜然 不一致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結社를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는 必然的으로 分裂될 素因부터 內包하고 억지로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밤낮 內訌이 일고 成長이 없다가 畢竟에는 그 壽命이 길지 못하고 말지요.

記者=어찌해서 반드시 그러리라고 觀察하십니까.

宋=新幹會가 最近에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좋은 예이지요.(中略)... 자 보시오, 무슨 일을 하자면 우리들에게는 強力한 어떤 한 편이 嚴然히 臨迫하여 있지 않습니까. 그에 對한 對策에 우리의 智慧와 힘을 다 부어야 할 터인데 이와같이 內紛이 일어서야 오히려 그 內治하기에 바빠서 무슨일이 이루어질 틈이 생기겠습니까. 누가 무슨 일을 한다면 그것을 싸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벌써 檢事나 判事와 같이 條目條目 치켜들고 批判하고 追窮하고 質問하고 檢討하기에 奔走합니다. 이것은 전혀 思想이 不一致한데서 나오는 弊害이지요.

記者=그러면 그 思想의 不一致를 除去하려면?

宋=오직 民衆의 自覺과 文化程度가 向上되어야 하지요.

記者=다음으로 中心團體가 이뤄지지 못하는 둘째 理由로는?

宋=有志 有力한 人士들이 自重不動하는데 理由도 있겠지요.

記者=彈壓이 무서워서일까요.

宋=아니지요, 아직 無用한 犧牲을 避하기 爲해서지요. 즉 現下의 紛糾된 思想關係와 또는 複雜한 周圍環境의 事情이 많겠지요.

記者=그러면 民族運動의 今後의 코-쓰는 어떠하여야 하겠습니까?

宋=政治運動의 基本運動을 함에 있지요, 그 準備運動으로 文化運動을 不得已 일으켜야 하겠지요.

記者=文化運動이라면?

宋=教育機關을 充實히 하고 新聞 雜誌 講習會를 통하여 智識을 啓蒙시키고 또 消費組合, 協同組合運動을 일으켜서 經濟的으로 지탱하여 나갈 길을 열어주어 그래서 文化的, 經濟的으로 實際的 訓練을 하여야 되겠지요.

記者=그밖에는 또 길이 없겠습니까?

宋=現下의 環境에 있어서는 더 할말이 없습니다.

記者=무슨 運動을 일으키는데도 그렇고 무슨 局面을 打開하는데도 그렇겠지만 첫째 團體, 둘째 指導者, 셋째 돈이 必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團體結成에는 先生의 뜻을 알았습니다만은 둘째의 指導者 問題는 어떻게 보십니까. 最高統制機關에서 民立大學같은 것을 하루속히 再建하여

劃一的 人材부터 養成하여 내놓는 것이 急務가 아니겠습니까?

宋=勿論 必要하지요, 그렇지만 民立大學이 容易히 되겠습니까.

記者=金性洙氏가 다시 한번 鐵石같은 決心을 갖고 蹶起하여 준다면 밖에서도 그 事業을 能力 聲援하여 完成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宋=金性洙氏도 그런 생각이야 있겠지요, 그러나 그의 생각이 아직 公表되지 아니한 以上 나로서 무어라 말할 수 없습니다.

記者=셋째로 資金은? 지금 이렇게 假想할 수 있을 줄 압니다. 金性洙, 崔昌學, 朴榮喆 等 諸氏가 數百萬圓의 信託會社를 만들어서 金融組合, 殖銀, 東拓, 其他 資金業者의 손으로부터 全鮮 各處의 土地가 싼값으로 마구 放賣되어가는 이판에 그 땅들을 前記 信託會社에서 사들이거나 救助 方法을 열어주어서 그 農作物을 通하여 恒久的 돈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朝鮮農民의 經濟破滅을 막아주기도 하고.

宋=資本家の 利害가 一致한다면 그도 可能하겠지요. 그렇지만 돈있는 사람들도 서로 立場이 다르고 利害가 不一致하니까 實現되기 어려울걸요.

記者=北米 李承晚博士는 돈을 얻기 위하여 年前에 큰 商船 여러 隻을 사들여가지고 世界 各地로 돌아다니며 通商을 하고싶다는 計劃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던 特異한 方策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愛蘭서는 科學者를 시켜서 金鑛을 많이 發見 採鑛하여 그것으로 資金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宋=그러나 그 點이 그렇게 杞憂할 거리가 아니리라고 보여집니다.

<三千里> 총25호(제4권 4호) 1932.4.1 간(4월호)

나의 八人觀

黃錫禹

朝鮮의 人物中에서 이미 完成된 權威者를 골라내려면, ×雄 安昌浩, 政客 宋鎮禹, 事業家 金性洙, ××家 金翰, 雄辯家 朴一秉, 外交家 金奎植, 文豪 李光洙, 好人物 安在鴻(後日의 好宰相?) 등이 될 것이다. 政客側 人物에는 申錫雨, 張德秀君 등이 있으나 申君은 좀 더 긴 時日의 現實履歷을 가져야 할 人物(그는 너무 빨리 隱退한 感이 없지 않다)이며 張德秀君은 議會政治家流의 人物이나 學界로 向해 가는 便(充實한 政治學者로서)이 더 좋은 길일까 한다. 此外에 또 빼어놓지 못할 人物로는 崔麟이 있으나 그는 새 時代 사람들의 信賴하는 支持를 받기에는 너무나 陰險하고 舊式人物인 듯싶다.

宋 鎮 禹(觀)

(前略)

氏는 理論家는 아니다. 그는 謀略縱橫의 가장 活動的인 政客이다. 朝鮮안의 人物로서는 政治家로의 그럴듯한 素質이 第一 豊富한 人物은 宋氏일 것이다. 그는 朝鮮안의 젊은 人物로서는 벌써 政治家로의 及第點 以上을 突破한 人物이다. 그러나 宋氏는 그 政客으로의 性格이 너무나 動的인 것에 많은 失敗와 또는 그에 따르는 많은 是非가 있을 것이다. 그는 그 앞날의 政治的 活動에 있어서 風雲이 자못 잦을 것이다.

張德秀君과 같은 忠實함과 굳센 곳이 없는 點이 그의 큰 缺點, 그러나 縱人御人之術에 있어서야 張君之比가 아니다. 張君은 그 點에 있어서는 宋氏의 발아래에 멀리 내려다보이는 純眞한 보이일 것이다.

<三千里> 총25호(제4권 4호) 1932.4.1 간(4월호)

3. 브나로드 운동

1931년 5월에 이 총무공 유적 보존 운동이 힘차게 발족된 직후, 그해 7월부터는 브나로드운동이 동아일보의 손에 의하여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이 땅의 젊은 남녀, 중학이나 전문학교 이상 학생들을 동원하여 민중계몽의 전위(前衛)로서 봉사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브나로드(Vnarod)는 원래 노어(露語)로서 '민중 속에'라는 뜻이다. 19세기 러시아의 지식 계급이 농민, 노동자의 세계로 파고들어 몸소 체험도 하고 지도도 하던 민중운동을 지칭한 것인데, 이 중에서 다만 '민중 속에'라는 뜻을 취해서 한국의 2천만 인구 중 8할에 가까운 1천 3백만의 문맹자를 대상으로 전개된 것이다.

고하의 목적은, 글 모르는 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위생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위생 지식을 깨우쳐 주고, 그밖에 음악.연극.오락 등을 선전 계몽하여 일깨우자는 데 있었다. 이에 고하는 브나로드운동을 좀 더 민중이 이해하고 협력하여 스스로를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춘원(春園 李光洙)으로 하여금 그 운동을 뒷받침하는 연재소설을 동아일보에 쓰도록 했다. 춘원의 소설 <흙>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동아일보에 연재된 <흙>의 일부분을 인용하여 보기로 하자.

(前略).....농민의 속으로 가자. 돈이 없으면 없는대로 가자. 가서 가난한 농민이 먹는 것을 먹고, 가장 가난한 농민이 입는 것을 입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농민이 사는 집에서 살면서, 가난한 농민의 심부름을 하여 주자. 편지도 대신 써 주고 주재소, 면소에도 대신 다녀 주고, 그러면서도 글을 가르쳐 주고 소비조합도 만들어 주고 뒷간 부엌 소제도 하여 주고 이렇게 내 일생을 바치자.....(下略)

(東亞日報 1932.4.25)

이 대목은 <흙>의 주인공 '허송'의 입을 통해서 농촌 참여(農村參與)를 적극 부르짖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대목은 <흙>의 주인공 허송의 부르짖음만도 아니고, 또는 작가 춘원의 부르짖음만도 아니며, 이 운동을 기획하고 이 운동을 실천에 옮긴 고하의 부르짖음이 이처럼 간접적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흙으로 돌아가자! 농민의 속으로 파고들자"고 학생과 지식인 그리고 이 나라의 일꾼들에게 호소한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 있듯이 이보다 앞서 1928년 4월에 고하는 동아일보 창간 8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문맹퇴치(文盲退治) 운동을 사전에 예고 선전하여 대대적으로 전개하려다가 총독부 경무국의 금지명령으로 인해 중지된 바 있었다. 그 이듬해 1929년 조선일보에서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하기 방학을 이용, 학생을 동원하여 문맹 타파 운동을 펴게 되었다. 결국 자의(自意) 아닌 타의(他意)로 기선(機先)을 빼앗겼지만 이에 자극되고 주위의 정세가 완화되자 동아일보의 브나로드운동은 조선일보의 운동을 상대적으로 이용하여 더욱 그 효과를 거두는 계기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브나로드운동은 '학생 계몽대'를 주축으로 하여 '학생 강연대' '학생 기자대'의 세 분야로 나누어 조직을 했다. 학생 계몽대원은 남녀 중학교 4.5년급에서 확보하고 일주일 이상의 조선문 강습과 숫자(數字) 강습을 담당케 하는 것이고, 학생 강연대원은 남녀 전문학교 학생에 한하여 위생(衛生) 강연과 학술 강연을 담당케 하는 것이요, 학생 기자대원은 남녀 중학교 4.5년급과 남녀 전문학교 학생이 담당하여 기행(紀行)일기, 칙서(滌署)풍경, 고향 통신, 생활 체험 등을 투고케 하는 것이다. 이밖에 '계몽 별동대'를 두어, 그 지방의 사회유지 중에서 자원하는 자로 하여금 학생 계몽대의 요원과 동일한 임무를 담당케 하였다. 이리하여 첫해에는 담당 계몽 요원 423명이 동원되어 강습지 142개처에서 강습회를 벌이게 되었다.

이들은 동아일보사가 발행하는 교재인 이윤재(李允宰)편 <조선문> 대본(臺本)과 백남규(白南圭)편 <숫자 대본>을 배부받고, 각지 강습 또는 강연 기간을 정한 뒤에 출신지 혹은 연고지 등 일선에서 계몽 활약했다. 교재는 첫해에 30만부를 인쇄하였다. 각지 강습회의 경비는 참가대원의 자기 부담이 대부분이었고 그 지방의 종교단체, 수양단체, 문화단체 기타 동아일보 지국 또는 사회 유지의 뒷받침에 의존하기도 하여 각지에서 예상외의 큰 성과를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 동원된 대원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학자 보조금의 시상도 마련하였던 것이다.

고하는 제1회 브나로드운동과 함께 조선어 강습회를 열었다. 강습회는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의 후원을 얻어서 강사로申明균(申明均), 권덕규(權惠奎), 이상춘(李常春), 이윤재(李允宰), 김윤경(金允經), 이병기(李秉岐), 최현배(崔鉉培), 이극로(李克魯), 김선기(金善琪) 등 한글학자를 위촉했다. 그래서 1931년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전주(全州)를 비롯하여 군산(群山), 순천(順天), 여수(麗水), 목포(木浦), 해주(海州), 통영(統營), 홍원(洪原), 마산(馬山), 청진(淸津), 부산(釜山), 회령(會寧), 밀양(密陽), 용정(龍井), 안성(安城), 선천(宣川), 개성(開城), 평양(平壤), 수원(水原), 정주(定州), 인천(仁川), 함흥(咸興), 신천(信川), 김천(金泉), 대구(大邱), 원산(元山), 대전(大田), 진남포(鎭南浦)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가졌다.

이와같은 운동과 병행하여 한말사료(韓末史料) 수집운동과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 설치될 '조선 도서관'에 보내기 위한 귀중 도서 수집 운동을 일으켰다. 한말 사료수집운동은 그해 8월 9일부터 12월 말까지 한말의 을사오조약(乙巳五條約)으로부터, 경술합방(庚戌合邦)에 이르는 동안의 인물과 사건을 중심한 기록, 사진, 필적, 유물 등의 수집이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 보낼 귀중 도서 수집운동은 그해 11월 17일부터 12월말일까지 국학(國學)을 비롯한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이 제1회 브나로드 운동이 성공하고 여름방학이 끝나 새 학기가 되면서, 그해 9월에 이른바 만주사변이라는 일본의 만주 침략을 위한 군사 행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번 점화(點火)된 봉화(烽火)는 쉽사리 수그러지지 아니하였다. 이듬해도 또 그 이듬해도 브나로드의 불꽃은 더욱 확대되어 가기만 했다. 마침내 1935년, 동아일보가 제5회 브나로드운동의 준비를 갖추고 있던 중, 총독부 경무국은 돌연 강습회 중지 명령을 내려, 그해 6월 7일 '하기 계몽운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지' 한다는 사고(社告)를 내고, 본의 아닌 중지부를 찍게 되었다.

브나로드운동 4년간의 총결산은 다음의 표에서 그 성과를 짐작할 수 있다.

	제1회 (1931)	제2회 (1932)	제3회 (1933)	제4회 (1934)
운 동 기 간	62일 7.21-9.20	82일 7.11-9.30	81일 7.12-9.30	73일 7.2-9.12
개강평균일수	18일 최장 42일 최단 6일	14일 최장 51일 최단 5일	29일 최장 50일 최단 6일	15일 최장 50일 최단 6일
개강기간총일수	2,289일	8,282일	6,304명	3,962일
계 몽 요 원	423명	2,724명	1,506명	1,098명
강 습 지	142개처	592개처	315개처	271개처 (만주 29개처 일본 7개처 포함)
강습금지지	11개처	67개처	67개처	33개처 (만주 1개처 포함)
강습중지지	없음	10개처	17개처	26개처
수강생평균 (1개처)	67명 최다 33명 최소 10명	69명 최다 905명 최소 7명	86명 최다 770명 최소 5명	76명 최다 581명 최소 6명
수강생총인원수	9,492명	41,153명	27,352명	20,601명
교재배포수	30만부	60만부	69만부	60만부

이리하여 전후 4년간에 총 연(延)일수 20,736일간 (56년 9개월여에 해당)에 총 연(延)인수 10만 명에 가까운 문맹을 어둠에서 광명으로 이끌어 주는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 뿐 아니라 이 운동에 참가한 계몽 요원 총 연(延)인수 5,751명의 자각적(自覺的)인 젊은 일꾼들을 은연중 민족 운동의 대열속에 편성 조직해 갔던 것이다.

1932년 제2회 브나로드 운동을 마친 후 그 결산을 신동아(新東亞) 2권 11호 (1932.11.1)에 게재한 바 있다. 참고삼아 전제한다.

隊員 總數 二千餘
文盲打破 4萬名

林 炳 哲

◇ 出動의 前奏曲

1932년도 東亞日報社 主催의 第2回 브나로도 運動 啓蒙隊의 總決算報告를 보면 總隊員 2,724 명이 出動하여 41,153명의 兒童을 가르쳐 34,836명의 文盲을 打破했다.

全朝鮮의 學齡兒童數를 正確히는 알 수 없으나 昭和5年度 總督府 學務局의 調査에 依하면 約

262萬名이라 한다. 學齡兒童中 公立普通就學學生 48萬 7千名, 私立學校, 講習所, 書堂 等に 就學하는 學生 約21萬 3千名 合計 70萬名이 就學하고 있다.

이제 이 全朝鮮 學齡兒童數에서 70萬의 就學生을 除하면 약 112萬名の 全朝鮮 未就學兒童數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7할이라는 兒童이 눈뜬 소경이 되어있다.

全朝鮮 未就學兒童數와 第2回 브나로드 學生數를 比較해보면 192萬分之 4에 不過하니 今年과 같은 運動을 48年이라는 長久한 歲月동안(年年히 未就學生만 教授) 繼續하여야 겨우 가가거거나 알 形便인 朝鮮이다. 第2回 總決算報告를 하기 前에 이 數字로써 運動의 必要를 力說하고 나갈 길이 急하고도 遙遠함을 한번 더 말하는 바이다.

統計를 들기 前에 먼저 統計材料에 對하여 이야기하면 隊員들의 報告가 不充分하여 漏落된 것이 많다. 그중 講師數가 없는 곳이 많은데 이것은 不得已 한곳에 1人으로 하고 講習日이 없는 곳은 10일로 定하여 統計를 取하였다. 講師는 勿論 1人 以上일 것이며 期日은 平均 14日이나 10日로 하였다. 이런 點을 보아 正確한 數字이었다면 보다 많았을 것이다.

第 2 回

隊員總數 2,724名
講習地 952處
禁止 禁止 69, 中止10處
收容學生數 男子 14,711, 女子 11,216, 男女 共 15,226, 總計 41,153名
講習生平均數 最少 7名, 最高 905名, 平均 69名
講習開催日數 最短日數 5日, 最長日數 51日, 平均 14日,
總延日數 8,182日

이제 昨年 第1回와 比較하기 爲하여 1回때 統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第 1 回

隊員總數 423名
講習 142處
禁止 11處
收容學生數 男子 4,822名, 女子 3,472名, 總計 9,492名
講習生平均數 最少 10名, 最高 363名, 平均 67名
講習開催日數 最短日數 6日, 最長日數 42日, 平均 18日,

以上 1, 2회의 統計에서 우리가 直覺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엄청난 進歩이다.

第1회에 있어서는 宣傳도 잘 되지 않았고 期日도 促迫하였던 關係가 많다. 今番에는 이런 遺憾을 없이하며 1回보다 2회에 있어서는 出動 總隊員이 6倍半이 增員되었고 講習地도 4배나 擴張되어 그 收容學生은 4萬 1千名, 卽 前年보다 11倍半 以上の 學生을 얻어 한여름 동안 朝鮮의 坊坊 曲曲에서 글소리가 흘러나오게 되었다. 講習日數도 前年보다 3倍半으로 그 總延日數를 보면 22년 5개월 동안이라는 놀라운 數字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으로 1回보다 2회에서 더 많은 成果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2회의 成果로써 到底히 滿足할 수 없다. 出動隊員 2,724名중에서 禁止 等を 當하고 나머지 1,774名(細密한 統計를 얻을 수 있었다면 더 많을 것이다) 밖에는 事實 일을 못하였다. 1,774名이 41,153名을 가르쳤으니 每人當 平均이 23人이다. 1人이 23인의 文盲을 打破했다면 萬名이 出動하면 23萬名の

文盲打破는 可能한 일이다. 一生을 人類를 爲하여 바치기도 하고 一生을 民族을 爲하여 바치기도 하는데 不過 十餘日의 夏期休暇를 爲하여 바치는 것쯤이야 하지 않는 것이지 못할 犧牲은 아닐 것이다.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는 學生일진대 마땅히 夏休의 半分을 提供하여 事實에 合流하여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음 이 運動에 參加한 學校別을 그 順位대로 들어본다.

中等學校(30名 以下는 略)

校 名	參加者數		
△ 培材高普	337	△ 中央高普	199
△ 高敞高普	176	△ 徹新學校	156
△ 崇仁商業	77	△ 協成實業	71
△ 全州新興	62	△ 中央基青	61
△ 松都高普	61	△ 宣川信聖	59
△ 中東學校	54	△ 養正高普	53
△ 普成高普	56	△ 徽文高普	48
△ 平壤崇實	34	△ 大東商業	38

專 門 校(6名 以下 略)

△ 延禧專門	39	△ 崇實專門	32
△ 普成專門	14	△ 法學專門	12
△ 中央佛專	9		

女 學 校(全部)

△ 中央保育	4	△ 光州須彼亞	22
△ 光明女高	8		

위에서 總計報告를 볼 때에는 붓에 힘이 있었으나 學校別 報告는 수줍고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다. 그중에는 培材高普, 中央高普, 高敞高普, 協信學校 等과 같은 많은 參加도 있었거니와 그외에는 參加成績이 不良하다.

朝鮮의 中等學校 學生의 大概는 5百名 以上 近千에 가까운 數이다. 千餘名 學生中에서 甚하기는 7, 8名の 參加者도 있다. 그리하여 30名 以下の 統計를 들기는 여기서 除外하였다. 이 貧弱한 參加數는 朝鮮學生의 氣力의 一端을 보이는 것을 이 點에서 보면 落第이다. 보라도 專門學生의 參加數를 보면 남이 알까 부끄러운 생각이 앞선다.

또한 全朝鮮 女學校中 3校 參加, 34名の 加入을 보여주고 있으니 朝鮮女學生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더 길게 論하고자 하지 않는다. 여러 學生들은 朝鮮農村의 불쌍한 男女 兒童들이 여름 放學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決心과 새로운 希望에서 우리의 努力을 들여 많은 불쌍한 우리의 동생, 우리의 누이동생들의 그 감겨진 눈을 하루바삐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朝鮮의 女學生들의 責任이 重且大함을 스스로 깨달을 때가 이 때인가 한다.

◇ 눈물겨운 哀話

나는 다음 여러 隊員의 報告中에서 잊혀지지 않는 두어마디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하려한다.

隊員中에는 警察에 諒解를 얻지 못하여 放學동안에 幸여나 許可가 나올까 기다리다 말은 隊員

도 있고 또한 自進하여 눈물을 머금고 中止한 곳도 있다.

그들의 事情은 이리하다. 兒童을 모으기는 하였으나 場所가 없어서 炎天에 暴陽을 쪼이며 뜰에서 가르치기도 하며 혹은 헛간에서 혹은 大門間에서 이같이 繼續하다가 霖雨때문에 中止한 곳, 또한 兒童들을 모아놓기는 하였으나 모두 하루 이틀씩 굶주려서 뱃가죽이 등에 붙은 불쌍한 어린 이들과는 까닭에 할 수 없이 눈물로 閉講한 곳 등도 있었다. 어떤 곳에서는 女職工들이 일을 마치고 밤에 브나로드 隊員을 모셔다가 글을 배웠다. 하루라도 더 배우고자 다시 延期를 請하고 請하는 그 情景이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하다. 또 어떤 곳에서는 어린 兒童을 가르치는데 수염이 검게 난 壯年들, 거의 60에 가까운 老人들도 幸여나 하고 와서 배우는 悲壯한 光景도 있었다.

그때그때 紙面을 통하여 보았거니와 어린이들이 글을 배워 제 손으로 고맙다는 글을 쓴 것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永續的으로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 洞里 青年들에게 付託하고 온 것 등 가지각색 눈물겨운 일이 많았다.

이같이 朝鮮의 불쌍한 兒童들은 해마다 해마다 여러 學生들의 放學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을 꿈에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 좋은 結實 苦待

브나로드 啓蒙隊員을 出動시킬 때에는 千番이나 일러 보내는 말은 이것이다. 조금이라도 思想的 政治的 經濟的 또는 어떤 主義的 色彩나 宣傳은 一言一句도 섞지말고 오직 이 運動은 純全히 글모르고 數字모르는 것을 깨쳐주는 것만으로 唯一의 目的을 삼으라고 付託한다. 萬一 이 目的과 秋毫라도 反對의 意思를 가졌다면 隊員이 안되기를 希望한다. 왜 그런고 하면 그는 朝鮮의 現實과 이 運動의 立場과 意義를 理解치 못하는 者인 까닭이다. 브나로드 啓蒙運動은 自己의 말은바 配役만 마치고 退場할 것을 나는 믿는다.

世間에는 이 運動에서 政治的, 思想的 乃至 階級的 意義를 찾다가 이에 失望한 그들은 브나로드 運動 無用論을 말한다. 그들은 벼를 심고 果實맺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들 가운데는 벼에다가 果實나무를 接하려는 사람도 있다.

果實을 求하는 者 - 마땅히 果實나무를 심은 것이오 쌀을 求하는 者 마땅히 벼를 심어야 할 것이다. 벼와 果實을 接하면 둘 다 죽는 簡單한 理致를 모르는가. 學生 브나로드 啓蒙運動은 單純히 學生들의 夏休를 利用하여 글배울 機會가 없는 불쌍한 동생들에게 글의 씨를 뿌리는 運動에서 지나지 않는다.

그 씨에서 움이 트고 좋은 꽃이 3천만리 坊坊曲曲에 피어 좋은 열매 맺기만 바랄 뿐이다. 그 열매가 또다시 百千의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여 보다 튼튼한 朝鮮의 基礎를 짓자는데 있는 줄로 나는 믿는다(1932년 10월 2일)

4. 만보산사건(萬寶山 事件)과 소위 만주사변

고하가 동아일보를 거점으로 하여 이충무공 유적 보존운동과 브나로드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할 무렵 일본의 대륙 침략의 군화소리와 말발굽소리는 높아져서 만주를 도모하기 위한 마수는 북으로 뻗어갔다.

드디어 만주사변(滿洲事變)의 전주곡이 된 만보산사건이 일어났다. 만보산사건은 1931년 7월 2일 만주 길림성(吉林省) 장춘현(長春縣) 만보산 삼성보(三城堡)에서 수전(水田) 개간 공사를 하던 한중(韓中)인 간의 알력이 번져서 끝내는 중국인이 한교(韓僑)를 집단 습격하여 폭행 살해했다는 데서 발단되었다.

이 사건의 진부(眞否)는 어떻든, 국내에 전해진 소문은 삼시간에 번졌다. 이 소문에 국내 인심은

극도로 흥분했고 동요되었다. 화교(華僑)에 대한 불신과 보복이 곳곳에서 자행되었다. 인천(仁川)과 전북 삼례(參禮)에서 중국 거류민을 습격하여 폭행·학살한 사건을 비롯해서 전국 도처에서 화교에 대한 박해 운동이 일어났다. 그중 평양에서는 90여명의 화교가 살해당하는 참변까지 생겼다. 이 참변에서 화교는 도합 백여명이 학살을 당했다. 이르는 곳마다 일어나는 폭동을 피하여 당시 화교 8만명 중 6천여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에 일부 신문이 이성(理性)을 저버리고 흥분한 민중들의 편을 들어서 감정을 부채질하는 데만 기울어졌다. 이것은 간악한 일인의 꾀임에 빠져서, 종래 중국인을 천시하여 오던 잠재의식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었다. 좋게 해석해서 자존심의 과잉이었다.

이에 고하는 잠시 이 사건의 사실 보도에만 주력케 했다. 고하는 오래 전부터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이것은 일본이 중국 침략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인과 한국인을 이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국내가 물끓듯 들고 일어나고 일부 신문사까지 부화뇌동하여 복을 치는 판에 동아일보만이 홀로 침묵을 지키고, 사태의 추이만을 관망하고 있자 민중은 동아일보를 원망하기까지 이르렀다.

“동아일보는 중국놈들에게 매수되었다”

욕설과 협박, 마침내는 신문사 앞에 군중들이 모여 욕설을 하고 돌을 던져서 사옥(社屋) 유리창을 깨는 데까지 이르렀다. 지방의 여러 지국에서도 독자들의 성화에 못이겨 본사에 전보로 혹은 전화로 물어왔다. 또한 동아일보는 금시 망하는 것처럼 떠들어대었다. 그럴수록 고하는 더 한층 침착을 잃지 않았다.

“만보산 사건은 중국인과 한교(韓僑)를 이간시키는 일본 군벌(日本軍閥)의 모략이요. 일인들은 저들의 집 유리창 하나만 까딱해도 총칼을 들이대는 놈들인데 그래 우리가 중국인을 무더기로 죽여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는 것을 보시오. 인도적인 면으로 보아서도 용서할 수 없소. 우리가 장차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하자면 동양에서는 첫째 중국과 친선하여야 할 터인데 이 무슨 철없는 망나니짓들이요. 내려가거든 어떻게 해서라도 일본인들의 모략에 속지 말라고 잘들 좀 타일러 주시오”

이것은 고하가 전화로 말할 수 없어 부산 지국장을 직접 불러 올려서 한 말이다. 또한 이 말은 사태 수습을 위한 고하의 대책 방안이기도 했다.

이리하여 고하는, 진상조사와 동포위문을 겸하여 서범석(徐範錫) 기자를 특파원으로 만주에 파견하고, 사흘 동안 일제(日帝)의 눈치를 살폈다. 그들의 야만 정책은 변함이 없었다. 고하는 이대로 그냥 앉아서 볼 수 없어 고하 자신이 사설(社說) '냉정한 태도를 취하라'와, '二천만 동포에게 고합니다'를 써서 중국인 박해 사건을 폭도 난민(暴徒 亂民)의 짓이라고 지탄하고 반성을 촉구했다.

萬寶山事件에 對하여

1

萬寶山衝突事件을 單純하게 中國人の 朝鮮民 壓迫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淺慮의 甚한 者다. 좀더 冷靜·沈着하게 事態의 眞相을 捕捉하고 그 裏面에 潛在한 種種의 微妙한 關係를 靜觀한 뒤에 判斷을 내려야 한다. 하물며 이 事件을 曲解하고 無辜한 中國 在留民에게 暴行을 加하는 등의 일이라.

百步를 讓하여 일의 非가 尠히 彼에 있다고 假定하더라도 그것을 契機로 하여 朝鮮 在留의 中國人에게 報復의 暴行을 加하는 것은 一方 民族의 襟度의 缺如를 暴露하는 것인 同時에 一方으로 事態를 더욱 紛糾케 하고 自他の 損失을 擴大하는 것뿐이다. 在外의 同胞가 危難에 있다는 報道를 듣고 이를 念慮하고 그들을 위하여 돕고자 하는 생각이 있음은 同胞의 뜨거운 사랑을 表現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 方途를 잘못하고 그 目標을 어그러뜨린다 하면, 本來의 目的을 達치 못할 것이니 어찌 삼가지 아니하라.

昨今間에 仁川과 京城 등 各地에서 생긴 不祥事는 實로 痛嘆할 일이다. 同胞 諸位의 冷靜하고 賢明한 態度를 재촉코자 한다.

2

滿洲 朝鮮人の 問題는 奧地와 滿鐵沿線과를 區分하여 두 가지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屢言한 바다. 다시 말하면 奧地의 農民問題가 單純히 朝鮮農民 對 中國官民의 問題인 것의 反對로, 鐵道沿線의 問題는 여기다가 日本警察力까지 加合한 三角問題가 되는 것이다. 이번 萬寶山問題로 말하면 바로 이 둘째의 境遇가 分明하다. 이미 日.中 兩警官隊의 衝突이 있는 것을 보아 疑心없는 길이오, 따라서 今日에 와서는 問題의 中心이 中國人の 朝鮮農民壓迫에 있다는 것보다도 日.中 警官의 衝突이라는 事實로 移轉되었다 함이 事實일 것이다.

詳報가 없으매 確斷을 내리기 어렵지마는 今日까지의 報道에 依하여 보건대, 原來 萬寶山開墾事業은 傳하는 바에 依하면, 日.朝.中.露 四個民族의 合資로서 中國人 地主와 契約하여 水田開拓을 目的으로 생긴 一大 企業이라 한다. 이 企業家들의 손으로 二百餘의 朝鮮農民을 移住케 하고 灌溉를 위하여 水路를 開拓한 것인데, 水路開拓時에 中國人の 土地를 侵犯한 것이 紛糾의 시작이라 한다. 그리하여 結局 抗爭의 對象은 中國人 地主對 企業家間에 일어날 것이나, 現場에서 水路開墾에 從事하고 있는 것이 農民이매 自然의 形勢로 朝.中 兩農民이 對峙하게 된 모양이다.

이 點에 있어서 먼저 우리는 中國의 當路者에게 抗議할 것은, 移住 農民 二百은 事實上으로 애매하다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單純히 企業家 對 中國官廳의 問題일 것이요, 小作農인 朝鮮農民은 何等의 直接 責任이 없는 것이다. 事態가 惡化하게 되매 日本領事館의 保護를 願한 것도 물론 彼等 企業家일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兩 警官隊의 正面 衝突까지 보게 된 것이다. 至於 兩方 農民의 衝突은 그 餘波에 不過하다고 볼 것이며, 事態에 對한 理解가 不充分한 盲目的 行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이와 같이 微妙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이 事件에 對하여, 輕率히 事態를 誇張하고 抗爭을 擴大케 하는 듯한 言辭를 弄함은 雙方의 感情을 挑發할 뿐으로 何等의 利益이 없는 일이다.

우리의 關心處는 오직 二百의 農民同胞다. 一, 二 企業家の 無謀한 行動으로 因하여 애매히 被害를 받는 그들의 애매함을 徹底히 主張할 것 뿐이다. 이에 대하여 朝鮮人は 朝鮮人の 立場에 있어서 慎重한 對策을 樹立할 必要가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갈 것은 事件의 真相을 알기도 前에 輕率히 行動한다거나 또는 問題의 正鵠을 混同誤認하여 禍근을 將來에 남기지 않도록 크게 注意할 바다.

(東亞日報 1931.7.5)

二천만 동포에게 고합니다.

민족적 이해를 타산하여 허무한 선전에 속지 말라.

1

만보산 二백명 동포는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지금, 만주와 그밖의 중국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무사하고 편안합니다. 중국 백성들은 지금 우리 동포들에게 손을 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주 기타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국내에 있는 동포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폭행을 말아 달라” (작일 상해 특전 참조)

하는 것입니다.

동포여, 우리가 조선에 와 있는 중국사람 八만명에게 하는 일은, 곧 중국에 있는 백만명 우리 동포에게 돌아움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즉시로 중국사람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을 단연히 중지하십시오.

2

동포 여러분은 만보산에 있는 二백명 동포의 생명이 위경에 든 것처럼 생각하고, 또 어떤 악의를 가진 자의 생각인지는 모르거니와, 그 二백명 동포가 학살을 당한 것처럼 아는 이도 있는 모양이나, 이것은 전혀 무근지설입니다. 무뢰배의 유언비어입니다.

또 조선 안에서도 조선 동포가 중국인에게 학살을 당하였다는 풍설을 돌리는 자가 있다고 하거니와, 이것은 더구나 말도 되지 아니하는 허설입니다.

이 모양으로 무근한 유언비어를 돌려 이웃한 두 민족 사이에 틈을 내며 또 성군작당하여 아무 죄도 없는 이웃나라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진실로 민족을 해치는 폭민이요 난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리를 민족의 죄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현재 백만의 조선 동포가 우접해 사는 나라요, 또 이 앞에도 그와 가장 밀접하고 친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조선 민족 백년의 복리를 위한 것이어든 무책임하고 일을 좋아하는 자의 헛된 선전에 미혹하여 인천·경성·평양 등지의 대참극을 일으킨 것은 조선민족의 명예에 영원히 씻기 어려운 누명이 될뿐더러 중국에 있는 백만 동포의 목에 칼을 얹는 것이니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포여! 정신을 차려 앞뒷일을 헤아리십시오. 악의를 가진 무리의 헛된 선전을 믿어 여러분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민족의 전도에 칼과 화약을 묻는 일을 하지 말으십시오.

3

비록 백보를 사양하여 만주에 있는 동포가 중국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가 조선에 와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 보복함으로 조금도 이로움이 없을 뿐더러, 도리어 핍박 받는 동포의 처지를 더욱 곤란하게 할 것이 아닙니까. 중국 땅에 있는 조선 동포가 핍박을 당한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분개할진댄, 우리 조선 사람이 조선에 있는 중국 사람에게 폭행한 소문을 들으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조선 동포들에게 얼마나 분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또 인도상으로 보더라도 호떡장수, 노동자 같은 중국 사람이 무슨 죄이길래 우리가 그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겠습니까. 이것은 도무지 불합리한 일이고 민족의 전도에 크게 해를 주는 일이니, 거듭 말하거니와 이러한 선전을 하고 폭동을 하는 이는 조선 민족의 적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포의 뜨거운 민족애와 굳센 민족의식을 이용하려는 검은 손이 여러 가지 탈을 쓰고 각 도시에 횡행하는 모양이니 선량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동포여! 삼가고 서로 경계하십시오.

(東亞日報 1931.7.7)

그리고 고하는 총독 사이또(齋藤實)를 찾아서 사회정의(社會正義)와 인도(人道)의 이름으로 사건 수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태를 수습하지 않고 버려두는 것은 인도상 최악이요, 또한 정치상의 실정(失政)이요” 하고, 고하는 그들의 최악과 실정을 꼬집었다.

드디어 고하의 직접적이고 강경한 호소와 일경(日警)의 제지로 화교에 대한 감정과 흥분은 누그러지고 박해는 멈춰졌다.

고하는 그 뿐만이 아니었다. 신문을 통하여 화교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고 화교구제회(華僑救

濟會)를 만들었다. 전국 각지에서 서울의 중국 영사관(中國領事館)으로 밀려들어오는 피난 화교들을 위문하고 구제하기에 노력했다. 화교 구제회 상임위원은, 고하를 비롯하여 윤치호(尹致昊).이종린(李鍾麟).원익상(元翊常).현동완(玄東完).홍병선(洪秉璇).안재홍(安在鴻) 등 국내 각계인사를 망라한 조직이었다.

이 사건의 초기에는 국내에서의 화교 박해에 중국 안에서도 여론이 비등하여, 평양 출병설(出兵說)까지 생기게 됐다. 동시에 한교에 대한 보복이 일어나려 했으나, 국내의 민첩하고도 우호적인 조치에 감동과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

또한 만주에서도 한교(韓僑)에 대한 보복설이 전해졌을 때 마침 동아일보가 배부되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사실을 번역하여 중국인들에게 읽게 했다.

“보시오, 이것은 일본 군벌의 모략이오. 결코 우리들 진의(眞意)가 아니오”

이리하여 우리 동포들은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만보산사건의 결과는 끝내 동 9월 18일 유조구 폭파사건(柳條溝 爆破事件)으로 번져, 일본 관동군(關東軍)은 드디어 이른바 만주사변(滿洲事變)이라는 전쟁을 일으켰다.

이리하여 만주에서의 일본 관동군의 침략 강행과 조선 주둔군(朝鮮駐屯軍)의 월경(越境)으로 중국 동북군(中國 東北軍)은 여지없이 패퇴하였다.

퇴각하는 중국 동북군이 오지(奧地)에 밀려들자, 우리 동포들은 거처를 잃고 길가에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들은 철도연변을 따라 남으로 피난했다.

고하는 즉시 이 충격적인 사태의 보도 취재를 위하여 특파원으로 설의식(薛義植)과 서범석(徐範錫)을 현지로 보냈다. 조선일보의 신영우(申榮雨), 매일신보(每日申報)의 김을한(金乙漢), 사회단체 대표 서정희(徐廷禧) 등이 동행했다.

고하는 설의식 특파원에게 만주 사변을 계기로, 한국을 경유하여 만주에 출장중인 일본 주재 중국대사 왕영보(汪榮寶)에게 보내는 만보산사건 진상에 관한 비밀 편지를 가지고 가게 했다. 이리하여 그 참담한 현지 광경을 고국에 타전하여 국내 동포들의 동정과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한 고하의 비밀 편지도 무난히 왕영보에게 전하여 한.중 양민족의 우의도 두텁게 했다.

그후 만주 문제는 국제연맹(國際聯盟)에서 논란 끝에 현지 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 1932년 4월 리튼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연맹 조사단이 만주에 파견되었다. 중국 대표 고유균(顧維均)도 조사단의 일원으로 동행하였다.

이때 고하는 특파원 서범석으로 하여금 고유균을 만나도록 지령했다. 서범석은 온갖 방해와 감시를 하는 일경의 눈을 피하여 호텔 엘리베이터 속에서 고유균을 만나서 비밀히 고하의 뜻을 전했다. 만보산 사건은 한.중 두 민족간의 불상사가 아니라 일본의 침략 간계임을 국제조사단에게 전하게 된 것이다.

뒷날 한민족과 동아일보, 그리고 고하의 참뜻을 고유균에게서 전해들은 장개석(蔣介石)은, 은패(銀牌) '친인선린(親仁善隣)'과 족자 '동아지광(東亞之光)'의 두 선물을 보내어 한.중 친선을 굳게 했다.

이와같은 고하의 사태 수습 처리와 민간외교가 없었던들, 또한 1932년 4월 상해(上海) 홍구공원(虹口公園)에서 일황(日皇) 생일 경축 식장에 폭탄을 던진 윤봉길(尹奉吉) 의사가 없었던들 한.중간의 형제적 우의를 지키고 중국에 망명중인 우리 임시정부가 보호를 받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이 무렵 소설가 빙허 현진건(憑虛 玄鎭健)이 동아일보사 사회부장으로 있었다.

평소 술을 즐겨서, 취하면 곧잘 주정을 하여 유명했다.

고하가 동아일보를 운영하는 방침은 일관한 주장은 변함이 없지만 변화하는 정세와 기회에 따라 편집 중심으로 추진하는 때도 있고 영업에 중점적으로 힘을 쓰는 일도 있었다. 이럴 경우 이따금 편집 측에서 불평이 나는 수가 있었는데 특별히 빙허는 기사관계로 사장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원골(지금 종로구 원서동)에 있는 고하의 납작한 오막살이로 밤늦게 찾아가서 고하에게

주정하는 일이 있었다. 주정의 내용인즉 고하의 신문기사에 대한 조정과 처리 방법은 독재자의 하는 식이며 그 방법은 우리 동아를 망치는 짓이다. 동아를 망치는 사람은 이완용이나 다름없다, 이완용이가 주는 술은 안먹는다 하며 밤이 늦도록 주정을 하다가는 제풀에 지쳐서 자하문 밖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럴 때마다 고하는 노하거나 책하지 않고 넓은 아량으로 받아주었다.

만보산사건이 고하의 투시적(透視的) 판단과 위험을 각오한 폭로로 평온하게 수습된 후 <혜성>(慧星, 제8호 - 1931年 11月 15日 第1권 제8호)에 게재된 '신문월평'(新聞月評)은 이 사건수습에 있어서 동아일보의 눈부신 활동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참고로 동아일보에 관한 부분만 전재한다.

新聞月評

壁上生

- 東亞日報 -

요사이엔 新聞을 들면 먼저 눈이 政治面으로 간다. 同報의 南京特派員이 時時로 特種記事를 보내는 중 主戰論과 尙早論을 들어 通信한 것도 좋은 記事며 太平洋會議에 關하여 어찌하여 朝鮮을 招請치 아니한 것을 明文으로 提示하여준 것은 좋은 일이다.

國際的 會合에 對하여 多分の 希望과 期待를 가진 讀者가 많은 朝鮮에서는 機敏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한창 在滿同胞의 被害問題가 喧騰할 때에 中國在留 朝鮮人의 分布狀態를 表로 만들어 준 것도 時機에 適切한 일이다. 社會面 記事에 滿洲 遭難同胞를 爲하여 간 特派員의 特電이 異彩이나 通信記事가 朝鮮日報보다 적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은 遺憾이다. 다만 犧牲者의 姓名을 알아서 發表한 것은 特種이다. 이것은 特派員의 功勞에 돌릴 수밖에 없다.

朝鮮日報를 이야기할 때에 暫間 말하였거니와 滿洲同胞協議會 記事에 比較的 冷淡하였던 것은 朝鮮에서 大新聞으로 自他가 共認하는 同報로서는 섭섭한 일이다. 이것은 勿論 社의 大方針이요, 編輯記者의 關知할 바 아니다. 社會面 編輯에 이르러서는 '뉴우스 벨류'의 測定으로나 體裁로나 險잡을 곳이 적다고 할 만큼 老熟하다. 學藝面에 실린 天主教史는 한 文獻으로 볼만하며 家庭面과 함께 記事의 精選이 朝鮮日報보다 優越한 것 같다.

한글 記念日 前後에 座談會를 開催한 것도 좋은 일이며 權憲奎氏의 時調紀行은 近來의 新 試驗이다. 經濟面에 지난번도 評者가 잔소리하던 金本位制에 對하여 權威있는 解說文이 나온 것은 반가웁고 또 滿洲事變과 中國 銀時勢에 關한 論文을 쓴 것은 時機에 適當한 것이다.

記者는 恒常 들리지 않는 말을 듣고, 보이지 않는 일을 보며 무슨 일이 있을 때에 即時 背後 影響을 뒤더듬는 銳敏한 才幹이 必要한 것이다. 記者의 第六感은 決코 外勤에만 必要한 것이 아니다.

地方面 記事에는 副業으로 生活安定한 模範農村記事를 많이 썼다. 이런 것은 좀 每日申報로 讓步함이 어떠한가?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 東亞日報가 다 써버리면 每日申報는 쓸 것이 없어지게 되니 一種 禮讓의 道德을 發揮함이 如何?

呵呵 妄言多謝.

또한 같은 잡지(慧星) 별란(別欄)에는 동아.조선.매일 등 3신문 월평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東亞日報 -
(前略)

滿洲事件난 以來 '日本の 滿蒙特殊權益'에 對한 解說은 政治面에 실을 것이나 記事幅輻의 關係로 經濟面에 실은 것 같다. 如何間 좋은 讀物이다.

滿洲事件이 일어나자 第一 活躍한 것이 同報의 政治面이다. 하루에도 號外를 2, 3次씩 내고, 한참동안 一頁大의 號外를 아침마다 配達하여 時時刻刻으로 變動되는 時局의 情勢를 讀者에게 忠實히 報道한 것은 그 勞를 多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報道에 忠實하는 同時에 國際聯盟 規約과 不戰條約 全文을 朝鮮의 어느 新聞보다도 먼저 摘記하여 讀者의 궁금증을 풀게하고 華府 9個國 條約, 滿蒙問題의 解說, 國際聯盟의 由來같은 것은 모두 價値있는 記事이다.

더욱 上海에 駐在한 同報 特派員이 時時로 特種材料를 提供하여 紙面을 華麗하게 하였으니 統一政府 樹立에 對한 詳報와 民衆運動의 數字는 좋은 記事이다. 編輯體裁에 있어서 敵手 朝鮮日報에 比하여 優勢인 것 같이 보인다.

기다리던 國際聯盟 理事會가 열리던 날 '國聯理事會'라는 大題下에 秩序있게 配列한 記事가 讀者의 보기에 便利케 한 것은 그렇지 못한 朝鮮日報에 比하여 優勢하다. 그러나 어느날 제네바의 國際會場과 活躍人物을 따로따로 떼어놓은 것은 失手다. 當然히 한데 붙여놓을 것이다.

5. '신동아(新東亞)'지(誌)와 '신가정(新家庭)'지(誌)

만보산 사건은 일본 군부의 대륙 침략 준비를 위한 연극의 한토막이었음이 드러났다. 그 뒤 2개월여에 일본은 마침내 유조구(柳條溝)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그것을 구실로 침략의 군사 행동을 벌였으니, 이것이 일본인들의 만주사변이다. 유조구 사건이란, 그해(1931년) 9월 18일 새벽, 봉천(奉天) 교외 유조구에서 일본군이 은밀히 남만주 철도의 선로를 폭파하고 이것이 중국군의 소행이라고 뒤집어쓴 것이다. 일본은 군사 행동 개시후 5개월이 못되어 만주의 주요 도시를 거의 점령하고 이듬해 3월에는 일본의 괴뢰정권 만주국을 건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만주사변으로 일본 자체도 급격히 군국주의화했고 이로 인한 국제 정세는 험악한 외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한민족의 전도는 더욱 암담하기만 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고하는 민족 운동의 투쟁 방법을 종전의 직접적인 운동에서 간접적인 운동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나 그 대신 촌지(寸志)도 굽히지 않는 방향에서 민족을 위한 사업에 손을 대었던 것이다.

고하는, 만주사변이 일어나던 해 11월 1일, 그의 창안으로 오래 전부터 기획 중이던 동아일보의 자매지이며 월간 종합잡지인 <신동아(新東亞)>의 창간을 실현했다. 고하는 신동아 창간호의 창간사(創刊辭)를 통하여 이 잡지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新東亞' 創刊辭

朝鮮民族은 바야흐로 大覺醒, 大團結, 大活動의 曉頭에 섰다. 事業的 大活의 前驅는, 思想的 大醞釀은 民族이 包含한 特色있는 모든 思想家 經綸家의 意見을 民族 大衆의 앞에 提示하여 活潑하게 批判하고 吸收케 함에 있다. 이러한 속에서 民族大衆이 共認하는 가장 有力한 民族的 經綸이 發生되는 것이니 月刊 '新東亞'의 使命은 正히 이것에 있는 것이다. '新東亞'는 朝鮮民族의 前途의 大經綸을 提示하는 展覽會요, 討論場이요, 醞釀所다.

그러므로 '新東亞'는 어느 一黨 一派의 宣傳機關이 아니다. 名實이 다같은 朝鮮의 公器다.(下略)
(新東亞 1931년 11월호)

고하는 민족의 대각성(大覺醒)과 대단결(大團結), 대활동(大活動)을 호소하고, 이 나라의 모든 사상가(思想家), 모든 경륜가(經綸家)를 동원하여 민족을 계몽하고, 모든 지혜와 이론을 모아서 민족의 향방을 제시하여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자고 했다. 그러므로 어느 일당이나 어느 일파

의 전유물(專有物)이 아니고 이 민족의 공기(公器)임을 밝혔다.

'신동아'는 사실상 고하의 뜻을 받들어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학예.스포츠 등을 다루고, 때마침 구라파에서 대두한 파시즘, 나치즘을 비판하고, 일제의 군국주의를 간접으로 응징하는 등 기동성 있는 시사해설로써 생동하는 지면을 유지하여 이 땅의 지식층의 절대적 지지를 얻었다.

'신동아'는 또한 동아일보의 자매지로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기능을 발휘하였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1935년, 브나로드운동이 총독부의 중지 명령으로 계속 불가능하게 되자, '신동아'의 주최로 그해 6월에 '제1회 하기대학(夏期大學) 강좌'를 열고, 이어 7.8월에는 전국 주요도시 15개처를 순회하는 '제1회 전조선 하기 순회강좌'로 이를 발전시켜, 브나로드운동을 실질적으로 계승한 것을 들 수 있다.

그후 고하는 '신동아'의 이념에 좇아 여성의 교양과 계몽을 담당할 자매지 '신가정(新家庭)지(誌)'를 1933년 1월 1일을 기해 창간했다. 그리하여 '신동아'와 '신가정'은 나란히 동아일보의 자매지로서 발전일로를 달렸다.

한편 동아일보의 월간지 간행은 잡지 저널리즘계에 큰 자극을 주어 1933년 1월에는 조선 중앙일보에서 '중앙(中央)'을, 1934년 1월에는 조선일보에서 '조광(朝光)'을, 1936년 4월에 역시 조선일보에서 '여성(女性)'을 각각 발간하는 등, 한동안 잡지 저널리즘의 일대 붐을 일으킨 것이었다.

신동아는 4년 2개월 동안 통권(通卷) 59호를 발행, 신가정은 3년 9개월 동안 통권 45호를 발행하고 동아일보가 일장기 말소사건(日章旗抹消事件)으로 1936년 8월에 제4차 무기정간을 당할 때, 그 여파로 정간되어 이어 폐간되고 말았다.

'신동아'가 창간된 것은, 만주사변의 직후라, 격변하는 시국에 민중은 자칫 그 올바른 방향을 잃을 위험성도 없지 않게 됨을 보고, 고하는 1932년 벽두, 신년사(新年辭)로서 지난 해의 일대 국민운동의 줄기찬 연장을 호소했다. '노력전진(努力前進) 갱일보(更一步)'라는 논설이 그것이다.

努力前進 更一步

1

새해가 온다 疾走하는 時間은 새로이 다시 우리네 二千萬을 喚起하는구나. 世界를 震憾하는 怒濤의 속에 動搖.困弊.驚愕.難境의 一年은 豫期와 希望의 새날에게 자리를 사양하고 물러앉는다.

오는 한 해는 果然 世界人의 渴望하는 解決과 安定的 新時代를 가지고 오는가. 그렇지 아니면 難境은 다시 難境을 낳고 風雲은 다시 風雲을 吐하여 沮止할 바를 모르는 歷史의 轉換이 奔馬的 速力으로 進展하려는가. 人類社會는 자칫하면 文明의 고삐를 졸라 잡지 못하고 大波紋의 局面에까지 단숨에 굴러들지 아니할까. 이것이 現代人의 疑懼요, 苦悶이요, 恐怖다. 이것은 그러하려니와 돌이켜 우리의 苦悶은 그 무엇일 것이며, 그들의 希望은 또한 그 어디서 求할 것이냐. 思想의 激浪이 四面으로 우리 心境을 두드리고 隣人들의 제각기 살려는 活動이 우리의 眼界를 活氣 띠게 할 이때에 우리는 무엇으로써 새해의 부름에 應하여야 할까.

2

우리가 元氣 없으니 元氣를 振作함도 좋다. 우리가 勇力이 不足하니 勇力을 鍛鍊함도 可할 것이다. 우리가 團結力이 弱하니 團結을 굳게 함도 必要하다. 우리가 消極的이라면 좀더 積極的이 되자. 우리가 鎖沈하였으면 좀더 能動的으로 움직이자. 우리가 信念이 弱하였으면 좀 더 確固한 信念을 把握하자.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統括하고 이 모든 것의 前提로서 한마디로써 新年의 決心을 나타내자 하건대 오직 '一步'의 高貴한 價値를 把持하자 한다. 이 무엇을 말함이나. 退하여 지키며 一步를 辭讓치 아니하며, 나아가 取하매 一步를 全心으로서 取하자는 것이다. 窒息하는 退嬰的 雰圍氣 속

에 惡戰苦鬪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一步의 價値의 正當한 把持야말로 萬世 盤石의 強壘며 이 一步 又 一步의 不屈的 進取야말로 바위를 가르는 나무 '엄'의 偉大한 힘이다.

3

그렇다. 世界는 한 걸음씩 前進한다. 모든 動搖와 反動에도 不拘하고 그 行步는 能히 沮止할 者가 없을 것이다.

經濟的 困難은 一層 그 酷甚度を 加하고 있다. 모든 爲政家들의 '國民的', '舉國一致的', '緊急的' 必死努力에도 不拘하고 失業은 增加하고 通商은 減縮되며 個人的 貧困과 國家財政의 艱難은 아직도 그 復活의 前途가 渺然할 뿐이다. 마치 酷鞭下에 千里를 달린 驛馬와 같이 어떤 者는 이미 困疲하였고 어떤 者는 바로 困疲의 瞬間에 到達한 듯하다. 이 餘波는 本來부터 困窮한 朝鮮의 農村이 아니라 農村의 朝鮮을 掩襲하여 거의 復活의 餘地를 疑心하리만치 大衆的 生活을 困勞하게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再去年的 世界問題며, 去年的 世界問題며, 今年的 世界問題다. 이야말로 朝鮮의 當面한 모든 問題中에 가장 重要한 問題인 同時에 加一層 우리의 努力 精進으로써 局面의 打開을 要求하는 바이다.

4

政治的 葛藤과 産業의 停止狀態로 呻吟하는 歐洲의 白色人이나, 內亂과 飢饉에 苦楚를 겪는 亞細亞의 黃色人이나 世界 어느 구석을 勿論하고 人類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文明의 痼疾은 白日下에 그 醜態를 暴露하고 있다. 黃金國 아메리카에도 失職者가 거리를 메우며 貧困의 印度가 殉教的 受難에 혈덕거린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 이 時代는 努力 奮鬪에 依하여 進展한다는 것을. 人類가 하루 한해 한 世紀에 進取하는 一步의 前進이야말로 歷史上 永久한 紀念塔으로 남는 것이다. 世界는 確實히 나아간다. 朝鮮도 確實히 나아간다. 一躍 九天의 野慾을 가지고 볼 때는 焦燥도 하려니와 꾸준한 努力으로 百年의 大計를 내다보는 者 一步의 無雙한 價値를 大覺할 것이다.

5

果然 우리는 지나간 한 해에 一步를 前進하였는가. 그렇다. 確實히 우리는 나아갔다. 受難中에 있으되 그 受難과 그 忍耐를 通하여 우리의 意識은 一層 堅固하여졌으며, 그 難中에 있어서 大衆의 覺醒은 一層 徹底하다. 嚴冬의 氷雪이 두터웁되 새로이 움트는 生命의 씨는 자라고 있나니 그 나아감이 더디다하여 이를 근심할 것이나. 오직 한 걸음 한 치의 걸음이 곧 人類社會의 大行進曲에 있어서도 그 歷史的 使命을 忠實히 하는 所以인 것을 알 뿐이다. 우리는 한 걸음을 귀히 여기자. 한 걸음의 진취를 今日의 의무로 하여 새로 맞는 한 해에다 努力 前進 또 한 걸음 地步를 꾸준히 쌓아 나아가자. (東亞日報 1932. 1. 1)

6. 새 한글맞춤법의 보급과 신사참배거부문제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1931년 만주 사변이 시작되기 직전에 발족한 '이충무공 유적보존 운동'은 1932년까지, 브나로드 운동은 1934년까지, 일본의 대륙 침략이 갈수록 본격화하고 총독부 당국의 직접 간접의 간섭과 박해가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꾸준히 계속되었지만, 이 기간에 있어서 민족적으로 가장 값진 업적의 하나는 한글의 새 표기법(表記法) 채택과 그 실용화(實用化)에 과당성있는 단안을 내렸던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 한글은 표음문자(表音文字)로서 세계에서 그 유사한 문자가 드문 조직적인 체계를 가진 글인 것은 누구나가 아는 일이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을 두고 사용해 오는 동안에 표기법이 무너

져서 그 바르고 통일된 철자법이 절실히 요망되어 왔다. 이 운동은 구한말 주시경(周時經)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한글 연구는 조선어학연구회(朝鮮語學研究會=1929.10 창립하여 후에 조선어학회로 개칭하였음. 지금의 한글학회임)에서 1929년 '조선어사전' 편찬 과업의 추진이 결정되었다(이 사전은 해방후 1947년 한글대사전으로 발간되었음).

이 문제가 본격적인 과제로 등장하자 이에 앞서 통일된 맞춤법의 결정이 시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글 표기법에는 이 밖에도 한두가지 시안(試案)이 있어서 서로 고집하므로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고하는 여러차례 관계자들과 만나 단일안을 위해서 협조할 것을 종용했다.

1930년 12월부터 이 통일안의 제정 작업이 시작되고 1932년 12월에 조선어학회의 원안(原案)이 완성되었으며 이 시안(試案)은 거듭 검토되어 공포되었다. 이처럼 여러개의 표기법안이 단일안(單一案)으로 확정되기까지는 고하의 적지않은 노력의 결과였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머리말에도

“이 통일안이 완성함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내지 물질적으로 많은 성원과 두터운 양조(襄助)를 주신 경향 유지인사에게 특히 공탁(孔濯), 송진우(宋鎭禹), 김성수(金性洙) 기타 제씨와 각 보도 기관 및 한성도서주식회사(漢成圖書株式會社)에 대하여 길이 감사의 뜻을 표한다”

고 기술하고 있다.

막대한 노력과 적지 않은 재력을 소비하여 수년이나 걸려서 만든 표기법이었으나 그것이 실용에 옮겨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었다.

새 철자법을 채택하면 모든 인쇄시설들이 새 활자를 만들어야 하고 종전의 지형(紙型)은 쓸모가 없게 된다. 따라서 새로이 들여야 할 노력과 시간과 경제적 출연은 너무도 부담스러운 문제였다. 또한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미 배워서 익힌 철자법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며 여기에 따른 저항도 생각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도 없는 한국인으로서 맞춤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기관도 없는 형편이었다.

이와같은 환경아래에서 새 철자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고하의 단안은 비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저항은 내부에서 먼저 나타났다. 많은 경비와 노력을 들여야 하는 거창한 사업을 동아일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힘에 겨웠던 까닭이었다.

이처럼 술한 난관이 첩첩한데도 고하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민족사업임을 역설하고 신철자법 통일안이 정식으로 발표되기 몇달전인 1934년 4월 1일자 신문부터 술선 신철자법을 채용하여 우선 사회면과 학예면을 통해 한글보급에 전력하는 한편 신철자법 편람(新綴字法 便覽)을 부록으로 발행하여 이의 해설과 보급에 주력하였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앞장서서 신철자법의 보급에 전력하자 그해 10월 29일 제3회 한글날에 조선어학회는 정식으로 이를 발표하니, 다른 일간지나 잡지들도 뒤를 이어 이것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 통일안은 우리 국문자(國文字)의 유일한 표기법으로 다져진 것이다. 오늘날 국문 표기법이 통일적으로 사용되기까지는 '조선어학회'의 통일안 제정과 아울러 이것을 사용하는데 앞장선 고하의 애국적 지도력과 동아일보의 출혈적 영단에 힘입은 바 큰 것이다.

언어 문자가 민족문화에 끼치는 지대한 영향을 생각한다면 새 표기법의 채택이라는 용단은 실로 그 의의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일제치하에서의 일개 민간단체가 이와같은 거창한 사업에 앞장섰다 함은 길이 역사에 빛날 공훈이다. 앞서 말했듯이 새 표기법의 채택은 곧 활자의 전면적 개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사업이 완성되기까지는 6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용되었고, 7만원이란 막대한 경비가 소비되었던 것이다.

국내에서 한글학회 다음으로 긴 연륜을 가진 채 민족적 학술적 항쟁을 벌이면서 한국역사 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역사학, 고고학 등 전공자의 모임이 진단학회(震檀學會)이다. 이 학회는 이병도(李丙燾), 김상기(金庠基), 김두헌(金斗憲), 송석하(宋錫夏), 손진태(孫晉泰), 조윤제(趙潤濟) 등이 주동이 되어 1934년 5월에 발기되었다. 고하는 이 모임의 발족을 크게 격려하기 위하여 동

아일보에 사설을 실어서 창립을 축하해주는 일방 스스로 진단학회의 찬조회원이 되어 재정적 지원과 학보의 인쇄에 아낌없는 후원을 한 바 있다.

이 무렵은 만주사변 이후 직접적인 민족 운동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었고, 반면에 신문사의 재정은 점차로 안정되어 매일 조석간 10면을 발행하고 있는 때(동아일보는 창간 당시 석간 4면으로 출발하여, 1925년 8월부터 8면, 1929년 9월부터 8면, 1932년 11월부터 그 전에도 간혹 시도되었던 조석간제를 비로소 고정시키고 1933년 9월부터 10면을 발행하고 있었다)였던 만큼 고하는 지면의 충실을 위해서 여러 모로 노력을 기울였다.

1934년 3월에는 주필에 김준연(金俊淵), 편집국장에 설의식(薛義植)을 임명하고 그해 10월에는 객원사원(客員社員) 제도를 도입하여 보성전문(普成專門) 혹은 연희전문(延禧專門)의 교수였던 정인보(鄭寅普), 오천석(吳天錫), 백남운(白南雲), 유진오(兪鎭午), 노동규(盧東奎) 등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저명한 학자로 하여금 혁신적인 논진을 전개하였다. 또 그해 11월 5일 동아일보 지령(紙齡) 5천호 기념일을 맞아 '조선도별현세지도(朝鮮道別現勢地圖)'의 발행, '오천년 문화 재음미(五千年文化再吟味)'의 연재 등을 실현했다.

'도별 현세지도'는 5만분의 1로 전국 13도를 각각 신문 한장 크기, 또는 신문 두장 크기로 제작하고, 여기에 부도(附圖)와 도표로서 각 도마다 주요도시, 시가지도(市街地圖), 도내 이정지도(道內里程地圖), 도내 구별 면적(都內區別面積), 군별 인구·읍면수, 도내 직업별 인구, 도내 명소고적, 산업 생산, 문맹수(文盲數), 학교 상황, 세금, 세입세출(歲入歲出) 등을 기재하여 이 국토와 이 민족의 현황을 자세하게 소개하여 은연중 조국애와 민족애를 고취하는 것이었다.

'오천년 문화 재음미'의 연재기사는 이 민족 5천년의 역사와 결부시켜, 내 자랑과 내 보배, 조선심(朝鮮心)과 조선색(朝鮮色)을 드러내자는 것이었다. 이에 이윤재(李允宰)의 '우리 독창(獨創)과 발명(發明)', 정인보(鄭寅普)의 '우리의 명문(名文)과 명저(名著)', 고유섭(高裕燮)의 '우리의 미술(美術)과 공예(工藝)', 현상운(玄相允)의 '우리의 전공(戰功)과 훈업(勳業)', 김윤경(金允經)의 '이두(吏讀)로부터 한글까지', 백남운(白南雲)의 '조선독자(朝鮮獨自)의 사회제도(社會制度)', 김원근(金瑗根)의 '사상(史上)에 빛난 여성의 편모(片貌)', 권덕규(權憲奎)의 '이방(異邦)에 끼친 선인(先人)의 자취' 등이 각각 연재되었다.

고하는 민족의 독립을 위한 줄기찬 활동 이외에도 학문과 예술과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고 과학 기술을 진흥하는 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는 '학문의 세계란 자기의 경험과 착상만으로 무엇이든 해치울 수 있는 것 같은 안락한 세계는 아니다. 자기만의 경험을 여러가지 다른 수많은 경험과 비교해서 음미되어야 하고 한계가 설정되어야 하며 이와같은 다양한 경험적 사실을 통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의 시행도 거듭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공과교육(理工科教育)의 진흥을 부르짖었다. 경도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에서 화학을 전공하여 노벨상 수상 후보자로서 거론된 바 있던 이태규(李泰圭) 박사도 고하의 이러한 주장에 영향을 받은 바 컸다고 하였다.

이 1934년에 일어난 저항(抵抗) 운동의 하나가, 평양(平壤) 송실(崇實)전문학교의 신사불참배(神社不參拜) 운동이었다. 심지어 민중 계몽운동까지도 탄압을 자행하던 일제는, 급기야 교육계와 종교계에까지 간섭을 일삼게 된 것이다.

이때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에 참다못해 들고일어나서 정면으로 거부한 곳이 기독교 도시 평양이었고, 미국 선교사 윤산온(尹山溫 Dr. George Shannon McCune)이 교장으로 있는 송실전문학교였다. 그리고 그 저항 운동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 고하였다.

송실전문학교가 신사 불참배의 방침으로 일관하자, 총독부와 평안남도 당국은 송실전문교의 존폐 문제를 들고 나왔다. 윤산온은 일소에 붙였다. 그러나 교수들간에 이견(異見)이 생겨 교수진도 신사 참배와 신사 불참배의 두파로 나누어졌다. 일부 신사 참배를 주장하는 교수측에서는 학생을

선동하여 동맹휴학(同盟休學)을 일으켰다. 그래도 윤산온은 초지를 굽히지 아니하였다. 학교를 폐쇄당해도 좋고, 또한 동맹 휴학을 하고 학생이 등교하지 않으면 문을 닫겠다는 것이었다.

윤산온의 강경한 주장에 일부에서는 실정을 모르는 처사라고 비난하는 편도 생겼다. 개인 뿐 아니라 단체가 움직이고, 이에 일부 신문이 가담을 하여 동맹휴학에 동조하는 측도 생겼다.

“종교를 위해서 교육을 희생시킬 수는 없소”

이 주장에 대다수의 의견이 기울기 시작했다. 일부 여론과 신문, 식자층이 윤산온을 비난할 때, 고하는 분연히 일어나 신문 사설을 써서 인간 본래의 권리인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고 사회면을 통해서 경거(輕擧)를 질책했다. 윤산온은 암흑에서 광명을 찾은 것 같이 기뻐했다.

고하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서도 윤산온을 옹호하고 일어난 것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빌어서 은연중 민족 정신을 양양해 보자는 속셈이 담겨있었다. 고하의 생각은 그 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종교도 종교지만 일제의 쇠사슬에서 신음하는 이 민족에게 많은 재산과 힘을 들여 교육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 선교사들에게 민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자는 데도 있었다.

고하의 판단은 민족을 위해서는 언제나 정확하고 정당했다. 그러나 정당함이 진리에 통하지 않는 시대에 너무 정당했기 때문에 모두들 놀랐다.

‘동아일보는 폐간된다. 송진우는 구금된다’

항간에는 동아일보의 폐간과 고하의 구금설이 떠돌았다.

‘전체주의자(全體主義者)와 미친개는 통한다’

하고, 고하는 전체주의자는 미친개처럼 언제 어디서 물고 덤빌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는 고하와 동아일보는 구금과 폐간을 면했다. 그것은 단지 구금하고 폐간시킬 정당한 이유를 못찾은 데서였다.

고하의 용단과 장거(壯擧)는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고하 한 사람과 동아일보가 신사참배에 항거하여, 이를 근절시키지는 못했지만 일부 일제에 아부하던 학자와 유지들의 언동을 주춤하게 했고,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떠들던 학생들의 머리를 식히게 했다. 또한 뜻있는 이로 하여금 이 시대에 가장 올바르게 사는 길을 제시하기도 했다.

뒷날 이 사건은 우리 민족의 광복 운동에 많은 공헌을 했다. 일제는 끝내 윤산온을 굴복시키지 못했으며, 더욱이 외국인인 그를 체포할 수도 없었다. 정세는 점차 악화해서 일본 군국주의는 드디어 외국인 선교사 추방을 결정하고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발악적인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인간의 정상을 벗어난 탈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윤산온을 비롯한 추방당한 선교사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독립을 위하여 열변을 토했고 제2차 대전 중에는 자진 종군하여 단파방송을 통하여 한민족의 독립이 가까워움을 알렸던 것이다.

3.1운동 이후로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동정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던 스코필드박사도, 당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교수로 근무하던 중 태평양전쟁 전에 일제의 미움을 받아 축출당하였다가 다시 돌아온,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외국인중의 한 사람인 바 그는

“송진우씨는 용감하고 침착하며 의지가 굳은 분입니다. 3.1운동 전부터 교육계의 관계로 알고 지내왔지만 그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감탄할 만하였습니다. 송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신문사 일을 볼 때는 더욱 자주 만났고,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참 위대한 인물을 아깝게 잃었습니다”

하고 개탄한 바 있다. 스코필드박사는 신사참배 거부 운동후 일제의 손에 의하여 자기 고국인 캐나다로 쫓기어갈 때 고하에게 멀지않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성경책 1부를 기념으로 고하에게 선사하고 떠났다. 스코필드박사가 한국에 왔을 때에는 고하의 자취는 이미 세상에 없었다. 우정어린 스코필드박사의 애석해하는 모습은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다.

7. 일장기 표지(日章旗標識) 말소사건(抹消事件)

1922년 10월에 독재권력을 장악한 이태리의 무솔리니는 1935년 10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를 공략하여 다음해 5월 그 병합을 선언했다. 또 1933년 3월에 독재권력을 장악한 독일의 히틀러는 그해 10월 국제연맹(國際聯盟)에서 탈퇴하였고, 1935년 3월에는 베르사이유조약의 폐기를 선언하고 재군비(再軍備)에 들어갔다.

유럽에서의 이와같은 전체주의 세력의 대두는 중국대륙에서 침략을 확대해 가고 있는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을 고무하고 격려했다.

이무렵 조선에서는 총독의 경질이 있었다. 1931년 6월 이래 총독으로 있던 우가끼(宇垣一成)가 물러가고 뒤를 이어 1936년 8월 미나미(南次郎)가 제7대 총독으로 부임해 왔다. 미나미는 전에 조선군 사령관을 지낸 바 있고 본국(日本)정부의 육군대신도 역임한 바 있는 지한(知韓)파로서 야심만만한 자였다.

군인으로서의 비교적 융통성이 있던 우가끼의 뒤를 이어 8월 5일자로 총독에 임명된 미나미는 이른바 황도파(皇道派)의 구미에 맞추어 국체명징(國體明徵)을 조선통치의 근간으로 밝혔다. 미나미는 부임하자마자 '국체명징', '내선일체'(內鮮一體) 등을 시정구호(施政口號)로 내세우고 신사참배(神社參拜), 궁성요배(宮城遙拜), 국어상용(國語-日本語-常用) 등을 강압으로 실천케 하여 급속적인 한민족 말살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그들은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 보안법(保安法),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총독부제령(總督府制令) 등을 무제한 무차별 남용하여 우리 언론계는 날로 위축되어 갔고 민족운동이나 사상 운동은 물론 문화 운동까지도 제약을 가했다.

이렇게 가혹한 탄압과 제약을 가하니 한민족은 그 울분에 찬 민족 기개를 풀 곳이 없었다. 그래서 유일하게 뛰놀 수 있는 곳이 스포츠였다. 원래 동아일보는 스포츠의 보급과 발전에 힘을 기울여 경향 각지에서 개최되는 우리 젊은이들의 중요한 각종 운동행사에는 거의 동아일보나 그 지사·지국에서 주최 또는 후원해 왔다. 체육단체만 해도 그러했다. 맨 처음 동아일보가 이를 제안하였고 많은 간부들과 지국장들이 그 발기에 참여하여 1920년 7월에 조선체육회(朝鮮體育會=지금 大韓體育會)가 발족하였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낸 경기종목으로는 축구, 농구, 역도, 권투, 정구 등이었고 193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0회 올림픽대회에서 일본 대표선수로 출전한 김은배(金恩培)가 마라톤에서 6위, 권태하(權泰夏)가 9위를 차지하자 우리의 육상경기는 세계적인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고하는 경성방송국을 통하여 김선수와 권선수를 찬양 격려했다. 김선수는 조선의 김은배인 동시에 세계의 김은배임을 자랑하고 체육을 통한 민족 정기 양양을 고취했다. 아무튼 이때부터 조선의 운동계는 활기를 띠고 운동경기 '붐'이 일어났다.

1936년 8월, 독일 베를린에서 제11회 올림픽대회가 열렸다. 이때 축구에 김용식(金容植), 농구에 이성구(李性求), 염은현(廉殷鉉), 장이진(張利鎭), 권투에 이규환(李奎煥) 선수 등이 일본 선수단에 끼어 출전하였다. 그 가운데서 손기정은 마라톤경기에서 2시간 29분 12초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1위를 했고, 남승용은 3위로 입상하였다.

마라톤 경기에서 두 선수가 3위 이내로 입상하리라는 것은 내외 전문가들이 이미 예상했던 일이어서 국내 민간신문들은 다투어 그 보도의 준비를 서둘렀다. 특히 동아일보는 독일로 가는 권태하(權泰夏=조선 육상경기협회 명예비서) 및 재독 유학생인 유재창(劉在昉) 등 3인에게 통신을 부탁하고, 베를린 재류 화가 배운성(裵雲成)에게는 화보(畫報)를 청탁해놓고 있었다.

손기정 선수가 일착으로 끝인한 30분후인 8월 10일 오전 2시경 마라톤 세계제패라는 쾌보가 동아일보에 입전되었다. 동아일보사 속보판(速報版)에는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속보가 나붙었고 15분 뒤에는 호외가 거리에 뿌려지고 가정에 배달되었다. 이날 새벽 동아일보사 속보판 앞에는 비를 맞아가며 수백명의 군중이 모여 환성을 올렸고 '손기정선수 만세', '남승용선수 만세', '조선만

세'를 외치고 나중에는 '동아일보 만세'까지 불렀다.

이즈음 오랜 장마로 한강을 비롯한 모든 하천이 범람하여 곳곳에 큰 수재를 겪고 있었으나 각 신문들은 수해상황과 함께 손선수의 마라톤 세계제패에 관계되는 기사를 빼놓지 않고 연일 대서특필했다. 독일의 히틀러가 손기정선수와 악수를 했다. 손선수의 고향인 평북에서는 제등행렬(提燈行列)이 있었다. 기념체육관의 발의설, 축하금품의 답지 등등 연일 손선수 열풍은 전국을 휩쓸었다.

손기정선수는 형식상 일본선수단의 일원이었으므로 일본에서도 한동안은 많은 화제거리였다. 일본 각의에서는 대신들이 손선수 자랑에 열을 올리고, 때마침 조선총독을 사임하고 간 우가키와 부임준비중인 미나미가 동경에서 축배를 든 보도가 사진과 함께 일본신문들에 실려 들어왔다. 그러나 조선에서 날이 갈수록 손기정 열기가 더해 가자 총독부는 차츰 경계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각 민간지의 편집책임자를 불러다 주의하도록 경고하기도 했다.

이때까지도 우리 국내 민간신문들은 손선수의 현지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다운 사진이 입수되지 못했었다. 경기 당일부터 10여일이 지난 8월 하순 오사카 아사히 신문이 발행하는 주간지(週刊誌) '아사히 스포츠'에 실린 손선수의 수상 현황사진이 입수되었다. 히노마루(日本旗) 표지를 가슴에 단 운동복 차림의 손기정선수가 월계관(月桂冠)을 쓰고 시상대에 선 장면의 사진이었으나 동아일보는 25일자(24일 발행) 1판에는 그대로 전재하여 발행했다.

체육부 기자 이길용은 사진 담당 백운선(白雲善)과 재판담당 강대석(姜大奭)을 찾았다.

“백형, 거 보기 싫다”

하고, 이길용은 넋지시 말문을 열었다.

“방법이 없지도 않지..... 초산(硝酸)만 조금 강하게 치면 되지 뭐.....”

이길용과 백운선 그리고 강대석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눈을 꿈벅했다. 옛말에 변죽을 치면 복판이 운다는 말이 있거니와 동아일보 사원들은 변죽을 치면 복판이 올만큼 혼련이 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잠시후 초산을 강하게 친 원판이 어수선하게 보이자 도안과 삽화를 담당하던 청전 이상범(靑田 李象範)으로 하여금 보기 싫지 않게 수정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8월 25일자 동아일보(2판) 지상에 실린 손기정선수의 올림픽 시상 실황사진(實況寫眞)은 그의 '유니폼' 앞가슴에 붙은 일본 국기 표지가 말소(抹消) 수정(修正)되어 있었다. 집집에 배달된 신문의 독자들은 놀랐고 다음순간 다른 신문과 비교하고 감탄했다.

“과연 동아일보는 달라.....”

그러나 이 25일자 동아일보 석간은 즉시 압수처분(押收處分)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인촌 김성수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보전(普專) 이사실에서 이 사실을 전화로 연락받은 인촌은 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中略) 급히 동아일보사로 오는 자동차 속에서 인촌은 히노마루 말소는 몰지각한 소행이라고 노여움과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리는 데서 오는 순간의 쾌(快)와 동아일보가 정간되거나 영영 문을 닫게 되는 데서 오는 실(失)을 생각하여 그 답은 분명했다.

산란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던 인촌은 도중에 문체의 신문을 구해서 그 사진을 보고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민족의 정기가 위축되어만 가고 변절하는 유명무실의 군상이 늘어가는 세태로 볼 때, 히노마루의 말소는 잠자려는 민족의식을 흔들여 놓은 경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다소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에 대한 탄압은 민족 대표지로서 쾌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되기도 하였다.

신문사에 도착하니 밖에는 수많은 정.사복 경관들이 지켜섰고 사내는 마치 독립만세를 부르고 난 것 같은 흥분에 싸여 있었다.

사장실에 들어선 인촌은 눈을 감고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고하에게 한마디 없을 수 없었

다.

“자네 거기서 뭘하고 앉아 있나?”

그러나 고하는 탄 소리를 했다.

“지금쯤 남차랑(南次郎)이는 부산에 도착했을 걸...”

이때 신임 총독 미나미는 부임도중에 있었다. 이 미나미는 그 뒤 6년동안 조선총독에 재임하면서 조선민족 말살정책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제2의 데라우찌(寺內正毅)'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인물이었다.

고하는 이렇게 계속했다.

“새로 부임해 오는 남차랑이 폐간과 같은 극단적인 태도로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일본 군벌은 미친 개여서 마음을 놓을 수 없어”(下略)

고하는 조선인의 가슴에 부착된 점 하나를 없앴기로 소동을 벌이는 총독부의 모습이 가관이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었지만 여파는 심각했다.

26일 서울에 부임해 온 총독 미나미(南次郎)는 27일자로 동아일보에 무기정간(無期停刊)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동아일보사에는 검거 선봉이 붙었다. 사진담당 기술원인 백운선과 서영호(徐永鎬), 사회면 편집기자인 장용서(張龍瑞)와 임병철(林炳哲), 사진부장 신낙균(申樂均), 미술담당 기자 이상범, 운동담당 기자 이길용, 사회부장 빙허 현진건(憑虛 玄鎭健) 등 8명이 경기도 경찰부에 연행되어 갔다.

주필 낭산 김준연(朗山 金俊淵)은 연행되었다가 곧 석방되었고, 편집국장 설의식(薛義植)은 지방 여행중이어서 화를 면했으나 둘 다 사장에게 인책 사표를 제출했다.

사건은 월간 '신동아(新東亞)'에도 비화했다. 이때 나온 '신동아' 9월호 화보에도 역시 일장기 표지가 지워진 문제의 손선수 사진이 실렸던 것이다. 신동아 주간 극웅 최승만(極熊 崔承萬)과 사진부의 송덕수(宋德洙)가 연행되어 갔고, '신동아' 편집인 겸 발행인인 동아일보사 영업국장 양원모(梁源模)도 연행되었다가 석방되었다.

9월호 '신동아'는 물론 압수되고 10월호부터는 총독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발행을 정지당했다.

동아일보 자매지인 여성잡지 '신가정(新家庭)'도 부분삭제 처분을 받고 발간이 중단되었다. 이 두 월간지들은 그후 영영 햇빛을 못보다가 해방 후 복간하였으니 '신동아'는 그냥 '신동아'로, '신가정'은 '여성동아(女性東亞)'로 개제했다.

관계자들을 구금한 경기도 경찰부는 이른바 일장기 표지 말소의 책임을 사장인 고하나 창설자인 인촌의 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백을 얻어내고자 무서운 고문을 가했다. 그러나 이길용은 끝내 자기의 독단에 의한 과실이라고 우겼고, 히노마루를 아주 지워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선명해서 조금 흐리게 하려고 한 것이 지나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꾸며대었다. '신동아'의 최승만도 신병으로 화보 제작을 못보았으나 끝내 자기의 책임이라고 우겼다.

이리하여 구속되었던 기자들은 연행된지 40일만인 10월초 모두 풀려 나왔다. 일본 형법에는 자국의 국기를 훼손했을 때의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대신 이길용.현진건.최승만.신낙균.서영호 등 5명의 기자들은 <1> 앞으로 언론기관에 참여하지 않는다. <2> 시말서를 쓴다 <3> 만일 또 다른 운동에 참여하면 가중 처벌받을 것을 각오한다는 서약을 하고 풀려나온 것이다.

무기정간으로 문을 닫은 동아일보사는 사장인 고하 이하 전사원이 매일 정시에 출퇴근을 하여 평정을 지켰다. 그러는 한편 고하는 총독 미나미를 비롯하여 미바시(三橋孝三郎) 경무국장, 오오노(大野綠一郎) 총감 등 관계 당국자들을 만나 조속한 정간해제를 요청했다. 한편 일본정계의 일부에서도 장기정간이 일본에 유리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정간의 해제를 총독부에 권고하는 움직임

도 있었으나 총독부의 저의는 그렇지 아니했다. 그들의 의도는 민족주의의 최종 보루인 동아일보를 이 기회에 거세해 버리려는 데 있었다.

총독부는 우선 동아일보사 간부진의 총퇴진을 요구해 왔다. 이리하여 사건 직후 사장에게 제출되었던 주필 김준연과 편집국장 설익식의 사표가 정식으로 수리되고 11월 11일에는 사장 고하와 재미중인 부사장 장덕수가 사퇴했으며 11월 19일에는 인촌도 취체역(取締役)을 사임했다. 이에 동아일보는 취체역 영업국장 양원모(梁源模)가 전무취체역 겸 사장 직무대리로 회사의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고하는 인촌과 상의 끝에 사태수습에 나섰다. 총독부와의 절충을 계속하는 한편 일본 중앙정계와도 접촉을 시도했다. 동경에는 조선총독부의 고관을 지낸 사람들로 구성된 조선중앙협의회(朝鮮中央協議會)라는 것이 있어 조선문제의 자문에 응하고 있었다. 고하는 이들에게 서신 또는 사람을 보내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 기자의 독단으로 저질렀다는 것이 조사에 의하여 분명해진 일을 가지고 정간을 장기간 끌고 가는 총독부의 처사에는 명분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협의회의 회원중 총독부 학무국장을 지낸 세끼야(關屋貞三郎)나 정무총감을 지낸 미즈노(水野鍊太郎) 등은 일본 귀족원 의원이었다. 이들은 '동아일보의 정간처분이 너무 길면 민족감정을 자극한다'고 역설하고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또 한편 고하에게는 '동아일보'라는 제호를 고치라고 종용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에서는 극동일보(極東日報)로 개제하자는 측도 있었으나 고하는 '제호를 고치는 것과 정간해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완곡하게 거절했다.

"동아일보가 동아일보인 것은 동아일보라는 이름 때문인데 그 이름을 버린다는 것은 동아일보를 제 손으로 죽이는 것과 같다"

고 말하고 개제설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때 항간에는 기관지로는 매일신보(每日申報), 민간지로는 조선일보(朝鮮日報)만 양립시키려는 것이 총독부의 방침이라는 설도 있었으나 총독부가 이제 와서 폐간처분을 내릴 수도 없었다.

총독부가 제2안으로 생각해낸 것이 친일파로 조직하자는 구상이었다. 그들이 동아일보사의 후임 사장 후보로 내세운 것은 전라북도 지사를 지낸 바 있는 중추원참의(中樞院參議) 고원훈(高元勳)이었다. 그러나 고하나 인촌은 차라리 해산할지언정 총독부가 미는 인물에게 동아일보를 넘겨줄 수는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리고는 근촌 백관수(芹村 白寬洙)를 사장 후보로 내세웠다.

근촌은 내소사(來蘇寺) 시절에 인촌과 더불어 셋이 같이 공부했고 고하나 인촌보다 늦게 도일하여 명치대학에서 공부했다. 그는 대학 재학중에 2.8독립선언의 대표의 한사람으로 옥고를 겪은 바 있는 애국지사이다. 귀국하여는 조선일보의 상무 겸 영업부장을 지내기도 했고, <동방평론(東方評論)>을 자영하기도 했으며 범태평양회의(汎太平洋會議)의 조선대표로 교오또(京都)를 다녀오기도 했다.

총독부는 이러한 인물을 받아들여려 하지 아니했다. 그리하여 또 상당 시일이 천연되는 가운데 비행사 신용욱(愼鏞頊)의 거중조정으로 조건부 수락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추천하는 신일용(辛日鎔)을 편집국장으로 기용하라는 것이었다. 신일용은 조선일보에도 관계한 바 있는 공산주의자로서 이때는 전향하여 총독부와 긴밀한 사이였다. 고하는 편집국장 문제는 사장이 취임한 후에 논할 문제라고 주장하여 총독부의 종용을 꺾었다. 1937년 5월 31일 동아일보사 중역실에서 임시주주총회(臨時株主總會)를 열고 결원중의 취체역으로 근촌 백관수, 무송 현준호(撫松 玄俊鎬)를 선출하고 즉석에서 사장 겸 주필, 편집국장에 근촌을 선출했다.

이리하여 동아일보는 9개월이 넘는 기록적인 장기정간을 겪고 1937년 6월 3일자 석간(2일 발행)부터 속간을 보게 되었고 사장 백관수가 편집국장을 겸하게 된 것은 총독부가 미는 신일용을 거절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래서 그해 12월 경리부장이던 고재욱(高在旭)을 편집국차장으로 전보 발령했고 영업국장에는 임정엽(林正燦)을 임명하였다. 또한 고하는 고문(顧問)직을 맡고 제2선

으로 물러섰다.

그러나 장기정간에서 온 동아일보사의 타격은 막중했다. 수만원에 이르는 물질적 손실은 물론 많은 사우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재조직하는데 많은 난관을 겪었다.

挑戰하는 朝鮮日報, 應戰하는 東亞日報

石兵丁記

(前略)

東亞日報의 對策 --

그러면 여기에 注目되는 것은 東亞日報의 對策이다. 싸울 칼이 잘라져 敗戰할 境遇면 捕虜되기 보다 차라리 自刎하여 버리는 勇士와 같이 萬一 資本力이나 人材配置에 있어 不足하여서 다른 新聞의 肩下에 서게 된다면 東亞日報는 스스로 廢門 停刊하여 버리기는 할지언정 屈辱的 地位에 서 있지 않을 것이 同社의 矜持요, 배짱이요, 世人도 또한 東亞日報의 眞價를 그러리라 評하여오는 터이다. 換言하면 東亞日報는 決코 第2位에 自甘할 新聞이 아니다. 第1位가 못되면 적어도 同位에 서야 滿足할 新聞이다. 萬一 돈을 내기 싫어서 株主側이 第2位에 서라 하더라도 宋社長의 氣骨이 그를 不肯할 것이요, 宋社長도 無可奈下라 할지라도 15年 親愛한 十數萬 讀者가 그를 不肯할 것이다.

그러므로 結局 應戰하는 東亞日報의 '大砲'가 時急히 發射될 것인데 그 彈丸은 어떤 것일고. 天機不可漏로 高級幹部 數人과 最高重役사이에 쉬쉬하여 人目を 避하여 가며 祕密히 銳磨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 內容을 推想컨대 紙面을 12面 또는 그 以上으로 增面하여 놓을 것은 不可避의 既定 且 基本的 事實이 되리라. 萬一 10面紙를 不變한다면 事大思想에 젖은 新聞讀者는 단곳으로 가게 될 것이요, 그를 避하자면 東亞는 定價1圓하던 것을 90錢이나 80錢으로 低下해야 된다. 低下하는 날이면 東亞紙는 中央日報級에 編入되어 第2流紙에 自落할 밖에 길이 없는데 그러면 大新聞紙主義를 取하는 東京.大阪의 廣告量이 훨씬 줄어들 것이요, 讀者層도 都市에서 農村으로 옮겨진다. 이리되면 赫赫한 過去 東亞紙의 歷史는 塵土에 묻히고 그후 發展은 極히 消極的이 되어 一言以蔽之하면 自殺의 길에 오르게 된다. 東亞日報는 12面以上으로 增面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 한가지 스스로 파놓은 陷穽이 있다. 曰 廣告料 5割引上이다. 廣告料의 引上이란 말은 紙面은 없고 廣告量은 輻輳하고 하니 不得已 廣告料金を 올리겠소 하는 것인데 이제 增面을 行한다면 現在 廣告料 單價를 維持하기조차 苦心焦思할 판인데 그 逆으로 도리어 紙面量은 늘었음에 不拘하고 稀少價值說을 否定하는 曠古未曾有의 語不成說 '로직'이 생긴다. 於是乎 여기에 東亞日報의 營業上 煩悶이 생긴다. 그러면 增面과 廣告料 引上關係에 對하여 朝鮮日報는 어떠한가. 마찬가지로 同社 역시 여기에 矛盾을 싸안고 있다. 그러나 朝鮮日報에는 定型이 없다. 新興하는 곳이니만치 體面과 傳統에 朥개지 않을 것이니 무슨 길이든지 누이 좋고 매부 좋다 할 - 廣告主 좋고 新聞社 좋고, 體面은 體面대로 維持할 案을 發見키 그렇게 難事가 아닐 것이다. 말하자면 猪突의 點에서 무슨 活路인가 엿보고 있을 것이다.

어쨌든 東亞日報가 12面으로 增面하는 것으로 應戰의 基本武器로 삼을 것은 既定의 事實이다. 그러나 世人의 눈은 살(肥)이 찼다. 12面쯤으로 '東亞日報' '東亞日報'하고 떠들 때는 이제는 벌써 지나갔다. 萬一 朝鮮보다 先手로 그를 着手하였던들 效果 百퍼센트였을 것을...

百戰百熱한 東亞當局者 이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朝鮮日報에서 增面發表後 地方의 支局長으로부터 讀者地盤을 攻勢에 있는 朝鮮支局에 다 빼앗길 염려가 있으니 하루바삐 增面을 斷行하라고 抗議電報가 每日 多數히 들어오는 것을 보고있는 東亞幹部 胸中에는 百尺竿頭 更進一步할 길이 닳이고 있으리라. 여기에 '덤'으로 내놓는 第2案인 不可無의 그것이 무엇일고. 五人의 興味는 여기에 쏠린다.

想像컨대 極東問題의 重要한 一面을 보여주는 意味에서 南北中國에 讀賣가 室伏高信을, 大每가

松村을 보내듯이 主幹이나 編輯局長級 人物을 派하여 蔣介石, 張群等を 會見시켜 紙上을 찬란하게 裝飾치 않을까. 또 中國이 아니면 比律賓으로 또는 布哇나 南洋으로 視察團을 보내지 않을까. 이러한 案도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人氣있는 外國思想家를 -- 胡漢民이나 胡適之나 혹은 타골, 아인슈타인級의 人物을 數萬金을 들리어 招聘하여오지 않을까, 讀賣新聞의 智慧를 빌어 美國서 野球團을, 佛蘭西에서 音樂家나 舞踊家를 빌어오지 않을까. 어쨌든 人氣를 한번 폭신 끌어놓을 案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對外的으로 보아 社屋도 急하다. 서울장안 紳士淑女의 集會를 相敵 二町以內에 우뚝 선 '朝鮮日報 講堂'에 자꾸 빼앗기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人氣장사인 東亞는 電車속에서 달음박질하고 싶도록 焦燥한 생각과 熱湯을 마시는 듯한 苦惱를 맛보리라. 또 東京 大阪 廣告主앞에 남만 못한 社屋을 暴露시킬 때 斷腸의 괴로움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急 且 緊한 이 社屋을 짓자면 現有 貯金 10萬圓 돈만으로는 不足하므로 結局 第 몇회 拂込을 새로 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자면 大株主 金性洙氏의 現金出資가 1, 20萬圓 程度로 새로 있어야 할 터인즉 金氏 負擔이 커진다. 그러나 五人은 비록 外債를 얻어서라도 東亞는 增築計劃대로 今春에 社屋이 서는 것도 重要的 武器가 될 줄 안다. 이밖에 廣範圍로 讀者層에 서비스할 案으로 年定制의 '東亞賞' '東亞博覽會' '東亞圖書館' 등이 나오지 않을까....

兩社 財政, 人的關係, 戰略 等 --

요즘 巷間에 떠도는 말이 있다. 東亞日報는 새해부터 營業政策을 更新하였던 까닭에 公돈으로 年 3萬圓의 利益을 보게 되었는데 그 돈으로 淸정한 恒久的 事業을 하리라 한다. 즉 從來 鮮一紙物會社에서 쓰던 新聞卷紙를 이번에 東京附近에 있는 北越製紙會社에서 사 쓰기로 되었는데 東亞日報의 1年 卷紙使用量은 約 6천本으로 그 價格은 24萬圓에 及하는 바 이번 北越과의 半個年 契約에는 싼값으로 되기로 되어 종이값 3萬圓이 節約된다 함이다. 이와같이 公돈이 뜨는 것을 살핀 朝鮮日報에서는 東亞日報에 先着하여 突嗟의 12面을 斷行한 것이란 말도 있는데 다시 鮮一系도 들은 말에 依하면 北越종이는 鮮一보다 1連에 5錢程度로 쌀 뿐 諸般 費用을 넣으면 조금도 싸진 폭이 아니라 하며 東亞 宋社長의 말에는 直接間接으로 3萬圓이 浮한다고 한다.

어쨌든 이번 싸움의 始初는 이 新聞卷紙의 新契約에서 시작된 것으로, 싸우고 보니 그는 讀者會社에 利로운 것이라 이 싸움이 더 커지고 더 持續되기를 바라는 傾向이 있다. 今春 3월에는 副社長 張德秀氏를 맞는 東亞日報는 人的陣容에 있어서도 좀더 充塡할 것이오, 이에따라 심파적 筆者網 擴大를 쓰는 朝報 또한 그 對案을 講究할 것이니 天下의 注視가 다시 이 新聞戰에 모일 것 같다.

<三千里 (1936년 2월호)>

東亞日報의 今後의 코-스

나로 하여금 세 新聞의 思想的 系列을 評하라면 東亞는 民族主義, 朝鮮은 自由主義, 中央은 社會主義라 할 것이다. 勿論 이 말은 嚴格한 意味에서가 아니고 그저 가벼운 意味에서 그 態度도 行路가 恣恣한 夕陽過客이 沿道風光을 한두마디 指摘하고 가듯이 그러한 意味에서 하는 말이다.

中央을 左翼系라 함은 呂運亨, 裴成龍, 林元根, 安炳洙, 李天鎭, 洪惠裕, 金復鎭 等 過去의 色彩가 그러하였던 분이 여럿인 點으로도 首肯되며 朝鮮은 그 幹部層에 아주 強烈的한 '社會主義' 아니면 못산다'하는 이도 많지 못한 代身, '民族主義' 아니면 못산다'하는 式의 굳센 民族意識을 가진 이도 많지 못하다. 그래서 一言으로 要約하면 가벼운 意味의 自由主義 傾向이 濃厚하다 할 것이오, 그에 反하여 東亞는 創刊初의 社是에도 '二千萬 民衆의 表現機關'이라 公言하여 比較的 純一한 民族主義系 人物이 中樞神經이 되어 社가 움직이고 있다.

宋社長의 信望도 이러한 意味로서의 信望이다. 이것이 東亞日報로서는 無形의 힘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東亞日報社 幹部가 墨守하는 이 傾向은 最近 激動하는 世界의 思潮와 步調가 맞추

어저 가는가 함을 一部 急進層들은 憂慮한다. 같은 民族主義면서 너무 保守的이 아닌가 한다. 紙面에도 近日에는 昔日의 生氣를 잃는 듯한 感이 不無하다.

어쨌든 東亞日報의 近來의 큰 失手는 朝鮮日報에 先是하여 12面 斷行을 하지 못한 것이다. 東亞日報는 今年 正月 초하루부터 오늘까지 꼭 12面 以上을 增面할 覺悟가 있었던 以上, 어째서 正月初하룻날 萬目이 紙面에 모일 때 주먹같은 活字로 이 뜻을 公表하지 못했단고. 우물쭈물 一週日을 끌어오는 동안 他社에 機先을 주어 이 先驅者的, 霸者의 名譽를 빼앗기고 말았다. 이제 들리는 말에 中央日報는 3月中에 10면 80錢을 公言할 듯하다고 한다. 또 每日申報까지 現在의 8面을 朝鮮日報 以上으로 6面增, 14面으로 하기로 內定되어 그 工場擴張을 한달前부터 準備하고 있어 늦어도 6月부터는 發表 즉시 實行하리라 한다.

앞에는 '1圓 12面'의 朝鮮, 每申의 強敵이 있고 뒤에는 '80錢 10面'의 中央의 追擊이 있다. 東亞紙는 前後左右의 狹擊에서 어디로 가려는고. 東亞에 對하여는 '1月 7日'이 歷史的 厄日이었다. 이날 以前에 大勢를 살피고 增面社告할 것을 可惜 幹部層의 無氣力, 保守의 罪로 長蛇를 逸하고 말았다.

全鮮 3百의 分支局長은 이 때문에 悲憤의 暗淚를 흘리고 있다. 워털루의 大戰도 그 勝敗는 極히 짧은 一瞬間에 달린 것을 잊었던가. 宋社長은 이에 對하여 다만 不言之 實行이 있을 뿐이라 한다. 그러나 어떻게나 빛없는 不言之 實行인고!

그러나 亦是 東亞日報다! 이것을 다른 모로 解釋한다면 浩浩自適하고 浩浩蕩蕩하여 어디까지든 自信있는 배짱의 表現인 듯도 하다. '떠들지마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듯한 氣壓도 感하여진다.

그래서 第1着으로 大社屋主義로 나가기로 되어 方今 現社屋에 3倍大 增築을 하기로 되어 그의 設計中인데 宋社長의 言明에는 앞으로 3個月內에 起工하여 明年 春3월에 落成하리라 한다. 또 紙面도 '必要에 應하여는' 12面을 하여 나가리라 한다. 公約한 말이 아니기에 이 말은 14~5面을 낼 날도 있는 代身, 옛날의 10面紙도 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增資說도 있는데 이 增資가 되는 날이면 至極히 積極的인 方面에 躍進할 것 같이 觀測된. 그러나 東亞日報의 強味는 金城鐵壁같은 탄탄한 그 財政이라 社가 짊어진 빛이라곤 없다. 종이도 鮮一을 그만두고 北越 것을 갖다 쓰는 바람에 年 數三萬圓의 利를 보고 있다 하며 東京.大阪.名古屋의 廣告量은 점점 늘고있다 한다.

支局도 모두 5年, 10年, 搖之不動할 地盤이 다져지고 있는즉 무슨 必要있어 數萬金 거두자면 이 支局地盤을 通하여서도 一朝一夕에 可能하게 보여진다. 이것이 더 말할 수 없는 힘시오, 寶物이오, '強味'이다. 要件대 大社屋이 完成되고 12面 斷行을 公約하는 날 東亞의 威勢는 다시 一世를 떨치리라.

그리고 나의 觀測으로는 10년을 社長의 한자리에 있어 心身이 疲勞하였을 宋社長은 한 1, 2年 작정하고 世界週遊에 오르지 않을까. 또 在美 張德秀를 맞아 勃勃한 새 氣概를 보이지 않을까.

(下略)

<三千里 (1936년 4월호)>

東亞日報 停刊 真相

孫選手 國旗抹消

社員 十名 警察拘禁取調中

爲先 東亞日報가 停刊되기까지의 真相은 探聞한 바에 의하면 伯林으로 出征하였던 孫基禎選手가 優勝하여 全世界 絶讚하는 속에서 月桂冠을 받고 올림픽 壇上에 섰다. 이 좋은 뉴스의 앞에 東亞日報도 다른 僚紙 朝鮮日報나 中央日報와 마찬가지로 雀躍하여 每日 朝夕으로 센세이셔널하고 華麗한 紙面을 꾸미어 連日 發行하였다. 여기에는 히틀러가 孫에게 握手를 하여 주었느니 鄉里 平北에서는 提燈行列이 있었느니 어디서는 旗行列이 있었고 演說會가 있었느니 누구는 돈을 내었느니 하는 記事가 滿載하였다.

新聞에 이러한 報道있음에 따라 孫基禎은 漸次로 더욱 높았다. 그래서 宋鎮禹 方應模 呂運亨의 이름은 몰라도 孫基禎의 이름은 兒童走卒이라도 다 알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 있는 新聞들이 제 아무리 떠든다 할지라도 大阪新聞 以上으로는 못 떠들었고 서울의 新聞이 孫을 아무리 치켜든다 할지라도 東京放送局의 라디오 이상으로는 채 못 치켜들었으니 그것은 大每 大朝는 伯林 東京間에 直通 電送寫眞과 無線電話를 가지고서 孫의 一舉一動을 눈에 보이듯 連日 全面紙로 割充하여 感激的 寫眞과 記事로 萬人을 울게 하였으니 伯林 大每 特派記者가 孫選手가 快勝한 刹那에 滿場이 발을 구르며 歡呼하였고 邦人 應援團은 모두 울었노라 하는 類의 記事가 몇번이나 되풀이되었는지 이는 紙面이 證明하는 터이다. 大每 本社 編輯局長은 伯林 會場의 孫選手를 일부러 無電으로 불러내어 온갖 故國의 感激的 消息을 傳하고 그를 稱揚치 않았던가? 그런데 서울에 있는 돈없고 勢力이 가난한 우리 新聞들은 이런 멋진 일은 한가지도 못하고 他紙의 轉載로서 말하자면 大朝나 大每의 뒤를 따라가면서 孫選手 孫選手하고 불렀을 뿐이오, 또 東亞放送局 아나운서의 입을 좇아가며 다 들린 말을 되풀이하였다. 아무튼 報道에 있어서는 서울의 紙는 地理關係로 大阪 東京에 있는 諸新聞을 따르지 못했다.

어쨌든 孫選手의 優勝은 痛快하고도 感激한 일이었다. 赴任初의 南總督도 辭任하고 간 宇垣前總督도 모두 기뻐 祝杯드는 光景이 大阪每日에 실렸었고 閣議에선 內閣 諸大臣이 또한 '孫選手 자랑'에 한동안 좋아했다고 東京新聞은 報道하였다. 이와같이 上下人은 官民이든 老少든 모두 기뻐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問題가 생겼다. '朝鮮의 特殊性'이 이 祝杯를 民衆의으로 들기를 꺼리게 하였으니 孫 優勝의 感情이 民族的 어떤 感情으로 轉化하기 쉬운 것을 看取한 警務當局에서는 中途에 이르러 祝賀會도 禁止, 紀念體育館 設立 發起도 禁止, 演說會도 禁止로 孫選手 讚揚을 禁하였다. 따라서 警務局長과 圖書課長은 隔日에 한번쯤 新聞社長이나 編輯局長을 불러다가 孫 記事에 格別 注意하기를 當付하였다.

이럴 즈음 8月 25日 東亞 夕刊紙가 押收를 當하였다. 孫選手 胸間에 있어야 할 日章旗를 抹消한 寫眞이 掲載되었던 까닭이라 그 뒤 곧 京畿道 警察部에서는 高等課員이 出動하여 新聞社로부터

社會部長 玄鎮健, 部員 張龍瑞 林炳哲

運動部員 李吉用 畫家 李象範, 寫眞班 4人

의 十氏를 檢舉하여 拘留 取調한 結果 故意로 日章旗를 抹消했던 事實이 綻露되어 27日夕에 이르러 停刊處分을 當한 것이다.

前記 十社員外에 同社 主筆 金俊淵氏도 一時는 檢舉되었으나 곧 釋放되었고 編輯局長 薛義植氏는 그 事件 前後하여 地方旅行中이었기에 何等 關聯이 없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날 紙面に 낸 寫眞을 同社에서는 大阪朝日로부터 轉載했는데 寫眞班員과 運動部員과 社會部員 몇사람이 흰 붓으로 胸間의 日章旗를 지워버려 若干 알려지게 한 것이었다고 한다.

'新東亞' 主幹 拘引

梁源模氏도 一時는 召喚

母紙 東亞日報가 이런 不祥事속에 끼어있을 즈음 불똥은 同社 經營의 月刊 雜誌 新東亞에도 飛火하여 同社 主幹 崔承萬氏도 京畿道 警察部에 檢舉取調中이오, 同誌 編輯 兼 發行人이자 東亞日報 營業局長 梁源模氏도 一時 檢舉되었으나 곧 釋放되었는 바 新東亞 九月號는 押收요, 10月號以後는 當局에서 可타 하는 指令이 있기까지 發行치 못하게 되었고, 新家庭은 部分 削除 處分을 當하였는데 新東亞가 處分된 까닭은 마찬가지로 卷頭그림으로 낸 寫眞의 日章旗를 同樣 抹消하여 非國民的 態度를 取한 데 있었다.

東亞日報 停刊 理由

警務局長談으로 發表

東亞日報은今回 發行停止 處分을 當하였다.

前日 伯林에서 開催된 世界올림픽大會의 馬拉松競技에 朝鮮出身의 孫基禎君이 優勝의 月桂冠을 獲得한 것은 日本 全體의 名譽로 日本 內地와 朝鮮 共히 함께 祝賀할 것이며 또 日本內地와 朝鮮 融和의 資料로 할 것이지 此를 逆用하여 조금이라도 民族的 對立의 空氣를 誘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事實은 新聞紙等の 記事는 자칫하면 對立的 感情을 刺戟함과 如한 筆致를 取하는 것이 있음은 一般으로 遺憾視하던 바이다.

東亞日報은 從來 屢次 當局의 注意가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8月 25日 紙上에 孫基禎君의 寫眞을 掲載하였는데 其 寫眞에 明瞭히 나타나야 할 日章旗의 마크가 故意로 抹消한 形跡이 있었으므로 即時 差押處分에 附하고 其 實情을 調査하였는바 右는 八月 二十三日附 大阪朝日新聞에 掲載된 孫基禎君의 寫眞을 轉載함에 際하여 日章旗가 新聞紙上에 나타남을 忌避하여 故意로 技術을 使用하여 此를 抹消한 것이 判明되었으므로 마침내 其 新聞紙에 對하여 發行停止處分을 내리게 되었다. 如此한 非國民的 態度에 對하여는 將來에도 嚴重 取締를 加할 方針인데 一般도 過誤가 없도록 注意하기를 바란다.

金主筆, 薛局長 辭表

=宋社長 以下 社員 出勤 謹慎中=

이 停刊事變이 일어나자 同社 主筆 金俊淵과 編輯局長 薛義植氏는 宋社長에게 引責의 辭表를 提出하였는데 警察側 取調가 아직 一段落을 짓지않고 있으므로 事件의 發展성과 또 그 眞相을 明白히 알 수 없기에 아직은 同辭表를 受理치 않고 宋社長이 保留하고 있다고 傳한다. 더욱 社長 以下 社員一同은 謹慎의 意를 表하고 있으며 前과 같이 每日 社에 出勤하여 讀書에 熱心하는 中 이라고 傳한다.

損害 拾餘萬圓說

復舊에는 巨大한 힘이 들리라고

이번 停刊으로 東亞日報의 損害는 얼마나 될지고. 直接 損害額을 記하면 8月分 1個月 新聞代約 3萬圓中 未收를 三分之 二로 보아 約 2萬圓, 東京 大阪으로부터 들어오는 廣告料 約 1萬圓, 其他 雜收入等 月3~4萬圓의 收入이 전혀 없어지는 反面에 社員의 生活費 支給 其他 費用으로 적어도 每月 數萬圓의 直接 損害를 보고 있는 듯이 推測된다.

前者 卽 第3次停刊 當時 4月 17日부터 8月 末日까지 約 5個月동안 東亞日報社의 損害額이 15萬圓이라고 傳하여 9月 1日 새 紙面을 내보낼 때에는 겨우 殘額 3萬7千圓인가 하는 적은 돈을 가지고 續刊資本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로 미루어 보면 그 當時보다 只今은 廣告收入도 늘었고 讀者數도 많은 만큼 그 損害도 더 많을 것으로 觀測된다. 停刊中도 停刊中이러니와 續刊을 하게 되면 다 빼앗긴 讀者地盤을 復舊하기에 巨大한 人力과 資力이 들어야 할 것이요, 또 大阪 東京의 廣告地盤을 回復시키려면 到底히 短時日로 되어질 일이 아니다. 이일 저일에 想倒하면 東亞日報은 今番事故가 致命傷에 近한 重瘡인데 아마 復舊하자면 社主로 大株主인 金性洙氏의 財政的 大英斷이 있어야 할 것이요, 또한 海內海外의 人材 多數를 網羅하여 紙面을 他紙보다 精彩있게 꾸미지 않으면 昔日의 東亞日報에 돌아가지 힘들지 않을까?

東亞日報 停刊史

今爲까지 東亞日報은 네번째나 停刊을 當했다. 이제 事件別로 보면 이러하다.

1. 第1次는 社說 '三種의 神器' 事件으로

大正 9年 9月부터 大正 10年 2月까지 約 6個月間
(當時 總督 齊藤實, 警務局長 丸山, 鶴光 圖書課長)
(當時 社長 朴泳孝, 編輯局長 張德秀)

2. 第二次는 '露西亞서 온 祝辭' 掲載事件으로
昭和 2年 3月부터 4月까지 四十日間
(當時 總督 齊藤實, 警務局長 三矢, 田中 圖書課長)
(當時 社長兼 主筆 宋鎮禹)
3. 第3次는 '10週年 記念祝辭' 掲載事件으로
昭和 6年 4月부터 9月까지 約 6個月間
(當時 總督 宇垣, 警務局長 淺利, 立田 圖書課長)
(當時 社長 宋鎮禹, 編輯局長 李光洙)
4. 第4次는 孫基禎胸間 國旗 抹消事件
昭和11年 8月 27日부터
(當時 總督 南, 警務局長 田中, 柳生 圖書課長)
(當時 社長 宋鎮禹, 主筆 金俊淵, 編輯局長 薛義植)

東亞日報의 解禁은?

8월 27일 停刊 以來 벌써 한달이 經過했다. 3百의 社員과 千餘의 그 家族生計를 앞에 둔 東亞日報의 焦燥는 하루바빠 解禁되기를 苦待하고 있다. 그런데 消息通의 觀測에 依하면 一은 長期化되리란 悲觀說인데 그것은 時局이 예전과 달라 國家非常時의 此際에 이와같은 非國民的 態度를 보였으며 더구나 過去에 皇室記事에 對한 態度와 總督政治에 對한 積極的 協助가 없었던 點으로 當局의 미움이 屢屢하였으니만치 이번에는 여간 謹慎치 않고는 解禁되지 않을 것이란 說이 있고 또는 解禁이 된다 할지라도 嚴重한 內諾條件이 붙을 터이며 極端으로 觀測하는 이는 上海事變 같은 것이 東亞政局 어느 곳에서든지 다시 터지는 날이면 아주 멀어져서 數個月로는 可望이 없으리라 하고 한다.

二는 短期에 解禁되리란 說이 있는데 그 根據는 이번 事件은 社의 上層部는 全然 몰랐고 그 아래 寫眞班員等 數人이 共謀하고 한 事件인 바 이 때문에 큰 機關을 長期的 制裁를 줌은 苛酷하다 함이오, 또 南 新總督은 恩威並行的 政治를 할 터이므로 停刊으로써 이미 十分 懲治를 하였은즉 新總督의 溫情이 不久하여 베풀어질듯 하며 警務局長 또한 新任即前의 事라 三橋 新局長의 方針이 아무쪼록 勢力있는 言論機關으로 하여금 하루속히 反省하여 時世에 背反함이 없도록 引導함에 있을 것이므로 充分히 戒飭을 加한 뒤 速히 解禁이 되리라고 함이다. 아지못할게라, 모든 것은 南 總督, 大野總監, 三橋局長, 柳生課長의 胸中에 있음인저....

一般輿論은 어떠한가.

東亞日報의 今般 態度를 가장 痛罵한 것은 京城日報가 社說로 或은 記事로 連日 攻撃함이었고 東京서 發行하는 '新聞之新聞' '新聞之日本'도 모두 筆銖를 加하였으며 그밖에 甲子俱樂部, 國民協會, 大東民友會 등에서 或은 團體로 或은 個人으로 攻撃하는 文書及 言說이 있었다. 그런데 一輿論을 살피건대 國旗抹消한 行爲는 더 論議할 餘地없이 非國民的 行事라 한다. 이 一事에 對하여는 如何한 制裁를 加하여도 猶不足하다. 東亞日報, 中央日報 모두 이 一事에 對하여는 無言으로 모든 制裁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果然 社의 態度였을까? 警察에서의 檢舉範圍로 보아 이것은 數個 社員의 失行인 것이 判明되었다. 같은 孫選手가 寫眞을 紙面에 내기 시작한지 7, 8次, 늘 日章旗가 胸間에 붙은 寫眞을 내던 同社가 先何心 後何心으로 단 한번을 國旗抹消를 하자고 했으리오. 그러므로 이번

失行은 社의 全體 意思가 아니오, 오직 한두社員의 失行일 것이 分明하며 또는 東亞日報와 같이 有力한 民間紙가 아직도 排日色彩를 띠고 있다 함은 總督政治에도 影響있는 일인즉 今番은 今後의 態度를 十分 戒飭한 뒤 速히 解禁하여 줌이 좋겠다고 一般은 希望하고 있다.

<三千里 (1936년 10월호)>

제6장 일제의 최후발악

1. 중일전쟁

동아일보가 일장기 표지 말소사건으로 제4차 무기정간 처분을 받고 9개월만에 속간을 하게 된 다음 달인 7월 7일, 일제는 중일전쟁을 도발할 구실로 이른바 노구교(蘆溝橋) 사건을 조작하여 중국과 전면전쟁에 들어갔다.

1931년 이른바 유조구(柳條溝) 사건을 조작하여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국(滿洲國)을 만들어 낸 일제는 다음 단계로 중국을 굴복시킬 흥계를 꾸며낸 것이다. 북경(北京) 서부 십여킬로 지점에 위치한 노구교에서 훈련 중이던 일본군은 중국군의 사격을 받았다고 억지를 쓰면서 전면전쟁을 일으켰다. 엄격한 불응전(不應戰)지시에 따라 비무장인 중국군은 계획적인 일본군의 기습공격을 받고 무참히 패퇴했다.

이보다 앞서 1935년 9월 일제는 대화 기본요강(對華基本要綱)을 결정하였는데 그 골자는 만주를 확보하기 위해서 화북(華北)을 중국에서 분리하여 일제의 세력권에 넣는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이해 11월 일제는 하북성(河北省) 동부 일대에 기동 자치정부(冀東自治政府)라는 괴뢰정권을 만들고 1936년에는 하북, 차하르, 수원(綏遠), 산서(山西), 산둥(山東) 등 5성을 총동하여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이탈하게 함으로써 화북에 제2의 만주국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우선 차하르성(省)에 내몽고인(內蒙古人)의 차하르 자치정부를 세웠다.

일제의 이와같은 화북 침략은 중국인의 항일 구국운동에 자극을 주었다. 더욱이 1936년 12월 중공군을 토벌중이던 장학량(張學良)이 독전차 서안(西安)에 온 장개석(蔣介石)을 일시 감금하여 내란의 중지와 국공공동(國共共同)의 항일을 요구한 서안사건을 계기로 제2차 국공합작(國共合作)이 성립된 것이다.

개전초 일제는 강력한 일격을 가하면 중국은 굴복하여 일제의 무슨 요구도 순순히 받아들일 것으로 보았으나 지리멸렬했던 중국의 항일전선은 오히려 철저한 항전으로 맞섬으로써 일제는 장기소모전(長期消耗戰)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고하는 일본의 패망과 한민족의 해방이 가까워 오는 것을 내다보고 있었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직후의 일이다. 고하는 동지들과 회식 중 자기의 관찰이 정확함을 다시 다짐했다.

“미구에 다시 한번 세계대전은 나고야 말어. 이 사건이 영미와 충돌할 시발점이 될 것 같애. 이 제야말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왔어”

그리고는 큰잔에 넘치는 술을 단숨에 마시고 나서 자작 한시(自作漢詩)를 읊었다.

詩欲驚人恒固癖

酒雖病我更多情

시는 사람을 놀라게 하려고 항상 고집하는 버릇이 있으나,

술은 비록 나를 병들게 하여도 다시 다정하구나.

고하는 울분을 시(詩)에만 의탁하지 않고 간혹 옆에 앉은 친구를 부둥켜안고 그 살을 물어뜯는 때도 있었다. 물어 뜯기운 친구는 뒷날 그 날을 회상하고 ‘함정미토(含情未吐)’의 경지라고 하였지만, 그때의 심경이야말로 고하가 태어나서부터 쌓이고 쌓인 한(恨)--빠져리게 겪은 망국민(亡國民)의 설움과 치욕, 울분과 원한 등을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순간이었다.

얼마 후 동지들은 고하를 가리켜 육미탕(六味湯)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루는 인촌이 위당을 보고,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고하에게나 가 봅시다. 무슨 ‘육미탕’같은 시원한 소식이라도 있는 지.....”

하고 말했다는 것이 고하의 별명의 내력이다. 일제의 중압에 허덕이는 여러 애국자들이 고하를 찾아가면, 고하는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희망에 넘치는 말을 해 주기 때문이었다. 한 마디로 고하의 말은 한약 '육미탕'과 같이 약효가 있다는 것이었다.

고하는 실로 선각자요, 예언자였다. 일찍이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때다. 일본군이 장작림군(張作霖軍)의 주둔지 북대영(北大營)을 불법 포격했다는 뉴스가 즉시로 국내에 들어왔다.

“인제 일본은 망했다”

하고, 고하는 외신을 손에 든 채 단정적으로 일본 패망을 예언했다.

전쟁은 확대 일로를 걸어서 그들의 야망을 충족케 하는 듯 했다. 그리하여 다음해 1932년 괴뢰정권 만주제국(滿洲帝國)을 세웠다. 침략 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만주에 거주하는 30만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중국 군벌의 악정을 배제하고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이룩한다는 미명(美名) 아래, 만주의 일대 보고(寶庫)를 쉽사리 손아귀에 집어넣고, 다음 침략의 발판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화북(華北) 화중(華中)에 전선을 확대한 일제는 수도 남경을 공략하여 1937년 12월 이를 함락했다. 남경에 입성한 일본군은 30만에 달하는 중국인을 무차별 학살함으로써 국민정부를 굴복시키려 했으나 오히려 적개심을 자극하여 항전의식을 굳힌 것이다.

중국의 항전태세에 초조해진 일제는 1938년 1월 15일 '앞으로 국민정부와는 상대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고노에'(近衛)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점령지역에 괴뢰정권을 세우겠다는 암시였는바, 실제로 그들은 1937년 12월에 북경의 임시정부, 1938년 3월에는 남경의 유신정부(維新政府)를 성립시키고 말았다.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정부가 전 중국인의 절대적 지원을 받고 있는 때에 이것은 일제의 중대한 실책이었으니 전국이 궁지에 있을 때 종전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한 것이다.

경술 합방 이래 일시동인(一視同仁) 정책은 신임총독 미나미(南次郎)가 부임하여서는 내선일체(內鮮一體)로 변하고 선만일여(鮮滿一如)와 오족협화(五族協和)로 변질되었다. 실질적으로는 생활등급을 일계(日系), 선계(鮮系), 만계(滿系)로 차등을 두고, 생활 양식까지 커다란 차별을 강요하면서, 일인과 한인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만주 사람을 포섭함으로써 낙토(樂土)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혹된 일부 사이비 지도계급 인사들은 '선만일여'와 '오족협화'에 박수를 보내면서 만주제국의 허울 좋은 요직을 얻기에 급급했다. 그 반면 조선에서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감시(監視)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언론 기관을 비롯한 단체의 결사, 대중의 집회 등에 대한 탄압은 말할 수도 없고, 3.1운동 이후 팽창해 가던 민족진영에 대하여 혹은 분열을 조장하고 혹은 견제하는 방책으로 한 때 방임해 두었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지도 인물에 이르기까지 '요시찰'(要視察)이란 명목 아래 그 감시가 극심해졌다. 더욱이 국내에 있어 민족진영의 총집결체인 동아일보와 그 사장 고하에 대한 감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도였다.

이에 만주로 가서 허울좋은 벼슬을 얻고 일제의 주구(走狗)가 되느냐, 국내에서 지하로 들어가 소극적인 항일이나마 계속하면서 지조를 지키느냐의 판가름의 길목에 서게 되었다. 이 무렵, 고하는 과거에 동지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나 후배로서 만주로 가려는 인사들에게 타일렀다.

“옆 집 화재 난 데 가서 튀밥을 주워서 안되오”

그는 만주행을 진심으로 만류했다. 자기가 직접 말하기 힘든 상대편에는 상대편과 친근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몇번이고 만류했다. 직장이 없어 허덕이는 이 나라 백성들이 호구(糊口)를 위해서 가는 것은 어찌 할 도리가 없다고 하지마는, 국내에서도 업을 가질 수 있고, 장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경고하고 만류했다.

고하는 한 사람의 동지라도 자기 곁에 새로이 집결되는 것을 갈망했고, 한 사람의 동지라도 이탈되어 감을 슬퍼했다. 고하는 이들의 만주행을 막기 위해서 자주 동지들과 회식의 기회를 만들었다. 우국장년들은 한 자리에 모여 술을 마시며 한시(漢詩)도 짓고, 시국을 개탄하기도 했다. 한

편 서로 서슴지 않고 세계 정세의 진전에 대한 정보 교환과 장래 전망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이러한 자리에서도 고하는 일본이 멀지않아서 패망한다는 그의 신념과 관찰을 주장하지 않는 때가 거의 없었다.

이 모임에는, 고하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던 동지 인촌(仁村)을 비롯하여 가인(街人), 근촌(芹村), 위당(爲堂), 유억겸(兪億兼), 김동원(金東元), 안동원(安東源) 등이 자주 참석했다. 그리고 가끔 지방에 흩어져 숨어서 사는 교육계 종교계 등 각계 동지들이 상경하였을 때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합했다.

중일전쟁은 확대 일로를 달렸다. 남경(南京)을 함락당한 중국 국민당정부(國民黨政府)는 중경(重慶)으로 천도(遷都)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일본 군벌의 전쟁은 장기전(長期戰)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그러자 세계의 여론은 일본 제국주의 비판의 여론으로 변저 일본의 국제적 지위는 약화 일로를 걷기 시작했다.

일제는 전시를 핑계하여 더욱 압제를 강화하였다. 일본군을 아군(我軍) 혹은 황군(皇軍)이라고 부를 것을 강요하고 1938년 2월에는 '조선 육군 지원병 제도'를 실시하여 한민족의 청년들로 하여금 중국 대륙의 침략전에 출병하도록 강제했다. 3월에는 소위 '내선일체'라는 미명 아래 일본인 중등학교와 한인 중등학교를 동일한 제도로 개편하면서 조선어 과목을 폐지하고 일어상용(日語常用)을 강요했다. 특히 조선어 과목 즉 한국어 사용 금지를 한민족의 문화말살(文化抹殺)을 대전제로 한 것이었다. 또한 3개조로 된 '황국신민의 서사(誓詞)'라는 것을 성인용과 어린이용의 두가지로 만들어서 각급학교의 조회나 모든 집회에서 제창하도록 강요하였으니 이것은 곧 민족말살의 전주곡이었다. 실지로 이해 2월에는 동아일보 제호의 배경으로 되어 있는 무궁화 도안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무궁화 도안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고하의 온 신경은 곤두섰다. 고하는 무슨 대책이 없을까? 여러가지로 궁리해 봤으나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미 이때는 총독부 기관지는 물론, 기타 민간신문까지도 일본의 침략 정책의 앞잡이가 되는 기사와 사설로 메워졌다.

이와같은 판국에 고하는 전술을 바꾸어서 '파리를 잡자' '산보를 하자'는 등 어지러운 시국과는 거리가 먼 사설을 실었다.

"그 따위 사설은 차라리 심지 마시오"

하고, 고하를 나무라는 친구도 있었다. 고하는 그럴 때마다 빙그레 웃음을 지을 뿐, 이렇다 한 마디 말대꾸도 아니하였다. 이런 질문을 고하에게 묻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기실 사장은 근촌(芹村)이었으나, 실질적인 경영권은 고하가 쥐고 있었으므로 동아일보의 모든 문제는 고하에게 그 책임과 귀추를 묻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신문은 한 걸음 두 걸음씩 위축되어 왕년과 같은 활발한 논조를 찾을 수는 없게 되었다.

점차 시국은 어지럽게만 변저갔다.

이무렵 1938년 3월에 도산 안창호(島山 安昌浩)가 별세했다. 도산은 그 전해 6월에 국내 흥사단(興士團)이 조직한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 사건'으로 송태산장에서 일경에게 검거되어 상해에서 귀국 후 두번째로 투옥되었다가 12월에 병보석으로 경성제국대학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산은 정성어린 간호의 보람도 없이 하루하루 쇠약해져 빈사 상태에 빠졌다. 병이 더해 갈수록 그의 병실에서는,

"소화(昭和)야 이놈아, 소화야 이놈....."

하고, 일황(日皇)에 대한 분노의 절규만이 흘러 나왔다. 병자의 헛소리와 몸부림에는 일인 의사도 일경도 펄펄 뛰기만 했지 속수무책이었다. 일경은 그 양값음을 병자를 간호하는 측근자들에게 돌려 씌웠다.

도산은 이리하여 마침내 간경화증(肝硬化症)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도산의 장례는 일경의 간

섭으로 측근자 20여명만이 모여 극히 간소하게 치루었다.

이와같은 일제의 비인도적 처사에 대하여 고하는 민족 지도자를 잃은 울분이 겹쳐 누구보다도 서럽게 장통곡(長慟哭)을 했다. 그리고 장례비를 염출하고 손수 비용을 들여 비석 건립을 준비했다. 높이 넉자 가량의 천연석의 단면을 다듬어서 위당의 글씨로 '도산 안창호지묘(島山 安昌浩之墓)'라고 새겨 백평 미만의 망우리 묘지에 세웠다(1973년 11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옮겨 모셨음).

도산이 1932년 5월 중국 상해에서 피검, 국내에 호송되어 4년형을 받고 복역중 1935년 2월 병으로 가출옥(假出獄)되었을 때의 일이다.

출옥 후 고하를 중심으로 동지들의 주선으로 도산은 옥고와 지병 치료를 위하여 잠시 병원에 입원했다. 도산은 가끔 병원에서 원서동(苑西洞)의 고하를 찾았다.

하루는 도산이 원서동에서 젊은 동아일보 기자들과 함께 마침 외출한 고하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산이 고하의 이야기 끝에,

“고하가 제법이야.....”

하고, 무심결에 한 것이 젊은이들의 비위를 건들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산과 젊은이들 사이에 설왕설래 오고 가는 말이 좋지 못했다. 이 말이 고하에게 전해졌다. 고하는 윗어른을 모실줄 모른다고 노발대발하여 젊은이를 나무랐다. 그 후 고하는 젊은 사원의 언동에 가책을 받아 도산을 모시는 데 더욱 다심해졌다.

고하는 도산의 건강을 염려한 나머지 간호원에게 특별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가 하면 가끔 위로연을 베풀거나 도산을 강으로 바다로 또한 산으로 안내하여 정양에 힘쓰게 했다.

고하는 도산 뿐만 아니라 몽양 여운형(夢陽 呂運亨)도 후원한 일이 있다. 몽양의 가출옥을 주선 하는가 하면, 1933년에 몽양을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 사장으로 취임하도록 뒷바라지를 서슴지 않고 맡아 나섰던 것이다.

이무렵 고하의 근황을 취재한 당시의 글을 여기에 소개한다.

宋鎮禹氏는 무엇하고 계신가.

東亞日報社에 15年 가까이 계시던 先生이 新聞社를 그만두신지 이제 햇수로 2年, 그리 짧은 時日이 아니다. 그 짧지않은 동안 先生의 消息은 너무도 寂寞한 感이 있다.

'朝鮮型의 紳士風'을 갖춘 先生이라 田園으로 돌다가 閑暇하게 계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杜門不出, 讀書三昧境에 드셨는가? 또한 그렇지도 않을진대 전부터 몸에 있는 病患때문인인가? 오라 오라! 昨年 가을 東京, 大阪으로 旅行하셨다지, 아마 틈있는대로 이곳 저곳 山水따라 돌아다니시지나 않을까?

이런 생각에 갈피를 잡지못하는 채로 記者는 大寒의 고개를 갓 넘은 지난 스무 사흘날 이른 새벽 市內 苑西町 先生自宅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간밤에 내린 눈이 長安을 곱게 덮었고 昌慶苑內의 마른 나무에 白花가 滿發한 아침 아홉시 半이었다.

이 宅 下人을 불러 물으니 先生은 舍廊방에 손님과 같이 계시다 한다. 첫새벽 추위를 참아가며 찾은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적이 마음이 놓였다. 조그만 대나무 문을 열고 돌층계로 올라섰다. 높다란 돌층계 위에 우뚝이 서 있는 한채 집, 이집은 마치 어느 寺刹의 '堂宇' 같은 感을 느끼게 한다.

방안에 들어서니 웬 젊은 靑年 두분이 先生과 자리를 같이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다.

“...李君은 이제 大學을 갓 나왔을 뿐이므로 社會에 對해서는 아직 아무런 經驗도 없습니다마는 先生께서 꼭 힘써주셔야 합지요...”

“글쎄 新聞社에서도 모든 것을 緊縮하는 때이니까 어디 쉬워야지. 더구나 나는 신문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내 힘있는대로는 힘 써 보겠지마는...”

簡單한 對話만 들어보아도 한분은 어느 中學校 校諭로서 先生을 전부터 親히 아는 사이요, 또 한분은 지금 新聞社(東亞日報社)에 職을 求하는 青年임을 알 수 있다.

東亞日報와는 지금 어떤 關係이신가? 내 舉動이 그리 速히 물러갈 것 같지 않은 것을 알았던지 두 青年은 자리에서 일어서 나간다. 室內에는 先生과 記者 단 두 사람뿐이다.

“新聞社를 나오신 뒤, 先生이 旣 方面에 關係하시고 있는 일은 없으십니까?”

“아무데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집에 꼭 박혀있는 것이 일이지요.”

“세상에서는 先生의 그뒤 消息을 궁금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아는데 언제까지나 先生은 沈黙만 지키시렵니까?”

“허허.... 沈黙을 안지키면 무얼 합니까? 나이도 먹을대로 먹어서 이제는 아무런 일도 다 틀렸지요, 이 社會에 늙은 사람이 어디 所用이 있습니까?”

“先生이 新聞社를 그만 두실 때만 해도 健康이 좋지 못하다던가, 精力이 弱하다던가 하는 그런 點은 別般 느끼지 않으셨겠지요?”

“왜요, 그렇지도 않지요. 내가 新聞社에 15年 가까이 있었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奇蹟이 었지요. 꿈같이 지나온 셈이지요.... 그러나 이제 생각해보니 또다시 그런 奔走한 일을 감당해 나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先生이 萬一 新聞社로 다시 들어가실 環境에 이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新聞社로는 아주... 말도 마십시오”(무슨 굳은 決心이 있으신지 두세번 손을 내저으신다)

“先生님께서 지금은 新聞社와 어떤 關係가 있습니까?”

“아무런 關係도 없습니다. 다만 十餘年 넘어 新聞社에 있었던 關係로 社의 일에 대해서 간혹 물어오면 參考될만한 點을 알려줄 뿐이지, 그밖에는 全然 相關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亦是 間接으로는 많은 關心을 가지시고 늘 도우시는 보람입니까?”

“뭐 間接 云云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있던 데니까 情으로 보더라도 묻는 말쯤은 應答해야지요.”

“新聞社에는 자주 出入하십니까?”

“자주 간다고 할 수야 없겠지요, 요새는 늘 閑暇하니까 間或 들러보곤 합니다”

“新聞社 말씀은 그만하고 先生께서 요즘 지내시는 生活狀態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나날이 무얼로 消日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最近에는 病으로 困해서 藥도 먹었고, 틈있는대로 新聞, 雜誌나 뒤적이고 또 아침에는 일찍 散策하는 것 뿐이지요.”

“讀書는 어느 方面의 것을 주로 하십니까. 勿論 時期가 時期인만치 政治方面이나 時局에 關한 書籍을 많이 보시겠습니까?”

“아니오. 인제 政治方面의 책은 全然 읽지 않습니다. 첫째 읽을 精力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方面에는 아주 無關心 一貫主義로 나갈 作定입니다. 몸도 健康한 편이 못 되고 머리도 疲勞하고 해서 讀書를 그리 精力的으로 못하고 틈 나는대로 朝鮮 古代文獻類, 例를 들면 ‘東國寶鑑’같은 書籍을 比較的 많이 읽게 됩니다. 그밖에도 이것 저것 그때 그때에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어느 것이고 가리지 않고 읽습니다”(마침 先生의 책상을 살펴보니, 古代書類가 가득히 쌓여있고 또 當山房版인 百科大辭典 30餘冊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이것을 보아도 先生의 讀書하시는 部類를 짐작할 수가 있다)

“讀書는 하루에 몇 時間쯤 하시며 어느 때쯤에 하십니까?”

“꼭 몇 時間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틈있는대로 두 時間이고 세 時間이고 繼續하게도 되고 몇 十分하다가 마는 때도 있습니다. 또 대개는 조용한 밤 자리에 누워서 읽는 것이 제일 편하더군요”

“圖書館에는 종종 다니시지요?”

“별로 가지 않습니다. 한달에 겨우 두세번쯤 가는 쪽이지요”

“漢詩는 조용한 때에 한 두首 적어보직도 한데 그동안 읊으신 것이 있으시면 하나 주십시오”

“허허, 내가 무슨 詩人입니까? 十餘歲 前後에 書堂에서 좀 지어보았으나 그 뒤 한번도 없습니다. 나는 藝術과는 아주 因緣이 먼 사람입니다. 내게 多少라도 詩才가 있다면 지금의 心境을 詩로 써 읊을 만도 합니까마는...”

“요즘 先生께서 나다니시는 곳은 주로 어디이십니까?”

“어디라고 꼭 정해 놓고 다니는 곳은 없고 여러 親知들을 찾아다닙니다”

“先生께서는 무슨 일로 昨年에 東京엘 다녀오셨나요?”

“그저 東京, 大阪 等地를 두루 旅行했을 뿐입니다”

“接觸하신 人物들은 어떤 層입니까?”

“내가 新聞社에 十餘年 있었던 關係로 그동안 廣告 거래하던 廣告主들을 만나보는 것이 커다란 일이었으니까요”

“東京에 갔을 때의 感想은?”

“大阪에 약 1週日, 東京에서 약 1週日間 있었는데 그때가 이번 事變의 初期였던 만큼 모두 緊張하여 역시 戰時氣分이더군요. 그밖에는 每年 다녀오는 關係로 해서 別다른 感想이 없습니다...”

“先生께서 이런 閑暇한 生活을 하실 바이면 안온한 田園으로 가시든지, 名山大刹을 찾아 조용한 生活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까지는 아직 없고 서울에 있으면서 여러 곳을 旅行이나 할까 합니다. 十餘年の 新聞社生活에서는 時間의 餘裕가 있었나요. 늘 바빴지요. 그러기에 朝鮮內만 해도 못 가본 곳이 많습니다. 金剛山이나 扶餘같은 데도 아직 못 가보았습니다. 참 慶州는 中央高普時節에 生徒들을 데리고 修學旅行 다녀온 일이 있군요. 그중에도 南原의 廣寒樓는 한번 가볼만한 줄로 압니다. 어쨌든 차츰 따뜻해질 터이니 旅裝을 꾸려가지고 山종고 물 좋은 데나 古跡으로 알려진데를 찾아볼 작정입니다”

“요즘은 어떤 方面의 사람들과 많이 接觸하시며 青年들은 어떤 일로 先生宅을 찾습니까?”

“내가 찾는 이는 대개 中年以上 老年층이지마는 찾아오는 사람은 青年층이 많습니다. 이제도 보셨지마는 대개는 求職青年들입니다. 하루에도 몇 名씩 됩니다. 모두 專門, 大學을 나온 有爲의 青年들인데 職業을 못 얻어 어깨가 축 처져 힘없이 다니는 것을 보면 寒心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眉目이 秀麗하고 矍鑠하고 外貌가 靄靄한데 그렇게 짙짙매고 다니는 것을 보면 내 마음도 무거워 집니다. 實로 朝鮮社會는 寒心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青年들을 모두 받아들일 만한 機關이 必要한데 어디 지금 現狀으로야 可能的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緊要하지않은 것이 없지마는 그중에서도 産業方面이나 企業方面으로 좀 더 활동무대를 넓혀서 有爲한 人材들은 모두 收容하도록 하는 것이 刻下의 急務가 아닌가 합니다. 나도 그런 青年들이 가득히 쌓여있는 것을 볼 때 적지않은 責任感을 느낍니다마는 내게야 어디 힘이 있어야지요. 참으로 딱합니다”

“金俊淵氏와 자주 接觸하신다는데 그 분은 무슨 事業을 하십니까?”

“그분은 지금 全谷이라는 시골에 가 있습니다. 한 달에 3.4次 올라오는데 어디 자주 만나게 됩니까? 全谷에는 普成專門學校 農場이 있는데 그 農場 總監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金炳魯氏宅엔 자주 가십니까?”

“그분도 職業을 가진 이가 되어서 늘 바쁜 關係로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桂洞 金性洙氏宅엔 자주 가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가봅니다마는 거기도 자주 가는 편은 아닙니다”(先生이 가장 많이 接觸하실 분이 몇 분 있으려만 좀체 確答을 避하신다. 아무리 날카로운 質問을 던져도 끝끝내 失敗다. 입이 무거운 터인지라)

“거리에 나가셨다가 점심은 어디서 잡수십니까?”

“요즘은 점심을 대개 안 먹습니다. 먹는다 해도 집에 들어와서 먹지요”

“요즘 極東風雲이 漸次 사나운데 거기에 대한 感想을 말씀해주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政治나 時事問題는 今後 全然 無關心하합니다. 그런 말씀은 물어주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끝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뭐, 지금 이 狀態대로 지내는 수밖에 없지요. 한 浪人이 된 셈입니다. 구태여 今後의 計劃을 말하라면 오랫동안 못 다닌 곳으로 旅行하려는 것이 될까요? 물론 오랜 앞날의 일은 말할 수 없고...”

긴 時間을 말씀해보아도 별로 新舊한 資料를 얻지 못했다. 記者는 失禮를 謝禮하고 일어섰다. 宋社長의 배웅을 받으며 뜰아래 내려서니 건너편으로 보이는 昌慶苑內의 鳳凰閣이 꿈속에서 바라보는 듯하다.

三千里 (1938년 5월호)

新聞出版界 人物論

愚 愁 散 人

現今 朝鮮의 出版界는 名實 共히 活況을 呈하고있다. 量뿐 아니라 質에 있어서도 30年代 以前에 比하여 훨씬 發展하여 있는 것이 事實이다. 30年代 以前의 出版界는 定期的인 刊行物이 거의 全部였다. 無定期的인 單行本은 1年 1冊이 있는 일도 드물었다. 그러나 聲勢만은 宏壯하였다.

이와 反對로 現代의 出版界는 定期的인 刊行物은 적어지고 無定期的인 單行本의 刊行이 자못 盛況을 이루고 있다. 聲勢는 예전같이 宏壯하지 않으나 그대신 虛僞聲勢의 弊는 없다. 그러나 두 손을 들어서 大歡迎할 氣運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點이 적지않다. 왜그러냐?

現今의 單行本을 刊行하는 人們은 세 部類로 나눌 수 있으니 其一은 自費로 出版하는 사람이요, 其二는 商業으로 出版하는 사람이요, 其三은 純전히 文化向上 그것을 위하는 마음으로 出版하는 사람이다.

즉 其一은 大概가 現實에 絶望해서 已往 文筆을 業으로 삼아왔던 길이니 이 機會에 紀念으로 무엇이든지 남겨두지 않으면 永永 遺業없이 終生할지도 모른다는 自抛 半 過去事에 對한 愛着 半의 心情에서 억지로 單行本 한권이나마 刊行하는 者이며

其二는 如上의 文化人의 心理를 利用하여 文化程度가 多少 높아진 大衆에게 冊을 팔아먹으려는 思想 爲主로 單行本을 發行하는 者이며

其三은 보다 더 意義있는 일은 하기가 極難하니 不足하나마 許與된 條件을 最大限 最善으로 利用하여 文化의 遲遲한 進歩를 庇護하는 同時에 過去가 남겨놓은 것이나 잘 整理해서 새로운 제네레이션에 遺産하자는 心算으로 利潤不計하고 單行本을 刊行하는 者이다.(中略)

먼저 新聞界를 보면 불행히도 朝鮮中央日報가 財難으로 破産한 뒤에 朝鮮人側 民間新聞은 東亞日報와 朝鮮日報 그리고 最近의 半民間化한 每日新報가 있을 뿐이다.

東亞日報는 數次의 秋霜에도 不拘하고 어찌어찌 延命은 해왔으나 昔日의 面貌는 그 影子도 볼 수 없게 變하여졌다. 朝鮮日報 亦是 그렇기는 하나 東亞日報가 더 甚하게 蒼白해진 것 같다. 時勢關係도 있겠지만 人的 素材에도 多大한 原因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다른 人們은 社長 白寬洙氏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나 내게는 宋鎭禹氏에 比肩할만한 人物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新聞에 依하면 宋鎭禹氏가 지금도 後援을 하는 모양인데 借力하고서도 그만한 힘밖에 發揮못하니 큰 人物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編輯局長以下 各部의 首級人物도 其人을 얻었다고 하기는 딱 어려우니 每日의 東亞紙를 펴서 읽어보면 그속에 역력히 顯現하고 있는 事實이 證明한다.

朝鮮日報는 社長 方應謨氏가 元來 俄成的 人物이라 奇妙한 風說도 더러 있는 모양이나 氏의 뜻이든지 아니든지 間에 現在에 있어서는 人的 素材를 東亞보다는 高르게 가진 편이다.

두 新聞社의 하루 바빠 고쳐야 할 惡習은 地方的 派閥이다. 現象으로 보아서는 白氏나 方氏가 그것을 是正할만한 人格을 가졌으리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어쨌든 고치지 않아서는 안될 絶對 必要事이다.

每日新報는 社長과 副社長을 둘 다 異樣한 意外의 人物을 갖고 있다. 崔麟氏와 李相協氏의 過去事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東亞와 朝鮮보다는 其人을 얻은 것만은 事實이다. 그리고 各部의 首級人物도 相當히 選配되어 있다. 人的 物的으로 東亞와 朝鮮보다 훨씬 優位에 있음은 누구든지 否認치 못할 것이다. (中略)

朝鮮日報社 出版部 發行的 '朝光', '女性', '少年'의 세 雜誌도 없는 것보다는 좋은 冊이다. 方應謨氏도 아주 생각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三千里'誌의 金東煥氏는 꽤 끈덕진 사람이다. 어수선하게 벌려놓기 좋아하는 것이 좀 病이기는 하나.

'東洋之光'은 國語雜誌이다. 社長 朴熙道氏와 編輯擔當者 金龍濟氏와 客員 印貞植氏는 內鮮一體와 新東亞主義를 위하여 不休 活動하는 모양인데 基盤이 튼튼히 되기 前에는 무어라고 批評할 수가 없다. (中略)

人文社에서는 새 雜誌를 發刊하고 徐椿氏는 무슨 出版社를 計劃한다니 朝鮮의 出版文化의 앞날은 아직도 多幸한 때문에 이러한 現象이 接踵 興起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작히나 좋으랴만 -- 悲觀이 無用이라면 樂觀은 尙무일 것이다. <新世紀(1939년 9월호)>

2. 동아일보의 강제폐간

확대된 중국 침략 전쟁은 일본군이 선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점(點)과 선(線)을 확보하기에 딴 생각이 없었다. 그것은 곧 각 중요 도시와 그것들을 연결하는 철도를 의미했다. 그 후 점령 지구의 중국 국민은 일군이 범한 가지가지의 포악한 만행에 반항하여 각지에서 끊임없이 게릴라가 되어 출몰했다. 결코 중국 국민은 일군에 순종치 않았으므로 전쟁에서 필요한 물적(物的) 인적(人的) 자원의 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이른바 북지사변(北支事變)에서 지나사변(支那事變)으로 확대됨으로써 장기전으로 변한 중일전쟁은 일제를 진퇴유곡(進退幽谷)에 빠뜨렸다. 개전초(開戰初) 일본 육군대신 스키야마(杉山元)는 천황에게 2개월이면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었다. 그러나 남경을 빼앗긴 중국정부는 무한(武漢), 삼진(三鎭)에 방위선을 치고 있다가 무한을 1938년 10월에 잃은 뒤에도 이미 그 전해에 옮겨간 임시수도 중경을 본거로 하여 맹렬하게 저항했다. 속전속결(速戰速決)의 단기전(短期戰)이 주무기(主武器)였던 일본군의 진격작전은 무한공략에서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일본 수상 고노에(近衛文磨)는 내각을 개편하고 앞서 상대하지 않겠다던 국민정부를 다시 상대로 하는 평화안을 모색했으나 먹혀들지 않았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일제는 물자뿐만이 아니라 인적 자원까지도 조선에 요구했다. 1938년 2월 22일에 육군특별지원병령이 공포되고 6월부터는 조선인 장정들을 그들의 침략전선으로 끌어들이었다.

이와 병행해서 총독부는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미명아래 4월 1일 새로운 교육령을 실시하여 보통학교를 소학교(小學校)로,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로 고쳐 부르게 함과 동시에 조선어(朝鮮語) 교육을 완전 폐지하고 말았다.

또한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일본 본토는 4월 1일에, 조선과 대만, 가라후또(樺太) 등지에는 5월 10일에 공포된 것이다. 이로부터 세상은 경제통제하에 들어갔고, 7월 7일에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을 결정하여 모든 분야의 통제를 강화

하였다.

한편 1935년에 재무장을 선언한 히틀러의 독일은 1938년 3월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39년 5월에는 체코슬로바키아도 집어 삼켰다. 침략에 광분하는 히틀러는 1939년 8월, 일본의 가상 적국인 소련과 불가침조약을 맺고 9월말에는 소련과 공모하여 폴란드를 침공하였다. 영.불 양국이 곧 폴란드의 편을 들어 독일에 선전을 포고함으로써 이른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이다.

총독부는 1939년 9월 27일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을 공포하여 조선인의 노동력을 그들의 전력 증강에 몰아넣는 길을 마련하였다. 또한 여러모로 민족말살정책을 밀고 나온 끝에 마침내는 창씨개명이라는 민족적 모욕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잡지 <일본 및 일본인(日本及日本人)> 1924년 9월호에서 나가야마(中山啓)라는 자의 글이다. 그는 '조선의 독립과 자치는 불가하다. 조선인의 성명을 전부 명령에 의하여 일본식으로 변경하고 동시에 조선어는 여하히 해서라도 완전 폐지하여야 한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하여는 기발한 정책을 안출하여 이를 채용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15년 후인 1939년에 이르러 이 동서고금에 볼 수 없는 기발한 창안을 국책으로 강요하게 한 자는 총독부 학무국장 시오바라(鹽原時三郎)이었다. '황국시민의 서사'도 이자의 고안이었다.

1940년 2월 11일, 그들의 이른바 기원절(紀元節)을 기해서 모든 조선인은 이제까지의 성(姓)을 버리고 일본식 성명으로 고치라는 것이었다. 말로는 강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경찰이나 각급 관리는 물론 학교 선생까지 동원하여 협박했다. 창씨를 하지 않으면 비국민으로 낙인찍혀서 출세나 취직은 고사하고 장사도 못하게 들볶았다. 그들은 '창씨를 하지 않으면 어떤 손해를 가져오는가' 하는 보복 조항까지 명시했다. <1> 자녀의 각급학교의 입학 거부 <2> 공사(公私)기관에 채용하지 않고 현직자도 점차 해임 <3>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거부 <4> 비국민 또는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보고 사찰대상에 올리고 일차적인 징용대상이 되며 각종 배급대상에서 제외 <5> 철도국에서 화물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등등이었다.

이와같이 하여 강행한 결과 4개월 미만에 조선 전호수의 87%에 이르는 326,105호가 창씨개명을 했고 2년이 지난 42년초까지는 사실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이다.

일제의 이와같은 민족말살 정책에 대하여 고하는 격분을 금치 못했다. 필시 이들이 더 한층 단말마의 악행을 저지를 것을 걱정했다. 그러나 처서 뒤에 기승을 부리는 늑더위와도 같이 일제의 패망이 멀지 아니했음을 내심 예감하고 회심의 미소를 금치 못했다. 고하의 민족고수(民族固守) 정신은 더욱 강렬했다. 성명 석자를 지킴에 미동도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직접 간접으로 창씨를 종용했고 나중에는 애걸조로 권유하기도 했다. 중첩되는 일제의 간악상에 고하는 경멸을 금치 못했다.

고하를 찾아온 친지들의 걱정은 태산같았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은 창씨를 아니했다는 이유를 들어 겁을 주고 혹은 꾸중하고 북아친다고 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울고불고 졸라대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하소연했다. 이야말로 민족적 비극이었다. 이럴 때마다 고하는 일제의 패망이 멀지않으니 동요하지 말 것과 어린이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키라고 일러주었다. 민족금지(民族矜持)를 심어주고, 일제필망(日帝必亡), 독립필지(獨立必至)의 굳은 신념을 갖게 하여 참고 견디어나갈 수 있는 정신력을 길러주라고 했다. 그들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강제 퇴학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일단 마감날이 지나면 기정사실로 될 것이니 얼마동안만 참고 견디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기 어려운 인사들은 창씨를 했지만 그래도 참을 만한 인사들은 끝까지 반대하여 성명 석자를 고수했다. 개중에는 일제에 협력하면서도 창씨만은 하지않은 인사도 있었으니 이는 고하의 민족고수 정신에서 본받은 바 적지 아니했다.

고하 외에도 인촌을 비롯하여 기당 현상윤, 설산 장덕수, 근촌 백관수, 낭산 김준연, 수당 김연

수 등 지도급 인사들은 직접 간접의 압박과 회유에도 끝까지 불응했다. 또 동아일보 사원 및 중앙학교 또는 보성전문학교의 교수들도 거의가 창씨 개명을 아니했다. 이는 고하나 인촌의 굳은 민족정신에서 연유된 바로서 보성전문은 경우 교수 30명중 단 5명만이 창씨개명을 했을 뿐이다. 이것은 연희전문은 교수들이 5명만 남고 모두 창씨 개명한 것과 좋은 대조라고 하겠다.

1939년으로 접어들면서 미국, 영국 등은 중국에 대하여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강화했다. 일제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지자 일본을 중심한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낙토(樂土)를 아시아에서 건립한다는 허울좋은 선전을 표면에 내세웠다.

이에 일본 군벌은 반(反)미.영(美英) 정책을 강행하여 일본국 내에 있는 자유주의자와 반전 주의자(反戰主義者)들을 견제하는 한편, 한민족의 민족문화기관을 송두리째 말살하려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협조를 강요하여 지도층의 인물을 전쟁 수행에 동원하는 유혹의 손을 뻗었다. 지조가 굳지 못한 사람은 이에 굴하여 응하는 척하기도 하고, 실지로 응한 사람, 또는 자진 협력하는 사람의 가지가지 추태가 나타났다.

고하에게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달콤한 유혹과 굴욕적인 협상이 끊임없이 위협해 왔다. 그럴수록 고하는 초연한 자세로 받아넘겼다. 가끔 중추원참의(中樞院參議)로 있는 일본 유학 이래의 친구가 고하를 찾아서 시국에 협조할 것을 요청해 올 때마다, 도리어 고하 편에서 그 친구의 번의(翻意)를 촉구했다.

“일본은 앞으로 얼마 가지 못하오. 동시에 조선은 독립할 수 있을 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곧 참의 자리를 그만 두지.....”

하고, 간곡히 권유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점차 전쟁이 치열해지자, 일제는 사회주의자나 민족주의자로 한두번씩 형을 받은 소위 불령선인(不逞鮮人)을 일괄적으로 감시 파악할 수 있는 시국대응 사상보국연맹(時局對應 思想報國聯盟=나중의 大和塾) 같은 것을 조직하여, 이곳에 흡수된 인사를 앞잡이로 전쟁수행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와같이 일제는 점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일제는 이 땅에서 민족적 색채가 짙은 기관의 폐쇄와 그 지도적 인물의 거세로써 전쟁 서곡을 장식했다. 이 첫 대상은 말썽 많은 동아일보였다.

1939년 12월 중순이었다. 총독부는 처음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대해서 비공식으로 자진 폐간을 권고해 왔다. 다음 해인 40년 2월 11일까지 폐간하자고 시한까지 붙여 있었다. 2월 11일은 그들의 건국기념일인 기원절이다. 1940년은 동아일보가 창간된지 20주년이 되는 해였다.

동아일보사는 이 폐간 종용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2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하려고 준비를 추진하였다.

폐간할 기색은 보이지 않고 창간기념 행사를 크게 준비하는 동아일보의 움직임을 본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바시(三橋孝一郎)는 1월 15일 사장 백관수와 고문직에 있는 고하 및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를 자기 관저로 불러놓고 자진해서 폐간할 것을 거듭 강권했다. 그는 ‘현정세로 보아 언론 통제는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용지(用紙)사정도 어려워지고 후방의 전시보국체제(戰時報國體制)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 언론기관을 하나로 묶을 방침을 세웠다’고 말하고 이에 응하면 전사원의 일년분 봉급을 총독부에서 지급하고 운전기등 인쇄시설 일체도 매상해 주겠다고 하였다.

고하는 즉석에서 자진 폐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강제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고 돌아오는 길에 양사 수뇌는 서로 약속하여 반대투쟁할 것을 다짐하였다.

고하를 설득하려다 실패한 미쓰바시는 인촌을 계동 자택으로 찾아가 같은 권고를 되풀이했다. 인촌은 동아일보사는 주식회사이고, 이사를 그만둔지도 오래된만치 일개 주주(株主)이상의 아무 권한도 없다고 완곡히 거부하였다.

<인촌 김성수 전(傳)>에서는 계동 자택으로 찾아온 미쓰바시와의 문답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시국에 부응하는 데도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폐간이라고 하면 신문으로서는 죽는 것인데 죽은 다음에 무슨 부응입니까. 동아일보가 죽어야 시국에 부응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그런 것이 있다면 이렇게 찾아오겠습니까. 그점은 오해 마시고.....”

“총독부의 명령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부탁이라면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으니 양해하여 주십시오”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동아일보는 몇몇 간부나 기자들의 신문이 아니고 전조선인의 신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운영할 뿐 아침 저녁으로 동아일보를 기다리고 있는 독자가 있는 한, 제 마음대로 폐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김선생은 기어이 성전수행에 협력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군요?”

“이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줄로 압니다. 동아일보가 전정수행에 방해된다면 법에 의해서 폐간시키십시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불가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김선생을 반도의 참다운 지도자로 보고 한몫 두고 있었는데 크게 실망했습니다. 고집이 센 송진우씨와는 달리, 대세를 알고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자신이나 반도의 행복을 위하는 것인지를 충분히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크게 실망했습니다”

“.....”

“오늘은 이만 돌아갑니다마는 동아일보의 폐간은 총독부의 기정방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동아일보를 속발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부득이 하지요”

총독부의 동태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본 인촌은 고하와 상의하여 일본 중앙 정계를 움직일 필요를 느꼈다. 겨울방학으로 귀국중에 있던 장남 상만(相萬)에게 고하의 밀서를 가지고 이튿날인 16일 즉시 동경으로 출발케 하였다. 이 밀서는 조선중앙협회 상무이사 나카지마(中島司)에게 보내는 것이었는데 동협회는 총독부 고위관료를 지낸 사람들의 친목단체였다.

동아일보의 운명이 경각으로 다가오자 고하는 직접 동경으로 건너가 여러 면으로 접촉할 생각으로 극비리에 1월 하순 도일하였다. 일본 귀족원의원(貴族院議員) 우사미(宇佐美勝夫, 前 總督府 警務局長), 마루야마(丸山鶴吉, 總督府 초대 內務局長), 세키야(關屋貞三郎, 前 總督府 學務局長), 호시나가(星永光郎, 電通社長) 등과 일본정계의 유명한 막후인물 도오야마(頭山滿), 척무대신(拓務大臣) 고이소(小磯國昭, 나중에 朝鮮總督), 다나카(田中武雄, 後에 總督府 政務總監), 나카지마(中島司, 朝鮮中央協會 常務理事) 및 잡지 <내관(內觀)>을 주재하는 가야바라(茅原華山) 등을 만나 동아일보가 당면하고 있는 실정을 호소하였다. 이에 일본정계에서는 일대 파문이 있었다. 총독부의 불법 처사를 규탄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마루야마, 호시나가 등은 귀족원에서 정식으로 거론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사태가 이에 미치자 총독부는 그 방침을 일시 후퇴함으로써 그들이 설정한 폐간시한인 2월 11일은 모면할 수 있게 되었다. 고하는 일이 우선 호전된 것을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4월 초순 귀국하였다.

동아일보는 일단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총독부의 폐간방침이 철회된 것은 아니었다. 총독부는 전술을 바꾸어 형사사건을 조작해 가지고 동아일보사 간부들을 대량 검거함으로써 신문사의 운영을 마비시키고 스스로 폐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수법으로 나왔다.

그들이 머리를 짜서 조작한 것이 소위 경리부정사건이라는 것이었다. 6월초의 어느날이다. 일본 경찰간부들이 명월관에서 회식을 하다가 요리상을 덮은 갱지를 보고 그 출처를 물었다. 주인이 동아일보에서 사들인 신문 파지라고 대답하자 구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들은 물실표기

(勿失好機)라고 이것을 문제삼았다. 통제물자로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신문용지를 불법유출하였다는 죄목을 붙여서 우선 용도경리(用度經理)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재중(金載重, 前 大法院長 金炳魯의 장남)을 종로경찰서에 연행하고 이어서 경리장부 일체를 압수하는 동시에 경리부장 김동섭(金東燮)도 구속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파고 들어도 파지는 파지였고, 신문용지를 유출한 것은 한 장도 찾아내지 못했다. 파지로는 사건이 성립되지 않자 수법을 바꾸어 경리부정을 조작하려고 했다. 경리에는 자칫하면 계수의 착오라도 있게 마련인데 경리부장 김동섭은 어떻게나 치밀하고 정확하였던지 부정은 고사하고 단 1전의 계수 착오도 없었다.

경리부정 조작계획 역시 그들이 노린 과녁이 될 수 없자 경찰은 해동은행(海東銀行)에 고하의 명의로 저금되어 있는 기만원 외에 유휴자금 2만원을 보성전문에 대여한 것을 문제삼았다. 그들은 동아일보사 상무 임정엽(林正燁)과 영업국장 국태일(鞠泰一)을 구속하고 경기도 경찰부의 경부 사이가(齊賀七郎)로 하여금 이를 전담케 하였다. 사이가는 '오니'(鬼) 경부라는 별칭을 들을 정도로 악독한 인간으로 많은 지사들이 이자의 손에서 곤욕을 당했다. 이 자는 해방후 서울 원남동에서 무명의 청년에게 피살된 인물이다.

동아일보를 일거에 없애려면 설립자인 인촌을 잡아야 한다고 착안한 사이가는 그를 연행하였다. 보성전문에 대여한 2만원을 트집잡아 배임횡령(背任橫領)이라는 불명예죄로 구속하여 아주 매장해 버릴 심산이었다. 보성전문이 동아일보에서 2만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고 이자도 매월 지급했으므로 아무런 불법도 하자도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사이가는 중역인 인촌이 중역회의의 동의도 얻지 않고 자의로 회사돈을 자기가 경영하는 보성전문에 유출하였으니 배임횡령이라고 몰아세웠다. 신문도중에 인촌이 중역이 아님을 알게 된 사이가는 '시맛다!(아뽀사!)'하고 탄성을 내뿜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장장 12시간에 걸쳐서 구속할 구실을 찾으려던 그들의 시도는 실패하고 인촌은 무사히 귀가하였다.

동아일보를 폐간하려고 광분하는 총독부의 태도를 본 고하는 다시 비밀리에 동경으로 건너갔다. 일본 중앙정계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독재화한 일본 군벌에 대해 지식층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자유주의자(自由主義者)와 친미영파(親美英派) 등은 어떻게 항거하며 어떻게 여론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함이었다. 또한 고하는 이들 지식층과 자유주의자들을 움직여서 신문사 존속운동을 펴 보았으나 가망이 없었다.

고하가 동경에 갔을 때는 대세는 이미 기울어진 뒤였다. 속수무책, 손써볼 길도 없이 한달만에 착잡한 심정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고하가 부산 부두에 상륙하자, 대기하고 있던 일경 형사대에게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종로 경찰서에 예비검속(豫備檢束)으로 즉각 구속되었다. 이날 영업국 차장 김승문(金勝文)도 구속되었다.

경리부정을 조작하려다가 도리어 경리의 정확과 결백만을 밝혀주었을 뿐 그들이 목적인 부정의 여지가 없자 이번에는 전술(戰術)을 바꾸어 비밀결사(秘密結社) 조직으로 몰고 갔다. 5월 초의 일이었다. 고하는 사장 근촌을 위시하여 신문사 간부 몇사람과 명륜동에 있는 백운장(白雲莊)에서 회식한 일이 있고, 회식이 끝난 후 고하는 계동 자택으로 인촌을 찾아가 장시간 이야기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다. 경찰은 몇달이 지난 지금 이것을 트집잡아 단순한 회식이 아니고 비밀결사의 조직을 모의한 것이며, 고하의 명의의 은행 저금은 독립운동 자금이고, 전국 8백여 지사 지국은 이 비밀결사의 하부조직으로, 전국에서 독립자금을 모집해서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로 보냈다고 우겼다. 이미 고등계에서는 회식에 참가했던 두 사람이 먼저 신문을 받고 있었다.

“며칠 전 요릿집에서 이 두사람과 회식을 하고, 그 후 계동 김성수 집에서 비밀결사의 조직을 의논했다는데 어떤 결사인가?”

고하는 그들의 진의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터이다.

“그런 신문에는 일체 응할 수 없소”

“그러면 여기 있는 두사람을 당신 눈앞에서 고문을 하고 실토시키겠소”
고하는 이들의 비인도적인 만행에 대하여 경멸을 금치 못하며 입을 열었다.
“당신들의 진의(眞意)가 무엇이오?”

“.....”

“신문을 그만두게 하려면 방법이 따로 있음직하오”

양심에 가책을 느낀 사이가는 하는 수 없이 실토했다.

“상부(總督府)에서는 무슨 방법으로든 동아일보를 이번에 폐간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이니, 도와 주시오”

하고 애걸까지 하는 것이었다.

이제 동아일보를 구할 길은 없었다. 고하는 두 차례나 동경으로 내왕하였고,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하여 약 반년간은 연명할 수 있었으나 더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다.

종로경찰서 사찰과장실에서는 때아닌 약식 중역회의가 열렸다. 사장 백관수는 자기는 폐간계에 서명날인 할 수 없다고 끝까지 거부하였다. 이에 경찰은 중병으로 생명이 위독했던 임정업을 협박하여 발행(發行)겸 편집인(編輯人)을 백관수로부터 임정업의 명의로 변경케 하고 임정업 명의로 강제 폐간계를 제출하게 하였다. 본사에서는 부득이 7월 26일 정식으로 중역회의를 열어 이를 추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고하는 8월 초 백관수, 임정업, 국태일과 함께 석방되고, 폐간 일자는 8월 10일로 예정되었으나 자진폐간을 위장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실의 보도는 일체 금지되었다. 김승문, 김동섭, 김재중은 폐간 후에도 계속 구금되었다가 9월 초순에야 풀려 나왔다.

드디어 1940년 8월 10일 동아일보는 조선일보와 함께 강제폐간을 당했다. 사원들은 윤전기를 붙들고 통곡했다. 기약도 없이 헤어지는 사우(社友)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몸부림쳤다.

강제폐간 당시의 간부 및 정식 사원은 다음과 같다.

백관수(白寬洙=사장).임정업(林正燁=상무).고재욱(高在旭=편집국장).국태일(鞠泰一=지배인 겸 영업국장).김승문(金勝文=영업국 차장).이언진(李彦鎭=공장차장).김유권(金有權).김석중(金錫中).김장환(金章煥).김동섭(金東燮).김권동(金權同).김제영(金濟榮).김우성(金禹聲).김완기(金完基), 김관호(金觀鎬), 김용선(金容善).김정실(金正實).김재철(金在哲).길광형(吉光衡).김한주(金漢周).김태종(金泰鍾).김정주(金貞珠).권인채(權麟采).고영환(高永煥).고재섭(高在燮).고재환(高在煥).곽복산(郭福山).구재중(具齊重).남익(南益).노일환(盧鎭煥).노수현(盧壽鉉).민병기(閔丙琦).박찬혁(朴贊赫).박승호(朴承浩).박범서(朴範緒).백운선(白雲善).백남규(白南圭).송덕수(宋德洙).신태익(申泰翊).임봉순(任鳳淳).임중우(任鍾宇).임병철(林炳哲).한승회(韓承誨).이필헌(李弼憲).이강성(李康成).이근영(李根潑).이치중(李致鍾).이해방(李海邦).이규봉(李圭鳳).이원춘(李元春).이규진(李揆晉).이용구(李容九).이상협(李相協).이규일(李揆一).양효손(梁孝孫).양재하(梁在廈).윤필구(尹弼九).윤흥학(尹興學).오남기(吳南基).이하윤(異河潤).엄옥진(嚴玉振).유흥준(兪興濬).조종헌(趙鍾憲).조능식(趙能植).조중옥(趙中玉).장현칠(張鉉七).장상룡(張相龍).전홍진(全弘鎭).정태흥(鄭泰興).정운한(鄭雲翰).정원영(鄭源永).정균철(鄭均轍).차기섭(車己燮).최형중(崔衡鍾).최재학(崔在鶴).최익한(崔益翰).한우식(韓佑式).홍순준(洪淳俊).홍원길(洪元吉).홍익범(洪翼範) 등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일제 탄압 정책의 제물이 되어 사라지던 날, 나라없는 한민족은 또다시 언론 암흑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20년에 걸친 민족의 햇불 역할을 담당하던 동아일보의 폐간과 더불어 고하의 공적(公的) 생활도 여기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고하는 지나간 20년의 가지가지 수난과 고난의 세월을 하나 둘 회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즐겁던 일, 괴로웠던 일, 슬펐던 일, 크고 작은 사건이 뇌리를 스쳐갔다.

검열에 걸려 삭제, 압수 그리고 발매 금지를 당하던 일, 필화로 정간과 동시에 체형을 받던 일, 광고면의 개척을 위하여 1년에도 몇번씩 일본 동경이나 대판을 드나들면서 광고주를 찾아 신문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스쳐갔다.

동아일보와 인연이 깊은 동지들의 다정한 얼굴이 머리에서 맴돌았다. 고하 자신이 혹은 사장으로 혹은 고문으로 함께 경영을 의논해 오던 인촌(仁村), 남강(南岡), 근촌(芹村)..... 동아일보 초기에 주필 또는 편집국장으로서 자기를 돕던 설산 장덕수(雪山 張德秀), 하몽 이상협(何夢 李相協), 벽초 홍명희(碧初 洪命憲), 두번째 사장이 되면서는 춘원 이광수(春園 李光洙). 낭산 김준연(朗山 金俊淵). 송아 주요한(頌兒 朱耀翰). 소오 설의식(小梧 薛義植). 심강 고재욱(心崗 高在旭)..... 경영 방면에서 자신을 도운 친구범(慎九範), 홍증식(洪瓚植), 두번째 사장 10년 임기를 함께 줄곧 지배인으로 일해온 양원모(梁源模), 그리고 임정엽(林正燁). 국태일(鞠泰一)..... 그리고 뇌리에 부침(浮沈)하는 수많은 동인(同人)들. 모두들 그림고 그리운 얼굴이었다.

동아일보에는 1920년 창간되어 1940년 폐간될 때까지 20년간 당대 우리나라 최고의 인테리아 야심만만한 젊은이들이 참으로 구름같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야말로 최고급 인재의 총집결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나 구미 유학생은 물론 국내에서 제국대학이나 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더라도 우리의 정부도 없고 기업 등도 거의 없어서 취직자리도 없던 시대였으므로 동아일보야말로 제제다사(濟濟多士)가 모여서 고하의 탁월한 리더쉽하에 필봉(筆鋒)으로 일제에 저항하여 나갔던 것이다. 해방후 건국과정은 물론 대한민국정부나 기타 각계 각층에 이들이 모두 중요한 자리에 나아가서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하였음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고하의 마음은 아프고 괴롭기만 했다. 뿔뿔이 헤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이별의 나날, 떠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한번씩 고하를 찾았다. 작별의 아쉬움을 나누고자 해서였다.

“잠시 시골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어때.....”

하고, 고하는 전날의 사원들을 맞아 쓸쓸히 타이르면서, 멀지 아니한 장래를 기약했다. 정든 사원을 한사람 한사람씩 떠나 보내놓자, 곧 고하는 청산인 대표(清算人代表)로 선임되어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청산 사무의 뒷바라지 일로 바쁜 나날이 계속되었다.

동아일보의 채권과 채무들, 청산 사무 정리에 앞서서 고하는 또 한가지 번민이 생겼다. 그것은 동아일보가 애초에 주식을 공모하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로 발족할 때, 정관에 명시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는다는 조문이었다. 주주의 주금(株金)납입은 곧 민족사업에 회사한다는 내용이였다. 이리하여 청산 사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생각한 끝에 고하의 번민은 해소되어 결론을 얻었다.

청산되는 자리에서는 청산인으로서 주주의 이익을 돌보아줄 책임을 느꼈다. 더구나 '동아'의 주주였기 때문에 일제의 감시를 더 받아야 했고, 총독부의 불온분자로 낙인을 찍혀온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는 없었다. 고하는 누구보다도 주식이 많은 인촌을 비롯한 주주들과 접촉 상의하고, 채무의 정리와 채권의 회수에 착수했다. 여러가지 곡절과 가지가지 시비와 크고 작은 파란을 거쳐서 청산 사무는 순조롭게 해결되었다.

청산 사무가 끝나자, 고하는 오래 근속한 사원과 지국장, 주주들에게 그가 뜻한 바 성의를 표한 바 있었으니, 한편 청산 배당을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주주들은 경영자로서의 고하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강제 폐간 뒤의 동아일보사의 잔무 처리는 충돌없이 원만히 끝났다. 이리하여 고하는 1943년 1월 16일 명월관으로 주주를 소집하고 주주총회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정관을 변경하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를 해산하는 동시에 상호를 동본사(東本社)로 개칭하고 부동산 임대차 또는 이에 관련한 부대사업을 할 것을 결의했다.

총회는 동본사 사장에 고하를 호선(互選)하고, 동본사 간판을 전 동아일보사에 걸고, 그 3층 한쪽 구석 방을 사무소로 정했다. 이때 인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동아일보사 주식을 전부 고하에게 넘겼다. 고하로 하여금 소신대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해방후 고하는 이 주식을 고스란히 인촌에게 반환하였다.

동아일보가 강제 폐간되던 날의 폐간사는 설산(雪山 張德秀)의 지시로 김한주(金漢周)가 집필했다. 1937년 초 미국에서 귀국한 설산은 보성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동아일보 간부들이 모두 구속되자 잠시 신문사 일을 보살피고 있었다.

廢刊辭

本報는 자못 突然한 것 같으나 今 8월 10일로써 所與의 報道使命에 바쳐오던 그 生涯를 마치게 되었으니 오늘의 本紙 第6819號는 滿天下 讀者 諸位에게 보내는 마지막 紙面이다. 回顧하면 第1次 齊藤總督 時代의 文化政治의 一端으로 半島 民衆에게 許與된 言論機關의 하나로서 大正9年 4월 1일 本報가 花洞 一隅의 湫陋한 社屋에서 呱呱의 聲을 發한 以來 實로 春風秋雨 20年, 這間에 社會 各般의 進運과 함께 微力하나마 本報가 新聞 本來의 機能을 發揮하여 朝鮮文化 運動의 一翼的 任務를 다하여 왔음은 저으기 讀者 諸位의 腦裡에도 새로울 줄 믿는 바이다. 그러나 이제 當局의 言論統制에 對한 大方針에 順應함에 本報는 뒤를 보아 恨됨이 없고 또 앞을 보아 未練됨이 없는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諸位도 이 點에는 깊이 恕諒하는 바 있을 줄 믿는다.

무릇 報道機關으로서의 新聞의 使命이 決코 뉴스의 提供에만 그치지 않고 一步 나아가서 變轉하는 時流에 處하여 能히 儼然한 批判的 態도와 不動의 指導的 立場을 堅持함에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이같은 意義는 特히 過去 朝鮮에 있어서 더욱 廣汎하였음을 볼 수 있으니 그것은 極도로 뒤진 이땅의 文化的 水準에서 歸結되는 必然的 事實이었다. 이에 吾人은 다시금 本社 主權 及 後援의 傍系的 諸般 事業과 行事に까지 想到치 않을 수 없으니 그 中에는 이미 적으나마 結實된 것도 있고 또 아직 開化成育中의 것도 있다. 그러나 한번 뿌려진 씨인지라 오늘 以後에도 싹밀엔 또 새싹이 트고 꽃 위엔 또 새 꽃이 필 것을 믿어 疑心치 않는 바이다.

俗談에 ulla 10年이면 江山도 變한다 하거니와 20年의 歲月은 果然 幾多의 刮目할 變遷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第2次 歐洲大戰의 勃發로 말미암아 國際情勢의 明日은 遽然 逆睹키 難한 바 있으니 이때 지난 날을 反省하면 吾人은 온갖 誠意와 努力의 未及에 오직 自愧하여 마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또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날 이때껏 한결같이 連綿된 讀者 諸位의 深切한 鞭撻과 愛護에 對해서는 衷心의 謝意를 表하는 同時에 그 마음 그 뜻에는 새로운 感激의 念을 禁할 수 없는 바이다. 으로써 20年間 本報를 爲하여 有形無形의 온갖 指導援助를 不惜하신 社會 各般 餘러 餘의 健康을 心祝하며 簡單한 廢刊의 辭를 馬치려 한다.

3. 봄을 기다리며

1940년 8월 동아일보가 강제 폐간을 당할 무렵만 해도, 일본의 전세는 상당히 유리하였다. 1937년 7월 개전 이후 그해 12월 남경(南京), 이듬해 5월에 서주(徐州), 10월에는 무한(武漢)과 광주가 차례로 함락된 뒤 중국군의 주력은 오지나 산악 지대로 들어가서 게릴라전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이보다 앞서 40년 3월에는 왕조명(汪兆銘)이 중경을 탈출하여 일본의 영향력 아래 중경과는 별도로 남경에 국민정부(國民政府)를 세웠다.

1939년 9월 독일은 2차대전의 시발이 된 폴란드의 공격에 이어 다음해 4월에는 서부전선의 영.불군을 무찌르고 6월에는 파리를 점령함으로써 프랑스의 항복을 받았다. 이무렵 이태리가 독일 측으로 참전하자 발칸반도 및 아프리카로 전선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이해 5월 처칠이 수상이 되어 항전 결의를 굳게 하고 독일의 공군과 잠수함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영국 본토의 제공권(制空權)과 대서양의 제해권(制海權)을 견지하는데 성공했다. 독일은 끝내 영국 본토에 상륙하지 못하여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1941년 6월, 독.이군의 소련 진격으로 전국(戰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독일은 영국 본토에 상륙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자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소련 남부의 자원, 특히 석유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중일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물심양면으로 궁지에 들자 유럽전선에서 화란과 프랑스가 독일에 패하여 동남아시아 일대의 그 식민지가 불안한 틈을 타서 여기서 새로운 자원을 구하고자 남방진출을 결심했다. 이른바 '동아신질서(東亞新秩序)'라는 구호를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이라 불러 소위 'ABCD 포위진(包圍陣)'과 나날이 대립을 격화시켜 갔다. A는 미국, B는 영국, C는 중국, D는 화란의 약칭이다.

일군은 1940년 9월 프랑스령(佛領) 인도지나(지금의 월남)에 진격해 들어갔다. 이것은 영국이나 미국과의 충돌을 무릅쓴 남진정책으로서 사실상 태평양전쟁으로 한걸음 접근한 셈이었다.

한편 같은 1940년 9월 일본은 독일,이태리와 3국 군사동맹(軍事同盟)을 맺고 앞으로 있을 미.영과의 전쟁에 대비했다. 일본은 유럽전선에서 독.이측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었으나 유럽전선도 장기화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일본은 독.소 개전 두달 전인 1941년 4월 소련과 중립조약(中立條約)을 맺어 북방의 위협을 덜고 남방진출에만 전념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사태의 돌변에 따라 남.북 양면의 수공(守攻)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 미.영 양국이 화란과 손을 잡고 일본의 남방진출을 막고 일본의 세력권을 만주사변 이전으로 환원시키려는 확고한 방침이었기로서 일본의 입장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재미 일본자산(在美日本資産)동결, 대일 석유금수(對日石油禁輸) 등을 타개하려고 외교교섭을 벌였으나 실패하자 고노에(近衛) 제3차 내각은 물러나고, 군벌 중심의 동조(東條) 내각이 들어서면서 미국과의 전쟁으로 돌입했다. 1941년 12월 8일 새벽 하와이 진주만(眞珠灣)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제2차 대전은 마침내 태평양 방면으로 확대되었다.

동아일보가 강제폐간되자 그 잔무처리를 위하여 원동 자택과 광화문의 신문사 사이를 나다니던 고하가 하루는 출근도중 청진동 애산(愛山 李仁)의 집을 찾았다.

“이제는 동저고리 바람으로 나왔네. 애산도 몸조심하시오”

고하는 밀도 끝도 없이 말했다.

“고하 그것 무슨 말씀이요?”

애산이 의아하여 묻자 고하는 껄껄 웃으면서,

“그것도 몰라. 호외도 못보았소?”

하였다.

“호외라니 일본의 내각개편밖에 더 있소?”

애산의 반문에 고하는

“그럼, 동조(東條)가 내각을 조직했던 말이야. 동조(東條)니 동저고리란 말이지...”

하였다.

고하의 이 아리송한 말의 뜻은 우리나라 속담에 ‘급하면 두루마기도 안 입고 동저고리 바람으로 뛰어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고하는 이 속담에 빗대어서 당시 일본 군국주의가 급한 김에 최후 발악을 하여 그 운명을 재촉하느라고 동조(東條)가 직접 나서서 내각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그들의 몰락이 멀지 않았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 고하는 이와같이 일제의 패망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진행중인 전쟁의 정세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였다.

암격(暗擊)과 기습(奇襲)을 능사로 한 서전(緒戰)에서 일본군의 승리는 화려했다. 1942년 1월 2일에 마닐라를 점령하고, 2월 15일에는 싱가포르를, 3월 9일에는 화란령(和蘭領) 인도지나를 점령하여 그 유전(油田)을 확보하고, 5월 초순에는 버마 전역을 장악함으로써 남방 멀리 뉴기니아의 북단(北端)까지도 포함한 동남아 전역은 일본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여러 전선에서 수많은 미.영국군은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다. 포로의 일부를 일본 본토, 또는 식민지로 압송하여 시민의 구경거

리로 만들었다. 일부 영국 포로는 한국에도 이송되어 왔다. 그들의 승리를 전시(展示)하려는 의도에서였다.

한민족에 대한 압박은 전쟁의 확대와 더불어 갈수록 가혹해졌다. '동아' 폐간직후인 1940년 10월에는 이른바 '국민총력연맹'이라는 것을 만들어 소위 황민화(皇民化) 정책을 적극화하고, 41년 3월에는 일찍이 36년에 공포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나, 38년에 전향자를 위해 설치한 대화숙(大和塾)에 이어 '조선 사상범 예비 구금령'을 만들어서 반일(反日) 운동을 철저히 봉쇄했다. '국방보안법'이니, '개정치안유지법'이니, '조선임시보안령'이니 하는 것을 만들어 3중 4중으로 한민족의 손발을 묶어 놓은 것도 이 1941년의 일이다. 미국과 개전(開戰)한 뒤로는 42년 5월에, 과거의 지원병제에 이어 징병제를 실시하여 이 땅의 젊은이들을 모조리 침략 전쟁의 희생으로 몰아 넣었다.

그러나 오래지 아니하여 미군은 남양 일대에서 일대 반격전에 나섰다. 그 결정적 계기는 '미드웨이 해전'이었다. 1942년 6월 5일의 이 해전에서 미국 기동함대의 10배가 넘는 전력을 갖춘 일본 함대는 1척의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한 반면 일본함대는 일거에 4척의 항공모함이 격침 당하는 참패였다. 그러나 일본 대본영(日本大本營)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허위 발표하였고, 이후 항복할 때까지 이 허위발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였다.

미드웨이 해전이 있던 두 달 뒤인 8월 7일 미군은 뉴기니아 동쪽 솔로몬 군도의 가다알카날섬에 상륙하여 반격작전의 기지를 구축했다. 이것은 일본의 처음 예상을 일년여나 앞지른 것이었다. 일본은 미군이 서전에서 타격을 회복하고, 반격태세를 취하는 것은 1943년 여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고, 그동안에 자기들은 점령지의 석유·고무 등 자원을 개발해서 불패의 장기전 태세를 구축해 놓을 수 있다고 계산했었다. 가다알카날에 상륙한 미군은 6개월의 전투 끝에 일본군을 격멸하고 1943년 2월 9일 이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미드웨이에서의 해군의 참패와 가다알타날에서의 육군의 패퇴에 이어 4월에는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山本五十六)의 전사, 5월 '앗쯔'섬의 전멸 등, 계속적인 패배로 말미암아 그들의 절대불패(絶對不敗)의 심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일본군의 가다알카날 패배와 거의 때를 같이 해서 유럽에서는 스탈린그라드에 포위되었던 독일군 삼십만명이 2월 2일 소련군에게 항복하였다. 또 그 해 7월 무솔리니의 실각과 더불어 9월에는 연합군이 이태리반도에 상륙 진격하여 곧 이태리의 항복을 받았다. 이보다 몇달 앞선 1942년 11월 미·영군의 대병력이 북아프리카(北阿)에 상륙, 독일 기갑부대가 엘아라멘에서 영국군에게 대패하였으니 이것은 지금껏 막강을 자랑하던 독일군의 최초의 대패(大敗)였다.

일본이 미드웨이에서 참패하기 얼마 전인 1942년 5월 29일, 악명높던 총독 미나미(南次郎)가 추밀원의관(樞密院議官)이라는 한직(閑職)으로 밀려가고, 고이소(小磯國昭)가 제6대 조선총독에 임명되었다. 이 몇달 뒤인 1942년 11월 1일 일본정부는 척무성(拓務省)을 폐지하고 조선, 대만 등의 통치업무를 내무성(內務省)에 이관하는 동시에 새로 대동아성(大東亞省)을 설치하여 만주·중국점령지역 및 태국(泰國)·월남 등을 통괄하도록 하였다.

이런 와중에서 1942년 10월 이른바 조선어학회사건(朝鮮語學會事件)이 일어났다. 민족말살을 위해서 창씨개명을 감행하고, 우리말 교육을 금지하고, 일본어 상용을 강요하고, 동아일보와 조선 일보를 강제폐간시킨 총독부가 가장 미워하는 것이 1929년 10월이래 조선어학회가 추진되고 있는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의 편찬사업이었다.

이 사건은 함흥(咸興)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永生女子高等普通學校)의 모학생이 홍원(洪原)에 있는 남자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한글이었고, 그 내용이 그들의 비위에 거슬린 데서 발단된 것이었다. 경찰은 우선 조선어학회에서 사전 편찬 일을 보고 있던 정태진(丁泰鎭)을 환문했다. 그는 전기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일이 있고, 여학생의 편지에는 그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이 아무 것도 아닌 일을 확대 조작하여 조선어학회를 민족주의단체라는 구실아래 11월 1일 학회의 간부인 이윤재(李允宰), 한징(韓澄), 이극로(李克魯), 이희승(李熙昇), 정인승(鄭寅承), 정태진

(丁泰鎭), 김법린(金法麟), 김도연(金度演), 이인(李仁), 서민호(徐珉豪), 김양수(金良洙) 등 30여명을 대량 검거하여 한글학회를 말살하려고 들었다.

고하는 이들이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체포되기 10여일전에 권동진, 김병로, 서정희 등과 함께 일본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연설대회를 서울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개최하기로 작정하고 선언서 및 취지문 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이것이 발각되어 김양수, 이인, 김법린 등이 서울에서 검거되고 말았다.

30여명 간부들은 일제의 혹독한 심문과 재판을 거쳐 함흥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출옥하였다.

1943년 초부터는 '보국정신대(報國挺身隊)'니 하는 이름의 징용(徵用)을 강화하고 한국의 젊은 남녀들을 강제로 징발하여 토목공사나 탄광 등의 중노동판으로 끌어내어 전쟁 수행의 도구로 삼았으며, 그 해 10월에는 전문학교 이상의 한인 학생은 징병 연령 초과자라도 전부 군대로 몰아넣은 이른바 학병제도를 공포하였다.

각지의 전쟁상황이 불리해지자 1943년 6월 학도 전시동원체제 확립요강을 확립한 일제는 대학원에 연구과를 두고 여기에 특별연구생제도를 신설하여 학문적 후계자를 남기도록 하고는 그외에 모든 학생들 특히 문과계 학생의 일제 징집을 실행하였다.

이른바 조선징병령(朝鮮徵兵令)은 1944년부터 실시하려 하였으나 약 반년을 앞당겨 1943년 8월 1일자로 단행하여 12월부터 우리 장정들을 징집해 가는 한편 동년 12월 20일에는 특별지원병제라는 것을 공포 실시하여 학병으로 끌어간 것이다.

처음 일제는 사상이 불온한 학생 등은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자진해서 지원하는 학생이 없으므로 방침을 변경하여 모조리 끌어가기로 하였다. 이에 신문, 잡지, 방송 등을 최고도로 활용함은 물론, 그들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갖은 협박 공갈로 지원을 강요하고 듣지 않으면 구금하는 것도 서슴지 아니했다. 또 이와 병행해서 지도자들을 동원하여 각처에서 강연회를 열고 학도병 자원을 권유하도록 강요했다. 이때 사이비(似而非) 민족지도자와 일부 물지각한 인사들은 일제의 협박과 회유(懷柔)에 못이겨서 혹은 일제의 전승(戰勝)에 편승(便乘)하여 이른바 '황민화(皇民化)운동'의 앞잡이가 되어 한민족이 전쟁의 희생물이 될 것을 문필이나 강연, 심지어는 몸소 행동으로 강권하고 다녔다. 고하는 학병이나 근로보국대 등의 동원참가권유 연설을 끝끝내 거부하고 반드시 독립되리라는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였다.

고하는 전날의 정들었던 동아일보사를 잊지 못하고 가끔 소일삼아 동본사(東本社) 사무실에 나와 앉았다. 1943년 1월 동아일보의 청산 사무도 끝나고 동본사 사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왕이면 사무실이나 좀 좋은 방으로 옮겨 봄이 어떻소?”

고하를 찾는 친구들은 구석지고 어두운 방보다 밝은 방으로 옮길 것을 권했다.

“이 사람, 지금 중경(重慶)에 천도(遷都)하고 있는 중이야.....”

고하는 스스로의 입장을 장개석(蔣介石) 중국 국민당 정부의 중경 천도에 비유했다. 그것은 일인들의 장개석정부 비방을 야유해서 꼬집는 말이었다.

고하는 동본사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전국에 흩어진 동지와 전(前)사원들을 찾았다. 친구와 친척도 찾았다. 고향을 비롯하여 평양, 대구, 함흥, 원산, 춘천 등, 그리고 지방 벽지(僻地)까지도 두루 다녔다. 지방에서 특산물을 생산하면서 가업(家業)을 이어가는 인사들을 찾아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경남 합천(陝川)에서 돌가루로 눈박이 그릇을 생산하던 손병린(孫炳麟) 옹도 그중의 한 사람으로서 고하의 방문을 잊지 못한다.

한바퀴 전국 순방을 하고 서울에 돌아온 고하는 원동(苑洞) 자택에 들어앉아 칩거 생활을 시작했다. 간혹 소풍삼아 경기도 연천(漣川) 전곡(全谷)에서 농장 관리인으로 피신하고 있는 낭산 김준연(朗山 金俊淵)을 찾아 나서는가 하면 서울 교외 창동(倉洞)의 가인 김병로(街人 金炳魯), 위당 정인보(鄭寅普), 지현 장현중(止軒 張鉉重) 등을 찾아나서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하루는 낭산이 전국에서 올라왔다.

“낭산, 일제 일제는 꼭 망하오. 그런데 저희들이 궁박하게 되면, 자치(自治)라는 미끼로 우리를 유혹할 거요. 형세가 악화해서 더욱 궁하게 되면 독립을 허여(許與)한다고 할거요. 우리는 ‘자치’를 준다고 해서 움직여서는 안되오. 독립을 준다고 해도 응해서는 안되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니까 --”

고하는 일제 필망론(日帝必亡論)과 일제 항복 후의 질서 회복과 사태 수습 등 그 전망을 의논했다. 낭산은 고하의 집에 묵으면서 고하의 이야기를 밤을 낮삼아 가면서 들었다. 이야기의 샘은 끝날 줄을 몰랐다.

고하는 창덕궁쪽 산책 길에 낭산을 동반했다.

“낭산, 대책(大策)은 무책(無策)이요”

고하의 ‘대책은 무책’이라는 말의 뜻인즉, 조선 민족을 위하여 그 독립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대책이며, 그러므로 이러한 명백한 대책은 우리 전체가 실현시켜야 할 계획인 까닭에 특별히 다른 계획은 없는 것이라는 말이었다.

낭산이 다녀간 뒤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기자가 고하를 찾았다.

“선생님, 신문사도 그만두시고 가만히 댁에 계시니 심심하시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선생의 일을 궁금해할 터인데 요즘의 심경은 어떠신지요?”

“내가 시인이라면 시라도 읊을 심경이오”

고하는 선선히 물음에 응할뿐, 별로 그를 반겨하지 않았다. 매일신보 기자가 다녀간 뒤 또 하루는 총독부 경무국장이 고하와 인촌을 자기 관저(官邸)로 초대를 했다.

“시국도 중대해졌으니 두 분께서 한번 나오셔서 민중을 지도하고 협력해 주셔야 하겠소”

고하와 인촌이 초대를 받고 펍 의아스럽게 여긴 그대로의 가소로운 부탁이었다. 고하는 주는데로 술과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오래간만에 덕택으로 맛있는 고기와 좋은 술을 잘 먹었소. 집에서는 늘 보미(寶米, 해초로 만든 대용식) 밖에는 구경을 못하고, 고기는 물론 생선이나 술도 먹어 본 적이 없는데 대단히 감사하오. 배도 부르고 술도 취했으니 이만 돌아가야겠소”

하고, 고하는 인촌을 앞세워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이런 일이 있던 뒤의 총독부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고하에게 사업경영의 수완과 경험이 많으니 큰 국책회사의 사장이 되어 달라든가, 외곽단체의 책임자가 되어 달라는 등 가진 유혹과 위협으로써 올라미를 씌우려고 온갖 방법을 다했다. 고하는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건강이 극히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항시 거부했다.

“동아일보 폐간후 댁에서 쉬고 계시는 고하선생 댁을 찾아가니까 풍로에 한약을 다리고 있더군요. 어디 편찮으시냐고 묻자 고하의 대답이 “귀찮은 손님이 자주 찾아와서”라고 대답하시더군요. 조금후에 안 사실이지만 총독부 관리들이 당시 일제의 패색이 짙어지자 학병모집을 하는데 고하를 연사로 동원하기 위하여 자꾸 찾아오니까 피병을 앓으시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약탕기를 가리키며, 몸이 아파 불가능하다고 손쉽게 물리치시더군요”

해방전후에 걸쳐 고하를 따르던 이상돈(李相敦) 의원의 회고이다.

1944년 여름으로 접어들어서는 미군의 반격은 태평양 전면에 걸쳐서 치열해졌다. 이해 7월 사이판도에서 일본군의 전멸이 전해지던 무렵, 경기도 평택(平澤)의 진위(振威)에 소개해 있던 민세안재홍(民世 安在鴻)이 고하를 찾았다.

“고하, 기왕 조선 사람들이 군인으로 나가서 피를 흘리고 있는 바에야 그 피 값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 무슨 운동을 일으켜 다소의 권리라도 얻어야 하지 않겠소?”

“민세, 그 무슨 소리요. 긴박한 이 시국에서 오직 침묵 밖에는..... 만일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 수록 일본의 손아귀 속에 끌려 들어갈 뿐이오”

“고하는 참 로맨틱도 하시오. 침묵만 지키고 앉아 있으면 이승만박사가 미국 군함이라도 타고 인천 항구로 들어올 듯 싶소?”

민세의 이 말에 고하는 노기를 띤 음성으로 말을 계속했다.

“그건 안될 말이오. 피는 탄 사람이 흘리고, 그 값은 당신이 받는단 말이오?”

고하는 민세와의 논쟁이 있는 날부터 약병을 머리맡에 놓고 이불을 펴고 드러누워서 중병(重病)을 가장하고 두문불출했다.

여기에서 그 당시의 국내에 있는 지도자들 중에서, 현실에 구애 집착하는 절망파(絶望派)와, 민족의 장래에 무한한 희망과 이념을 가지고 나가는 투시파(透視派)의 두 종류를 볼 수 있다.

민세가 다녀간 뒤 전국(戰局)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미군은 필리핀의 루손도에 상륙을 감행하고, 다시 여세를 몰아 일본 본토의 남단 오키나와(沖繩)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와 전후하여 유럽 전선에서도 독일군은 레닌그라드에서 패전, 프랑스에서 패전, 그리고 연합국측의 드골 임시 정부가 파리에 세워졌다.

이해 8월부터 미국 폭격기 B-29는 일본 본토와 만주의 중공업지대를 본격적으로 폭격했다. 서울에서도 B-29의 정찰이 심해졌다. 남양에서의 반격작전이 치열해지고 폭격기의 왕래가 차차 빈번하면서, 큰 도시의 주민이나 각 기관은 교외(郊外)나, 혹은 시골로의 소개(疎開)를 강요당했다. 총독부의 소개 등쌀에 견디다 못해 옛동지나 친구들은 고하를 찾았다.

“서울은 폭격당할 리 없소. 부득이 내려가더라도 집은 그대로 두고 몸만 가는 것이 어떨까.....” 하고, 고하는 서울 폭격설을 부인하고, 소개를 하더라도 장차 생활근거가 될 집만은 팔지 말 것을 권고했다.

소문은 분분해서 오래지 않아 미군은 중국 남방에 상륙한다, 대만(臺灣)에 상륙한다 또는 일본 구주(九州)에 상륙한다는 등, 저마다 입을 모아 한 마디씩 전쟁의 귀추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끝내는 미군이 제주도 상륙한다는 풍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런 말들은 다 소용없는 말이야. 싸움을 하면 머리나 심장을 노리지 무엇 때문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건드리겠나. 중간에 근거지만 되면 동경이나 구주에 상륙작전을 하겠지. 무슨 소용으로 조선이나 대만에 상륙하겠나. 더욱이 사람을 아끼는 그들이.....”

하고, 고하도 전국의 급변에 관심을 모았다.

전쟁은 가을에 접어들면서 더욱 변화의 도를 더해갔다. 이 무렵, 고하는 동본사(東本社) 사원 김재중(金載重)의 방문을 받았다. 김재중은 사무 연락도 겸하여 소오 설의식(小梧 薛義植)의 심부름으로 고하를 찾았다. 소오가 고하를 직접 찾지 못한 것은 고하가 요시찰인이었고, 또한 소오 자신도 요시찰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피차의 신변을 염려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고하를 찾을 수 있는 김재중을 통하여 고하에게 백삼(白蔘)을 전하게 한 것이다.

김재중이 물러가자, 약속이나 한 듯이 고하에게 소오의 전화가 걸려왔다.

“요새 선생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기에 인삼을 몇뿌리 보냈습니다. 큰 것부터 잡수세요”

고하는 소오의 전화가 꼭 곡절이 있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인삼 중에서 제일 큰 것을 골라서 부러뜨려 보았다. 예기한대로 얇은 종이쪽지가 들어 있었다. 쪽지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잔뜩 쓰여져 있었다. 돋보기를 쓰고 본즉, 단파(短波) 라디오로 얻어들은 연합국측 카이로회담 등의 내용이었다. 소오는 동아일보 폐간 이후 광산에 종사하면서 꾸준히 단파 라디오를 빠짐없이 들었다. 이 단파 라디오의 내용을 고하에게 보고한 것이다.

1944년이 저물고, 1945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전국은 더욱 일제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2월에는 유황도(硫黃島)의 일군 수비대가 전멸, 3월에는 오키나와(沖繩)에 미군이 상륙, 동경, 대판 등 대도시와 군수공장들에 대한 대폭격으로 일제의 심장부는 대부분 잿더미로 화했다. 5월에는 유럽에서는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전국은 더욱 일제를 불리하게 했다.

독일 항복을 전후해서 일본 외무성 사무관으로 있던 장철수(張徹壽)가 고하를 찾았다. 장철수는

전부터 고하와는 서로 아는 사이였다.

장철수는 품고 온 웬델 웰키의 저서 '하나의 세계(One World)'를 고하에게 선사하면서 읽을 것을 권했다. 이 책은 2차대전 중 미국이 소련과 공동전선을 펴기 위해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 소련을 예방한 웰키의 소련 실태 조사 보고서이다. 또한 이 책은 일본 본토에서는 도저히 얻어 볼 수 없는 귀중한 정치.경제.문화, 그리고 외교.군사에 관한 연구 자료로서 극비에 붙여진 것이었다. 이 책에서 고하는 얻은 바 컸다.

장철수는 웰키의 저서뿐만 아니라, 고하에게 세계 정세와 전쟁의 전망, 그리고 카이로선언, 포츠담협정, 알타협정, 대서양헌장 등, 구미 각국의 동향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카이로 선언이란 1943년 11월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영국 수상 처칠, 중국 총통 장개석의 세 거두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채택한 선언이다.

전세계에 발표된 이 선언은 '야만적인 적국에 대하여 가차없는 압력을 가할 결의를 표명하면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개시이후에 일본이 탈취하고 또는 점령한 태평양에 있는 모든 도서(島嶼)를 박탈하고, 아울러 만주.대만.펑호도(澎湖島) 등 일본국이 청국으로부터 탈취한 모든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케 하고, 아울러 '조선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장차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만들 것'을 공약한 것이다.

또한 포츠담협정은 1945년 7월 26일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장개석 중화민국 총통 및 처칠 영국 수상이 포츠담에서 회합을 갖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권하는 선언이다. 여기에서도 앞서 발표한 카이로선언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연합군 포로를 학대한 자와 전쟁 범죄인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것임을 선언했다. 끝으로 일본의 재군비(再軍備)의 제한과 책임있는 정부가 수립되면 진주한 연합군의 철수도 약속했다.

내외 정세가 이와같이 긴박함에 따라 이제는 고하나 장철수뿐 아니라 누구나 다 제2차대전이 얼마가지 않아 일본의 항복으로 끝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게 되었다.

"독일도 항복했으니, 일본은 언제쯤 싸움을 그만두게 될까?"

일본의 침략근성과 호전성 때문에 징병, 징용, 보국대, 공출 등에 시달려 온 한국민들은 모두가 부지불식 중에 염전사상(厭戰思想)을 각자 가슴속에 품고 있을 뿐, 감히 입밖에 발설은 커녕, 남에게 물을 수도 없는 시국이였다.

일상생활도 목불인견(目不忍見)의 바닥에 빠져서 최하층의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실정이였다.

이런 현실에 고하는 시달릴대로 시달렸다. 생활도 엉망이였다.

"대세는 다 결정되었는데 뭘..... 그래도 일본에도 정치가가 있을 것이니 국민을 더 죽이기 전에 끝을 내려고 할 게 아닌가. 6.7월은 더 넘지 못할 것이야"

고하는 전쟁의 종말이 가까워 옴을 더욱 분명하게 예언했다.

일제의 최후 발악이 극에 달하면 달할수록, 고하의 칭병(稱病)도 비례적으로 심각성을 띠었다. 즐기지 않는 담배를 피워 물고 누워서, 만사가 귀찮다는 듯이 담배 연기만 내뿜었다. 그렇지 않으면 종일 산정(山亭) 같은 침실에 홀로 앉아서 골패(骨牌)를 만지면서 소일했다.

전국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일제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고하의 집 주변에는 밀짚모자를 쓰고 배회하는 감시원이 떠날 줄을 몰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하 담당의 형사는 일주일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정도로 찾아오던 것이 이즈음에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고하를 찾았다. 때마침 고하 담당 형사는 중학교를 다니던 아들을 잃었다.

"참 듣자니 그대가 참척을 당했다는데, 국사에 골몰하는 몸으로 얼마나 심중이 괴롭겠소"

고하는 넋지시 형사의 동정을 살피는 여유까지도 가졌다. 고하의 감시는 비단 경찰 고등계 뿐만이 아니었다. 용산에 자리잡고 있는 일제 조선군 사령부(朝鮮軍司令部) 참모 간사끼(神崎)의 지휘아래 있는 헌병과(憲兵課)도 고하를 감시했다. 경찰과 헌병의 감시로 일거 일동이 부자유스러웠다. 뿐만 아니라 고하와 접촉하거나 내왕하는 친지나 친척까지도 경찰의 감시권(監視圈)에 들어야

했다.

고하는 평소에 친구나 친척에게나 편지 쓰는 법이 적었다. 분주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고하의 편지를 받는 것은 일본 경찰의 주목거리가 되는 것이며 받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때가 많은 관계도 있었다.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이후로는 더욱 편지를 쓰는 데 조심하였다. 부득이 써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엽서를 사용했고 사연도 지극히 압축해서 두세줄 정도 썼다. 문귀에 있어서도 친한 친구나 동지에게는 서두에 '귀체청안(貴體淸安)하시기를 바랍니다'로 시작하기가 일쑤였다. 이것은 정세의 변화가 절망적으로 흘러가고 또 일제의 유혹의 손이 골고루 뻗어오고 있을 시기에, 친구나 동지들이 혹시 물들지나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였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고하로부터 편지라도 받게 되면 읽은 후 곧 불태워버렸다. 고하의 필적이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음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4. 일축한 정권이양교섭(政權移讓交涉)

1940년 8월 10일 동아일보의 강제폐간부터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쇠사슬에서 해방되기까지, 고하는 병을 핑계하고 서울 원동(苑洞=현재 苑西洞) 자택에서 만 5년간 거의 두문불출의 세월을 보냈다.

일제는 8.15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하를 괴롭혔다. 8.15 전인 6월과 7월을 보내 놓고서의 일이었다. 8월에 접어들면서 고하는 갑자기 얼굴에 수심과 초조의 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것은 고하가 동경유학 이래,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거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또한 전쟁이 무르익어서 피차 승산을 예측할 수 없었던 전쟁 초기에도, 그의 신념화한 일제 필망론(日帝必亡論)의 '7월 예측'이 빛나간 데 있었다.

한편 한민족 전체가 생활에 지치고 쪼들린 나머지 허탈감에 빠져서 밝아오는 앞날의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나 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한 데 기인하기도 했다. 이리하여 고하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불안에 쌓이게 되었다. 예언에 대한 자신마저 잃었다.

“일본에는 양식(良識)있는 정치가가 한 사람도 없어. 정치를 조금만이라도 아는 자가 있다면 승산이 없는 이 전쟁을 이렇게 끌어서 무고한 백성을 떼죽음시킬 리가 없어. 국가는 한때 망해도 민족은 영원히 사는 거야. 민족이 살면 국가는 반드시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라고, 고하는 일본 위정자들의 양식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고하는 이무렵 늘상 말하기를

“아무리 강대한 권력을 움켜쥔 위정자라 할지라도 그의 말은 역사적 문서에 인쇄는 될지언정 국민의 마음에 남는 것은 무명의 한 사람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이다. 역사에 그 이름과 업적이 남는다고 해서 그 주인공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 당대시대와 사회에 얼마나 많은 유익하고도 필요한 업적을 남겼는가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고 하였다.

일제의 단말마적인 발악은 극에 달했다. 8월 6일 미군은 일본 히로시마(廣島)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림으로서 도시는 일순에 잿더미로 화했고 20여만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인류사상 최초로 지구상에 터진 이 핵폭탄은 전쟁에 신기원을 그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항복을 촉진시켰다.

“전쟁을 할 동안보다도 끝날 임시가 더 무섭지. 만약 저자들이 항복할 계제가 되면, 우리 지식계급이나 민족지도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학살할 거야.....”

하고, 고하는 전쟁의 종국에 뒤따르는 일제의 만행을 적어 걱정했다. 기실 일제는 고하의 예측대로 지식계급과 지도자층에 속하는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해 놓고 총독부로부터의 지령만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일제가 소위 식민지 한국에서 학살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을 전후하여 동 5월 일본 동경에서는 군벌의 눈을 피하여 전체주의를 회의(懷疑)하는 중신(重臣)들과 정치가들이 휴전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해 6월 일.소 불가침조약(日.蘇不可侵條約)을 서로 맺고 있는 일본 주재 소련대사 말리크를 통하여 종전교섭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련의 실속은 달라서 교섭은 지지부진, 시일만 끌었다.

고하는 일련의 종전 교섭을 전해 듣고 일본에 좀 더 투시적인 정치가가 없음을 한탄했다. 일본의 항복교섭은 소련을 중간에 개재시킬 것이 아니라, 교전국이기는 하나 중국의외론을 펴보기도 했다. 이미 전후 한국의 정치적 사정을 우려한 나머지의 결론이었다.

소련을 통해서의 종전 교섭의 결과는 대독전(對獨戰)에서 지친 소련의 대일(對日)전쟁 참가의 결의를 굳게 하고 자극시켜서 더욱 그 날을 재촉했다. 마침내 8월 9일 소련은 대일선전(對日宣戰)을 포고하고 이날 새벽 일부는 만주로 진격하고 일부는 두만강을 건너 한국 북단의 경흥을 침공해 들어왔으며 나진, 웅기, 청진 등에 폭격을 가해왔다. 이리하여 군국주의 일본의 패전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급전하는 전국의 추이를 보는 고하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혔다. 예상한대로 8월 10일 새벽 4시경 총독부 경무국 차석 사무관 하라다(原田)의 돌연한 방문을 받았다. 하라다는 아직 먼동도 트기전인 이날 첫새벽 원서동 고하댁 문을 노크했다. 그는 자기 신분을 밝히고는 겸손한 어조로 "송선생님을 급히 뵈러 왔으니 안내해주기를 바란다"고 간청했다. 객실로 인도되어 고하를 대한 하라다는

"명령을 받들고 선생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께 말씀 올리는 것은 저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 말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하라다의 말에 고하는 일면 놀라고, 한편 적이 불안하기도 했다. 한국의 지도층이나 지식층을 학살하기 위해서 맨 먼저 자기를 찾아온 것으로 의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하라다'는 전날까지의 오만불손한 언동이 사라지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데에 고하는 다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뭐, 내가 징병 권유 연설을 안해도 다들 끌려갔는데 그러오?"

묵묵히 하라다의 말을 듣고만 있던 고하가 탄성을 하면서 그의 말의 초점을 피했다.

"아니,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올시다. 기실은 일본이 미.영측에 종전을 제의했고, 종전이 성립된 뒤의 뒷수습을 선생께서 해줌시사고..... 그 의향을 여쭙어 보고 오라는 명령이올시다"

라고, 하라다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종전? 아니 왜 항복을 하오?"

"아니올시다. 저..... 종전은 곧 성립될 모양이고 시간은 없고..... 선생께서 사랑하시는 조선민족을 위해서 힘을 써 주셔야겠기에... 무슨 좋은 의견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상사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고하는 불안과 안도의 착잡 속에서도 가증스럽고 비굴한 그들의 행위가 가소롭게만 생각되었다.

총독부가 이처럼 분초(分抄)도 유예할 수 없이 다급해진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연유한다.

1945년 8월 9일 심야에 열린 어전회의는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자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으로 양분되어 격론을 벌였고 최후로 천황의 뜻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천황은 수락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끝까지 항전을 주장하는 군부와 일부 각료측의 극렬한 반발은 자칫하면 쿠데타 등 과격한 사태로까지 몰고갈 위험에 직면했다. 일본수상 스즈끼(鈴木貫太郎)는 부임 초부터 강화책을 마음속에 구상하고 조각하였으나 군부의 서슬이 너무도 극렬하여 강화책이 성숙되기만 기다려왔다. 9일밤에 있는 어전회의의 결과는 무조건 항복은 기정 사실이고 발표시기도 또한 촉박했음을 알 수

있었다. 늦어도 오늘 내일 사이에 백기를 들 것으로 보여진 총독부는 초조하고 다급했다.

그들이 이와같은 급박한 상황아래에서 가장 걱정한 것은 한국내에 있는 60만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었다. 한시 바빠 한민족이 따를 만한 인사를 천거하여 통치권(생색을 내도 지엽적인 것만) 일부를 맡기고 그 그늘밑에서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조급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사력을 다해서 이날 중으로 항복후의 사후 수습을 맡아줄 인선을 끝내고자 고심한 끝에 여러 인사들을 그 후보로 등장시키고 검토했다. 그 결과 고하를 책임자로 지명하고 하라다를 파견한 것이다.

한민족의 지도자라는 지도자는 전쟁 중에 거의 다 끌어내어 혹은 이용해먹고 혹은 지조를 꺾도록 하여 민족의 신망을 실추시켰다. 그러나 고하만은 끝까지 그들에 맞서 항쟁한 애국지사였고 또 지도능력도 갖추어 있으므로 그래야만 한국사람들을 이끌어갈 인물로 판단했고 고하의 말이야만 들을 것으로 보았다. “삶아 먹을 수도, 구워 먹을 수도 없는 자”라고 욕을 하던 고하였지만 다급해진 이제는 그 고하말에 무릅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애걸하고 목을 매다는 도리밖에 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유일무이한 최적임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오늘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방파제를 높이 쌓고 농성중이어서 그의 대답이 동문서답일 수밖에 없었다.

“보다시피 나는 병자가 아니오? 신문사가 문을 닫은 그날부터 이렇게 병이 나서 누워만 있는 사람ियो”

“거 신문사 말씀만은 그만두어 주십시오”

하라다는 사뭇 애걸했다.

“허.....그렇다면 또 그만두지..... 하지만 나는 병자니깐 아무것도 못하오. 그 문제는 더 말씀할 것도 없소. 다른 얘기나 있거든 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종전 후의 혼란이 수습되겠는지, 그 대책이라도 좀.....”

머리를 숙이고 앉은 하라다의 모양은 처량하기만 했다. 고하는 하라다의 이 말에는 할 말이 있었다. 또한 말할 필요도 느꼈다.

“...첫째 나 자신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 주위로부터 모든 감시를 해제하십시오. 둘째 언론.집회.출판 및 결사의 자유를 주시오. 셋째 정치범, 경제범의 명목으로 감금한 인사들을 석방하십시오. 넷째 군량미 기타 양곡을 풀어서 굶주린 백성에게 분배하십시오. 이러한 시책이 곧 실행 되면 대일 감정은 다소 풀어질지도 모르겠소”

고하가 말을 마치자 하라다는 면담내용 일체를 극비에 붙일 것을 약속받고, 자기 상사에게 보고차 자리를 떠났다. 즉일로 고하 집 주변에는 밀짚모자의 청년과 사복경찰이 자취를 감추었다.

하라다가 다녀간 다음날인 11일 아침 일찍 변호사 강병순(姜柄順)이 찾아왔다. 강병순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다는 정보를 전해 주었다.

이날 저녁이었다. 고하는 하라다의 두번째 연락을 받고 그들이 지정한 본정(本町=지금의 忠武路) 어느 일본인 자택으로 갔다. 거기에는 하라다 외에 조선군 참모(朝鮮軍參謀) 간사끼(神崎)와 경기도 경찰부장 오까(岡)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소련군의 진격이 예상보다 빨라서 얼마 안가서 조선은 전쟁터가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후방의 치안문제라고 했다. 총독부로서는 조선의 치안을 신망이 두터운 조선인 지도자에게 맡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하는데 고하가 맡아 주면 상당한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항복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소련군쯤은 천하무적(天下無敵)인 관동군(關東軍)이 격퇴하여 버릴 것이니 후방의 치안문제는 과히 걱정할 것이 없을 줄 아오”

하고 고하는 탄전을 피고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그런 일은 맡을 수 없다고 즉석에서 거절하고 돌아왔다.

이튿날인 12일, 하라다는 경기도 보안과장과 함께 세번째로 원서동 고하택을 찾았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민중의 생명과 재산을 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지 못하겠다는 것은 건강도 건강이지마는 총독부의 심부름꾼으로 나선 사람의 말을 민중이 들어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고 고하는 그들의 요구를 완강히 거절했다.

설득에 실패한 하라다 일행은 돌아가고 이틀후인 14일 그들의 4차 방문을 받았다. 경기도 지사 이꾸다(生田)가 면담을 요청해 왔다. 고하는 도지사실에서 그와 대면했다. 70 노인인 이꾸다는 경찰부장 오까(岡)도 배석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일본은 항복하니 한.일 양민족의 충돌을 막고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협력해 달라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만일 당신이 승낙만 해 준다면 현재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4분의 3 즉 헌병, 경찰, 사법, 통신, 방송, 신문 등을 넘겨주겠소”

묵묵히 앉아 이꾸다의 이와같은 제안을 듣고있던 고하는 장차는 한국과 일본이 이웃으로 가까이 지내야 하겠지마는 이 단계에서는 그들의 제의를 수락할 수 없음을 밝혔다.

“생각해 보시오. 내가 중국의 왕조명(汪兆銘)이나 불란서의 페탕이 되고자 한다면 벌써 됐을 것이 아니오. 이것은 내가 사양한다느니 보다도 만일 내가 왕조명이나 페탕이 되어 버린다면, 당신네가 일본으로 떠난 뒤에 나는 조선 민족에게 발언권이 없어지지 않겠소. 그리고 멀지않아 조선은 일본과 국교도 맺어야 할 것인데, 지금 목전의 이익만 생각하다가는 도리어 앞으로의 큰 경륜을 잃을 염려가 없지 않소. 한 사람의 올바른 지일(知日)하는 인사라도 남겨 두어야 하지 않겠소?”

고하의 조리정연한 이 말에 이꾸다는 말귀를 알아듣는 듯했으나, 들락날락하던 오까의 얼굴은 금시 오기에 차서 붉으락 푸르락해졌다.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협력한 사실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협력을 해 달라는데 거절하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하고, 오까는 고하에게 덤빌 듯이 대들며 지금 곧 총독과 정무총감을 만나보러 가자고 했다.

“나는 지금 당신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사와 이야기하고 있소”

하고, 고하도 오까에게 경멸에 가까운 응수를 했다.

“당신이 끝까지 거절한다면 좋소. 그러면 지금 조선 안의 청년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김준연(金俊淵)이 전국(全谷)에서 서울로 올라 왔는데, 당신은 연락이 될 것이니 좀 만나게 해 주시오. 김준연도 사양할까요?”

이꾸다는 이 이상 고하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음을 깨닫자 말머리를 돌려서 낭산(朗山)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김군도 나와 같은 의견이리라고 생각하지만 정 의사가 그렇다면 연락은 해 주리다”

때마침 낭산은 소련 참전의 방송을 듣고, 전국 농장을 빠져나와 걸어서 연천(漣川)의 박승철(朴勝喆) 집에서 하루를 쉬 뒤에 서울로 직행, 고하 집에는 감시가 심할 것 같아 돈암동(敦岩洞) 서상국(徐相國)에게 기식하면서 전화로 고하와 연락이 돼 있던 중이었다.

낭산은 고하의 연락을 받고 곧 그길로 경기도 도청으로 이꾸다를 찾았다. 때마침 공습(空襲)이 있어서 낭산과 이꾸다는 방공호(防空壕)에서 회담했다. 낭산도 고하와 의견이 같았다.

이꾸다를 만나고 나온 고하는 그 길로 계동으로 인촌을 찾았다. 지금까지 그들의 회담 요청을 할 때나 끝나고 나와서는 인편이나 전화로 인촌에게 알려온 고하다. 이날은 직접 인촌을 만나 회담 내용을 말해주고 이렇게 덧붙였다.

“오늘 내일이 고비가 될 것 같으니 자네는 연천에 내려가 있는 것이 좋겠네.....”

고하가 고비라고 한 것은 일본이 항복할 때 조선의 지도자들을 학살할 우려를 말한 것이다.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거류민의 보호인 것 같기는 하지마는 그런 일에는

워낙 치밀하고 독한 자들이라 알 수 없으니 자네는 가족이 가있는 시골로 가는 것이 좋겠어” 하고 인촌에게 연천(농장)으로 내려가기를 권했다.

“자네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인촌 역시 고하의 신변을 염려해서 이렇게 물었다.

“나야, 세상이 뒤바뀌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지 않겠나.....”

이와같이 말한 고하의 말 뜻 중에는 인촌의 신변을 염려하는 두터운 우정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고, 또 끝까지 일제를 압도하려는 고하의 굳은 패기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인촌은 연천으로 내려갔고, 고하는 원서동 자택에서 일제의 패망하는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게 되었다.

드디어 일제는 8월 14일에, 이튿날인 15일 정오에 중대 방송이 있음을 알렸다.

그러면 당시 총독부가 정권을 맡길 인물로서 고하를 지명하고 10일 새벽, 아직 어둠도 가시기 전인 오전 4시 하라다로 하여금 고하를 방문하게 한 다급했던 사정을 최근 발간된 일본경제신문(日本經濟新聞)에 게재된 스즈끼 하지메(鈴木一 = 日本穀物取引所 理事長)의 회고담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스즈끼 하지메는 항복 당시 일본 수상 스즈끼 간따로(鈴木貫太郎)의 아들로써 수상 비서관 직에 재직하고 있었다.

1945년 4월 초 천황의 시종장(侍從長)이던 스즈끼는 천황의 특명으로 고이소(小磯國昭)의 뒤를 이어 수상이 되었다. 그는 전쟁종결(戰爭終結)이라는 대명제(大命題)를 안고 중직을 맡았으며 7일 조각을 마치니 군내부(軍內部)에서는 의혹의 눈초리로 보게 되었다. 당시 군부내의 공기는 항전론(抗戰論)이 너무도 극렬해서 전쟁종결 - 항복 - 이란 내란의 위협을 안고 있었고, 또 이 길로 이끌어 가려는 그는 항상 저격(狙擊)의 대상인물로 위험이 뒤따랐다.

언제 어디서 저격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판국이었으므로 그 아들 하지메는 부친의 경호를 맡기 위하여 스스로 산림국장(山林局長)직을 사임하고 수상 비서관(秘書官)이 되었다. 8순에 가까운 노재상 스즈끼 간따로는 한쪽 귀가 어두웠으므로 각의(閣議)에도 그 보청(補聽)을 위하여 전례 없이 하지메 비서관은 수상의 뒷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러므로 필자 스즈끼 하지메는 일본이 항복하기까지의 경위를 소상히 알고 있음을 밝힌다.

일본의 운명을 결정한 그날

아버지는 입밖으로는 언제나 ‘성전완수(聖戰貫遂)’를 부르짖었다. 마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만일 ‘휴전’ ‘강화’ 혹은 ‘평화’란 한마디만 입밖에 내었다가는 쿠데타는 필지의 사실이였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육군대신을 임명함에 있어서도 육군 3장관과의 회견석상에서 ‘완수’(完遂)의 조건이 붙었고 아버지는

“물론 성전을 완수하겠다”

고 대답했으나 군내부에서는 스즈끼 내각을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다.

4월 7일, 조각을 완료한 뒤 신내각의 시정연설중에

“나가자 1억 국민이여, 나의 시체를 넘어서.....”

란 구절이 있다. 78세의 노재상이 진두에 서서 성전완수를 부르짖는 말이라고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흥중에는 “자기는 매국노란 오명을 쓸 것이고, 자기의 시신은 발길에 부스러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종전(終戰)의 대업을 성취하기 위하여는.....” 하는 각오를 이 글속에 담은 것이었다.

아버지의 주위에는 진의를 탐지하고자 각료 등 여러 사람들이 교대로 맴돌았으나 아버지는 언제나 태연한 자세로 평소 좋아하는 전국사(戰國史)를 장항(前略)

하게 이야기하면서도 핵심만은 감추고 있었다. 오다(織田信長)와 다케다(武田信玄)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는 결론으로

“...대국과 소국이 싸울 때 대등한 강화를 맺으면 소국은 이긴 것이 된다 --”고 말하는 것이었다. 은연중에 흥종의 일단을 비친 것이었으나 그 뜻을 이해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리고 7월 26일 포츠담선언, 뒤이어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와 소련의 참전이 뒤따랐다. 각의에서도

“끝까지 항전하자..... 국체(國體)는 보존될 수 있느냐.....” 등등으로 의견들이 분분했다.

아나미(阿南)육군대신은

“구사회생(救死回生 -- 죽음속에서 삶을 구함)”

의 일관통이었음에 반하여 요네우치(米內) 해군대신은

“수락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두 사람은 정면대립하게 되었다.

이때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으나 아버지는

“이 내각에서 결정한다” 하고 그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최후의 단안과 성단방식(聖斷方式)에 대한 각의도, 최고전쟁지도자회의(最高戰爭指導者會議)도 격론으로 날을 지새고, 8월 9일 심야 이례적으로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열게 되었다. 이례적이라 함은 사무당국이 어전에 제시할 원안(原案)도 의제(議題)도 결정된 것이 전연 없었음을 말한다. 적어도 어전회의라면 사전에 안건을 정리해서 폐하의 임석을 맞이하고, 정리된 의안을 읽은 후 형식적으로 한두 번 질문 응답(質問應答)으로 끝내는 것이 통례였다.

이날밤의 어전회의는 수상을 포함하여 7인, 추밀원의장.외무대신.육해군대신.육군 참모총장.해군 사령부 총장 등이 정식 멤버로 열석(列席)하고, 도오고오(東郷) 외무대신의 포츠담선언 수락을 찬성한다는 의견진술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찬반론격으로 아무런 결론도 내릴 수가 없었다. 이때 수상이 ‘폐하의 성단(聖斷)으로써 결정하고자 한다’는 뜻을 주상(奏上)하니 폐하는

“도오고오 외무대신의 뜻을 찬성한다”

고 말씀하시고 이를 다짐하기 위하여 이유를 말하겠다고 설명을 부연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옥음(玉音)방송이 된 것이다.

그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14일 오전 재차 궁중 지하방공호에서 전기 7인 외에 각료 전원이 합석한 어전회의가 열렸다. 마이크 앞에 서려는 폐하의 성단에 접한 참석자들은 소리를 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이와같은 성단이 내리기까지는, 8년간 시종장(侍從長)으로 봉직하여 폐하의 기분을 잘 알고 있었던 아버지(=수상)의 최후의 결단이었다.

8월 15일, 옥음방송을 저지하려는 반란군은 황궁을 점령하고 또 청년장교의 일대는 수상관저를 습격했다. 사저에도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양친을 모시고 차에 올랐다. 아버지는 고령이신데다가 이렇게 위급한 때에도 정장(正裝)을 하느라고 20여분을 지체했다. 설상가상으로 자동차 시동이 안된다. 10명의 경찰관이 차를 밀어서 발동을 걸었다. 이때 저쪽에서 트럭 2대가 돌진해 오고 있었다. 거기에는 청년 장교들이 가득 타고 있었다. 단 1분만 늦었던들 우리 일가족은 어찌되었을까.

시골 친척집으로 피신한 나는 사태를 알고자 사저(私邸)로 전화를 걸으니

“네가 간따로(수상)냐!”

하는 성낸 목소리만 들려왔다. 습격대가 사저를 점령하고 우리를 찾고 있었다. 이어 이들은 사저에 불을 질렀는데 후에 들은 바로는 소방대(消防隊)는 왔으나 물을 뿌리지는 아니했다고 한다.-- 나라를 팔아먹은 놈의 집에 왜 물을 뿌리느냐--는 것이라 했다.

어찌되었던 대국적 견지에서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종전으로 이끌어 간 일은 다행이라고 본다. 이것이 없었던들 나라는 분열하여 오늘의 일본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실로 이 15일까지

관계자들은 목숨을 걸고 노력했다는 숨은 사실을 잊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비통한 것은 육군대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날 자결했다는 사실이다. 33회 기일(忌日)을 빈다.

(일본경제신문 1977년 8월 15일)

제7장 해방된 조국

1. 아아, 8월 15일

8월 6일 히로시마에 이어 9일에는 나가사끼(長崎)에 원자폭탄이 두 번째로 투하되었다. 또 이날 소련은 선전을 포고하고 참전했다.

스즈끼수상이 이끄는 일본 정부는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열고 전쟁종결방안을 논의했으나 찬반 양론의 격론만 일었다. 급기야는 포츠담선언을 무조건 수락한다는 천황의 단안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결정짓지 못한 채 진통의 며칠이 흘렀다.

연합군측은 항복을 재촉하는 맹폭격을 연일 계속했다. 하루에도 몇개의 도시들이 잿더미로 화했다. 수만의 사상자가 나오고 국가 기능은 거의 마비상태가 되었다. 이와같은 폭격이 며칠만 더 지속된다면 일본의 초토화는 물론 민족이 멸망될 위기에 직면했다. 세궁역진(勢窮力盡), 더 버틸 기력도 용기도 상실한 일본은 더 천연할 수 없음을 깨닫고 14일 연합군측에 무조건 항복할 뜻을 전달했고 다음날 중대방송이 있을 것을 예고했다.

고하는 8월 15일 정오에 중대 방송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전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의 방송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머리 속이 어지러웠고, 더욱 초조했다. 내일이면 해방이 되고 어찌면 멀지않아 독립 국가가 된다는 생각은 자꾸만 고하를 흥분시켰다.

이신동체(異身同體)라고 일컫는 인촌(仁村)도 시골로 소개(疎開)하여 서울에 없었다. 이때 고하의 측근에는 연천에서 마침 낭산(朗山)이 올라와 며칠째 고하의 집에 묵고 있었다. 고하는 낭산을 붙잡고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했다.

“그만 잡시다. 내일 오정 때면 다 결정날 것을 뭐.....”

이렇게 고하는 낭산보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누울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만 주무십시다”

이번에는 낭산이 고하를 재촉했다.

고하와 낭산은 피차 잠잘 것을 청했으나, 두 사람은 잠이 올 리가 없었다.

낭산이 슬며시 잠이 들었나 싶었을 때 고하는 낭산을 깨웠다. 새벽 3시였다. 원래 고하가 새벽 3시경이면 잠을 깨는 습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낭산은 고하의 부름에 응했다.

고하는 낭산을 깨우고는 정치.경제.문화.교육.군사.외교 등 그의 광범위한 정치적 포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당면 문제에 접어들자 고하는 이야기를 몽양(夢陽 呂運亨)에게로 돌렸다.

“몽양이 잘못하면 민족에게 큰 피해를 입힐지도 몰라.....”

하고, 고하는 몽양을 아끼는 뜻에서 긴 한숨을 내 쉬었다.

드디어 날은 밝았다. 1945년 8월 15일은 왔다. 이 날은 마침 목요일이다. 목요일은 총독부 고관과 일본 실업가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갖는 날로서 명칭도 목요회(木曜會)라고 불렀다. 8월 15일 정오의 중대 방송이 무조건 항복이라는 것과, 따라서 한민족이 독립되리라는 것은 총독부 고관들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상상치 못했던 모양이다. 그들은 뉴욕이나 워싱턴이 함락되었다는 중대방송쯤으로 착각했던지 조선폰에서 점심을 먹으며 환담하느라고 천황의 울먹이는 방송도 듣지 못했다. 호텔 보이들은 울고 다니는데도 로비에서는 잡담들을 하고 있었다.

“미친놈들이야. 그렇게도 모를까. 사실을 알고는 그럴 수는 없을 텐데.....”

무조건 항복의 방송이 있는 지 두 시간만인 오후 2시 -- 원동 고하 집에서는 고하를 비롯해서 낭산, 설산, 가인(街人 金炳魯), 춘곡 고희동(春谷 高羲東), 애산(愛山 李仁), 근촌 등이 모여 들었다. 냉수로 축배를 올리며 조선폰의 일인 실업가들 이야기로 폭소를 터뜨렸다. 뒤이어 순식간에 의외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이날 고하 집에 모인 인사들은 삼페인이 아니라도 좋았다.

“냉수.....”

“야 - 냉수 더 떠오너라”

냉수를 찾아서는 치켜들고 해방의 축배를 들었다. 이제 이룩될 새 나라의 빛날 장래를 축원하며 기쁨을 같이했다.

“폐탕이 돼서야.....라우렐이 되다니.....몽양 그 사람.....쫓쫓.....쫓.....”

하고, 고하는 몽양을 진심으로 아꼈고 그의 오류(誤謬)를 진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한편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애국 선열의 추모, 금후의 정치, 그리고 새로 이룩될 새 나라 건설에 관한 이야기로 서로들 웃음꽃을 피웠다.

“새 나라도 꾸며야 하겠지만 새 살림부터 마련해야겠소”

하고, 고하는 동지와 손님을 대접할 쌀을 구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등, 마음과 몸이 바쁘게 돌아갔는데 때마침 총독부의 종전 수습 책임자 이꾸다가 16일에 자기 찾아왔다. 고하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맞았다.

“오늘은 선생께 다른 청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고, 이꾸다는 자기네 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고하의 말이 라면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들을 것이니 몽양과는 별도로 일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지시해달라는 것이었다.

“거 무슨 말이오. 조금도 염려마시오. 우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화민족이오. 쫓겨가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잔학한 민족은 아니오. 그런 만행은 절대로 없을 것이니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하고, 고하는 이꾸다를 타일러 보냈다.

이튿날 16일 오전 10시 몽양은 민세(民世 安在鴻)을 끌어들여 휘문(徽文)중학교 교정(지금 현대 건설빌딩 자리)에서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 - 建準)를 정식 결성하였다. 몽양이 이렇게 하게 된 데에는 총독부로부터 치안유지권을 맡은 데에서 비롯된다. 건준의 1차 조직을 보면 위원장 몽양, 부위원장에 민세, 총무부장 최근우(崔謹愚), 재무부장 이규갑(李奎甲), 조직부장 정 백(鄭栢), 선전부장 조동호(趙東祐), 무경(武警)부장 권태석(權泰錫) 그리고 치안대장 장권(張權)이었다. 이들 중 정백, 조동호, 권태석은 장안파 공산주의자이다.

고하에게 행정권을 맡기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총독부는 몽양에게 교섭하였고, 몽양은 몇가지 조건을 붙여 이를 수락하였다. 15일 아침 정무총감 엔도오(遠藤)는 몽양을 그의 관저로 초대하여 일본이 이날 정오를 기해서 무조건 항복한다는 것을 밝히고, 소련군이 17일 오후에는 서울에 입성할 가능성이 짙다고 그의 의견을 말했다. 이와 아울러 한국은 한강을 경계로 하여 미.소양군이 분할 점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련군이 들어오기 전에 정치범을 석방할 것이니 치안유지에 협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서 몽양은

1. 전국을 통하여 정치범,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2. 8월, 9월, 10월 3개월분의 식량을 확보할 것,
3. 치안유지와 건국운동을 위한 정치운동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 것,
4. 학생과 청년을 훈련조직하는 데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5.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사업에 조직 동원하는데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것.

등 5개항목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바 합의를 보기에 이르렀다.

몽양은 전 해 9월에 조동호, 김진우, 이석구, 현우현, 황운, 김갑문 등과 함께 ‘건국동맹’(建國同盟)이란 지하 조직체를 구성하고 있었다. 몽양은 이 조직체를 주축으로 하여 건국준비위원회의 결성을 서두르는 한편 원서동으로 고하를 찾아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이 항복을 했다고는 하나 군사력과 경찰권은 그대로 갖고 있소. 우리가 이것을 물리칠 힘이 없는 한 총독부를 상대로 행정권을 이양받는다든 것은 결국 그들의 심부름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몽양은 가볍게 움직이지 마시오.”

하고 몽양의 경거(輕擧)를 타일렀다.

휘문중학교 교정에서 군중대회를 마친 '건준'은 서울역까지 시위행진하는 촌극도 벌였다. 그는 앤도오가 말한 한강을 경계로 미소 양군의 분할 점령설을 믿었고 또 이날 오후 1시에 소련군이 서울역에 도착한다는 조작된 풍설을 믿었던 것이다. 몽양은 풍채도 좋고 웅변까지 능하여 대중적인 정치가로서의 풍모를 고루 갖추었으나 일관된 주관이 서지 못하여 정치적 좌표마저 흔들렸다. 결국 우왕좌왕 좌우(左右)사이를 표류하다가 그가 지닌 경륜을 펴보지도 못한 채 비명에 간 비극의 정치가였다.

서울역까지의 소련군 환영 시가행진은 일막의 조작극이었으나 '건준'의 탄생을 알리는 효과는 있었다. 그날 오후 3시, 민세는 건준 부위원장(建準副委員長)의 자격으로 서울중앙방송국을 통하여 건준이 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을 인수했다고 공포하고, 군대의 편성, 통화의 안정, 대일협력자에 대한 대책 등 성급한 언동으로 민심을 자극했다. 그리하여 시위군중의 일부는 난동을 일으켜 남대문 파출소를 파괴했다. 그 뒤에도 성북경찰서를 강제 점령하는가 하면 총독부를 접수하려고 몰려가기도 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총독부는 치안 확보를 이유로 경찰과 군인을 동원하는가 하면 건준(建準)의 행동을 감시하기에 이르렀다.

“평소에 일본놈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던 위인들이 이제는 내 나라 내 물건이 될 재산을 파괴하다니.....”

하고, 고하는 계속 일어나는 난동으로 생긴 유혈과 파괴 행동에 개탄을 금치 못하였다.

유혈과 파괴 행위는 지방으로 번져나갔다. 공산분자가 주동이 된 난동은 견잡을 수 없는 사태로 발전했다. 일본이 패망한 후 다소의 파란이나 진통이야 없을 수 없다 하더라도 질서를 유지하여 점차적으로 국권을 회복하고 건국을 해야할 마당에서 난동과 파괴, 그리고 살육의 씨가 뿌려지고 있었다.

'건준'의 시위가 있는 날 오후 평양의 고당(古堂 曹晩植)으로부터 고하에게 장거리 전화가 걸려왔다.

“도지사가 행정권을 받으라고 하는데 받아도 좋겠느냐”는 문의였다. 그리고 조만식은 김동원(金東元), 안동원(安東源), 오윤선(吳胤善) 등과도 한 자리에 모여 의논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의 자격으로는 받지 말고 민중대회를 열어서 민중의 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하고, 고하는 그의 소신을 잘라서 말했다. 고하가 총독부에서 주는 정권을 받지 아니한 것도 이와 같은 이념에 입각한 것이다. 그가 국민대회를 준비한 것도 민중이 승인하지 않는 지도자는 일종의 괴뢰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실 조만식은 평양에서 고하의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지방이기는 했지만 아무런 잡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평양의 조만식에 뒤이어 광주에서도,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꼭 같은 전화가 걸려왔다. 그때마다 고하는 역시 같은 대답이었다.

이즈음 거리에서는 여러가지 유언비어가 떠돌았는데 그 중에는 '동진공화국'(東震共和國) 수립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것에 의하면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김구, 육군대신 김일성, 외무대신 여운형...' 등등 뿌리도 없는 풍설과 혼란이 뒤덮은 속에서 5일이 지나 20일이 되었다. 이날 미국의 B-29 1대가 서울 상공에 날아와 웨드마이어장군이 서명한 전단을 뿌리고 갔는데 미군이 곧 진주할 터이니 그때까지 일본 행정당국은 종전당시의 상태로 질서를 유지하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포고문 제1호는

“남조선 민중 각위에게 고함”

미군은 근일중에 귀국에 상륙하게 되었다. 우리 군은 동경에서 금일 일본군의 항복문서에 조인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미군은 연합군 대표로서 상륙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귀국을 민주주의의 제도하에 있게 하고 국민의 질서유지를 이룩하는 데 있다.

국가조직의 개선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안녕질서에는 혼란과 유혈사태가 따르지 않게 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상의 목적을 조속히 이룩하기 위하여 조선 민중에게 다음 몇가지 점에 대한 협조와 원조를 바라는 바이다...” 라고 하고 있다.

이 전단은 총독부로부터 정권을 인수하려던 몽양과 '건준'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서울에 진주하는 것은 소련군이 아니고 미군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몽양이 곤경에 빠진 것은 그뿐만도 아니었다. 조선총독부와 조선군관구(朝鮮軍管區)의 태도 표변이었다.

조선군은 그해 2월 11일자로 해체되고 대신 조선군관구와 야전부대로 대본영 직할(大本營直轄) 제17방면군이 신설되어 약 23만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38선 이북의 조선군은 관동군 총사령관 예하에 들어갔는데 그 병력은 약 18만이었다. 16일 민세의 방송에 격분한 조선군관구 사령부는 총독의 처사에 항의하여 아베총독은 18일자로 행정권 이양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조선군은 치안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20일 B-29의 전단에 힘을 얻어 그날 오후 5시를 기하여 모든 정치단체와 치안유지단체는 간판을 내리고 해산할 것을 명령하였다. '건준'은 교섭 끝에 간판만은 그대로 남았으나 정부를 수립하려던 몽양은 진퇴유곡이 되어 공산주의자들의 손아귀에 빠져들어 갔다.

소련군의 북한 진주(進駐)는 전광석화 격으로 빨랐다. 8월 9일 참전한 이래 15일 일본이 항복한 후에도 계속 진군하여 이달 말까지는 북한지역을 거의 장악했다. 이에 북한에는 소련 혹은 연안(延安)의 공산 세력이 재빠르게 따라 들어왔다. 이리하여 이땅에는 38선이 그어지고, 남한에는 미군,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련군의 진주로 인하여 북한에서는 민족주의 진영이 행동의 제약을 받았다. 8월 20일께 조만식의 밀명을 허리춤에 끼고 김동원의 서랑(婿郎)이 서울로 올라왔다. 뒤미처 김동원도 따라 올라왔다.

이리하여 고하는 밤낮없이 기꺼워 물려드는 방문객들에게 둘러 싸였다. 고하는 8.15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이제부터 취해야 할 한민족의 자세를 설명하느라고 목소리도 쉬고 몸도 지쳤다.

2. 고하와 몽양

8월 14일 중대 방송의 예고를 듣고 시민은 제각기 구구한 억측을 퍼뜨렸다. 어떤 시민은 소련에 대한 정식 선전포고라는 등, 어떤 시민은 일본 항복이라는 등, 또 어떤 시민은 자치제(自治制) 아니면 독립을 줄 것이라는 등 추측은 실로 구구했다. 그러나 이 방송이 중대방송인 것만은 누구나 다 시인했다. 특수 직위에 있는 사람 외에는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고하는 이꾸다와의 회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낭산이 찾아와 있었다. 낭산을 보기가 무섭게 말했다.

“아마 내일 방송은 무조건 항복일 텐데.....”

고하가 낭산과 의논하고는 저녁에 전 동아일보 기자 곽복산(郭福山)을 불렀다. 그를 부른 것은 서울 용산에 자리잡고 있는 조선군 사령부(朝鮮軍司令部)의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곽복산은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다. 조선군 사령부 고급 군인들은 불을 밝히고 술들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고하는 내일 항복을 한다면 오늘밤쯤 예비검속(豫備檢束)을 해서 학살이라도 하지 않을까 적이 염려했는데, 저들이 술을 먹고 있다니 우선 안심이었다.

고하의 예상대로 이튿날인 15일 정오 일황 유인(日皇 裕仁)의 불투명한 목소리의 '무조건 항복' 방송이 흘러나오므로써 전후 7년을 끌어온 제2차 세계대전은 종막을 고했다.

이로써 한국은 독립이 약속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8.15 해방 직전의 고하와 몽양(夢陽 呂運亨)의 위치와 자세와 정치적인 안목을 대비하여 밝혀 둬으로써 해방 전야의 일제와의 정치적 흥정에 관한 구구한 억측을 해소시키고, 해방후 여러모로 왜곡된 8.15 전후사(前後史)를 옳게 후세에 남길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당시 정무총감이었던 앤도가 후일 작성한 문서에 고하와의 정권이양 교섭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아니한다든가, 또는 설사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구다가 고하를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권이양교섭이라고 보기 어렵다든가, 또는 당시 한국인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최하영(崔夏永)의 회고를 들어보아도 고하를 접촉했다는 김새를 못찾다든가, 또는 고하에게 정권이양교섭을 했다고 하는 견해는 낭산 김준연의 조작이라는 등등 잘못된 견해가 많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하고 설명한 바와 같이 고하는 이 해 8월 10일 이후 전후 4차에 걸쳐 통치권 이양 문제로 총독부측으로부터 교섭을 받았다. 총독부측은 고하와 낭산이 거부하자, 몽양에게로 갔다. 몽양과 총독부측은 어느 정도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일제가 항복 방송을 하던 8월 15일 아침의 일이었다.

이즈음 고하의 집에 묵고 있던 낭산(朗山 金俊淵)이 '엠.엘(ML)당(黨)' 시대의 동지 정백(鄭栢)을 만났다. 정백은 낭산을 만나자 다짜고짜 일제가 넘겨주는 통치권 이양을 고하와 몽양이 합작해서 받는 것이 좋겠다는 합작론을 제의했다.

"몽양도 좋은 지도자요 고하도 좋은 지도자이니, 이 두 지도자가 합작을 하면 여기에 대항할 세력이 없을 거요. 그러니 낭산이 사이에 들어서 합작을 시켜 주시오"

합작 공작의 의뢰를 받은 낭산은 곧 고하에게 전했다.

"나는 그 자들에게 이미 거절을 했는데, 몽양이 와서 합작을 하자고 할 수가 있소. 거, 쓸데없는 소리 그만 하시오"

하고, 고하는 일언지하에 거절하여 낭산은 무색해졌다.

즉시 낭산은 고하의 합작 거절을 전할 것을 겸해서 서울 계동(桂洞) 장일환(張日煥)의 집에 묵고 있는 정백을 찾아가는 길에 창덕궁 경찰서 앞에서 몽양을 만났다.

"고하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하고, 몽양은 고하의 의중을 낭산에게 물었다.

"안 나가겠다 합디다. 나 역시 고하와 같은 심경입니다"

"그럼 좋소. 나 혼자 나가겠소. 공산 혁명으로 일로 매진하겠소"

고하와 낭산의 거절에 몽양은 독단적인 정치 노선을 지향할 것을 이렇게 낭산에게 알렸다. 낭산은 몽양과 헤어져 정백에게로 갔다. 정백은 고하의 거절을 듣고 고하에게 다시 한번 합작할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낭산은 고하에게 돌아와 몽양과 정백의 일련의 합작론을 주고 받고 있는데, 마침 정백으로부터 낭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몽양을 만나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소. 고하에게는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소. 낭산만이라도 꼭 같이 합시다."

이제 낭산도 거취를 명백히 밝히면서 거절했다.

"그러면 좋소. 내일이면 소련군이 들어 올 테니 우리는 정부를 곧 조직하겠소. 나중에 후회가 없겠소?"

정백은 낭산에게 이렇게 다짐하면서 중국 연안의 독립동맹(獨立同盟)과도 연락이 되고 있음을 자랑삼아 덧붙였다.

"나는 정부 조직에 참가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을 테니 안심하십시오"

하고, 낭산은 정백의 요청을 일축했다.

이리하여 고하와 몽양의 합작은 깨어지고, 몽양은 총독부측과 정권을 주고받는 것을 단독으로 협상하고, 드디어는 수락했다. 이어 몽양은 즉시 민세(民世 安在鴻)와 손을 잡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한 것이다.

드디어 이 민족이 꿈속에서도 바라던 8월 15일은 왔다.

일제의 쇠사슬이 끊어지자 그 동안 서로 찾기도 어려웠던 동지들이 물밀듯이 고향을 찾아 들었다. 그중 몇몇 동지들은 고향이 총독부측의 정권 인수 교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몽양에게 세력을 빼앗긴 것처럼 분개하여 그 거절 이유를 힐난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아직 일본이 연합국측에 항복하겠다는 것뿐이지.....일본의 세력은 국내에 엄연히 남아있지 않소. 말하자면 우리에게 일본군이나 경찰을 물리칠 힘이 없소. 이러한 때에 정권을 받는다는 것은 독일 점령 당시의 불란서의 폐탕정권이나 일본에 잡혀있는 필리핀의 라우렐정권이나 무엇이 다른 것이 있겠소. 일본이 정식으로 항복을 이행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정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때가 왔어도,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자기 개인의 정치적 이익에만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오. 연합군이 상륙하고 일본이 정식으로 항복한 후에 연합국과 논의해서 건국을 한다 해도 조금도 늦을 것은 없는 것이오. 더욱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인사만으로 성급하게 정권을 세운다는 것은 오랫동안 국외에서 풍餐露宿(風餐露宿)하던 선배 동지들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오. 더구나 일본 세력이 엄연히 있는 이 때, 그 세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세운다는 것은 일본세력의 연장이며 일본이 잘못된 것을 일본의 뜻을 받들어 뒤치닥꺼리하는데 불과한 것이 아니겠소. 미구에 연합군도 들어오고 해외에 있는 선배 동지들도 귀국하게 될 것이니 그 때까지 마음의 준비와 현상 유지를 하면서 기다립시다”

하고, 고향의 그의 정치적인 식견과 이론을 설명했다.

고향의 이 이론에 대하여 '건준'측에서는 고향의 비겁하기 때문에 나서지 못한다 했고, 또 일부 모략분자들은 고향이 몽양을 가리켜 폐탕이라고 지적한 듯이 떠들어댔다.

불과 수일 후에 미군이 비행기로 빠라를 뿌려 일본 행정 당국으로 하여금 연합군이 진주할 때까지 현상대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을 것을 명령 지시하자 총독부에서 행정권을 인수한 몽양은 딱한 처지에 빠졌다. 일본의 꾀임에 빠져 경솔히 행동을 개시한 몽양은 여기서부터 공산당과 합작을 더 굳게 하고, 또 공산당의 손에 꼭 쥐이게 되었다. 또한 몽양은 군정에 대한 배수진을 치기 시작했다.

해방된 지 이틀째인 17일 오후 2시 몽양은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원동으로 고향을 찾았다. 몽양의 고향방문은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키어 일반은 물론, 신문기자가 떼를 지어 모여 들었다. 고향과 몽양은 비밀리에 단독 회담을 가졌다.

“고향의 나를 폐탕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이었소”

“몽양을 가리켜 한 말은 아니오. 이런 시기에 정권을 물려받으면 폐탕이 되기 쉽다고 했소. 정권은 국내에 있던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연합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이 물러나고, 해외에 있던 선배들과 손을 잡은 뒤에 절차를 밟아서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오. 그 때가 되어 몽양이 생각이 있다면 내가 극력 몽양을 추대할 것이니 지금 정권 수립은 보류했으면 싶소”

“어째서 꼭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정권을 받아야 하오. 고향과 나와 둘이 손만 잡는다면 그만한 세력은 없을 것이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세력도 우리들 속에 흡수될 것이며 해외 인사라고 해도 별로 문제될 만한 사람은 없소”

“의리상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소”

“그러면 그 동안은 국내를 진공 상태(眞空狀態)로 둘 생각이오?”

“내가 보기에는 몽양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오. 그러나 자칫하면 그들에게 휘감기어 공산주의자도 못되면서 공산주의자 노릇을 하게 될 위험성이 없지 않소.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무엇이 되든 두고 보시오”

이리하여 고향과 몽양은 헤어지고 말았다.

회담이 끝나자 고향의 신문기자들 앞에 나타났다. 고향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시사(示唆)하자, 기자들이 불평을 늘어놓았다.

“아무 말도 없다는 것도 훌륭한 인터뷰야”
하고, 이번에는 고하가 기자들에게 응수했다.

고하는 몽양의 합작 요청 거절과 몽양의 내방(來訪)을 전후해서, 평소에 구상하고 있던 정권 인수체제를 ‘국민대회준비회’로 구성하여 몽양의 ‘건국준비위원회’와 정식으로 대립했다. 고하는 이 해 9월 7일 국민대회준비회를 소집했다.

이에 몽양은 고하의 국민대회준비회에 앞질러서 박헌영(朴憲永) 등 공산당과 합작하여, 하룻밤 사이에 ‘인민공화국’을 급조해서 9월 6일 발표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인민공화국의 선포는 고하의 국민대회준비회 소집을 방해하고자 선수를 친 것이었다. 동시에 몽양의 건국준비위원회는 고하를 점차 반동으로 몰고 그를 모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몽양은 그 후에도 고하의 충고를 잊지 못했음인지 여러 사람을 사이에 넣어 악수할 것을 청해왔다. 몽양은 화가 일주(一洲 金振宇)를 중간에 넣고 고하에게 교섭을 했다. 일주는 이미 몽양의 건국준비위원회에 가담하고 있으며 고하와도 가까운 터이었다. 일주는 직접 또는 서면 권고를 하다못해 끝내는 “후일 민족간의 호상출혈(互相出血)이 있게 되면, 그것은 고하의 책임”이라고까지 극언하고 강박했다.

이에 고하는 인민공화국의 불법성을 지적 공박하고는 인민공화국을 해소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 보내면 악수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또 고하는 단념하지 않고 김병로, 백관수, 김준연 등을 여러차례 몽양에게 보내어 자중할 것을 충고하고 민족.공산 양진영의 공평균등(公平均等)한 조직과 협조로 독립운동을 하자고 종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몽양은 고하의 제의를 받아들여려 하지 아니했다. 이리하여 고하와 몽양은 물과 불이 되고, 몽양의 노선과 고하의 노선은 좌와 우로, 그리고 끝내는 남과 북으로 갈리고 말게 된 것이다.

3. 국민대회준비회와 한국민주당의 결성

8월 28일 마닐라에 있는 미군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조선군관구 사령부는 ‘조선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소양군이 분할 점령한다’고 발표했다. ‘38선’이란 말도 이때 처음으로 생겼거니와 남북 분할점령은 일본군의 무장해제가 끝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일 것으로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조선의 분할 점령을 정식으로 발표한 것은 9월 2일이였다.

한편 8월 22일 평양에 진주한 소련군은 적군 사령부(赤軍司令部) 명의로 ‘조선인민에게 주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각도에 인민정치위원회(人民政治委員會)를 조직하여 이를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의 관할 아래 두고 공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남한의 공산당에게 지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38선 이북에서는 소련군의 약탈.강간.폭행으로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소식이 날로 들려오고, 시달리다 못하여 남으로 내려오는 월남(越南) 대열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도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중상모략이라고 잡아떼고 소련군을 약소민족의 해방자(解放者), 심지어는 구세주(救世主)라고 떠들어대기도 했다. 연합군에 앞서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에 힘입은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적화망상에 광분했고 몽양은 이들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다.

고하는 총독부의 정권수수(政權授受) 교섭을 받았을 때와, 평양 조만식이 행정권 인수에 관하여 문의하여 왔을 때, 그리고 여러 지방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답변은 한결같았다.

“개인이 받을 수 없소. 연합군과 민중만이 정권을 줄 수 있지, 일본 정부나 한 개인이 정권을 주고 받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오”

이와같은 고하의 주장에 반하여, 몽양은 총독부와의 협상이 이루어지자,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시위와 방송으로 민중을 선동하기에 이르렀다.

“소련군이 서울역에 입성하니 환영하러 가자.....”

‘건준’은 8월 17일 배라를 뿌려 갈피를 잡지 못하는 민중을 선동하여, 군중을 이끌고 서울역으

로 환영을 나갔다. 몽양은 백상규(白象圭), 최근우(崔謹愚) 등을 시켜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니, 고하도 같이 나가자고 권고해 오기도 했다.

“몽양은 영어도 잘하고 하니, 혼자 가는 게 좋지 않은가.”

하고, 고하는 몽양의 권고를 뿌리치기도 했다. 물론 미군도 소련군도 오지 않았다.

미군 환영을 함께 나가자는 권고는 여러가지 음모가 내포된 것이기도 했다. 그 음모는 고하의 형안(炯眼)에 가볍게 일축되었다.

이와같은 크고 작은 선동과 모략이 꼬리를 이었고 해방이란 기쁨기만 한 흥분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이에 근촌과 가인은 '건준'의 선동과 모략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몽양과 민세를 찾았다.

“지금 '건준'식으로는 아무 것도 되지 않을 것 같으니, '건준'을 해체하고 민중대회를 열어서 위원 33명을 뽑아 이를 운영케 함이 어떻소”

하고 근촌과 가인은 몽양에게 타협안을 제출했다. 전 민중에게 끼치는 영향이 너무도 걱정이 되어서 한 행동이었다.

이 타협안에 몽양과 민세는 즉석에서 찬성을 했다. 그들이 찬성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고하를 포섭해 보자는 욕심에서였다.

이 안(案)에는 고하도 찬의를 표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었다. 그 33인의 인선(人選)을 이쪽에 맡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몽양은 이미 공산당에 둘러싸여 본의 아닌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여서, 고하의 요망을 박차고 '건준' 중심의 33인 위원 명단을 제시했다. 그것을 고하가 들을 리 또한 만무했다.

근촌과 가인 등은 다시 타협안을 제출해서 위원을 70여명으로 확대 구성하자고 했다. 몽양은 또 승낙했다. 몽양은 돌아가서 이번에도 그 70명의 대다수를 전과 같이 자기 사람으로 구성해 버렸다. 또 깨어지고 말았다.

그래도 가인은 단념하지 않고 고하에게 몽양과의 타협을 종용했으나, 끝내는 듣지 않았다. 고하는 보수와 진보 두 세력을 합작시킴으로써 건국대업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가인과 근촌의 운동에 대하여서는 일단 중지부를 찍게 하고, 어떠한 조건이라도 건준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과는 타협하지 않을 것을 결심했다. 고하는 몽양의 두번 배신에 지친 것이다.

이렇게 몽양이 완전히 공산당과 합작해 버리자, 민세는 몽양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건준'을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민세의 탈퇴에 일반 민중도 '건준'에 대하여 전과는 달리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비판을 가지게 되었다.

몽양이 공산당과 합작을 해서 이른바 인민공화국 정부를 조직하는 동안, 고하는 국민대회를 열 준비를 갖추었다. 그가 이 국민대회를 계획한 것도, 민중의 의사를 존중하여 민중의 총의와 신임을 토대로 정권 인수요건을 갖추기 위해서였다. 몽양의 '건준'의 선동 정치로 인해서 민심이 흥흥할 때, 민족주의자와 일부 보수세력,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수많은 민중에게 행방의 지침을 주기 위한 실천이었다.

우선 고하는 국민대회 결성강령(結成綱領)을 내세웠다.

- ① 연합국에 감사를 드린다.
- ② 국민대회를 열어서 해내.해외의 민족 총역량을 집결한다.
- ③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 (3.1운동의 法統)을 지지한다.
- ④ 보수.진보 두 갈래의 정당을 만들어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정당정치를 실현한다.

이와함께 국민대회준비회의 첫단계 사업을 제시했다.

- ① '건준' (인공)이 공산당과 그 동조자들의 모체(母體) 역할을 하는 데 대하여 국민대회준비회

- 는 민족진영의 모체 역할을 한다.
- ② 해외에서 한국하는 지사와 동포에게 편의를 베푼다.
- ③ 연합군정(聯合軍政)에 대한 국민의 대변을 한다.
- ④ 민심 안정과 치안 유지에 협력한다.

등이 그것이었다.

고하는 곧 국민대회 발기인 선정에 분망했다. 국민대회준비회 구성은 여기에 모일 수 있는 민족진영 뿐만 아니라, 진보적 진영의 대표적 인물도 총망라하기로 했다. 우선 3.1운동 이후 꾸준히 고난을 참고 지조를 지켜온 권동진(權東鎭), 오세창(吳世昌) 두 분을 준비회 고문으로 추대하여 승낙을 얻고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지도층 인사를 서울로 불러들이기로 했다. 평양의 조만식(曹晩植)에게는 안동원(安東源)을 파견키로 하고 (실현되지 못함), 대구의 서상일(徐相日)에게는 서상국(徐相國)을 파견했다. 이번에는 고하 스스로 나서서 서울에 머물고 있던 유림의 대표적 지도자 김창숙(金昌淑)을 그의 여사(旅舍)로 방문하여 고문으로 추대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좌파의 홍명희(洪命熹)와 공산주의자 김철수(金綴洙) 등도 찾아 협력을 요청했다. (이때 홍명희와 김철수는 거절했다)

국내의 준비위원이 구성된 뒤, 고하는 해외에서 아직 한국하지 못하고 있는 선배나 동지 중 이승만(李承晩), 김구(金九), 이시영(李始榮), 김규식(金奎植) 등 대표적 지도자들이 귀국하는대로 교섭하여 찬동을 얻는다는 방침까지도 세웠다.

이러한 고하의 구상과 실천방법에 민족주의 진영의 일부인사는 의견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의심을 품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고하는 점차적인 포섭 방침을 세우고 연합군이 서울에 진주한 다음날인 9월 7일 국민대회준비회를 결성했다. 사실 고하는 이에 앞서 9월 4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연합군 환영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권동진, 부위원장에 김성수.허헌을 위촉한 바 있었다. 9월 7일 동아일보사 3층 강당에서 개최된 국민대회준비회는 9월 4일에 조직한 환영준비위원회의 발전적 확대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대회준비회는 임원 선출 결과, 위원장에 고하, 부위원장에 서상일(徐相日) (발기인 총회 때의 의장), 고문에 권동진(權東鎭).오세창(吳世昌).김창숙(金昌淑), 각부서 책임자는 총무에 김준연(金俊淵), 외교에 장택상(張澤相), 조사에 윤치영(尹致暎), 조직에 송필만(宋必滿), 정보에 설의식(薛義植), 경호에 한남수(韓南洙), 그리고 김동원(金東元).안동원(安東源).최윤동(崔允東).이정래(李鼎來).이순탁(李順鐸).고재욱(高在旭), 강병순(姜柄順).김지환(金智煥) 등으로서 각계 각층에서 고하와 뜻을 같이 하는 인사가 망라되었다. 그리고 정식으로 국민대회가 소집될 때까지의 실행 책임자로는 고하를 비롯하여 서상일.김준연.장택상.윤치영.김창숙.최윤동.백상규(白象奎, 이때 몽양의 '건준'에서 전향하여 '국민대회'에 참가) 등을 선출했다.

국민대회준비회가 무사히 끝난 직후인 9월 7.8 양일 간에 걸쳐 중국 기자와 프랑스의 공산계 기자가 고하와의 회견을 요청해 왔다. 이들은 연합군을 따라서 종군한 외국 기자들이었다. 이때 정래동(丁來東)의 통역으로 진행된 중국 대공보(大公報)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추려 본다.

“우리 임정 요인(臨政要人)들께서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시요?”

고하의 물음에 기자는 임정 요인의 거처에 관하여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신문기자는 그만한 것쯤은 알고 있어야지.....”

라고, 고하는 기자를 나무랐다. 이에 기자는 화제를 바꾸어 고하에게 국내 문제를 물어 봤다.

“선생께서 이 정국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되리라고 믿으십니까?”

“난 하루 이틀에 안정이 되리라고는 믿지 않소. 그 이유로서는 국내에는 미(美).소(蘇)의 두 세력이 들어올 것이요. 국내에도 많은 유파(類派)가 있어서 동상이몽(同床異夢)을 꿈꾸고 있으니까

더욱 그렇소. 귀국도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그렇지요. 귀국도 자리가 잡히자면 한동안 국.공(國.共)간에 마찰이 있을 거요. 모택동(毛澤東)은 지금까지 국민정부군만 싸움을 시켰지, 저희들이야 어디 싸움을 했던가요. 싸움합네 하고서는 저들의 실력만 길렀으니까. 또 귀찮게 되리다. 그러나 우리는 귀국보다는 간단하지요. 아직 무기가 없으니까.”

“조선 안에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두 세력이 알력이 심하고 또 공산 세력이 매우 우세한데, 이에 대한 귀견은?”

“우리나라의 공산 운동은 전통적으로 항일의 수단이었지, 공산화가 목적은 아니었소. 지금 일부 민중이 따라가고 있으나, 민족진영이 한 개의 신문이라도 갖게 되면 곧 돌아서게 할 수 있소.”

“조선은 오랫동안 식민지생활을 했으니 얼마동안 신탁통치를 받는 것이 어떨까요?”

“천만의 말씀이오. 우리에게는 비록 식민지교육이라 할지라도 전문학교이상 대학교육을 받은 한국인이 많고 해외에서 항일투쟁을 해 온 혁명세력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고 그럴 필요는 조금도 없으니 염려마시오.”

고하는 이와같은 자신의 정치적 식견을 일문일답에 피력한 다음, 프랑스의 좌익계 통신 기사를 향해 프랑스 공산당의 위치와 자세를 묻기도 했다.

“귀국 공산당은 어디에 속하고 있소?”

고하의 물음에 프랑스 기자는 한참만에 무슨 뜻인지를 알아채고 대답했다.

“프랑스에 속하고 있지요.”

“아니 소련 공산당의 지휘를 받지 않소?”

“천만에 말씀..... 우리 프랑스 사람을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공산당이지 소련을 위한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소.”

고하의 이 질문은 소련을 조국으로 떠받드는 조선 공산당을 비유해서 한 말이었다.

고하는 그때 이미 기자들이 말하는 일인이 소유하였던 재산의 처리 문제에 대하여서도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항간에서는 그러한 재산을 적산(敵産)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타당치 못하오. 우리 백성의 고향(膏血)을 뽑아서 세운 집이요, 시설인데 그것이 우리 것이지 어째서 적산이오? 멀지 않은 장래에 일본은 또다시 회복이 될 것이니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하루라도 먼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할 것이요.”

하고, 고하는 강조하였다.

한편 몽양은 국민대회준비회 결성식을 전해 듣고, 그 전날 밤으로 공산당과 합작해서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급조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몽양은 ‘인공’조각(組閣)의 명단을 발표했다.

▲ 主席=李承晩 △ 副主席=呂運亨 △ 首相=許憲 ▲ 內務=金九 ▲ 外務=金奎植
▲ 軍事=金元鳳 ▲ 財政=曹晩植 △ 保安=崔容達 ▲ 司法=金炳魯 ▲ 文教=金性洙
△ 宣傳=李觀述 △ 經濟=河弼源 △ 農林=康基德 ▲ 遞信=申翼熙 △ 勞動=李胃相
△ 書記長=李康國 △ 法制局長=崔益翰 △ 企劃局長=鄭栢 (▲는 명의 도용)

이상은 최초로 ‘인공’이 조각 발표한 소위 벽보 내각(壁報內閣)이다.

“셋이 잘 만났군.....”

하고, 고하는 ‘인공’조각에 대해 못마땅해 했다. 셋이란, 몽양과 민세, 그리고 박헌영이다. 민세와는

해방 직전 일본 정부와의 협조 문제로 언쟁을 한 사이였고, 박헌영은 일찍이 동아일보 판매부 사원으로 있던 일도 있어서 대개는 짐작하는 인물이었다.

“이념이 아니고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해 관계로 헤어진다.”

라고, 고하는 몽양과 민세, 박헌영의 오합(烏合)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인공’은 더욱 치열하게 선전과 중상 모략을 일삼았다. ‘인공’에 추종하는 문인·논객들은 그들의 붓끝으로 고하를 헐뜯기에 바빴다.

“고하는 비겁하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패망한 일정의 뒤에 오는 진공 상태를 방치하여 무질서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건준’과 합작을 거부한 반동 세력인 고하의 책임이다.”

이렇게 그들은 신문이나 잡지, 또는 선전 배라로 고하를 모함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모략 선전은 고하의 국민대회준비회와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을 공격하는 자료로 남아서, 표면상 공산당이 없어진 훨씬 후일에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보수세력 즉 그들이 입버릇처럼 내세운 소위 ‘반동’세력 때문에 건국이 늦어지고 나라가 분단된 것처럼 선전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8.15 해방부터 9.7 미군 진주까지의 국내 정파(政派)로서 뚜렷한 것으로는 몽양을 중심으로한 건국준비위원회와 고하를 중심으로 한 국민대회준비회가 있었다.

그러나 미군이 진주하여 군정이 선포되고 사령관 하지중장이 군정만이 유일한 정부임을 밝힌 뒤를 이어, 정당·사회단체의 각파 대표자들을 만날 것을 요청하자,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정당과 사회단체가 생겼다. 공산주의 진영에서, 민족주의 진영에서, 또 중간 노선을 표방하는 회색분자들도 많은 정당과 사회단체를 만들었다. 뒷날 고하가 하지와 친숙해지자 “장군은 ‘파아티 메이커’(政黨製造者)가 아니냐”고 농담을 할 정도로 정당과 사회단체가 난립했던 것이다.

이 무렵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대체로 네개의 그룹이 있었다. 첫째는 백관수(白寬洙).김병로(金炳魯).홍성하(洪性夏) 등을 중심한 기호파(畿湖派)로서 일명 원남동 내각이라고도 불리운 신간회 우파(新幹會右派)중심의 모임이었고, 둘째는 장덕수(張德秀).김도연(金度演).허정(許政).조병옥(趙炳玉).윤보선(尹潽善).이영준(李榮俊).윤치영(尹致暎) 등을 중심한 해외파(海外派)로서, 주로 미·영 유학생 시절부터 우남(雲南)을 따르던 인사들의 모임이었고, 셋째는 원세훈(元世勳).김약수(金若水).박찬희(朴瓊熙) 등 북풍회(北風會)와 화요회(火曜會) 중심의 그룹이 있었고, 넷째로는 백남훈(白南薰).함상훈(咸尙勳) 등을 중심한 황해도 그룹이 있었다.

위의 네 그룹은 각기 별로 색다른 이념의 차이를 찾아볼 수 없는 모임이었다. 그래서 네 그룹을 합치면 큰 세력을 형성할 것 같다고 해서 하나로 뭉치는 운동이 전개되고, 가인(街人 金炳魯)이 동분 서주한 끝에 연합형성(聯合形成)에까지 이르렀다. 연합체를 형성하고 보니 영도자가 필요했다. 중론은 고하에게 집중되었으나 고하는 아직 정당 조직의 시기가 아니라고 하여 극력 반대했다. 국민대회 주류파(主流派)에서도 반대의 기치를 드는 동지들이 있었다. 정당은 정부가 조직된 다음에 서서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련이 이북에 진주하고 미군이 이남에 진주한 뒤, 각각 미·소가 남북한에서 군정을 실시하면서 국내 정세는 백팔십도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에 고하는 공산당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민족 진영 정당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정치를 하기 위한 정당 조직에 앞서, 조직을 통해 민족 진영의 단결과 민중 계몽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바쁘게 서두른 결과 드디어 9월 16일 서울 경운동(慶雲洞) 천도교 기념관(天道教紀念)에서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 속칭 한민당)의 결성을 보았다. 백남훈의 개회사, 김병로의 임시의장 피선, 이인의 경과보고, 조병옥의 국내외 정세보고, 원세훈의 정강정책 설명, 설산의 당원선서 등을 거쳐 8.15 해방으로부터 1개월만에 민족진영을 통합한 대정당이 출범하였다. 각 그룹에서는 고하를 당수로 추대할 뜻을 내세웠으나 고하는 이를 고사하고 수석 총무(首席總務)로 취임했다. 고하가 당수를 사양한 것은 아직 환국하지 못한 해외 망명객중 구국운동의 선구자인 우남 이승만(雲南 李承晩)과 백범 김구(白凡 金九)를 추대할 목적에서였다. 그래서 정책적인 면을 주로 담당하

는 수석 총무에 취임할 것을 고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고하는 명실상부한 당수였다.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은 이때 그 정강 정책(政綱政策)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① 민주주의 국가의 건설.
- ② 토지제도의 개혁, 특히 경자 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토지소유제도의 합리적 편성.
- ③ 국민 경제생활의 균등화.
- ④ 특수한 국가적 요청이 없는 한 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채택.
- ⑤ 언론.집회.결사.종교의 자유.
- ⑥ 중소기업의 육성.
- ⑦ 의무교육제도의 확립.

등을 내세우고, 또 이 밖에 문화.교육.외교.군사 등 광범위한 정책을 내걸었다.

정치가로서 고하가 가졌던 생각의 일부를 소개한다. 그는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지도부(指導部)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끊임없는 감시가 작용하고 지도부가 잘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감시가 복원력(復元力)으로서 기능을 다하게 된다. 그러나 소위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와 같은 무산자 독재하에서는 잘못된 지도부라고 해도 절대적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지도부 내에서의 궁정혁명(宮廷革命)에 의하여 복원되던가 아니면 조직전체가 모두 와해되기까지 복원되지 못하던가의 두가지 길밖에 없다고 하면서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또한 평등주의는 철학적 또는 사상적으로 환경주의이므로 그 의도하는 바가 인도적으로 아름다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어느 정도를 넘어 주장하는 경우 예컨대 사회계급의 폐지를 넘어서 산술적 평등을 요구하면 그것은 넨센스가 되고 만다. 균등(均等)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고 한 바 있다.

고하는 당내의 인화(人和)와 인재(人材)의 균형된 배치에 마음을 썼다. 우선 당 고문에 권동진(權東鎭).오세창(吳世昌).김창숙(金昌淑)을 응립했다. 그리고 당 운영은 집단 지도제를 채택하고 각 계 각층과 지방당까지 총망라한 8인 총무제(總務制)를 구상하여 실천에 옮겼다. 수석 총무(首席總務)에 고하, 그 외에 총무로서 김도연(金度演 경기).서상일(徐相日 경북).허정(許政 경남).백관수(白寬洙 호남).백남훈(白南薰 황해).김동원(金東元 평안).조병옥(趙炳玉 충청).원세훈(元世勳 함경)과 감찰위원장(監察委員長)에 김병로(金炳魯)를 선임했다. 총무 이외에 각 부서 책임자에는 외무에 장덕수(張德秀), 당무에 이인(李仁), 문교에 김용무(金用茂), 노동에 홍성하(洪性夏), 조직에 김약수(金若水), 선전에 함상훈(咸尙勳), 재무에 박용희(朴容喜), 후생에 이운, 정보에 박찬희, 조사에 유진희, 연락에 최윤동, 청년에 박명환, 지방에 조현영, 훈련에 서상권.윤치영.이활.구자옥.최순주.윤홍섭.박용하.이상은.문장욱.윤보선(尹潽善).이영준(李榮俊).송필만(宋必滿), 등 제제다사(濟濟多士)에게 위임했다. 이 밖에 민족 진영의 젊은 인사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한편 고하는 국민대회준비회를 해체하지 않고 존속시켰다. 그것은 해외 망명 동지들이 환국한 다음에 완전 독립의 총협의체(總協議體)로 재편성하여 활용할 심산에서였다.

그리고 고하는 당자금(黨資金) 조달에는 이영준(李榮俊), 안동원(安東源) 등 여러 인사를 통해 유지들의 찬조를 받는 외에 서상일(徐相日) 총무의 의견을 채택하여 백만 당원에게 한 사람당 연회비(年會費) 10원 이상을 징수하고 최저 2천만원의 당 기본금을 조달할 것을 계획.실시했다. 모아진 당비는 독립될 때까지는 독립운동자금으로 간주했다. 이 제도와 구상은 고하 생전에는 큰 성과를 못보았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 부패를 막기 위한 자주적 자금조달 방법이었다.

재정의 기반이 서자 고하는 당사(黨舍)를 일인 학교였던 종로국민학교(鍾路國民學校=지금 삼양식품주식회사 자리)로 정하고 사용하다가 그 학교가 개교를 하게 되자 서울 광화문 전 동아일보 사옥(이때는 동아일보가 다시 발간되기 전임)으로 옮겼다.

한국민주당이 창당된 바로 뒤, 임영신(任永信)은 한민당의 이념에 동조하는 여성 참정권의 가치를 들고 여자국민당(女子國民黨)을 조직하여 그 당사를 한민당사 안에 두고 공동 전선을 폈다.

고하를 중심으로 한 한민당이 결성되면서, 국내 민족 진영은 드디어 하나의 단결된 힘을 갖고 점차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전후한 이해 10월 10일 미군정은 '인공'부인(人共否認)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인공'이 무너지면서 몽양을 중심으로 한 인민당(人民黨)과 민세를 중심으로 한 국민당(國民黨)이 조직되었다. 이리하여 박헌영 등의 '공산당(共產黨)'을 포함하여 이 땅에 8.15 이후 4대 정당이 형성되었다.

이에 언론 기관에서는 4대 정당 영수로 하여금 방송을 통해서 각자의 정강정책과 주장을 국민에게 밝혀서 국민의 계몽과 이해 증진을 도모하자는 제의가 있었다. 이것은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자는 현상 타개책이기도 했다. 언론 기관의 방송 제의에 정당 사회단체는 대찬성이었다. 이리하여 몽양은 인민당을, 민세는 국민당을 각각 대표해서 방송했고, 공산당은 박헌영을 대신하여 정태식(鄭泰植)이 방송했다. 정태식의 방송은 소련 예찬과 한민당 공격으로 시종 일관하였다.

한민당을 대표해서는 고하가 방송했다. 고하는 허락된 30분간 차근차근 민족의 대의(大義)와 민족의 향방(向方)을 제시하고, 이 나라의 난맥(亂脈)을 파헤쳤다. 고하가 방송하는 동안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방송국 안에 '인공' 계열이 있어, 전파를 흐리게 하는가 하면 청취자가 알아듣지 못하게 잡음을 섞는 일도 있었고, 또한 배정된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갖은 방해로 다했던 것이다.

고하가 한민당을 조직함에는 사상이나 주의 또는 일제하에서의 행적을 초월한 민족대동(民族大同)에 역점을 두고있었다. 어느 부일(附日) 인사의 아들이 입당을 자원했다. 당내 일부에서는 반대했으나 고하는

“적 치하에서는 본의 아니게 과오도 있을 수 있다. 모두 한데 뭉쳐서 독립에 힘써야 할 때에 거절할 이유가 없다.”

고 말하고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당에서는 당보(黨報)발행 준비를 위하여 거액의 자금이 필요했다. 누구도 그 많은 금액을 갑자기 염출할 수는 없었다. 모두 고민하고 있을 때 고하는 말썬이 된 바 있던 부일 인사에게 서찰을 보낸 바 곧 소요되는 거액을 얻어올 수 있었다. 그제서야 반대하던 인사들도 고하의 깊은 사려에 감복했다.

한민당 시절의 고하의 별명은 '호랑이'라 불렀다. 주권의 정립(正立), 먼 앞을 내다보는 형안,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끝까지 관철하는 실천력, 그리고 과단성 있는 지도력 등등 고하의 깊이 있는 정치역량에서 연유한 별명이라 하겠다.

4. 미군정과 동아일보 복간

8.15 직후부터 진주한다던 미군은 그 해 9월 6일 인천에 상륙, 즉시 경인가도(京仁街道)를 달려 서울에 입성했다. 고하는 전 동아일보 사옥에서 미국 진주의 광경을 회심(會心)의 미소로 맞이했다.

당일 오후 2시 조선 총독 아베(阿部信行)와 재조선 일본군 대표(在朝鮮日本軍代表)로부터 항복조인을 받은 미군 사령관 하지중장은 조신히호텔에 여장(旅裝)을 풀고, 국내외 기자 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일 하지는 한국의 정당.사회단체 지도자들을 조신히호텔로 초청하고 회담을 가졌다. 고하도 초청을 받았다.

막상 고하가 조신히호텔에 나가 본즉, 회의장은 건준 계통의 유명 무명의 정객으로 득실거렸다. 이 광경을 본 고하는 비위에 거슬려서 그대로 돌아오고 말았다.

하지 중장 휘하의 제24군단은 원래 일본 본토에 진격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의 항복으로 조선에 진주한만큼 조선에 관한 지식은 거의 백지였고, 행정에 대한 준비 역시 백지였다. 거기다가 그는 정치적 소양도 부족했다.

고하가 돌아온 뒤 몽양, 민세 등은 하지중장과 요담을 가졌다.

“송진우씨가 오거든 내게 좀 소개해 주시오.”

하고, 하지는 몽양에게 고하를 소개해 줄 것을 의뢰했다. 하지는 이미 한국 지도자들에 관한 예비 지식을 갖고서 몽양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고하는 수일 후에 하지와 연락이 잦은 임영신(任永信)을 중간에 세워 회견을 희망했다. 고하와 하지와의 회담은 설산의 통역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고하는 하지에게 군정의 성격에 대하여 물었다. 하지는 고하에게 한국 정세를 타진하고 자신의 포부와 의견을 제시했다. 첫회담에서 하지는 고하의 의견에 찬동하고 심취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하지는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다.

고하와 하지와의 회담 이후 그때까지도 하지의 정치고문 베히중위(中尉)를 싸고 돌던 ‘건준’과 미군정과의 관계는 점차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인공’은 송진우씨도 승인한 것입니까?”

하고, 하지는 몽양을 불러 비꼬아 묻기도 했다.

이에 ‘인공’과 공산당은 서울을 비롯한 지방조직 등을 통하여 고하와 민족진영 그리고 미군정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미군정은 물러가라. 인민의 총의로서 이룩된 ‘인공’을 승인하라, ‘인공’에 정권을 넘겨라.....”

등의 요구와 결의, 또는 통고문 등으로 뼈라를 만들어 도시와 촌락에 뿌렸다. 그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군정을 방해하고, 고하와 한민당 그리고 민족진영에 대한 중상을 일삼았다.

이러한 ‘인공’측의 반미(反美) 행동이 노골화하자,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은 10월 10일 ‘인공’부인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남한에는 오직 군정부(軍政府)가 있을 뿐이다. 조선 인민공화국이니, 가칭 내각이니, 혹은 국민 전체를 대표했다고 선전하는 사기 행동을 조종하는 연극을 목인할 수는 없다. 더욱이 1946년 3월 1일에 18세 이상의 남녀에게 선거권을 주도록 인민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 등은 자유민에게 신성한 투표권을 유희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언동을 일삼는 사이비 정치가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아놀드의 성명에 ‘인공’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인공’은 여러 차례 미군정에 협상을 제의했으나 그때마다 거절을 당했다. 그리하여 일어난 것이 반미(反美) 운동과 반군정(反軍政) 항쟁이었다.

‘인공’의 반미 운동과 반군정 항쟁이 치열해지자 미군정측은 ‘인공’계열 중심에서 고하의 한민당과 민족진영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다. 미군정측의 고하에 대한 신임은 점차 두터워가기만 했다.

이에 고하는 미군정의 고문이 되고 미군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고하의 미군정에 대한 협력은 미군정을 도와서 정부 수립시에 필요한 행정과 사법, 입법의 민주주의 절차를 배우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고하는 동지들의 군정 참가를 지지하고, 후원했다. 동시에 해외에 있는 망명 정객들의 환국(還國) 편의를 위하여 군정과 절충하기도 했다.

이즈음 하지는 그의 군정 고문 윌리엄스대령을 통하여 고하에게 군정 요직 중 가장 중책인 경찰 책임자의 추천을 요청해 왔다. 이튿날 고하는 윌리엄스를 자택으로 초대하고 유석(維石 趙炳玉)과 원세훈(元世勳)을 불러, 저녁을 같이 하면서 시국 수습책을 종합 검토한 후에 유석에게 경무부장 취임을 종용했다. 이리하여 유석은 치안 책임자로서 민족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파란 많은 대공 투쟁(對共)을 선두에서 지휘하게 되었다.

후일 미군정 기간동안에 한민당에서 군정 요직을 전부 맡은 것 같은 인상을 일반이 갖게 된 것은 '인공'등 반민족계열의 악선전에 기인한다. 사실 한민당에서 군정 요직을 차지한 것은 유석뿐 이었고 기타는 거의 미국 영국 등에 유학하여 영어를 하는 지미(知美), 지영(知英)파였던 것이다.

유석의 경무부장 취임 직후인 10월 10일, 고하는 한민당 주최로 연합군(미군) 환영회를 중앙청 광장에서 가졌다. 시간적으로 늦은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인공'과의 투쟁 때문에 어찌하는 수 없었다.

하루는 고하를 만난 하지가 정치 자금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다.

"정치 운동에 자금이 필요하시면 자금을 제공해도 좋겠는데 어떠시오."

하면서 '인공'측은 정치 자금이 풍부한데 한민당측은 '인공' 같이 넉넉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고하에게 물었다.

'인공'에 정치자금이 풍부한 것은 일제하에서의 친일 축재자들이 집중적으로 헌금했기 때문이다. '인공'측은 여운형의 행정권 이양, 인공내각 조직 등 당장 공산당 천하가 된 양 기고만장했다. 그들은 친일 축재자들을 협박하기도 했고, 축재자들은 보신책으로 자진 헌금하기도 했다. 투명하지 못한 정세의 전망은 축재자들을 더욱 허약하게 했다. 반비례하여 우익진영에게는 너무도 비협조적이었다.

"독립 운동의 자금은 넉넉하오. 조선 사람은 독립 운동의 자금이라면 얼마든지 제공할 것이오." 하고, 고하는 하지의 정치자금 원조 제의를 첫마디에 거절하였다.

이번엔 하지가 헌법 문제를 가지고 그의 의견을 개진했다.

"지금 우리는 한민족의 군정 참여를 훈정기로 보고 있는데..... 미구에 독립이 될 테니 중요한 법률안을 기초하여 두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특히 헌법 초안을 기초해 두시면 어떻습니까?"

하지의 권고로 고하는 곧 헌법기초(憲法起草)를 측근의 동지 김병로(金炳魯), 김준연(金俊淵), 이순탁(李順鐸), 강병순(姜柄順) 등에게 위촉했다. 이 헌법 초안은 고하가 별세한 후 반년을 지나서 완성을 보게 되었다. 나중의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초안과 큰 차 없는 것이었다.

당시 미군 진주를 전후하여 큰 도시에서는 재빠른 일부 실업가들 중에 종래에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위안업(카바레, 댄스홀 등)의 영업 개시를 꾀하는 이가 있어 유지들 사이에는 풍기 단속상 그 곤란한 점을 들어 심히 반대 의견을 들고 나오는 이가 많았다.

"전쟁을 하러 온 군인에게 성인 군자(聖人君子)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오. 차라리 일반 시민들의 출입을 제한하더라도 그들에게 위안과 오락을 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폐단이 적을 것이오."

하고, 고하는 반대 의견을 받아 넘겼다.

정치가로서의 고하의 일면과 인간으로서의 그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말이다.

이와같이 고하는 미군정을 적극 돕는 한편, 서울 주재 소련 영사 싸부신을 초대하여 한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도 했다.

고하가 하지나 싸부신 또는 외국 기자를 만났을 때의 통역은 영어에 장택상(張澤相)과 윤치영(尹致暎), 중국어에 정내동(丁來東) 그리고 노어에 고창일(高昌一)이 담당한 바 있다.

이 무렵을 전후해서 고하는 대공 투쟁의 선봉 역할을 담당할 민족진영의 언론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시급한 과제였다.

해방을 맞아 좌익계열은 재빨리 경성일보(京城日報)와 근택인쇄소(近澤印刷所)를 점령하여 좌익계 신문들이 이 나라의 언론계를 휩쓸고 있었다. 경성일보의 시설은 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와 매일신보(每日新報)를 찍어내던 곳으로 당시는 유일무이한 신문사 시설이었고, 근택인쇄소는 일본인이 경영하던 최대의 민간 인쇄시설이었다.

해방과 함께 건준은 매일신보를 접수하여 적색신문(赤色新聞)을 발간하니 사원들은 과거 총독부 기관지에 근무한 전력의 죄책을 느끼고 맹목적으로 충성을 다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좌익지(左翼

紙)가 등장한 것은 9월 8일 인공기관지(人共機關紙)로 창간된 조선인민보(朝鮮人民報 - 金正道)와 9월 19일에 창간된 조선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解放日報 - 共產黨 中央委員會)였다. 그밖에 좌익 지로는 영자(英字) 서울타임즈(閱瑗植.南廷麟, 9월 6일 발간), 경성일보(京城日報, 10월 4일 발간), 자유신문(自由新聞 - 李貞淳.鄭寅翼.李源榮, 10월 5일 발간), 조선문예신보(朝鮮文藝新報 - 高泰萬, 10월 24일 발간) 및 중앙신문(中央新聞 - 金亨洙.朴鍾洙.黃大關.李相昊, 11월 1일 발간) 등이 있었다.

이처럼 기선(機先)을 잡고 이 나라 언론을 장악한데 반해서 우익지(右翼紙)로는 영자(英字) 코리아 타임즈(李卯默.金永義, 9월 5일 발간), 민중일보(民衆日報 - 張道斌, 9월 22일 발간), 신조선보(新朝鮮報 - 梁在廈.南相國.金濟榮, 10월 5일 발간), 대공일보(大公日報 - 孫泰極.申景鎬, 11월 3일 발간), 조선일보(朝鮮日報 - 方應謨, 11월 23일 발간) 및 대동신문(大東新聞- 李鍾榮, 11월 25일 발간) 등이 있었으나 그 영향은 너무도 미미했다.

매일신보는 좌경한 사원자치위원회(社員自治委員會)에서 운영하여 오다가 10월 2일 미군정청에 접수되어 그 관리 아래에 11월 25일자로 제호를 '서울신문'으로 고쳐서 속간하였으나 실질적인 운영권은 여전히 좌익의 수중에 있었다.

이무렵 언론계에 침투한 좌익분자들은 수적으로 우익계보다 월등 우세했다. 당시 각 신문사에는 기자중에 공산당 푸락치 또는 좌경(左傾)한 기자가 곳곳에 끼어있어서 경영진이나 사시(社是)는 아랑곳 없이 기사를 그들 나름대로 썼던 것이다. 경영진의 동조 여부는 알 수 없고 다만 기사 논조(論調)에서 색채를 말하는 것이다. 10월 23.4일 양일간에 걸쳐 YMCA 강당에서 24개 신문사 250명의 기자가 참석한 이른바 전조선 신문기자대회(全朝鮮新聞記者大會)가 열렸다. 조선통신(朝鮮通信) 이종모(李鍾模)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 첫날은 아놀드 군정장관의 축사(대독)도 있었고, 이승만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축사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좌익 주도하에 강령.규약(綱領.規約) 등을 채택했고 예정된 각본대로 조선신문기자회(朝鮮新聞記者會)를 결성했다. 또 다음날은 이른바 인민공화국 지지를 일사천리로 결의했고, 반년후의 2차대회에 가서는 북한땅에 진주한 소련군의 만행을 보도한 신문을 규탄하는 결의까지 하는 형편이었다. 이에 대항하여 민족진영의 조선기자협회(朝鮮記者協會)가 결성되었다.

이와같은 정세아래에서 고하는 그 해 11월 중순 하지와 회견하는 자리에서 동아일보의 복간(復刊)을 요청하여 허가를 얻었다. 강제 폐간된지 5년만에 중단을 본 동아일보는 흡사 적전상륙(敵前上陸)이나 다름이 없었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복간이 늦은 것은 인쇄시설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서울시내의 신문인쇄시설들은 좌익계가 독점하여 버렸고, 그들은 동아일보의 중단을 방해하고자 직접 간접적으로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활판(活版)으로 만들어 낼 수도 없었다. 늦게나마 나오게 된 것도 경성일보사가 군정청의 관리하에 들어간 후 그 일부 시설을 빌어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하가 하지와 아놀드에게 경성일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섭한 결과였다. 동아일보는 6.25 사변이 일어날 때까지도 자체의 인쇄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

복간 당시의 진용은 8대 사장에는 고하, 주간(主幹) 및 법정(法定) 발행(發行)겸 편집인(編輯人)에는 설의식(薛義植), 편집국장(編輯局長)에 고재욱(高在旭), 영업국장(營業局長)에 김승문(金勝文), 공장장(工場長)에 이연진(李彦鎭) 등을 중심으로 전 동아일보 사원의 동인체(同人體)로 구성하고 그해 12월 1일 동아일보는 1920년 창간 당시의 3대 사시(社是) - 민족주의(民族主義), 민주주의(民主主義), 문화주의(文化主義)를 내걸고, 석간(夕刊) 타블로이드판 2면의 복간호(復刊號)를 내게 되었다. 장장 5개년하고도 3개월 20일만에 다시 햇빛을 본 동아일보는 그 전통과 이념을 살려서 공산당의 허(虛)를 찌르는가 하면, 미군정의 시책 비판은 물론, 한민당의 행동에도 시시비비주의로 나갔다. 이에 고하를 사장으로 추대하고 있는 동아일보와 고하를 수석 총무로 옹립하고 있는 한민당 간에 견해의 차이가 생겨서 나중엔 직접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민당은 동아일보를 자기

들의 기관지로 생각했고 동아일보는 동아일보대로 신문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불가피한 마찰이었다. 그래서 주간 소오(小楮 薛義植)는 고하에게 이 사정을 보고하고, 그 재단(裁斷)을 바랐다.

“정당은 언제나 이합집산(離合集散)할 수 있고, 또 때가 오면 이합집산하는 것이 정당이지만 신문은 정당하고는 달라서 하나의 사업체이니 신문은 신문대로의 사명에 충실해야 하오. 다만 지나치게 자극적인 비판을 위한 비판은 삼가는 것이 좋겠소.”

고하의 이 말에 소오는 용기를 얻었다. 그후 한민당은 당보(黨報)를 별도로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동아일보 복간으로 고하는 한시름을 놓았다. 이제 명실 공히 민족의 대업(大業)을 위한 계획이 하나 둘 착착 성취된 셈이다.

다사다난했던 그 해도 저무는 12월 27일, 외신을 타고 뜻밖의 소식이 날아 들어왔다. 그것은 전후 사태(戰後事態) 수습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영국.소련의 3개국 외상으로 구성된 이른바 삼상회의(三相會議)의 결과, 앞으로 한국을 최장 5년 동안 미.소.영.중 등 4대국의 공동 관리하에 신탁통치(信託統治)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신탁통치(信託統治)의 외신은 서울을 비롯하여 도시에서 지방으로 퍼져가서 맹렬한 반탁 시위가 벌어졌다. 처음에는 공산당까지도 반탁대열에 합세했으나 1주일이 지난 1월 3일 태도를 표변하여 찬탁으로 나왔다. 이들은 끝까지 탁치를 지지하였다. 반탁시위가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으로 번지자 미군정은 강압적인 태도로 나왔다. 특히 임영신(任永信)이 영도하는 여자국민당(女子國民黨)이 주동이 된 28일의 반탁 시위는 눈덮인 서울 거리를 휩쓸었다. 시위행렬이 군정청(現 中央廳)앞에 이르자 미군 헌병은 이를 저지하고 강압으로써 해산시켰다. 미군정의 이와같은 처사에 격분한 고하는 군정장관 아놀드를 방문하고 항의를 제기했다.

“군정부는 군정에 그쳤으면 좋겠소. 반탁운동(反託運動)은 이 나라 국민의 의사이며 국민 운동인데, 국민 운동에 군정이 개입한다는 것은 현명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되오. 장관의 의견은 어떠시오.”

이리 하여 미군정은 한민족의 국민 운동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고 치안 확보에만 전념하기에 이르렀다.

5. 고하와 우남(雲南)

일제의 탄압이 심하여 갈수록 한민족의 마음 속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몇몇 지도자가 있었다. 3.1운동 직후 임시 정부를 조직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다가 다시 미국으로 망명한 우남(雲南 李承晩)과 중국 중경(重慶)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키고 있는 백범(白凡 金九)을 중심으로 한 임정요인(臨政要人)들이 그러한 지도자들이었다.

8.15 해방이 되자 일반 국민은 물론 특히 정당.사회단체에서는 우남과 백범 등 임정 요인들의 환국을 몹시 기다렸고, 또 그들의 입국을 재촉하는 소리가 높아져 갔다. 그러나 공산당측에서는 우남이나 백범 등의 환국은 물론 그 존재가치조차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이에 고하는 국민에게 우남이나 백범 등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고, 몸소 미군정 요리를 방문하면서 해외 망명객의 조속한 환국을 극력 주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고하가 동분서주한 보람은 있었다.

드디어 우남은 10월 16일 하지장군의 빈객으로 해방된 고국에 돌아왔다. 한민족의 한결같은 경의와 기대속에 우남은 70의 노구(老驢)로 34년만에 귀국하였다. 이에 앞서 우남의 귀국을 계기로 전국의 정치단체가 초당적 자주독립기관의 설립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민당, 국민당, 건국

동맹, 재건파 공산당이 창신동 백낙승(白樂承)의 집에서 10월 초 회합을 가졌으나 공산당측이 인민공화국을 내세우므로 결과를 얻지 못하고 10월 12일 다시 모였다. 처음에는 한민당에서 고하, 백관수, 김병로, 장덕수가 참석했으나 2차부터는 고하는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주로 김병로와 장덕수가 참석했는데 10월 14일에는 결국 정당·사회단체에서 대표들이 천도교기념관에 모여 '정당통일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 이틀후 우남이 귀국한 것이었다.

고하와 우남이 다시 만나기는, 고하가 1925년 범태평양회의 이래 20년만이였다. 고하는 노 애국자 우남이 들어오자 성대한 귀국 환영연을 베풀었다.

"국민은 모두 나를 따르라. 나를 중심으로 뭉쳐서 나가면 우리 목적은 달성될 것이다."

하고, 우남은 환영연에서 귀국 첫 연설을 하였다.

이 연설은 그의 독재자적 성격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거니와 국내에 있는 뜻있는 인사들의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고하는 우남의 그러한 발언에 개의치 아니하고 우선 그의 거처를 마련하는데 동분서주하였다. 오랜 망명생활에서 돌아온 우남은 우선 조선포털에 묵고 있었다. 고하는 한민당 간부들과 상의해서, 돈암동에 있는 한민당원 장진섭(張震燮)의 집을 그의 거소로 정하고 말끔히 수리한 후 살림살이 일체는 임영신과 협의하여 준비하고 우남을 이곳으로 옮기게 하였다. 뒷날 돈암장(敦岩莊)이라고 불린 집이다. 우남은 돈암장에서 첫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고하는 우남을 찾아서 한민당의 창당 경위와 이념을 설명하고, 애초의 계획대로 우남에게 한민당 총재 취임을 간청했다. 그러나 우남은 건국대업(建國大業)의 설계가 있다면서 총재 취임을 거부했다. 우남은 한민당과 '인공'을 자기 중심으로 합작해 보자는 계획이 있어서인지 한민당으로부터 물심양면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한민당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아니하였다.

우남의 재정형편은 대단히 어려웠다. 윤치영 비서실장이 전용순(全用淳), 박흥식(朴興植), 박기효(朴基孝), 공진항(孔鎭恒), 권영일(權寧一) 등 경제인을 초청해서 저녁을 대접하며 모금을 했으나 그 자리에서는 겨우 20여만원 밖에 모금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하는 매월 5만원 내지 15만원씩을 돈암장 경비로 보냈다.

고하는 합작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으나, 우남은 듣지 않고 '초당파 총단결'이라는 슬로건하에 독립촉성중앙협의회(獨立促成中央協議會)를 구성하고 실행하려다가 무참히 실패했다. 우남이 중앙협의회를 구성하기까지는 우남을 추종하여 무조건 싸고도는 일부 미국 유학생들의 조연과 장막에 싸여서 자기에게 대한 국민의 인기만을 믿고 독주하려는 고집 때문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모든 정파와 사회단체를 총망라해서 민족의 단일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구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한민당도 기꺼이 이에 참가하였고 그 조직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점차 우남에 대한 무조건 복종과 그의 절대적인 세력기반 구축을 위한 도구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민당의 당사에는 한번도 나와본 일이 없었던 우남이 '독촉(獨促)'의 중요회의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독재적 스타일로 회의를 주재하였다.

우남은 좌우 합작(左右合作)이 실패하자, 진퇴유곡(進退幽谷)에 빠졌다. 우남의 주위는 쓸쓸해졌다. '인공'측에서는 우남을 중상하고 모략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고하와 우남 사이는 한민당 총재 추대 문제와 좌우 합작 문제의 이견(異見) 때문에 서로 서먹서먹해졌다.

그러한 어느날 우남은 비서 윤치영(尹致暎)을 통해서 고하와의 회담을 요청해왔다. 두 사람은 조용한 일요일 밤에 만났다.

우남은 고하에게 자기가 사리에 어두움을 인정하고 피차 앞으로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리고 우남은, 자기는 이미 늙은 몸이니 고하가 중심이 되어 일을 하면 자기는 힘껏 뒤에서 밀 것도 약속했다. 또한 자기 부인은 외국인이지만,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하니 어려운 외교 문제가 있으면 한국을 위하여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하도 우남에게 지금 시국으로는 우남밖에 정국을 담당하여 처리할 인물이 없으니 사소한 일에 낙심 말고 곳곳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고하는 우남을 전과 다름없이 섬기겠다고 언

약했다. 그로부터 고하와 우남 사이는 전보다 더욱 가까워졌다.

이즈음을 전후해서 우남은 비서 송필만(宋必滿)을 통해서 고하에게 고하 중심의 국민대회준비회를 우남 중심으로 바꾸어서 독립 운동 추진 중심체로 개편함이 어떠냐는 의견을 전해왔다. 고하는 즉각 찬의를 표했다.

그러나 국민대회준비회를 개편하려는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고하가 세상을 떠난 뒤, 고하의 국민대회준비회는 우남을 중심으로 결성된 독립촉성국민회(獨立促成國民會)에 의하여 계승된 형식으로 남았던 것이다. 이와같이 고하와 우남의 정치 노선이 다시 접근하기 시작할 무렵, 중경에 망명 중이던 임시 정부의 입국이 실현되었다.

6. 고하와 임정(臨政)

우남의 한국보다 한달 늦은 이 해 11월 23일, 임시정부 주석 백범(白凡 金九)을 비롯한 임정 요인들이 귀국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上海)에서 조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일전쟁이 발발한 다음해인 1938년 7월 광둥(廣東)으로 이전했다가 10월에는 다시 광서(廣西)로 옮겨갔고 이어 국민정부가 있는 중경(重慶)으로 이전하여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이곳에 있었다.

임정은 중국전구(中國戰區)의 웨드마이어장군과 한국을 교섭한 결과 개인자격으로 입국이 허용되어 11월 5일 중경을 떠나 상해로 돌아왔다.

주한 미군은 임정요인들의 한국을 위해서 2대의 공군기를 보내므로서 1945년 11월 23일 김구 주석과 김규식 부주석을 비롯하여 이시영(李始榮), 김상덕(金尙德), 유동열(柳東悅), 엄항섭(嚴恒燮) 등 정부요인과 시종무관 유진동(柳振東), 백범의 자부 안미생(安美生) 등 제1진으로 15명이 한국했고 제2진도 12월 2일 한국했다.

고하의 임정추대론(臨政推戴論)의 근거로서 해방후 건국과정에서 식민통치가 해체된 이상 한국의 통치권은 1919년 고종황제가 붕어(崩御)한 이후 황제에 이어 통치권을 계승한 유일한 통치기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뿐이라고 하는 통치권원(統治權源)의 정통성(正統性)에 관한 해석에 입각해서 임정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역설한 것이다. 사실 아베(阿部信行) 총독이 고하에게 접근하여 통치권을 맡아달라고 간청했을 때 이를 거절한 이유중의 하나도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가 당시의 국권회복과정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법통(法統) 때문이었고 고하가 임정을 잘 몰라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임정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고하는 임정 요인들의 입국을 어느 누구보다도 학수 고대했다. 고하는 이들의 입국 전에 한국 지사후원회(還國志士後援會)를 조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후원회는 이역 만리에서 풍찬노숙하며 조국 광복을 위해서 싸운 애국 지사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후원회 기금은 제1차로 금융단과 실업계 인사로부터 9백만원이 모아졌다.

이렇게 후원회까지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는 고하에게 국민대회준비회 사무를 담당하던 해위(海葦 尹濬善)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김포 비행장에 내려서 오후 5시경 서울에 들어온다는 소식이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고하는 당시 침식을 같이하던 낭산(朗山)을 대동하고 서울 서대문의 경교장(京橋莊)으로 임정 요인들을 찾았다. 그리고 고하는 그날 오전 11시 국민대회준비회 대표 자격으로 창랑(滄浪 張澤相)을 대동하고 임정 요인들을 정식 예방하는 동시에 고하는 후원회 기금을 전달했다.

그 얼마 후에 임정 요인들 사이에는 후원회 기금 중에 정재(淨財) 아닌 돈이 들어있다 하여 이것을 받느냐 안받느냐로 물의가 분분했다. 이 깨끗하지 못한 돈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

제로 국민대회준비회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렸다. 주최측인 임정에서는 재정부장 조완구(趙琬九)를 비롯한 임정요인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왈가왈부로 격론이 벌어졌다. 폭언과 폭설이 오가고 수라장이 되었다.

이 회의에서 찬성과 반대의 이유만을 묵묵히 듣고 있던 고하는 참다못해 단상에 올라갔다.

“정부가 받는 세금 속에는 양민의 돈도 들어있고 죄인의 돈도 들어 있는 것이요. 이런 큰 일에 그런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줄 아오.”

고하의 한 마디로 장내가 수습되고 후원회 기금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

피차간의 미묘한 알력과 사소한 감정적인 대립이 곧 해소되자 정당·사회단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민족 진영의 대동 단결을 부르짖는 소리가 높아져갔다. 38선으로 양단된 민족의 비극을 국민의 대동단결로써 종식시키자는 외침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그 반면, ‘인공’과 공산당은 곳곳에서 고하와 미군정, 고하와 임정 간의 이간을 획책하는가 하면, 극심한 중상과 모략으로 민족 진영의 분열을 부채질했다.

이에 고하는 국민의 소리에 보답하는 한편, ‘인공’과 공산당의 중상과 모략을 분쇄하는 방법으로 민족 진영을 규합하여 일대 국민 운동을 일으킬 것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고하는 우선 임정 요인들의 환국 환영 준비회를 겸한 간담회를 서울 관수동(觀水洞) 국일관(國一館)에서 가졌다. 12월 중순의 일이었다.

이 환영회 석상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환국 후 임정 요인들이 입버릇처럼 내세우던 국내 인사 친일론(親日論)이 터져 나온 것이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친일을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생명을 부지해 왔겠느냐 하는 임정 내정부장(內政部長) 신익희(申翼熙)·지청천(池青天)·조소앙(趙素昂) 등의 국내 지도자 숙청론으로 자리는 흐려졌다.

“그러면 나는 숙청이 되겠군.....”

하고, 설산(雪山 張德秀)이 해공(海公 申翼熙)에게 맞섰다.

“설산 뿐인가.”

“.....”

고하와 설산 그리고 해공은 지난날 일본 유학 시대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이다. 이러한 해공의 꺼리낌없는 발언은 추종의 말이라고는 하지만 임정 입국 이후 국내 민족 진영에 쓸데없는 파문을 일으키던 소위 ‘친일파 숙청론’의 정면 발언이었다.

“여보 해공. 국내에 발 붙일 곳도 없이 된 임정을 누가 오게 하였기에 그런 큰 소리가 나오는 거요. ‘인공’이 했을 것 같애? 해외에서 헛고생들 했군. 더구나 일반 국민에게 모두 떠받들도록 하는 것이 3.1운동 이후 임정의 법통 때문이지, 노형들을 위해서인 줄 알고 있다. 여봐요, 중국에서 궁할 때 뭇들 해 먹고서 살았는지 여기서는 모르고 있는 줄 알어? 국외에서는 배는 고파를 테지만 마음의 고통은 적었을 거 아니야, 가만히 있거나 해. 하여간 환국했으면 모든 힘을 합해서 건국에 힘쓸 생각들이나 먼저 하도록 해요. 국내 숙청문제 같은 것은 급할 것 없으니, 임정 내부에서 이러한 말들을 삼가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거요”

하고, 고하가 말끝을 맺자, 해공은 할 말을 잃었다. 고하는 임정 요인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로부터 임정 측의 숙청론은 고개를 숙였다.

고하는 임정측의 후원회 기금에 대한 왈가왈부와 친일파 숙청 운운으로 종전과는 다른 임정관(臨政觀)을 갖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임정은 16개 연합체로서 거의 일인일당(一人一黨)식으로 짜여진 수많은 정당의 연립 내각이었고, 그것도 입국 즉시로 행동 통일을 잃어 기대에 어긋나게 되니 그 뒤로 가깝게 모시게 된 백범(白凡 金九)을 비롯하여 성재(省齊 李始榮)·우사(尤史 金奎植)·해공(海公 申翼熙) 등 이외의 임정 인사에 대해서는 환국 이전에 받들던 임정에 대했던 것과는 다른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임정(臨政)의 법통을 아끼는 고하는 임정 기구를 이용해서 국민 운동 기구의 창설을 계

획했다. 국민 운동의 목표는 훈정 기간인 미군정을 하루 빨리 끝내기 위해서 민족 정부 수립을 전제로 한 정당·사회단체의 협의회 구성이었다. 좌파(左派)이든 우파(右派)이든간에 민주주의 노선에 순응하면 어느 파를 막론하고 흡수하여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자는 구상이었다.

주의에 찬반(贊反)이 있었으나 격론 끝에 국민운동안(案)은 채택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고하는 첫단계로 고하의 '한국민주당', 민세의 '국민당', 몽양의 '인민당', 그리고 '장안파(長安派) 공산당' - 이 4개 정당의 협의회를 시도했다.

이때 민세는 '건준'이 공산당 중심으로 변질됨을 계기로 '건준'을 탈퇴하고 이규갑(李奎甲), 백홍균(白弘均) 등을 이끌고 국민당을 조직했고, 몽양은 우남과 임정이 환국하고, 미군정에서 '인공' 부인 성명이 발표된 이후 '건준'을 해체하고 인민당을 조직하였으며, '장안파 공산당'은 박헌영의 반대파인데, 종로 2가 장안빌딩에 자리잡고 있던 공산주의자 클럽으로서 비교적 온건파에 속하여 고하나 우남과도 자주 연락이 있었던 것이다.

이 4대 정당을 임정의 테두리 안에 뭉치게 하여 국민대회를 여는 것은 물론, 국민의 요구에 행동 통일을 보여서 독립 쟁취의 밑거름이 되고자 한 것이다. 몽양 중심의 인민당이 이에 제일 먼저 찬성을 해 오고 이어서 민세의 국민당 등도 뒤따라 찬성해왔다. 그러나 고하는 그중 몽양의 인민당만은 국민대회 참가의 성명서를 국민에게 발표하는 동시에 그 원문(原文)에 몽양의 도장을 찍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것은 8.15후 '건준'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향배(向背)를 경계하자는 의미에서였다.

필경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4대 정당 대표들은 첫 예비회합을 12월 초순 명월관(明月館) 요리점에서 가졌다. 그러나 예측한 바와 같이 인민당의 불참으로 이 회합은 유산되고 말았다.

고하는 4대정당의 행동 통일에 차질이 생기자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국민운동에 찬성하는 정당·사회 단체만으로 실행할 것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즈음인 12월 27일 신탁 통치안이 외신으로 전해왔다. 해방의 기쁨과 건국의 희망에 들떠있던 온 국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또 한동안 법석하게 됐군.....”

고하는 혼잣말을 하고는 군정 장관(軍政長官)을 방문한 뒤 다시 임정 요인들을 찾아 나섰다.

이른바 신탁통치안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3상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전후(戰後)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12월 16일부터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진 미·영·소 3개국 외상들은 조선의 장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①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국군의 사령관은 2주 이내에 회담을 개최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공동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제정당(諸政黨)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정부의 수립을 원조한다.
- ③ 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와 협의하여 5개년을 기한으로 하는 미·소·영·중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 협정을 작성함에 있어서 미·소·영·중의 공동심의를 받아야 한다.

1943년 11월 카이로선언(宣言)에서 '조선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유독립케 한다'의 '적당한 시기'가 5개년 기한의 신탁통치로 나타난 것이다.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가 거론되기는 카이로 선언이 있는 직후부터였다. 1943년 11월 26일 테헤란에서 열린 미·영·소 3거두 회담에서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와 소련수상 스탈린이 대화하는 가운데 20년 내지 30년 기한의 조선 신탁통치가 논의되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신탁통치라는 말을 들은 것은 해방 두달후인 10월 20일 미국무성 극동국장 빈센트가 미 외교협회 석상에서 발설한 때였고 독촉중앙협의회(獨促中央協議會)는 이를 절대 반대한다는 결의도 했었다.

신탁통치는 제1차 대전 후에 성행한 위임통치(委任統治)의 재판으로 이 통치를 받게 된 지역은 아프리카나 남태평양의 몇몇 미개한 지역이었다. 자치능력이 없는 인종에게 실시한 바 있는 신탁 통치를 반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에게 실시한다는 것은 큰 충격이었다. 이는 해방전 간교한 일제의 조선에 대한 악선전에 연유한 것이라 하겠다.

독립이 눈앞에 다달은 것으로 믿고 있는 국민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다. 국민 감정은 극도로 악화 일로를 걸었다. 각 정치단체와 사회단체는 남과 북, 좌와 우를 막론하고 일제히 반대 운동을 벌였다. 경술국치(庚戌國恥)에 이은 제2의 국치라 하여 누구의 지시도 없이 서울은 28일 밤부터 철시(撤市)에 들어갔고, 유흥가에서는 가무음곡(歌舞音曲)이 정지되고 영화관도 문을 닫았다. 29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앞을 다투어 반탁시위에 들어갔다. 중앙청을 비롯하여 각 관공서의 한국인 관리들은 사무집행을 거부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사태가 벌어질는지 예측할 수 없는 경지로 악화되어 갔다.

한민족의 반탁 운동이 너무도 충천하자 미군정은 당황했다.

“탁치(託治)는 침략이 아니라 독립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의 원조와 후견을 의미하는 것이니 한민족은 냉정하기를 바란다.”

는 요지의 사태 수습 성명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흥분된 국민 감정은 수그러지지 않았다.

“우리는 탁치도 싫고 후견도 원치 않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독립이다. 자주 독립이다. ‘포츠담.카이로 선언’을 이행하라.....”

하고 국민은 소리 높여 자주 독립을 부르짖었다.

이에 호응하여 임정은 즉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명의로 탁치 반대의 성명서를 미.영.중.소 등 4개국에 보낼 것을 채택하고 비상 국민회의(非常國民會議)를 소집, 반탁투쟁위원회(反託鬪爭委員會)를 결성했다. 그리고 직접 군정부로부터 정권을 인수하려고 했다. 임정은 3.1운동 이후 법통을 이어온 정부이므로 우선 주권 행사의 첫 공시(公示)로 대한민국 내정부장(大韓民國內政部長) 신익희(海公 申翼熙)의 명의로 포고문(布告文)을 내고 거리마다 방을 붙이는가 하면, 서울 시내 9개 경찰서장은 금후 임정 내정부장의 지시에 움직일 것을 훈령했다.

임정의 주권 행사에 미군정은 질서교란(秩序攪亂)을 이유로 임정요인들을 국외로 추방하겠다고 위협했다. 또한 임정 훈령에 움직인 경찰서장은 미군정에 의하여 파면을 당했다.

고하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놀랐다. 임정의 몰지각한 처사에 놀라기도 하고, 미군정의 가혹한 처벌 방침에도 놀랐다. 즉시 고하는 하지와 아놀드 등 군정 요리를 찾아서 사태가 악화되기 일보 전에 검색된 정국을 수습하기에 노력한 결과 임정과 미군정간의 알력을 원만히 해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7. 운명(殞命) - 최초의 정치암살

신탁 통치설이 전해진 후 국내는 물끓듯 소연하기만 했다.

일반 국민은 물론 정당, 사회단체 할 것 없이 저마다 구구한 억측과 주장을 내세우며 곳곳에서 시위와 성토를 벌였다. 그리고 이성을 잃은 뼈라와 성명서, 테러가 정국을 흐리게 했다. ‘인공’과 공산당 극렬 좌익분자의 발호는 더욱 심했다. 그들은 고하가 하지로 하여금 ‘인공’을 부인케 하고 미군정 연장을 획책한다고 중상 모략하는가 하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고하와 임정 간의 이간을 획책했다. 이에 부화뇌동한 일부 민족 진영에서도 시기하기 시작했다.

8.15 해방의 기쁨도 미처 사라지기 전에 한민족의 정치적 위기는 급속도로 다가왔다.

한편 이와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지도자 암살설이 시중에 떠돌았다.

12월 중순께부터 원동(苑洞) 고하 집 주변에서는 이상한 공기가 감돌았다. 미군정에서도 이 기

미를 알아채고 미군 헌병을 파견할 것을 제의해 왔다.

“대단히 고마운 일이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나를 해칠 사람은 없을 테니 안심하시라고 하지장군에게 말씀드려 주시오.”

하고, 고하는 신변 경호의 호의를 거절했다. 이즈음 고하는 정국 안정을 위해 암살이니 신변 경호 같은 극한사태 따위에는 아랑곳 없이 침식을 잊고 동분서주했다. 미군정을 찾아 신탁통치안의 철회만이 정국을 수습하는 첩경임을 강조하는가 하면, 임정을 찾아 국난 타개책을 강구하기도 했다.

12월 28일 고하는 낭산(朗山)을 대동하고 경교장(京橋莊)으로 임정을 찾아가 신탁통치 문제를 의제로 일련의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임정 국무위원 전원과 좌우를 막론하고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원은 다같이 신탁통치를 반대한다는 데에는 이론(異論)이 없었으나 반탁(反託)의 방법에는 고하와 임정간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때는 좌우익을 막론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탁치를 반대했으나 3상회의(三相會議)의 결정에 따라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기 1주일 전인 1946년 1월 3일 소련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좌익계열은 별안간 탁치지지(託治支持)로 표변했고 끝끝내 민족진영에 맞서 찬탁(贊託)노선을 고수했다.

임정측은 반탁의 방법으로 즉시 미군정을 부인하고 민족 독립을 선포하는 동시에 군정을 접수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고하는 한민족은 자주능력이 있는 만큼 국민 운동을 통하여 반탁을 부르짖음은 당연하지만 반미·반군정운동을 전개하여 미군정과 충돌함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고하는 미국은 여론의 나라이니 만큼 국민운동 등 민주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족히 신탁통치안이 취소될 수 있고, 한국 독립을 열렬히 지지하는 중국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만일에 군정을 부인하고 임정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하면 반드시 큰 혼란이 일어날 뿐더러, 결국은 공산당이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취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고하는 만일 임정의 주장과 방식대로 사태를 밀고 나가려면 우선 미군정과 충돌해야 하고, 미군정과 충돌은 미국 및 민주주의 제국과의 충돌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역설했다. 국토 분단의 가능성이 컸던 당시의 정세와 사태를 고하가 심히 우려한 것도 사실이지만 열국(列國)에 의한 탁치만은 한사코 반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고하는 찬탁파요?”

“찬탁이 아니라, 방법을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반탁으로 국민을 지나치게 흥분시킨다면 뒷수습이 곤란할 것이니 좀더 냉정하게 생각해서 시국을 원만히 수습해야 하지 않겠소”

“무슨 소리요? 짚신 감발을 하고라도 전국 방방곡곡에 유세를 퍼서 찬탁하는 미국을 반대하고 군정을 배척하여 당장 독립을 쟁취해야 하오. 반탁 뒤에 오는 모든 사태는 우리가 말지.....”

신중론을 주장하는 고하와 초강경론을 펴는 임정간에는 격론이 벌어졌다. 고하는 그의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임정의 무모한 초강경적 주장을 설득하려 했으나 이견을 조정하지 못했다. 밤을 지새우고 29일 새벽 4시경, 낮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산회했다.

심신(心身)이 피로한 고하와 낭산은 집에 돌아와 자리에 들어 두어시간쯤 눈을 붙였다. 아침 7시경 낭산이 자리를 털고 외출한 뒤를 이어서 송필만(宋必滿)을 비롯한 몇 손님이 차례로 고하를 찾아왔다.

“박헌영군에게 이번만은 제발 영웅적 태도를 취해 달라고 전해 주시오. 내가 그러더라고.....”

하고, 고하는 아침상을 받으면서 공산당측에 연락이 닿는 측근에게 말하기도 했다.

고하는 상을 물린 뒤 곧 한민당사(黨舍)로 발길을 옮겼다. 한민당에서 신탁통치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였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사장실에 모인 이날(12월 29일) 회의에서 고하는 신탁통치를 절대 반대할 것과 우리 민족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송진우 수석총무는 매우 격앙된 어조로 탁치반대와 임정 중심의 단결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이무렵 어디서 난 소문인지 모르나 고하는 신탁통치를 찬성하였다는 풍설이 나돌았습니다. 이

런 소문을 들었을 때 나의 눈앞에는 것처럼 열렬히 탁치 반대와 임정지지를 부르짖던 고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하가 암살된 후 나는 실망과 환멸을 느껴 나의 동경대학 선배이며 연희전문 교장이던 유억겸씨에게 교직에 대한 희망을 말씀드렸더니 얼마 후 조교수 발령을 받았지요.”

당시 고하를 도와 한민당에서 활약하던 신도성(慎道晟)의 회고담이다.

이날 오후에는 어제에 이어 원세훈, 서상일, 김준연을 대동하고 경교장에서 열리는 임정회의(臨政會議)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 위원회(信託統治反對 國民總動員 委員會)가 결성되고 30일 서울운동장에서 대대적인 시민 궤기대회를 개최할 것과 31일에는 전국적으로 궤기대회를 열기로 함과 동시에 41인의 중앙위원을 선출하여 탁치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고하는 돌아오는 길에 감기를 치료하려고 병원에 가는 낭산(朗山)을 보내 놓고 당에 들러서 반탁시위행렬 때 부상을 당한 변희용(卞熙鎔)의 위문을 원세훈(元世勳)에게 부탁한 다음, 자동차로 원동 자택으로 돌아왔다.

마침 여러날 묵고 있던 사촌동생 양중묵(梁仲默)이 출타중이어서 고하는 홀로 저녁상을 받았다. 저녁 7시경 원세훈에게서 고하에게 전화가 걸려 왔다.

“고하와 임정간에 의견이 달라졌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오.”

“글쎄 임정에서는 모두 짚신 감발을 하고 걸어나다니면서라도 반탁을 한다고 합디다. 반탁이 문제가 아니라 군정과 충돌을 일으켜 놓고 임정이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나도 알 수가 없소.”

고하와 원세훈간의 전화가 있는지 얼마 후에 양중묵이 돌아오고 강병순(姜柄順)이 찾아와 요담 후 돌아갔다.

고하는 밤 10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다.

“안으로 문을 걸까요.”

“문은 왜 거느냐, 내버려 두어.....”

아들 영수(英洙)는 정국이 극도로 흐려지고 이상한 풍문이 돌뿐 아니라 집 주위가 어수선해서 문단속을 제의했었는데 고하는 응하지 않았다. 원래 고하 집은 문을 안으로 잠그지 않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었다.

이튿날 새벽, 돌연 고하의 침실 밀창문 여는 소리와 함께 요란한 총소리가 들렸다. 여러 발의 총성은 새벽의 고요한 공기를 찢어댔다.

뜰 아랫방에 기거하던 영수와 호위 경관이 놀라 황급히 고하의 침실에 뛰어갔을 때에는 고하는 이미 흉한(凶漢)의 총탄에 쓰러져 있었다.

담장을 넘어온 흉한은 도합 6명으로, 연속 13발을 쏘았다. 그 중 6발이 고하에게 명중했다. 고하는 1945년 12월 30일 오전 6시 15분, 56세를 일기로 자객(刺客)의 흉탄에 쓰러진 것이다.

일제 암흑시기를 통하여 민족불멸(民族不滅). 일제필망(日帝必亡). 독립필지(獨立必至)의 굳은 신념과 불굴의 투지로 일제에 항거하며 겨레를 이끌어온 불세출(不世出)의 위인 고하는 이렇게 갔다. 그의 신념과 같이 민족은 해방되고 건국을 바로 눈앞에 둔 때에 적(敵)아닌 동족의 검은 손에 쓰러진 것이다. 비보를 듣고 달려온 친지와 시민들은 오열(嗚咽)을 금치 못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운동장에서 열린 신탁통치반대 서울시민 궤기대회에서는 대회장(大會長) 서정희(徐廷禧)로부터 홍보가 공표되었고 고하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렸다.

원서동 빈소에는 추운 겨울날인데도 연일 조객이 줄을 이었다. 생존시 고하의 투철한 애국심과 지행(知行)이 일치했던 그의 예지(叡知)를 못내 아쉬워 했고, 어렵고 험난한 많은 일들이 중첩한 때에 민족의 지도자이며 한민당의 당수를 잃은 정계는 침통하기만 했다. 또 시가는 철시를 했고, 가무음곡(歌舞音曲)을 삼가는 등 지도자를 잃은 시민들은 스스로 조의를 표했다.

새해(1946)로 접어들어서도 경향 각지에서는 반탁시위로 소란했다. 그러한 속에 7일장으로 1월

5일 장례를 모셨다. 망우리(忘憂里) 유택으로 장례 행렬이 지날 때 연도에는 수많은 시민이 도열하여 마지막 가는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여기 우남(雲南 李承晩)의 만시(輓詩)가 있다. 비운에 간 고하를 애도하는 뜻으로 이곳에 옮겨 실는다.

義人自古席終稀 (의인은 옛부터 자기 명에 죽는 경우가 드물고,)

一死尋常視若歸 (한번 죽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마치 제 집으로 돌아가듯 한다.)

舉國悲傷妻子哭 (나라안이 모두 슬퍼하고 처자들도 우는데,)

臘天憂里雪霏霏 (선달 그믐 망우리에는 눈만 부슬부슬 뿌리는가.)

끝으로 길이 고하 송진우(古下 宋鎭禹)의 명복을 빈다.

古下 宋鎮禹先生 年譜

年 代	古下先生 및 東亞日報 관계사항	국내외 일반사항
1890 庚寅 高宗 27년 1세	* 5월 8일 全南 潭陽郡 古之面 巽谷里 (현재 金城面 帶谷里)에서 宋孺의 4남으로 출생. 어머니 梁氏. 兒名 玉潤, 愛稱 금가지.	
1891 辛卯 高宗 28년 2세		* 6월 일어학당을 漢城府에 개설함.
1892 壬辰 高宗 29년 3세		* 3월 철도부설을 위하여 미국인 모스를 초빙. * 5월 韓.懷수교조약을 동경에서 조인.
1893 癸巳 高宗 30년 4세	* 漢文공부를 시작함.	* 東學徒들, 報恩에 집결하여 斥倭洋倡義의 기치를 세움. * 4월 淸國으로부터 신식 銃砲를 구입함.
1894 甲午 高宗 31년 5세		* 1월 古阜군민, 全瑛準의 영도하에 東學亂 일으킴. * 2월 金玉均, 上海에서 암살됨. * 6월 金弘集, 영의정에 임명, 갑오경장 시작됨. * 7월 淸.日 양국 宣戰 포고.
1895 乙未 高宗 32년 6세	<以上 陰曆.以下 揚力>	* 3월 淸.日 馬關條約 체결. * 7월 일본공사 三浦梧樓 부임. * 7월 소학교령 공포. * 8월 乙未事變 일어남. * 11월 단발령 내림.
1896 丙申 建陽 元年 7세	* 이 무렵부터 성리학자이며 義兵將이었던 奇參衍에게서 수학.	* 1월 강원도등 각지방에서 의병 蜂起. (제1차 의병봉기) * 2월 아관파천 * 4월 徐載弼, 독립신문 발간. * 11월 독립협회의 발기로 迎恩門 자리에 독립문 세움. * 10월 제1회 올림픽 경기, 아테네에서 개최
1897 丁酉 光武 元年 8세		* 3월 인천 牛角洞에서 京仁鐵道 起工式, 工事着手. * 10월 皇帝即位式 거행, 國號를 大韓帝國이라 고침.

年 代	古下先生 및 東亞日報 관계사항	국내외 일반사항
1898 戊戌 光武 2년 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興宣大院君 歿. * 8월 제국신문 발간. * 10월 皇城新聞 발간. * 10월 독립협회 주최로 만민공동회 개최. 시국에 관한 6개조의 개혁안을 황제에게 獻議. * 12월 서대문.청량리간 電車軌道 공사 착수. * 이해 서울 鍾峴 天主教會堂 준공. * 6월 미국 하와이를 합병.
1899 己亥 光武 3년 1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京城醫學校 창립. * 5월 京城電車 개통. * 9월 경인철도, 인천.노량진간 개통. * 5월 헤이그에서 제1회 평화회의 개최함.
1900 庚子 光武 4년 11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만국우편연맹에 가입. * 4월 처음으로 종로에 전등 시설. * 7월 한강교 준공, 경인철도 전구간 개통.
1901 辛丑 光武 5년 1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韓.比 通商條約 체결. * 5월 京城.忠州間 電信 개통. * 9월 李鴻章 歿.
1902 壬寅 光武 6년 1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京城.인천간 전화 가설. * 5월 일본 第一은행, 우리나라에서 銀行券을 발행. * 8월 國歌를 제정. * 10월 콜레라(전염병) 창궐. * 1월 英日共守同盟 조약 체결. * 1월 시베리아 철도 완성.
1903 癸卯 光武 7년 1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玉色 의복을 금함. * 11월 미국, 파나마와 조약을 체결하여 독점사용권을 획득.
1904 甲辰 光武 8년 15세	* 高興 柳씨와 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일본, 對露 宣戰 포고. * 2월 韓日議定書 성립. * 8월 제1차 韓日協約(外國人傭聘協定) 성립. * 9월 李容九의 進步會를 宋秉畷의 維新會와 합하여 一進會라 개칭함.

年 代	古下先生 및 東亞日報 관계사항	국내외 일반사항
1905 乙巳 光武 9년 16세	* 長城 白羊寺에 들어가 金直夫에게 修學.	* 4월 京義線 鐵道 전구간 개통. 普成專門學校 설립됨. * 8월 大韓每日申報 발간. * 9월 露日 강화조약 체결. * 11월 제2차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 체결. * 12월 대한적십자병원 창립.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창설.
1906 丙午 光武 10년 17세	* 4월 潭陽昌平의 英學塾에 들어가 신학문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金性洙를 알게 됨.	* 2월 日本 統監府 설치. * 3월 初代統監 伊藤博文 부임. * 3월 日本 興業銀行으로부터 1천만 원을 借款. * 9월 일본, 崔益鉉을 對馬島에 감금 - 12월 卒去함. * 10월 강원.경북 등지에서 抗日義兵 일어난다.
1907 丁未 隆熙 元年 18세	* 邊山 來蘇寺 靑蓮庵에 들어가 修學하고 白寬洙를 알게 됨. * 日本 留學을 決意하여 下山. * 魏啓厚에게서 日語를 배움.	* 1월 경향각지에서 國債報償運動 일어난다. * 6월 海牙 密使事件. * 7월 保安法.新聞紙法 공포. * 7월 皇帝, 皇太子에게 양위. * 7월 韓日新協約(丁未 7條約) 체결함. * 8월 한국군 해산.
1908 戊申 隆熙 2년 19세	* 10월 群山에서 削髮후 金性洙와 함께 渡日. * 東京 正則英語學敎 入學.	* 3월 親日 美國人 스티븐스, 샌프란시스코에서 在美교포 田明雲.張仁煥에게 사살됨. * 10월 崔南善, '少年'誌 창간. * 12월 東洋拓殖株式會社 設立.
1909 己酉 隆熙 3년 20세	* 東京 錦城中學校에 編入學.	* 2월 出版法 공포. * 3월 民籍法 공포. * 6월 제2대 統監에 曾彌荒助. * 10월 安重根, 할빈驛頭에서 伊藤博文을 射殺. * 12월 一進會長 李容九, 韓日合邦을 政府에 建議. * 李在明, 李完用을 刺傷.
1910 庚戌 隆熙 4년 21세	* 4월 金性洙와 함께 早稻田大學에 入學. * 合邦에 憧憬을 받고 여름에 歸國. 옛 스승 奇參衍을 찾음.	* 5월 제3대 統監에 陸軍大臣 寺內正毅 統監 兼任. * 6월 警察權을 日本政府에 넘김. * 8월 韓日合邦條約 調印, 初代 朝鮮總督에 寺內正毅.

年 代	古下先生 및 東亞日報 관계사항	국내외 일반사항
1911 辛亥 2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早稻田大學 在學(歸鄉中). * 이른봄 東京으로 돌아가 明治大學法科로 轉入學. * 이 무렵 留學生親睦會를 조직하고 그 總務에 취임. 동시에 湖南留學生茶話會會長 등으로 선임. * '學之光'을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百五人事件, 검거 개시. * 4월 朝鮮醫學會 창립. * 8월 教育令 공포. * 10월 압록강 鐵橋 完成. * 10월 中國 武昌에서 革命軍 일어남. (辛亥革命)
1912 壬子 2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明治大學 在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鮮民事令 및 刑事令 公布. * 6월 尹致昊 등 新民會員 120여명, 寺內 總督 암살음모혐의로 起訴됨(105인 사건). * 1월 孫文, 革命政府 大統領에 취임.
1913 癸丑 2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明治大學 在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해 在美韓國人の 祖國光復運動團體로 LA에서 興士團 조직됨.
1914 甲寅 2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明治大學 在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호남선 철도 개통. * 7월 제1차 世界大戰 일어남. * 8월 경원선 전구간 개통.
1915 乙卯 2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明治大學法科 卒業. * 東京留學中에 金炳魯.張德秀.玄相允.曹晩植.申翼熙.金俊淵.玄俊鎬.趙素昂 등과 交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總督府 官制 改正. * 9월 朝鮮 物産共進會 개최.
1916 丙辰 27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性洙와 함께 中央學校를 引受. 同校 學監, 이어 校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總督府 廳舍 起工. * 10월 제2대 總督 長谷川好道 취임.
1917 丁巳 2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央學校 校長. * 檀君.世宗大王.李忠武公의 三聖祠建立期成會를 組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漢江 八道橋 완성. * 11월 케렌스키政府 붕괴, 레닌이 소비에트 정부 수립(11월 혁명)
1918 戊午 2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央學校 校長. * 이 해 金性洙, 玄相允 등과 中央學校 宿直室을 中心으로 祖國獨立運動을 계획. * 한편 유사시에 대비하여 학생조직에 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수원 농림전문학교 설립. * 10월 殖産銀行 설립. * 11월 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 완료 * 1월 미국대통령 윌슨, 14개조의 평화의견 발표. * 11월 제1차大戰 끝남.
1919 己未 3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央學校 校長. * 1월 宋繼白이 中央學校로 古下 및 玄相允을 찾아 동경의 정세를 보고한 전후부터 3.1운동의 준비는 급속하게 진척됨. * 2월 崔麟을 통하여 천도교, 李昇薰을 통하여 기독교의 蹶起가 확정되고 24일, 兩敎界의 합동이 이룩됨. * 3월 상순 中央學校에서 피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光武皇帝(李太王) 승하. * 2월 동경 유학생 6백여명이 參集하여 독립선언. * 3월 3.1독립운동 일어남. *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 5월 金奎植을 파리평화회의에 파견하여 독립청원서를 제출. * 9월 姜宇奎, 서울 역전에서 신임총독 齋藤에게 폭탄을 던짐.

年 代	古下先生 및 東亞日報 관계사항	국내외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중순 金性洙를 중심으로 柳瑾.秦學文.李相協.張德俊 등 민간지 발행을 논의하기 시작. * 10월9일 金性洙 등 총독부 경무국에 신문발행 허가원을 제출, 題號는 東亞日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파리 평화회의 개최, 국제연맹 창립 결정. * 5월 중국에 反帝 5.4운동 일어남. * 6월 베르사이유 강화조약 조인.
1920 庚申 31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獄中 * 1월6일 동아일보 발행 허가. * 1월 14일 동아일보 발기인 총회. 사장에 朴泳孝, 편집감독에 柳瑾.梁起鐸, 主幹에 張德秀, 편집국장에 李相協, 社屋은 서울 花洞 138 舊 中央學校 舍 * 4월1일 동아일보 창간. * 7월1일 朴泳孝 사임하고, 後任(제2대) 사장에 金性洙. * 8월14일 母親 梁氏 서거함. * 9월25일 일본 3종 神器를 비판한 사설(9.24-25)로 제1차 무기정간 처분. * 10월30일 京城覆審法院의 무죄 판결(적용법조문 관계)로 출옥. 즉시 下鄉 靜養. * 11월 훈춘事件 취재차 정간중에 특파한 張德俊 기자 실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安昌浩.呂運亨.韓馨權을 모스크바 특파 외교원으로 선정. * 3월 조선일보 창간. * 3월 블라디보스토크에 韓人社會黨 조직됨. * 5월 西路軍政署, 新興學校를 개편하여 新興武官學校로 고침. * 6월 鳳梧洞 戰役. 북간도 국민회소속 독립군 (총사령 洪範圖) 汪清縣鳳梧洞에서 일본군 大部隊 격파. * 6월 '開闢'誌 창간. * 7월 잡지 '廢墟' 창간. * 8월 미국의원단 來韓, 서울등지에서 만세시위 일어남. * 9월 청산리 戰役. 金佐鎭의 北路軍政署, 吉林省和龍縣 清산리에서 일군 대부대 격파. * 1월 국제연맹 정식 성립.
1921 辛酉 3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고향에서 靜養中. * 1월10일 '동아' 정간 해제. * 2월21일 '동아' 속간. * 봄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설립을 위한 株式公募 및 창립총회 준비 등을 위해 활동 시작. * 8월 '동아' 백두산 탐험차 閔泰瑗기자 특파. * 9월14일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성립. * 9월15일 동아일보 제3대 사장취임. 부사장겸 主筆에 張德秀, 전무에 愼九範, 상무 편집국장에 李相協, 영업국장에 洪增植, 서무 영업국장이 梁源模. * 10월 제2회 만국기자대회(호놀룰루)에 국내 최초로 '동아'의 김동성 기사를 특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韓族共產黨, 하바로프스크에서 조직됨. * 5월 잡지 '啓明' 창간. * 6월 黑河事變, 露國當局, 黑龍江 自由市에 있는 대한혁명군에 무장해제를 통고, 이에 불응한 독립군과의 交戰이 벌어져 결정적 타격을 받음. * 9월 미국에서 개최한 태평양회의에 李承晩.徐載弼박사를 대표로 파견함. * 9월 義烈團員 金益相, 총독부청사에 폭탄 던짐. * 11월 워싱턴 군축회의 개최.

年 代	古下先生 및 東亞日報 관계사항	국내외 일반사항
1922 壬戌 3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사장. * 8월 일본 新瀉事件에 '동아' 李相協 특파. * 10월 上海통신원에 呂運亨. * 12월 '동아', 安昌男 비행사의 고국 방문비행을 주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조선교육령 공포. * 2월 문예지 '白潮' 창간. * 無産者.靑年會.노동연맹 조직. * 12월 조선훈적령 공포. * 12월 잡지 '新天地'. '新生活'. '朝鮮之光' 발간. * 10월 무슬리니, 로마로 進軍, 파시스 트 내각을 조직. * 12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 성립.
1923 癸亥 3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亞日報 社長. * 1월 물산장려운동에 이어 '민립대학' 운동을 제창하고 추진. * 2월 '東亞', 第1回支局長會議. * 2월 '東亞', '在外同胞慰問會' 조직하여 국내 각지를 巡講하며 慰問金品 모집운동 개시. * 3월 民立大學 期成會 중앙집행위원에 선임. * 4월 '東亞' 副社長겸 主筆 張德秀, 美國 특파(~ 1936). * 5월 '東亞' 紙齡 1000號 기념으로 문학작품 첫 공모. 또 어린이를 위한 첫 사업으로 제1회 전국 우량어린이 선발. * 5월~7월 재외동포 위문회 운동 직접 참가. 湖南.湖西.關西 각지에서 50여회 시국강연. * 6월 '東亞', 국내 최초의 여성공개 스포츠로 제1회 여자 정구대회 주최(해방 후 부활하여 계속). * 6월 '東亞', 처음으로 日曜附錄 발행. * 9월 東京大震災에 李相協 특파, 罹災民 救護運動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金相玉, 종로췌에 폭탄투척. 일경과 應戰 수명을 殺傷코 自決. * 1월 블라디보스토크의 新韓府에 高處 共產黨 中央總局 조직. * 1월 일본 동경유학생 일부 北星會 조직. * 8월 조선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 결성. * 9월 조선勞農대회 준비회 조직. * 9월 일본 關東大震災, 조선인 동포 다수가 虐殺됨. * 10월 무정부주의자 朴烈, 음모사건으로 동경 경시청에 피검.
1924 甲子 3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亞日報 社長. * 4월 처음으로 地方版(中部.西部.三南) 발행. * 4월 朴春琴 등 사설에 대한 항의로 서 宋鎮禹사장.金性洙 取締役을 권층으로 협박. * 4월 編輯局長 李相協 辭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義烈團員 金址燮, 동경 宮城 2重橋에 폭탄 투척. * 3월 時代日報 창간. * 4월 조선청년총동맹 성립. * 10월 '朝鮮文壇' 창간. * 11월 北風會, 선언서와 강령을 발표. 新思想研究會, 火曜會로 改稱.

年 代	古下先生 및 東亞日報 관계사항	국내외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25일 東亞日報 사장 辭任. 監査役 許憲을 사장 직무대리. * 5월 '東亞'社長(4대)에 李昇薰. 주필 겸 편집국장에 洪命燾. * 9월 東亞日報社 顧問에 金性洙. * 10월 '東亞'사장(제5대)에 金性洙, 顧問에 宋鎮禹, 李昇薰, 편집겸 발행인에 金鐵中, 이 株主總會에서 '株主는 조선인에 한함'의 定款條項을 신설. * 10월 '東亞', 제1회 전조선학생 웅변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上海評論' 발간. * 1월 중국 제1차 國共合作. * 1월 레닌 歿.
1925 乙丑 3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亞日報社 顧問. * 2월 러시아에 李灌鎔 특파. * 3월 전조선 기자대회 준비위원회 선임. * 4월2일 辭任한 洪命燾의 후임으로 동아일보 주필에 취임. * 6월~8월 제1회 汎太平洋會議에 申興雨.俞億兼.金良洙.徐載弼.金活蘭 등과 함께 참석. * 8월 하순 社說 '世界大勢와 朝鮮의 將來' 12회 연재. * 9월 광화문에 新社屋 着工. * 10월 趙德津을 上海特派員에 임명 * 이해 '東亞'에서 처음으로 女記者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南北滿洲 독립운동단체 합동하여 正義府를 조직. * 3월 金赫.金佐鎭 등 寧安에서 新民府를 조직. * 4월 金在鳳.曹奉岩 등 서울에서 조선 공산당 조직. * 5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발족. * 11월 제1차 공산당사건, 朴憲永.金若水 이하 공산당 간부 다수 검거됨. * 3월 孫文 북경서 歿. * 5월 중국에 5.30 사건 일어남. * 6월 중국, 열강에 불평등조약의 수정을 요구.
1926 丙寅 37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亞日報 주필. * 1월 '東亞', 社歌 제정. * 3월7일 國際農民本部에서 '朝鮮農民에게' 보낸 三.一記念辭 게재(3.5)로 제2차 무기정간 처분. 이때 主筆 宋鎮禹, 발행인 金鐵中에 징역 각 6월, 4월 실형 언도, 抗訴. * 4월21일 속간. * 6월 隆熙皇帝 승하에 鄭寅普와 '遺勅' 僞作을 劃策하였으나 이루지 못함. * 11월 13일 이해 3월의 정간관계 사건으로 징역 6月刑이 확정되어 수감. * 11월 '東亞', 공석중인 편집국장에 李光洙, 지배인에 梁源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隆熙皇帝 승하. * 4월 梁起鐸 등 吉林서 고려혁명당을 조직 * 4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및 법문학부 개설. * 6월 6.10만세 사건. * 10월 총독부 청사 완성. * 11월 경성방속국 설립. * 12월 義烈團員 羅錫疇, 殖産은행 및 東拓회사에 폭탄 투척. * 12월 제2차 공산당 사건. * 7월 중국 蔣介石 北伐을 개시. * 12월 日 昭和천황 즉위.

年 代	古下先生 및 東亞日報 관계사항	국내외 일반사항
	* 12월10일 광화문 3층 新社屋 준공. 花洞 社屋으로부터 이사.	
1927 丁卯 38세	* 東亞日報 主筆(獄中). * 2월 일본 天皇(裕仁) 卽位紀念 特赦로 출옥. * 7~8월 '東亞' 全朝鮮水利組合踏査 특별 기획. * 10월 東亞日報 사장 金性洙의 뒤를 이어 사장(제6대) 취임. * '東亞' 편집국장 李光洙를 편집고문, 편집국장에 金俊淵 임명. * 12월 '東亞', 在滿同胞 事情 조사 시작. * 이해 東亞日報 咸北支局長 회의에 참석중, 新幹會內的 共產系 조종으로 집단폭행을 당함. * 이해 長津江 水電工事に 따른 토지 강제 收用 반대운동을 지지.	* 2월 민족.공산 兩主義者들이 합동해서 신간회를 조직. * 3월 대한민국新臨時約憲 공포. * 12월 陸軍大將 山梨半造를 제4대 총독에 임명. * 10월 南京政府 성립. * 6월 美.英.日 軍縮회의 개최
1928 戊辰 39세	* 東亞日報 사장. * 4월 '東亞', 문맹퇴치운동을 제창, 총독부의 금지로 곧 중단. * 5월 金俊淵 편집국장 비밀결사 사건으로 被檢. (ML당 사건) * 10월 蔣介石 國民政府主席 취임 취재차 朱耀翰을 南京에 特派.	* 3월 李東寧.李始榮.金九 등 上海에서 한국독립당을 조직. * 3월 제3차 공산당사건, 新幹會 좌익 검거됨. * 9월 咸鏡線 철도 완성. * 3월 南京政府 제2차 北伐決行 성명. * 6월 張作霖 皇姑屯에서 폭사. * 10월 蔣介石 정부 主席이 됨.
1929 己巳 40세	* 東亞日報 사장. * 4월 타고르의 特別寄稿 <빛나는 亞細亞의 燈燭> 게재. * 9월 제1회 全國學生水上 경기대회 (해방후 부활하여 계속). * 9월 제1회 全朝鮮男女學生作品展. * 10월, 京都에서 열린 제3회 汎太平洋會議에 尹致昊.俞億兼.金活蘭.白寬洙와 함께 참석. * 11월 金俊淵 피검후, 공식중인 편집국장에 朱耀翰. * 12월 朱耀翰 편집국장, 光州學生事件으로 피검 복역.	* 1월 元山 埠頭노동자 대파업. * 3월 國民府를 모체로 吉林에 조선혁명당 조직함. * 8월 齊藤實 제5대 총독취임. * 11월 광주학생사건. * 10월 뉴욕 柱式暴落, 세계 大恐慌 시작됨.

年 代	古下先生 및 東亞日報 관계사항	국내외 일반사항
1930 庚午 41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亞日報 사장 * 4월 제1회 東亞마라톤大會 (해방후 부활되어 계속). * 4월16일, 創刊 10주년 기념호(4. 1)에 美 '네이션'誌 主筆 祝辭 게재로 제3차 無期停刊 처분. * 9월2일 '東亞' 발행 겸 편집인 名義를 이어받음. * 9월2일 '東亞' 속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北滿에 新韓農民黨 조직됨. * 4월 李昇薰歿. * 9월 趙載江 水力發電所 貯水池 완성. * 3월 간디, 排英運動을 시작
1931 辛未 4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亞日報 사장. * 1월, 新春 懸賞文藝 당선작으로 '朝鮮의 노래' 제정. * 5월 '東亞', 李忠武公 遺跡 保存運動 시작. * 7월 學生 夏期放學 '브나로드'운동 시작(이로부터 4년간 계속). * 7월, 萬寶山事件에 徐範錫 기자를 特派. * 9월 소위 만주사변에 薛義植.徐範錫 特派. 피난동포 구호운동. * 10월 '東亞', 募金으로 幸州에 權慄都元師祠堂 重修. * 11월 월간 '新東亞' 창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상해에 國友會 및 公平社 조직됨. * 5월 新幹會 해산. * 6월 宇坦一成 제6대 총독 취임. * 7월 만보산 사건. * 9월 9.18 만주사변 일어남.
1932 壬申 4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亞日報 사장. * 1월1일 社說 '努力前進 更一步' 발표. * 7월 '東亞' 募金으로 된 牙山 李忠武公 顯忠祠 낙성, 影幀(李象範畫) 奉安. * 7월 - 9월, 全國 檀君聖蹟 巡禮에 玄鎮健 기자 특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애국단원 李奉昌, 東京 櫻田門外에서 日皇에게 수류탄 던졌으나 실패. * 3월 金性洙, 普成專門을 인수 * 4월 애국단원 尹奉吉, 상해 虹口公園에서 거행된 日皇 생일 경축식장에 폭탄을 던져 白川大將 등 10여명을 사상. * 1월 상해에서 中.日 兩軍 충돌(상해사변). * 3월 滿洲國 독립선언, 溥儀執政 * 5월 일본 犬養首相 암살.
1933 癸酉 4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亞日報 사장. * 1월 월간 '新家庭' 창간. * 4월 "東亞" 6년간의 준비 끝에 新綴字法(朝鮮語學會案) 新活字 사용. * 8월, 편집국장 李光洙 사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李承晩박사, 제네바에서 열린 國聯에 韓國代表로 참석. * 2월 '中央', 朝鮮中央日報로 개편 속간(呂運亨). * 10월 한글맞춤법 통일안 발표. * 3월 일본, 國聯 탈퇴. * 1월 독일 히틀러 수상 취임, 3월 독재권 장악.

年 代	古下先生 및 東亞日報 관계사항	국내외 일반사항
		* 3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취임. 뉴딜 정책 채택.
1934 甲戌 45세	* 東亞日報 사장. * 1월 '東亞', 江東 檀君陵 修築 기금모집 * 3월 '東亞', 제1회 男女專門學校 卒業生 大親睦會 주최. * 9월6일 紙齡 5000號. * 이 해, 社說로 崇實專門學校 學長 맥균의 神社 不參拜事件을 옹호 지지.	* 5월 학술단체 震檀學會 설립. * 11월 부산.長春間 直通 열차 운행개시. * 8월 獨대통령 힌덴부르크 歿, 히틀러 總統이 됨. * 10월 소련의 國聯加入 승인됨.
1935 乙亥 46세	* 東亞日報 사장. * 3월, 宋鎮禹 사장 취임 후 공석중이던 主筆에 金俊淵, 李光洙 사임 후 공석중이던 편집국장에 薛義植. * 6월 4년간 계속된 '東亞'의 '學生夏期 啓蒙運動' 중단. * 6월 '新東亞' 主催로 제1회 하기대학 강좌. 이어 제1회 하기 순회강좌.	* 3월 獨, 베르사이유 조약의 군사조항 폐기를 선언. * 10월 이탈리아, 에티오피아에 開戰. * 12월 제2차 런던 軍縮議會 개최.
1936 丙子 47세	* 東亞日報 사장. * 1월 東亞, 10면에서 12면 (朝 4, 夕 8)으로 증면. * 8월29일 孫選手 사진의 일장기 말소 사건(8.25)으로 제4차 무기정간. '新東亞'. '新家庭' 폐간. * 11월11일 총독부의 압력으로 東亞日報 사장 사임. 전무 梁源模, 사장 직무대리가 됨.	* 8월 南次郎 제7대 총독 취임. * 8월 孫基禎 선수, 伯林올림픽대회 마라톤 경기에 우승. * 10월 漢江 人道橋 개통. * 12월 조서사상범 보호관찰령 공포. * 2월 日 쿠데타 발생(2.26 사건). * 12월 張學良, 蔣介石을 감금(西安사건).
1937 丁丑 48세	* 5월31일 '東亞' 사장(제7대)에 白寬洙 (발행인.편집인 겸 편집국장) 상무겸 지배인에 林正燁. * 6월2일 '東亞' 속간. * 6월9일 東亞日報 顧問에 취임.	* 2월 日語使用을 강제함. * 2월 白白敎사건. * 6월 修養同友會 사건. * 7월 中日戰爭 일어남. * 8월 日軍 상해 상륙. * 9월 제2차 國共合作.
1938 戊寅 49세	* 東亞日報社 顧問. * 2월 '東亞' 題號의 무궁화 도안 삭제 명령	* 2월 조선 육군 특별지원형 제도 창설함. * 3월 島山 安昌浩 歿. * 3월 中等學校에서 조선어 과목을 폐지. * 7월 張鼓峰에서 日.蘇 兩軍 충돌, 8월 停戰協定 성립.

年 代	古下先生 및 東亞日報 관계사항	국내외 일반사항
1939 己卯 5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亞日報社 顧問. * 11월 편집국장에 高在旭. * 12월 총독부, 다음해 2월까지 時局에 副應하여 '東亞'를 자진 폐간할 것을 強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文藝誌 '文章' 창간. * 4월 京城 鑛山專門學校 및 淑明女子專門學校 설립. * 12월 '人文評論' 발간. * 5월 노몬한 사건. * 5월 獨.伊 군사동맹. * 9월 제2차 세계대전 일어남.
1940 庚辰 51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亞日報社 顧問. * 7월 東京에서 日政客들에게 '東亞' 強制廢刊의 부당성을 역설, 귀국도중 부산서 피검. * 7월 日警, 白寬洙 사장.林正燁 常務. 鞠泰一 영업국장 등을 경리부정 사건 있다는 구실로 구금하고 폐간을 強要. * 8월 총독부의 강제로 발행인 겸 편집인을 林正燁으로 변경. * 8월10일 '東亞' 강제폐간(紙齡 6천 819호). * 8월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대표 청산위원회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創氏制度 시행. * 3월 臨政, 建國綱領을 제정. * 8월 '東亞' '朝鮮' 폐간. * 9월 臨政, 重慶으로 이전. * 10월 국민총력연맹 조직, 皇國臣民化 운동 강행. * 9월 日.獨.伊 三國同盟 성립. * 5월 獨軍 마지노線 돌파. * 6월 파리 함락, 佛 폐탄 내각 성립 * 11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3選.
1941 辛巳 5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亞日報社 대표 청산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思想犯 豫備拘禁令 공포. * 6월 中央線 전구간 개통. * 8월 臨政, 루스벨트.처칠 선언에 대한 聲名 발표. * 4월 日蘇 중립조약 성립. * 5월 스탈린 수상 취임. * 6월 獨蘇 開戰. * 10월 日, 東條 內閣 성립. * 12월 日, 對美.英 宣戰 포고.
1942 壬午 5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亞日報社 대표 청산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제8대 총독에 小磯國昭. * 7월 金料奉 일파, 조선독립동맹 조직. * 11월 조선어학회 事件. 崔鉉培 등 30여명 피검 투옥됨. * 조선청년特別鍊成令 공포. * 1월 日 獨 伊 군사협정 성립. * 5월 翼贊政治會 창립. * 6월 미드웨이海戰에서 日軍 敗退. * 11월 蘇軍 스탈린그라드서 反擊 개시.

年 代	古下先生 및 東亞日報 관계사항	국내외 일반사항
1943 癸未 5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亞日報社 대표 청산위원. * 1월 주식회사 東亞日報社 청산위원회 해체되고 주식회사 東本社 설립됨. 東本社 사장에 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조선海軍特別志願兵制 실시. * 8월 徵兵制 실행. * 9월 震檀學會, 강제로 해산. * 9월 이탈리아 연합국에 항복. * 10월 美.英.蘇 三國外相 모스크바 회담. * 11월22일-27일 카이로 회담. * 11월28일 美.英.蘇 三巨頭 테헤란 회담 개최.
1944 甲申 5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本社 社長. * 가을, 薛義植을 통하여 카이로선언의 내용을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學兵制 실시. * 3월 임정국무위원 개선, 主席에 金九, 副主席에 金奎植. * 7월 일본 東條內閣 總辭退, 小磯.米內 協力內閣 성립. * 8월 파리의 獨軍 항복함. * 11월 B-29기 北九州와 동경폭격. * 11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4選.
1945 乙酉 5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本社 社長. * 5월경 張徹壽를 통하여 歐美側 動向을 자세히 들음. * 8월10-15일 총독부, 전후 4차에 걸쳐 정권인수를 교섭해 왔으나 不應 * 8월15일 日皇 항복 방송, 日帝侵略으로부터 해방됨. * 8월17일 呂運亨의 '建準'협조 요청에 대하여 海外亡命先輩들과의 合體를 역설코 訣別. * 9월7일 '國民大會準備會' 조직. * 9월9일 하지 美軍司令官과 첫 會談. * 9월16일 韓國民主黨 결성. * 11월중순 李承晩과 國民總動員의 方法을 협의. * 11월24일 金俊淵과 함께 臨政要人을 첫 禮訪. * 11월하순 愛國志士後援會 결성. * 12월1일 東亞日報 重刊. 社長(제8대)에 취임. 主幹 겸 편집인에 薛義植, 편집국장 高在旭, 총무국장 金東燮, 발행인 金 영업국장에 金勝文, 공장장 겸 인쇄인에 李彦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臨政, 일본과 독일에 대하여 宣戰포고. * 7월 美.英.蘇 三國巨頭, 포츠담선언 발표. * 2월 美軍, 유항도 상륙, 日軍 전멸. * 4월 일본 鈴木 內閣 성립. * 5월 獨軍 항복. * 6월 오키나와 일본군 전멸. * 8월 일본 廣島 原爆투하. 長崎에도 투하. * 8월9일 蘇軍, 북한에 진격 개시. * 8월 15일 일본 항복, 태평양 전쟁 종결. * 8월15일 呂運亨, 朝鮮建國準備委員會를 조직. * 9월2일 38선 분할 점령 공표, 以北엔 蘇軍이, 以南에는 美軍이 進駐한 것을 뜻함. * 9월6일 '建準', 이른바 '朝鮮人民共和國'을 날조. * 9월7일 美軍 南韓에 進駐. * 11월16일 李承晩 미국서 환국. * 11월22일 金九 등 臨政要人들 重慶서 환국.

年 代	古下先生 및 東亞日報 관계사항	국내외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28일 託治問題로 아놀드 美軍政 長官과 會談코 反託示威의 정당성을 강조. * 12월28일-29일 臨政委員들과의 회담에 反託의 방법문제를 논의. * 12월30일 상오6시, 韓賢宇.劉根培 등 兇漢 6명의 狙擊으로 서울 苑西洞 自宅에서 長逝함. 	* 12월27일 모스크바 三相會議, 韓國의 5년간 託治를 발표.
1946 丙戌 57세	* 1월5일 서울外部 忘憂里에 安葬	
1966 - 67	* 1966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산43-2번지 芝香山 기슭에 천장하고 1967년 10월 20일 爲堂 鄭寅普의 한문비석을 한글로 번역한 國文碑石을 추가하여 건립 제막. (遷葬推進委員長 崔斗善).	
1983	* 1983년9월23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능동 소재 어린이대공원에 고하 동상을 건립하여 제막함. (建立委員長 兪鎭午).	
1988	*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서울특별시 동작동 소재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 옮겨 모시기로 결정, 선생의 98회 탄신일에 약 1주 앞선 1988년 5월 3일 천묘장의 의식을 거행함. (遷墓葬儀委員長 尹潛善)	
1994	古下 宋鎭禹先生기념사업회가 재단법인으로 재설립되어 매년 추모활동을 거행하고 있음.	
1997	12월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됨.	

□